2020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秋季聯合學術大會

사회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

2020.11.21.(토)
09:00~18:00

| 장 소 |

- 발 표 자 : 현장(부산외국어대학교 D트리니티홀), 온라인(Zoom)
- 일반참가자: Youtube

主催 대한중국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인문학회, 중한연구학회, 한국중국문화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언어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한국중문학회, 한국중어중문학회

主催 한국중어중문학회, 대한중국학회

後援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한국연구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2020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秋季聯合學術大會

사회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

- 일시 : 2020년 11월 21일(토) 09:00~18:00
- 장소 : 발표자_ 현장(부산외대 D트리니티홀), 온라인(Zoom)
  일반참가자_ Youtube

- 주최 : 대한중국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인문학회, 중한연구학회, 한국중국문화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언어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한국중문학회, 한국중어중문학회
- 주관 : 한국중어중문학회, 대한중국학회
- 후원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한국연구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2020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秋季聯合學術大會

사회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

‖ 일정별 세부계획 ‖

11월 21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회/토론자
1. 고전문학(1) D110		고전시문학 연구의 전제와 확장	강경구(동의대)
09:00 ~10:30	오만종(전남대)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정원호(동의과학대)
	정원호(동의과학대)	白居易 下邽시절 閑適詩 고찰	오만종(전남대)
	이경민(동아대)	宋代의 蒙學 詩歌 教材와 ≪唐賢詩範≫ 고찰	강경구(동의대)
	최석원(제주대)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정전으로서의 '唐詩'	이욱진(서울대)
2. 현대문학(1) D102		중화권 문학과 문화 연구	박민수(부산외대)
09:00 ~10:30	우강식(경북대)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박민수(부산외대)
	최병규(안동대)	영화 연지구(胭脂扣, 1987)의 남녀양성관계의 모식과 작가 이벽화(李碧華)의 애정관	송주란(부산대)
	조영현(서울여대)	리앙(李昂)의 ≪미로의 정원(迷園)≫과 反디아스포라	이보고(부경대)
3. 사회과학(1) D106		중국 사회와 정치	서석흥(부경대)
09:00 ~10:30	예동근(부경대)· 尹木子(절강사범대)	互联网使用会激发农民工群体性事件吗?	张暮辉(부산대)
	李 丹·樊 杰(부경대)	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的交流与合作课题	오혜정(부산외대)
	张暮辉(부산대)	Transboundary Fine dust and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Cooperation and Challenges	예동근(부경대)

11월 21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회/토론자
4. 언어학(1)-음운 D107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김희성(경희대)**
09:00 ~10:30	노혜정(고려대)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 - 중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현진(한국외대)
	엄지(이화여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漢語 방언 연구	김희성(경희대)
	변지원(방송대)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한국어 자료의 기여 가능성 탐색	한경호(성균관대)
5. 중국어문법(1) D116		**중국어 문법 연구의 새로운 모색**	**임소정(한밭대)**
09:00 ~10:30	김종찬(안동대)	"有關"詞性、詞義新探	이영희(동의대)
	于 鵬(성균관대)	淺析網絡語境下的"析字"表意現象	이계정(수원대)
	이운재(서울대)	현대중국어 'VV看'의 주관화와 화용론적 분석	이아형(부산외대)
	정혜인(원광대)	표준중국어 관계절 내 차등 비교 범주의 전치사 좌초 회피 현상	문유미(전남대)
6. 중국어교육(1) D119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장은영(한국외대)**
09:00 ~10:30	이선희 (사이버한국외대)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교수설계	장은영(한국외대)
	김 웅(대구중)	대만해협 양안의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 비교 분석	이혜정(경북대)
	송지현(안양대)	중국어 교육, '세 가지 백 개' 프로젝트	한희창(한양대)
	홍연옥(세종대)	한국어 동철동음 동사의 한중 신경망기계번역 고찰	박민준(덕성여대)
10:30 ~10:40	휴식		
개막식 D110			사회: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10:40 ~11:00	개회사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부산외대) 나민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한국외대)	
	환영사	김홍구 (부산외대 총장)	
	축사	力 洪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참사)	
회장단 패널 토론 D110			사회: 정소영 (한국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 광운대)
11:00 ~11:50	사회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 진행: 나민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한국외대) 강경구 (前 대한중국학회장, 동의대) 강혜근 (한국중국문화학회, 충남대) 박정구 (前 한국중국언어학회장, 서울대)		

11월 21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회/토론자
	배재석 (한국중국언어학회, 경희대) 송진영 (한국중국소설학회, 수원대) 심소희 (중국어문학회, 이화여대) 오만종 (중국인문학회, 전남대) 우재호 (영남중국어문학회, 영남대) 이영호 (한국중문학회, 제주대) 이욱연 (중국어문연구회, 서강대) 이창숙 (한국중국어문학회, 서울대) 郑殿辉 (중한연구학회, 성결대)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부산외대)		
11:50 ~13:00	중식		
13:00 ~13:35	**기조강연 1** **D110**	강경구 (동의대) 『서유기』의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해석 - 雙叉嶺과 兩界山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회: 안성재 (한국중어중문학회 총무이사, 인천대)
13:35 ~14:10	**기조강연 2** **D110**	박정구 (서울대)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	
14:10 ~14:20	휴식		
7. 고전문학(2) D110		**고전서사 연구의 확장과 문화적 접근**	**송정화(이화여대)**
14:20 ~15:50	안희진(단국대)	영혼의 교체 -『太平廣記』중의 '借屍還魂'을 논함	김창경(부경대)
	김 영(선문대)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필사본에 대한 再考	정민경(건국대)
	박현규(순천향대)	조선 우인이 제공한 청 葉志詵의 詩帖과 金石文 고찰	이은진(가천대)
	정선경(이화여대)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이연희(서울여대)
8. 현대문학(2) D102		**근 · 현대문학 연구**	**이보고(부경대)**
14:20 ~15:50	闫真真 (平顶山学院)	"文学通国学之邮"——钱基博的文学观	김정숙(울산대)
	한지연(중앙대)	錢基博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語體文範』을 중심으로	김태연(서울시립대)
	김순금(청운대)	「阿Q正传」과 「马伯乐」의 풍자성에 대한 비교 연구	이현정(서울시립대)
	맹 유(경북대)	浅析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	송향경(서울대)
9. 언어학(2)-문자 D106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이지영(경성대)**
14:20 ~15:50	허선영(안산대)	包頭市 출토 흉노와당 시론	이지영(경성대)
	신세리(한국외대)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 연구	김혁(경상대)
	이광혁(호남대)	训诂原理与≪论语≫疑难词句释证	김태완(전남대)

11월 21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회/토론자
10. 언어학(3)-고대근대한어 D107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강은지(부산대)
14:20 ~15:50	윤순일(경상대)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안연진(한국외대)
	최재영·장 빈 (한국외대)	再谈元明清时期表完结的“过”	유수경(영남대)
	서지은(한국외대)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문법화	박성하(방송대)
	焦毓梅(덕성여대)	现代汉语中“很+VP”结构的再认识	이슬기(협성대)
11. 중국어교육(2) D119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정윤철(부산외대)
14:20 ~15:50	오현주(동국대)	현대중국어 客套语 교육 방안 연구	이효영(부산외대)
	이계정(수원대)	VR技術與基礎漢語教學	신미경(서울대)
	김기범(광주여대)	중국어 新HSK 난이도에 관한 비교 연구 - 4·5급 비교를 중심으로	김석영(한국교원대)
	한 일·김현태 (부경대)	西南官话与汉语普通话的相关研究 ——后缀词“门（们）”与“么”的对比	유위(고려대)
15:50 ~16:00	휴식		
12. 고전문학(3) D110		고전문헌과 문화의 교류와 연구의 지평	당윤희(건국대)
16:00 ~17:30	신원철(안양대)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김수경(공주대)
	이경훈(전북대)	燕行使臣의 異國 문화 인식 - 木山 李基敬≪飮氷行程曆≫의 유구국 기록을 중심으로-	정동보(순천대)
	蘇 航(영남대)	明清日用类书变迁考——以陈继儒系统为中心	박종연(인제대)
	胡君暉(경북대)	≪六祖壇經≫「三十六對法」的語言特色	박명진(영남대)
13. 현대문학(3) D102		번역과 문화콘텐츠	고혜림(부산대)
16:00 ~17:30	金英姬 (한국조지메이슨대)	≪道德经≫英韩译文比较	吕晓琳(부산대)
	左维刚 (平顶山学院)	翻译、传教与本土化：晚清小说≪五更钟≫研究	강설금 (서울시립대)
	郑殿辉(성결대)	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女真记忆”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形象研究	梁楠(동아대)
	이지윤(한림대)	한류4시기, 중국진출을 위한 콘텐츠 분석 연구	권도경(부산대)

11월 21일(토)		발 표 및 내 용	사회/토론자
14. 언어학(4)-성운·훈고 D106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구현아(용인대)**
16:00 ~17:30	왕옥지(동명대)	明, 淸代 운서의 성격과 가치	박규정(부산외대)
	박규정(부산외대)	방언 내부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난창 방언(南昌话)을 대상으로	왕옥지(동명대)
15. 언어학(5)-의미화용 D107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김정필(경상대)**
16:00 ~17:30	신근영(상해외대)	중·한 공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대조 연구	진현(영남대)
	기유미(부산외대)	중국 정부 공문서를 통해 본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형식과 의미	곽현숙(경성대)
16. 중국어교육(3) D119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손정애(방송대)**
16:00 ~17:30	독해봉(동명대)	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设计	손정애(방송대)
	이소현(부산외대)	특수 목적 중국어(CSP)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읽기 학습 모형 제안	오현주(동국대)
	孙 贞(성결대)	对韩汉语教材中的语气词“呢”	신수영(가천대)
17:30 ~17:40	**연구윤리교육 D110**		**최재영 (한국중어중문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외대)**
폐회식 및 총회 D110			
17:40 ~17:45	**우수논문 시상**		**사회: 허선영 (한국중어중문학회 국제협력위원장, 안산대)**
17:45 ~18:00	폐회사	이영호 (한국중문학회 회장, 제주대) 오만종 (중국인문학회 회장, 전남대)	**사회: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 ‖ 자료집 목차 ‖ ▸

◘ ····· **축사** ····· 力 洪 ■ 1

◘ ····· **기조강연** ·····

- 『서유기』의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해석
  – 雙叉嶺과 兩界山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 강경구 ■ 5
-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 ····· 박정구 ■ 17

◘ ····· **고전문학(1)** _ 고전시문학 연구의 전제와 확장 ·····

-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 오만종 ■ 25
- 白居易 下邽시절 閑適詩 고찰 ····· 정원호 ■ 31
- 宋代의 蒙學 詩歌 敎材와 ≪唐賢詩範≫고찰 ····· 이경민 ■ 37
-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정전으로서의 '唐詩' ····· 최석원 ■ 43

◘ ····· **현대문학(1)** _ 중화권 문학과 문화 연구 ·····

-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 우강식 ■ 51
- 영화 연지구(胭脂扣, 1987)의 남녀양성관계의 모식과 작가 이벽화(李碧華)의 애정관 ····· 최병규 ■ 59
- 리앙(李昂)의 ≪미로의 정원(迷園)≫과 反 디아스포라 ····· 趙映顯 ■ 65

◘ ····· **사회과학(1)** _ 중국 사회와 정치 ·····

- 互联网使用会激发农民工群体性事件吗？ ····· 예동근・尹木子 ■ 73
- 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的交流与合作课题 ····· 李 丹・樊 杰 ■ 81
- Transboundary Fine Dust and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Cooperation and Future Challenges ····· 张暮辉 ■ 87

◘ ····· **언어학(1)–음운** _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

-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
  – 중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 노혜정 ■ 93
-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漢語 방언 연구 ····· 엄 지 ■ 99
-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한국어 자료의 기여 가능성 탐색 ····· 변지원 ■ 105

중국어문법(1) _ 중국어 문법 연구의 새로운 모색

- “有關”詞性, 詞義新探 …… 金鐘讚 ■ 111
- 淺析網絡語境下的“析字”表意現象 …… 于 鹏 ■ 117
- 현대중국어 ‘VV看’의 주관화와 화용론적 분석 …… 이운재 ■ 125
- 표준중국어 관계절 내 차등 비교 범주의 전치사 좌초 회피 현상 …… 정혜인 ■ 131

중국어교육(1) _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교수설계 …… 이선희 ■ 141
- 대만해협 양안의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 비교 분석 …… 김 웅 ■ 149
- 중국어 교육, ‘세 가지 백 개’ 프로젝트 …… 송지현 ■ 155
- 한국어 동철동음 동사의 한중 신경망기계번역 고찰 …… 홍연옥 ■ 159

고전문학(2) _ 고전서사 연구의 확장과 문화적 접근

- 영혼의 교체 -『太平廣記』중의 ‘借屍還魂’을 논함 …… 안희진 ■ 167
-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필사본에 대한 再考 …… 김 영 ■ 175
- 조선 우인이 제공한 청 葉志詵의 詩帖과 金石文 고찰 …… 朴現圭 ■ 181
-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 정선경 ■ 187

현대문학(2) _ 근·현대문학 연구

- “文学通国学之邮”——钱基博的文学观 …… 闫真真 ■ 195
- 錢基博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語體文範』을 중심으로 …… 한지연 ■ 199
- 「阿Q正傳」과 「馬伯樂」의 풍자성에 대한 비교 연구 …… 김순금 ■ 205
- 浅析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 …… 孟 维 ■ 213

언어학(2)-문자 _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 包頭市 출토 흉노와당 시론 …… 허선영 ■ 221
-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 연구 …… 신세리 ■ 225
- 训诂原理与≪论语≫疑难词句释证 …… 李光斓 ■ 231

언어학(3)-고대근대한어 _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 윤순일 ■ 237
- 再谈元明清时期表完结的“过” …… 崔宰荣·张 斌 ■ 245
-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문법화 …… 서지은 ■ 253
- 现代汉语中“很+VP”结构的再认识 …… 焦毓梅 ■ 259

중국어교육(2) _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 현대중국어 客套语 교육 방안 연구 ····· 오현주 ■ 269
- VR技術與基礎漢語教學 ····· 李繼征・隋雨竹 ■ 275
- 중국어 新HSK 난이도에 관한 비교 연구
  - 4 · 5급 비교를 중심으로 ····· 김기범 ■ 281
- 西南官话与汉语普通话的相关研究
  —— 后缀词"门（们）"与"么"的对比 ····· 韩 一・金炫兑 ■ 287

고전문학(3) _ 고전문헌과 문화의 교류와 연구의 지평

-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 신원철 ■ 293
- 燕行使臣의 異國 문화 인식
  - 木山 李基敬≪飮氷行程曆≫의 유구국 기록을 중심으로 ····· 이경훈 ■ 299
- 明清日用类书变迁考
  —— 以陈继儒系统为中心 ····· 蘇 航 ■ 307
- ≪六祖壇經≫「三十六對法」的語言特色 ····· 胡君暉 ■ 315

현대문학(3) _ 번역과 문화콘텐츠

- ≪道德经≫英韩译文比较 ····· 金英姬 ■ 323
- 翻译、传教与本土化：晚清小说≪五更钟≫研究 ····· 左维刚 ■ 329
- 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女真记忆"
  ——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形象研究 ····· 鄭殿輝 ■ 335
- 한류4시기, 중국진출을 위한 콘텐츠 분석 연구 ····· 이지윤 ■ 339

언어학(4)–성운 · 훈고 _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 明, 清代 운서의 성격과 가치 ····· 왕옥지 ■ 345
- 방언 내부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난창 방언(南昌话)을 대상으로 ····· 박규정 ■ 351

언어학(5)–의미화용 _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 중・한 공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대조 연구 ····· 신근영 ■ 359
- 중국 정부 공문서를 통해 본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형식과 의미 ····· 기유미 ■ 365

중국어교육(3) _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 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设计 ····· 独海峰 ■ 375
- 특수 목적 중국어(CSP)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읽기 학습 모형 제안 ····· 이소현・한희창 ■ 381
- 对韩汉语教材中的语气词"呢" ····· 孙 贞 ■ 387

2020年度韩国中语中文学会
秋季联合学术大会参赞致辞
（11月21日10时40分，釜山外国语大学）

力 洪*

尊敬的罗敏球会长，金洪九校长，

女士们、先生们：

大家好！很高兴在这枫林尽染的晚秋时节与各位相聚在釜山外国语大学，一同见证2020年度韩国中语中文学会秋季联合学术大会的顺利召开。首先，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向韩国中语中文学会致以最衷心的祝贺，向今天到场的所有来宾和朋友们致以最亲切的问候。

“道不远人，人无异国”，中韩两国是友好近邻，友好交往历史源远流长。建交28年来，两国政治互信、经济互融、文化互鉴，教育互通，在各领域交流与务实合作不断深化，是名副其实的战略合作伙伴，良好的中韩关系符合历史和时代大势，也是两国人民的共同愿望。2020年，面对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全球公共卫生危机，两国政府和人民以相互尊重、合作共赢为基础，同舟共济、共克时艰，抗疫合作富有成效，两国率先开通“快捷通道”并实现复工、复产、复学，不仅诠释了“好邻居金不换”的道理，也为全球抗疫积累了有益经验。

“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在这个特殊时期，韩国中语中文学会不断坚持探索中语中文教育研究可持续发展的新思维，积极为中语中文研究专家和学者提供开展学术交流与合作的宝贵平台，为韩国中语中文教育研究事业献力献策。今天，我想借此机会，向韩国中语中文学会及在座的各位专家学者表示衷心的敬意和感谢。语言文化交流不仅是中韩友好关系长远稳定发展的重要组成部分，也是两国在现实建设发展中形成共识,夯实睦邻友好民意基础，实现各领域交流与合作复苏的源动力。

“雨后地更坚”，在后疫情时代，我愿同在座的各位专家和学者一道，继续努力推动韩国中语中文教育研究事业的发展，也希望各位能够在中语中文研究领域勇于开拓，深化研究，发挥语言文化的桥梁纽带作用，为中韩两国友好关系的发展培养更多高水平语言人才，服务中韩两国的友好发展，为践行人类命运共同体理念而携手同行。

最后，衷心祝愿此次学术大会取得圆满成功，祝愿各位参会者身体安康，一切顺利。

谢谢大家。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참사

11月 21日(土) 13:00~14:10

기 조 강 연

강경구 (동의대) 『서유기』의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해석
– 雙叉嶺과 兩界山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박정구 (서울대)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

『서유기』의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해석

- 雙叉嶺과 兩界山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강경구*

1. 서론

玄奘법사의 인도유학은 유식의 주요 논서인 『瑜伽師地論』의 확보와 학습, 그리고 그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인도유학의 처음[1]과 중간[2]과 인도에 도착 직후의 분명한 의사 표현[3]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법사가 경전을 수집하여 귀국한 뒤 역경원을 세우고, 초기사업으로 가장 주력한 일[4] 역시 『유가사지론』의 번역이었다. 이 경전의 핵심은 유가 수행자가 거치는 17단계의 지위를 언급하고 있어서 일명 『十七地論』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현장법사는 유식학의 수입과 보급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므로 이후 유식을 종지로 하는 중국 법상종의 종조가 된다. 그러므로 현장법사의 서천여행을 모티프로 삼고 있는 『서유기』의 에피소드에 유식학의 사상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한다. 원래 『서유기』의 전체 구조는 장회체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각 에피소드는 자기완결성과 전후맥락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에 대해 필자는 『서유기』가 돈오점수적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5]고 정리한 바 있다. 자기완결성[돈오]을 갖는다 함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기승전결의 완결성을 갖는다는 의미이자 당면한 장애를 극복하여 여래장에 합일된다는 의미이다. 전후맥락성[점수]을 갖는다 함은 각각의 에피소드 전개가 전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자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위점차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서유기』가 현장법사의 인도 유학에 상상의 뿌리를 대고 있고, 또 에피소드 상호간에 전후맥락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유식수행의 지위[유가사지]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불교에서는 유식 외에도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소승의 성문사과(聲聞四果)[6],

---

* 동의대학교

1) 誓遊西方以問所惑, 并取十七地論以釋眾疑, 即今之瑜伽師地論也. 慧立,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T50, p.0222c)

2) 謂法師曰, 此土雜心俱舍毘婆沙等一切皆有, 學之足得, 不煩西涉受艱辛也。法師報曰, 此有瑜伽論不. 毱多曰, 何用問是邪見書乎, 真佛弟子者, 不學是也。法師初深敬之, 及聞此言, 視之猶土。報曰. 婆沙俱舍本國已有, 恨其理疎言淺, 非究竟說, 所以故來欲學大乘瑜伽論耳. 慧立,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T50, p.0222c)

3) 問法師, 從何處來. 報曰, 從支那國來, 欲依師學瑜伽論。慧立,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T50, p.0236c)

4) 삼장은 貞觀 19년에 귀국하여 황제의 명을 받아 역경원을 설치한 뒤 크고 작은 경전들을 번역하는데 역경원 설립 초기의 가장 대대적인 사업이 바로 『유가사지론』 100권의 번역이었다 이것은 정관 20년에 시작하여 22년에 완결된다.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T50, p.0254a) 참조.

5) 이 81가지 고난은 완전한 진리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점차적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에피소드는 자기완결성과 전후맥락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출발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전후맥락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 81난은 하나의 큰 원형 고리를 형성하며, 자기완결적 관점에서 보면 각 에피소드는 전체의 큰 고리에 꿰어지는 작은 원형 고리들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작은 원형 고리, 그러니까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일련의 도술시합들이 더 작은 원형 고리로 꿰어져 있다. 그것은 중국선에서 완성된 돈오선과 점수선의 도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 여정에 81난의 순차적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점수선을 수용한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고난의 극복이 곧 깨달음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돈오선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점수라는 큰 고리에 돈오라는 고리가 꿰어져 있는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강경구, 「서유기, 車遲國 도술시합의 불교적 독해」, 『중국학』, 2019.12, p.44.

6) 佛言：所謂須陀洹果、斯陀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如是四果, 諸聲聞眾, 皆能信解, 如來十號, 功德圓滿；了知正

『보살영락본업경』의 52위설[7], 『화엄경』의 41위설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중 현장을 종조로 하는 법상종에서는 유가사 17지, 유식 5위의 지위를 설정한다. 이 중 유가사 17지는 『유가사지론』에서 정리한 바 유가유식 수행자가 거치게 되는 17개의 지위[8]를 가리키는 말이고, 유식 5위는 資糧位[십주, 십행, 십회향], 加行位[십회향만심, 暖頂忍世第一法] 見道位[초지입심], 修道位[초지주심에서 십지 출심까지], 究竟位[불과]와 같이 41위설에 배대되어 수행과 설법현장에서 널리 논의된 지위설에 해당한다. 이것을 52위설에 견주어 보면 십신와 등각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십신이 십주의 초주에 포함되어 있고 등각이 십지의 출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식 5위설은 결국 대승 경전의 41위설, 혹은 52위설과 모순되는 일이 없이 반야, 화엄, 법화, 선종과 어울려 함께 논의되어온 역사를 갖는다. 송대 이후에는 선과 교는 물론 정토문 수행의 교범이 되었던 『宗鏡錄』에 유식 5위가 집중 논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유가사 17지에 대한 논의는 유식학의 시스템 안에서 무수한 개념들과 함께 논의되며 불교학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바 있으나 玄奘→窺基→慧沼→智周의 4대로 이어지던 법상종의 소멸[9]과 함께 불교의 실천현장에서 수행과 연구의 주제로 떠오르지 못한다. 『서유기』의 에피소드들이 창작되어 전파되던 元, 明 시기에는 특히 그러했다.

그러므로 『서유기』의 이해에 유식학 지위설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타 대승교리와 결합되어 함께 논의되던 유식 5위설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구체적 탐색은 서천행의 제1고난인 雙叉嶺의 고난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2. 여행자세의 확립, 資糧位 10住

서천행 81난 중 第1難인 쌍차령의 고난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삼장은 장안성을 떠나 法門寺에서 묵고(住), 鞏州城[10]에서 하룻밤을 묵고(住), 국경도시 河州衛[11] 福原寺에 이르러 하루 묵는다(住). 그리고는 새벽에 출발하여 호랑이요괴[寅將軍]의 함정에 빠지는데 호랑이요괴는 마침 찾아온 곰요괴[熊山君], 수소요괴[特處士]와 함께 그의 두 시종을 잡아먹어 버린다. 여기까지가 쌍차령 고난의 1단계로서 아직 중국변경이므로 본격적인 서천행이 시작되는 최초단계에 해당한다. 이 최초단계는 여행의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이를 유식 5위에 배대해 보자면 본격적 여행의 경비와 식량을 마련하는 단계인 資糧位에

法, 清淨流布, 無有窮盡；了知僧伽, 具足眾善, 功德圓滿；於無我理, 皆悉了達。如是信解, 淨修梵行, 具戒、定、慧、無礙解脫、解脫知見, 出世功德, 轉正法輪, 證須陀洹果, 功德具足；證斯陀含果, 功德具足；證阿那含果, 功德具足；證阿羅漢果, 功德具足。淨戒圓滿, 聖智現前, 自在安隱, 離諸熱惱, 清淨無染, 盡未來際, 無有間斷, 亦無退轉, 以方便智, 觀察一切, 通達無礙。」佛言：「比丘！如是名為聲聞四果。金總持等譯, 『佛說法乘義決定經』(T17, p.0658a)

7) 『菩薩瓔珞本業經』, 「賢聖名字品」에서는 留伽度(發心住)에서 娑伽婆伽婆佛陀(妙覺無上地)에 이르는 10住, 10行, 10迴向, 12地의 42위를 먼저 말한 뒤 그 앞 단계에 10信의 지위가 있음을 설한다. 소승의 성문4과는 10지 중 제3지 觀明炎地(수다원), 제4지 度障難勝地(사다함), 제5지 薄流現前地(아나함), 제6지 過三有遠行地(아라한)에 배대되어 있다. 그 위로 阿尼羅漢(變化生不動地)、阿那訶(慧光妙善地)、阿訶羅弗(明行足法雲地)、摩訶一和沙(無相無垢地)、娑伽婆伽婆佛陀(妙覺無上地)의 5위가 더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菩薩瓔珞本業經』「賢聖名字品」(T24, p.1011a)

8) 一者五識身相應地。二者意地。三者有尋有伺地。四者無尋唯伺地。五者無尋無伺地。六者三摩呬多地。七者非三摩呬多地。八者有心地。九者無心地。十者聞所成地。十一者思所成地。十二者修所成地。十三者聲聞地。十四者獨覺地。十五者菩薩地。十六者有餘依地。十七者無餘依地。如是略說十七。名為瑜伽師地。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T30n, p.0279a)

9) 법상종의 당나라 말 智周 이후 소멸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 유식학의 종지는 智周의 법을 계승한 신라승 智鳳과 일본승 玄坊으로 계승되어 전파되었으며 일본에서 크게 발전하게 된다. 중국에서 법상종이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성철스님은 법상의 이론을 수행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화엄종의 원융무애한 사상에 밀려났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성철, 『백일법문』(중권), p.284.

10) 鞏州城은 현재의 사천성 珙县 남쪽에 해당한다.

11) 河州衛는 현재의 臨夏 회족자치구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이 시기 삼장의 중국 내 여행은 주로 숙박하며 묵는 일[住]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량위에 포함되는 十住, 十行, 十廻向 중 십주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최초의 숙박지는 법문사로서 이곳은 漢代에 세운 진신사리탑이 있는 도량이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 진정한 경전을 구하기를 기원한 삼장의 입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부처의 진리를 담은 경전은 법신사리로서 법문사의 진신사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삼장을 맞이한 승려들은 삼장의 앞길에 있을 고난들을 걱정한다. 물은 멀고 산은 높다느니, 호랑이와 표범이 있다느니, 준령과 절벽을 넘기 어렵다느니, 독한 마물과 악한 괴물을 항복시키기 어렵다느니 하는 말들[12]이었다. 여행을 위해 노자와 양식을 준비하는 자량위의 단계에서는 무상보리가 광대하고 깊고 멀다는 말에 퇴굴심을 내는 경우, 육바라밀 등이 닦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을 내는 경우, 부처로의 완전한 깨달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을 내는 경우[13]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의 소설적 묘사이다. 이에 삼장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대중들이 그 이유를 묻자 삼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 마음이 생기면 이런저런 마군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이런저런 마군이 소멸합니다. 저는 일찍이 化生寺에서 부처님 앞에 큰 발원을 하였으니 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가면 반드시 서천에 도달하여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여 우리의 법륜을 구르게 하여 황제 폐하의 다스림이 영원히 공고하게 하고자 합니다.[14]

예문은 삼장이 만법유식의 이치에 대해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간절한 보리심을 발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삼장이 서 있는 이 자량위는 위로는 부처되기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제도를 서원하는 단계에 있지만 내적인 定慧의 힘이 부족하여 힘있는 실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주체[能取]와 대상[所取]의 공성을 깨닫지 못하여 외적인 수행에 치중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장이 자신의 여행출발지를 洪福寺가 아니라 化生寺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여행이 개인적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승이 아니라 중생교화[化生]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승적 여정을 걷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생은 외적 존재로서의 중생과 내적 번뇌로서의 중생을 함께 가리킨다. 그리고 내적 번뇌로서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말은 번뇌를 지혜로 전환하는 길을 걷겠다는 유식의 선언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적, 외적 중생구제의 길을 걷겠다는 발원이 있었으므로 그 여행이 化生寺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삼장은 이와 같이 만법유식의 대승적 이치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에 도달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번뇌와 지혜를 둘로 나누는 입장에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제자 진현장은 서천으로 가서 경전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안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살아있는 부처의 진정한 모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원을 세우나니 도중에 사찰을 만나면 향을 사르고 불상을 만나면 불상에 예배할 것이며 탑을 만나면 탑을 청소하겠습니다. 오로지 원컨대 부처님께서 연민과 자비로써 일찍 장육존 금색신을 드러내어 진짜 경전을 내려주어 동녘 땅에 전해지게 하소서.[15]

---

12) 有的說水遠山高，有的說路多虎 豹;有的說峻嶺陡崖難度，有的說毒魔惡怪難降。서유기, 제13회

13) 此位二障雖未伏除，修勝行時有三退屈，而能三事練磨其心，於所證修勇猛不退。一聞無上正等菩提廣大深遠心便退屈，引他已證大菩提者，練磨自心勇猛不退。二聞施等波羅蜜多甚難可修心便退屈，省己意樂能修施等，練磨自心勇猛不退。三聞諸佛圓滿轉依極難可證心便退屈。玄奘譯,『成唯識論』(T31，p.0049a)

14) 心生，種種魔生；心滅，種種魔滅。我弟子曾在化生寺對佛說下洪誓大願，不由我不盡此心。這一去，定要到西天，見佛求經，使我們法輪回轉，願聖主皇圖永固。『西遊記』(第13回)

15) 弟子陳玄奘，前往西天取經，但肉眼愚迷，不識活　佛真形。今願立誓：路中逢廟燒香，遇佛拜佛，遇塔掃塔。但願我佛慈

유식의 기본 이치는 모든 모양으로 나타난 현상이 예외없이 부처의식의 드러남임을 밝히는 데 있다. 그런데 삼장은 아직 유식의 이치를 몸소 실증하지 못해 사찰, 불상, 탑이라는 특별한 모양에서 부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서원은 공주성, 하주위로 나아가면서 견고해져 가지만 여전히 그것은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보는 분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유식에서 말하는 자량위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상황을 「唯識三十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진정한 수행의 의식이 일어나기 전[乃至未起識],
> 유식의 뛰어난 진리성에 머물기를 구하지만[求住唯識性].
>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습기의 힘을[於二取隨眠],
> 아직 항복소멸시키지 못했네[猶未能伏滅].16)

그러니까 현재 삼장은 주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能取]이 강하고, 이곳이 아닌 서천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와 부처님이라 불리는 특별한 모양이 있다는 생각[所取]에 빠져 있다. 그래서 속히 성취하려는 조급증이 일어나 날이 밝기도 전에 길을 출발하게 되고, 그 결과 호랑이 요괴의 부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들을 잡은 호랑이 요괴[寅將軍]가 향연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곰 요괴[熊山君)와 수소 요괴[特處士]가 찾아와 향연에 참가하며 하는 인사말이 의미심장하다.

> 곰: 인장군(寅將軍)께서 항상 뜻대로 되시니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 수소: 인장군께서 풍채가 여전하시니 기쁜 경사입니다.
> 호랑이 마왕: 두 분께서는 요즘 어떠신지요?
> 곰: 그저 본분을 지킬 뿐입니다.
> 수소: 그저 때를 따를 뿐입니다.17)

이러한 수작이 오간 뒤 삼장의 시종 둘을 잡아먹는데 머리와 심장과 간은 곰과 수소가 먹고, 마왕인 호랑이 요괴는 팔과 다리를 먹으며, 나머지 뼈와 고기는 부하 요괴들에게 나눠준다. 이들은 누구인가? 먼저 곰 요괴와 수소 요괴를 살펴보자.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밝히는 인사말을 하는데, 곰 요괴는 본분을 지킬 뿐[惟守素耳]이라고 자신의 근황을 소개한다. 이 곰은 시를 통해 묘사된 것처럼 '푸른 나무를 잡아 꺾을 수 있고, 추위가 오면 그것을 잘 안다[綠樹能攀折, 知寒善諭時]'. 봄이 되면 나타나고 겨울이 되면 굴에 숨는다는 것이 '본분을 지킬 뿐'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푸른 나무를 잡아 꺾는 것은 자아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일이고, 겨울에 잠을 자는 일은 의식의 명료성을 상실하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라는 주체를 세우는 일[能取]에 대한 형상화인 동시에 유위적 노력에 지쳐서 혼침에 빠지게 되는 일에 대한 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일과 혼침은 서로 통한다. 이 곰 요괴는 시종의 머리를 자기 몫으로 먹는다. 머리가 없으면 밝은 관찰과 자각도 없다. 이 역시 혼침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수소는 오직 때를 따를 뿐[惟隨時耳]이라고 자기 근황을 소개한다. 시에서는 '성품을 길들이면 푸른 옷 입은 여인네처럼 얌전하고, 달리거나 걷거나 늘상 느리고 머뭇거린다[性服青衣稳, 蹄步多遲滞]'고 묘사하고 있다. 푸른 옷 입은 여인네[青衣]는 전통 희곡의 여주인공[正旦]이 푸른 옷을 입고 얌전한 성격을 연기하는 것에 푸른 소를 비유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노자가 탄 푸른 소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노자가 탄 푸른 소는 이마의 정 중간에 외뿔이 난 푸른 소[板角青牛]로서 암소였지만, 이 푸른 소는

悲, 早現丈六金身, 賜真經, 留傳東土。서유기, 제13회.

16) 世親造, 玄奘譯, 『唯識三十論頌』(T31, p.0061b)

17) 熊山君道, 寅將軍一向得意, 可賀, 可賀。特處士道, 寅將軍丰姿勝常, 真可喜, 真可喜。魔王道, 二公連日如何？ 山君道, 惟守素耳。處士道, 惟隨時耳。三個敘罷, 各坐談笑。『西遊記』(第13回)

두 뿔이 높이 난 수소[嵯峨双角冠]이다. 두 뿔이 났으므로 주체와 대상을 둘로 나누는 이원분별에 머물러 있는 상태[18]이다.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외뿔소와 달리 두 뿔이 나 있으므로 이쪽저쪽을 오가느라 언제나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순종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이 수소는 이원분별의 뿔을 휘두르며 어느 곳으로 날뛸지 모르는 존재이자 언제 어떤 성질을 부릴지 몰라 불안한 존재이다. 주체의 상대가 되는 대상[所取]을 세웠다는 점에서 두 뿔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소이다. 이것은 도거(掉擧)와 산란의 상태에 대한 형상화로 이해된다. 그래서 수소는 자기 몫으로 심장과 간을 먹는다. 심장과 간이 없으므로 내면적 안정과 실속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도거와 산란의 상태를 길들여지지 않고 날뛰기를 반복하는 수소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군[寅將軍], 혹은 마왕(魔王)으로 표현되는 호랑이 요괴는 무엇인가? 시에서는 호랑이 요괴에 대해 동해 황공(黃公)도 두려워할 남산의 이마 흰 호랑이[東海黃公惧, 南山白額王]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해 황공(黃公)은 호랑이와 연관이 깊은 인물로서 『西京雜記』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한다.

> 내가 아는 이 중에 鞠道龍이라는 사람이 있어 환술을 잘 했는데 나에게 이런 옛날이야기를 해주었다. 동해에 사는 黃公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젊어서 술법을 하여 독사를 제압하고 호랑이를 다루었다. 赤金刀를 차고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일어서서 운무를 일으키고 앉아서 산과 강을 만들었다. 노쇠하게 되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음주가 과도하여 다시는 술법을 쓰지 못하였다. 진나라 말에 흰 호랑이가 동해에서 나타났는데 황공은 적도를 들고 가서 그것을 무찌르고자 하였으나 술법이 통하지 않아 마침내 호랑이에게 죽고 말았다.[19]

평소 독사와 맹호를 사냥하던 황공이 백호에게는 도술이 통하지 않아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가져온 호랑이 형상이 바로 이마가 흰 호랑이다. 이마 흰 호랑이 앞에서 황공의 모든 도술은 통하지 않는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모든 사량계교와 방법이 끊어진 자리를 가리킨다. 또한 그것은 곰과 수소로 형상화된 주체[能取]와 대상[所取]이라는 두 손님이 들락거리는 곳이다. 일체의 사량계교가 끊어져 있으면서 미세한 분별인 見分과 相分이 일어나는 곳은 아뢰야식밖에 없다. 아뢰야식은 깊은 심층의식으로서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자리이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바로 여래장이 된다. 유식의 수행이란 이 아뢰야식을 여래장의 대원경지(大圓鏡智)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삼장은 모든 요마의 출발지이자 깨달음의 입구인 아뢰야식을 잠깐 대면한 것인데 이것을 호랑이 중에서도 호랑이인 이마 흰 호랑이로 형상화한 것이다.

역대 선종어록에서는 남산의 이마 흰 호랑이[南山白額]를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고 있다. '남산의 이마 흰 호랑이를 풀어놓아, 여우나 이리, 들여우 따위를 쫓아낸다'[20]는 말이나 '남산의 이마 흰 호랑이를 좇아가 일으키며, 숲에 들어가되 풀을 움직이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21]는 표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 앞에서는 혼비백산[22]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혼비백산은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부정적 의미로 보자면 현장법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분별 차원의 유루 복덕과 유루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

18) 이 두 뿔 수소는 나중에 독각시(獨角兕) 대왕으로 다시 한번 출현하는데 그 때가 되면 이 소는 두뿔에서 외뿔로 진화해있다. 외뿔은 무위의 허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독각시는 모든 것을 공으로 빨아들이는 금강탁(金剛琢)을 무기로 쓴다. 『西遊記』(第50回) 참조.

19) 余所知有鞠道龍善為幻術, 向余說古時事：有東海人黃公, 少時為術, 能制蛇御虎, 佩赤金刀, 以絳繒束髮, 立興雲霧, 坐成山河。及衰老, 氣力羸憊, 飲酒過度, 不能復行其術。秦末, 有白虎見於東海, 黃公乃以赤刀往厭之。術既不行, 遂為虎所殺。劉歆, 『西京雜記』(卷三)

20) 照琮等錄, 『北京楚林禪師語錄』(J37, p.0540a)

21) 趁起南山白額虎, 入林不動草, 入水不動波. 機德等編, 『大悲妙雲禪師語錄』(J38, p.0448a)

22) 謊得個三藏魂飛魄散. 『西遊記』(第13回)

호랑이 요괴가 두 시종의 팔과 다리를 먹어버린 일이 그것을 상징한다. 다른 한편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분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이 성립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는 자리[言語道斷, 非思量處]를 맞대면하게 된 차원을 가리킨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날이 밝을 무렵 요괴들이 저절로 물러가고 삼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 태백금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보따리 두 개와 말까지 찾아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별과 불이, 유루와 무루, 유위와 무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뜻에서 이곳은 쌍차령(雙叉嶺)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유기』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삼장이 서천여행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고난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처와 해결의 과정을 갖는다. 이 최초의 고난도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난 속성심이 원인으로 제시되어 그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요괴들이 저절로 물러갔기 때문이다. 왜 요괴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태백금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는 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먼저 왜 요괴들이 저절로 사라지는가? 최초의 고난이 일어난 이곳은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맡김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쌍차령이다. 이 고난은 유위적 노력의 분명한 한계와 그에 대한 삼장의 자각과 무력감을 내용으로 한다. 삼장은 이곳에서 중국이라 표현된 可知의 영역을 벗어나 不可知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순간 불법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그에 바탕한 자부심의 붕괴를 체험한다. 여기에서 그의 두 시종은 분별, 유위, 可知의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던 유위적 지혜와 유위적 복덕의 형상화이다. 이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혀버린 것이다. 삼장의 자부심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무너진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바로 불가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둘 아닌 중도의 도리에 실질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해[佛日]가 떠오르는 새벽이 열린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 대상을 나누기를 멈추는 지점에서 애초의 지향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는 천연외도(天然外道)의 갈림길에 들어설 위험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삼장 역시 어리둥절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한다.[23] 이때 태백금성이 나타나 삼장을 구원해주는 것이다. 새벽의 금성, 샛별은 석가모니의 깨닫는 순간을 함께 한 별이라는 점에서 삼장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형상으로 나타날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삼장은 출발 지점에서 샛별을 만났고, 석가모니는 도착 지점에서 샛별을 만났다는 차이가 있다. 똑같이 새벽에 동쪽에 뜨는 샛별이지만 출발지인 동쪽에 있는 삼장에게 샛별은 본래의 출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쪽의 궁극적 자리에 도착한 석가모니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발시의 삼장이 만난 태백금성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보임으로써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삼장을 일깨우는가? 태백금성은 이렇게 말한다.

> 다만 그대의 본성이 원래 밝고 완전하므로 그대를 잡아먹지 못한 것이다. 나를 따라 오도록 해라. 내가 길로 데려다주겠다.[24]

여기에서 말하는 원래 밝고 완전한 본성[本性元明]은 모든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이고, 불성이며, 본래 깨달음이다. 이 본래 깨달음[本覺]을 잊지 않고 수행을 통해 그것에 합치되는 것이 대승의 길을 걷는 삼장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태백금성이 나타난 것은 새벽이었는데 자신을 '서천의 태백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태백성은 금성이 저녁의 서쪽 하늘에 있을 때의 이름이고, 아침의 동쪽 하늘에 있을 때는 啓明星으로 불린다. 그런데도 새벽에 나타난 금성이 자신을 서천의 태백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 동쪽의 본래 깨달음[本覺]과 궁극적 저 서쪽의 실제적 깨달음[始覺]이 둘이 아니라는 점, 삼장이 앞으로 본래 깨달음에 합치되는 길을 걸어 실제적인 깨달음(始覺)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23) 三藏昏昏沉沉, 也辨不得東西南北.『西遊記』(第13回)

24) 只因你的本性元明, 所以吃不得你。你跟我來, 引你上路。『西遊記』(第13回)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한편 태백금성은 삼장에게 두 개의 보따리를 찾아준다. 이 보따리는 서천 여행 내내 삼장과 함께 하는데 그것은 선정[定]과 관조지혜[慧][25]를 상징한다. 이것이 삼장의 말 등에 실리는 것은 그 깨달음의 여행을 이끄는 것이 선정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를 찾아주는 일이 있어 태백금성은 십주(十住)의 상징이 되는 법혜(法慧)보살[26]과 서로 통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쌍차령의 고난은 이후의 서천여행을 이끄는 여행자세의 확립을 완결하는 지점이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수행 자세의 확립을 마치는 지점이므로 십주출심(十住出心)이고,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이므로 십행입심(十行入心)이 된다.

3. 본격 여행을 위한 단련, 資糧位 十行

여행에 필요한 자세를 확립했다 해서, 그리고 여행준비가 완료되었다 해서, 그 여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 마음 자세를 갖추는 일과 실제 여행을 해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삼장은 태백금성의 안내를 받아 큰길에 들어설 수 있었지만, 다시 앞에는 맹수, 뒤에는 뱀, 왼쪽에는 독충, 오른쪽에는 괴수가 그를 에워싸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삼장이 하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때 鎭山太保 劉伯欽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그가 나타나자 모든 맹수와 독충들이 사라지는데 유백흠은 호랑이를 잡아 삼장을 대접해주겠다고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호랑이 고기를 잔뜩 삶아 그 앞에 내어놓는다. 삼장은 자신이 육식을 하지 않으며 4~5일쯤은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으니 계율을 깰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유백흠의 모친과 아내가 작은 솥을 가져다 기름기를 불로 태우고 거듭 씻어 채식을 차려준다. 이렇게 하여 한쪽의 유백흠은 호랑이 고기, 노루고기, 뱀고기, 여우고기, 토끼고기 등과 말린 사슴고기포를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다른 한쪽의 삼장은 채소 반찬과 기장밥을 받아놓고 겸상하여 식사를 하게 된다. 여기에 삼장이 시작한 본격적인 여행의 위한 단련의 상징들이 고리처럼 이어져 있다.

먼저 유백흠의 별명인 鎭山太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태보는 녹림의 호걸을 가리키는 말로서 깊은 산중에 살며 무술이 뛰어나 영역 내의 모든 존재를 압도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에게 어울리는 호칭이다. 鎭山은 산을 진압한다는 뜻으로서 문장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호랑이와 뱀과 독충과 괴수들은 그가 나타나면 모두 사라져 버린다. 요컨대 호랑이와 뱀 등으로 형상화된 망상과 번뇌와 잡념을 진압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앞의 장에서 삼장의 중국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여행의 출발과 진행, 그리고 호랑이 요괴의 고난이 본격적인 여행에 필요한 자세의 확립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유식의 자량위[십주, 십행, 십회향] 중 십주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에 이어 나타나는 유백흠의 존재는 본격적인 여행, 즉 십행의 단계에 해당한다. 『화엄경』「십행품」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보자.

> 그때 공덕의 숲[功德林] 위대한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아 보살의 잘 항복시키는[善伏]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가서는 시방(十方)으로 각각 만불 세계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의 밖까지 지나 만불 세계의 먼지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뵈었다.[27]

25) 『西遊記』 第14回를 보면 관음보살이 삼장에게 날뛰는 손오공의 머리를 죄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머리테(緊箍兒)와 마음을 안정시킬 주문[定心眞言], 그리고 면으로 된 두루마기를 전수하는데 삼장은 이것을 보따리에 넣는다. 여기에서 머리테는 선정, 면포로 된 두루마기는 전체를 덮는다는 의미에서 관찰지혜를 상징한다.

26) 爾時, 法慧菩薩承佛神力, 入菩薩無量方便三昧正受。入三昧已, 十方千佛世界塵數佛土之外, 各見千佛世界塵數諸佛, 是諸如來悉號法慧.「大方廣佛華嚴經菩薩十住品」,『大方廣佛華嚴經』(T09, p.0444c)

27) 爾時, 功德林菩薩摩訶薩承佛神力, 入菩薩善伏三昧。入三昧已, 十方各過萬佛世界塵數刹外, 各見萬佛世界塵數諸佛.「功德華聚菩薩十行品」,『大方廣佛華嚴經』(T09, p.0466b)

유백흠이 산중을 진압하는 호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호랑이와 뱀과 독충을 잡아 생계를 이어온 사냥꾼으로서 산중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행의 단계로 보자면 무수한 동물들에 비유되는 망상과 번뇌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론을 갖추어 활용하게 된 차원이다. 그 다양한 방법론을 『화엄경』에서는 공덕의 숲[功德林][28]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이 보살은 이렇게 공덕의 숲을 갖추었으므로 무수한 번뇌를 잘 항복시키는[善伏] 삼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산중을 진압하는 鎭山과 번뇌를 잘 항복시키는 십행 삼매인 善伏은 문자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번뇌를 상대하는 일에도 단계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삼장이 호랑이를 만나 기존에 이루었던 정신무장의 무기력함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유백흠과 같이 애써 싸워 쓰러뜨리고 그것으로 식량을 삼는 단계도 있으며, 양계산에서 풀려난 손오공과 같이 손쉽게 잡아 그것을 옷으로 걸치는 단계도 있다. 여기에서는 얼룩무늬 호랑이와 경천동지의 싸움을 벌여 생계를 이어가는 유백흠과 같이 애써서 번뇌를 항복시키는 육식의 단계와 삼장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인연으로 찾아오는 것을 받아드는 채식의 단계가 대비되어 있다. 유백흠의 육식과 삼장의 채식이 겸상을 하였다는 것은 현재 단계의 여행이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맡김이 공존하는 쌍차령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실 이 육식과 채식의 겸상은 불교사적으로 유명한 육조혜능의 전기적 사실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이후 조계에 도착한 뒤에도 나쁜 사람들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四會에서 사냥꾼의 무리에 약 15년간 섞여 지내면서 재난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사냥꾼들에게 상황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법을 설하곤 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항상 나에게 그물을 지키도록 했는데 매번 살아 있는 동물들이 보이면 모두 풀어 주곤 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고기를 삶는 솥의 가장자리에 채소를 얹어 익혔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고기 옆의 채소[肉邊菜]를 먹고 있다'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29]

육조혜능이 오조홍인에게 깨달음의 징표로 의발을 전수받아 남방으로 내려간 뒤 15년간의 은둔생활을 할 때 사냥꾼 무리에 섞여 살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당시 홀홀단신의 육조혜능은 어떻게 식사를 하였을까? 사냥꾼 무리에 섞여 살면서 고기를 삶은 솥에 채소를 익혀 먹었다는 것이다. 고기 솥에서 익힌 채소, 肉邊菜라 불리는 이것은 육식일까? 채식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 육조스님은 육식 금지의 계율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기 솥에 채소를 익혀 먹었다. 고기를 삶은 국물에 채소를 익혀 먹은 이것은 육식일까, 채식일까? 이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일부 해석가들은 육변채를 고깃국물이 닿지 않는 솥의 가장자리에서 익힌 채소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육식의 여부는 육조스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속한다. 오직 자성을 바로 보는 일을 불교의 전부로 생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전통계율에서 살생을 금하면서도 육식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출가수행자들이 걸식을 하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걸식은 인연대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나와 법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취사선택을 내려놓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육식의 여부는 부차적인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것을 체화하여 실천하고 있던 육조스님에게 육식 금지의 계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고기 옆에 채소를 익혀 먹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 육식과 채식의 공존을 두고 육조스님의 철저한 계행정신을 확인하는 입장도 있고, 불법실천에 있어서의 탄력적 태도를 발견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철저한 계행을 실천하는 입장이었다면 직접 조리해 먹거나 굶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

28) 십행위 보살의 이름은 功德林이고, 그 앞의 지위인 십주위 보살의 이름은 法慧이며, 성취한 삼매는 無量方便삼매이다. 십주위 보살에 대해서는 「菩薩十住品」, 『大方廣佛華嚴經』(T09, p.0444c) 참조.

29) 惠能後至曹溪, 又被惡人尋逐, 乃於四會, 避難獵人隊中, 凡經一十五載, 時與獵人隨宜說法. 獵人常令守網, 每見生命, 盡放之. 每至飯時, 以菜寄煮肉鍋. 或問則對曰, 但喫肉邊菜. 『六祖壇經』 [宗寶本]

었을까? 또 탄력적 태도였다면 굳이 고기를 피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양에 지배되지 않는 스님의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스님은 고기 옆에서 공양하면서 고기에 물들지 않았다.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고기를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스님이 '모양을 세우지 않는 노래[無相頌]'에서 노래한바,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을 벗어나는' 정신을 구현한 현장이었다.[30]

이와 같이 육조스님이 체험한바 육식과 채식의 겸상은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불이중도 정신을 구현한 현장이었다. 이에 비해 삼장과 유백흠의 겸상은 수행의 초기,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맡김이 공존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또한 삼장의 여행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육식과 채식의 모양에 지배되지 않는 육조혜능의 자리임을 밝히기 위한 장면이기도 하다. 어쨌든 현재 삼장은 아직 출발한지 얼마 안되는 지점에서 체력단련을 통해 진정한 여행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다. 그것은 삼장이 저녁을 마친 뒤 목격한 후원의 풍경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유백흠은 벽에 활과 화살이 걸려 있고 대들보 위에 두 장의 피비린내 나는 호랑이 가죽이 펼쳐져 있는 초당으로 안내하여 가운데 의자에 삼장을 앉게 한다. 주체의 의지를 강화하여 번뇌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한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삼장은 여기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뒤뜰로 나가는데 그곳에서는 살찐 사슴과 고라니 무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놀고 있었다. 사냥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길들여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라는 것이었다. 호랑이 가죽이 걸려 있는 피비린내 나는 초당은 삼장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망상과 그로 인한 장애와 싸워온 과거를 상징한다면 순화된 사슴과 고라니가 뛰어노는 뒤뜰의 풍경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망상이 순화되는 현재를 상징한다. 나아가 삼장이 실천하고자 하는 채식은 무위적 실천의 부분적 성취를 상징한다. 이 채식의 완성형은 인연대로 오는 것을 받아드는 걸식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삼장은 본격 여행의 과정에서 걸식에 길들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삼장은 식사로 상징된바, 사냥과 육식→목축, 육식과 채식의 공존→채식→걸식의 단계 중 목축의 단계에 있다. 삼장의 채식은 무위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위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량위 십행의 단계와 통하는 것이다.

4. 여행목적의 상기, 資糧位 十廻向

삼장이 유백흠 부친의 기일을 맞아 경전을 읽어주는 불공을 하는 장면을 기준으로 수행의 여정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된다. 삼장은 여러 경전을 읽어주는 것으로 재를 대신하는데 이 중 『금강경』, 『관음경』, 『법화경』, 『미타경』은 대표적 대승경전이지만 『度亡經』과 『孔雀經』은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중국에 유행하게 된 밀교계 경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에피소드는 티베트불교가 성행하였던 元대 이후의 불교 지형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런데 『도망경』은 삼장이 化生寺에서 설법을 하는 자리에 현신한 관세음보살이 소승경전이라고 부정하였던 경전[31]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현장법사의 번역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전이다. 그렇다면 서천여행의 총설계사인 관세음보살이 부정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되살린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말로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도망경』은 티베트불교에서 제2의 붓다로 존중하는 빠드마쌈바와의 저서로서 티베트 밀종을 상징하는 경전이다. 『공작경』 역시 티베트 밀종의 소의경전이다. 굳이 이 경전들을 들어 티베트불교를 끌어들인 것은 왜일까? 그것이야말로 여행목적을 확인하는 단계[十廻向]를 형상화한 金剛幢 보살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금강당 보살은

30) 강경구, 『평설육조단경』, 세창출판사, 2020, p.66～67.

31) 那法師在臺上念一會受生度亡經, 談一會安邦天寶篆, 又宣一會勸修功卷。這菩薩近前來, 拍著寶臺, 厲聲高叫道：那和尚, 你只會談小乘教法, 可會談大乘麼. 『西遊記』(第12回)

십회향을 상징하는 보살로서『화엄경』,「십회향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이 때 金剛幢 보살이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아 보살의 밝은 지혜[明智]삼매의 바른 수용에 들어갔다. 바른 수용에 들어가고 난 뒤 시방으로 모두 백만 부처님 국토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면서 모두 백만 부처님 국토의 미진수 부처님들을 뵈었다.[32]

금강당 보살은 이렇게 성취한 삼매를 중생구제로 돌려 지옥, 아귀, 축생, 염라왕의 처소와 같은 일체의 열악한 세계와 무량한 고난을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는 존재이다.[33] 그리고 이 십회향의 주인공인 금강당 보살은 티베트불교 금강계의 대표적 보살에 해당한다. 특히 금강당 보살은 중생들의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시켜준다는 의미에서 圓滿金剛, 복과 부귀를 성취시켜준다는 의미에서 福貴金剛으로 불리면서 많은 대중들의 귀의처가 되어 왔다. 삼장이 재를 통해 유백흠의 죽은 부친을 좋은 곳에 환생시키는 일은 금강당 보살의 공덕에 속한다. 그러니까『도망경』은 티베트 불교를 떠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티베트 불교는 금강당 보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금강당보살은 自受用身이므로 수행 당사자가 도달하여 향유하게 되는 자유와 법열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삼장의 불공으로 유백흠의 부친이 부귀한 집에 환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수행자가 금강당 보살로 형상화되는 밝은 지혜[明智)삼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금강당 보살의 지혜삼매는 전체적 여행으로 보자면 여행목적을 상기하는 일에 속한다. 그렇다면 여행목적은 무엇인가? 삼장은 일찍이 법문사에서 묵으며 그곳의 승려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여행이 化生寺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언급[34]한 일이 있다. 화생사는 중생 교화[化生]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관음보살의 다음과 같은 말과 연관되어 있다.

> 그대의 이 소승의 가르침은 죽은 자를 제도하여 뛰어넘도록 해주지 못하고, 그저 세속에 뒤섞여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뿐이다. 우리의 대승불법을 담은 경률론의 가르침은 죽은 자를 승천하게 하고 고난에 처한 이를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무량한 생명의 몸을 닦아 오고 감이 없게 할 수 있다.[35]

삼장의 여행은 바로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서 촉발된 것이므로 중생교화가 여행의 목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생에는 내적 중생과 외적 중생이 있다. 밖으로는 무수한 형상으로 나타난 저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이고, 안으로는 마음속의 중생, 즉 번뇌와 망상을 지혜정념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음계에 머물고 있는 유백흠의 부친을 삼악도로 빠지지 않도록 안내하여 부귀한 집에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은 번뇌망상의 마음을 교화하여 보리정념의 지혜로 전환하는 轉識成智의 실천이 있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식성지야말로 관세음보살이 깨우친바, '죽은 자를 제도하여 뛰어넘도록 해주는 일'에 해당한다. 소승에서는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얻고자 하며, 이 언덕을 떠나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자 한다. 이에 비해 유식은 인식기관의 인식장애를 成所作智로 전환하고, 자아집착의 인식장애를 平等性智로 전환하며, 미세분별의 균열적 인식장애를 大圓鏡智로 전환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죽

---

32) 爾時, 金剛幢菩薩承佛神力, 入菩薩明智三昧正受。入正受已, 十方各過百萬佛剎微塵數等世界之外, 各見百萬佛剎微塵數諸佛。『大方廣佛華嚴經』,「金剛幢菩薩十迴向品」(T09, p.0488a)

33) 令一切眾生永離地獄、餓鬼、畜生、閻羅王處一切惡趣, 無量眾難。『大方廣佛華嚴經』,「金剛幢菩薩十迴向品」(T09, p.0488a)

34) 我弟子曾在化生寺對佛說下洪誓大願, 不由我不盡此心。這一去, 定要到西天, 見佛求經, 使我們法輪回轉, 願聖主皇圖永固。『西遊記』(第13回)

35) 你這小乘教法, 度不得亡者超昇, 只可渾俗和光而已。我有大乘佛法三藏, 能超亡者昇天, 能度難人脫苦, 能修無量壽身, 能作無來無去。『西遊記』(第12回)

은 자[번뇌로 인한 장애]를 제도하여 뛰어넘도록 하는 일이 의미하는 바이다. 자량위[십주, 십행, 십회향] 중의 마지막 지위인 십회향에서 이러한 여행의 목적을 다시 짚어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단계가 십회향에 해당한다는 것은 兩界山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兩界山은 五行山으로 불리던 산으로서 과거 천상을 어지럽히던 손오공을 가두기 위해서 여래의 손이 변해서 된 산이다. 오행산이라는 이름은 어떤 존재도 다섯 요소의 임시적 화합일 뿐이므로 영원불멸, 지고지상의 나라는 것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갖는다. 그것이 兩界山으로 바뀐 것인데, 이로 인해 五行山과 兩界山은 의미적 연관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나와 대상이 오행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아는 일은 반야학의 관점에서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행산은 곧 양계산이다. 그런데 만법유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심도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 유식의 전체 여정에서 보면 이 산은 三賢과 十聖을 나누는 큰 경계가 된다. 양계산 자체가 하나의 경계로서 동쪽의 자량위와 서쪽의 견도위를 가르는 단계, 즉 가행위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행산에서 양계산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또한 이 양계산은 중국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에 해당하며, 진산태보의 의지력이 통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입구에 해당한다. 양계산을 앞에 두고 유백흠은 이렇게 말한다.

> 스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산은 兩界山이라 하는데 동쪽의 반은 우리 大唐의 관할지역이지만 서쪽은 달단 지역입니다. 저곳의 이리와 호랑들은 저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스님께서 혼자 가시도록 하십시오.[3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可知의 세계, 중국의 밖은 不可知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양계산은 유위와 무위, 가지와 불가지, 분별과 不二를 가르는 경계가 된다. 양계산을 넘은 직후 삼장의 제자가 된 손오공이 호랑이를 잡아 그 가죽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가 바늘을 빌려 두 조각을 꿰매어 옷으로 입는 장면[37]이 있다. 둘로 나누었다가 다시 하나로 꿰맨 이 호랑이 가죽은 둘인가? 하나인가? 이미 나누었으므로 하나라 할 수 없고, 바늘로 꿰매어 연결했으므로 둘이라 할 수 없다. 양계산 너머의 일이 분별을 내려놓고 不二를 실천하는 단계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속한다. 보살의 지위설에 있어서 십회향의 출심은 현인에서 성인의 지위로 넘어가는 경계가 된다.

그 전에 삼장은 아직 서쪽을 바라보는 동쪽 기슭에 있다. 아직 십회향의 마무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장이 손오공을 구해주기로 했을 때 손오공은 삼장에게 산의 무너짐을 대비해 동쪽으로 7~8리 넘어 이미 왔던 길을 돌아가게 한다.[38] 왜 애써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7~8리를 넘어 한참을 더 가는가?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직접 廻向이라는 용어를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에 속하고, 7~8리를 넘게 돌아갔다는 것은 10회향의 10단계 중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둘로 가르는 양계산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쪽을 가르는 경계로서 동쪽과 서쪽에 모두 속하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단계가 된다. 유식 5위로 보자면 加行位, 41위설로 보자면 십회향의 滿心에 속한다. 가행위는 정신적 준비를 하던 자량위에 비해 실제 수행을 진행하는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손오공의 500년에 걸친 식사, 양계산 정상의 옴마니반메훔 부적의 제거, 양계산을 막 벗어나 만나게 된 사나운 호랑이를 손오공이 손쉽게 제압하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6) 長老不知。此山喚做兩界山，東半邊屬我大唐所管，西半邊乃是韃靼的地界。那廂狼虎不伏我降，我卻也不能過界，你自去罷。『西遊記』(第13回)

37) 剁去了爪甲，割下頭來，割個四四方方一塊虎皮。提起來，量了一量道：「闊了些兒，一幅可作兩幅。」拿過刀來，又裁為兩幅。收起一幅，把一幅圍在腰間。路傍揪了一條葛籐，緊緊束定，遮了下體道：「師父，且去，且去。到了人家，借些針線，再縫不遲。『西遊記』(第14回)

38) 師父，你請走開些，我好　　出來，莫驚了你。伯欽聽說，領著三藏，一行人回東即走。走了五七里遠近，又聽得那猴高叫道：再走，再走。三藏又行了許遠，下了山。『西遊記』(第14回)

손오공은 오행산[=양계산]에 갇혀 있는 500년 동안 배가 고프면 쇠로 된 구슬을 먹고, 목이 마르면 구리 녹인 물을 마셨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입장이라면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참았다는 것은 齊天大聖으로서 자아제일주의에 집착하던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반야지혜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오랫 동안 나무를 비비면 열이 나다가 불꽃이 일어나는 일과 같은데 이것을 열을 내는 단계라는 뜻에서 유식에서는 가행위 중의 暖位라고 부른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인연이 오는대로 받아들이며 500년의 긴시간을 보낸 손오공의 상황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가 고프면 쇠로 된 구슬을 먹고, 목이 마르면 구리 녹인 물을 마시는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며 오는 대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자아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바른 인식과 알아차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손오공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다. 이처럼 참는다는 뜻에서 유식에서는 이것을 가행위 중의 忍位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삼장법사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금으로 쓰여진 부적[金字壓帖]을 떼는 일, 역시 분별에서 무분별지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 된다. 그 부적에는 '옴마니반메훔(唵嘛呢叭咪吽)'의 6자진언이 씌여 있었는데, 眞言은 摠持로도 표현된다. 총지는 분별에 기초한 망상을 멈추고 선악시비를 나누기 전의 일체성을 함께 받아 지닌다는 뜻이다. 역시 분별의 차원에서 무분별의 단계로 넘어가는 상징이 된다. 이것은 유식의 가행위 중 頂位에 속한다. 만법유식의 이치에 따라 자아와 대상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마치 산의 정상에 올라가 사방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일과 같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다만 이 頂位는 원래 忍位의 앞 단계에 속하는데 이야기의 전개상 손오공이 갇혀서 쇠구슬과 구릿물을 마시는 일이 삼장을 만나는 일보다 먼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순서상 뒤섞임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양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난 호랑이를 손오공이 유백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쉽게 제압하는 장면이 있다. 비록 불이중도의 이치를 깨닫지는 못하여 아직 양계산의 권역을 벗어나기 전이기는 하지만 분별적 차원, 주체적 노력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단계에 속한다. 이것을 세상의 차원에서는 제일가는 지위라는 뜻에서 世第一法位라 하며 가행위의 끝이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化生寺→弘福寺→法門寺→鞏州城→河州衛→福原寺→雙叉嶺→鎭山太保劉伯欽→兩界山[五行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유식 5위의 최초 두 단계인 資糧位와 加行位의 단계에 견주어 고찰함으로써 거기에 유식 5위의 단계를 형상화하여 설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정도면 『서유기』의 에피소드와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불교적 주제의식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도 이야기로서의 『서유기』는 불교설법으로서의 『서유기』에 그 주도적 자리를 내어줄 뜻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것은 최초의 창작의도를 넘어 새로운 상징과 비유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주제의식을 거듭 창조해가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간과 사물에 상징과 비유의 층을 입혀 비속함과 신성함의 공존을 상식화하는 중국적 상상력의 현장에서 그것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과의 관계성 규명에 치중하고 있는 중국학계의 『서유기』 연구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전혀 다른 측면에 착안하여 『서유기』와 관련된 다양한 길 중, 불교적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

박정구*

1. 들어가기

중국어는 매우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문자나 음성 체계를 차치하고 문법 체계에 대해서만 논하더라도 중국어라는 언어가 지닌 특수성은 많이 부각되어 왔다. 중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로 심지어 문법 무용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게 극단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영어나 불어 등의 인구어와 비교해보면 중국어에서 문법 규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만일 중국어 문법체계가 아주 단순하다면 이 단순한 약속 체계로써 어떻게 소기의 의사소통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언어 간의 질적 우열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적어도 가능한 유형의 언어들이 갖는 의사소통 체계의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문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중국어에서 보이는 것만이 문법규칙이 아니며 드러나지 않은 문법체계가 더 발달되어 있는 언어일 수도 있다.

언어는 형식(form)과 의미(meaning)의 짝으로 이루어진 기호(sign)의 운용을 본질로 삼고 있으며 중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한 형식과 의미의 짝은 형태소로부터 시작하여 문장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결합하여 보다 큰 일 군의 기호조합으로 확장될 수 있고, 그 확장 과정에는 인간의 인지적 추론이 그대로 투영된다.

본고는 중국어가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적 형태 수단의 사용을 절제하면서 어떻게 형식과 의미의 조합으로서의 각 구문(construction)을 효율적으로 생산,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1] 이 과정에서 중국어의 특수성이 어떻게 인간언어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언어유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주어와 주제

호모로쿠엔스로서의 인간의 언어 능력은 경험한 사태(state of affairs)를 언어부호로 코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실체의 움직이는 장면은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을 수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려면 적어도 지시체(referent)와 동작(action)을 각각 나타내는 두 개의 기호를 조합한다. 이 두 개의 기호는 모두 형식(Form)과 의미(Meaning)의 쌍이고 두 기호의 결합이 상용되어 관습화(conventionalization)되면 새로운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인 하나의 구문으로서 도식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형식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의미는 의미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게 된다.

이러한 구문에서 지시체를 나타내는 요소는 흔히 주어(subject)라고 인식되지만 언어학적으로 주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주어는 복합적 실체로서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언어마다

* 서울대학교

1) 본고의 '구문'은 관습화된 형식(혹은 도식)과 의미(혹은 기능)의 쌍을 통칭하는 것으로 Goldberg(2006)와 Traugott & Trousdale(2013)의 관점을 따른다.

그 구체적 기능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경향성은 존재한다. 일찍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주어의 속성을 상세히 분석한 Keenan(1975)의 주어 자질을 정리하면 크게 의미·화용적 자질(semantic/pragmatic property)과 형태·통사적 자질(mophological/syntactic property)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자질은 의미역 위계에서 행위자가 우선적으로 주어로 선택됨을 보여주고 화용자질은 주어가 지시적 우월성과 존재적 독립성을 가지며 진술의 대상으로서의 주제적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다. 행동자질(behavior property)은 재귀대명사나 생략된 영대명사의 통제자(controller)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통제구문에서 결속(binding)되는 영대명사로의 역할을 설명한다. 코딩자질(coding property)은 주어의 일치(agreement) 표시에 대한 적극성과 격(case) 표시에 대한 소극적 경향이 관련된다. 이 코딩 자질은 기본적으로 주어의 화용적 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사에 부가되는 일치표지는 화제를 공지시하는 대명사가 문법화한 산물이기에 주어 일치가 가장 우선되며, 주어는 가장 현저하게 인식되는 성분이기에 격 표지의 부가에는 가장 소극적인 것이다. 따라서 구문에 부가되는 형태·통사적 코딩도 기원적으로는 의미·화용적 자질에 기인한 것이며, 관습화되고 문법화되어 문법적 표지로 굳어진 것이다.

주어가 갖는 화용적 특성은 '주제(topic)'라는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주어는 진술의 대상이다. 주제의 개념이 주어의 기본 속성이라는 인식은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 통시적 기원, 언어습득, 언어유형적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Givon(1979)는 '오늘의 통사론은 어제의 화용론'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화용적 주제와 통사적 주어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Lehmann(1976)도 주어는 본질적으로 문법화된 화제이며, 화제성이 주어에서 관찰되는 이유는 주어가 주제로부터 기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함을 주장했다. 언어습득의 관점에서 Gruber(1967)는 일찍이 영어모어 아동의 언어습득 초기 단계에서 주제-평언 구조를 많이 사용하다가 점차 주어-술어 구조로 옮겨감을 주장하였고, Greenfield & Smith(1976)도 아이들의 초기 의사소통체계는 통사적이기보다 훨씬 화용적임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제-평언 구조가 인간의 본질적인 언어 표현 방식의 하나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Chao(1968)는 일찍이 "중국어의 주어는 주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주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중국어의 주술구문은 행위자(actor)-행위(action)의 관계보다 주제(topic)-평언(comment)의 관계를 나타내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가 느슨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중국어 동사의 동작 방향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Chao는 사태를 진술하는 기본 주술문형에서의 첫 번째 명사구 형식과 두 번째 동사구 형식 간에는 주제-평언의 의미관계를 가짐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인구어 분석의 행위자-행위의 의미관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간파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어와 주제에 대한 언어유형적 접근법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Li & Thompson(1976)은 세계의 언어에 대해 주어-부각성(subject prominence)와 주제-부각성(topic-prominence)이란 특성으로 유형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영어는 전자에 속하고, 중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주제-부각 언어로서의 중국어는 주제를 코딩하는 외현적 위치가 존재하고, 정보적 표지가 존재하며, 공지시 관계에 있어서 주어보다 우월성을 지닌다. 이러한 유형론적인 접근은 기존의 통사적 개념의 '주어' 중심적 관점에 대한 편협성을 수정하고 '주제'라는 화용적 역할이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더 전형적이고 중요한 기능임을 시사한다.

3. 정보구조

중국어에서 지시체를 지칭하는 형식 F1과 그의 행위를 나타내는 F2의 결합이 단순히 행위-행위자의 의미관계가 아니라 진술대상-진술의 관계, 즉 주제-평언의 관계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더 우선됨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어 문법의 범위를 통사적 자율성에만 예속시킬 것이 아니라 통사적 영역을 초월하여 생각하

기를 요구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장해야 할지를 고려하게 되고 이는 언어의 표현 형식에 투사되게 된다. 정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배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어 표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문장의 형식에 반영되는 정보의 구성 조합에 대해서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정보구조는 인간의 인지와 문장 형식 간의 사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화용론과 문장형식(형태, 통사, 운율)의 접점이기도 하다.

화자가 전달하는 신정보는 알고 있는 구정보인 전제(presupposition)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분인 초점을 더한 단언(assertion)이다. 초점이 술어에 실현되는 구조는 주어가 주제가 되는 구조로서 가장 무표적인(unmarked) 구조이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문장전체가 초점이 되는 구문이나 주어가 초점이 되는 구문은 모두 주제라는 담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활성화된 지시체의 도입이 없기 때문에 더 제한적으로 쓰이게 되는 유표적 구조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보적 관점에 근거한 무표과 유표의 대립은 일찍이 철학에서 논의된 제언문(thetic sentence)과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의 구분과도 관련된다.

중국어의 주어가 주제라는 Chao의 정의는 문장 주어의 화용적 지위가 상당히 중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정보구조가 문장의 형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문장의 형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순, 표지, 운율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몇 가지 구문의 예를 들면서, 중국어의 정보구조와 문장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1) a. 饭吃了。　　b. 我吃饭了。
(2) a. 天气好。　　b. 天气很好。
(3) a. *他真的聪明。　　b. 他真的很聪明。
(4) a. *我把房间打扫得干净。　　b. 我把房间打扫得很干净。

문(1a)에서의 '饭'은 중국어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주어'로서 주제의 자격을 가진다. 동사 앞으로 놓인 타동사의 대상은 청자에게 이미 인지된 알고 있는 지시체의 자격을 가진다. 의미상의 목적어가 전치된 문장으로 보기보다는 '吃了'라는 술어가 진술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문(2a)는 문법서에서 잘 언급되는 '대조문'으로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본질은 '대조'가 아니라 주제를 갖지 않고 전체 문장 혹은 주어가 초점으로 기능하는 유표적 구문이다. 이와 달리 (2b)에서처럼 형용사가 '很'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 부사 '很'은 일반적으로 정도 강조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강의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很'은 중요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즉 술어가 초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朴正九(2016)은 정도를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很'이 부가되는 이유는 해당 문장이 무표적 주제-평언문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이 때의 '很'은 초점표지로서 문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나 보어로 쓰이는 문장에서는 술어가 단독으로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3)과 (4)의 예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3)에서 양태부사 '真的'가 초점을 앞에 놓을 수 없고 반드시 그 뒤에 놓아야 하며, (4)의 '把'구문에서는 초점을 '把-명사구'의 뒤쪽 동사구에 두어야 한다는 함은 초점을 표시하는 '很'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의 문장형식이 형식의 배열에 있어서 정보의 안배라는 인지적 고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정보구조의 문장형식에 대한 영향력은 동일한 범주 내의 성분들의 정보적 기능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 범주에 속하는 여러 표지들이 정보의 안배에 따른 분포적 차이를 보여준다.

(5) a. 昨天*回来了*。　　b. *昨天*回来的。
(6) a. 他在看书。　　b. 他看着书?(呢)。
(7) a. 我吃饭了。　　b. 我吃了饭?(了)。

(5a)에서 문장의 초점은 '回来了'에 놓이지만, (5b)에서는 '昨天'에 놓이고 이는 강세로도 실현된다. '了'와 '的'는 모두 기실현된 사태에 쓰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정보구조에 사용된다. (6a)와 (6b)의 '在'와 '着'는 모두 진행(progressive)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후자는 문말조사를 부가해야 문장을 종결할 수 있다. 이는 전자가 전경적 정보에 관여하지만, 후자는 배경적 정보를 나타낸다는 정보 안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7a)의 완료상(perfect) '了1'과 (7b)의 완정상(perfective)의 기능적 차이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도상성

술어 내의 동사는 다양한 의미역의 논항과 결합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동목구조는 후치된 논항이 대상이거나 종점인 경우이다. 타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어떤 언어에서나 쉽게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고, 종점 논항도 행위의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장소이므로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문 (8)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는 별도의 격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인지와 언어 형식 간의 도상적(iconic) 관계를 통해서 그 형식의 배열만으로도 의미관계를 실현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그 외의 다양한 의미역의 논항들이 동사에 후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위자논항과 도구논항이 동사 뒤에 오는 예를 들어 보자.

(8) a. 我吃饭了。　　b. 他去过北京。
(9) a. 来客人了。　　b. 桌子上{有/放着}一本词典。
(10) a. 洗冷水　　b. 喝大杯

예문 (9)와 같이 행위자가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구문은 사물의 존재, 출현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시문(presentative sentence)이다. (9a)와 같이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구문은 (9b)와 같이 '장소/시간 + 존재동사 + 존재물'이라는 도식의 구문에서 동태성을 획득하여 환유적으로 상속된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경제성을 극도로 추구한다. 심적 표상의 무한함에 비해 언어 형식과 그의 조합은 유한하다. 하나의 구문이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 그의 의미와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중국어의 주된 책략 중의 하나이다. 예문 (10)은 소위 '도구' 논항이 격 표지를 동반하지 않고 직접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10b)의 동사 뒤의 논항은 환유적으로 용기 속에 있는 대상을 지시함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10a)에서의 논항은 성격이 다르다. 동사와 명사구의 두 형식이 전형적인 방식으로 병치되지 않을 때, 만일 추론된 의미 관계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맥락의 도움을 받아서 청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면 가시적 기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두 형식 간의 관계적 의미가 구문으로 수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대상이나 종점 등의 전형적 논항 외의 비전형적 논항을 동사의 지배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어는 경제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한 정보구조적 제약을 받는데, 이러한 구문들에서 후치 논항들은 항상 초점이 되어야 하고 실현되지 않은 논항은 전제로서 함축된다. 이는 무표적으로 중국어가 술어가 초점이어야 하고 타동구문에서는 문말의 논항 성분이 초점 영역에 항상 위치한다는 무표적 정보구조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술어성 성분들 간의 어순과 관련한 인지적 도상성에 대해서는 소위 '시간순서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즉, 예문 (11-12)와 (13-15)의 각 (a)에서 보듯이 두 개의 술어성 성분은 반드시 인지적 시간 순서로 배열된다는 것이 중국어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어순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도상성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은 구문도 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문 (13-15) 중의 가 (b)는 더 이상 (a)처럼 시간적 도상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11) a. 他高兴地出去玩了。　　b. 他玩得很高兴。
(12) a. 他想回家吃饭。　　b. 他吃完饭就回家了
(13) a. 跑-进去　　b. 住-进去
(14) a. 去-买菜　　b. 买菜-去
(15) a. 吃-不了　　b. 去-不了

(13b)에서 방향보어는 동사 뒤의 고정된 위치에서 방향의 의미를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성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14b)의 동사 구 뒤의 이동동사 '去'와 '来'도 직시적 방향성만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문법화하여 심지어 '去买菜去'에서처럼 어휘적 동사 '去'와의 공기도 허용한다. (15)의 '了'는 보어로서 선행하는 동사와의 병치를 통해 동작 후의 대상의 '소모'나 동작의 '완결'이라는 결과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결과가 없으면 행위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귀류적(abductive) 추론을 통해서 동작의 결과만이 아니라 동작 자체의 부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도상적 어순을 극도로 추구하는 중국어에서도 이처럼 비도상적 구문이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인지적 사유방식을 언어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형식의 조합에 추론에 의한 의미 굴절이 발생하고 빈도의 증가로 관습화가 이루어지면 언어 외적 인지적 동력을 차단하고 언어 내적 규칙체계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5. 나오면서

언어 형식의 배열을 제어하는 힘의 근원은 인간의 인지적 사유에서 온다. 지시체나 사태를 관찰하고 그에 대한 심적 표상을 형성한 후 이를 언어의 형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 언어활동의 기반이다. 언어 기호, 혹은 구문 [[F1]↔[M1]]과 [[F2]↔[M2]]가 결합하면 형식은 [F1]+[F2]로 실현되지만 의미는 [M1]+[M2]로만 구성되지 않고,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유, 은유적 추론을 통한 추가적인 의미와 화용적 의미가 함께 개입된다.[2] 만일 [F1]+[F2]가 상반된 어순인 [F2]+[F1]라는 형식적 결합체와 동일한 명제적 의미를 나타낸다면 어순의 차이는 화용적 의미의 차이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어가 문법이 간단하다는 것은 문법의 범위를 단순히 형식표지로 나타내는 언어 내적 규칙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언어 외적 원리와 화용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문장 내에서 형식적 표지를 많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인지적 도상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책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언어체계는 수없이 많은 개념과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밀하고도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언어가 단순한 문법적 형식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일 수 없으며, 다른 차원의 책략을 통해서 언어 사유의 다양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 체계는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영역에서 그 복잡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Bisang(2014)은 언어의 복잡성은 언어에 따라 드러날(overt) 수도 있고 숨겨져(hidden)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언어 이론적 접근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가시적 언어 형식을 기반으로 진행

2) Traugott & Trousdale(2013)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화살표는 형식과 의미의 링크를, 바깥쪽 대괄호는 형식-의미의 쌍이 관습화된 단위임을 나타낸다.

되었지만 언어의 보이지 않은 면에 존재하는 언어의 복잡성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적 체계 내에서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막론하고 언어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료성(explicitness)의 추구와 경제성(economy)의 추구라는 상반된 힘이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가시적으로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진 언어는 문장 성분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기에 명료성을 제고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잉여성(redundancy)을 생산한다. 예를 들면, 주어에 주격 표지를 부가하고 동사에도 일치표지를 부가한다면 문법 관계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지만 낭비적인 언어사용이 될 것이다. 그에 반해 비가시적인 복잡성을 가진 언어는 형식적 문법 수단을 지양하고 인지적, 도상적, 화용적 원리를 따름으로써 잉여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유형적 분류가 한 언어가 오직 한 쪽 극단만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지의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한 언어의 유형적 특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유형적 차이는 한 언어와 다른 언어와의 공시적인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동일 언어의 다른 역사적 시점 간의 통시적 차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면 분석적(analytic) 특성을 가진 현대 중국어는 종합적(synthetic) 특성을 가진 고대중국어보다 더 인지적 도상성을 추구하는 언어로 변화해왔으며, 범언어적으로는 중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비가시적인 문법체계에 더 의존하여 경제성을 고도로 추구하고 있는 언어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朴正九(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 第373期.

Bisang, Walter(2014) Overt and Hidden complexity - Two Types of Complexity and Their Implications, *Poznan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Volume 50: Issue 2, De Gruyter.

Chao, Yuen-Ren(1968)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ivon, Thomas(1979) From Discourse to Syntax: Grammar as a Processing Strategy, in T. Givon, *Syntax and Semantics*, vol. 12, Academic Press, New York.

Gruber, J. S.(1967) Topicalization in Child Language. *Foundations of Language* 3.

Greenfield, P. M., & Smith J.(1976)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

Goldberg, Adele E.(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enan, Edward L.(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hmann, W. P.(1976) From Topic to Subject in Indo-European.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Traugott Elizabeth Closs & Graeme Trousdale(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University Press.

11月 21日(土) 09:00~10:30

고전문학(1)

❖ 고전시문학 연구의 전제와 확장

오만종(전남대)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정원호(동의과학대) 白居易 下邽시절 閑適詩 고찰

이경민(동아대) 宋代의 蒙學 詩歌 教材와 ≪唐賢詩範≫ 고찰

최석원(제주대)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정전으로서의 '唐詩'

고대 중국인들의 學에 대한 소론

- 선진시기 유가의 學을 중심으로

오만종*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3. 무엇을 이룰 것인가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먹으며, 피부로 느끼고 끊임없이 의식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세계를 형성시켜간다. 이러한 원초적 기능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학습능력이다. 이러한 본능적 학습능력은 인간이 말과 문자를 만들어 배움의 체계 즉 문명세계를 구축하기 이전인 先史시기의 장구한 기간동안에도 기능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과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은 아마도 말과 문자를 사용한 인간보다 그 감각기능이 훨씬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五感의 기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의 음색이나 주파수 파장의 경미한 변화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거나, 눈 앞에 펼쳐진 사물 외형의 사소한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상황을 인지해야 했다. 미각 후각 촉각 역시 외부조건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감각기능은 현대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을 것이며, 소위 현대인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말과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은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감각 기능까지도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언급이 ≪淮南子·本經訓≫에 보인다. 즉 "옛날 창힐이 문자를 만들자 하늘이 곡식비를 내리고, 귀신이 밤에 통곡하였다.(昔者蒼頡作書, 而天雨粟, 鬼夜哭.)"고 기록하고 있다. 창힐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왜 하늘에서 곡식비가 내리고 귀신이 통곡해야 하는 일인가? 아마도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에너지를 쓰게 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곡식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신적인 감각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귀신과 분리된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1] 인간은 말과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전의 원초적 인간이 자연의 생산물로 충분하였던 삶과는 사뭇 다른 인위적 삶의 방식 즉 인간의 문명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말을 사용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문자를 사용하면서 지식

* 전남대학교

1) 高誘, ≪淮南子注≫, ≪諸子集成≫第十冊, 河北人民出版社, 1986年4月, 116-117쪽. 高誘는 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힐이 처음 새 발자취의 문양을 보고 문자를 만들자, 사기와 거짓이 생겨났고, 사기와 거짓이 생겨나자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게 되어, 경작의 업을 버리고 사소한 이익을 힘쓰게 되었다. 하늘은 백성들이 장차 굶주리게 될 것을 알고 곡식비를 내린 것이다. 귀신은 문서에 의해 탄핵될까 두려워 밤에 통곡한 것이다. 鬼는 兎자로도 쓴 곳도 있으니, 토끼가 털을 취하여 붓을 만든 것을 보고, 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밤에 통곡을 한 것이다.(蒼頡始視鳥迹之文, 造書契, 則詐僞萌生. 詐僞萌生, 則去本趨末, 棄耕作之業, 而務錐刀之利. 天知其將餓, 故爲雨粟. 鬼恐爲書文所劾, 故夜哭也. 鬼或作兎, 兎恐見取豪作筆, 害及其軀, 故夜哭.)"

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인간은 축적된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각 지역의 문명은 각자의 독특한 말과 문자를 통해 그들만의 문명을 탄생시켰다. 중국의 황하문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인들은 말과 글이 다른 漢字라는 독특한 표의문자를 만들어 사유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 전에 기록된 갑골문이다. 갑골문의 기록은 점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들 사유방식의 대략적인 모습은 드러낸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기의 문헌은 아마도 ≪尙書≫, ≪周易≫, ≪詩經≫과 같은 전적으로,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문양을 대략 볼 수 있다. 이들은 후에 공자를 통해 재정리되면서 유가경전으로 편입된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이들은, 후에 공자가 유가의 사상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숙독했던 중요한 근거 서적이었다. 이런 문헌전통의 배경이 유가사상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2)]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형성된 유가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배움 즉 '學'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유가사상이 포괄하는 배움의 내용과 그 내용을 배워가는 방법 그리고 배움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지향점 혹은 이상적인 인간형 등에 대해 논술할 것이다.

2.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유가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은 무엇인가? 어떤 사상이든 추구하는 이상의 차이에 따라 그 사상체계가 달라질 것이다. 유가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도가사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呂氏春秋・孟春紀・貴公≫편의 다음 기록은 두 사상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荊 나라 사람 중에 활을 잃어버린 자가 있었는데, 찾으려 하지 않고, 荊 나라 사람이 잃어 荊 나라 사람이 얻을 것인데 굳이 찾으려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공자가 듣고서, 荊자를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담이 듣고서는 人자도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荊人有遺弓者, 而不肯索, 曰, 荊人遺之, 荊人得之, 又何索焉. 孔子聞之, 曰, 去其荊而可矣. 老聃聞之, 曰, 去其人而可矣.)" 이 기록은 유가와 도가의 사고체계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공자의 관심은 사람이 잃으면 사람이 얻게 된다는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잃고 얻음의 문제를 살피고 있다면, 老聃은 잃고(失) 얻음(得)이라는 우주자연의 근본적 규율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 섬세한 언어감각의 소유자인 이 기록의 저자는 유가와 도가의 차이를 두 단어의 유무를 통해 간단명료하게 드러낸다. 유가사상은 그 관심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제한되어 있다면, 도가사상은 우주자연의 도리에까지 그 관심의 외연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가와 도가는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인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도 극명하게 구분된다.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性과 命을 부여받는다고 여긴다. (물론 性命에 대한 이런 개념이 선진시기부터 확립된 것은 아니나 이런 생각의 씨앗은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性은 心이 주관하는 意念의 영역으로 다시 情 즉 喜・怒・哀・樂의 부분과 意(志) 즉 仁・義・禮・知의 부분으로 나뉜다. 命은 물질의 영역으로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氣로 대표되고 陰陽과 五行으로 세분된다고 여긴다. 유가의 관심은 의념의 영역인 情과 意(志)를 포괄하는 性에 있다. 유가는 性의 영역인 情(欲望)과 意・志(意念)의 수련을 통해 修身을 이루고, 이를 미루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나아갔다(推己及人). 따라서 공자

2) 유가사상의 유래에 대해 근대의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葛兆光은 ≪中國思想史≫(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年7月, 88쪽; 이등연외 역, ≪중국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일빛, 2013년3월, 337쪽, 참조)에서 章太炎, 胡適, 傅劍平, 閻步克 등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사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儒'가 은주시대에 의례를 주관하던 무(巫: 무당), 축(祝: 축관), 사(史: 사관), 종(宗: 종백) 등 문화인들에게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는 ‘愛人’의 마음을 근간으로 하는 仁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禮와 名分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의 마음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가의 관심은 인간의 命 즉 물질 영역인 氣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氣의 수련을 통해 情(欲望)과 意・志(意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嬰兒의 상태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天道와 부합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사회의 문제와 개체 생명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가는 우주・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사상체계이므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도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보다는 자연스러운 원시사회로 보았고, 인간생명의 의의 또한 사회 속에서의 가치실현에 두지 않고 생명체의 온전한 보존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이처럼 두 사상은 유가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영역과 도가의 우주자연의 도리로부터 연역하여 인간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사상체계로, 사상 형성의 초기부터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사상의 배움(學)에 대한 관심 영역 및 태도 방법 등도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우리의 관심 주제인 유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論語≫를 일별해 보면 이에 관한 기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언급들은 크게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와 문헌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두 부류의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유관자료: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述而>)
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公冶長>)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述而>)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 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子張>)
孔子之所嚴事, 於周則老子; 於衛蘧伯玉; 於齊晏平仲; 於楚老萊子; 於鄭子産; 於魯孟公綽. 數稱臧文仲・柳下惠・銅鞮伯華・介山子然, 孔子皆後之, 不並世.)”(≪史記・仲尼弟子列傳≫)

공자는 문헌전통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가? 공자 당시에 존재했던 문헌으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詩≫, ≪書≫, ≪周易≫ 그리고 아마도 ≪禮≫에 관한 기록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자가 스스로 “서술은 하되 창작은 하지 않는다(述而不作)”고 말하였듯이, 전하여 내려오던 이런 전적들을 재정리한 후 점차 유학의 중심 독서물로 변하였고, 결국 유가경전이 되었다고 여긴다. 이들 전적 중 ≪詩≫와 ≪禮≫에 관한 다음 언급은 이들 전적을 배우는 효용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유관자료: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季氏>)”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述而>)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述而>)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泰伯>)

유가사상의 학습체계를 이루는 소위 ‘六經’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에 대한 명확한 성립과정을 서술할 수는 없지만, 근래에 전국시기의 출토문헌 중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이를 근거로 시기의 순서에 따라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문헌전통에서 ‘六經’[3]이라는 기록은 ≪莊子・天運篇≫에 최초로 보인다.[4]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전국시기 중기 후반 이전으로 추측할

수 있는 유관 기록들이 중국 호북성 荊門市 郭店一号 무덤에서 발견되었다.[5] 郭店楚簡이라 불리는 이들 자료들 중 <性自命出>·<語叢一>에 유가경전에 대해 통합적 설명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6]

먼저, <性自命出>·<語叢一>에 보이는 유관 기록들을 살펴보자.

<性自命出>:

詩·書·禮·樂은 그 시초가 모두 사람에게서 생겨났다. 詩는 인간의 작위에 대해 지은 것이고, 書는 인간의 작위에 대해 말로 표현한 것이며, 禮·樂은 인간의 작위에 대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詩·書·禮·樂, 其始出皆生于人. 詩, 有爲爲之也. 書, 有爲言之也. 禮·樂, 有爲擧之也.)

<語叢一>:

≪易≫所以會天道人道也.(≪易≫은 天道와 人道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詩≫所以會古含(今)之恃[7]也者.(≪詩≫는 고금의 뜻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春秋≫所以會古含(今)之事也.(≪春秋≫는 고금의 일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豊(禮), 交之行述也.(禮는 교유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樂, 或生或教者也.(樂은 낳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것이다)

……者也[8]

≪荀子·儒效≫: 聖人也者, 道之管也. 天下之道管是也, 百王之道一是也. 故詩·書·禮·樂之道歸是矣. 詩言是其志也；書言是其事也；禮言是其行也；樂言是其和也；春秋言是其微也.)"

學, 惡乎始, 惡乎终, 曰 : '其數則始乎誦經, 終乎讀禮. 其義則始乎爲士, 終乎爲聖人.'(≪荀子·勸學≫)"

유학은 이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점은 따르고 단점은 자성하면서 배우며, 역사 속에서 성인이나 어진 사람들로부터 통치의 도를 배우고, 下問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또한 유가 전적으로부터 각종 현실적 지식과 인성을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배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3.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論語≫의 첫 편인 <學而>는 그 시작이 배움에 관한 문구로 시작된다. 유가가 배움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체계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첫 글자가 '學'자로 시

3) 漢代의 유가경전에 ≪詩≫·≪書≫·≪禮≫·≪樂≫·≪易≫·≪春秋≫ 등 육부가 있으며 통칭 육경이라 한다. 이 여섯 경전의 배열순서가 금문경학파와 고문경학파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금문경학파에서는 ≪詩≫·≪書≫·≪禮≫·≪樂≫·≪易≫·≪春秋≫의 순서로 배열하고, 이는 ≪庄莊子·天運篇≫과 和≪春秋繁露·玉杯篇≫의 순서와 같다. 그러나 고문경학파는 ≪易≫·≪書≫·≪詩≫·≪禮≫·≪樂≫·≪春秋≫의 순서로 배열하고, 이는 ≪漢書·藝文志≫의 순서와 같다. 周予同, ≪經學史論著選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年, 845쪽 참조.

4) "공자께서 詩·書·禮·樂·易·春秋 六經을 다스렸다.(丘治詩書禮樂易春秋六經)" 이 기록은 ≪莊子·外篇≫에 속하므로, 학계의 통설에 따라 莊周의 후학이 지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孫以昭, 常森, ≪莊子散論≫(合肥市, 安徽大學出版社, 1997년7월, 125쪽)에 의하면, 明代이후 <내편>은 장주가 지었고, <외편>과 <잡편>은 장주 후학이 지었다는 설이 점차 학계의 주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5) 이 郭店一号 무덤은 1993年10月에 발굴되었으며, 비록 여러 차례 이미 도굴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800여개의 죽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중 글자가 적혀져 있는 죽간은 모두 730枚이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荊門市博物館編, ≪郭店楚墓竹簡·前言≫, 北京, 文物出版社, 1998年, 1-2쪽 참조.

6) 유가경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은 졸저 <선지양한시기 ≪詩≫說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중국문학≫, 第70輯, 2012年2月), 18-23쪽에서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요약하여 약술할 것이다.

7) ≪郭店楚墓竹簡≫에서 裘錫圭는 注하기를, "志 혹은 詩로 읽어야 할 것이다.(懷疑讀爲志或詩)"라고 한다. 200쪽 참조.

8) 전게서, 裘錫圭는 注하기를, "이 죽간은 ≪書≫에 관한 殘簡일 것으로 보고 여기에 부착한다.(此條可能是關于≪書≫的殘簡, 故附于此.)"고 설명한다.

작되는데, 배움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 형상인 군자의 내적 세계의 성장과정을 잘 보여준다.

유관자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来,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學而>)
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季氏>)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中庸≫)"盡其心者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孟子・盡心上≫)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述而>)"
子曰,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里仁>)"
舜, 何人也? 予, 何人也? 有爲者亦若是.(≪孟子・滕文公上≫)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告子上>)

인간이 배움을 통해 군자로서의 사유방식과 행동방식을 익히고 삶속에서 실천하고 유지함으로써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유생의 삶의 태도일 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사유방식은 공자 이후 ≪大學≫이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 책은 원래 ≪禮記≫ 49편 중의 하나였다. 그 저자는 고증할 수 없고, 쓰인 시기는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 서한 정권성립 이전(秦统一天下以後, 西汉政权成立以前)"으로 본다.[9] ≪대학≫ 사상의 綱領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国-平天下이다. 이 '大學'의 綱領에 드러난 사유방식은 공자 맹자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心-性-天命-道-教에 이르는 내적세계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외부세계로의 영향을 고려한 사고방식의 구체화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內聖의 단계인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의 과정을 거쳐, 外王의 단계인 治國, 平天下의 세계를 꿈꾸는 유가사상의 기본 틀이 되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해 선진시기 유가사상에 드러난 '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좁은 지면을 통해 선진 유가의 배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절실히 느꼈고, 단지 필자가 생각하는 배움에 관한 비교적 중요한 측면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먼저 유가사상의 모태가 된 초기 전적들 즉 ≪詩≫, ≪書≫, ≪周易≫, 그리고 이들이 공자의 재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유가사상의 모태가 되었음을 서술함으로써 그 형성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유가가상과 도가사상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도가가 우주자연의 원리에까지 관심영역이 확대된 반면, 유가사상의 관심 범위는 인간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세계를 命과 性으로 구분하는 구조의 틀에서도 도가는 命을 통해 性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유가는 주로 性의 情과 意・志의 문제에 관심이 있

9) 徐復觀, ≪中國人性論史≫, 台北, 台灣商务印書館, 1969年, 265-273쪽 참조. 서복관은 말한다. "오늘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위대한 대유가 법가에 대항하기 위해 유가사상을 계획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교본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진나라 정치는 법가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자가 전승되어온 전체 사상(정치사상을 포함)을 ≪大學≫의 교육체계 속에 넣음으로써 정치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전승되게 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大學'에 대한 언급의 시작일 것이다. 그 후 대학의 관념은 고대의 庠·序·成均 등과 더불어 서로 전승되고 결합되었다. 동중서에 이르러 이 이상을 정치에 실현하려고 했다.(有某一个今日無從知道姓名的偉大儒者, 爲了反抗法家, 乃將儒家的思想, 有計劃地整理綜合而成的教本. 當時秦的政治, 是以法家思想爲內容；儒者乃將自己所傳承的整个思想（包含政治思想）, 安放于≪大學≫这一教育系统之內, 使其可以避開與政治的直接衝突, 而依然能傳承于不墜. 可能此爲言大学之始；爾後乃將此大學之觀念, 更與古代庠序成均等相傳合；至董仲舒, 乃將此理想向政治上提出實現.)"

었음을 논술하였다. 따라서 유가사상에서 배움에 관한 관심 또한 인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그러므로 공자의 언행록인 ≪論語≫에 보이는 배움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른 사람으로 배워야한다는 내용과 문헌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두 부류의 기록으로 나뉨을 알 수 있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통해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과 不恥下問의 자세를 언급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 특히 문왕이나 무왕 그리고 주공과 같은 성인들을 통해 통치의 도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현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장점은 따르고 단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에게 돌이켜보고 고쳐나가며 배울 것을 희망했을 것이다. 유가 전적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은 공자가 ≪詩≫를 통해 말하는 능력 즉 정신적 사유능력을 기를 수 있고, ≪禮≫를 통해 남과 더불어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유가전적들의 효용에 대한 언급에 힘입어 전국시기 이후 점차 '六經'이라는 유가경전의 틀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을 논술하였다.

끝으로 유가에서 배움을 통해 이루려는 이상적 경지가 군자가 되는데 있음을 논술하였다. 유가가 주장하는 이상적 군자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궁극적으로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맹자에 보이는데, 즉 마음을 다해야 性을 알 수 있다는 언급으로부터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心을 통해 性을 부여해준 천명을 알게 되고, 천명을 앎으로써 인간의 도와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 즉 배움을 알 수 있고, 인간은 배움을 통해 현인이나 성인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가사상은 한 인간에게 있어 배움의 궁극이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면, 배움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상은 ≪大學≫에서 그려지고 있는 內聖外王의 실현에 있음을 논술하였다.

白居易 下邽시절 閑適詩 고찰

정원호*

<目 次>

1. 들어가며
2. 백거이 생평
3. 下邽시절 閑適詩
   1) 전원생활
   2) 자아성찰
   3) 인생관
4.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 唐代 시인 白居易(772-846)가 남긴 시편은 모두 2916首이다.[1] 그중 한적시는 창작시기가 貞元16년(800) 작가 나이 29세부터 寶曆元年(825) 54세까지의 26년간이며,[2] 작품의 수량은 216首이다.[3] 시기별로 보면 백거이가 時事를 위한 풍유시 창작에 정점을 찍던 시절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를 유추해 보면 작가가 특정 유형의 시가 창작을 위해 몰두하던 시절에도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 및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한 유형의 시가 창작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그간 한적시에 대해 元和10년(815) 그의 나이 44세에 江州司馬로 폄적되어 가기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구분지어 연구되어 왔다. 즉 폄적되기 전 단계의 정치에 열망을 품으면서 한가로움을 찾는 시기와 폄적 이후 스스로 明哲保身해 가던 시기의 한적시가 그것이다.[4] 필자는 일전에 졸고에서 백거이 한적시 전반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에 관해 고찰한 바 있다.[5] 그의 한적시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한적시를 창작해 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下邽 땅으로 退居해 있던 40세에서 43세 시절인데, 이 삼사년 동안 그가 지은 한적시는 50여 수이다. 전체 한적시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시기 몸은 낙양을 떠나 있었지만 정치적인 좌절을 당하지는 않았던 시절이다. 정계에서 다소 멀어져 있어도 이렇게 많은 한적시를 남기기에는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시기 下邽 땅에서의 한적시를 그의 삶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거이 한적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

* 동의과학대학교

1) 毛妍君,『白居易閑適詩研究』, 중국, 陕西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p.1.

2) 백거이는 중앙관계에서 江州司馬로 폄적되어 갔을 때(815년), 자신의 詩 800여 편을 諷諭·感傷·閑適·雜律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元稹이 백거이 시문을 편집하여『白氏長慶集』을 만들 때(824년)에도 이와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시를 분류하였다. 유병례,『白居易詩研究』, 타이완, 國立臺灣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1988, p.3. 졸고. p.293. 재인용.
윤순일,『白居易의 後期閑適詩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p.3. 참조.

3)『白居易集箋校』

4) 毛妍君,『白居易閑適詩研究』, p.5.

5) 졸고,「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중국학』, 제70집, 대한중국학회, 2020, 03.

2. 白居易 生平

이 장에서는 작가의 전체 삶의 이력을 문학작품과 연관지어 간략하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지역 생활에서의 한적시의 창작이 차지하는 의미도 상호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백거이는 28세에 鄕試에 합격하고, 29세에 進仕에 급제하였다. 32세 唐憲宗 貞元19년 拔萃科에 급제하여 校書郎 벼슬을 除授 받았다. 처음으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시기이다. 3년 뒤 元和 원년(806) 35세에 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급제하여 盩厔縣의 縣尉가 되었다. 元和 2년(807) 36세에 翰林學士에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 元和 3년(808) 37세에 천자에게 결점이나 失政에 대한 간언을 올리는 左拾遺에 제수되어 時政을 비판하는 制詔, 論狀을 쓰고, 많은 奏請을 올려 채납되기도 했다.[6] 38세 元和 4년(809) 左拾遺와 翰林學士을 유지하였으며, 풍유시인「新樂府 50首」를 作詩하기 시작하였다. 39세 元和 5년(810) 5월 5일에 京兆府의 戶曹參軍으로 직분이 바뀌었으며, 翰林學士은 유지하였다.

元和 6년(811) 40세 되던 해에 모친 陳氏가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자, 그해 여름 長安에서 下邽 땅으로 退居하였다. 이때부터 元和 9년(814) 43세까지 下邽에서 생활을 이어갔으며,「效陶潛體十六首」등을 비롯한 여러 한적시를 작시하였다.

元和 10년(815) 44세에 다시 長安으로 돌아가서 太子左贊善大夫가 되었다. 이듬해 元和 11년(816) 45세에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7] 江州司馬로 폄적되어 가서, 東林寺와 西林寺 등의 절과 도연명 옛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47세까지 江州司馬로 있다가 48세에 江州를 떠나 忠州刺史로 부임하면서부터 71세에 刑部尙書로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3. 下邽시절 閑適詩

이 장에서는 작가가 下邽 땅에 退居해 있는 동안 지은 한적시를 통해 작가의 삶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1) 전원생활

「麴生訪宿	국생이 잠자러 오다」
西齋寂已暮,	서재는 고요히 날이 저물었는데,
叩門聲嘀嘀。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온다.
知是君宿來,	그대가 잠자러 온 것을 알고는,
自拂塵埃席。	스스로 먼지 묻은 자리를 턴다네.
村家何所有,	촌집에 무엇이 있으리오,
茶果迎來客。	차와 과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네.
貧靜似僧居,	가난하고 고요하니 스님이 거처하는 듯,
竹林依四壁。	대나무 숲은 사면을 에워싸고 있네.
廚燈斜影出,	부엌의 등불은 비스듬히 그림자 비추고,
簷雨餘聲滴。	처마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려오네.
不是愛閑人,	한가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니라면,
肯來同此夕。	굳이 이 밤을 함께 하려 하겠는가![8]

6) 김재승,『白樂天詩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p. 23.

7) 舊唐書, 卷166, 졸고,『白居易 新樂府의 再照明』,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6, p. 22. 재인용.

8)『白居易集箋校-卷一』, 1988, p.320.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30대 중후반 수년간 민초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과 관리들의 폭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천자 곁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諫官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던 그에게 모친상으로 인하여 下邽 땅에서의 고요한 전원생활이 다가왔다. 살림은 가난하고 거처는 고요하니 마치 절간 스님의 공간과도 같다. 찾아온 객에게 무엇을 대접하려 하나 차와 과일이 전부이다. “사면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대나무 숲, 부엌의 등불, 처마의 낙수소리”는 그가 맞이하고 있는 전원의 풍경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적화자는 스스로를 ‘한가로운 사람[閑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찾아오는 방문객 또한 ‘한가로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백거이에게 ‘閑’자는 “일상에의 긴장을 내려놓고 본성에 맡기면서, 자연을 향유하고 생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이다.”[9] 고요함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처마의 낙수 소리가 더욱 돋보이는 전원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閑居	한가로이 거하며」
深閉竹間扉,	대숲 사이 사립문 굳게 닫아걸고,
靜掃松下地。	고요히 소나무 아래 뜰 쓸어본다.
獨嘯晚風前,	저녁 바람결에 홀로 휘파람 부니,
何人知此意。	누가 이 뜻을 알겠는가!
看山盡日坐,	산을 바라보며 종일 앉았다가,
枕帙移時睡。	책을 베개 삼아 잠시 잠이 든다.
誰能從我遊,	누가 능히 나를 따라 노닐며,
使君心無事。	한가로이 지낼 수 있으리오![10]

이 詩는 元和 7년(812)에서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1세에서 43세 시절의 작품이다.

2) 자아성찰

「首夏病間	초여름 병이 호전되어」
我生來幾時,	내 생애 얼마나 흘러왔나,
萬有四千日。	일만 하고도 사천일이 지났네.
自省於其間,	스스로 지나온 세월 성찰해보니,
非憂即有疾。	근심 아니면 질병의 세월이었다네.
老去慮漸息,	늙어 가면서 근심은 점차 줄어들고,
年來病初愈。	나이 들면서 병은 처음으로 나아졌네.
忽喜身與心,	홀연히 심신이 좋아지니,
泰然兩無苦。	자연스레 근심과 질병의 고통 사라지네.
況茲孟夏月,	하물며 때는 초여름,
清和好時節。	화창한 좋은 시절이라.
微風吹袂衣,	미풍은 겹옷으로 불어오고,
不寒復不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네.
移榻樹陰下,	평상을 나무 그늘 아래로 옮기고,
竟日何所為。	종일 무엇을 하나.
或飲一甌茗,	한잔 차를 마시기도 하고,

9) 毛妍君, pp.10-11. 참조. 졸고,「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 294. 재인용.

10)『白居易集箋校-卷一』, p.334.

或吟兩句詩。　　두 구절 시를 읊기도 한다네.
內無憂患迫,　　안으로는 핍박해오는 근심 걱정 없고,
外無職役羈。　　밖으로는 얽매인 직분 없다네.
此日不自適,　　이런 날 즐기지 아니하면,
何時是適時。　　어느 때가 즐길 때 이런가![11]

이 詩는 元和 7년(811) 작가 나이 40세 시절의 작품이다. 한적시를 쓰기 시작한 때는 작가 나이 29세 때부터이고, 관직을 시작한 시기는 32세 때이다. 40세에 下邽지역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관직생활을 하며 천자 곁에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글을 서슴지 않던 그였다. 비록 한적시를 그 전까지 줄곧 써 왔다고는 하지만, 그 시절의 한적시는 "병이 들지 않고는 쉴 수 없는[不病不得閑]"[12] 관리의 신분으로서 잠깐 쉬어가는 틈을 타서 한적을 동경하며 시를 짓곤 하였다. 40세가 되어 자신을 옭아매는 관직도 없고 車馬의 번잡함도 없는 下邽 땅으로 내려오니,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年'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만 사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바쁘고 치열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기간은 '근심과 병마'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초여름 좋은 날에 모처럼 병마도 호전되고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니,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서 차도 마시며 시를 읊어보기도 한다.

안팎으로 근심걱정 없이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自適' 혹은 '適'이란 글자로 표현하였다. 백거이는 이 '適'자에 대해 시에서 신체와 정신의 두 방면 즉 '身適', '形適', '意適', '心適'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육체적인 '適'을 정신적인 '適'을 이루는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먼저 몸의 평안함과 한가로움이 있은 연후에야, 마음의 즐거움과 흡족함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13] 지난 시절에 대한 성찰과 함께 한적함의 즐거움을 누려보는 시적화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시편이다.

「適意二首(其一)　　마음 가는대로」
十年為旅客,　　십년 세월 나그네로 지내며,
常有飢寒愁。　　늘 굶주림과 추위를 걱정했었네.
三年作諫官,　　삼년 동안 諫官으로 지내면서,
復多尸素羞。　　할 일 없이 녹봉 축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지.
有酒不暇飮,　　술이 있으나 마실 시간이 없고,
有山不得遊。　　산이 있으나 놀러갈 수 없었네.
豈無平生志,　　어찌 평생의 지닌 뜻 없겠는가,
拘牽不自由。　　다만 얽매여 자유롭지 못했네.
……
朝睡足始起,　　아침까지 실컷 자고 일어나며,
夜酌醉即休。　　밤에는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네.
人心不過適,　　사람의 마음 편안하면 그만이니,
適外復何求。　　편안함 밖에 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14]

이 詩는 元和 7년(812) 작가 나이 41세 시절의 작품이다.

11) 『白居易集箋校-卷一』, 1988, p.318.
12) 「病假中南亭閑望 병가 중 남쪽 정자에서 한가로이 바라보며」, 『白居易集箋校-卷一』, p.277.
13) "先務身安閑, 次要心歡適." 「詠懷」, 『白居易集箋校-卷一』, p.434. 졸고, 「白居易 閑適詩에 나타난 의식의 세계 고찰」, p.294. 재인용.
14) 『白居易集箋校-卷一』, p.317.

3) 인생관

「遣懷	회포를 풀다」
寓心身體中,	마음은 신체에 기탁해 있고,
寓性方寸內。	본성은 마음에 기탁해 있다네.
此身是外物,	이 몸은 外物에 불과하거늘,
何足苦憂愛。	어찌 힘들게 근심하고 아끼리오.
況有假飾者,	하물며 거짓으로 장식하는 자,
華簪及高蓋。	화려한 비녀와 높은 수레 탄다네.
此又疏於身,	이들은 또 몸에는 소홀히 하고,
復在外物外。	다시 몸 바깥의 경계에 관심을 둔다네.
操之多惴慄,	그것을 잡으려 두려워 떨고,
失之又悲悔。	그것을 잃을까 또 슬퍼하고 후회하네.
乃知名與利,	이제 알겠노라니 명성과 이익은,
得喪俱為害。	얻고 잃는 것 모두 해로울 뿐이란 걸.
頹然環堵客,	조용히 물러앉은 방 안의 나그네,
蘿蕙為巾帶。	담쟁이와 혜초로 두건과 띠를 삼는다네.
自得此道來,	스스로 이 도리를 깨달으면,
身窮心甚泰。	몸은 궁해도 마음은 태연자약하다네.[15]

이 詩는 元和 6년(811)에서 元和 9년(814) 작가 나이 41세에서 44세 즈음의 작품이다. 마음은 신체에 깃들어 있고, 본성은 그 마음에 기탁해 있을 뿐이라는 哲理를 깨닫는 시적화자에게 外物에 의한 집착은 사라져 보인다. 화려한 장식과 높은 수레를 타며 위선과 가식에 찌든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잃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산다. 전원에서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 오던 시적화자는 이제 명확히 깨닫고 있다. 명리는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해한다는 것을.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박한 물질로 내 자신의 두건과 띠를 삼는 행위는 명리에 집착하는 세인들에 대한 비판이자, 스스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철리를 깨달은 작가는 향후 자신의 처지가 궁색함에 이를지라도 마음만은 태연자약할 수 있는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4. 나오며

32세에 校書郎 벼슬로 처음 관직에 발을 들여 놓은 백거이는 이후 翰林學士와 左拾遺에 제수되어 천자에게 時政에 관한 諫言을 올림과 동시에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많은 문장과 풍유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나이 40이 되어 모친 陳씨의 상을 계기로 고향 땅인 下邽로 退居하게 된다. 여기서 자연스레 형성된 전원생활은 바쁘면서도 치열하게 살아오던 30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의 국면으로 그를 나아가게 만든다. 사면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초가집은 살림이 가난하지만 거처는 절간처럼 고요하다. 촌가의 사립문 안쪽 뜰 마당의 소나무 아래를 비질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산을 관망하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기도 한다. 때로는 위수 가로 나아가서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낚시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술잔을 기울인다. 스스로를 “인간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자”[16]라고 선언하면서 절간으로 발걸음 옮겨 일정 기간 머무르기도 한다. 이러한 전원생활은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고, 몸과 마

15)『白居易集箋校-卷一』, 1988, p.313.

16)『白居易集箋校-卷一』, p.320.「蘭若寓居 절간에 머무르며」3장에서 인용.

음이 늘 편안한”[17] 상태의 전원생활 그 자체를 보여 준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한가로움이 더해지는 전원생활에서 그는 내면의 자아성찰로 관심을 기울인다. 나이 40의 문턱으로 올라온 때, 자신을 회고하는 시에서 자신의 생애를 “일만하고도 사천일이 지났다.”[18] 라고 40년을 일수로 바꾸어 계산하고 있다. 그만큼 찬찬히 깊이 들여다본다는 예시가 된다. 지난 시절에 대해 그는 “허리에 패옥을 차고 다니며 군왕을 곁에서 모시는 近臣이었으며”, “근심 아니면 질병의 시간이었고”, “술이 있어도 마실 시간이 없고, 산이 있어도 놀러 갈 여유가 없으며”, “병이 들지 않고는 쉴 수 없는” 시절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안팎으로 죄어오는 근심 걱정도 없고, 얽매인 직분도 없는 자유로운 환경”[19]의 전원생활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철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빈궁과 현달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세월은 돌아서면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이러한 성찰의 깊이를 더해 가기 위해 “밤이 늦도록 坐定하며 일체의 상념을 잊는 심법을 배우고, 우뚝하니 몸을 세상에 맡기면서, 광대하게 마음을 자연에 변화에 맡겨둔다.” 이렇게 하여 보낸 세월이 4년이며, 일수로는 1,300일이라고 세고 있다. 이는 고향 땅 下邽에서 보낸 기간이 마냥 즐긴 세월이 아니라,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아성찰로 이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20]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백거이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관을 확립해 간다. “마음은 신체에 깃들어 있고, 본성은 그 마음에 기탁해 있다. 신체는 外物에 불과할 뿐인데, 힘들게 무엇을 근심 걱정하겠는가!”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무의 본성에서 나오듯, 욕심 없고 담백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천성과 천명은 타고난 것이니, 어기면 도리어 고생한다. 스스로 안분지족하며 궁색하더라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철리를 깨닫는다. 깨달음 뒤에는 “조용한 방안에 물러 앉아, 담쟁이와 혜초로 두건과 띠를 삼고”, “공복에 한 사발 죽”과 “처마 밑 침상을 살짝 찾아드는 햇살” 반기며, “솜옷으로 두 무릎을 감싸고, 죽궤로 두 팔을 지탱하면서도” 마음이 풍족함을 느낀다. “허리의 인장 끈 풀어놓고, 마음의 먼지 털어버리고”, “고요한 텅빈 숲에 홀로 앉아, 마음의 경계가 한가로워 짐”을 느끼는 실천적 행위가 수반된다. 이러한 도리의 깨달음과 실천적 행위를 거친 그는 “몸은 궁해도 마음은 태연자약한” 단계로 나아가서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가는대로 천지자연에 나를 맡기며 ‘自適’하게 살아가는 인생관을 확립하였다.[21]

長安에서 벗어나 고향 땅 下邽에서 보낸 수년간의 전원생활, 그 속에서 이루어진 내면의 자아성찰, 이를 통해 이루어진 백거이의 인생관은 이 시절 그에게 집중적으로 한적시가 창작되어 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이러한 한적한 성품을 본인이 원래 많이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축적되어진 그의 한적시에 대한 토양은 이후 전원을 벗어나서 다시 여러 관직을 상당기간 맡으면서 다양한 인간사에 접하더라도 한적시가 계속 창작되어 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

17) “自若世役不我牽, 身心常自若” 閑適詩「觀稼」,『白居易集箋校-卷一』, p.329.

18) “我生來幾時, 萬有四千日。”「首夏病間 초여름 병이 호전되어」,『白居易集箋校-卷一』, 1988, p.318. 3장에서 인용.

19) 모두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20) 인용편은 모두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21) 인용편은 모두 3장에서 인용된 시편들의 번역임.

宋代의 蒙學 詩歌 敎材와≪唐賢詩範≫고찰

이경민*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송대의 몽학 교육의 발전
3.송대의 몽학시가 교재
4. 몽학 시가 교재≪唐賢詩範≫
5.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蒙學 교육은 고대에는 "小學", 또는 "幼學", "養蒙", "訓蒙" 등으로 칭해지기도 했으며, 현대어로 바꾸면 아동교육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몽학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漢書·文藝誌≫에는 "小學十家"[1]를 언급하면서, "옛날에 여덟 살에 소학에 들어갔는데, 주나라의 관리 보씨가 국자의 교육을 담당하여 소학에 들어온 이들에게 육서를 가르쳤다. 육서는 상형, 상사, 상의, 상성, 전주, 가차로, 글자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다."[2]라고 하였다. 즉 이미 주나라 시대 때부터 아동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몽학 교육은 송대에 접어들면서 큰 발전을 보이게 된다.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는 ≪소학≫에서 "옛날에 소학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방도로써 하였으니, 이는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어릴 때 강하게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거슬러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해서이다. "[3]라고 하였다. 소학의 가르침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송나라 때로 접어들면서 주자학의 발전과 함께 동몽에 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송대는 전면적인 과거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동몽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몽학 교육에 대한 강조는 동몽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재 편찬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송대에는 식자교육, 역사교육, 예절교육, 교양교육 등 이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의 몽학교재들이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동몽을 위한 시가교재의 편찬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현시범≫역시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唐賢詩範≫은 원래 이미 印刊本이 존재하고 있기는 그 인쇄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여 전문에 대한 판독이 거의 어려웠다. 그러던 중 해인사 대장경판을 새로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판고에서 목판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唐詩選集이자 몽학 시가교재이다.

* 동아대학교

1) "凡小學十家, 四十五篇"。

2) "古者八歲入小學, 故周官保氏掌養國子, 教之六書, 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 造字之本也."

3) "古者小學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而必使其講而習之於幼穉之時, 欲其習與智長, 化與心成, 而無格不勝之患也.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새로이 목판본이 발견된 몽학 시가 교재로써의 ≪唐賢詩範≫을 중심으로, 宋代의 아동 교육용 詩歌教材와 송 대의 시가, 특히 唐詩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당시 교육용 교재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송대의 몽학 교육의 발전

주지하다시피, 송대는 전면적인 과거제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북송 시대부터 교육제도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차례의 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다. 송대의 교육 진흥은 유학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송 왕조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보급을 통하여 성리학을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文治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4)]

특히 범중엄에 의해 주도되었던 “慶歷興學”을 비롯하여, 왕안석의 “熙寧興學”, 그리고 송 휘종 때 蔡京에 의해 추진된 “崇寧興學” 등 일련의 교육 개혁 정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縣學(小學)”을 비롯하여 “州學”, “태학”의 학교가 설립되었으며[5)],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 또한 唐代와 비교해, 그 입학 조건이 현격하게 완화되었다. 당 나라 때의 국자감은 三品 이상의 고위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으나, 송 나라 때에는 7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였으며, 태학은 八品 이하의 자제와 “서민 중의 빼어난 자”는 누구나가 입학이 가능하였다.[6)]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의 기회 확대는 송 대 교육의 평민화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선발”한다는 과거제도를 개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송 대 교육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童子’ 교육, 즉 蒙學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구양수는 “교육의 방법은 어린 동자들 때부터 시작해야 하니, 이를 가리켜 소학이라고 하며, 군자는 이를 중요시해야 한다.”[7)]고 강조하였다. 또 “조정에서는 신동들을 가려 뽑기 위해 太宗 때부터 ‘童子擧’를 두고서”[8)] “15세 이하의 동자 중에서 경전에 능통하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을 주의 학교에서 뽑아 조정으로 불려 임금이 직접 시험을 치렀다.”[9)]

물론 동자과가 송대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당대나 그 이전 시기에도 동자과는 시행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송대 이전의 동자과가 이른바 타고난 천재인 “神童”을 발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송대의 “동자과”는 단순히 “신동”을 발탁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영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당대의 시가 풍격과 송대의 시가 풍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대가 시인의 천재성에서 기인한 감성의 시라고 한다면, 송대는 학습과 사고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이성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송 시기의 “學詩詩”나 “讀詩詩”, 주희의 “少年易老學難成”, 그리고 황정견을 대표로 하는 남송 강서시파의 “點鐵成金” 등이 모두 이러한 송대의 시풍내지는 학풍을 그대

4) 『宋史・志・選擧一』:“自仁宗命郡縣建學, 而熙寧以來, 其法浸備, 學校之設遍天下, 而海內文治彬彬矣。(『宋史』 卷一百五十五「志第一百八・選擧一」)

5) 『宋史・志・選擧三』: “崇寧元年, 宰臣請：‘天下州縣並置學, 州置教授二員, 縣亦置小學. 縣學生選考升諸州學, 州學生每三年貢太學. ’”(『宋史』卷一百五十七「志第一百十・選擧三」)

6) 『宋史・志・選擧三』: 凡學皆隸國子監. 國子生, 以京朝七品以上子孫為之, 初無定員, 後以二百人為額. 太學生, 以八品以下子弟若庶人之俊異者為之.“(『宋史』卷一百五十七「志第一百十・選擧三」)

7) 宋・欧阳修『州名急就章(并序至和元年)』: “教育之法, 始於童子, 謂之小學, 君子重焉.”(『歐陽脩集』卷五十八, 『居士外集卷八』)『唐宋八大家全集』(余冠英、周振甫、啟功、傅璇琮 主編, 北京: 國際文化出版社, 1996) 1234페이지.

8) 『宋史・志・選擧一』: “宋之科目, 有進士, 有諸科, 有武擧. 常選之外, 又有制科, 有童子擧, 而進士得人為盛.”(『宋史』卷一百五十五,「志第一百八・選擧一」)

9) 『宋史・志・選擧二』: “凡童子十五岁以下, 能通经, 作诗赋, 州升诸朝, 而天子亲试之”(『宋史』卷一百五十六,「志第一百九・選擧三」)举志二≫)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당대의 시가 창작 기풍이 시인의 타고난 천재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송대의 시가 창작은 배움(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대와 송대의 시풍의 차이는 이른바 "신동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차이가 난다. 神童詩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대의 "신동시"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의 타고난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고 한다면, 송대의 "신동시"는 배움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이른바 "養蒙"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에서부터 사대부 가정에 이르기까지 "童子" 교육을 중요시함으로써,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적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識字 교육과 道德 교육 이외에도 "동자" 교육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바로 詩賦에 대한 교육이었다. 특히 송 대에는 "시부"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전면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 "시부"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을 것임은 가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당현시범≫역시 몽학 시가 교재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되었던 것이다.

3. 송대의 몽학 시가 교재

몽학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송대는 새로운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몽학의 교재는 송대로 접어들면서 훨씬 다양해지고 내용도 풍부해졌다. 전통적인 식자 교재나 윤리・도덕 교재, 역사 지식 교재, 박물・상식 교재 이외에도 특기 할 만한 것이 바로 "시가" 교재들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아동용 독물로서 편찬된 "시가"류 독물로는 ≪당현시범≫, ≪千家詩≫ 이외에도 洪邁가 편찬한 ≪萬首唐人絶句≫, 劉克庄이 편찬한 ≪唐五七言絶句≫, 주희의 ≪訓蒙詩≫, 진순의 ≪小學詩禮≫, 왕상의 ≪五言千家詩≫, 왕수의 ≪神童詩≫ 등 매우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洪邁가 편찬한 ≪萬首唐人絶句≫역시도 어린 학동들을 위한 교재용으로 편찬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 순희 경자년 가을에 나는 건안군수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돌아갈 때 나이가 이미 58세였다. 몸은 이미 늙었고 눈도 노안이 들어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당나라 시인들의 절구를 외우는 것을 가르치면서 소일하였는데, 이에 당나라 시인들의 문집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5언과 7언절구 5천 4백편을 손수 손으로 여섯 번을 적었다.[10]

마찬가지로 劉克庄 또한 ≪唐五七言絶句≫에서 "나의 어린 자식이 처음으로 학숙에 들어가게 되어 오언 칠언시 각각 100수를 처음으로 엮어 외우도록 가르쳤다."[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홍매의 ≪萬首唐人絶句≫나 유극장의 ≪唐五七言絶句≫, 왕수의 ≪神童詩≫, 진순의 ≪小學詩禮≫등이 모두 어린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율시보다는 절구를 중심으로 시가 교재를 편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당현시범≫역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당현시범≫은 "격조 높고 외우기가 쉬운" 가장 짧은 형식인 오언절구만을 선정해 놓은 이유도 바로 어린 학동들이 보다 쉽게 배우고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10) "淳熙庚子秋, 邁解建安郡印, 歸時, 年五十八矣. 身入老境, 眼意倦罷, 不復觀書, 惟時時教稚兒誦唐人絕句, 則取諸家遺集, 一切整匯…, 凡五七言五千四百篇, 手書為六秩."

11) "余家童子初入塾, 始選五七各百首, 口授之. 切情詣理之作, 匹士寒女不棄也, 否則巨人作家不錄也, 惟李杜當別論. 童子請曰 : '昔杜牧譏元白誨淫, 今所取多邊…情、春思、宮怨之什, 然乎？' 余曰 : '詩大序曰 : '發乎情, 止乎禮義.' 古今詩之是而止. 夫'發乎情'者天里不容泯, '止乎禮義'者圣筆不能刪也. 小子識之."

4. 몽학 시가교재 ≪당현시범≫

≪당현시범≫은 중국에서는 실전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소실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가 없었던 탓에 몽학 시가 교재로써의 ≪천가시≫나 ≪당시삼백수≫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당현시범≫의 서문에는 그 편찬시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 "그리하여 내가 그 시들을 봄에 어린 학동들을 생각하니 날마다 시 속에 나아가 풀이를 하지만 편장이 너무 광범위하여 탐독하기가 어렵다. 그 요지뿐만 아니라 외우고 읊조림에도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 이에 ≪당시유선≫과 제현들의 시집 중에서 오언 절구들 중에서 그 뜻이 높고 격조가 편안한 고율시 160여 편을 가려 뽑아 세 권으로 편찬하고 20문목으로 나누어 제목을 '당현시범'이라고 지었다.[12]"

여기에서 보듯이, ≪당현시범≫의 저자는 서문에서 분명하게 간행 목적을 적어 놓고 있으며, 또한 그 간행시기(즉, 熙寧改元)로 볼 때 적어도 북송 시기 교육진흥 정책과 함께 ≪당현시범≫이 "童子"들의 교육을 위한 아동용 전문 교재로 편찬, 간행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린 동몽들을 위해 교재이기에 다른 교재들이 "절구"만을 선별해 놓고 있는데, 특히 ≪당현시범≫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오언절구들로만 총 163수를 엄선해 놓고 있다.

문목 \ 작품수		문목 \ 작품수		문목 \ 작품수		문목 \ 작품수	
天文	6首	**尋訪**	12首	**送人**	12首	**釋道**	8首
時節	6首	**行役**	6首	**愁懷**	16首	**遊賞**	7首
花木	8首	**登臨**	9首	**留題**	13首	**樂府**	11首
飛禽	5首	**寄贈**	8首	**邊事**	7首	**鄭衛**	9首
雜詠	8首	**酬答**	4首	**投獻**	4首	**傷悼**	4首

동몽을 위한 시가교재로서 ≪당현시범≫의 또 다른 특징은 시의 내용에 따라 문목을 분류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당현시범≫은 첫 번째 문목 "天文"에서부터 마지막 문목인 "傷悼"까지 총 20개 문목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러한 문목은 당시 類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문목은 곧 시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또한 독특한 점이다. ≪당현시범≫의 문목은 다른 유서나 시가 교재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내용과 직접적인 문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몽학 시가교재로써의 ≪당현시범≫만의 독특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현시범≫의 편찬자는 이러한 문목의 배열과 그 작품의 순서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목 "천문"의 첫 번째 작품은 <詠月>(≪전당시≫에서는 <玩初月>로 되어있다.)[13]이란 작품으로, 그 시의 내용은 새로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초승달"을 노래하고 있다. 초승달이 서서히 차올라 밝은 보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물에까지 그 빛을 나누어 줄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 학동들을 격려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문목 "상도"의 마지막 작품은 <古挽歌>[14]란 작품이다. 만가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노래이다. 풀들마저도 생기를 잃고 메말라 버린 가을날 음산한 바람을 타고 강 건너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만가가 들려온다. 마지막 망자

12) "予因觀其詩, 復思童蒙輩, 日就間傳, 而篇章汗漫, 難於榮覽, 苟不指其要途, 便於諷詠, 則無以惠於學者. 迺於唐選及諸賢集中, 採摭五言二韻, 意高而格安者, 古律詩一百六十篇, 編爲三卷, 凡二十門, 題之曰唐賢詩範."

13) 忌滿光常缺, 乘昏影暫流。既能明似鏡, 何用曲如鉤.

14) 佉風吹黃蒿, 挽歌渡秋水. 車馬却歸城, 孤墳月明裏.

를 배웅하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 버린 황량한 들판에 밝은 달만이 무심히 망자의 무덤을 비추고 있다. 이 무덤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생달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흔적을 비추고 있는 보름달로 끝을 맺고 있다.

또한 ≪당현시범≫의 문목 중에는 매우 독특한 문목이 하나 있다. 바로 "鄭衛" 문목이다. "정위"는 이른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음탕한 노래로, 특히 송대의 성리학자들로부터 "男女相悅之詞" 라고 비판을 받아 왔었다. 더군다나 ≪당현시범≫은 어린 동몽의 계몽을 위한 교육용 교재가 아닌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편찬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배치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른바 "鄭衛之音"이 "남녀상열지사"로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남송 이후였다는 점, 그에 비해 ≪당현시범≫은 북송 시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나 사회적 구속이 아직은 그다지 거세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현시범≫의 전체 문목의 배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작품으로 하늘의 첫 탄생의 의미로 "초승달"(初月이라고도 하지만 "新月"이라고도 한다.)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고난("行役"), 사람들과의 사귐("尋訪", "寄贈", "酬答"), 이별과 사랑("送人", "鄭衛"), 그리고 죽음("傷悼")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네 인생에서 "사랑과 이별"이 빠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당현시범≫의 20개 문목과 작품의 안배에서도 몽학 교재로써의 편찬자의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몽학 시가 교재로써의 ≪당현시범≫은 이후의 ≪천가시≫나 기타 몽학 교재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편찬되었으며, 특히 시대적으로 ≪천가시≫보다 앞서 있다는 점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명목으로 나눔으로써 어린 학동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 등은 몽학 시가 교재로써의 ≪당현시범≫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당현시범≫은 송대에 편찬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당시선집이자 몽학 시가 교재로 널리 알려진 ≪천가시≫나 ≪당시삼백수≫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동몽의 시가 교육으로 편찬된 몽학 시가 교재이다.

≪당현시범≫은 그 서문에서 몽학 시가 교재로써의 편찬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송대의 다른 몽학 시가교재와 마찬가지로 학동들이 배우고 외우기 쉬운 5언절구만을 엄선하여 편찬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현시범≫의 편찬자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몽학 교재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20개의 문목을 나누어 내용별로 작품을 수록하였으며, 또한 문목의 순서나 작품들의 순서에도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여 안배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몽학 시가 교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당현시범≫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현시범≫은 이미 인간이 되어 책으로 전해졌으나, 인쇄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여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질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해인사 대장경판 잡판고에서 목판이 발견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미 실전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나 서적 교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현시범≫과 관련된 문헌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다.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정전으로서의 '唐詩'

최석원*

<目 次>

1. 唐詩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의 생성
2. 근대 중국의 唐詩 관련 문헌 상황
3.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몇 가지 특징
4. 正典으로서의 '唐詩'-연구의 완정성을 위하여

1. 唐詩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의 생성

거칠게 정의하자면, 소위 '근대'[1]는 전통을 거부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전통과는 완전한 단절이 불가피했던 시대적 모순성을 내재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일찍이 陳伯海가 ≪唐詩學引論≫에서 "온양기-형성기-발전기-총결기-창신기"로 唐詩學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5.4 신문화운동 이후를 '창신기'라고 명명한 것 역시 이러한 '근대'라는 시대적 특수함에 주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2] 즉 陳伯海는 근대 唐詩學은 전통적인 시학의 방법, 이를테면 훈고, 판본학적 접근 방법에서 탈피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唐詩가 지니고 있는 가치 및 그 문학사적 의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근대 이후 유입된 '문학사'라는 테제 위에 성립된 唐詩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동양적 '문학'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배태시켰다고 지적한 논의와는 무관하게,[3] 근대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고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에 본고는 중국 전통시가 문학의 커다란 성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당시'가 '근대'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담론을 읽어나가고자 한다.

물론 지금껏 이루어진 근대의 唐詩 담론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나름 축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 중 陳伯海와 朱易安에 의해 편찬된 ≪唐詩書目總錄≫(上海古籍出版社, 2015)은 2000년 말까지 간행된 唐詩 관련 문헌들의 서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근대 이후 산견되어 있는 唐詩 관련 문헌들을 일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다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 논저들에서는 개별 문인들의 唐詩 인식과 해석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함과 함께 근대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새로운 시대적 맥락 속에서 탄생된 근대 唐詩 읽기와 그 특징을 궁구하는 데 논의의 중심을 두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1) '근대'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20세기 초 즉 1900년부터 1949년 중화인문공화국 건립 이전까지를 '근대'로 규정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2) 陳伯海 지음, 이종진 옮김, ≪당시학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313쪽.

3) 김월회는 중국문학사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 일국으로서의 문학 그리고 문학에 대한 이념성에 의해 가공된 발명품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중국문학 교학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김월회, <'G2'시대의 중국문학사 教學>, ≪중국문학≫ 제78집, 2014, 85~86쪽.

4) 지면의 제약 상 기존 연구 성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2. 근대 중국의 唐詩 관련 문헌 상황

앞서 언급한 陳伯海와 朱易安의 ≪唐詩書目總錄≫ 및 宗瑞冰의 <民國時期唐詩選本選型論> 등의 성과를 귀납해보면, 1900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까지 출판된 唐詩 관련 문헌은 선집 총 32종, 논저 20종에 달한다.[5] 그 중 선집에 해당하는 목록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서명	저자	출판연도	서명	저자	출판연도
唐詩評注讀本	王文濡	1916	唐僧詩選	皮鶴齡	1934
晚唐詩選	王文濡	1918	唐詩韻釋	畢志颺	1934
唐詩易讀	王文濡	1918	唐詩初箋簡編	楊家駱	1935
白話唐人七絶百首	浦薛鳳	1920	白話句解唐詩三百首	抱恨軒	1936
評注唐詩三百首	張萼蓀	1921	唐絶句選	邵裴子	1936
詩式	朱寶瑩	1921	唐詩評選	潘德衡	1937
白話唐詩五絶百首	凌善清	1922	唐詩選	吳遁生	1937
詩法入門	游藝	1923	評注唐詩讀本	王承治 輯, 張廷貴, 沈鎔 注	1939
潤州唐人集	陶紹萊	1927	唐詩選	胡雲翼	1940
唐詩評注讀本	王文濡	1930	英譯唐人絶句百首	呂叔湘	1947
唐人故事詩	陳登元	1931	詩境淺說	俞陛雲	1947
詩法指南	顧亭鎧	1933	注釋作法唐詩三百首	朱麟	1947
白話注釋唐詩三百首讀本	夢花館	1933	唐詩大系	聞一多	1948
唐代非戰詩選	朱炳煦	1933	唐詩選	徐震愕	1948
中國詩學大綱	江恒源	1934	全唐詩精華	柳無忌	1948
新式標點唐詩三百首	薛恨生	1934	唐詩集解	許文雨	1949

위의 문헌 목록들을 통해 보건대, 전통과 혁신의 충돌을 경험해야 했던 '근대'의 시대적 특수성은 唐詩에 대한 접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특히 ≪白話唐人七絶百首≫나 ≪白話唐詩五絶百首≫와 같이 새로운 언어의 패러다임으로 고전을 접근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물론이고, 朱炳煦의 ≪唐代非戰詩選≫은 "非戰"이라는 '근대'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선본에서뿐만 아니라 唐詩 관련 논저들의 목록을 살펴보아도 胡雲翼의 ≪唐代的戰爭文學≫이나 孫俍工의 ≪唐代的勞動文藝≫ 또는 劉開榮의 ≪唐代詩中所見當時婦女生活≫은 모두 전통 시기 주목하지 않았던 특정 소재들을 중심으로 전

5) 위의 목록 가운데에는 당송 시가 선집과 같은 합집의 형태나 개별 문인들의 선집 등은 논의의 편의 상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朱寶瑩의 ≪詩式≫, 江恒元의 ≪中國詩學大綱≫ 등과 같이 선집과 논저의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는 문헌들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당시 관련 논저들의 문헌 상황은 아래와 같다.

서명	저자	출판연도	서명	저자	출판연도
唐律通韻擧例	程道存	1919	唐代詩學	楊啓高	1935
唐詩研究	費有容	1926	五代文學	楊蔭深	1935
唐代的戰爭文學	胡雲翼	1927	詩境淺說	俞陛雲	1936
唐詩綜論	許文玉	1929	唐代詩中所見當時婦女生活	劉開榮	1943
唐代文學概論(上卷)	朱炳煦	1929	隋唐文學批評史	羅根澤	1943
唐詩研究	胡雲翼	1930	唐代文學史	陳子展	1944
唐代女詩人	陸晶淸	1931	晚唐五代文學批評史	羅根澤	1945
唐代文學	胡朴安, 胡懷琛	1931	唐宋文學史	陳子展	1947
唐代的勞動文藝	孫俍工	1932	詩境淺說續編	俞陛雲	1947
唐詩概論	蘇雪林	1934	唐詩雜論	聞一多	1948

통 문학을 바라보는 일종의 '근대적' 고전 읽기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6]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20세기 초 출판된 唐詩選本의 대부분은 淸代에 간행된 대표적 唐詩選本인≪唐詩三百首≫를 그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白話注釋唐詩三百首讀本≫, ≪白話句解唐詩三百首≫, ≪注釋作法唐詩三百首≫, ≪新式標點唐詩三百首≫는 물론이고 ≪唐詩初箋簡編≫ 역시 "본 편이 수록한 것은 蘅塘退士가 남긴 것이다(本編所錄而爲蘅塘退士之所遺者)"[7]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초학자들의 唐詩 학습을 목적으로 편찬된 청대 ≪唐詩三百首≫가 선집 편찬의 주요 저본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대 唐詩選本 가운데 ≪唐詩三百首≫가 근대 문인들에게 선호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唐詩三百首≫의 선시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8] 孫洙가 서문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본으로 삼아, 아들에게 익히게 한다(爲家塾課本, 俾童而習之)"[9]고 밝힌바 ≪唐詩三百首≫는 철저하게 학습으로서의 "시"가 주요한 선시 기준의 하나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물론 ≪唐詩三百首≫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1937년에 편찬된 潘德衡의 ≪唐詩評選≫ 역시 서문을 통해 典故 사용, 媚上, 과다한 雕飾을 시가 문학의 병폐로 지적하면서, 이에 자유로운 작품들을 선별 수록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11] 이렇듯 당시 주요 唐詩選本들의≪唐詩三百首≫선호 및 선별 기준의 제시는 근대에 불어닥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전통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 등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근대 중국의 唐詩 읽기와 몇 가지 특징

전통 시기 두보를 에워싼 이데올로기적 평가의 굴레를 벗겨내고 '情聖'이라 평가한 梁啓超의 논의는 전통문학에 대한 근대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12] 김월회는 20세기 중국은 서구 문화의 유입과 그로 인한 중화 질서의 균열은 '文'과 '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13] 그렇다면, 그들이 구축한 '唐詩' 읽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근대에 이룩된 唐詩 읽기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唐詩 분기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嚴羽의 ≪滄浪詩話≫로부터 시작된 唐詩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는 楊士弘의 ≪唐音≫과 高棅의

6) 1900년부터 1949년까지 출판된 당시 관련 전문 연구서는 총 21종으로 조사되었는바, 추후 보완 문헌 조사를 통해 문헌 목록을 확정하고자 한다.

7) 楊家駱 主編, ≪歷代詩史長編 ·唐詩初箋簡編≫, 鼎文書局, 1970, 3쪽.

8) ≪唐詩三百首≫의 선시 기준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김준연의 <≪唐詩三百首≫의 連作詩 選錄 양상 연구>(≪중국어문논총≫ 제46집, 2010)와 박혜경의 <≪唐詩三百首≫의 選詩 경향과 詩論的 배경>(≪중국문학연구≫ 제 69집, 2017) 등이 있다.

9) 이는 邱燮友 注釋의 ≪唐詩三百首≫(三民書局, 2005)에 수록되어 있는 陳婉俊 補注本의 蘅塘退士 原序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0) 朱自淸 역시 <≪唐詩三百首≫指導大系>(≪朱自淸古典文學論文集≫ 下卷, 上海古籍出版社, 1981, 358~359쪽)에서 "入選的差不多都是經過一千多年淘汰的名作, 差不多都是歷代公認的好詩. 雖然以**明白易解爲主**, 幷限定詩篇的數目, 規模不免狹窄些, 卻因此成爲道地的一般的選本 (後略)..."이라고 한 바 있다.

11) 潘德衡, ≪唐詩評選≫, 柳原書店, 1937, 15~16쪽.

12) "我以爲工部最少可以當得起情聖的徽號. 因爲他的情感的內容, 是極豐富的, 極眞實的, 極深刻的. 他表情的方法又極熟練, 能鞭辟到最深處, 能將他全部完全反映不走樣子, 能像電氣一般一振一盪的打到別人的心絃上. 中國文學界寫情聖手, 沒有人比得上他, 所以我叫他做情聖." ≪杜甫研究論文集≫一輯, 北京: 中華書局, 1962, 2쪽.

13) 김월회는 <20세기 초 중국의 민족문화주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29~130쪽)에서 20세기 초 중국은 중서문화의 소통과 근대적 의사 소통체제의 구축 등으로 중화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세계질서가 근대적 세계질서로 재편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이었던 '文'과 그것의 정수인 '詩'의 위상과 역할이 더 이상 '全一性'을 추구하는 전통적 세계관의 담지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서구 근대 이후의 분과적 사유방식과 정감표현을 위주로 하는 순수문예 관념의 문학 장르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唐詩品彙≫를 거치며 4당분기설로 확립되었는데,[14]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唐詩 분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그 중 胡適은 8세기 전과 후의 구분법을 제시하면서, 사실성과 의경의 진실성을 갖춘 安史의 난 이후의 작품들에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15] 蘇雪林 역시 기존의 初, 盛, 中, 晩唐으로의 시기 구분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齊, 梁의 기풍 계승 시기-낭만문학 융성 시기-사실문학 탄생 시기-유미문학 발달 시기-唐詩의 쇠퇴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16] 이러한 일련의 시기 구분과 관련한 논의들은 전통시기 정변론에 의거하여 唐詩의 흐름을 파악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17] 먼저 근대의 唐詩 분기론은 시풍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聞一多는 <詩的唐朝>에서 天寶 시기에 발생한 安史의 난 이후 문벌귀족은 소멸하고 평민 출신의 사인들이 전면에 들어서게 되었음에 주목하였고,[18] 蘇雪林 역시 安史의 난 이후 사실성과 진실성을 담은 문학이 시작되었다는 胡適의 설명에 "천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논의로, 당시를 논함에 있어 마땅히 이로써 준거를 삼아야 한다(這眞是千餘年來未有之議論, 以後我們論唐詩都當以此爲準.)"[19]며 적극적 지지를 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곧 시문학 창작 주체의 신분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은 곧 사회-문학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한 그야말로 '근대'적 唐詩 읽기의 한 가지였던 셈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에 배태된 문학사 서술의 욕망이 唐詩 읽기의 근대적 시도 곧 담론화의 과정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김월회는 근대 이후 시작된 문학사 서술은 담론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 있는데,[20] 이는 근대에 이루어진 唐詩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蘇雪林의 ≪唐詩概論≫은 서양의 주요 문학사조들을 차용해 唐詩와 唐詩의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그녀는 스스로 ≪唐詩概論≫에서 채택한 낭만, 사실, 유미주의라는 서양의 문학 이론은 문학사 서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21] 결국 唐詩의 담론화는 일국의 문학사 구축이라는 근대의 욕망이 투사된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는데, ≪唐詩雜論≫에서 初唐時期 작품들의 역사적 의미 규명을 시도한 聞一多나 ≪唐代詩學≫을 통해 唐詩의 연원과 宋代 이후 唐詩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楊啓高의 논의들 역시 이렇듯 근대가 구축한 일국 문학사 구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수행된 담론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4. 正典으로서의 '唐詩'-연구의 완정성을 위하여

일찍이 켈리 넬슨이 언급한 "문화적 기억 상실증(cultural amnesia)"은 정전 형성이 사회문화적 권력에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2] 본받거나 모방할만 텍스트를 지칭하는 正典은

14) 당시 분기에 대한 역대의 논의에 관해서는 유병례의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詩歌 서술체제의 諸問題-唐詩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제15집, 1998, 125~132쪽)을 참고할 것.

15) "開元天寶的文學只是少年時期, 體裁大解放了, 而內容頗淺薄, 不過是酒徒與自命爲隱逸之士的詩而已. 以治上的長期太平而論, 人稱謂盛唐, 以文學而論, 最盛之世其實不在這個時期, 天寶末年大亂以後方才是成人的時期." 胡適, ≪白話文學史≫, 文光圖書公司, 1964, 220쪽.

16) 蘇雪林, ≪唐詩概論≫, 商務印書館, 1933, 12~13쪽.

17) 高棅의 ≪唐詩品彙≫ 序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나라 삼백 년 동안 시의 모든 체제가 다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고체시, 근체시, 장단구, 오칠언 율시, 절구 등과 같은 것이 당 초기에 흥기하였고, 중기에 완성되었으며 전변기에 변화하였고 말기에 무너져버렸다. 성률, 흥상, 문사, 이치 등에 있어서도 각각 품격의 고하가 달랐다.(有唐三百年, 詩衆體備矣. 故有往體, 近體, 長短篇, 五七言律詩, 絶句等制, 莫不興於始, 成於中, 流於變, 而陊之於終. 至於聲律, 興象, 文詞, 理致, 各有品格高下之不同.)"

18) 聞一多, ≪唐詩雜論≫, 中華書局, 2015, 240쪽.

19) 蘇雪林, 위의 책, 17쪽.

20) 김월회, <'G2'시대의 중국문학사 敎學>, ≪중국문학≫ 제78집, 2014, 87쪽.

21) 蘇雪林, 위의 책, 20쪽.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망각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간다는 것이 넬슨의 설명인 셈이다. 중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詩三百'이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경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關雎>가 '후비의 덕'으로 해석되었음이 그 대표적 사례하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텍스트는 그 위치가 규정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고전문학의 전범으로 여겨지던 '唐詩'가 어떻게 읽혀지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곧 '唐詩'가 각기 다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계기이자, '근대'라는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이기도 한다. 1902년 중국 사회는 <欽定學堂章程>을 공포한 이래 계속되는 학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강구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된 학제 시스템 속에서 문학사 및 '語文' 또는 '國語'라는 교과목 명으로 문학 교육을 실시하였던바, 20세기 초 중국에서 시도된 이른바 교육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고전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 고찰은 본고를 구성하는 또 다른 논의의 중심이다. 추후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중국에서 편찬된 어문 교과서 및 교육 과정 등을 통해 근대라는 시대적 전환 속에서 이루어진 唐詩 인식의 변화 과정 고찰을 보태어 중국 근대의 '唐詩' 인식에 대한 종합적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22) 김양순, <현대 미국시의 정전의 문제>, ≪미국학논집≫ 제 36집 2호, 2004, 88~89쪽.

11月 21日(土) 09:00~10:30

현대문학(1)

❖ 중화권 문학과 문화 연구

우강식(경북대)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최병규(안동대) 영화 연지구(胭脂扣, 1987)의 남녀양성관계의 모식과 작가 이벽화(李碧華)의 애정관

조영현(서울여대) 리앙(李昂)의 ≪미로의 정원(迷園)≫과 反디아스포라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우강식*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武功의 상징적 의미
   1)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
   2) 개성화한 무공
   3) 武學思想
3. 서사에 미친 영향
   1) 주제의식의 표현
   2) 무공비급과 병기를 통한 서사 진행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金庸의 무협소설을 중심으로 무협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협소설은 江湖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俠義精神을 지닌 俠이 강호에 출현하고, 俠은 武功의 수단을 써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구제하거나 혹은 강호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묘사한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무협소설이 독서 되는 이유 또한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독자들의 바람을 상징하는 俠의 출현,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俠이 무공의 수단을 써 강호에 正義를 실현하는 서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협소설의 배경인 강호는 곳곳에 분쟁의 위험이 내재한 곳으로 무공은 강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존 수단이며,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강호인들이 무공을 연마하는 목적으로 하나는 개인의 생존에 관한 것인데, 분쟁과 위험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강호라는 공간에서 강호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무공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俠의 이상에 관한 것으로, 협객들은 鄭春元이 강호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인적인 무예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1] 것처럼 善과 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강호에서 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공은 필수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강호를 행보하는 俠은 비록 충만한 俠義精神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무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강호에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 제약과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때문에 "武"와 "俠"을 결합한 문학 장르인 무협소설은 俠의 완성, 곧 강호질서 구현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武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武와 俠을 중시하는 무협소설 장르의 특성은 줄곧 무협소설 창작 과정에서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梁羽生은 "무협소설에서 俠은 武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 俠은 영혼이고, 武는

* 경북대학교

1) 鄭春元, ≪俠客史≫, 上海文藝出版社, 1999年, 183쪽.

육신이며, 또 俠은 목적이고, 武는 俠을 달성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金庸의 무협소설은 "武는 많지만, 俠은 적다"[2]고 비판하였다. 또 古龍은 "무공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3]고 하며 무공 묘사의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무협소설 장르의 속성은 본래 독자들에게 독서 되기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이지 무술교본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과 예술적인 가공은 장르의 틀 안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무협소설에서 무공만이 묘사되고 俠義精神이 묘사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무공이 단순한 俠의 行俠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俠과 더불어 서사를 이끌어가는 무협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무공에 관한 분석은 무협소설 장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작업이라 하겠고,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다.[4] 본 연구는 주요 논의의 대상을 현대무협소설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정신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무공의 창조와 묘사에 상당한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金庸의 무협소설(金庸, ≪金庸作品集≫, 三聯書店, 1999年)[5]을 중심으로 하였다.

2. 武功의 상징적 의미

1)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들을 살펴보면, 太極拳을 비롯한 武當拳, 少林拳 등 30 여종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무공이었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무공은 작가에 의해 창작된 무공들이었다.[6]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작가에 의해 창작된 무공인데, 예를 들면, 庖丁解牛掌과 北冥神功, 逍遙遊掌(≪莊子≫), 降龍十八掌과 兩儀劍法(≪周易≫), 黯然銷魂掌(江淹의 <別賦>), 唐詩劍法(≪唐詩三百首≫), 凌波微步(曹植의 <洛神賦>), 美女拳法(고대 미녀에 관한 고사) 등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金庸은 무공과 초식을 창작하는 데 중국 전통 詩文을 비롯한 철학사상 등 다양한 방면의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무공과 초식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庸은 자신이 창작한 무공과 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나의 소설에 있는 초식들은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낸 것들이다. 해당하는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서 고사성어 가운데서나 혹은 詩詞와 四書五經 가운데서 적합한 어휘들을 찾아 그 초식의 이름을 지었다. 때로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직접 네 글자를 지어서 맞춰 넣었다. 결국, 그 초식의 이름을 형상화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 무술의 일반적인 초식은 언제나 형상화된 것이다. 당신은 그 이름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동작을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7]

---

2) 在武俠小說中, 俠比武應該更爲重要. 俠是靈魂, 武是軀殼; 俠是目的, 武是達成俠的手段.……武多俠少.(傅國湧, ≪金庸傳≫, <金庸梁羽生合論>,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3年, 267쪽)

3) 武功是用來殺人的, 不是用來給人看的.(陳墨, ≪金庸小說與中國文化≫,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年, 190쪽.)

4) 金庸 무협소설의 무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5) 이하 金庸 작품의 인용은 본 작품집을 참고함.

6) 向君, ≪金庸小說武功名稱研究≫, 西南大學, 2010年, 碩士, 13-16쪽 참조. 黃燕, <金庸小說中武功名稱與文化意蘊>, ≪語文建設≫ 20期, 2014年, 34-35 참조.

7) 我的小說裏面的招式, 大多數是我自己想出來的, 看看當時角色需要一個什麼樣的動作, 就在成語裏面, 或者詩詞與四書五經裏面, 找一個適合的字彙來做那個招式的名字. 有時找不到適合的, 就自己作四個字配上去. 總之那招式的名字, 必須形象化, 就可以了. 中國武術一般的招式, 總是形象化的, 你根據那名字, 可以大致把動作想象出來.(翁靈文 等著, ≪金庸茶館≫三, <金庸暢敘平生的著作>, 中國友誼出版公司, 1998年.)

이처럼 金庸은 묘사된 무공과 초식에 인물의 동작과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전에서 적합한 이름을 취하거나 혹은 직접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고 하였고, 독자들은 이렇게 작가가 문화적으로 가공한 무공과 초식의 명칭을 통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降龍十八掌의 亢龍有悔가 펼쳐지는 장면은 "숨이 콱 막히는 것을 느꼈고, 상대방의 장력이 세찬 파도가 마구 일어나는 듯했는데, 세찬 기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또 마치 무형의 높은 담장 하나가 자기 앞을 향해서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8]는 추상적인 묘사만 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렇게 문자를 통해 가공된 무공의 대략적인 형상만 상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허상을 강조한 무공과 초식은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작가가 붙인 무공과 초식의 이름을 통해서 그 형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협소설은 무술을 가르치는 무예 교본이 아니고 독서되기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임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겠고, 작가의 이러한 과장을 곁들인 문화적 가공은 예술적 차원에서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개성화한 무공

金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소설에 묘사된 무공과 초식을 만들어 내었는데, 묘사된 무공들은 임의대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혹은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있었다.

먼저 소설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력을 달리하는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鴛鴦刀≫에서 묘사된 夫妻刀法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를 아끼면서 보호한다는 것인데, 소설에서 이 도법은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林玉龍, 任飛燕 부부에게 전수되면서 실전에서 도법이 가진 본래의 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夫妻刀法은 강적을 만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袁冠南과 蕭中慧 두 연인에게 전수되고 비로소 본래의 위력을 되찾게 된다. ≪神雕俠侶≫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黯然銷魂掌이란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이 장법의 특징은 이별의 고통이 무공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인데, 楊過가 小龍女와 재회하면서 장법의 위력을 결정하는 근원이 사라지자 무공의 위력도 동시에 상실되어 버린다. 그 뒤 다시 小龍女가 위험에 처하자 또다시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공의 위력도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周伯通은 비록 이 무공을 전수하였지만, 무공이 지닌 이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장법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작가는 무공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처한 상황에 따라 무공의 위력도 달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金庸은 또 인물의 이름과 취향 등을 고려하여 무공을 사용하는 병기도 그에 맞추어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소 서법을 좋아했던 朱子柳는 붓을 들면 "서법 가운데 點穴이 있고, 點穴 가운데 서법이 있으며, 참으로 필력이 굳세고도 힘 있었으며, 맹렬하고 날카로웠다"[9]라고 一陽指와 서법을 하나로 융합한 인물의 취향과 조화를 고려한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무공 묘사는 金庸의 소설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서법을 좋아하는 禿筆翁, 張三豊, 張翠山 등에게 붓과 서법은 그들의 병기이자 무공과 초식이 되었으며, 또 음악을 좋아하는 黃鐘公은 비파를, 바둑을 좋아하는 木桑과 黑白子는 바둑판과 바둑돌이 사용하는 병기가 되었다. 그리고 南海鰐神은 악어를 상징하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악어 모양을 한 鱷嘴剪과 鱷尾鞭을 병기로 사용하게 하였고, 앞서 언급한 黃鐘公을 비롯한 黑白子, 禿筆翁, 丹青生 등의 의형제는 이름에 각기 琴棋書畵를 상징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에 맞는 무공과 병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金庸은 또 무공의 성격과 이를 사용하는 인물의 성격과도 조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먼저 자신의

8) 覺氣息窒滯, 對方掌力竟如怒潮狂湧, 勢不可當, 又如是一堵無形的高牆, 向自己身前疾衝.(≪天龍八部≫, 제41회. 1607쪽)

9) 書法之中有點穴, 點穴之中有書法, 當真是銀鉤鐵劃, 勁峭淩厲.(≪神雕俠侶≫, 제12회, 444쪽)

남성을 제거해야만 무공을 익힐 수 있다는 辟邪劍法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성을 상실한 嶽不群과 東方不敗,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인성을 상실한 林平之 등이 이 무공을 습득하도록 하여 인물의 성격과 무공이 지닌 음험한 성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 간결하면서 강건하고, 그러면서도 기교가 거의 없는 성격을 지닌 降龍十八掌은 성실함과 우직한 성격을 지닌 郭靖과 소탈한 성격에 영웅적 기개를 지닌 蕭峰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손이 각기 다른 무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무공인 雙手互搏은 단순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郭靖과 小龍女 등은 이 무공을 쉽게 배울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잔꾀가 많고 영민한 黃蓉은 어떻게 해도 이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다. 또 위험이 닥치면 빠져나갈 것을 먼저 궁리했던 韋小寶에게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공술인 神行百變을 생존을 위해 안배하였다.

3) 武學思想

金庸은 자신이 가공한 무공에 대한 요지, 혹은 연마과정을 통해 무공의 창조와 묘사에 관한 자신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無의 경지를 강조하는 것과 수련 과정에서 悟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笑傲江湖≫에서 風淸揚은 令狐沖에게 獨孤九劍을 전수하여 무공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실제 필요에 근거해 배우고 융통성 있게 펼치는 것은 제일 첫걸음에 불과하다. 손을 쓸 때 초식이 없다면, 비로소 진정한 고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만약 네가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다면, 적이 어떻게 너의 초식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10]

무공을 배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펼치는 것이 입문단계라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융합의 단계는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라 하겠고, 근본적으로 초식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단계는 무공발전 과정의 최고의 경지임을 말하고 있다. 無의 경지에 이른 무공, 곧 有招와 有劍의 단계에서 無招와 無劍의 경지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이는 金庸 무협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무학사상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金庸은 또 무공의 無의 경지를 중시함과 동시에 무공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悟'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倚天屠龍記≫에서 武當派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중략]무공에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고는 저절로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웃음을 지었다.[11]

張君寶가 武當派의 시조 張三豊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九陽眞經≫에 담긴 무학의 이치를 홀연히 깨닫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곧 '悟'의 과정을 통해 고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무학이라는 것은 佛家의 禪宗과 마찬가지로 십 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하는 것이 하룻밤에 문득 진리를 터득한 것만 못할지도 모른다"[12]는 무학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결국, 무공을 연마함에 있어 "깨달음(悟)"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무공의 진정한 위력을 습득하여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金庸은 이렇게 자신이 가공한 무공에 無와 悟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문자에 의해 추상적으로만

10) 活學活使, 只是第一步. 要做到出手無招, 那才眞是踏入了高手的境界. 你說'各招渾成, 敵人便無法可破', 這句話還只說對了一小半. 不是'渾成', 而是根本無招. 你的劍招使得再渾成, 只要有跡可尋, 敵人便有隙可乘. 但如你根本幷無招式, 敵人如何來破你的招式?(≪笑傲江湖≫, 제10회, 372쪽)

11) 某一日在山間閒遊, 仰望浮雲, 俯視流水, 張君寶若有所悟, 在洞中苦思七日七夜, 猛地裏豁然貫通, 領會了武功中以柔克剛的至理, 忍不住仰天長笑.(≪倚天屠龍記≫, 제2회, 68쪽)

12) 武學猶如佛家的禪宗, 十年苦參, 說不定還不及一夕頓悟.(≪俠客行≫, 제20회, 590쪽)

존재하던 무공을 문화 예술적으로 읽고 감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無와 悟의 이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무학사상은 俠이 강호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무공을 연마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에 따른 문제도 동시에 해소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서사에 미친 영향

1) 주제의식의 표현

金庸 무협소설에서 소설의 주제의식은 주로 정의를 펼치는 俠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때 俠의 행위는 대부분 무공의 수단을 통해 표현된다. 무공은 俠이 강호에서 정의를 펼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무공 자체는 분명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 이외에 타인을 상해하는 폭력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때문에 金庸은 "어떤 무공을 연마하든지 간에 언제나 마음에 자비로움과 어질고 착한 생각이 있어야 하오. 만약 佛學을 기초로 삼지 않고 무공을 연마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될 것이오"[13]라며 무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순화하기 위해서 무공수련 과정에서 먼저 심성의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공 자체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지만, 金庸은 무공을 연마하는 목적을 통해 선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무공을 할 줄 몰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무공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14]라고 하였고, 또 무공을 하는 자가 "선을 행하면 무공이 강할수록 더욱 선해지고, 악행을 저지르면 무공이 강할수록 더욱 악해진다"[15]라고 하였다. 곧 무공은 사용하는 자의 성품과 행위방식에 따라 선과 악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俠에게는 무공연마와 더불어 무공의 사용에 있어도 엄격한 강호의 도덕 규범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袁承志가 무공을 배우기 전 "伏虎掌法을 연마한 이후에 절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사람을 상해하지 않겠습니다"[16]라고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무공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공을 배우는 목적을 俠義精神의 실천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洪七公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였지만, 소설에서 그를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이는 없었으며, 도리어 강호인 대부분은 그를 俠士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의 행위가 俠義精神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 胡斐가 鳳天南을 죽여 鍾阿四의 원한을 갚아준 것이라든지, 虛竹이 生死符를 사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丁春秋를 제압하는 행위 등이 폭력적이라는 비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반대로 嶽不群, 歐陽鋒 등이 비록 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었지만, 俠士로 칭송되지 않은 것은 모두 무공을 사용하며 俠義精神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협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무공을 사용해 타인의 생명을 상해하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악을 징벌한다는 俠義精神에 근간을 둔 엄격한 강호의 도덕적 규범을 통해 무협소설 장르가 지닌 폭력적인 성격을 완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

13) 那老僧道: "本派武功傳自達摩老祖. 佛門子弟學武, 乃在强身健體, 護法伏魔. 修習任何武功之時, 總是心存慈悲仁善之念. 倘若不以佛學爲基, 則練武之時, 必定傷及自身.(≪天龍八部≫, 제43회, 1683쪽)

14) 不會武功, 也能殺人. 會了武功, 也未必殺人.(≪天龍八部≫, 제8회, 296쪽)

15) 行善則武功愈强愈善, 肆惡則愈强愈惡.(≪射雕英雄傳≫, 제40회, 1406회)

16) 學會了伏虎掌法之後, 決不敢欺壓良善, 傷害無辜.(≪碧血劍≫, 제2회, 45쪽)

17) 陳平原은 협객들의 살인행위가 충분히 무공의 道德化 과정을 거쳤기에 소설에서 수용된다고 하였다.(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 人民文學出版社, 1992年, 129쪽 참조.)

2) 무공비급과 병기를 통한 서사의 진행

강호에 특별한 내력을 지닌 병기나 절세 무공의 비밀을 담은 무공비급의 등장은 언제나 무협소설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金庸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강호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며 서사를 진행하였다. 특이한 능력과 내력을 지닌 무림비급과 병기들은 강호를 행보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함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호인들이 이를 쟁탈하고자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고, 나아가 이들의 출현은 곧 자연스럽게 강호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倚天屠龍記≫의 서사는 '屠龍刀'라는 병기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는데, 강호인들은 屠龍刀를 무림지존의 병기로 신성시했고, 이를 차지하고자 武當派를 비롯한 天鷹教와 少林派, 峨嵋派 등 소설에 묘사된 대부분의 강호문파가 분쟁에 간여하였다. 또 ≪鴛鴦刀≫에서도 그것을 얻는 자는 천하에 적수가 없게 된다는 전설을 지닌 鴛鴦刀를 중심으로 전체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威信鏢局 周威信을 비롯한 太岳四俠 등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鴛鴦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암투가 묘사되고 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마찬가지로 강호에 무림비급의 존재 또한 강한 무공을 습득하고자 하는 강호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비급의 출현은 강호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九陰眞經≫은 ≪射雕英雄傳≫의 주요 갈등을 촉발하며 전체 서사를 이끄는 요소라 할 수 있고, 이 무공비급은 이후 ≪神雕俠侶≫와 ≪倚天屠龍記≫의 서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笑傲江湖≫에서의 묘사된 ≪辟邪劍譜≫ 역시 이를 쟁탈하기 위해서 묘사된 각종 암투와 분쟁이 소설의 주요 서사라 할 수 있다. 소설은 福威鏢局이 비급으로 인해 멸문당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余滄海를 비롯한 수많은 강호인이 비급을 차지하고자 서로 죽이거나 상해하는 것이 묘사되고 있다. 또 東方不敗를 비롯한 岳不群, 林平之 등은 모두 비급의 무공을 익히고 난 이후 차례로 人性을 상실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된다. 또 ≪天龍八部≫에서 묘사된 大理國의 六脈神劍의 검보 또한 소설의 서사와 깊이 관여되는데, 吐蕃 승려 鳩摩智는 이 검보를 얻고자 강호에 나왔고, 곳곳에 적지 않은 풍파를 일으킨다. 段譽 역시 이 검보로 인해서 王語嫣을 만나고, 蕭峰의 서사를 소설의 중심에 끌어내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무공비급의 출현은 더욱 강한 무공을 얻고자 하는 강호인들의 욕망과 맞물려 강호에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병기와 무공비급은 無와 悟의 과정을 통해 강호의 중심인물이 무공을 습득하는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였던 것처럼 강한 무공을 습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인 제약을 압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18]

4. 나가는 말

이상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무공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가공된 무공과 병기 등을 서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金庸은 인물의 형상과 무공을 사용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통의 詩文과 철학 사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은 비록 문자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추상적인 형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예술적 감흥과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또 金庸은 자신이 가공한 무공의 요지를 설명하며 無의 경지를 제시하였고, 수련방법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무학사상은 俠이 강호에서 장시간 무공수련을 하는 것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또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무공비급은 대체로 소설에 묘사된 다른 병기와 무공의 능력을 월등히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기와 무공비급 역시 무학

18) 林保淳, <武林秘籍: 武俠小說"情節模式"論之一>, ≪西南大學學報≫, 第01期, 2006年, 47-48쪽 참조.

사상과 같이 인물의 무공을 단시간에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강호에 출현하게 되면 강호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의 국면이 형성되게 되며, 소설의 서사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모든 문학작품이 그러하지만, 특히 무협소설은 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俠이 무공을 사용해 강호에 정의를 펼친다는 무협소설 장르의 특성에 비춰보면, 무협소설은 묘사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칫 폭력적인 성향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金庸은 가공한 무공에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적인 의미를 담았고, 또 이러한 무공을 수련하거나 사용할 때 俠義精神을 강조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하겠다. 무공의 창조와 묘사의 다채로움은 俠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무협소설이 폭넓게 독서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武"를 창조하고 묘사한 것이 성공적이냐의 여부는 무협소설 작품의 정채로움과 그렇지 않음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현대무협소설 작가들이 장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창작 태도를 가지고 창작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연지구(胭脂扣, 1987)의 남녀양성관계의 모식과 작가 이벽화(李碧華)의 애정관

최병규*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연지구의 양성관계 모식
3. 이벽화의 애정관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정 많은 여성과 박정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는 중국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다.[1] 여기서 여성은 대개 화류계의 명기이고, 남성은 멋진 외모에다 다정다감함을 지니고 있는 풍류재자이다. 연지구는 중국고전소설 속 흔한 이야기의 연장인 듯 비록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도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다. 시종일관 의리를 지키는 여성에 비해 남성은 언제나 나약하고 쉽게 변절한다. 그로 인해 여성은 사랑의 피해자 내지는 희생자가 되고, 반면 남성은 사랑의 가해자 내지는 배신자가 된다. 그러나 연지구는 비록 이런 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벽화 특유의 기발한 구성으로 인해 중국고전소설 속 진부한 이야기에서 환골탈태하여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중국고전문학 속 박정한 남성과 다정한 여성의 애정비극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양성관계 속 '치정'에 대한 이벽화의 집착은 물론, 철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랑의 희생자인 여성의 숙명적 비운과 이에 대한 무한한 동정, 그리고 사랑과 세사의 무상함 등 이벽화 작품의 일관된 주제성을 매우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연지구의 양성관계 모식

1) 다정한 여자와 박정한 남자간의 숙명적 결합

연지구 속 여주인공 여화(如花)는 당시 화류계에서 많은 표객들이 탐내는 가장 몸값이 높은 기녀였지만 젊고 잘생긴 한량 십이소(十二少)와 사랑에 빠져 유독 그에게만 몸을 허락하였으니, 나름대로 지조가 있는 기녀였다. 여화는 기녀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의 평범한 보금자리를 꾸리고자 그와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십이소 부모가 반대하자 그녀는 내세에서의 그와의 행복한 결합을 꿈꾸며 동반자살을 주도한다. 여기서 여화는 십이소에게 미리 말하지도 않고 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이는데, 이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극단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원영정(袁永

* 안동대학교

1) 대표적인 예가 당 전기 원진(元稹)이 지은 「앵앵전(鶯鶯傳)」, 그리고 명대 풍몽룡이 편찬한 소설집 삼언 속의 명작 「두십낭이 노해 보석 상자를 강물에 던지다(杜十娘怒沈百寶箱)」 등의 작품일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고전소설 가운데 이른바 '월장밀애류' 소설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定)의 여자 친구 아초(阿楚)는 여화를 이기적인 살인자라고 꾸짖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범한 자신들과의 삶과 달리 사랑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여화의 깊은 '치정'을 이해하고는 곧 그녀를 선망하고 동정하게 된다. 십이소에 대한 여화의 깊은 치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죽은 후에 동반자살을 한 정인을 53년간 기다렸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이승으로 그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에 비해 십이소의 여화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집중력이 부족했다. 영화 속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십이소(十二少) : 당신은 많은 모습을 갖고 있소.(你有好多种样子.)
여화(如花) : 어떤 모습들을요?(哪几种啊?)
십이소(十二少) : 진한 화장의 모습, 옅은 화장한 모습, 남장의 모습, 화장을 안 한 모습, 그리고 지금과 같은 마치 꿈같은 몽환적인 달의 모습, 다가오는 듯 멀어지는 듯한 꽃의 모습.(浓妆，淡妆，男妆，不化妆，还有现在如梦如幻月，若即若离花.)
여화(如花) : 당신은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죠?(你最喜欢那种？)
십이소(十二少) : 모두 좋아해요. 하나하나든 모두가 함께 모여 있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당신이죠?(都喜欢，分开，加在一块都喜欢。哪一种才是真的？)
여화(如花) : 그렇게 빨리 알려고 하면 당신이 놀랄 거예요. 진짜는 가장 보기 싫은 거예요.(这么快就想知道，会吓着你的，真的东西最不好看了.)
십이소(十二少) : 보기 싫어도 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죠.(不好看也要看，谁叫我喜欢你.)

여화(如花) : (옷이) 다 구겨졌어요.((옷이)都皱了.)
십이소(十二少) : 서양 옷은 주름이 생기면 더 입기 좋아.(西衣服皱了更好穿.)
여화(如花) : 오래 되면요?(舊了呢?)
십이소(十二少) : 버려버리지.(摔掉了.)
여화(如花) : 사람은요?(人呢?)
십이소(十二少) : 역시 폐품이 되지. 뭐가 두려워? 당신은 이렇게 많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를 버리면 또 다른 모습의 당신이 있잖아.(照廢了. 怕什麽? 你有這麽多種樣子. 我摔掉了一種，你還有第二種.)

여화(如花) : 당신은 숙현씨에게 귀걸이를 달아주나요?(你会不会帮淑贤戴耳环？)
십이소(十二少) : 달아주지. 나는 그녀에게 귀지를 파주면서도 한편으론 당신을 생각할 거야.(会啊，我还会帮她掏耳朵一边掏一边想你.)
여화(如花) : 당신은 숙현씨에게 치파오도 입혀주나요?(你会不会帮淑贤穿旗袍？)
십이소(十二少) : 입혀주지. 나는 그녀에게 원앙단추도 채워줘. 그러나 채워주면서도 한편으론 당신을 생각하지.(会啊，我还会帮她扣鸳鸯扣，不过会一边扣一边想你.)

위 인용문에서 보듯 여화는 매번 십이소의 사랑을 확인코자 질문을 던지지만 그는 너무도 솔직하게 자신이 한 여성에게만 몰입하는 타입이 아님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여화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매달린다. 십이소에 대한 여화의 이런 사랑과 집착은 십이소의 풍류와 매력에 빠진 때문이다. 십이소는 비록 중국전통 재자가인류 애정소설 속 남주인공처럼 재기와 교양이 높은 문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풍류재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자였다. 그는 젊고 잘 생긴 외모에다 멋과 정취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십이소가 여화의 매력에 대해 언급한 위 내용은 단순한 표객과 기녀간의 저속한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십이소는 여화를 단지 노류장화 내지는 욕정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심미적으로 그녀를 흔상하고 탐미하고 있다. 자고로 중국고전문학에서 가인들이 풍류재자들의 멋과 정취가 넘치는 문사와 재치에 쉽게 녹아들었던 것처럼 여화는 자신을 노리갯감이 아니라 미적인 대상으로 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십이소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영화 속에서 십이소가 여화와 사귀어가는 과정에게 폭죽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헌사한 재치 넘치는 대련 글귀 '꿈같고 몽환적인 달의 모습, 다가오는 듯 멀어지는 듯한 꽃의 모습(如梦如幻月, 若即若离花)' 역시 여화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거기다 그녀에게 선물한 화려하고 멋진 침대도 여성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십이소는 여화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하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매력과 끼, 그리고 번드레한 말솜씨와 선물로 그녀를 감동시켰으며, 그로 인해 여화는 그의 바람기를 알면서도 자연적으로 그에게 푹 빠지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순진하고 다정한 여자와 박정한 배신자 남성(癡情女子負心漢)'의 숙명적 모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2) 여성주의적 양성관계

이벽화의 소설이 거의 그러하듯 이 작품의 남녀양성관계의 모식에서도 강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드러난다. 여화가 생각하는 사랑의 배신자 십이소는 사실 박정한 남자라고 볼 수만도 없다. 아초의 말대로 십이소는 여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 반항하여 가출도 하였으며, 일편단심으로 여화와 동거하면서 함께 경극도 수련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일개 기생을 위해 부잣집 자제가 보인 정성과 감수한 희생으로 볼 때 그 누가 십이소를 박정한 남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거기다 여화는 죽어서라도 십이소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에게 독약을 먹였으니 대단히 무모하고 독단적이다. 당초 십이소는 여화와의 순사(殉死)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독약을 먹었지만 명이 길어 죽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분히 여화의 입장에서 십이소를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사랑의 배신자 내지는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늙은 후 십이소의 험하고 추한 얼굴의 모습은 물론 노숙자가 되어 길바닥에서 오줌을 누며 늙어 오줌발이 약해진 것을 한탄하며 내뱉은 대사도 작가가 배신자의 추악한 말로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이런 가련하고 불쌍한 십이소에 대해 여화는 일말의 동정은커녕 쌀쌀하게 그를 대하며 다신 그를 생각하지 않겠다며 돌아선다. 설령 십이소의 배신과 박정함을 인정하더라도 한때 그렇게 사랑한 남성과의 53년만의 상봉에서 보인 여화의 태도는 그녀가 십이소보다도 더 박정한 여성처럼 보이게 한다.

이처럼 이 영화는 여성주의적 편향적 관점에서 다소 가혹한 잣대로 남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선한 피해자이고 남성은 모두 범속한 겁쟁이로 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 남성에 대한 이런 시각은 영화 속 두 주요 남성들의 묘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겁쟁이란 누명을 쓴 십이소를 제외하고 영화 속 또 다른 남주인공 원영정 역시 지극히 평범하면서 겁이 많은 '소장부'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원영정은 영화 속 제2의 남주인공으로 온화하고 정직한 성품의 올바른 청년으로 나오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을 지닌 남주인공답지 않게 다소 겁 많은 나약한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그가 퇴근길에 버스에서 여화를 다시 만나 서로 대화하다가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 저승에서 온 귀신임을 알아챈 후에 매우 두려워하면서 그녀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앞에서의 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아초와 나눈 대화들도 그가 지극히 범속한 남성임을 잘 말해준다.

> 아초(阿楚) : 당신은 날 위해 자살할 수 있어?(你會不會爲我自殺?)
> 원영정(袁永定) : 우리가 어찌 그리 낭만적이겠어?(我們哪會那麽浪漫?)
> 아초(阿楚) : 할지 안 할지만 말해!(光說會不會!)
> 원영정(袁永定) : 못해. 넌?(不會. 你呢?)
> 아초(阿楚) : 못해!(不會!)

> 아초(阿楚) :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여화를 쫓아버려선 안될 것 같아. 지금 이 세상에 여화처럼 정이 많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여자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들어. 죽어도 왜 죽은지를 알아

주질 않으니. 난 여화가 질투가 나. 그 여자가 남에게 해 준 일을 난 죽을 때까지도 감히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상상도 할 수 없겠지.(我想了一整天, 我不應該就這樣逼走了如花, 今世今日還會有誰像她那樣癡情. 做女人眞難, 偏死了也不知道爲什麽. 我嫉妒如花, 我嫉妒她給人做的事我這一輩子也不敢做, 連想都沒想過.)

원영정(袁永定) : 그래. 우리는 보통사람이잖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지. 같이 살면서 그냥 즐거우면 됐지 서로 마음을 그렇게 무겁고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對, 我們是普通人嘛. 過一天算一天, 在一起高興就行了, 不至於弄得自己的心情沒那麽嚴重.)

이처럼 영화는 아초와 원영정, 그리고 여화와 십이소 두 쌍의 남녀를 비교하면서 지극히 범속한 전자에 비해 후자의 치정을 찬미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의 범속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초는 그래도 치정의 가치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반면 남성인 원영정은 그런 치정의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위 인용문에서 보듯 그냥 체념하면서 보통사람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드러나고 있다. 범속한 남녀들 가운데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 정이 많고 오성(悟性)이 강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남성의 자질을 다소 폄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해심과 다정한 태도는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음에서도 드러난다. 영화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애교와 응석을 부리며 많은 것을 바라면서도 남성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며, 남성은 응당 여성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함이 기본임을 말하는 듯하다. 사실 박정한(薄情漢)으로 폄하된 30년대의 남성 십이소의 여화에 대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매너도 그러하지만 또 다른 남주인공인 80년대 말 원영정의 아초에 대한 태도는 더욱 부드럽고 자상하다. (반면 신문 기자 아초는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남성처럼 활동적이고 괄괄한 성격이다.) 원영정은 비록 4년간이나 아초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살지만 아초에게 선물도 곧잘 하면서 다른 여성에게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매우 건실하고 헌신적인 '소장부'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원영정은 아초에게 그녀의 운동화가 닳은 것을 알고 새 운동화를 샀다면서 그것을 선물하지만, 선물을 받는 아초는 그의 자상함에 크게 감동하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녀는 바쁜 일이 있다며 저녁에 외출하면서 원영정을 마치 아이 다루듯 '얌전하게 집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는 모습은 남녀의 위치가 오히려 전도된 느낌이다. 아초는 남자 친구 원영정에게 한 남자에게만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십이소와 같이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다정하고 잘 생긴 남성을 만난다면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였다. 반면 원영정은 여화와 같은 여성에게는 관심이 없다면서 오직 아초에게만 전념하였다. 여성은 한 남성에게만 구속되길 거부하는 반면 남성은 오직 한 여성에게만 전념해야 함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뒤바뀐 셈이다. 영화는 서로 다른 두 쌍의 남녀 커플을 통해 30년대와 80년대 양성관계의 차이를 보여준다. 30년대 여성 여화는 십이소에게 평생은 물론 내세에서까지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지만 80년대의 여성 아초는 한 남성에게만 정을 쏟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2)]

2) *아초(阿楚) : 그녀(여화)가 날 질투하고 있어.(她嫉妒我耶?) *원영정(袁永定) : 당연히 그러겠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니.(她當然嫉妒你啦. 我對你這麽好.) *아초(阿楚) : 당신 나한테 잘해줄 거지?(你會對我好?) *원영정(袁永定) : 응. 당연하지.(嗯, 當然啦.) *아초(阿楚) : 그녀는 또 말하길, 여자가 팔자가 좋으면 평생 한 남자에게 기댈 수 있지만 팔자가 안 좋으면 기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근데 한평생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만약 십이소처럼 잘 생기고 정 많고 한 여자를 위해 죽길 바라는 남자를 만난다면 나 역시 분명히 그 남자에게 쫓아갈 거야.(她還說女人命好可以一輩子依靠一個男人, 命不好呢, 就只有當妓女了. 我倒覺得一輩子只跟了男人沒意思. 假如我認識十二少英俊癡情, 願意爲一個女人死, 我也一定會跟他的.) *아초(阿楚) : 당신은? 여화를 좋아할 것 같아? 말해 봐!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대답 안하면 다야?(你呢? 你會不會喜歡上如花? 說呀! 會不會啊? 不說話就行了?) *원영정(袁永定) : 그 여잔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감당이 안 돼. 난 너만 있으면 돼.(她感情太激烈, 我受不了. 我只要你.)

3. 이벽화의 애정관

사랑에 대한 이벽화의 생각은 한마디로 그것이 대단히 '공허하고 덧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그녀의 애정관은 '귀고천금(貴古賤今)'의 상실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귀고천금'이란 옛날에 비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천박하게 보는 관점이다. 이벽화는 역사가 진화하면서 세상의 모습이 바뀌듯 인정세태(人情世態)도 변모하여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여 현대인들에게는 옛사람들의 순수함과 깊은 치정의 세계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녀의 이런 생각은 옛날에 대한 향수 즉 회고(懷古, 즉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의 심정을 근저로 하고 있다.[3)]

연지구는 여화가 자신이 살았던 1930년대와 1987년도의 홍콩의 달라진 모습에 크게 놀라면서 깊은 사색에 빠지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세사의 무상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세상은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즉 정(情)도 변질된다. 영화는 30년대의 연인과 80년대 연인들을 상호 교차하면서 달라진 그들의 양성관계와 애정관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아초의 말대로 여화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치정은 자신과 같은 후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감동적인 사랑의 경지이다. 원영정도 이에 동의하면서 현대인들의 사랑은 서로 희생 없이 그저 그날그날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벽화의 애정관은 고금(古今)과 금석(今昔)의 인정세태의 변화로 인한 인간의 정의 변질과 그로 인한 슬픔을 바탕으로 사랑과 특히 전통적 풍류재자 남성 형상에 대한 불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의 이런 애정관은 비단 연지구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연지구와 같이 치정을 찬미한 또 다른 작품 진용(秦俑)과 청사(青蛇)에서도 그러하다. 진용은 몽천방(蒙天放)의 생사와 시대를 초월한 지고지순한 강렬한 치정의 세계와 그것과 대비되는 현대인들의 물질적인 천박한 삶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격세지감의 허탈감과 세사의 무상함, 그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불신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연지구와는 달리 몽천방의 치정이 결국 하려려(何麗麗)를 감동시켜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타고 떠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70년대가 되어 몽천방은 병마용을 탐사하는 학자로 환생하여 역시 일본 여행객으로 환생한 동아를 보면서 다시금 그의 치정이 발동되면서 영화는 끝난다. 그리고 청사는 인간세상의 서생 허선(許仙)의 나약하고 위선적인 정과 대비되는 두 요괴 여성들의 치정의 경지를 찬미하였다. 그러나 진용은 치정의 힘과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찬미한 반면 연지구와 청사에서는 인간세상에서의 치정의 무상함과 비현실성을 개탄하고 있다. 청사는 소청(小青)이 허선을 살해함으로써 인간세상의 치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를 드러내었으며[4)], 연지구에서의 여화의 치정은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녀에게 강한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진용 속 하려려와 같은 '여성'은 그래도 결국은 몽천방의 치정을 받아들였지만, 십이소와 허선과 같은 '남성'들은 치정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졌다. 특히 연지구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남성과 사랑 즉 치정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더욱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가는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굳은 맹세 허황된 연기구름 속 글이 되었으니, 헛되이 마음고생만 했네. 불같이 뜨거운 사랑 일생을 태워도 끝까지 이어지질 못하네.(誓言幻作烟云字, 费尽千般心思, 情象火灼般热. 怎烧一生一世, 延续不容易.)
>
> 당신의 이름은 사랑의 배신자, 그 많은 헛된 그리움.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가버렸네. 공허하게 정

3) 이는 사실 중국인과 중국문화 속에 내재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중국 유교문화 속에 내재된 옛 성인에 대한 숭배사상은 자연히 귀고천금의 '회고'사상을 낳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가와 불가사상이 크게 작용한 중국문학 속 세사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뿌리 깊은 담론들도 자연히 현실을 부정하는 회고적 귀고천금의 사상으로 이어졌다.

4) 최병규, 「인간세상의 치정에 대한 찬미와 회의- 영화 천녀유혼과 청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93집, 2011.

만 주었으니 차라리 처음 만나지나 말았을걸.(负情是你的名字，错付千般相思，情象水向东逝去，痴心枉倾注，愿那天未曾遇.)

서로 함께 붙어있을 줄만 믿었는데, 세상사 통한만 남겨주었네. 꽃다운 청춘은 늙어가니 사랑의 불꽃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변하였네.(只盼相依，那管见尽遗憾世事，渐老芳华，爱火未减人面变异.)

그날 다시 만날 것을 기도하면서 그 많은 그리움만 주었네. 다시는 당신을 져버리지 않고 바보처럼 마음을 다 쏟고 사랑이 영원하길 기도하지만 그 언제나 다시 만나리.(祈求在那天重遇，诉尽千般相思，祈望不再辜负你，痴心的关注，人被爱留住. 问哪天会重遇.[5])

연지구의 이런 절망적 애정관은 원작 소설 속 작가의 서술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마 천만 명 가운데 한 쌍의 양산백과 축영대가 나타나 두 마리의 나비가 될 것이다. 나머지들은 전부 나방이 되거나, 바퀴벌레, 모기, 파리, 풍뎅이 등이 되고 나비가 되진 않는다.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가 않다.(这就是爱情，大概一千万人之中，才有一双梁祝，才可以化蝶。其它的，只化为蛾、蟑螂、蚊蚋、苍蝇、金龟子……就是化不成蝶，并无想象中美丽.[6])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의리인가? 모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이 치정이고 무엇이 미혹됨인가? 모두 남자와 여자가 치르는 장난이 아닌가? .....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스스로 불운을 자초한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什麽叫情，什麽叫意? 還不是大家自己騙自己. 什麽叫痴，什麽叫迷? 简直是男的女的在做戏.....你要是爱上了我，你就自己找晦气 我要是爱上于你，你就死在我手里.[7])

이처럼 이벽화의 애정관은 철저한 불신과 배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더구나 여화는 자신의 사랑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으며, 상대인 십이소의 진면모를 알면서도 숙명적으로 그에게 빠져들었으니 결국 스스로와 남을 기만한 셈이다.

4. 나오는 말

연지구는 이벽화의 소설 가운데 그녀의 독특한 양성관계의 모식과 애정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벽화 소설의 양성관계는 중국고전문학 속 남녀양성관계의 전통적인 모식을 계승하여 가식적이고 박정한 풍류재자 남성과 순수하고 다정한 여성간의 사랑의 불협화음을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그러나 이벽화의 애정관은 이런 전통적인 흔한 주제를 계승·발전시켜 현대적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박정한 남성들에 대한 가혹하리만큼 냉혹한 질책과 정 많은 여성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을 적용하면서 사랑에 대한 절망감과 세사의 무상함 등을 표현하였다. 연지구는 이벽화 작품들에 나타난 이런 일관된 사상들을 매우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광동어판 영화의 주제가이다.

6) 李碧華,『胭脂扣』, 北京: 新星出版社, 2018, 90쪽.

7) 위의 책, 113쪽.

리앙(李昂)의 ≪미로의 정원(迷園)≫과 反 디아스포라

趙映顯*

<目 次>

1. 서론
2. 방법으로서의 사이노폰과 反 디아스포라
3. ≪미로의 정원≫과 反 디아스포라
4. 소결

1. 서론

타이완의 계엄 체제 속에서 성장한 리앙(李昂, 1952～)은 지난 50년간의 타이완 역사를 "'백색테러'에서 최근의 소요사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천명한다. 이어서 작가는 "줄곧 체제의 반대자"로 "저항과 투쟁"의 '문제작가'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온 자신의 문학 생활을 개괄하며, 자신의 작품들은 "'性'이나 '政治' 같은 사회적 금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같이 좌절, 실패, 초조를 담고 있지만 마침내 모두 극단적 방법을 통한 변신과 새로운 자아인식으로" 나아가는 "지극히 '여성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더럽혀지지 않은, '정치적으로 정당한'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한다.[1] 본문은 바로 이 "'정치적으로 정당한' 아름다움"을 리앙의 ≪미로의 정원≫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미로의 정원≫은 <서문>에서 "소설이 타이완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2]고 작가가 강조한 것처럼, 격동의 타이완 현대사 속에서 점점 쇠락해가는 "명문 세가 루성(鹿城) 주씨(朱家) 후손 주잉홍(朱影紅)"(21)의 성장 과정과 대단히 파격적인 성적 묘사를 통하여, "정치적 우언과 섹슈얼리티를 긴밀하게 결합시킨 작품"[3]이다. 이 작품은 또한 '타이완'의 '신분'을 '여성' 혹은 '여성의 몸'에 비유하였다거나, '타이완'을 '피식민자'로 그려내면서 특정 역사 시기를 구성했다[4]는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으로 인해 다양한 화제를 불러왔다고 한다.[5] 물론 국민당에 자행되었던 폭압의 희생자 아버지 주주옌(朱祖彦)에 이어, 주잉홍이 부동산 갑부인 남편 린시경(林西庚)의 도움을 받아 다시 '菡園'(주씨 집안 소유의 대정원)을 복원하는 것도 이 작품의 주요한 소재이다. 그래서 린시경과 주잉홍의 결합과 정원 복원 행위는 "타이완의 전통 문화 자본과 신흥 상업 자본의 결합을 상징하며 그럼으로써 적대적 양성 관계를 해체시키고 양성관계와 타이완 현대 정치를 결합"시킨다고 할 때, "린시경의 자본과 현대 문명의 산실인 사진의 기능 그리고 주잉홍의 기억이 만나 재건한 '菡園'은 남성 린시경과 여성 주잉홍의 화해의 장

* 서울여자대학교

1) 李昂, 김태성 譯, <리앙이 리앙을 인터뷰하다>, ≪눈에 보이는 귀신≫(파주: 문학동네, 2011), 418, 420～421, 426쪽.

2) 李昂, 김양수 譯, ≪미로의 정원≫(서울: 은행나무, 2012), 5쪽. 이후 본문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3) 김순진, <李昂 소설을 통해 본 국가와 섹슈얼리티──『迷園』을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第45號, 83쪽.

4) 張雙英, <論≪迷園≫的敘事結構及其歷史記憶>, ≪淡江中文學報≫ 第二十二期(2010.6), 130～131쪽.

5) "이 소설이 발표되던 시기 타이완에서는 민족(ethnic)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습니다. 학자나 평론가들이 타이완 사회의 변천과 정치적 변동에 대하여 대규모로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대학원생들이 저의 소설로 학위논문을 썼으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소설 속 여주인공 주잉홍의 형상과 관련하여 여성운동의 수단과 전략의 문제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리앙, <한국어판 서문: 한국에도 있는 '미로의 정원'>, ≪미로의 정원≫, 7쪽.

이자 현대 문명과 전통의 화해를 시도하는 장이기도 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정치와 역사, 문화와 페미니즘이 어우러지는 이야기 속에서 주주엔의 고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작품의 현실 비판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리앙 문학이 갖는 현실적 의의는 국민당 독재 권력이 40년간의 계엄령을 통해 타이완을 통치하던 시절, 그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뒤틀려버리고 굳어져 버린 타이완인의 영혼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판의 예리함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리앙이 타이완 내에서 비난에 처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녀의 이러한 과감한 폭로와 직선적인 비판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6]

본문은 이상에서 언급한 관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이노폰(Sinophone)과 反離散(Against Diaspora)이라는 시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한' 아름다움"을 재론하고자 한다.

2. 방법으로서의 사이노폰과 反 디아스포라

현재 사이노폰 연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담론은 스수메이(史書美)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정학적 국민-국가(nation-state)들의 주변부에서의 중국어파(Sinitic-language) 문화 및 그 패권적 생산물들에 대한 연구로서 착안된 사이노폰 연구는 중국의 내부 식민주의와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정착한 모든 곳에서의 사이노폰 공동체들 사이의 연접(conjuncture)에서 관심의 대상을 찾는다. 사이노폰 연구는 이 주변부들 안에서 혹은 주변부들로부터 생산된 독특하고 현지적인 사이노폰 텍스트들, 문화들, 실천들을 숙고함으로써, 국민-국가들의 부상 이후에 언어, 문화, 에스닉 특성(ethnicity) 및 국적 사이에 형성된 등가의 사슬을 깨뜨리고, 중국과 중국인다움, 미국과 미국인다움(Americanness, 美國性),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인다움(Malaysianness, 馬來西亞性), 타이완과 타이완인다움(Taiwanness, 台灣性) 등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면서, 창조적이고, 중첩적인 주변부들을 탐구한다. 사이노폰 티베트 문학과 사이노폰 미국 문학은 문학에서의 사이노폰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두 가지 사례이다. 만약 사이노폰 연구의 비판적 작업이 중국-중심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유럽중심주의와 다른 중심주의들,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의 말레이-중심주의와 같은 것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요컨대 그것은 언제나 다방면에 걸친 비판이다.[7]

이러한 사이노폰 개념에서 출발한 스수메이는 중국 대륙 밖의 중국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중국인(The Chinese Diaspora)'이라는 범주로 묶는 것을 비판한다. 즉,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범주는 '해외 중국인(overseas Chinese)'이 고국인 중국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에 봉사하는 것으로 가정되면서 중국의 내셔널리스트와 공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중국인다움(Chineseness, 中國性)으로 인해 인종주의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반면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개념과는 달리, 사이노폰은 인간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또는 인종을 전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거나 사라지는 언어 공동체들 속에서 그 또는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를 중시하고, 국적에 대한 끊임없는 구속 대신, 본질적으로 초국적이며 지구적일 수 있으며 중국과 중국인다움의 주변부에서 다양한 중국어파 언어들이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포함된다. 이에 홍콩의 민주파 또는 타이완의 독립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이노폰 접합들(articulations)은 중국 헤게모니에 대한 반식민 의도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이노폰은 장소 기반의 일상적인 실천과 경험이므로 지역의 필요와 조건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 역사적 구성체로서,

6) 김양수, <역자후기: 타이완 현대사의 숨은그림찾기 ≪미로의 정원≫>, ≪미로의 정원≫, 354쪽.

7) SHIH SHU-MEI, "The Concept of the Sinophone", *PMLA*, Vol. 126, No. 3(May 2011), 710~711쪽.

중국인다움의 다양한 구축에 대한 갈망과 거절의 장——우회적인 내셔널리즘, 반중국 정치, 또는 실재적이든 상상적이든 중국과 관계가 없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8]

물론 스수메이는 타이완의 경우 '정착형 식민주의 (Settler Colonialism)'라고 규정하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식민주의의 현재 상황을 은폐"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한족 타이완인의 상당수는 정착형 식민주의자들이긴 하지만, 타이완 해협 양쪽에서 선전하는 '영토 온전성(territorial integrity)'이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례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개념이며, "사이노폰 문화는 신화적인 중국이나 실제 중국에 대한 향수나 갈망의 가장 강한 표현에서조차도 장소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이 생산되는 장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9]

3. ≪미로의 정원≫과 反 디아스포라

≪미로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 국민당 독재 시절 주잉홍의 성장 과정과 풍요로운 1980년대 린시경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주잉홍의 아버지 주주옌의 딸에 대한 훈육이나 서신을 통해, 200년간의 타이완 역사를 '菡園'이라는 정원에 압축하면서, 한 집안의 타이완 정착기와 번영, 쇠락 등을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 잘 버무려낸 대하소설의 형식을 보여준다.[10]

이 작품에서 본 발표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주옌이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 인식과 '菡園'이라는 공간에 내포된 상징성이다.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 '菡園'의 누각 '影紅軒'에서 따올 정도로 대륙풍의 문화에 젖어 있던 주주옌은 자신이 "지식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가볍게 남에 의해 조종되지 않기 때문에"(78) 국민당 정부에 체포되어 모진 고초를 겪고, 항상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타이완 사람은 진작에 모두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나처럼 폐물이거나 폐인"(64쪽)이라고 자조에 빠져든다. 그는 결국 "이민족이 아니면서 이민족보다 더 잔인하고, 침략자가 아니면서도 침략자보다 더욱 피비린내를 풍기는 존재를 발견"(250쪽)하고, 전등(80쪽)이나 수도꼭지(188쪽)를 처음 경험하는 대륙 이주자들(외성인)의 비루한 모습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은 계엄령 해제 이후의 타이완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二二八"에 대한 기억을 계기로 대단히 첨예하게 표면화된 타이완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는 다양한 층위에서 드러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관계[11]와 망각된 역사 속에서 주변적인 삶을

8) 이상, SHU-MEI SHIH, "Against Diaspora：The Sinophone as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Shu-mei Shih, Chien-hsin T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a critical reader*,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44, 50쪽.

9) SHIH SHU-MEI, "The Concept of the Sinophone", 713～715쪽. 타이완의 邱貴芬은 사이노폰의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전통적인 중문 문학 학과 구조에서 중국 대륙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독존적 위치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탈중국중심'(去中國中心, against China-centrism)을 비판 동력으로 삼아, 중국 내외의 華語 공동체 창작에 반영된 중국의 문화패권을 검토하는 것이다." 邱貴芬, <「世界華文文學」、「華語語系文學」、「世界文學」：以楊牧探測三種研究台灣文學的跨文學框架>, ≪台灣文學學報≫ 第三十五期(2019年12月, 138쪽.

10) 리앙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이렇다. "…… 「미로의 정원」은 훗날 논란의 대상이 된 '에스닉ethnic)'의 전신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 작품에서 퇴폐성(decadency)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로의 정원」에서 아버지와 딸의 타락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패망에 이르지만 그 타락의 과정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지요. / …… 이질적인 어둠 또는 잔혹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이 그것이지요. …… 이는 무척 이질적이고 음산하며 퇴폐적이고 기괴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서도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중첩적이며 난해하고 모호하지요. ……" 李昂, <리앙이 리앙을 인터뷰하다>, ≪눈에 보이는 귀신≫, 423쪽.

11) 스수메이는 "타이완의 식민사는 '연속 식민'(serial colonialism)의 형식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식민주의는 지속되고 영원히 그치지 않고 있는 현재진행형"이고, 타이완 漢人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국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권(sovereignty)을 누리고자 한다. 따라서 타이완은 전형적인 정착형 식민지가 된다고 강조한다. 史書美, ≪反離散：華語語系研究論≫(臺北：聯經, 2017), 72～73쪽.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기억을 되살려, 그들의 목소리를 복권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12]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이노폰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 대륙 중심의 패권성에 대항하는 反 디아스포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미로의 정원≫에서 주주옌이 보여주는 그러한 反 디아스포라 의식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먼저 그는 가족들에게 집안에서는 일본어와 타이완어만 사용하게 하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사용(간혹 타이완어 혼용)하는 등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

>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아홍(阿紅)'이라 불렀고, 당시 친구들의 이름은 '우메코'니, '타케오'니 하는 이름이 많았는데, 부친께서는 일본 이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주잉홍은 자기의 일본 이름이 아야코라는 것조차 몰랐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중국 이름을 되찾게 되자, 부친은 오히려 익숙해진 이름을 바꾸셨고, 가족들은 모두 주잉홍을 일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32～33쪽)[13]

"'중국어(Chinese)'라는 단어는, 언어를 국적 및 에스닉 고유성과 동치시키도록 오용되어 왔고, 관변의 단일어주의(official monolingualism)는 언어적 이질성을 무시하고 억압했다"고 보는 스수메이는 "주류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은 혹로어(河洛語, Hoklo)와 만다린 사이의 교섭 현장"이라고 규정하며, "사이노폰의 개념은 중국어파 언어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주어진 현지에서 비-중국어파 언어들과 관련하여 현지화(localization) 및 크리올화(creolization)를 겪는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한다.[14]

작품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의 교섭 현장에서 주주옌이 새로운 역사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그가 그러한 자기 인식을 딸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낸다. 소학교 3학년 작문 수업에서 "나는 청일전쟁 말년에 태어나……"(27쪽)라고 엉뚱한 글짓기를 한 딸에게, 주주옌은 "사실상 네가 청일전쟁 말기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당시 역사를 기술한다(35～36쪽). 그리고 "청일전쟁은 타이완인에게 있어 하나의 시작이자 끝으로, 그때부터 타이완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 타이완이 더 이상 '포르모사(Formosa)'[15] 즉 "진정한 낙도가 아니며, 더 이상 公義니 희망이니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자식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빠들을 "일본과 아메리카합중국에 보냈고," "주씨 가문의 9대손은 반드시 아메리카합중국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 자손의 자손은 더 이상 타이완인이 아닌 것"이라고 넋두리를 한다(41～43쪽). 스수메이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역사와 실천의 상황성에서 기원"하는 "방법과 이론으로서의 사이노폰"은 "디아스포라가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디아스포라의 유통기한을 선포하고, 그것은 단일

12) 예컨대, 타이완의 문화적 독립론을 주창하는 리치아오(李喬)는 단편소설 <小說>에서, 타이완이라는 공간이 일본 통치시기이든 국민당 통치시기이든 양자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는 부조리한 세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趙映顯, <李喬的<小說>及其"離散">, ≪中國文學研究≫ 第34輯 참조.

13) 스수메이에 따르면, 지배적인 사이노폰 언어는 표준 漢語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언어의 권력 투쟁의 역동성에 연루될 수 있으며, 다수자의 언어로서 표준 한어는 다양한 소수적 접합이 시작되어 그 비표준화, 크리올화(creolization), 파편화, 또는 때때로 전면 거부를 야기하는 대상이 된다. SHU-MEI SHIH, "Against Diaspora : The Sinophone as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51쪽.

14) SHIH SHU-MEI, "The Concept of the Sinophone", 715～716쪽. 스수메이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타이완의 주요한 華語에는 흔히 말하는 國語・민남어・객가어라는 이 세 가지 언어를 포함하면서 서구의 영어, 혹은 현지의 원주민어와 다양한 층위에서 혼합되어 있으며, 일본 식민통치 시기에는 일어와 결합하면서, 식민지 漢文과 제국 漢文 등이 타이완의 사이노폰에서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 상태로 나타난다.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특정한, 현지적이고, 다양한 언어문화의 혼합과 충돌 하에서 이루어진 산물이고, 그 때문에 중국 문학과 문화의 정통성에 대해 질의의 힘을 갖게 된다. 사이노폰 연구는 따라서 중국연구 사이에서 모종의 장력을 형성하면서, 중국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그 현지성과 독특성을 통해 자신을 구축한다." 史書美, ≪反離散 : 華語語系研究論≫, 135쪽.

15) "……아름다운 섬. 풍요롭고, 1년 4계절 향기로운 꽃이 있고, 들판에는 1년 내내 초록의 푸름이 있고, 먼 산에는 흰 눈이 보이는 아름다운 섬……" 140쪽.

어주의, 에스닉-중심주의, 식민주의를 탈피하며, 그것은 언어 공동체들의 실존적 개방성과 침투성(porousness)을 피력한다."[16]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주주옌은 좋든 싫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거주하는 곳의 상황성에 따라, 반드시 '디아스포라 중국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청일전쟁 이후의 타이완 사람", 즉 "압박을 받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말 못하는 타이완 사람"(64~65쪽)이라는 깨달음(?)을 획득한 주주옌은 대륙풍의 '菡園'을 보수하며, "현지 기후와 맞지 않아 잘 자라지 못할 나무를 심느니, 타이완 토종 나무를 심는 게 낫지 않을까"(119쪽)라는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 "한대 기후에서 자라던 소나무"가 타이완 중부의 뜨거운 태양에 볼품없어지자 뽑아버리고 다래나무를 심었다(119쪽). "과거에 합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121쪽) 같은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심었던 느릅나무도 시의에 맞지 않다고 베어내고 대신 봉황나무를 심어 "타이완적 특색"(123쪽)을 살렸다. 또한 조상들이 "천자의 영역을 범하는 것"이라 용의 조형에 발톱 네 개만 만든 것에, "타이완의 민주화가 용 발톱 하나 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발톱 다섯 개짜리 황금용"으로 보수하면서, 대륙과의 연을 잘라낸다(141~142쪽). 그렇게 '함원'은 "타이완적 주체의 형성과 그 계승을 표현해내는 알레고리 풍부한 공간"[17]으로 변모하게 된다. 물론 정원을 타이완 현지의 특성에 맞게 보수하는 행위는 '家園(home-ness)과 根源(origin)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 특정 시간에 특정 지정학적 장소 내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절실함을 인식하는 것'[18]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反 디아스포라 의식의 구현에 속한다.

어쨌든 주주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안의 족보마저 새롭게 구성하면서 보다 강력한 反 디아스포라 의식을 보여준다. 그는 "본래 朱씨 성이 아니었고, 주씨 성은 明 왕조 황제 唐王이 하사하신 國姓"이라는 설에 대해서 "우리 주씨 자손이 자기 성을 버리고 통치자인 황제를 쫓아 주씨 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125쪽)고 딸에게 강조한다. 그리고 해적이었던 주평(朱鳳)이라는 인물을 가문의 시조로 내세운다. 그는 "해적은 타이완 최초의 무역상이었다"고 강변하며, ≪현지≫에도 기록이 남을 정도로 용맹과 공덕으로 칭송받던 주송이 "청 제국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대륙 출신 첩이랑 남양으로 도망갔다는 것, 주평의 부인 천(陳)는 "고산족과 네덜란드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푸지엔성 이민자의 후손"(127~130쪽)이었다는 이야기 등을 딸에게 들려준다.

> "타이완의 초기 이민자들은 이 사람들의 지휘를 따라야 했고, 그들의 해적선을 타야만 타이완 해협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아야코, 네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초기의 타이완 이민이 모두 가난한 사람이거나 난민들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주펑 같은 모험가도 있었단다. 그들은 큰 바다로 가로막힌 저 먼 곳에서 새로운 낙원을 찾기를 바랐단다. 타이완은 그들이 찾아낸 새로운 낙원이었다."(139쪽)
>
> "봉황나무는 전형적인 타이완 꽃나무라고 할 수 있다. 위도가 낮고 기온이 높은 섬나라에서 자라는 뜨거운 꽃나무의 그 강인한 생명력은 꼭 타이완인 같다. 어떠한 좌절이 와도 뜨거운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의지의 타이완인 말이다."(146쪽)

고향을 버리고 낙원을 찾아 떠나 온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군 대지에 귀속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이는 또한 현지성과 反 디아스포라를 강조하는 사이노폰 연구 관점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미로의 정원≫이 '菡園'을 중건한다는 소재를 작품의 시작과 끝에 배치하고, '菡園'의 상징성이 작품의 주요 서사 전개에 끊임없이 개입하도록 구성한 이유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토록 절실하게 대륙과의 단절을 통해 타이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버지 주주옌의 뒤를 이어 주잉

16) SHIH SHU-MEI, "The Concept of the Sinophone", 717쪽.

17) 김양수, <역자후기: 타이완 현대사의 숨은그림찾기 ≪미로의 정원≫>, ≪미로의 정원≫, 352쪽.

18) SHU-MEI SHIH, "Against Diaspora : The Sinophone as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57쪽 참조.

홍은 20년 후 다시 '菡園'을 중건한다. 다음은 주잉홍과 린시겅의 대화이다.

> "이 지역 원로들은 모두 당신이 그렇게 노력해서 무슨 기금회니 하는 것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함원을 정부에 헌납해서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명분에도 맞고, 더 나았을 거라고들 하던데."
> 주잉홍은 가볍게 웃었다.
>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화원을 아버지를 박해한 정원에 넘겨줄 수 있겠어요."
> …중략…
> "그래요! 모두 지나갔죠! 그래서 나는 이 정원이 타이완의 것, 2천만 타이완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민을 억압한 정부의 것이 아니라."
> …중략…
> "그리고 당신이 주펑을 주씨 족보에 넣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뭐라 해도 주펑은 해적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추적조사인지 뭔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 …중략…
> "실제의 자료로 주펑이 우리 주씨 가문의 조상이라는 게 증명되는데, 그가 해적이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343～344쪽)

아버지 주주옌의 정원 개축은 분명 "국민당의 타이완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 혹은 해적 조상에 대한 인정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대륙의 문벌 세족과 연결해가며 억지로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내지는 않겠다고 하는, 당당한 타이완적 정체성의 표현"[19]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딸 주잉홍이 해적이었던 조상을 다시 족보에 기재하고, 복원한 '菡園'을 타이완의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분명 아버지의 행보보다 한층 더 나아간 모습이다. 포르모사에 대한 강제 점거와 정착, 해적질 등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주씨 가문의 상징 '菡園'을 타이완의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그것을 뺏고 빼앗겼던 타이완의 모든 거주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단순한 돌려주기가 아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성이 내재된, 즉 혼성 문화——원주민과 이주자들에 대한 약탈과 부의 축적, 원주민 문화와 200년간 반복해서 유입된 이주민의 문화가 만나고 충돌했던 시간의 흔적이 각인된 문화——가 내포된 공간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미로의 정원≫은 작품이 보여주는 잦은 시공의 교차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현대성·물신성에 물든 사람(예컨대 린시겅)에게는 미로와 같은 정원이지만, 주잉홍에게 있어서는 200년간 펼쳐지고 흩어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정원이라는 그 특정 공간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 공간에 담긴 삶과 욕망을 천착하면서,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갔지만, 그래도 기억할 건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菡園'의 중건에 담고 있다. 그리고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 타이완 사이노폰 문화는 "그것이 생산되는 장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때, 타이완이라는 공간에 대한 비유로서의 '菡園'이 영욕의 세월과 슬픈 기억을 간직한 채, 모든 타이완 사람들이라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됨으로써 모든 것은 폭압적인 권력의 소유가 아니라 그 대지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작품은 전반적인 기조 면에서 아버지로 표상되는 세대의 강한 反 디아스포라 의식을 표출하고 있지만, 주잉홍 세대에서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구별 같은 통상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선 "'정치적으로 정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19) 김양수, <역자후기: 타이완 현대사의 숨은그림찾기 ≪미로의 정원≫>, ≪미로의 정원≫, 352쪽.

11月 21日(土) 09:00~10:30

사회과학(1)

❖ 중국 사회와 정치

예동근(부경대)·尹木子(절강사범대)
互联网使用会激发农民工群体性事件吗?

李 丹·樊 杰(부경대) 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的交流与合作课题

张暮辉(부산대) Transboundary Fine dust and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Cooperation and Challenges

互联网使用会激发农民工群体性事件吗？

예동근[*] · 尹木子[**]

<目　录>

一、引言
二、文献回顾与研究假设
三、数据、变量与模型
四、实证结果与分析
五、进一步的讨论:互联网使用影响群体性事件作用机制

一、引言

改革开放以来，随着城市工业化和村庄非农化进程的加速，越来越多的农民进城务工。根据≪2018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显示，2018年农民工总量为2.88亿人，比上年增加184万人，增长0.6%。农民工成为了推动社会经济发展的重要力量，但是在推动城市建设的同时，根据华东政法大学2011-2016年≪中国社会典型群体性事件分析报告≫显示，农民工为主体的抗议、骚乱等群体性事件频发，表现形式日趋激烈，严重影响了城市正常运行秩序，引起了社会各界的关注，农民工群体性事件的相关研究逐渐增多。

学术界对群体性事件关注已久，学者们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研究，主要强调制度（国家治理方式、劳动体制、法制环境）、隐性因素（价值体系、空间结构、社会资源）和结构（人口结构力量）的作用。在对制度环境和劳动环境的探讨中，官方治理系统的失误、歧视性政策和劳动者市场结构力量，会激发农民工群体的抗议浪潮和诉求表达（Blecher，2010；杨海坤，2011；冯仕政，2015），而官方权力在工人组织中的垄断和下渗、个体维权途径的设置、阶级话语被市场话语替代、地缘关系的分化、集体宿舍安排、农村土地保障，使得农民工群体长期面临不平等的公民权待遇和专制的劳动管理制度时，仍然呈现出无行动状态（Lee，2007；潘毅、陈敬慈，2008；刘传江，2012；陈颀、吴毅，2014）。社会发展所带来的影响中，教育对于能力素质的提升、家庭经济条件的改善和信息技术终端的普及，对农民工的集体抗争行为起到了促进效应（王春光，2001；Silver，2003；Pun and Lu，2010；郭于华等，2011）。从代际差异来看，新生代农民工呈现出社会关系网络的扩大、团结意识的增强、政治心理的滋长、期望水平的提升、身份权利意愿显著、社会公平心态等特征，并对群体性事件产生了促进效应（张书维，2011；汪建华、孟泉，2013；张翼、尉建文，2014；陈雄鹰等，2015）。

上述研究为人们理解农民工群体性事件提供了重要的理论工具和研究启示，但在研究对象和解释视角的选择上，仍有可以推进之处。尤其是在中国互联网发展迅猛的今天，截至2020年3月，我国网民规模达到9.04亿，手机网民占比达99.3%，移动互联网主导地位强化，互联网普及率为64.5%，较2018年底提升4.9个百分点。互联网的普及，以及手机、平板电脑等各类移动终端的出现，社会化媒体作为信息传播的重要渠道，以及人们日常信息交流的主要媒介工具，已经渗透到个人生活的方方面面，使得虚拟世界和现实世界的界限越来越模糊。

因此本研究聚焦于互联网使用是如何影响现实生活中农民工群体性事件的发生以及其中的影响机制。通过2013年北京市流动人口生存发展状况的数据，对这一问题进行探讨。具体研究结构如下：首先对现有关于互联

* 부경대학교
** 절강사범대학교

网和群体性事件的相关文献进行梳理，在此基础上提出本文的基本假设，接下来对本研究使用的数据和研究模型进行说明，并对研究结果以及研究假设的检验情况进行解读，最后讨论研究结果的意义。

二、文献回顾与研究假设

（一）互联网对群体性事件的影响作用

在群体性事件原因探讨中，媒体或媒介因素是一个不可忽略的因素。在目前的文献中，就互联网对群体性事件影响作用是并不一致的。互联网的作用在于信息的获得、意见的交换和表达。至于是否经由互联网促成线下的群体性事件的发生，学者们莫衷一是。

第一种观点认为互联网对群体性事件会产生影响，并主要通过两条路径：

第二种观点认为互联网的使用与群体性事件的实际参与无必然联系，而且很可能形成懒人行动主义困境。

网络助燃理论

互联网对集体行为的影响刚刚显露出来，对两者之间深层次关系的研究也尚在初始阶段，本文结合近年来群体性事件案例，就互联网对群体性事件的产生和发展所起到的影响进行了一个试探性的归纳，在此基础上提炼出网络助燃理论模型。主要观点是：互联网及其人际传播对集体行为有助燃的作用，这种助燃作用表现为内聚动员和外扩动员两条脉络。内聚动员（内部燃烧）是指通过网络人际传播使得关于某事件的信息传

（二）中介效应机制影响作用

1. 社会网络的动员作用

根据资源动员理论，一个人所拥有的社会关系网络对其参与社会运动具有推动作用，社会关系网络越丰富，被社会运动招揽的机会越大，一个人如果已有朋友、邻居或熟人卷入某个社会运动，那么，他卷入该运动的可能性会增大。

假设1：互联网对群体性事件的影响作用通过社会网络的起作用，参与者的社会网络越大，越容易参与群体性事件。

2. 公平感的影响作用

假设2，互联网对群体性事件的影响会通过农民工不公平感起作用，不公平越强，参与群体性事件的可能性越大。

3. 政府认知的影响作用

假设3，互联网对群体性事件的影响会通过农民工对政府认知起作用，政府认知越负向，参与群体性事件的可能性越大。

三、数据、变量与模型

（一）数据

本研究所使用的数据来自2013年6月中国社会科学院社会学所进行的“流动人口聚集区与大型市场人员生活与社会意识调查”。此次调查重点关注北京市朝阳区、丰台区、海淀区、东城区、西城区、石景山区和通州等九个城区，选择具有典型性和代表性的大型市场和流动人口聚居区进行重点调研。在每个大型市场分别抽取雇主

和雇工各100名；在流动人口聚居区随机抽取常住流动人口200名。本次调查共发放问卷2580份，收回有效问卷2416份，有效回收率达到93.6%。但是笔者重点研究农民工群体，因此将问卷中剔除户籍是北京市数据，留下有效数据为1898份。此次调研对9个城区7个大型市场和6个六个流动人口聚居区进行问卷调查和访（座）谈。问卷调查的对象是在京居住半年以上的常住流动人口；访（座）谈的对象包括，区县、乡镇（街道）留管办的负责人、村（社区）领导、大型市场管理人员、村（社区）民警和留管员。问卷调查的重点是了解外来人口的整体情况，访谈则是重点挖掘深层次的问题，两者相互、相互支撑、保证了调研的科学性和严谨性。

表1：调查问卷在北京各城区的分布情况

市区划分	调查人数	具体调查地点
石景山区	126	石景山古城天圣发市场
丰台区	367	丰台花乡新发地农副产品批发市场
		丰台南苑南苑村
大兴区	191	大兴区南小街3村
东城区	132	东城永外百荣世贸
昌平区	176	昌平城南水屯村
海淀区	280	海淀中关村海龙
		海淀塔院双泉堡
通州区	181	通州区台湖镇田家府
朝阳区	315	朝阳区西直河王村
		朝阳新纪元石材市场
西城区	130	西城区展览路世纪天乐
总计	1898	

（二）变量

1. 因变量

此前对群体性事件的研究，都是参与行为与参与意愿独立研究，本研究将对农民工群体性事件参与行为与参与意愿共同考察。

（1）参与行为

参与行为表现为研究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调查问卷中的问题设置是“你是如何了解到群体性事件？”答案为“亲身经历过”、“亲眼目睹过”、“听周围人讨论过”、“从新闻媒体上了解过”±和“°从没接触过”±，我们将答案编码为“°1”±、“°2”±、“°3”±、“°4”±、“°5”±。

（2）参与意愿——利益受损抗争型与无直接利益冲突

本文同时关注农民工的维权意愿主要分析新生代农民工遭遇劳动侵权事件后是否有维权意愿，也涉及间接利益者受损者在遭遇其他人劳动侵权或者利益受损后是否有维权意愿。

1）**利益受损抗争型群体性事件参与意愿**的测量通过下面问题完成：若您的利益受到损害或遭遇不公平待遇，您会考虑参与群体事件吗？对该问题的回答有四个选项，分别是“不会考虑”、“会考虑”、“看情况而定”、“不知道或其他”。为了方便分析，本文对这一变量做二分化处理，即将“会考虑”重新编码为1，而“不会考虑”和“看情况而定”重新编码为0。

2）**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的**测量通过下面问题完成：如果您所在的地区发生了群体事件，您会考虑参与其中吗？对该问题的回答有四个选项，分别是“不会考虑”、“会考虑”、“看情况而定”、“不知道或其他”。为了方便分析，本文对这一变量做二分化处理，即将“会考虑”重新编码为1，而“不会考虑”和“看情况而定”重新编码为0。

2. 核心自变量

农民工是否上网，问卷中的问题设置是“您平时大多如何上网？”答案为“在家里电脑上网”、“手机上网”、“店里电脑上网”、“网吧上网”、“很少上网”和“其他”。本文对这一变量进行二分化处理，即“在家里电脑上网”、“手机上网”、“店里电脑上网”、“网吧上网”视为“上网”，重新编码为1，“很少上网”和“其他”视为“不上网”，重新编码为0。

3. 中介变量

中介变量是指农民工上网情况对参与群体性事件状况的影响路径或机制。根据前文分析，本研究以农民工社会网络、不公平感和政府认知作为农民工互联网使用状况影响群体性事件的中介变量。我们将建立中介变量效应模型来分析农民工互联网使用状况通过农民工社会网络、公平感和政府认同变量对群体性事件的影响。

（1）**社会网络的测量**

本研究将社会网络分为理论上社会网络和实际社会网络

1）**理论上社会网络**，问卷中测量的问题是“您家有多少人在北京长期（半年及以上）生活”。

2）**实际社会网络**，问卷中测量的问题是“如果您在北京遇到困难时，能有多少人帮助您？”。

（2）**公平感测量**，将工作待遇公平感、个人公平感、社会公平感整合为公平感变量。**工作待遇公平感**，问卷中测量的问题是工作中受到不公平待遇，包含了以下3个问题：在工作中，你会遇到下列情况吗？“老板克扣、拖欠工资”“加班却没有获得相应报酬”“老板粗暴的批评或辱骂”。其回答的赋值为 ：“从来没有” =0，“偶尔有”=1，“经常”=2。 对 3 个问题的回答进行因子分析，形成“工作中受到不公平待遇”因子（连续变量），因子值越大意味着工作中受到不公平待遇越强。

个人不公平感，问卷中的问题设置为“按照您的能力和付出，您觉得现在的经济地位公平吗？”答案为“非常公平”、“比较公平”、“一般”、“比较不公平”和“非常不公平”，我们将答案编码为5、4、3、2、1，分数越低，不公平感越强。

社会不公平感，问卷中的问题设置为“总体而言，您觉得现在的社会公平吗？答案为“非常公平”、“比较公平”、“一般”、“比较不公平”和“非常不公平”，我们将答案编码为5、4、3、2、1，分数越低，不公平感越强。

（3）**政府变量** 将政府认同、政府信任和政府满意度整合为政府认知变量。

政府认同，问卷中使用9个问题测量，分别为“政府制定政策，充分考虑了我们的意愿和利益吗”，“政府公职人员工作认真负责，能为我们着想”，“政府可以信赖，能够兑现对我们的承诺”，“政府提供的公共服务能够满足我们的需求”，“信访等正常途径，能够帮助我们解决实际问题”，“司法公平公正，能够帮助我们解决实际问题”，“政府能够及时与我们沟通，并向我们反馈意见”，“政府处理相关事件时，信息能够做到公开透明”，“政府执政水平高，能够巧妙化解各种社会矛盾”。其回答的赋值为：“非常同意”=4，“基本同意”=3，“不太同意”=2，“很不同意”=1；然后对9个问题的回答进行因子分析，形成“政府认同”因子（连续变量），因子值越大意味着政府认同感越强。

政府满意度，用对“中央政府”、“北京市政府”、“区（县）政府”、“街道/乡镇”、“居（村）委会”、“信访机构”和“公安/法院（法官/警察）”满意度来测量政府满意度。其回答的赋值为：“非常满意”=4，“基本满意”=3，“不太满意”=2，“很不满意”=1；然后对9个问题的回答进行因子分析，形成“政府认同”因子（连续变量），因子值越大意味着政府满意度越高。

政府信任感，问卷中的问题设置为“总体而言，您对政府信任吗？答案为“非常信任”、“比较信任”、“一般”、“不太信任”和“不信任”，我们将答案编码为5、4、3、2、1，分数越低，政府信任感越低。

4. 控制变量

根据以往的研究，其他的控制变量，如性别、年龄、年龄平方、受教育程度、婚姻状况、是否有小孩、月

收入情况，月收入的平方和工作身份（雇员=1，非雇员=0）。也会对农民工群体性事件产生影响，本研究也将其加入到模型中。

表2：变量的描述性统计

变量	观测值	平均值	标准误	最小值	最大值
群体性事件	1886	3.817	1.026	1	5
参与程度利益受损抗争型	1898	.692	.462	0	1
参与意愿无直接利益冲突	1898	.755	.430	0	1
参与意愿是否上网	1898	.763	.425	0	1
工作不公平感	1220	5.082	2.12	0	12
个人不公平感	1888	2.887	.825	1	5
社会不公平感	1891	3.616	1.306	1	6
政府认同	1851	33.466	7.927	9	45
政府信任	1882	4.379	1.175	1	6
政府满意度	1871	26.859	5.834	7	35
理论社会网络	1747	4.332	5.532	0	100
实际社会网络	1722	66.832	2409.934	0	100000
年龄	1894	33.161	9.577	14	65
年龄的平方	1894	1191.299	689.422	196	4225
性别	1888	.591	.492	0	1
婚姻状况	1898	.744	.436	0	1
受教育程度	1870	8.619	3.396	6	17
是否有小孩	1898	.673	.469	0	1
月收入	1789	8.011	.727	1.099	13.122
月收入平方	1789	64.703	10.692	1.207	172.196
工作身份	1898	2.781	1.115	1	4
迁移时间	1861	7.212	6.146	0	33

（三）统计模型

1. 定序Oprobit模型

2. Probit模型

3. 负二项模型

四、实证结果与分析

（一）基准回归结果

我们首先探讨是否使用互联网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影响。表3汇报了Probit和Oprobit模型的估计结果。互联网使用情况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有显著影响。即便加入了其他控制变量后，使用互联网依然在1%水平下与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相关。而对利益受损抗争型群体性事件参与意愿没有显著影响,因此,下文不再对利益受损抗争型群体性事件参与意愿进一步讨论。

由表4、表5可知，互联网信任度增加有助于增加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同样地，农民工获取信息的来源和互联网信息获取的便捷程度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有显著影响，即相比于非互联网信息来源的农民工，互联网信息来源的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相对较高；与互联网信息获取不便捷的

农民工相比，互联网信息获取便捷的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相对较高。由此可见，在进一步讨论互联网使用状况下，互联网依然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有显著影响。

(三) 内生性讨论

五、进一步的讨论：互联网使用影响群体性事件作用机制

1. 社会网络的中介效应

2. 公平感的中介效应

3. 政府认知的中介效应

六、结论与讨论

（一）结论

本文基于2013年北京市农民工大规模调查数据，使用定量模型考察了互联网使用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影响，并运用工具变量法进行稳定性检验，最后通过中介效应模型分析了是否上网通过对农民工实际社会网络、公平感和政府认知变量对群体性事件产生影响。主要的研究结论如下：

1．互联网使用对农民工群体事件存在显著推动作用

本研究发现，互联网对于农民工群体参与群体性事件具有正向的著影响。包括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有显著影响，但是对利益受损抗争型群体性事件参与意愿没有显著影响。上网的农民工参与群体性事件的程度越高，参与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的意愿也更高。这说明，上网的过程中，农民工可以接触更多的信息，了解更多的相关政策，更愿意参与群体性事件中。

2. 互联网信任、信息来源及互联网信息获得便捷程度都对农民工群体性事件有影响

互联网信任度增加有助于增加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同样地，农民工获取信息的来源和互联网信息获取的便捷程度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有显著影响，即相比于非互联网信息来源的农民工，互联网信息来源的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相对较高；与互联网信息获取不便捷的农民工相比，互联网信息获取便捷的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都相对较高。由此可见，在进一步讨论互联网使用状况下，互联网依然对农民工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有显著影响。

3. 互联网会通过影响农民工实际社会网络、公平感和政府认知来影响群体性事件

本研究发现，公平感和政府认知是互联网影响群体性事件的重要中介因素。互联网通过改变个体的公平感和政府认知，从而影响到个体对群体性事件的参与程度和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意愿。农民工的社会网络不会显著影响个体现实生活中群体性事件的参与意愿。农民工的实际社会网络对直接利益群体性事件参与没有影响，但是会对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参与有影响。互联网通过农民工的实际社会网络，也就是调动

资源能力，来实现影响到个体参与无直接利益冲突群体性事件的参与。

（二）讨论

最为重要的是，互联网传播的内容，其内容对民众社会态度的影响，尤其是民众对于互联网的信任，是互联网影响群体性事件的重要机制。信任作为一种社会资本使个体具备集体行动的能力，这种能力通过公平感和政府认知这一心理机制对个体群体性事件的行为产生影响，这在政策上的启示是，在互联网时代，如何增强民众对政府媒体的信任，从而改变民众的社会态度是进行群体性事件治理需要努力的重要方向。

本文的遗憾之处，所使用的调查数据是在2013年收集的，当时“微信”这一当下极为重要的社交媒体尚未如今日之兴。因此，日益发展的互联网将通过何种机制对群体性事件产生影响还需持续关注。

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的交流与合作课题（发言提要）*

李 丹**·樊 杰***

<目 录>

1. 问题的缘起
2. 中韩地方政府间交流合作的特点与机制分析
3. 疫情期间中韩两国地方政府间的合作：守望相助、共克时艰
4. 结语：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交流合作的新课题

1. 问题的缘起

1992年全罗南道木浦市和中国连云港市结成第一对姊妹城市到2019年上半年，两国姊妹友好城市数达到了646对，两国地方政府韧性地辅助了中央政府外交。在2020年新冠疫情爆发后，中韩两国风雨同舟，守望相助，成立了联防联控的合作机制，为两国的经济交流与合作开通了绿色通道，实现了“跨国复工生产”，在此过程中两国地方政府的行动可圈可点、备受瞩目。全球地方化与地方国际化为地方政府参与国际合作提供了契机，因此，如何最大限度地发挥地方政府的外交功能成为有关领域研究的重大课题。在此背景下，本文将以新冠疫情冲击下的中韩地方政府合作为案例，就如何推进地方政府的合作提出几点设想。

2. 中韩地方政府间交流合作的特点与机制分析

目前，中韩地方政府的国际合作分为双边和多边合作。双边合作主要分为友好姊妹城市及地方层面的交流合作体制，多边合作主要在地方政府参与的区域国际合作框架内进行。

（1）姊妹友好城市成为主要模式

1988年4月，时任青岛市外经委主任、市贸促会会长的刘吉德，秘赴韩国进行实地考察,拉开了青岛市与韩国直接往来的序幕。1992年全罗南道木浦市和中国连云港市结成第一对姊妹城市,之后中国的省、市、区与韩国特别市、道、广域市之间逐步建立了友好城市的关系。 1992年中国与韩国建交，两国关系快速发展为两国地方政府的交流合作提供了良好的政治环境。1990年代起中韩缔结姊妹友好城市的数量迅猛增长，1990年代为157对，2000年代为291对，2010年代为198对，截至2019年上半年，中韩友好姊妹城市超过了韩国地方政府全球结对总数的40%。

1990年代中韩两国地方政府之间缔结姊妹城市较为普遍，2000年以后，友好城市成为主要形式；从地区分布来看，韩国地方政府选择的结对城市主要集中于山东、辽宁、江苏、浙江、吉林等地区；双方结对没有拘泥于行政级别表现了灵活性，如：忠清南道和江原道先后与延边朝鲜族自治州加立了友好合作关系，韩国光州广域市与中国的长治市、温州市、洛阳市及泉州市建立了姊妹关系或友好合作结对城市，仁川市与烟台市和丹东市，大邱市与宁波、盐城、扬州结对等；第三，中韩地方政府之间的结对还具有多层性的特点，除了省市道之

* 本文为学术会发言提要，作者将在全文完成本中标记注释，敬请谅解。

** 釜庆大学
*** 釜庆大学

间的友好合作，区级、县级之间的友好结对数量增加。

（2）两国之间行政与人员交流增多

“大韩民国市道知事协会”网站统计显示，目前，中韩两国地方政府交流与合作领域主要有：行政交流、人员交流、文化艺术交流、旅游、青少年交流、体育交流、技术和学术交流、经济交流、民间团体交流及其象征性事业和其他领域交流等。行政交流与人员交流在中韩地方政府交流最为活跃。层次多、内容涵盖面广是中韩地方政府交流的又一个特点。

中韩地方政府之间的交流主要围绕10个领域进行，每个领域涵盖的内容丰富广泛。行政互访在中韩地方政府交流与合作中最为活跃（4171次、52%），其次为人员交流（1131次）、文化艺术交流（1100次）、经济交流（937次）、青少年交流（814次）、民间团体交流（352）、技术学术交流（351次）、体育交流（323）、旅游交流（181次）、其他事业（如：捐款等为111次）、象征性事业（106次）等。行政交流的内容有：代表团互访，交换行政信息，纪念仪式等形式； 公务员互访与互换、研修，视察与调查团，青少年互访，寄宿体验，大学生交流等成为了双方人员交流的主要内容；文化交流侧重于参加庆典，舞蹈、艺术、合唱团演出，围棋及其书法交流，摄影、美术及民俗展览会，韩国时装秀及互赠书籍等层面。

（3）中韩地方政府之间经济交流频繁多样化

中韩建交后，两国地方政府之间的经济交流频繁，大韩民国市道知事协会资料显示，1991至2019年双边地方政府在签署经济交流协定、派遣市场开拓团、举行经济洽谈会、商会间交流、投资说明会、开通直航、技术转让协商及其他领域进行了高达1091次的交流活动。其中派遣市场开拓团（257次）、投资说明会（254次）、经济洽谈会（245次）最为活跃，此外，双方签署的经济交流协定也较为活跃达到了125次之多。

2015年签署的韩中FTA协定，随后中韩两国于2015年决议建立中韩自由贸易，中韩两国明确将威海市和仁川自由经济区作为了地方经济合作示范区。目前，威海市正在加快建设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中韩商品集散地和中韩信息技术产业园建设，在中韩跨境电子商务、旅游、医疗、现代物流等多个领域积极争取先行先试政策。中韩产业园也将成为中韩地方政府京经济合作的重要平台。根据中韩FTA协定2015年韩国方面将新万金单独指定为韩中产业园，2017年12月，习近平主席与文在寅总统就共同建设中韩产业园达成了重要共识，随后，中国国务院正式对外发布≪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韩产业园的批复≫，同意在江苏省盐城市、山东省烟台市、广东省惠州市分别设立中韩产业园，盐城、烟台和惠州三个城市分别地处长三角经济圈、环渤海经济圈和珠三角经济圈，在开展对外经贸合作特别是对韩经贸合作方面具有独特优势。

3. 疫情期间中韩两国地方政府间的合作：守望相助、共克时艰

（1）韩国地方政府对中国的声援

韩国是最早也是最积极给与中国支持和帮助的国家之一。在多国关停领馆，计划撤出武汉之际，姜承锡总领事带着政府和民间的救援物资乘坐韩国政府的临时货机到武汉赴任传递了对韩国政府和民间的慰问。随后，首尔市政府在向中国的地方政府转达了慰问物资，这些物资上贴上了用中文和韩语书写的“兄弟同心，其力断金。守望相助，共克时艰”字样的贴纸。此外，釜山、光州、天安等韩国地方政府也纷纷向武汉等重点疫区和友好城市捐款捐物，传递友情。

〈表1〉韩国地方政府对中国捐赠物资概况（截止2020.6.25日，不完全统计）

捐助方	被捐助方	捐助物资
釜山广域市	重庆市	1万只口罩，3000只医用手套，护目镜500个
仁川广域市	重庆	3万只口罩
	山东省	2.5万只口罩
	沈阳市	2.5万只口罩
	威海市	2万只口罩
光阳市	营口市	3000个KF-94口罩
首尔特别市	北京市	1万余只KF-94 口罩
首尔麻浦区	北京石景山区	49箱防疫物资（防护服、乳胶手套、口罩等价值5000万韩元的医用防护物资）
首尔道封区	北京市昌平区	防护服200套、医疗手套7000只、防疫口罩240只、杀菌剂200瓶、护目镜200个。
首尔城东区	北京怀柔区	KF94民用口罩20000个
罗州市	南昌市	1万只口罩
全罗南道	浙江省，江西省，山东省，上海市，江苏省，山东省，湖南省，四川省，重庆市	10万只口罩

资料出处：作者根据中韩各地方政府网站及新闻网站资料整理

（2）中国地方政府对韩国的支援

2020年2月底，韩国新冠肺炎确诊者爆发式增长，中国政府和人民“投之以李，报之以桃”，向韩国伸出了援助之手。上海市率先向大邱市和庆尚北道捐赠捐赠50万只口罩，其中10万只为医用，40万只为KN95口罩(UPI뉴스.2020.07.01.)。威海市向仁川回赠了20万只口罩，并在在信中表示，“感谢仁川市的声援与帮助，希望能为仁川提供绵薄之力，祝愿两市间的友谊更加巩固”(KBS뉴스.2020.07.01.)。不少城市紧随其后，也为友城送去了抗疫物资，并表示愿意尽己所能提供力所能及的帮助。(参见<表二>)

〈表2〉中国省级地方政府向向韩国捐赠的物资一览表（截止2020.6.25日，不完全统计）

捐助方	被捐助方	捐助物资
北京市	首尔特别市	19万5千只口罩，18万5千张医用防护服等
重庆市	全罗南道	3万只N95口罩 、3万只KF94口罩 13万只医用外科口罩 、2万只一次性口罩
	大邱广域市	
	仁川广域市	
	釜山广域市	6万只医用口罩、1万只N95口罩
	首尔特别市	45000万只口罩
江苏省	全罗北道	5万只医用口罩
	首尔特别市	5万只医用口罩
	大邱广域市	5万只医用口罩
	全罗南道	5万只医用口罩
	忠清道	5万只医用口罩
天津市	仁川广域市	1.9744万只标准口罩和3811套防护服等
山东省	首尔特别市	5万6千件医用防护服

	釜山广域市	5万只口罩
安徽省	江原道	9.9万只口罩、700套防护服、1500套隔离服
山西省	庆尚北道	990套防护服、400个护目镜、2100只N95口罩、3万只一次性口罩
贵州省	水原市 世宗市	3万只医用口罩
		2000只N95口罩，1万只医用口罩
上海市	釜山广域市	4万6千只一次性口罩、2万4000只医用口罩、500套防护服、1万双医用手套、1千个护目镜
黑龙江省	釜山广域市	1万只N95口罩、12.8万个医用口罩、2000个护目镜 1万只口罩

资料出处：作者根据中韩各地方政府网站及新闻网站资料整理

4. 结语：后疫情时期中韩地方政府交流合作的新课题

韩地方政府如何最大化作为次外交体的韧性，简称为今后需要面临的新课题，为此，本研究提出以下几个建议。

首先，中韩地方政府需要加强公共卫生等领域的合作。没有人可以在全球化时代独善其身，更没有人可以在突发的公共卫生事件中偏安一隅。新冠肺炎疫情作为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提醒着我们，在世界多极化、经济全球化、社会信息化不断发展的时代，人类社会之间正以前所未有的紧密方式相互关联，相互影响(上海国际问题研究院.2020.07.15.)。疫情之后，各国发展经济、保障民生的愿望将更加强烈，公共卫生领域合作需求也会大幅上升，疫情也凸显了加强全球公共卫生合作的紧迫性。中国和韩国在共同抗击疫情过程中率先成立联防联控合作机制，率先开通重要急需人员往来的“快捷通道”，保障了经济的稳定运行。中韩还积极支持世卫组织发挥应有作用，在联合国、二十国集团、东盟与中日韩（10+3）等多边框架内加强了沟通和协调，不断推进双边和国际抗疫合作（人民网.2020.07.15）。中央政府的政策推动无疑会成为地方政府跨国合作理性选择的重要考量，因此，中韩两国的地方政府在总结疫情期间合作的经验和不足，推进公共卫生领域的合作，促进医疗卫生领域产业和技术合作。

其次，提高地方政府的国际事务参与能力，力争实现双边的对等。一个地方、一座城市在人员、贸易、文化等方面进行的对外交往与跨国合作交流行为不断增加，使该地方和城市作用力与吸引力影响到外部国家，而地方的国际化程度很大程度上取决于国家具体政策的推行以及整体发展水平。就目前而言，中韩地方政府开展地方政府外交时，因双方城市影响力的不均等阻碍交流合作的事情发生。中韩都有一些地方在经济总量中包括了双边经济活动，有的甚至已经对对方产生了经济上的依赖关系，这种依赖性直接导致了地方外交总体发展的不稳定。因为，国际环境复杂多变，难以预测，依赖性加大了城市外交发展的不确定性。一旦被依赖的一方出现问题，依赖性遭到破坏，就会导致依赖方出现严重的后果，进而使总体城市外交水平降低，稳定性不足(陈馨,2016)。因此，中韩两国的地方政府应当提高参与国际事务的能力，力争实现对等的外交关系。

第三，提升地方政府的治理水平，强化双边的合作。在抗击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的背景下，中国开始加强了地方政府的外交力度，尤其是开始将工作的重心由中央政府层面落实到各省（直辖市）、市、镇等地方政府层面。疫情期间，中国地方政府通过友好城市等方式，捐赠援助友城,充分体现并发挥了地方政府在国际经贸规则创新中的作用，推动了建立针对突发公共卫生事件的特殊国际经贸规则制度的建立(祝继高・梁晓琴,2020)。此次疫情中，地方政府外交比中央政府外交更有灵活性，在后疫情时期，地方政府需要适应国际新变化，转变政府职能，提升地方政府治理水平，在医疗卫生、环保等非传统安全领域推动中央外交的顺畅。

参考文献

이상만. 2020. “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아시아연구』23(2)2
이창・송미경. 2018. “서울도시외교의 가능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陈楠. 2019. “当代中国城市外交的理论与实践探索”.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陈翔・韦红. 2016. “一带一路”建设视野下的中国地方外交.『国际观察』(6).
陈馨. 2016. “一带一路”建设下中韩城市外交发展路径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陈志敏. 2010. “中国的地方外交”.『国际观察』. 2010(1).
储斌・杨建英. 2018. “ “一带一路“视域下城市外交的动力功能与机制”.『青海社会科学』(3).
郭言. 2020. “在全球抗疫中践行‘丝路精神’ ”, ≪经济日报≫, 5月8日第4版.
胡玥・王生. 2019. “中韩经贸面临的问题, 趋势与对策”.『经济纵横』(5).
李文. 2020. “推动构建后疫情时代的周边命运共同体”,『当代世界』(6).
汤伟. 2015. “ ‘一带一路’与城市外交”,『国际关系研究』(4).
王纬伟. 2017. “中韩应抓住共建‘一带一路’的机遇窗口期”,『公共外交季刊』(2).
吴振. 2020. “中国外交中城市角色”.『国际公关』.
张祎. 2012. “试论全球政治时代的城市外交”,『张家口职业技术学院学报』(25).
赵汗青. 2010. “地方政府开展城市外交的理论与实践-以北京市海淀区为例”,『职大学报』102
赵立新・李丹. 2019. “中韩地方政府交流与合作的机制与现状分析”,『中国学』第69辑
祝继高・梁晓琴. 2020. “极应对疫情影响, 高质量共建‘一带一路’ ”. ≪学习时报≫, 3月18日第2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检索日：2020.06.23.)
新闻、网络资料因版面有限在此省略, 敬请谅解

Transboundary Fine Dust and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Cooperation and Future Challenges

张暮辉 Zhang Muhui*

<Contents>

1. Introduction: Rising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2. Identify Issues of Rule-making and Governance

1. Introduction: Rising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ace serious environmental threats that necessitate effective regional cooperation. In recent years, air pollution has become the most critical public health issue in this region.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rticulate matter (PM) – generally known as “fine dust” and including PM 10 and PM 2.5 – is among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air. PM10 is most visible in the context of dust transport, but it is of less concern for causing health problems. In contrast, PM 2.5 can easily penetrate human skin and the respiratory system, can enter the lungs much more easily and deeply, and can cause many diseases. The worsening of PM 2.5 pollution began in the northern part of China in 2012, and brought about severe haze weather in major Chinese cities. In January 2013, Beijing recorded an extremely high PM 2.5 record (as high as 993 μg/m3) – nearly 40 times higher than the 24-hour mean concentration of 25 μg/m3 recommended by the WHO. A research report indicated that in 2015, air pollution killed approximately 4,000 people and caused 17 percent of all deaths in China (Rohde and Muller 2015). In the meantime, China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has been suffering from the PM 2.5 pollution. South Korea has also been also confronted with the haze weather in recent years.

Unlike other categories of wastes and pollutants that are locally based, air pollution can be highly transnational. However, the source and diffusion paths of air pollution are harder to track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waste and pollution.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cientists have issued varying versions of research reports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of air pollution. In 2017,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iting a study conducted by the Seoul Institute, stated that the portion of Seoul’s fine dust pollution that originate from Chin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ad increased to 55 percent, compared to 49 percent in 2011 (The Korean Times 2017). Despite experiencing significantly less pollution than South Korea, the western part of Japan has also been affected by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Matsuoka 2017). Japanese researchers have highlighted that China’s contribution of PM 2.5 amounts to 61 percent in the Kyushu region, 59 percent in the Chugoku region, and 59 percent in the Shikoku region (Kanaya 2013). On the other hand, China’s scientists claim that China’s contribution to the air poll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are rather limited, and the majority of PM 2.5 pollutants comes from indigenous sources. (Wang and Zhang 2015). To note, a new research report

* 釜山国立大学

was released in 2019 and claimed that China's contributions to major cities in South Korea were 32.1%, and to major cities in Japan 24.6%. (Secretariat of Working Group for LTP Secretariat 2019). This report thus suggests an in-between perspective that the PM 2.5 pollution is a mixed result of local emission and transboundary pollution. The report came from the 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ion (LTP) program – a joint study project organized by the three governments. For these reasons, the research outcome appears to have better neutrality and scientific reliance.

Resolving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requires transnat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t present, China and South Korea are the two most affected countries in in Northeast Asia, and the two countries are trapped in disputes over the pollution sources. This study investigates environmental policy interactions in Northeast Asia, and endeavors to address two key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is the performance of existing multilateral frameworks? Second, what obstacles have impeded the advancement of regional air cooperation? This paper also seeks to outline the main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ional institutions.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the issues of air pollution issue have been listed as the top priority among all other environmental issues in this region. The deterioration of air quality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from policy makers. The rapid spread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made it a pivotal area for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Zhang 2018; Cui 2013; Yoshimatsu 2010).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occasions, scientific joint research and policy exchanges are dynamic, and a variety of cooperative actions have occurred. Second, ongoing cooperative projects have remained noncommitted and nonbinding, which means that a great variety of obstacles and ongoing disputes remain unresolved.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transboundary fine dust issue appears to be more of a "political" issue than merely an "environmental" issue. It can be highly subject to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diplomatic climate. In a broader sense, the politicization of the transboundary fine dust issue also implies that there is a hybrid regional "air governance" that mixes environmental concerns with diplomatic interests.

2. Identify Issues of Rule-making and Governance

Scientific Data and Standards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is essential to informing decision-making processes relevant to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The real-time exchange of accurate PM 2.5 data is the very foundation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However, regional multilateral frameworks such as TEMM, LTP, and NEASPEC have not established any data sharing system. The China-South Korea bilateral data exchange has been initiated, yet a closer examination on the exchange mechanism also reveals its shortcomings. The real-time data exchang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s limited to PM 2.5 concentrations and emissions, for which environmental researchers in South Korea complain that the current data exchange remains at a superficial stage. South Korean experts argue that annual overall emissions are not always the ideal criteria for measuring the severity of PM 2.5 pollution. Instead, they argue that the count of "severe pollution days" (PM 2.5 > 75 μg/m3) is far more critical than that of yearly-based PM 2.5 concentrations, and should be used as a key index for monitoring air quality. Also,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and accurate weather forecasting, comprehensive PM 2.5 data exchange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routes for transmission are also necessary.[6] However, this

information has not yet been widely sha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is reason, in-depth data exchange and joint research still play as the “first step” towards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on fine dust reduction (Lee 2019).

In addition, the use of different environmental standards points to another scientific barrier for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for designing effective PM 2.5 reduction measures. Howeve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each adopted their own national emission inventories, based on preferred industries or compositions of air pollutants that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7] This brings about the problems of comparability and compatibility among these differing information inventories and standards, as well as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ach country’s data. At present, the NEASPEC is actively engaged in this scientific and technical process. It has selected the interaction and integration among diversified emission inventories as a working priority for its expert group meetings (NEASPEC Secretariat 2019a). In spite of ongoing efforts, significant challenges for building a scientific-based episte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still remain, let alone the subsequent policy-based steps.

Overlapping Cooperative Institutions and the Issue of Leadership

Relatedly, the different interests and pursuits of varying countries have also caused overlap, or even competition, among environmental institutions. Foremost, it appears that bilateral cooperative frameworks still largely precede multilateral and regional ones at the current stage, as there have been more tangible cooperative outcomes from bilateral approach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n the surface, the TEMM has demonstrated remarkable efforts regarding environmental institution-building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by means of incorporating and integrating three pairs of bilateral cooperation into a single trilateral framework. In reality, however, this trilateral umbrella remains more “symbolic” than “substantive.” Normally, the agenda of TEMM is that bilaterally based environmental minister meetings will be held on the sideline of TEMM. TEMM, as a three-party dialogue, features a pattern of consensus making and settles on “lowest common denominator” agreements that may be insufficient to reach common actions. However, core issues and difficult negotiations are more likely to be addressed in bilateral occasions. This explains why the sharing of real-time monitoring data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one of the most convincing outcomes for “PM 2.5 diplomacy” in Northeast Asia – is bilateral, rather than multilateral. This also seemingly implies a complex nexus between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In the near future, multilateral approaches may work well in providing cooperative agendas and venues, whereas currently they remain unable to replace the roles of bilateral approaches.

Further, the current situation of “PM 2.5 diplomacy” leads to issues such as program overlap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different players. The existing regional environmental frameworks (LTP, TEMM, NEASPEC, and EANET) do not seem to have a clear division of tasks. All mechanisms have been advancing in both technical and policy branches, with similar functions. In this sense, the ambiguity of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resembles the “spaghetti-bowl effect” of regional trade governance, leading to the multiplication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a decline in cooperation efficiency.

Bureaucratization and the Absence of Legalized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state bureaucracies have long been the predominant actors in the formul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legislation of environmental laws. The strength of state bureaucracies starkly

contrasts with the weaknesses of scientif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instance, despite the LTP providing policy reports on each of its five-year-long research phases, these research results have not been fully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him 2017).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ministrie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raft “air diplomacy” in this region. Instead, the foreign ministries have had considerable impacts in address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in many circumstances appear to be the main agencies in charg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operations of the NEASPEC provides a telling example in this regard. The NEASPEC was initially proposed and supported by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ven today, China’s participation in the NEASPEC is strictly controlled by the foreign ministry. The power of foreign ministries thus represents further evidence that the issue of transboundary fine dust bears political-diplomatic consequences, for which any major decision making requires the delegation of mandates from top political leaders. However, the leading roles of foreign ministries in transboundary air cooperation is not always a good signal, considering that foreign relations experts may lack specific knowledge and technical expertise (Lee 2013; Jung 2016).

Meanwhile, “air governance” in this region remains largely underdeveloped, as cooperative actions remain overwhelmingly limited to preliminary and “soft” approaches, such as exchanging of data and holding joint seminars. LTP and TEMM do not yet have an organizational base. The NEASPEC, despite having a permanent small secretariat, is also confronted with limited financial budgets and capacity building. More importantly, a long-term plan for legally-binding agreements and enforcement mechanisms is not forthcoming (Kim 2007; Komori 2010; Yoon 2007; Nam 2002).

11月 21日(土) 09:00~10:30

언어학(1)-음운

❖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노혜정(고려대)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 – 중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지(이화여대)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漢語 방언 연구

변지원(방송대)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한국어 자료의 기여 가능성 탐색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

- 중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혜정*

<目 次>

1. 서론
2. 언어 지역과 지역 유형
3. 파열음 운미의 지역 유형
4.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지역 유형 분포 특징
5. 결론

1. 서론

본고는 중국 장강 유역과 장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음운 유형과 지역 분포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 유형론의 각도에서 동일 지역 혹은 주변에 함께 분포하고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특히,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雲南·四川·貴州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西南官話는 다른 官話와는 다른 성격임을 지적하고, 파열음 운미 음운 유형의 언어 지역 유형에 근거에 대해 기존 유형 연구 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대륙은 중국-티베트어족, 타이카다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알타이어족 등 다양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복잡하게 분포하며, 漢族과 소수 민족이 함께 거주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강한 언어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 대륙 지역의 언어 유형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 언어 유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먼저 선행 연구의 중국 방언 지역 분류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 방언 지역의 언어 유형 분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고하고, 관화 방언의 세분화와 다른 소수 민족 언어 추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중국 중·남부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함께 분포하고 있는 소수 민족 언어와 연계하여, 지역 유형론적 각도에서 중국 중·남부 지역 언어의 파열음 운미의 지역 유형을 분석을 시도한다. 파열음 운미 '-p, -t, -k'를 기준으로 각 지역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에 나타나는 지역 분포 유형을 분석하여, 西南官話 지역, 廣東省과 廣西壯族自治區 등에서 발생하는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밀접한 언어접촉과 이에 의한 언어전이에 대해 토론하며, 마지막으로 de Sousa(2015)와 沈鍾偉(2017)에 대한 본고의 수정안을 제안한다.

2. 언어 지역과 지역 유형

'언어 지역(language area)'이란 계통적으로 친연관계가 없는 두 개[1] 혹은 그 이상의 언어들이 특정 지역 안에 분포하며 접촉한 결과, 공통적인 유형적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Thomason 2001, Aikhenvald &

* 고려대학교

1) 두 개 혹은 세 개 등 최소 언어 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에 차이가 있다.

Dixon 2001). 지역 유형학(areal typology)은 유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언어 특징의 지역 분포 패턴을 관찰하고 묘사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시적 각도 혹은 공시적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吴福祥 2017).

중국의 중·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漢族과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접촉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러므로 중국에 분포하는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 연구는 동일한 혹은 인접한 지역 안에 있는 언어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분석을 하여야 언어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漢語의 유형적 특징을 지역적인 각도에서 분석한 초기 연구는 橋本萬太郎(1974, 1976, 1978, 1986)이 대표적인데, 음운, 어휘, 문법에 나타나는 언어적 유형이 중국의 남방과 북방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분포적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음운, 어휘 등에 대한 각 방언의 유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 방언을 북부, 중부, 동남부로 나눈 Norman(1988)의 연구 이후, Comrie(2007, 2008, 2009), Chapell(2001, 2015, 2017), de Sousa(2012, 2015), Enfield(2017) 등 많은 서양학자들이 지역 유형론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 지역 언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주로 중국 대륙과 동남아 지역에 한정되었거나, 근거로 한 중국 방언 자료는 대표적인 방언구 몇 개의 방언 뿐으로, 개략적인 지역 유형은 관찰할 수 있지만, 정확한 중국 지역 언어 유형 특징을 관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Norman(1988) 이후 최근의 언어 유형 연구는 Norman(1988)의 연구를 기초로 북부, 중부, 남부 등 세 지역으로 나눈 분류 안에서 일부 방언의 소속을 재설정 하거나(沈鍾偉 2017), 북부, 중부, 동남부, 극남부 등 네 지역(de Sousa 2015), 혹은 그 보다 더 세분화하여 북부, 서남부, 전이지역, 동남부, 극남부 등 다섯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Chappell 2012).

de Sousa(2015)는 Chappell(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를 다시 북부, 중부, 동남부, 극남부 등 네 지역으로 재분류 하였다. 북부는 官話(遂寧), 중부는 瓦鄉話(古丈), 贛方言(宜春), 閩-贛(邵武), 동남부는 徽語(績溪), 吳方言(富陽), 閩東方言(福清), 閩南方言(惠安), 극남부는 平話(南寧), 粵方言(廣東) 등으로 분류하였다.[2] de Sousa(2015:370)는 官話를 北京官話, 冀魯官話, 膠遼官話, 東北官話, 蘭銀官話, 中原官話, 西南官話, 江淮官話 등으로 세분화하고, 北京官話, 冀魯官話, 膠遼官話, 東北官話, 蘭銀官話, 中原官話 등은 북부 방언, 中原官話, 西南官話, 江淮官話 등은 중부 방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官話의 세분화에 대해 이미 언급을 하였지만, 실제 방언 유형 분석에는 官話 중 북경어만 자료로 사용하여 북부 방언의 대표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西南官話, 江淮官話 등 다른 官話는 이용하지 않았다.

沈鍾偉(2017)는 각 방언에 나타나는 파열음 운미와 비음 운미의 음운 유형을 관찰하여 중국 방언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었다. 中古音에 나타나는 '-p, -t, -k'와 '-m, -n, -ŋ' 자음 운미가 한 류로 병합된 유형으로 반영되는 湘方言, 徽方言, 吳方言과 贛方言을 중부 방언으로 분류하고, 이는 동일한 음운 유형이 나타나는 苗語와 유형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3] 또한, 粵方言, 平話, 客家方言 등 자음 운미가 세 류로 반영되는 방언들과 閩方言을 남부 방언으로 분류하고, 이는 인접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壯語와 유형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파열음과 비음 운미의 유형적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 閩方言은 지리적 위치에 의해 단순하게 남방으로 분리가 되었다.

2) 중부는 Chappell(2012)이 분류한 '전이지역'에, 극남부는 Chappell(2012)이 분류한 '남부'에 해당된다(de Sousa 2015:370).

3) 그러나, 입성운 운미를 보존하고 있는 일부 贛方言은 유형적 특징에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지역 위치에 따라 중부 방언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贛方言의 복잡한 성질에 대해서는 沈鍾偉(2017)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많다고 하였다.

〈표1〉 漢語 방언의 지역 구분과 자음 운미의 음운 유형[4]

	de Sousa(2015)					沈鍾偉(2017)			
	지역	분류	방언점	파열음 운미	비음 운미	지역	분류	파열음 운미	비음 운미
官	北	官	遂寧	-	+	北	官	B	A
瓦鄉	中	瓦鄉	古丈	-	-	中			
湘							湘	B	B
贛		贛	宜春	-	+		贛	C'	C'
閩/贛		閩/贛	邵武	-	+				
徽	東南	徽	績溪	-	-		徽	B	B
吳		吳	富陽	-	-		吳	B	B
閩		閩東	福清	-	-	南	閩	B	B
		閩南	惠安	+	+				
平	極南	平話	南寧	+	+		平	C	C
粵		粵	廣東	+	+		粵	C	C
客							客	C	C
少數民族語言		瑤語	Njua	+	+				
		苗語		-	-	=中	苗語	B	B
						=南	壯語	C	C

漢語 방언에 나타나는 파열음 운미에 대한 de Sousa(2015)와 沈鍾偉(2017)의 유형 분석과 지역 분류는 다소 차이가 있다.[5] de Sousa(2015)는 파열음 운미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沈鍾偉(2017)는 中古音의 세 가지 入聲韻의 대응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吳方言과 閩方言의 지역 분류 귀속에 차이가 있지만, 유형 특징 분석 내용은 모두 파열음 운미가 한가지로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de Sousa(2015)는 吳方言을 閩東方言, 閩南方言과 함께 동남 방언으로 분류하였고, 沈鍾偉(2017)는 吳方言을 湘方言, 徽方言, 贛方言 등와 함께 중부 방언으로, 閩方言은 동남부 방언으로 분류하였다. 閩方言은 파열음과 비음 운미 유형이 모두 閩東方言과 閩南方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de Sousa(2015)의 방안이 더욱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비음 운미와 파열음 운미의 유형적 특징에 따르면 閩南方言은 平話, 粵方言 등과 함께 極南部 방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이들의 연구에서 官話 방언을 하나로 분류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de Sousa(2015:370)의 방언 지역 분류와 沈鍾偉(2017:259)가 "지리적으로 吳方言에 근접한 江淮官話에 성문파열음 '-ʔ' 운미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이 이미 지리적 위치에 따른 官話의 내부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 분류에서 官話 방언의 분포 지역은 북, 서, 서남 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모든 지역의 官話에서 통일된 언어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방언 분류의 각도가 아닌, 지역 유형 각도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개 비음 유형을 예로 들면, 北京官話, 膠遼官話, 中原官話 등은 연구개 비음이 두음 위치에 출현하지 않지만, 장강 유역 혹은 장강 이남 지역에 위치하는 貴陽(貴州), 武漢(河北), 成都(四川) 등 西南官話, 江淮官話와 동부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冀魯官話는 같은 관화이지만 연구개 비음이 두음 유형이 다르게 나타낸다(錢曾怡 2010). 특

4) 빈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파열음 운미'와 '비음 운미'는 한 개 이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것으로, '+'는 나타남, '-'는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沈鍾偉(2017)는 파열음 운미와 비음 운미를 각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파열음 운미는 中古音의 세 가지 파열음 운미(-p -t -k)를 기준으로, 각각 (A) -0 -0 -0, (B) -ʔ -ʔ -ʔ, (C) -p -t -k, (C') -t -t -k로 나타내고, 비음 운미는 中古音의 세 가지 비음 운미(-m -n -ŋ)를 기준으로, 각각 (A) -n -n -ŋ, (B) -N -N -N, (C) -m -n -ŋ, (C') -n, -n, -ŋ로 나타낸다.

5) de Sousa(2015)의 지역 분류는 음운 특징 이외에 문법 유형까지 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음운 유형 중 파열음 운미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지역 분류에 음운, 어휘, 문법 유형 등 종합적인 유형 특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본고는 de Sousa(2015)와 같은 견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시작 작업으로 음운 유형 중 파열음 운미에 대한 연구로, 향후 다양한 언어 유형 분석 내용이 추가되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히 西南官話는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漢族과 장기간에 걸친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여 중부 방언과 함께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沈鍾偉(2017)는 중부 방언을 苗語와, 남방 방언을 壯語와만 비교하여 유형적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였지만, 西南官話 지역인 雲南・四川・貴州 등지에는 많은 소수 민족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지역 유형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白語, 納西語, 彝語, 哈尼語, 拉祜語, 傈僳語 등 다른 민족 언어 자료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지역 유형을 관찰하여야 하며, 또한 소수 민족 언어라도 동일 언어 내부의 방언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수 민족 언어의 다양한 방언 자료도 추가되어야 한다.

3. 파열음 운미의 지역 유형

다음은 중국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漢語 방언에 나타나는 파열음 운미 유형을 지도상에 표기한 언어 유형 분포 지도이다. (지도 생략) 동남부 연안 지역은 대부분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성문 파열음 운미로 나타나고, 湘方言과 贛方言 일부 지역과 閩北 지역, 그리고 대부분의 西南官話에는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粵方言 지역에는 '-p, -t, -k' 파열음 운미 유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漢語 파열음 운미 유형의 지역 분포를 소수 민족 언어의 지역 분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雲南・四川・貴州・重慶 등지에 분포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고, 廣西壯族自治區, 海南에 분포하는 언어(壯語)는 대부분 세 가지 파열음 운미를 가지고 있다. 雲南省의 서남쪽 변경 지역에 분포하는 佤語(亞),[6] 布朗語(亞), 景頗語(藏), 阿昌語(藏)와 북쪽 변경 지역의 獨龍語(藏), 동쪽 白語(藏),[7] 納西語(藏),[8] 彝語(藏),[9] 哈尼語,(藏)[10] 拉祜語(藏), 傈僳語(藏) 등은 모두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白語(藏), 納西語(藏), 彝語(藏), 哈尼語(藏) 등 언어의 음절 구조는 원래 자음 운미가 없는 CV 구조이다. 湖南, 貴州 등 지역에 분포하는 苗語는 CVC 구조이지만, '-p, -t, -k'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廣西壯族自治區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壯語(侗)와 海南省에 전역에 분포하는 黎語(侗)는 '-p, -t, -k' 파열음 운미가 모두 나타난다. 동일한 소수 민족 언어도 지역에 따른 내부 차이가 존재하는데, 廣西 전역에 분포하는 거의 모든 壯語는 '-p, -t, -k'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만, 雲南省 동남부 지역의 文山壯族苗族自治州 文山(黑末鄉大寨)에 분포하는 壯語는 '-p, -t, -k' 파열음 운미는 나타나지 않고, 비음 운미 '-n -ŋ'만 나타난다. 海南省의 黎語(侗)는 '-p, -t, -k' 외에 성문 파열음 운미 '-ʔ'도 나타나며, 다른 지역의 소수 민족 언어와는 다른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

6) 괄호 안은 소속 언어 계통을 나타낸다. (예) 亞: 오스트로아시아어, 藏: 티베트-버마어, 侗: 타이카다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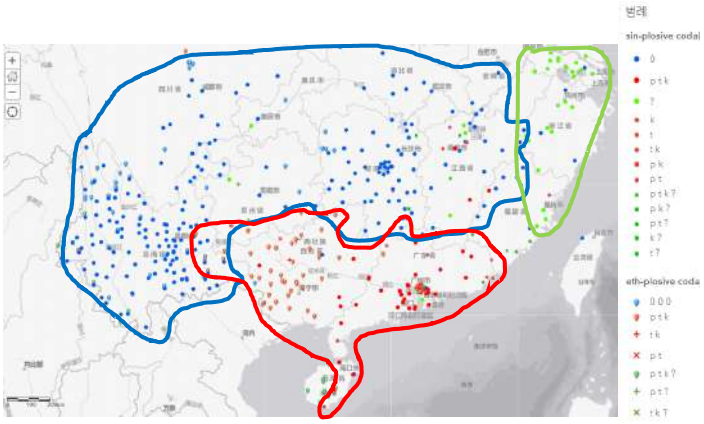
7) 徐琳, 趙衍蓀 主編,『白語簡志』, 民族出版社, 1984.

8) 李子鶴,『原始納西語及其歷仕地位研究』, 北京大學中文系博士論文, 2013.
和即仁, 薑竹儀 編著,『納西語簡志』, 民族出版社, 1985.

9) 陈士林,『彝語簡志』, 民族出版社, 1985.

10) 李永燧, 王尔松,『哈尼語簡志』, 民族出版社, 1986.

〈그림1〉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 분포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 유형의 지역 분포는 언어 계통 보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일치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파열음 운미 p, t, k의 유무에 근거하면, 크게 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부 지역 대부분의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들은 파열음 운미 p, t, k가 나타나지 않고, 극남부 지역의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들은 세 가지 파열음 운미 p, t, k가 모두 나타난다. 주로 漢語만 분포하고 있는 동남부는 운미에 파열음 운미 p, t, k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문 파열음 -?이 나타난다.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남방 방언 지역의 파열음 운미 유형이 계통이 다른 소수 민족 언어 종류보다 동일 지역에 함께 분포하고 있는 漢語와 같은 유형을 띄는 점에 비춰볼 때, 언어 유형이 형성되는 데에 있어 언어 계통뿐만 아니라 지역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반대로 앞서 제시한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동일한 소수 민족 언어의 유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壯語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지역 유형 분포 특징

각각 다른 언어 계통에 소속되어 있는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들이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언어접촉이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운남, 사천 등 西南官話 지역은 북경을 포함한 북방 방언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성운의 소실 등 여러 유형에 근거하여 관화로 분류한다. 그러나, 西南官話의 入聲字는 일괄적으로 陽平調로 변하였는데, 이는 西南官話 이외의 官話에 나타나는 入聲字의 변천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李榮 1985). 西南官話 자음 운미의 독특한 특징은 西南官話 지역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생각해 볼 때, 깊은 언어 접촉에 의해 발생한 언어 전이일 가능성이 있다. 西南官話 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소수 민족 언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운미가 없는 CV구조이다. 雲南省의 서남쪽 변경 지역에 분포하는 佤語(亞), 布朗語(亞), 景頗語(藏), 阿昌語(藏)와 북쪽 변경 지역의 獨龍語(藏), 동쪽 변경 지역의 壯語(侗)를 제외하고, 白語(藏), 納西語(藏), 彝語(藏), 哈尼語(藏), 拉祜語(藏), 傈僳語(藏) 등은 모두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湖南, 貴州 등 지역에 분포하는 苗語의 음절구조는 CVC 구조이지만, 운미 위치에 파열음 운미 '-p, -t, -k'는 출현하지 않는다(王輔世 1985). 沈鍾偉(2017)는 王輔世(1985)에 근거하여 苗語의 파열음 운미 유형을 분석하였으나, 이를 '(B) -ʔ -ʔ -ʔ'로 하고, 吳·贛·湘方言 등과 함께 중부 방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형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파열음 운미 유형만을 고려한다면 '(A) -0 -0 -0' 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상반된 예로, 廣東省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 壯語와 傣語는 대부분 세 가지 파열음 운미(-p, -t, -k)가

모두 나타난다. 동일 지역의 粵方言에서 보존하고 있는 입성 운미들과 지역 유형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粵方言의 입성운미가 중고음 혹은 그 이전의 古音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음운 변화를 맞지 않고 古音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제가 동일 혹은 인접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壯語와 瑤語 등 파열음 운미 '-p, -t, -k'를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 언어와의 접촉으로 입성운 보존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壯語는 음운 체계에 '-p, -t, -k' 파열음 운미가 있으며, 瑤語 역시 파열음 운미 '-p, -t, -k'를 가지고 있다(馬學良1991: 615-616).

閩方言의 파열음 운미는 9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仙遊(閩南), 建甌(閩北), 建陽(閩北), 石陂(閩北), 永安(閩中), 泰寧(閩中) 등에는 파열음 운미가 나타나지 않고, 閩中의 莆田, 福清 등과 閩東 福州는 성문 파열음 운미만 나타난다. 閩南 지역은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파열음 운미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沈鍾偉(2017)의 閩方言 파열음 유형은 정확한 유형적 특징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de Sousa(2015)의 분류는 파열음 운미 유형 분류에 근거하면, 閩東方言과 閩南方言 보다는 閩北方言・閩中方言・閩東方言과 閩南方言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며, 閩南方言은 다른 남부 지역 방언과 유형적으로 더욱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5. 결론

본고는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의 파열음 운미의 음운 유형을 분석하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 패턴을 관찰하였다. 중국 중부 지역에 분포하는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 파열음 운미 유형(파열음 운미 없음)의 지역적 분포가 통일적으로 나타나며, 廣東省과 廣西壯族自治區 등 중국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 파열음 운미 유형 역시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유형적 분포 특징을 보인다.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漢語와 소수 민족 언어는 다른 계통에 속하는 언어들이지만 매우 유사한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 언어 계통과 분화와 함께 동일 언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언어 유형의 변화 발전 혹은 소실된 형태는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한 복잡한 언어 접촉이 기제가 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일부)

孙宏开・胡增益・黄行,『中国的语言』, 商务印书馆, 2007.

沈鍾偉,「語言轉換和方言底層」,『曆史層次與方言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7.

沈鍾偉,「語言作爲複雜系統與漢語的動態研究」,『語言與人類複雜系統』, 雲南大學出版社, 2017.

吳福祥,「從地域語言學到區域類型學」,『民族語文』6, 2017.

王辅世,『苗語簡志』, 民族出版社, 1985.

錢曾怡,『漢語官話方言研究』, 齊魯書社, 2010.

曹志耘,『漢語方言地圖集(語音卷)』, 商務印書館, 200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中國語言地圖集: 少數民族語言卷』, 商務印書館, 2012.

陳保亞,『語言接觸與語言聯盟』, 語文出版社, 1996.

de Sousa, Hilário(2015), "The Far Southern Sinitic Languages as part of Mainland Southeast Asia". In Enfield, N.J. & Comrie, Bernard (eds.), *Languages of Mainland Southeast Asia : The state of the art (Pacific Linguistics 649)*, 356-439. Berlin: De Gruyter Mouton.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漢語 방언 연구

엄 지*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와 적용
 2.1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2.2 프로그래밍 언어 적용 실례
3. 프로그래밍 언어와 漢語 방언 연구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漢語 연구는 음운, 어휘, 통사, 화용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실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또한 90년대까지 표준중국어(普通話, Chinese Mandarin)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漢語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방언지리학과 사회방언학의 발전과 함께 漢語 방언과 민족어 연구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본격적으로 지역 방언을 직접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언어 전반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온 중국과 달리, 국내의 漢語 방언 연구는 근거로 삼는 자료가 중국에서 출판된 몇 개 어휘집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진행된 선행연구의 재검토에 머무르는 등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국내 漢語 방언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연구의 경우 직접 조사의 물리적,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의 방언 자료를 근거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우선하게 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특정 몇 개 어휘집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진행된 방언 조사를 통해 이미 다량의 코퍼스를 가지고 있는 중국 학계는 인쇄 출판본 외에도 2000년대 초반 이미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매년 방언 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질의 공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漢語 연구에서 이를 실제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연구를 진행할 때 인쇄 출판본보다 검색이 빠르고 컴퓨터 입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게 인쇄 출판본과 다를 바 없이 단음절 단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음성 자료가 부족하며,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여 검색한 후 복사하여 붙이기라는 반복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웹사이트의 잦은 접속 오류도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데 크게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및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방언뿐 아니라 漢語 연구 전반에 있어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외에도 실제 언어자료를 컴퓨터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1세기 언어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2.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와 적용

2.1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언어이다. 1950년대 고안된 어셈블러(Assembly language)를 시작으로, 포트란(Formula Translating system), COBOL(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 베이직(Beginner's All 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생겨났고, 특히 1970년대 초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스칼(Pascal)과 C의 개발 이후 스몰톡(Smalltalk), 파이썬(Python), 그리고 이후 블록 조립형 프로그래밍 언어(Scratch, Entry 등)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이 높고 조작이 쉬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생겨남에 따라, 현재는 특정 전문 영역을 벗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 사용하려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91년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발표한 파이썬(Python)이다.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문법이 단순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윈도우, 맥, 리눅스 등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부터 웹 서버, 인공지능, 딥러닝 프로그램 등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필자는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이 파이썬을 통한 웹 크롤러(웹 자동 탐색 프로그램) 제작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미비점을 보완한 통합 웹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면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다양한 온라인 공개 자료들을 국내화하여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처리 과정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비전공자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본인 영역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먼저 본 고에서는 웹 크롤러 제작안과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 이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미 양질의 온라인 공개 자료가 있음에도 웹상에서 이를 하나하나 가져와 입력하는 것이 수 천 개 이상의 언어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부 단편적인 음운 혹은 어휘 비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일차자료의 부족과 제한된 활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selenium, openpyxl, xlwt, BeautifulSoup 등의 모듈을 사용해 특정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들을 자동으로 검색, 추출, 저장하는 웹크롤러 프로그래밍을 구상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상고음, 중고음과 7대 방언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东方语言学(http://www.eastling.org) 사이트에 실제 적용시켜봄으로써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가 의도한 바대로 구현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2.2 프로그래밍 언어 적용 실례

파이썬의 다양한 모듈들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변수와 함수를 일일이 조합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지 않아도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자동으로 웹을 실행하고 동시에 해당 웹에 사용자가 입력할 값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selenium 모듈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 추출,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코딩하였다.

```
1  import time
2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 ①
3  from selenium.webdriver.common.keys import Keys                   ..... ②
4
5  driver = webdriver.Chrome()                                       ..... ③
6  url = 'http://www.eastling.org/'                                  ..... ④
7  driver.get(url)                                                   ..... ⑤
8  time.sleep(2)
9
10
11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form_1').send_keys(Keys.BACKSPACE) … ⑥
12 time.sleep(2)
13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form_1').send_keys('中')      … ⑦
14 time.sleep(2)
15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form_1').send_keys(Keys.ENTER)   … ⑧
16 time.sleep(2) 1)
```

〔그림1〕 Python 코드 작성 실례

① selenium 모듈에서 Chrome을 크롤링에 활용하기 위해 webdriver를 import 한다.
② 자동으로 특정 단어(key)를 입력시키기 위한 key 이벤트 기능을 import 한다.
③ Chrome 자동 실행을 위해 driver 변수에 chrome webdriver를 입력한다.
④ url 변수에 데이터 자동 검색을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저장한다.
⑤ Chrome 실행 후 4에서 저장한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도록 driver.get(url)을 입력한다.
⑥~⑧ 이동한 사이트의 검색창을 찾아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검색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driver.find_element_by_css_selector (검색창 class값)와 send_keys(사용자 검색값)를 입력하여 출력한다.2)

위 코딩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의 이동, 검색값 자동 출력의 과정을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 기존의 공개데이터를 하나하나 복사하여 붙이는 소모적인 과정을 줄임으로써 연구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온라인 공개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 코딩의 경우 웹크롤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연구자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 자동 반복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 time.sleep(2)을 입력하여 실행 단계마다 2초간 휴지를 주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실행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2)

검색창 class 값은 크롬에서 f12 개발자도구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본 고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东方语言学(http://www.eastling.org) 검색창 class는 'form_1'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의 경우 검색창에 기본 입력값인 '好'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먼저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⑥에 Backspace key 값을 입력하였다.

이 밖에 사용자 검색 값에는 기정리된 엑셀 자료나 공개데이터를 연동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값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래밍 언어와 漢語 방언 연구

데이터 수집은 언어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충분한 데이터 없이는 단편적인 연구로 끝나거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적지 않은 漢語 방언 연구들이 후속 연구와의 연계 없이 단편적인 음운 혹은 어휘 비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러한 일차자료의 부족과 제한된 연구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漢語 방언 연구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중국에서 구축해놓은 방언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활용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어중문학이 문헌분석이라는 전통적 연구 방법을 따라 발전해 온 학문 영역이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비전공자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낯선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현재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언어로 발전하여 비전공자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 연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디지털 인문학 등의 개념으로 인문학과 소프트웨어 학문 간의 융합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지만, 중국 언어학 연구에 있어 이러한 학문적 융합을 어떻게 실제 연구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으며, 융합 연구라 할지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구분되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필자는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 시급한 漢語 방언 연구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비전공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를 시도해보았다.

사실상 중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 역시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오고 있음에도 기존에 인쇄 출판된 어휘집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옮겨 놓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단음절 어휘만을 제시하고 음성자료가 부족한 부분이나, 검색의 불편함, 사이트 오류, 자료 연동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현지 직접 조사와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중국과 달리 국내 연구의 경우 이러한 제한된 자료들을 그대로 연구의 일차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연구자의 필요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이며,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번역기 혹은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는 api 등의 소스를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음성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각 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규칙 대입을 통해 구 단위 이상의 무한한 언어자료를 산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 방면에 있어서는, 본 고에서 시도한 것처럼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 추출, 저장하는 코딩 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고, 이밖에 통합 웹사이트 구현을 통해 각각의 웹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 번에 내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이 아니며, 딥러닝,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와 응용을 통해 기존 방언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오는 말

프로그래밍 언어란 것도 결국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기호 체계로서,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언어학 연구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비전공자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漢語 방언 연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면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웹 크롤러(웹 자동 탐색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음성 출력이 가능하고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 웹페이지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다. 본 고에서는 먼저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ython을 통해 웹 크롤링 제작을 시도하여 중국 东方语言学(http://www.eastling.org) 웹사이트에 적용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을 제시해보았으며, 추후 이를 토대로 하여 본문에서 밝힌 웹사이트 혹은 프로그램의 실제 구현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비전공자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연구자 본인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현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도 기초적이고 단순한 작업일 수도 있으나, 중국 언어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를 기초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방언 연구를 포함한 중국 언어학의 전 영역에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적용 사례들을 정리,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앞으로 인문학과 소프트웨어 학문 간의 상호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한국어 자료의 기여 가능성 탐색

변지원*

<目 次>

1. 들어가며
2. 상고 중국어 재구의 새로운 방법론
3. 가용 한국 방언 및 문헌 자료
4. 국내 중국어 교육의 새 지평
5. 마치며

1. 들어가며

상고 중국어 연구는 전통적인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방언 자료의 활용, 고고학적 자료의 발견, 사료의 발굴, DNA 연구 등과 같은 실사구시적 요소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언어학적 가설을 누가 논리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느냐의 문제로 연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지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논외로 치부되었다. 한편 상고 중국어 연구에 있어 최근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한국어 및 한국 자료와의 관련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당장 대단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연구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 시기 동아시아 교류사를 재점검하는 계기로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한국어 어원 연구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고 중국어 재구의 새로운 방법론

『Old Chinese-A New Reconstruction』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Sagart는 2014년 한국중어중문학회장에서 왜 한국어는 상고 중국어 연구에 등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한국어는 아마도 상고 중국어와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답한 바가 있다. 당시 그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쌀, 조, 기장과 같은 신석기 시기 농업 식량 출토물 등을 둘러싼 신석기 문화의 형성 시기 및 전파 방향에 주목하며 오스트로아시아와 오스트로네시아 언어들의 기원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고음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전통적인 상고음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자료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진 시기의 운서, 둘째는 해성자, 셋째는 『절운』으로 대표되는 운서와 『경전석문』류로 대표되는 중고음이다. 새로운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존 연구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자료를 통하여 상고음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오늘날에 채울 수 있게 되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국어 방언과 상고음 연구의 관계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다만 살아 있는 언어인 중국어 방언을, 문헌 자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연구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변지원, 2019). 언어의 계승 관계에 따라 민족 언어가 갖는 중요도 역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관점은 필연적으로 언어 바깥의 새로운 자료를 기대하고 협력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고고학자인 Bellwood(2015)는 인류의 이동을 논하면서, 중국의 경우에는 농경인들의 초기 이주가 1) 농경 이전 문화 (남부 중심, 양쯔 북방 유역이 북방한계선, 최대 9,000 BCE) 2) 초기 농경 문화(동북아 중심, 7,000-4,500 BCE) 3) 황하-양쯔 기원으로부터 농경 문화 확산(중국 전역, 4,500-2,500 BCE)으로 크게 구분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중 한반도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3)의 시기이다.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음식을 필요로 했을 것이며, 따라서 식량 생산이 가능했던 곳이 각 어족의 기원지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 Bellwood는 가설을 세웠으며, 언어 사용이 고고학 자료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가설의 특징이다. 전작에서 Bellwood(2005: 26)는 초기 신석기 문화가 전파되는 경로상으로 볼 때, 한국어를 비롯한 한반도 북부 알타이어계의 기원지가 현재의 랴오닝 일대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근의 생물학적 근거는 인구 이동과 언어 확산에 더욱 직접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는 인간의 과거를 탐구하기 위한 핵심 질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Y 염색체 시퀀싱을 통하여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를 근거로 한 남성 계통 주요 인구 확장을 확인하며 Wei et al.(2019)는 현대 중국 남성의 약 40%가 유사한 부계의 후손, 즉 당시 세 명의 슈퍼 할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요 부계 확장이 신석기 시대에 발생했고, 농업 발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3. 가용 한국 방언 및 문헌 자료

상고 중국어 시기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는 역사의 다양한 주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언어 연구는 교류사의 주제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언어 연구를 통하여 역으로 교류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도 있다.

상고 중국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자료로는 크게 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를 들 수 있다. 당장 모든 한국어 방언 자료가 상고음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Bellwood의 가설에 주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현재는 쌀이 주식이지만, “종묘사직(宗廟社稷)”에 나오는 “稷”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오늘날 쌀이 주식이 되고 다른 곡식이 부식이 되는 쌀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기장과 같은 서곡류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1] 그런데 기장, 조와 같은 서곡류는 물론 쌀까지도, 탈곡하여 껍질을 깐 것(기울, 쌀, 쌀알), 껍질이 있는 것(벼), 벗겨낸 껍질(겨, 왕겨), 벼를 베고 남은 부분(그루터기), 알곡이 달려 있는 상태(이삭), 찰기가 있는 것(찹쌀), 찰기가 없는 것(맵쌀) 등, 관련 단어들에서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방언에서도 관련 단어들은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2] 쌀과 관련하여 ‘오분도미, 현미, 백미, 정미’ 등의 단어들에서 ‘米’가 단어에서 사용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널리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쌀을 재배하는 곳을 한국어로 ‘논’이라 하는 것을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游汝杰, 2003), 아시아 지역에서 ‘na’라는 음운을 보여주는

1) 한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조는 학명이 Setaria italica (L)로 영어명 foxtail mille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粟은 조생종인 메조이고, 秫은 만생종인 차조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어떤 종류는 강아지풀과 구분이 어려우며, 현재 약 100여 종의 조가 온대에서 열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장은 학명이 Panicum miliaceum L.로, 찰기장은 黍, 메기장은 稷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조는 염색체 수가 2n=18, 기장은 n=18이다. 기작 속에는 많은 종이 있어 인도 아시아 대륙에 29종의 야생종과 2종의 재배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명환, 권대흠, 2011).

2) 국립국어원 https://dialect.korean.go.kr/dialect/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쌀 재배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서는 유교 경전을 모두 교육한 역사가 있다. 여기에는 학습용 표준 발음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삼국에 대한 기록에서 상고음으로도 한자를 읽었을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정광(2011)은 『삼국사기』(특히 권 34-37의 「잡지」 제3-6의 지리, 1-4, 신라지, 고구려지, 백제지의 지명)와 『삼국유사』가 중심 자료가 되며, 이들 사료 자체의 검증을 비롯하여 피휘의 대자(代字)와 결필, 약자 사용, 오각, 탈자, 탈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상고 중국어 연구와 한국 자료의 접점

Wei et al.(2019)의 연구는 다량의 혈액 샘플을 통하여 중국인의 유전적 계보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동아시아 어족의 계보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으레 열외 취급되던 한국이 연구 결과에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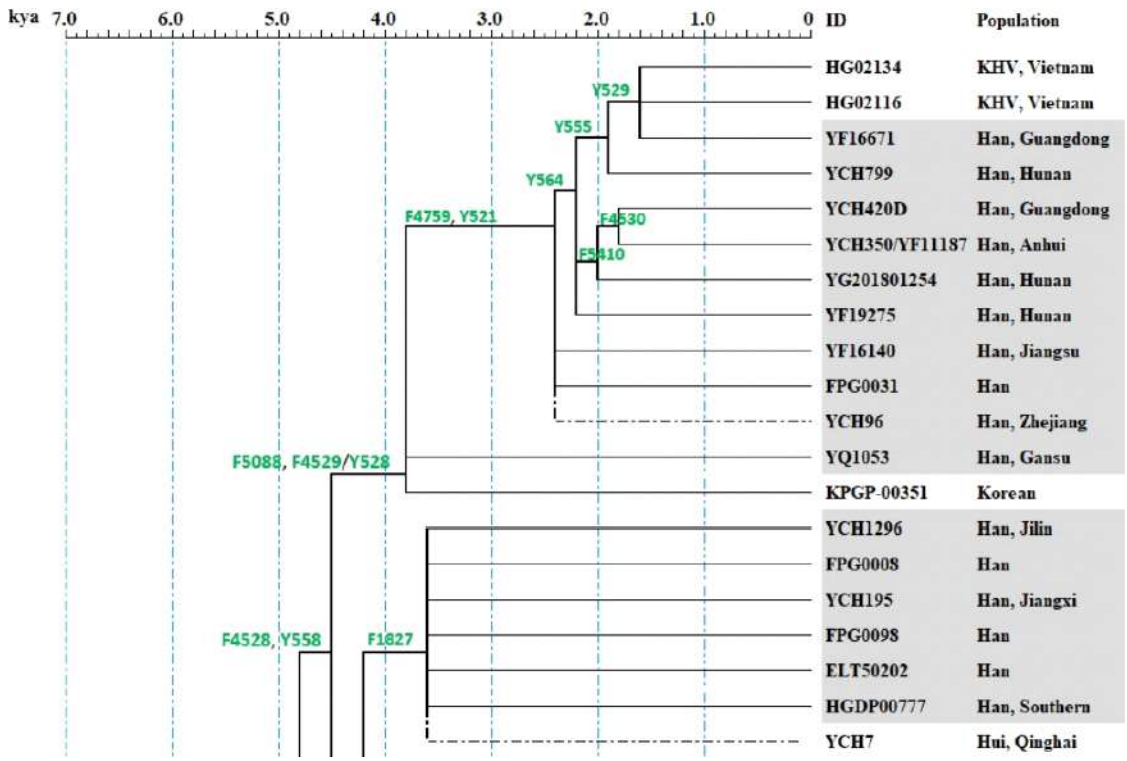


그림 1. Q-M120의 계통 발생 및 발산 시간 추정(Wei et al.2019 Fig.2 부분)

Lu(2005)에 따르면,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이주한 서곡류 경작자들의 이동 시기가 대략 5,000년 전이라 추정되는데, 이는 위의 결과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곡류 및 쌀의 재배는 자연스럽게 가축류와도 연결될 수 있다.

5. 마치며

한국 또는 한국어 자료가 중국어 상고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단히 짚어 보았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 이래로, 늘 과목이나 책 제목에는 “중국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중국어를 그 국가의 단일 언어로 인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중국어 교육에서 상황을 제공하는 장소 채택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베이징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의 나머지 지역은 관광 등의 장소로 주로 인식된다. 국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연구에 있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극히 제한된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을 새로 써야 할 시점이다. 기술과 교류로 인하여, 기존의 중국어 교육과는 차별되는 생동적인 현장 밀착형 교육이 등장할 만한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졌다.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추상적인 국가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역과 이 곳에 있는 사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등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키워드: 상고 중국어, 재구, 서곡, 한국 방언, 농경

참고자료

변지원(2019).「중국어 방언과 상고 중국어 연구」,『중국문학』, No 101: 161-176.

성명환・권대흠(2011).『잡곡의 유통 실태 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45.

정광(2011).『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 연구』. 서울: 박문사

游汝杰(2003). <从语言学角度试论亚洲栽培稻的起源和传布>, ≪著名中年语言学家自选集游汝杰卷≫, 合肥：安徽教育出版社（由以下两文合成：1. <从语言地理学和历史语言学试论亚洲栽培稻的起源和传播>, 载≪中央民族学院学报≫1980年3期。2. <从语言学角度试论亚洲栽培稻的起源和传播>, 载≪农史研究≫1983年第3期, 农业出版社。

Baxter, W & Sagart, L. (2014) *Old Chinese-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llwood, P. (2005) Examining the Farming/Language Dispersal Hypothesis in the East Asian context. In L. Sagart, R. Blench and A. Sanchez-Mazas (eds). *The peopling of East Asia: Putting together Archaeology, Linguistics and Genetics*, 17-30. London: RoutledgeCurzon.

Lu, Tracey L.-D. (2005) Agriculture and Human Diaspora. In L. Sagart, R. Blench and A. Sanchez-Mazas (eds). *The peopling of East Asia: Putting together Archaeology, Linguistics and Genetics*, 51-62. London: Routledge Curzon.

Sagart, L. (2005) Sino-Tibetan-Austronesian: an updated and improved argument. In L. Sagart, R. Blench and A. Sanchez-Mazas (eds). *The peopling of East Asia: Putting together Archaeology, Linguistics and Genetics*, 161-176. London: Routledge Curzon.

Wei, R. Lan-Hai et al. (2019). Phylogeography of Y-chromosome haplogroup Q1a1a-M120, a paternal lineage connecting populations in Siberia and East Asia. *Annals of Human Biology* 46(3): 1-18.

11月 21日(土) 09:00~10:30

중국어문법(1)

❖ 중국어 문법 연구의 새로운 모색

김종찬(안동대) “有關”詞性, 詞義新探

于 鵬(성균관대) 淺析網絡語境下的“析字”表意現象

이운재(서울대) 현대중국어 ‘VV看’의 주관화와 화용론적 분석

정혜인(원광대) 표준중국어 관계절 내 차등 비교 범주의 전치사 좌초 회피 현상

“有關”詞性、詞義新探

金鐘讚*

<目 次>

1. 序言
2. 形容詞“有關”
3. 兼類詞“有關”
4. 及物動詞“有關”的釋義及相關問題
5. 結論

1. 序言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認爲“有關”是動詞和介詞的兼類詞，而≪現代漢語常用詞用法詞典≫（以下簡稱≪常用≫)和≪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將“有關”歸於動詞。≪反義詞詞典≫（以下簡稱≪反義≫）將“有關”歸於形容詞。“有關”的詞性到底是什麽?

邢福義在≪漢語語法三百問≫(2004:137)中有如下論述:

「劃分詞類次類，是爲了更好地認識各個詞類內部的不同現象，以便更好地闡述有關的規律。」

邢福義談到劃分詞類次類的意義。動詞的次類是及物動詞和不及物動詞， 如此細分對研究“有關”的詞性和詞義很有意義。

基於這種觀點，我們先討論形容詞“有關”，再探討“有關”的介詞說問題，進一步討論及物動詞“有關”的釋義以及相關問題，最後提出我們關於“有關”詞性、詞義的觀點。

2. 形容詞“有關”

≪現漢≫（2018:1589):

「【有關】 yǒuguān ①㊀有關係：～方面｜～部門｜這些問題都跟哲學～。②㊁涉及 ： 他研究了歷代～水利問題的著作。」

依據≪現漢≫，“有關”是動詞和介詞的兼類詞，分別具有“有關係”、“涉及”等意義。在這裏首先探討一下所謂動詞“有關”問題。

≪現漢≫認爲“有關”具有“有關係”之意義時，它是動詞。如果≪現漢≫認爲這種“有關”能帶賓語的話，它很可能舉個帶賓語的例子， 但它只舉了“有關方面”、“有關部門”、“這些問題都跟哲學有關”。實際上這種“有關”不能帶賓語，那麽它不可能是及物動詞。“有關”後面不能出現其他動詞，故它不可能是助動詞。如果它是動詞的話，它肯定是不及物動詞。

* 안동대학교

高更生、譚德姿、王立廷≪現代漢語知識大詞典≫(以下簡稱≪知識≫1995:72)認爲不及物動詞指的是所表示的動作、行爲止於自身而不涉及他物的動詞，這是很符合語言實際。高更生、譚德姿、王立廷等所舉例子無一不跟動作、行爲有關,例如"咳嗽、休息、生活、出發、勞動、失敗、遊行、比賽、分離、戰鬪、衝突、作祟、獵奇、示威、道歉、逃荒、擧重、轉彎、撒謊、開幕、閉幕"等。但"有關"具有"有關係"的意思時，它並沒有動作、行爲性，故談不上動作、行爲止於自身而不涉及他物。

以上我們探討了"有關"的問題，它不是及物動詞或不及物動詞。這種"有關"不能充當主語或賓語，那麽它不能是名詞。"有關"不能充當狀語，那麽它不可能是副詞。因此我們有必要討論"有關"的形容詞性問題。

高更生、譚德姿、王立廷的≪現代漢語知識大詞典≫（以下簡稱≪知識≫1995:62）有如下論述：

「並列式詞組 兩個詞或詞組平等地列在一起，可叫並列式詞組。如："又哭又鬧"、"高而陡"等。」

在≪知識≫中列舉的"哭"和"鬧"、"高"和"陡"分別是動詞與動詞、形容詞與形容詞結合的並列式詞組。

一般來講，並列關係的詞之間，其詞性是相同，這是共識，但根據我們的考察，"有+抽象名詞"結構與形容詞發生並列關係,例如:

①但是也有可能錯過一些眞正有趣和有意義的信息，它們擺在你面前，你却看不到。（≪眞希望我20幾歲就知道的事≫p.139）
②最後，他智窮才盡，向上帝禱告說："您太讓我失望了!"突然，上帝低沉有力的聲音打破了周圍的靜寂。（≪眞希望我20幾歲就知道的事≫p.75）
③儘管他們的服務沒什麽難度，而且附近也有的是充氣的地方，但是，他們提供的服務無疑是更方便和有價值的。（≪眞希望我20幾歲就知道的事≫p.5）
④…能便周圍環境活躍有生氣。（≪不要叫我怪老頭≫p.181）
⑤我現在需要的正是一批品格高尚又有理想、有能力的年輕人。(≪雜貨商的女兒≫p.170)
⑥老板變得年輕而有活力了，在他的帶動下，公司越來越朝氣蓬勃，成了有名的人才培訓公司。(≪辦公室學不到的36件事≫p.15)
⑦這眞是過一個自在、有意義的淸明節的好辦法!(≪大年初一回娘家≫p.140)
⑧有了它，我們才會更認眞、更有熱誠。(≪短篇英作文辭典≫p.251)
⑨造父是古代的駕車能手，他在剛開始向泰豆氏學習駕車時，對老師十分謙恭 有禮貌。(≪人生必讀的中國寓言≫p.225)
⑩我們句子市每年都能拿冠軍,是因爲我們的句子們精緻、簡明、有知識，從來都不是依靠這些外在的裝飾。(≪趣味語文≫p.98)

以上列舉的例子中"有+抽象名詞"結構"有意義"、"有力"、"有價值"、"有生氣"、"有理想/有能力"、"有活力"、"有意義"、"有熱情"、"有禮貌"、"有知識"等分別與形容詞"有趣"、"低沉"、"方便"、"活躍"、"高尚"、"年輕"、"自在"、"認眞"、"謙恭"、"精緻/簡明"等發生並列關係。"有+抽象名詞"結構具有形容詞性是一個系統，這能够證明"有+抽象名詞"雖是述賓結構，但實際上具有形容詞性質，故它們才能與形容詞發生並列關係。如果"有+抽象名詞"類型構成詞的話，是述賓式形容詞，如"有益"、"有利"、"有害"、"有限"等。

崔信惠在〈表達屬性義的(很)【有+N】結構研究〉≪中國言語研究≫第七十輯(2017:54)中關於"（很）【有+N】"提到有關"有+抽象名詞"結構具有形容詞性質，故這種結構能受程度副詞的修飾。因爲"有+抽象名詞"具有形容詞的性質，它才能與形容詞發生並列關係。可見 崔氏的這種觀點有一定的道理。

至於"有關"，它可以歸入"有+抽象名詞"系列來分析。從語言的系統性來講，在"個人訪談只獲得152個與學習策略有關的句子,…(≪漢語口語學習策略≫p.52)中，"有關"與"有利"、"有益"、"有害"、"有限"等一樣都是陳述事物或事情的情況的，因此我們推測"有關"等都是一種述賓式形容詞。

不及物動詞“來、去、走、笑”等根本不能受程度副詞“很”、“更”等的修飾, 而“有關係”常受程度副詞“很”、“更”等的修飾,。至於“有關”, 它具有“有關係”的意義時, 能分程度, 故能受程度副詞“很”、“更”等的修飾, 只是不常用“很有關”、“更有關”形式而已。[1)]

≪實用漢語用法詞典≫(以下簡稱≪實用≫1992:809):

「有關 youguan 合成詞, 動賓式。〈動〉涉及到; 有關係。多用於書面語。謂［狀］這種渾身發熱的現同更年期有關。.....［賓］農業的發展ㄣ國計民生。.....〈形〉有關係的。書面語。非謂形容詞。｛定｝省市～領導出席開工典禮, 並爲大廈奠基.....

【同】〈動〉相關 相干 涉及

【反】〈動〉無關 關於」

≪實用≫將“省市有關領導出席開工典禮, 並爲大廈奠基”中的“有關”歸於形容詞, 但≪實用≫認爲“有關”是形容詞時, 它只能充當定語, 故才把它歸於非謂形容詞的。但“有關”充當述語時它是形容詞, 那麽充當定語的“有關”不再是非謂形容詞而是形容詞。

3. 兼類詞“有關”

上文我們討論到“有關”動詞說的問題, 在這裏我們討論介詞說。

≪現漢≫認爲“有關”具有“涉及”的意思時, 它是介詞。≪現漢≫給介詞“有關”舉的例子是“他研究了歷代有關水利問題的著作”,這裏的“有關水利問題”是充當定語而修飾“著作”。“動詞+賓語”結構也能充當定語修飾其他成分, ≪現漢≫之所以將“有關水利問題”分析成“介詞+賓語”主要是因爲它認爲這一結構不能出現在謂語中。如果“有關水利問題”中的“有關”不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的話, “有關”只能是介詞。

≪常用≫（1097:1474）對“有關”的闡釋如下:

「有關 yǒuguān

【動】一、有關係（與“無關”相對）。不能帶賓語。不能帶“了”、“着”、“過”。不能帶補語。不能重疊。常與“跟”、“和”、“同”、“與”相呼應, 構成“跟（和、同、與）…有關”的格式, 在句中作謂語、定語。單獨作定語時, 必帶“的”。

聽說這事跟你有關。…/在有關單位的大力協助下, 水電站很快就建成發電了。

二、涉及到。可帶名詞、動詞賓語。不能帶“了”、“着”、“過”。不能帶補語。不能重疊。常與其賓語一起在句中作定語, 也可單獨作謂語中的主要動詞。

他正在圖書館查找有關醫學方面的書。……/產品質量有關工廠聲譽, 必須認眞對待, 把好質量關。

“有關”作謂語中的主要動詞時, 一般出現在因果複句的表原因的分句中。……」

≪常用≫是將具有“涉及到”的意義的“有關”歸於動詞, 並指出, “有關”作謂語中的主要動詞時, 一般出現在因果複句表原因的分句中, 如在“產品質量有關工廠聲譽, 必須認眞對待, 把好質量關”中, “有關”充當謂語的中心成分, 帶賓語“工廠聲譽”。可見這裏的“有關”肯定不是介詞而是及物動詞。

施光亨、王紹新在≪漢語教與學詞典≫(2011:1278)中有如下敍述:

「【有關】youguan⓫［動］have sth. to do with; have a bearing on; relate to; concern 存在某種聯繫(跟“無關”相對)▷這件事情跟小王～, 他一定知道｜.....⓬［動］concern 涉及▷這事兒～大家的共同利益, 還是大家一起討論吧｜這是一個～大局的問題, 一定要愼重.....」

1) 這固然與學生的學習心理策略有關, 但更與教師的常用引導方法有關。(≪外國學生漢語語音學習對策≫p.110)

施光亨、王紹新等與≪現漢≫不同, 認爲“有關”具有“涉及”的意思時, 它是動詞。在“這是一個有關大局的問題”中“有關大局”可能是“介詞+賓語”結構而充當定語, 也可能是“動詞+賓語”結構而充當定語。但在“這事兒有關大家的共同利益, 還是大家一起討論吧”中, “有關”充當謂語的中心成分, 只能是動詞, 且帶賓語。可見≪現漢≫的介詞說是不能成立的。這裏的兩個“有關”都可以轉寫成“跟.....有關”, 具有“跟.....有關係”的意思, 它們都是及物動詞, 盧英順關於詞語的變化有如下論述:

「有些例外的語言現象則是新的現象的萌芽, 如果能敏銳地把握住這類例外, 在選題上就有了新意。比如“服務、聯係”這兩個動詞, 本是不及物動詞, 後面不能帶賓語, 現在帶賓語的現象常常看到, 如“服務社會”、“聯係我們”等。」[2)]

“服務”、“聯係”等本來是不及物動詞, 故它們不能帶賓語, 而分別說“爲.....服務”、“跟.....聯係”等, 由於語言的發展變化, “服務”、“聯係”也可以直接帶賓語了。由此它們獲得了新的詞性, 即及物動詞。可見盧英順所談“服務”、“聯係”等的及物動詞化觀點有一定的道理。“服務”、“聯係”跟介詞“爲”“跟”一起用時, 它們都是不及物動詞, 當直接帶賓語時, 是及物動詞。這就是說及物動詞“服務”相當於“介詞(爲)+不及物動詞(服務)”, 及物動詞“聯係”相當於“介詞(跟)+不及物動詞(聯係)”。這種機制不僅只跟“介詞+不及物動詞”有關, 也與“介詞+形容詞”有關。基於這種認識, 我們來考察一下“有益”與“對....有益”。

“散步有益健康。”這句與“散步對健康有益”意思基本相同。後者的“有益”是形容詞, 而在“散步有益健康”中“有益”應該是及物動詞, 相當於“介詞(對)+形容詞(有益)”。

依據我們的研究, “有關”是形容詞與及物動詞的兼類詞, 那麼其反義詞“無關”也很可能是形容詞與及物動詞的兼類詞。

關於反義詞, 謝文慶在≪反義詞≫ (1998:27)中有如下論述:

「詞的反義關係是指詞在詞彙意義上相反或相對, 然而, 詞的詞彙意義同語法意義又有密切的聯繫。從詞性來看, 具有反義關係的詞都是同詞類的, 所以研究反義詞時能够注意到它們的詞性類別, 對於掌握其內部特點是頗有益處的。」

謝文慶提到具有反義詞關係的詞的詞性相同。基於這種認識, 再看以下例句:

①這和我們的偵查也可能有關, 也可能無關, 不過在我們難開之前, 還是順着車輪痕迹看一看吧。(≪福爾摩斯探案全集≫p.179)
②買股票所得的資産有限, 買忠心所得的資産無限; ····(≪交出來的好朋友≫p.218)
③孔明林經常有意無意地傳遞這樣的資訊: 衝突有其合法地位, 我喜歡製造衝突。(≪辦分室學不到的36件事≫p.94)
④股票是有形資産, 人心則是無形的資産。(≪交出來的好朋友≫p.244)

上面例句中“有關”與“無關”、“有限”與“無限”、“有意”與“無意”、“有形”與“無形”等都具有反義詞關係。

≪現漢≫ (2018:1381):

「無 wú ①㊀沒有 (跟“有”相對):……」

“無”卽“沒有”的意思, 與“有”具有對應關係。動詞“有”沒有動作、行為性, 那麼“無”也應該沒有動作、行爲性。“有+抽象名詞”類型具有形容詞性質, 那麼“無+抽象名詞”類型也應具有形容詞性質。基於這種認識, 看一下

2) 盧英順, ≪語法、語彙研究10大認識問題≫, p.88.

例句:

①母親的頭正急遽的暈眩, 她無力且柔弱地揮揮手, 以無言的表情動作…(≪愛讓我看見陽光≫p.105)
②他身材短小, 賊頭賊腦的, 態度尖酸刻薄, 極不友好, …他的態度更加冷漠無禮了。(≪福爾摩斯探案全集≫p.79)
③他們能够認識到說話平淡無趣讓人厭倦, 而能殫精竭慮爲講述注入新意和趣味。(≪不要叫我怪老頭≫p.180)
④…過著冷漠、無生氣的日子, 還會要雙方增加最感糟糕的方面, 那就喪失生活的意義了。(≪不要叫我怪老頭≫p.90)

以上例句都運用了"無+抽象名詞"類型, "無力"、"無禮"、"無趣"、"無生氣"等分別與形容詞"柔弱"、"冷漠"、"平淡"、"冷漠"等發生並列關係。這應能够證明"無+抽象名詞"類型也與"有+抽象名詞"類型一樣, 具有形容詞性質。

施光亨、王紹新在≪漢語教與學詞典≫(2011:1117)中有如下敍述:

「【無關】wuguan⓫〔動〕have nothing to do with (某事跟某人或某事)沒有關係(跟"有關"相對)▷我說的跟你說的～丨這件事兒和你～,不要問了丨.....⓬〔動〕irrelevant 不涉及▷這些～緊要(jinyao crucial) 事兒, 會上,就不 討論了丨他們參加不參加～大局, 由他們自己決定。.....」

以上我們考察了施光亨、王紹新等有關"無關"的觀點。他們的動詞⓫實際上是形容詞, 而動詞⓬正 是我們所說的及物動詞。

4. 及物動詞"有關"的釋義及相關問題

韓敬體、宋惠德在≪反義≫(1989:pp.418-423)中將"有方"與"無方"、"有功"與"無功"、"有害"與"無害"、"有機"與"無機"、"有救"與"無救"、"有理"與"無理"、"有力"與"無力"、"有利"與"不利/無利"、"有門兒"與"無門兒"、"有名"與"無名"、"有情"與"無情"、"有趣"與"無趣"、"有數"與"無數"、"有望"與"無望"、"有限"與"無限"、"有效"與"無效"、"有心"與"無心"、"有形"與"無形"、"有益"與"無益"、"有意"與"無意"、"有餘"與"不足/無餘"、"有緣"與"無緣"、"有轍"與"無轍"、"有意識"與"無意識"、"有關"與"無關"等反義詞都歸於形容詞。韓敬體、宋惠德關於"有關"、"無關"詞性的觀點與我們完全一致, 它們具有形容詞的詞性, 但韓敬體、宋惠德等都沒注意到"有關"、"無關"等都是形容詞和及物動詞的兼類詞。形容詞"有關"具有 "有關係", 這是沒有問題。我們注意的是及物動詞"有關"的意義。≪常用≫、≪實用≫等都認爲却認爲及物動詞"有關"具有"涉及(到)"的意思。

"有益"、"有害"、"無益"、"無害"等與"有關"相同,是形容詞和及物動詞的兼類詞, 而且"介詞.....形容詞"相當於及物動詞。下面考察一下形容詞"有益"、"有害"與及物動詞"有益"、"有害"之間的意義關係。

①運動對健康有益。
案: 這裏的"有益"是形容詞, 其義是"有幫助"、"有好處"。
②運動有益健康。
案: 這裏的"有益"是及物動詞, 它相當於"對…有益"。可見介詞"對"與形容詞"有益"合在一起相當於及物動詞"有益", 故及物動詞"有益"是"對…有幫助/有好處"。
③抽煙對健康有害。
案: 這裏的"有害"是形容詞, 其義是"有害處"的意思。
④抽煙有害健康。

案: 這裏的“有害”是及物動詞, 它相當於“對…有害”, 故及物動詞“有害”是“對…有害處”的意思。

以上我們考察了“有益”、“有害”等的詞性和詞義, 它們的詞義與詞性之間很有規律。這種及物動詞後面都不能出現“了”、“着”、“過”等時態助詞, 這一點與“有關”、“無關”有一定的關係。如果單就及物動詞“有關”來講, 其釋義“涉及(到)”沒有問題, 但考慮到形容詞“有關”的釋義“有關係”, 給及物動詞“有關”採取“跟…有關係”的釋義更好。那麽我們推測其反義詞“無關”也可以這麽處理。

≪中朝≫(1986：1745)

「[無關] wúguān [形] …과 관련이 없다, …과 관계없다‖~輕重 경중에 관련없다/ 跟他~ 그와 관계없다」

≪中朝≫認爲“無關”是形容詞, 而給“無關”舉了兩個例子。在我們看來, 在“無關輕重”中, “無關”是及物動詞, 而在“跟他無關”中, “無關”是形容詞。≪中朝≫把這兩種不同詞性的“無關”都歸於形容詞是有問題的。同樣值得注意的是≪中朝≫給它的形容詞“無關”的釋義, 即“跟…沒有關係”。但這種釋義與及物動詞“無關”有關係, 而與形容詞“無關”沒有關係。≪中朝≫應當將“無關”分析成形容詞與及物動詞, 並分別給它們採取不同的釋義才對。這樣處理的話, 形容詞“無關”與及物動詞“無關”之間的詞性、詞義關係整理得一目瞭然。

王喜在≪速查同義反義詞典≫(1991:1470)中說:

「有關
〖反〗無關」

王喜認爲 “有關”與 “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這樣處理不能說不對, 但有些模糊, 我們不能說形容詞“有關”與及物動詞“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反之亦然。我們認爲形容詞“有關”與形容詞“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而及物動詞“有關”與及物動詞“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5. 結論

綜上所述, 我們得出如下結論:

1) “有關”具有“有關係”的意義時, 它不能帶賓語, 故它不是及物動詞。

它沒有動作、行爲性, 談不上動作、行爲止於自身不涉及他物, 故它不是不及物動詞。這種“有關”不能充當主語或賓語, 那麽它不能是名詞。“有關”不能充當狀語, 那麽它不可能是副詞。

2)“有+抽象名詞”結構具有形容詞的性質, 故它都與形容詞發生並列關係。例如“有利”、“有益”、“有害”、“有限”等。從語言的系統性來看, 由“有+抽象名詞”構成的“有關”不能帶賓語時, 它應跟“有利”、“有益”、“有害”、“有限”等一樣是形容詞。這種“有關”能受程度副詞“很”、“更”等的修飾, 因此我們認爲“有關”等都是一種述賓式形容詞。

3)“有關”具有“涉及(到)”的意義時, 它能帶賓語, 故它是及物動詞。但考慮到形容詞“有關”的意義“有關係”, 我們認爲採取“跟…有關係”的釋義更好。

4)“有關”的反義詞是“無關”, 它也是形容詞和及物動詞的兼類詞。嚴格來講, 形容詞“有關”與形容詞“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而及物動詞“有關”與及物動詞“無關”之間有反義詞關係。

淺析網絡語境下的“析字”表意現象

于鹏*

<目　录>

1. 問題的提出
2. 傳統語境下的“析字”現象
3. 網絡傳播語境下“析字”現象的類別及新特點
4. 思考及總結

1. 問題的提出

近年来在网络新词语、新结构中，涌现出一股离合汉字部件借以表意的潮流，即将汉字离析成几个部件或利用构字部件组合成一个汉字来表情达意的新趋势，如：又双叒叕、壕（指“土豪”）、狼人（指比“狠人”还狠一点儿）、月半（指“太胖了”）等。

这股潮流席卷网络，拿“又双叒叕”来说，打开大陆各大网站，常常会看到这样的新闻标题：

(1) 又双叒叕要被挤爆啦！五一不如去这些地方躲人潮！（搜狐网 2019.4.27）
(2) 又双叒叕人从众！五一期间故宫游客爆满，四号之前票全卖光 （腾讯网 2019.5.1.）

虽然大多数中国人不一定能正确读出“叒ruò”“叕zhuó”这两个汉字，但一般都能猜出“又双叒叕”所表达的意思——强调之前经常出现的某一事物再次出现或经常发生的某一事件再次发生[1]。

这一结构新奇独特，瞬间引发网民的共鸣，加之只要在电脑上打出“又双”，会自动出现“又双叒叕”四字，这也助推了该结构的使用频率。“又双叒叕”不仅铺天盖地布满网络，同时它也破网而出，大量出现在报刊、书籍等印刷文本以及各种形式的广告宣传上，成为流行热词。我们以“又双叒叕”为关键词，查找百度的网页部分，可找到11,200,000个相关项目；查找百度的资讯（即新闻）部分，可找到约326,000篇[2]，其热度由此可窥一斑。

这种通过对汉字内部构成部件进行拆分和组合，进而以汉字的结构形体和外观形体来表情达意的现象，具有一定的视觉冲击力，增强了语言的表现力，能给人留下深刻的印象。这种表现形式不是近年来随网络的发展和普及而出现的，它有着悠久的历史传承，在古代的诗词歌赋、字谜对联及小说戏曲中，我们都能找到一些这样的例子，学界一般称其为“析字”法。但这种“析字”现象在继承传统的基础上，近年来网络语境下却出现了一些新用法。如：

(3) 张根硕成了弓长木艮石页，别忘了他也曾是小鲜肉（搜狐新闻 2016.7.19.）

* 성균관대학교

1) 这是百度百科对“又双叒叕”的定义。“又双叒叕”在网络上疯传始于一条网络新闻。2012年12月18日，日本≪朝日新闻≫中文网微博发布了一条微博，“我们又双叒叕要换首相了。”这句话在网上瞬间走红，两个小时就被转发了9000多次。这句话中的四个汉字全部由“又”这一部件组成，总共包含10个“又”字，借以凸显日本换首相的频繁。

2) 2019年5月4日检索，绝大部分为新闻标题。

这种抛弃“弓”、“长”、“木”、“艮”、“石”、“页”等汉字的本义，而以汉字的形体为材料，使汉字组成部件主动参与表意（或说修辞）的情况是传统“析字”法所没有的。它利用汉字或汉字部件进行图形化的再创造，在汉字意义的基础上叠加出某种视觉效果，构成一种屏幕语言，以独特的形式来传达信息。

这一新用法与传统“析字”法既有联系又有区别，二者的载体虽说都是汉字，但传达的信息不同。以往我们一般认为“汉字是记录汉语的书写符号系统，是一种辅助性的交际工具[3]”，具有音、形、义三个要素。但在网络语境下我们还要思考是否应在这三要素的基础上再补充一点，即汉字的视觉效果。从这一点来说，这种新用法拓展了我们对汉字的认知。

本文即是在这样的基础上展开的，为了进一步厘清网络语境下这种通过拆分和合并汉字来表情达意的现象，我们从一纵一横两方面展开，纵向考察“析字”现象出现和生存的土壤以及主要表现形式，横向考察当前网络语境下“析字”现象对传统的继承和发展以及所表现出的一些新特点。

2. 傳統語境下的“析字”現象

1) “析字”現象出現和生存的土壤

“析字”现象为中国所特有，是随着汉字的产生和发展而萌芽、成长的。其中汉字形体结构是载体，中国人的思维方式是助推，这二者的共同作用最终成为“析字”现象出现和生存的土壤。

（1）漢字的形體特點

众所周知，汉字是一种表意体系的文字。换言之，汉字不同于其他拼音文字，而是“拼形”文字，是由笔画和偏旁构造而成的。“笔画是构成汉字的最小单位，偏旁是由笔画构成的，也叫部件，是构成汉字的预制构件，是高一级的构字单位。[4]”汉字的造字法我们一般简称为“六书”，即象形、指事、会意、形声、转注和假借。从象形、指事、会意到形声，汉字的符号化（或称部件化）特点逐渐突出，转注和假借更是完全符号化的表现。

从汉字字形结构上来说，合体字由若干部件组成，每个字可按部件进行拆分，拆分后的部件往往也具有独立的意义。

如：松=木+公，项=工+页（左右结构）；爸=父+巴，念=今+心（上下结构）；间=日+门，回=口+口（内外结构）

不仅合体字可以拆分，独体字一般也可以拆分为不同部件。如：大=一+人，百=一+白

这种一个汉字可拆分为多个部件的特点，使得“析字”成为可能。

2) 中國人的漢字思維

近年来有学者提出“汉字的阅读、书写和通过汉字思维[5]”是中国文化典型的五个特点之一。我个人非常认同这一观点，通过汉字进行思维应被列为中国文化的重要特点之一，但这种观点至今仍并没有引起人们的足够重视。汉字经过几千年的发展演变，已经不再只局限为一种辅助性的交际工具，而是逐渐渗透、内化在一代代中国人的思想里，进而演变为中国人的一种思维方式，如图1、图2。

3) 黄伯荣，廖序东≪现代汉语≫（增订版）上册，北京：高等教育出版社，179页，1991.11

4) 黄伯荣，廖序东≪现代汉语≫（增订版）上册，北京：高等教育出版社，192页，1991.11

5) ≪什么才是中国的文化？≫，葛兆光在上海图书馆“上海市文史研究馆大家讲坛”的演讲，2015.6.6

图1 虫二

图2 无头“富”、通天“章”

类似的例子还有很多。从这种借助对汉字字形进行拆分、合并、删减和增补以传递感情、寄托美好心愿、表达去凶求吉愿望的行为中，我们不难看出中国人身上所具有的一种独特的汉字思维方式。

3）傳統語境下“析字”的主要表現形式

“析字”在中国有着悠久的历史，早在汉代就出现了射覆游戏[6]，猜中的人不能直接说出答案，而要以隐语道出，就相当于制作一个谜语。作为一种文字游戏，很多文人墨客热衷于这种雅趣，因此“析字”被广泛应用于诗词、楹联、戏曲、传奇故事等方面，既富有情趣，能婉转表意，又具有娱乐功能。此外，“析字”还具有一定实用价值，能够占卜吉凶，广泛应用于测字、谣谶、隐语等体现社会政治生活的方面。

总结“析字”法的娱乐功能和实用功能，概括为以下四个方面：

(1) 文人雅趣中的“析字”现象
主要包括字谜、对联等。
(2) 文学作品中的“析字”现象
主要包括诗词、小说等。
(3) 社会生活中的“析字”现象
主要包括测字、隐语等。
(4) 政治生活中的“析字”现象
主要包括谶言、避讳等。

我们不难看出，传统语境下的“析字”现象均为有意为之，带有文字游戏和隐言秘语的双重意义。“析字”法往往使一些词语临时出现某一指称意义或概念意义，其中一些临时意义并没有马上消失，在发展中逐渐附加了联想意义、象征意义和感情色彩等，载体与对象在意义上建立了稳固的联系。渐渐地这些使用析字法构成的词语就脱离了言语层面，进入到语言层面，如“米寿（八十八岁）”、“白寿（九十九岁）”和“茶寿（一百零八岁）”等的语义已经固定下来，已经成为我们日常词汇的一部分了。

3. 網絡傳播語境下“析字”現象的類別及新特點

通过从历时角度进行考察，我们不难发现“析字”法从古代一直延续至今，其存在的物质外形是“汉字”，精神内涵是“用汉字进行思维”。同样的生存土壤，必然使网络传播语境下的“析字”现象与传统“析字”法呈现出一脉相承、不可分割的特点。但语言不是一成不变的，一个时代有一个时代的特点，在当前的社会背景和技术条件下，语言必然生发出与古代不同的表现形式，“析字”现象也是如此。

6) 即猜谜游戏，射覆是一种将一物藏于覆盆之下，供人猜射的游戏。

1）網絡語境下“析字”現象的類別

按照对汉字内部构件的拆分和组合方式，同时兼顾其表意方面的因素，我们可大致将其归为三类：

（1）离合部件“析字”表意

将汉字部件进行拆分或组合构成新字以表达一定意义，是“析字”法最基本的用法，也是网络语境下最常见的用法。可分为拆和合两类：

第一，将一个字拆分为几个部件

在传统语境下，我们常将一些姓氏进行拆分，如将“张”拆为“弓”和“长”、将“章”拆为“立”和“早”、将“李”拆为“木”和“子”、将“许”拆为“言”和“午”等，这是为了避免同音近音引起的不便，所以采取拆分部件的形式进一步解释说明。而网络语境下的“析字”表意，大都是为了求新求异、凸显个性，随意性很强。如：

（4）今天你女吴乐了吗，快来女吴乐吧!!!（天涯社区http://bbs.tianya.cn/post-47-1452439-1.shtml）
（5）Linux是什么系统？答案是走召弓虽！（电子产品世界新闻中心2015.2.5.）

有些拆分纯属为了好玩儿，如将“娱”拆为“女”和“吴”，不考虑拆分后是否有意义。而有些则不同，拆分后附加了一定的意义，如把“强”拆分为“弓”和“虽”，具有“更加强大”的意义。

第二，将几个部件组合成一个字

與上面提到的拆分不同，将幾个部件组成一个字则一定是故意为之的，在组合的时候首先考虑的就是汉字部件（或独立的汉字）合并而成的意义。如“耄”，本意是老年人，一般“耄耋”连用，但网络语境下的“耄”一般单用，借指“毛泽东”，选其拆分后的“老毛”之意。再如：

（6）壕！华谊千金王文也庆生桌上红酒最贵一瓶四万多。（环京津网 2020.2.19.）

“壕”的本意是壕沟，但在网络交流中多取由“壕”拆分出的“土豪”之意。

值得一提的是，一些古籍中极少使用的汉字，因为可以拆解出新义而被网民從故纸堆里翻找出來，如“怒”、“奖”、“烎”、“尨”、“忘”、“觢”、“奣”、“夭”、“奀”、“曇”、“耍”、“圀”、“圇”等。

（2）增损部件“析字”表意

第一，叠加部件表达程度加深

网络交流是一种屏幕语言，为了突出视觉效应，一些网民常采取叠加汉字中的某一部件，以表示程度加深的意义。如：嘂、呆槑、人从众、木林森、日昌晶等。近年来“又双叒叕”体成为一种构式，在网络上十分流行。这一构式的首字是独体字，然后再将这个字叠加，最终两个、三个甚至四个叠加在一起。但语义是首字意义，重叠结构只起加深程度的作用。如：

（7）这帖子要火炎焱燚了！（百度百科 又双叒叕体词条）
（8）这真是一方水沝淼土圭垚养一方人从众啊！（同上）

这种结构发端于网络，属于新兴的语言现象，由于具有较强的视觉效果，同时容易被理解、接受，也具有能产性的特点，所以已经破“网”而出，被广泛运用到报刊、杂志上，特别是多用作文章的题目，以达到廣告宣传语的效果。

第二，减损部件表达程度差异

通过减损汉字的某一部件有时可以得另一个汉字，这时既不选择原字的意义，也不选择减损后所得字的字义，而将两个字的差异点作为所要表达的语意。最有代表性的就是通过减少某一汉字的一个“、”，以达到表示“差一点儿”的意思。如：

（9）这个女人，真是个狼人。（环球网2019.1.5.）

“狼”比“狠”多一个“、”，所以借着“一（个）点”和“一点儿”在语音上联系，以表达“这个女人比狠人更狠”的意思。这一用法容易给人留下深刻的印象，便于人快速记忆。因此在网上使用率极高，最终“狼人”被国家语言资源监测与研究中心选为“2019年度十大网络用语”[7]。这一用法还具能产性，类似的还有“太”和“大”、“主”和“王”、“冷”和“冷”等。

减损部件不仅可以表达差异小，也可以通过减损来表达“差得多”的意思或突出差异点，如：

（10）从拼多多到拼夕夕，它意外揭露了一个社会真相！（搜狐财经 2018.8.1）
（11）原来他叫大鹏，现在他叫大朋了。（搜狐快照 2017.10.23.）

（3）借字形的视觉效果表意

第一，借汉字整体字形表意

通过拆分部件，使汉字在形体上变大，在汉字意义的基础上叠加出某种视觉效果，借以表示胖、粗、强、宽大等意义。如用“月半”表达“太胖了”的意义，构成一种屏幕语言，以独特的形式来传达信息。再如：

（12）而他（陈赫）也成功变身陈赤赤，整个人不仅胖了一圈，也是油腻了很多。（追呗APP 2019.7.18.）
（13）张根硕变成弓长木艮石页，不敢相认。（搜狐新闻 2016.7.18.）

通过部件拆分，等于将字符距离扩大一倍，产生“变宽”的视觉效果，从而增添了“陈赫变胖”、“张根硕变胖”这一附加含义。

第二，只取字形的符号意义

网络时代是视觉化至上的时代，近年来汉字的一些符号化、图像化特点被不断挖掘出来，并在网络语境下不断放大，越来越多网民在使用某一汉字时完全抛弃它的字义，只取字形的图像特点。如：

（14）好污！这间厕所用凸凹代表男女，虽说这很形象……（搜狐网2016.7.26.）

“凸”和“凹”因为象形的原因，分别被赋予了男女生殖器的含义，进而指代男女，甚至进一步引申为与性有关的活动。

再如2008年网络十大流行语之一的“囧”，本义为“光明”，但因为字形好像一个人愁眉苦脸的样子，于是被赋予“郁闷、悲伤、无奈、尴尬、困窘”的意思，成为网络最流行的表情符号之一。

近年来汉字符号化的特点正被不断强化，这是网络的特点和网民心理共同作用的结果。网络语境不同于传统语境，信息的表达不再只靠纯文字，起源于图画的汉字在网络时代不再只是机械地记录汉语，汉字的形体具有独特的表意作用，在字与图的链接点上，还有很多素材有待挖掘。

7) 2019年十大网络用语为：不忘初心；道路千万条，安全第一条；柠檬精；好嗨哟；是个狼人；雨女无瓜；硬核；996；14亿护旗手；断舍离。

2）網絡傳播語境下“析字”現象的新特點

随着网络的发展和智能手机等通讯工具的普及，人们不仅可以通过网络学习、工作，更可以通过网络聊天、交友、休闲和娱乐。从这种意义上来说，网络改变了人们传统的生活方式，成为现实生活的补充和延展。但网络又与现实不同，网络是一个虚拟的空间，具有极大的自由性，每个人都享有信息的缔造权和发布权，可以自由表达个人的思想。在这种情况下，传统“析字”法的娱乐谐趣功能和隐言秘语功能之间存在的微弱平衡被彻底打破了，使得网络语境下的“析字”现象呈现出以下新特点。

（1）“析字”的遊戲功能被無限放大

目前“娱乐至死、网络狂欢”的思想占据网络，这与当前社会生活、社会问题紧密相关，同时也与网民的结构组成有一定关系。因为语言是社会的一面镜子，每个时代所产生的语言都是对当时人们心态、社会文化和经济生活环境等方面的综合反映。当前物质极大丰富，人们生活水平大幅度提高，因此更重视精神上享乐和愉悦。在虚拟的网络里，人们能够摆脱现实社会中语言规则的各种束缚，以更加放松的心态、更加诙谐幽默语言游戏和娱乐。表现在网络交流的语言上，就是网民更加随意地使用“析字”表意这一手段，内容上求新求异，形式上特立独行，因此充满新奇、谐趣的表达方式不断出现。特别表现在多个附件合并成字方面，类似不顾“怒”的本意，先将其拆为“好心”二字，然后再借“好心”的词义表意的用法是以往从来没有的，设计巧妙独特，完全将“析字”修辞变为一种玩弄文字的游戏，体现了网民的创造性和游戏心理。

（2）“析字”的隱言暗語功能被縮小到回避敏感詞

随着科学的发展，“析字”法的社会性功能，如测字、制谶言、制隐言秘语等方面急速萎缩，几乎消失不见。但由于目前上网并不实行实名制，加之上网时面对的也多是陌生人，因此一些人在网上往往无所顾忌，常出现使用低俗语言发泄情绪的情况。为了维护网络环境，避免骂詈语堂而皇之地登上电脑屏，中国大陆设有专门的网络监管部门，会对网上聊天室以及网民间的交流进行监控和审查，对一些淫秽詈语进行过滤，使其无法出现在电脑屏幕上；另外也对涉及国家领导人及敏感政治问题的内容进行筛选，去除一些违规内容。

鉴于此，一些网民为避免监管部门的审查，操起“析字”法，将一些低俗内容进行包装。考察近年来网络上略带隐言暗语功能的“析字”型低俗语，主要有以下几类：

第一，将骂詈语“析字”化处理

按照对汉字的拆分或合并，可以分为两类。一类是对一些骂詈语进行结构上的拆分，如将与“我操”谐音的“卧槽”进一步拆分为“臣卜木曹”；将“嫖娼”拆分为女票女昌；将与“操”谐音的“草”拆出部件“艹”或“屮”。有时为了突出语气，还叠加使用，如“屮艸芔黹”。

另一类是对一些骂詈语进行结构上的合并，如将与“我操”谐音的“我草”进一步合并为“莪”。再如“芒”、“咬”、“天”、“昆”等。

第二，将涉黄类内容“析字”化处理

有些人通过对汉字部件的拆分组合给普通汉字披上一件黄色的外衣，使之与“性”建立联想，如“夯”、“奸”、“胤”、“契孬”、“蚕昆”等，力求制造出“语不惊人死不休”的效果。

第三，将涉政治内容“析字”化处理

中国大陆对于一些涉及政治的词汇有着严格监管，对违反者常常会采取查封网络微博、微信号的方式加以惩戒。因此一些人遇到敏感词往往采取多种方式回避，其中将敏感词“析字”化处理是常见的一种方式。如涉及“维权”一词时，写作“维木又”。也有人对国家体系心存不满，对某一人物带有负面情绪，这时往往也采取这一方式处理。如有人涉及毛泽东的时候用“耄”代替；涉及朝鲜领袖金日成的时候用“金晟”代替；中国政府规定不能写“金三胖”，网民就用“金三月半”或“鑫胖”代替等。

(3) “析字”视覺化正成為追求目標

與传统“析字”法相比，网络语境下的“析字”现象呈现出的最大特点就是：“析字”表意中更多地带有图像化的特点。网络时代是读图时代，人们往往追求通俗化、速食化、简洁化，使用图画或符号化的东西能够更直接地表达思想情感。

通过对上网人群的调查，我们可以知道：从年龄来说，青少年占大多数；从学历来说，中低层次（大学专科学历以下）的人数占80.5%[8]。年轻人出生在网络时代，从小上网看漫画、看动画，往往倾向于带有视觉冲击力的事物；学历层次低的人生活中一般与事物内涵相比，更关注表象，偏向使用通俗易懂的内容传递信息。在这样一类网民站多数的网络社团中，汉字的符号化特点就被放大出来，将“胖”字离析成“月”和“半”两个字，尽管在电脑上打两个字比打一个字费事，但“月半”给人视觉上造成一种直观的冲击，使抽象的感受变成具体的形象，不仅生动有趣，使用范围也广，于是迅速风靡网络。

汉字的图形化特点往往也会通过“汉字思维”的过程表现出来，如“奏→春”（指偷天换日）、“杭→航”（指木已成舟）、“湍→而”（指山穷水尽）、“迁→迈”（指千变万化）、“疮→抢”（手到病除）、“杞→松”（克己奉公）。这些借助“析字”法形成的独特的辅助性符号富有表现力，通常能给人带来愉悦的阅读感觉。

4. 思考及總結

虽说网络传播语境下的“析字”现象与传统“析字”现象是一脉相承、不可分割的，但随着时代的发展，字谜、对联、诗歌、测字、讖言、隐语、避讳等这些承载“析字”内容的外在形式都已逐渐凋零，正所谓“皮之不存，毛将安附？”从理论上讲，在网络时代“析字”现象理当偃旗息鼓了，可为什么当前它却在网络上大行其道，甚至可以说比历史上任何时期的使用都更普遍、更频繁？这引发了我的思考。要回答这一问题，首先就要分析推动网络“析字”现象传播运行的有哪些重要因素。我们认为主要有内外两方面因素，一方面是使用者的使用心理，可称为内因；另一方面是外部环境在“析字”现象传播过程中的推动作用，可称为外因。

(1) 網絡語境下“析字”現象泛化的內因

考察网民大量使用“析字”表意的用例，发现主要出于以下两种心理：从众心理、游戏心理

(2) 網絡語境下“析字”現象泛化的外因

外部环境对“析字”现象的推动作用，主要体现在以下两方面：网络传播的开放效应、网络自媒体的推动效应语言研究就是观察语言事实、分析语言事实、总结规律。以上是我们从历时和共时两个层面对网络语境下“析字”现象的思考和分析，抛砖引玉，不足之处敬请方家赐教。

8) 根据≪第45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数据整理，http://www.cac.gov.cn/2020-04/27/c_1589535470378587.htm

현대중국어 ‘VV看’의 주관화와 화용론적 분석

이운재*

<目 次>

1. 서론
2. ‘VV看’ 구성에 관한 분석
3. 어기조사 ‘看’의 주관화 분석
4. ‘VV看‘ 구성의 화용론적 분석
5.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 ‘VV看’은 동사를 중첩한 뒤 ‘看’을 연용해서 쓰는 구어체의 언어형식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看’은 더 이상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의존형태로서 문법기능을 하는 어기조사로 쓰여 ‘시도(尝试)’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에서 ‘VV看’의 예문을 살펴보자.

(1) 你穿穿看，一定很合适。
(2) 你先到别处找找看。

(1-2)에서처럼 ‘VV看’에서 어기조사 ‘看’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문법의미 외에 미완성의 상적 기능(aspectual function)도 가지고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고빈도 어휘 ‘看’이 자립성분인 타동사로부터 ‘VV看’ 형식에서 의존성분인 어기조사에 이르기까지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본 논의에서는 ‘VV看’ 형식에 들어가는 동사의 유형과 구문의 특징을 살펴본 후 동사 ‘看’이 어기조사로 탈범주화된 과정을 주관화 이론을 통해 논하기로 한다. 동사중첩 ‘VV’ 역시 상적 기능 외에 ‘시도’라는 문법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염두해서 ‘VV看’의 의미를 화용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게 된다.

2. ‘VV看’ 구성에 관한 분석

본 장에서는 ‘VV看’ 구성에 들어가는 동사와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현대중국어 ‘VV看’에서 V는 주로 단음절 동사와 소수의 쌍음절 동사가 들어가며, 후속성분으로 어기조사 ‘看’을 연용해서 ‘어떤 행위를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현대중국어 ‘VV看’에 들어가는 동사는 주로 아래의 단음절의 동작동사가 들어가며, 심리동사‘想’도 들어간다.

‘办，背，蹦，比，唱，查，穿，吹，打，戴，捣，动，读，对，翻，搞，干，开，画，晃，瞅，晃，拉，炼，记，讲，买，卖，摸，挪，评，跳，算，烧，说，睡，试，谈，搜，掏，剔，听，跑，骑，求，念，练，骑，瞧，笑，修，写，压，治，问，碰，推，想，学，寻，移，用，闻，摇，找，坐，走，

* 서울대학교

住，撞，装’

위의 동작동사 외에 소수의 쌍음절 동사로 ‘交换, 交涉, 商量, 解释, 分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심리동사, 판단동사, 존재동사, 방향동사, 능원동사는 들어갈 수 없다.

* 爱爱看，是是看，有有看，出出看，能能看

둘째, ‘VV看’ 형식에서 ‘VV’는 [+지속] 또는 [+반복], [+자주(自主)]의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다. ‘VV看’의 주어는 [+인간]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동작의 행위자에 속한다. ‘VV看’ 뒤에 목적어는 직접적으로 출현할 수 없고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3) A: 你的自行车真漂亮，好骑吗？
B: 还可以吧，你骑骑看。

위의 (3)에서 ‘骑骑看’의 목적어는 관념상 ‘自行车’이다. ‘VV看’ 형식에서 목적어는 직접 출현할 수 없는 대신 상하문의 언어 환경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셋째, ‘VV看’에서 어기조사 ‘看’은 ‘VV’의 의존형태소로 음성이 약화되며 현재나 미래에 ‘시도’하다는 미완성의 상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VV看’ 구성에 시태조사 ‘了，着，过’를 부가할 수 없다.

(4) *妈妈买的鸡蛋羹，我吃吃看了(*着/*过)。

넷째, ‘VV看’이 술어성분을 담당할 경우 주어는 1인칭 대사, 2인칭대사, 사람주어로 제약된다. 만일 3인칭대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6b)와 같이 3인칭대사 앞에 ‘让’과 같은 개사를 부가해야 한다.

(5) 我[你/小王]尝尝看。
(6) a. *他尝尝看。
b. 让他尝尝看。

3. 어기조사 ‘看’의 주관화 분석

현대중국어 ‘VV看’ 구성에서 ‘看’은 동사로부터 어기부사로 문법기능으로 탈범주화된 언어형태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看’은 독립적인 어휘 의미를 가진 자립형태소에서 의존형태소로 변화한 것으로 ‘시도’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기능을 한다. 문법화란 ‘어휘 의미의 형태소가 문법 의미의 변화하는 것, 자립적 기능이 의존적 기능의 문법범주로 변화하는 것’ 등을 말한다. 최근의 문법화는 통시론적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과정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문법화에서 과정성은 공시적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1] 본장에서는 타동사 ‘看’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자립성분으로부터 의존성분인 어기조사로 쓰이게 되었는지를 Traugott(1995)와 Langacker(1999)의 주관화 개념을 토대로 논하기로 한다.

1) 윤명상(2002:6).

3.1 Traougott의 주관화

이 소절에서는 Traugott(1995)의 주관화 개념을 토대로 현대중국어 'VV看'에 쓰이는 어기조사 '看'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주관화(subjectification)란 언어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 언어형태의 의미가 변화할 때 덜 주관적 의미에서 더 주관적 의미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Traugott(1995:31-54)의 주관화 개념에서는 언어형태가 명제 기능에서 담화 기능으로의 변화,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의 변화, 비인식양태에서 인식양태로의 변화, 비문장주어에서 화자주어로의 변화, 완전 자유 형식에서 의존형식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상술한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변화는 함께 출현할 수도 있다. 이 소절에서는 'VV看'의 주관화를 몇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VV看'에서 '看'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적 행위라는 명제기능에서 어기조사 '看'으로 변천한 것은 담화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다. '看'의 최초의미인 '멀리서 바라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반면에, 'VV看'에서 어기조사 '看'은 주관성이 강화된다. 어기조사 '看'의 주관성의 강화는 텍스트 맥락과 의미적 결속성을 이루면서 목적달성을 의한 화자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2)]

둘째, 'VV看'에서 어기조사 '看'은 행위양태에 속한다. 동사 '看'은 문법화 과정에서 인식양태와 행위양태로 분화하는데, 'VV看'에서 '看'은 행위양태에 해당한다.[3)]

셋째, 'VV看'에서 화자주어 '我"는 문장에 직접 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출현해서 언어 환경에서 암시되는 경우도 있다.

(7) 我一直住在这里，这次让我到莫斯科去住住看。
(8) 你可以到服务台查查看，有没有你的信件。

화자주어 '我'는 '我先查查看'처럼 문장에 직접 출현하기도 하지만, (7)처럼 사동을 나타내는 개사와 함께 출현하거나 (8)처럼 문장에 출현하지 않고 문장 밖에서 시행을 하도록 명령, 청유를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VV看'에서 'VV'와 어기조사 '看' 간에는 교착관계를 이룬다.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VV看', 'V一V看' 외에 'VVO看'의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에 'VV'와 '看' 간에 완전한 교착관계를 이룬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서 'VV看'의 출현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착관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동사는 반드시 중첩 형식이어야 하고 어기조사 '看'을 부가하면서 동사중첩에서 모호했던 '시도' 의미가 분명해진다.

3.2 Langacker의 주관화

Langacker(1999:297)에 의하면, 주관화는 어떤 실체에 대한 상대적인 객관적 해석에서 더 주관적 해석으로 변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관찰 범위가 달라지면서 언어의 주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4)] 동사 '看'의 원의미는『설문해자』에 의하면 '멀리서 바라보다'를 뜻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관찰자는 무대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看'은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 Langacker(1999:298)의 주관화 모형은 '초기 구성(initial configuration', '주의(attention)', '주관화(sujectification)'의 3단계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Langacker의 주관화 모형을 토대로 'VV看' 구성에서 '看'이 동사로부터 어기조사의 문법기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3단계로 구성하여 '看'의 주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楚艳芳(2014)가 제시한 '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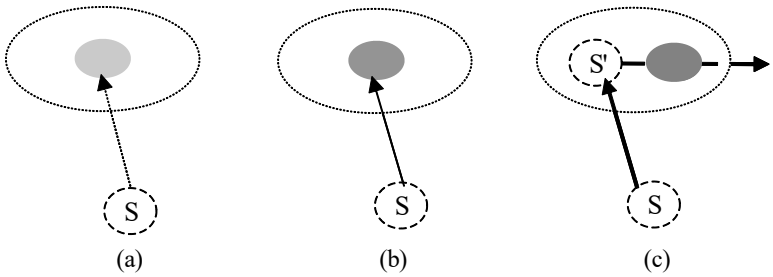
2) 'VV看'의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는 4장 화용론적 분석에서 추후 좀 더 자세하게 논의된다.
3) 'VV看'의 양태 의미에 관해서는 추후 다루고자 한다.
4) 김두식, 나익주 역(2010:116-117)

'시도' 의미로 문법화한 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의미변천 : 1단계(사물을 보다) → 2단계(관찰하다) → 3단계(어기조사) [+시각성] ------- ------- [+동작성] ---- [+인식상 행위]

〈도표〉

일반적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원의미가 보존된 상황, 2단계는 원의미 또는 일부의 원의미가 암시된 다른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 3단계는 반복적인 암시적 의미가 고정된 상황으로 구분된다. 문법화 과정에서 기존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층위화(layering)'이라고 부른다. <도표>에서 점선이 겹쳐진 부분이 '看'의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층위화 단계이다. 위의 <도표>는 'VV看'에서 '看'이 타동사로부터 어기조사로 탈범주화되는 문법화 과정을 3단계로 구성한 것이다.『설문해자』에서 풀이한 동사 '看'의 '멀리서 바라보다(瞻视)'라는 의미는 1단계로 관찰자(또는 화자)가 의도를 갖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2단계를 거쳐 허화되면서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는 상황으로 발전해서 덜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3단계에서는 동사 '看'은 탈문법화되어 실제적 행위가 아닌 [+인식상 행위]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의 문법기능을 획득하게 되며 주관성 강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3단계에 처해있는 어기조사 '看'은 'VV看'을 구성하여 화자의 태도, 의지가 반영되면서 주관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고빈도 어휘 '看'의 문법화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看'이 어기조사로 문법성을 획득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반증해준다. 아래서는Langacker(19997)의 주관화이론을 토대로 '看'이 주관화되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어기조사 '看'의 주관화 과정

위에서 (a), (b), (c)는 각각 <도표>에서 제시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위쪽의 큰 원은 무대를 나타내며, 그 안에 담겨진 유색의 작은 원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 아래의 작은 원에 있는 S는 개념화자를 나타내며 S'는 개념화자가 어떤 행위를 시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자를 나타낸다. 행위자는 개념화자일 수도 있고 2인칭대사, 사람명사 등이 올 수 있다. (c)에서 오른쪽을 향한 화살표는 개념화자가 행위자에게 작용하는 힘이 대상에 미쳐 동작을 행위를 유발해서 목적달성을 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위의 '看'의 주관화 과정에서 (c)는 최대로 주관화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주관성(subjectivity)은 화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 태도,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담화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가리키는데,[5] 담화기능과 연결 속에서 화자의 태도, 감정을 드러낸다.

4. ‘VV看’ 구성의 화용론적 분석

이 소절에서는 Grice(1975)에서 제시한 대화 협력 원리와 언어학자들이 제시한 공손성의 원리를 토대로 ‘VV看’의 화용적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6] Grice(1975)는 대화참여자들이 일상 대화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협력적 행위에 관한 일반 원칙인 ‘협력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를 제시하였다. 협력 원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협력적인 언어 사용을 위한 기본이 된다. 즉,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화자는 쉽고 정확하게 적절한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고 청자는 들은 내용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다음은 Gric(1975)가 제시한 협력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이다.

(9) 협력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10) 대화의 격률(The Maxims of Conversation)

1)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3)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ation)
4)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9)에서 협력의 원리는 참여한 대화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대화참여자들은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공헌해야 한다는 말이다. Grice(1975)는 협력의 원리에 대해 하위 원칙인 대화격률을 제시한다. 질의 격률은 대화에 공헌하도록 화자가 사실로 여기는 충분한 증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의 격률은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의 양이 대화의 목적을 위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필요한 정보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관련성은 제공되는 정보가 대화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말하며, 태도의 격률은 제공되는 정보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격률은 대화참여자가 최고로 협력적, 이성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양의 격률을 지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11) a. John has five children.
+> John has only five children.
b. The desk is brown.
+> The desk is only brown.

(11a)에서 요구되는 만큼 말하라는 양의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3명이나 10명의 자녀가 아닌 오직 5명만을 함축하고, (11b)에서 화자가 언급한 책상은 다른 색깔이 아닌 오직 갈색이라는 점을 함축하기 때문에 양의 격률을 준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함축은 문장의 명제 내용에 따라 (12)처럼 ‘only’를 첨가함으로써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

(12) a. John has only five children.
b. The desk is only brown.

다음에서 ‘VV’와 ‘VV看’이 시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양의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5) Lyons(1977:739).
6) 공손성의 원리는 지면의 제한으로 본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3) a. 今晚的月色很美，咱们到校园里走走！
b. 今晚的月色很美，咱们到校园里走走看！

(13)에서 a와 b에서 ‘VV看’과 ‘VV’의 기본적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건의를 하는 내용이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중점을 다르다. 동사중첩 ‘VV’는 어떤 행위를 시도함을 나타내는 외에도 수의(随意)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어기조사 ‘看’ 첨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의지를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중국어 ‘VV看’에서 ‘看’은 ‘시험 삼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어휘의미가 아니라 문법기능을 담당하는 어기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고빈도 어휘 ‘看’이 동사에서 어기조사로 변천하는 과정을 주관화이론을 통해 논의하였다. 타동사 ‘看’이 어기조사로 변천하면서 통사적, 의미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본고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어기조사 ‘看’과 ‘VV看’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raugott(1995)의 주관화이론에서는 명제기능에서 담화기능으로 변화, 비인식양태에서 인식양태로의 변화, 비문장주어에서 화자주어로의 변화, 자유 형태에서 의존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어기조사 ‘看’의 주관성을 살펴보았다. Langacker(1999)의 주관화이론에서는 ‘看’의 문법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동사에서 어기조사로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영상도식을 통해 ‘看’이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화용론적 관점에서도 ‘VV看’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보적 논의에 의하면 ‘看’을 첨가함으로써 공손의 원리를 지키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반영해서 담화기능을 강화하는 화용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윤명상(2002),「동사 ‘보다’의 문법화」,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보(2010,「‘아/어 보다’의 담화기능에 관한 연구」,『인문사회21』제10권 1호, pp. 703-715.
楚艳芳(2014),「汉语尝试态助词‘看’产生过程」,『宁夏大学学报』第3期 pp. 22-28.
孙淑娟·黄国华(2007),「尝试态组词“看”的语用效果分析」,『南昌工程学院学报』第2期 pp. 28-32.
张爱玲(2004),「体态标记词“看”字探讨」,『长春师范学院学报』第2期 pp. 67-69.
Grice(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1975) pp. 41-58.
Langacker(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New Yrok: Mouton de Gruyter.
Lyons(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In D. Stein and S. Wright,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Linguistics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표준중국어 관계절 내 차등 비교 범주의 전치사 좌초 회피 현상

정혜인*

<目 次>

1. 서론
2. 차등 비교 표지 '比'의 논항의 관계화
3. 차등 비교범주 '比' 논항의 관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결론

1. 서론

비교범주는 언어에서 중요한 범주로 언어 사용자는 종종 다른 대상의 속성과의 정도성 차이라는 비교의 방법을 통해 특정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인식한다. 세계 언어에는 각기 저마다의 표현 형태가 존재하는데 비교범주의 표현 양상은 언어유형학적 보편성을 지니는 범주이다. 이에 중국어의 비교 구문에 관한 연구는 그간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 범주에서 비교표지의 목적어 즉 비교기준이 관계화 되는 경우,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표준중국어에서 차등 비교표지의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1) a. *你高的那个人 b. 你比他高的那个人 c. *你比高的那个人
(2) a. *你高很多的那个人 b. 你比他高很多的那个人 c. *你比高很多的那个
(3) a. *我高十公分的那个人 b. 我比他高十公分的那个人 c. *我比高十公分的那个人

a.에 속하는 예문은 '比+PRO(대사)'라는 전치사구가 삭제된 경우이다. b.는 '比+PRO'라는 전치사구가 보류된 경우이며(즉 '比'의 본래 목적어 위치에 대사를 첨가한 상황) c.는 PRO가 생략되어 비교표지 '比'만 홀로 남은 경우이다.

위는 전치사 좌초((preposition – stranding) [1] 여부와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표준 중국어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화 되는 상황에서 전치사 좌초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黄正德(1988), 郭锐(2009))

한편 a.에서와 같이 관계절에서 '전치사+PRO'가 삭제되는 현상 그리고 b에서와 같이 '전치사+PRO'가 보류되는 현상은 관계절 등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NP가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전치사가 홀로 남는 현상, 다시 말해 전치사 좌초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표준중국어의 관계절에서 전치사 좌초(prepositional stranding)를 허용하지 않는데 전치사 좌초를 피하기

* 원광대학교

1) 전치사 좌초(preposition stranding)란, 전치사구 내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동할 때 전치사가 목적어에 붙어 함께 이동하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영어에서는 wh-문형(Whati are you looking at[ ]i), 관계대명사 문형(This is the pen which[ ]i I write with [ ]i) 등에서 발생한다. Merchant(2001)에 의하면, 세계 언어는 전치사 좌초 언어, 비(非)전치사 좌초 언어로 구분된다. Merchant는 의문문(interrogative), 화제화(topicalization), 관계화(relativization), 비교구문(comparative) 등의 wh-이동의 상황에서 DP(정관사+명사구)는 이와 연합되어 있던 전치사와 분리되든지 아니면 함께 쓰이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위해 어떤 전치사는 전치사구를 보류함으로써 전치사 좌초를 회피하며, 어떤 전치사는 전치사구 전체를 삭제한다. 또 어떤 전치사는 두 전략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치사의 좌초를 회피한다.

앞의 연구에서 중국어의 주요 전치사의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차등 비교표지 '比'의 논항이 관계화 된 경우는 논외로 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비교범주 중 차등 비교 표지 '比'가 사용된 차등 비교 범주에서 '比'의 논항이 관계화 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차등 비교 표지 '比'의 논항의 관계화

2.1. 표준중국어의 관계절에서의 전치사 좌초 회피 현상

표준중국어에서 아래와 같은 전치사 좌초(preposition - stranding) 회피 현상이 존재한다.

①我向那个人道歉 → *我向[ ]道歉的那个人
a. *我道歉的那个人 b. 我向他道歉的那个人
②你从上海站上车 → *你从[ ]上车的上海站
a. 你从那儿上车的上海站 b.*你从那儿上车的上海站

①의 '*我向[ ]道歉的那个人'과 ②의 '*你从[ ]上车的上海站'과 같은 형태는 비문법적이다. 이는 표준중국어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화 될 경우 전치사는 홀로 남겨질 수 없는 현상, 즉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①에서는 관계절 내 전치사 좌초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①b)我向他道歉的那个人과 같이 전치사 '向'뒤에 대사 '他'를 추가하는 전략, 즉 전치사구 보류 전략을 통해 전치사 좌초를 피하였다. ②는 관계절 내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으로서 ②a)你上车的上海站에서와 같이 전치사구 '[从+PRO]'을 삭제하는 전치사구 삭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전치사 좌초를 피하였다.

정혜인(2015), (2019))는 표준중국어에서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郭锐(2009)의 연구에 입각하여, 표준중국어 관계절에서의 전치사구 삭제와 보류 현상 및 중국 여러 방언의 관계절에서의 전치사구 삭제와 보류 현상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때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은 모든 전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표준중국어와 중국 여러 방언에서 전치사의 논항이 관계화 되었을 때 전치사구(전치사+PRO)의 삭제 또는 보류의 선택 양상은 전치사의 어법의미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2] 표준중국어 관계절에 쓰인 전치사의 좌초 회피 전략 양상을 귀납하여 전치사의 어법의미와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 사이의 다양한 대응 관계를 다섯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유형I(전치사구 삭제 경향이 높음)에서 유형V(전치사구 보류 경향이 높음)에 이르는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의 유표성 위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전치사의 어법 의미 자체의 유표성 위계(hierarchy of markedness)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각 유형에 속하는 전치사의 어법 의미의 위계화 차이를 Kennan & Comrie(1977: 66)의 관계화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구 관계화 접근성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3] 내에서 사격(oblique: OBL)

2) 정혜인(2015, 2019)에서 고찰된 전치사는 다음과 같다. 向1<동작의 방향>, 从1<시간의 출발점, 공간의 출발점>, 到1<시간의 도달점, 공간의 도달점>, 在<동작의 발생 시간, 동작의 발생 장소>, 用<동작의 수단>, 由<동작의 구성>, 凭<동작의 기준>, 给<동작의 접수자>, 对1<동작의 관련자>, 向2<동작의 대상>, 跟1<동작의 대상>, 跟2<동작의 수반자>, 从2<동작의 출발점>, 对2<동작의 대상>, 为<동작의 수혜자, 목적>, 照<동작의 의거>.

3) SU > DO > IO > OBL > GEN > OCOMP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사격 소유격 비교의 목적어
위는 언어유형학적으로 보편성을 띠는 명사구 관계화 접근성 위계로, 왼쪽으로 향할수록 관계화 되기 쉬워진다.

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blique (유형I: 시공간의 이동성 > 유형II: 시공간의 범위 > 유형III: 동작이 사용되는 방법 또는 요소/ 동작의 수용자/ 동작의 관련 대상 > 유형IV: 동작의 방향성 / 동작의 대상 또는 수반 대상 > 유형V: 동작이 의거하는 대상)** < genitive < Object of Comparison

위계1. 사격을 세분화한 명사구 관계화 접근성 위계

다음에서는 먼저 차등 비교표지(=차등 기준표지)의 목적어(논항)가 관계화 될 때 비교표지의 좌초 여부를 살피고 관계절 접근성 위계 내에서의 차등 비교의 의미역은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2. 차등 비교 표지 '比'의 논항의 관계화 시 '比'의 좌초 여부

(1)-(6)에서 c.에 속하는 예문을 통해 '比'는 전치사 좌초가 허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 a. *你漂亮的那个女人 b. 你比她漂亮的那个女人 c. *你比漂亮的那个女人
(5) a. *你的书多的那位老师 b. 你的书比他多的那位老师 c. *你的书比多的那位老师
(6) a. *你的工作经验丰富的那个人 b. 你的工作经验比他丰富的那个人 c. *你的工作经验比丰富的那个人

표준중국어에서 차등 비교표지 '比'의 목적어가 관계화 될 경우 사격(oblique)의 의미역과 마찬가지로 차등 비교의 의미역 역시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계절 접근성 위계 내에서 차등 비교의 의미역은 다른 의미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관계화가 쉽게 혹은 어렵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2.3. 관계화 접근성 위계 내 차등 비교표지의 의미역 위치

(1)-(6) 중 a에 속하는 예문을 통해 관계절에서 '比'는 전치사구 삭제 전략이 허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1)-(6) 중 b에 속하는 예문을 통해 차등 비교표지(=기준표지)의 논항이 관계화될 때는 반드시 전치사구 보류 전략이 사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정혜인(2015)에서 제안한 전치사 좌초 회피 전략 유형 중, 유형V: 전치사구 삭제 불가능 & 전치사구 보류만 가능한 전략, 즉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유표성이 가장 높은 전략과 등급성이 같은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유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할까?

许余龙(2012)은 아래와 같이 관계화 된 소유자를 GEN_{suj}의 경우와 GEN_{obj}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张三的车借给了李四。→ GEN_{suj} : ①他(的)车借给了李四的那个人 / ②车借给了李四的那个人
李四借了张三的车。→ GEN_{obj} : ①李四借了他(的)车的那个人 / ②*李四借了车的那个人

위와 같은 현상에 의거해 许余龙(2012)은 Kennan & Comrie(1977: 66)를 바탕으로 SU > GEN_{suj} > DO > IO > OBL > GEN_{obj} > OCOMP의 순서로 표준중국어에서의 관계화 접근성 위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위의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차등 비교의 어법의미는 전치사구 삭제전략(=대명사 삭제 전략)은 허용하지 않고 전치사구 보류 전략(=대명사 보류 전략)만 가능하므로, 차등 비교는 대명사 삭제 전략은 불허용하고 대명사 보류 전략만 허용하는 GEN_{obj}과도 동급인 위계라고 가정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차등 비교표지의 논항의 경우, 위 두 부류와는 달리 차등 비교문의 기본절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관계화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 관계화될 경우 사용하는 전략의 측면에서만 볼 경우에는 사격에서 가장 유표성이 높은 유형, 그리고 GEN_{obj}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외에 차등 비교 범주의 내부적으로 관계화를 제약하는 개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차등 비교 범주의 관계화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차등 비교범주 '比' 논항의 관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

(7) a. 这件衣服比那件衣服贵
b. *这件衣服比它贵的那件衣服
(8) a. 这座楼比那座楼高
b. *这座楼比它高的那座楼
(9) a. 这里的房子比上海贵
b. *这里的房子比那儿贵的上海
(10) a. 这个地方比那个地方漂亮
b. *这个地方比那儿漂亮的那个地方
(11) a. 这次比上次多来了两个人
b. *这次比那个时候多来了两个人的上次。

위의 예문 중 (7)a.는 성립이 되는 차등 비교 구문이다. 그러나 차등 비교표지의 목적어 '那件衣服'가 (7)b.와 같이 관계화 될 경우는 비문이 된다. (8)a. 또한 적법한 차등 비교 구문이지만, (8)b.와 같이 차등 비교표지의 논항 '那座楼'가 관계화 될 경우 적합하지 않게 된다. (9)a, (10)a, (11)a 역시 가능한 표현이나 (9)b, (10)b, (11)b는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 된다.

(7)b, (8)b, (9)b는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이 무정성(inanimate)의 특징을 지녔다. (10)b.는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이 장소인 경우이며, (11)b는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이 시간이 경우이다. 이와 같이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이 무정의 특징을 지니거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차등 비교기준의 목적어는 관계화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12) a. 你比那个人高
b. 你比他高的那个人
(13) a. 你比那个学生聪明
b. 你比他聪明的那个学生

(12)과 (13)은 (7)-(11)의 구조가 같은 경우이다. 다만 다른 점은 비교주체와 비교기준 모두 높은 정도의 유정성(animate) 특징을 지니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우 (12)a의 비교기준의 목적어 '那个人'이 (12)b와 같이 관계화 되는 경우, '那个人'과 공지시 관계((coreference relation)를 지니는 '他'를 차등 비교표지 뒤에 부가함으로써, 즉 전치사구를 보류함으로써 이 관계화는 무리 없이 성립하게 된다. (13)a도 비교기준의 목적어 '那个学生'이 관계화 될 때 (13)b와 같이 '那个学生'과 공지시 관계에 있는 대명사 '他'가 부가됨으로, 즉 전치사구 보류 전략이 사용됨으로 인해 적법한 문장이 된다. (12), (13)과 (7)-(11)에서 드러나는 관

계화의 적법성 차이는 구조적 차이가 아닌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의 유정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에서 대조적으로 보이는 전치사구 보류 전략 허용 양상을 통해, 유정성의 속성에 대한 차등 비교 범주는 무정성의 속성에 대한 차등 비교 범주에 비해 더 넓은 분포적(distributional) 특징[4]을 지닌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교주체와 비교기준(=比의 의미역)의 유정성(animacy)이 높을수록 유정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전치사구 보류 전략을 통해 관계화될 수 있는 경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2. 비교주체의 선택이 관계화에 미치는 요인

(14) a. 我比他高的那个人 (4)
b. 你比他高的那个人 (4)
c. 他比她高的那个人 (2)
(15) a. 这个女人比他高的那个人 (2)
b. 女人比他高的那个人 (1)
(16) a. 这个人比他高的那个人 (2)
b. 保罗比他高的那个人 (2)

(14)에서는 비교주체에 각기 다른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다. (14)a와 (14)b는 5점 만점에서 4점 수준[5] 의 수용도를 보인 반면, (14)c는 2점 수준의 수용도를 보였다. 비교주체가 1인칭인 경우와 2인칭인 경우 관계화가 상대적으로 쉽게 되지만, 비교주체가 3인칭이 경우에는 관계화가 상대적으로 쉽게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교주체가 3인칭이 될 경우 뒤의 관계화된 비교기준을 공지시할 3인칭 대명사와 공교롭게도 같은 형식이 되어 화자나 청자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15)에서는 (15)b와 같이 비교주체에 유정성을 지닌 사람명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점 수준의 낮은 수용도를 보인 반면 (15)a와 같이 지시사와 함께 사용된 사람명사인 경우에는 2점 수준으로 상대적인 수용도가 올라갔다. 이를 통해 비교주체가 유정성을 지녔을지라도 맨명사(bare noun)에 비해 지시사와 함께 쓰인 사람 명사의 수용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16)a는 비교주체로 지시사+사람명사가 함께 쓰였고, (16)b은 비교주체에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수용도는 2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나타난 비교주체의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관계화 접근성 정도를 아래와 같이 위계화할 수 있다.

1인칭 사람 대명사 / 2인칭 사람 대명사 > / 지시사+ 사람 명사 / 3인칭 사람 대명사 /
사람 고유 명사 > 사람 일반 명사

위계2. 비교주체의 특성에 따른 관계화 접근성 정도

3.3. 비교기준의 선택이 관계화에 미치는 요인

앞에서 관계화가 되기 위해 비교주체와 비교기준이 갖는 제약을 살펴보았다. 이제 관계화를 충족시키기

4) Croft(2003: 87-121)에서 유표성(markedness)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기준, 행동적 기준, 빈도성 기준을 제안했다. 이중 행동적 기준(behavioral)은 굴절 기준과 분포 기준으로 나뉘는데, 분포(distributional) 기준이란 통사적 또는 음운론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의 수는 유표성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차등 비교범주에서 비교 표지의 유정성은 유표성과도 관련을 맺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규명 가능할 것이다.

5) 3.2절과 3.3절에 사용된 예문은 총 세 명의 원어민 표준중국어 구사자에게 수용도 조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수용도는 총 0-5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5는 수용 가능, 4는 수용도가 중간 정도, 3은 수용도가 중간과 낮음의 사이, 2는 수용도가 낮음, 1은 수용도가 매우 낮음, 0은 수용 불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위해 비교기준에 부과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17) a. 你比他高的那个学生 (4)
b. 你比他高的学生 (1)
c. 你比他高的保罗 (2)
(18) 你比他高的你弟弟 (0)

(17)a에서는 비교기준으로 '지시사+사람명사', (17)b에서는 사람명사만 사용되었다. 수용도 조사 결과 전자는 4점 수준으로 허용되었고 후자는 1점 수준으로 허용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비교기준이 지시사가 있는 사람명사일 경우 일반 사람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화 되기가 쉬워짐을 의미한다. (17)c는 비교기준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사용되었는데 2점 수준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은 비교기준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였지만 소유 관계가 포함된 사람 명사이다. 조사 결과 이러한 문장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你弟弟比他高的那个人'[6]에서와 같이 소유 관계가 포함된 사람 명사가 비교주체에 사용된 경우에는 허용도가 아주 약간 올라감(1점)으로 나타났다. 비교기준은 앞의 PRO대명사와 공 지시 관계이므로 소유 관계와 같이 다소 복잡한 구조가 될 경우 앞의 대명사와 대응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드러난 상대적인 관계를 아래와 같은 관계화 접근성 위계로 나타낼 수 있다.

지시사 + 사람 명사 > 사람 고유 명사 > 사람 일반 명사
위계3. 비교기준의 특성에 따른 관계화 접근성 정도

차등 비교주체의 특성에 따른 관계화 접근성 정도와 차등 비교기준의 특성에 따른 관계화 접근성 정도에 의거하여 차등 비교범주의 관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1인칭 사람 대명사 / 2인칭 사람 대명사 > 지시사+사람 명사 / 3인칭 사람 대명사 > 사람 고유 명사 > 사람 일반 명사
위계4. 비교 주체, 비교 기준에 의거한 차등 비교범주의 관계화 접근성 정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등 비교표지 '比'의 논항이 관계화 되었을 때, '比'의 좌초 여부를 알아보고 차등 비교표지의 관계화 접근성 위계를 알아보았다. 차등 비교표지의 논항이 관계화될 때 차등 비교표지 '比'는 좌초되지 않았고, 좌초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치사구 보류 전략(=대명사 보류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관계화 접근성 위계 내에서 차등 비교의 어법의미는 전치사구 삭제전략(=대명사 삭제 전략)은 허용하지 않고 전치사구 보류 전략(=대명사 보류 전략)만 가능하므로, 사격(Oblique)의 가장 오른쪽 위계 및 GEN_{obj}과 같은 위계에 자리함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차등 비교 범주의 관계화를 제한하는 내부 요인에 대해

6) 한편, '你的书比他多的那个人/ 你的工作经验比他丰富的那个人'과 같은 경우는 3.5점 수준으로 '你弟弟比他高的那个人'에 비해 허용 정도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你弟弟'는 '你'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출현한 대상인 반면 '你的书', '你的工作'에서 '书'나 '工作' 등은 앞의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된 관계이므로 이러한 종속관계는 '你弟弟'에 비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화되기 수월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기제가 작용함을 귀납할 수 있었다.

1인칭 사람 대명사 / 2인칭 사람 대명사 > 지시사 / 3인칭 사람 대명사 > 사람 고유 명사 > 사람 일반 명사

위계4. 비교 주체, 비교 기준에 의거한 차등 비교범주의 관계화 접근성 정도

위는 비교주체NP 혹은 비교기준NP가 오른쪽에 가까운 NP를 선택할수록 관계화가 어려워짐을 드러낸다.

위의 결과는 Dixon(1975:85)에서 유정성 위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된 '행위자 잠재성(potentiality of agency)'[7]의 일부 위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7) (Dixon1975: 85)
1st person pronoun > 2nd person pronoun > Demonstrative > 3rd person pronoun > Proper nouns > Human common nouns > Animate common nouns > Inanimate common noun (연재훈 1995: 215에서 재인용)

11月 21日(土) 09:00~10:30

중국어교육(1)

❖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이선희(사이버한국외대)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교수설계

김 웅(대구중) 대만해협 양안의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 비교 분석

송지현(안양대) 중국어 교육, '세 가지 백 개' 프로젝트

홍연옥(세종대) 한국어 동철동음 동사의 한중 신경망기계번역 고찰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교수설계

이선희*

<目 次>

1. 서론
2.이러닝교육설계
3.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해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개발
4. 결론

1. 서론

유네스코에서 2004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시하고 2013년 글로벌 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을 채택한 이래 세계는 교육혁신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였다. 많은 나라의 교육계가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교육을 받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기반을 둔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에듀테크의 발전을 무크와 같은 개방형 온라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학습자나 장애나 경제여건 등 여러 제약에 처한 학습자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런 개방형의 온라인교육과 함께 학교 교육도 여러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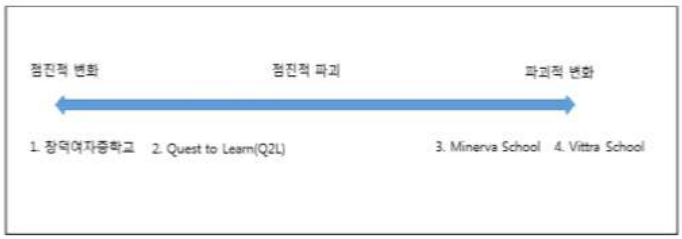


그림 1. 미래학교의 유형별 사례(이선희 2019)

교육의 혁신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파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설계와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미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선희 2019). 그러나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판데믹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대면형태의 교실 수업을 전면 중단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점진적 혁신'이라는 태도는 자의던 타의던 '점진적 파괴'단계로 들어서게 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의 교육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육자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수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 또 다른 각도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그간 인류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통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술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덕분에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현상황에서도 ZOOM, GOOGLE MEETS,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AMS와 같은 여러 웨비나 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러닝 형태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므로 안도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ZOOM FATIGUE라고 불리는 화상회의수업의 피로감을 생각해보면, 해당 과목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웨비나 형식의 수업에만 대부분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보인다. 웨비나형 수업의 피로감을 제시했던 연구자들은 적절한 온라인교육에서 적절한 거리감과 자연스러운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감과 자연스러운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그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비록 기존의 교실수업이 아닌, 온라인 상의 수업이지만 여전히 기존 교실수업에서 완전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답으로 출현했던 플립러닝에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완전학습'을 추구한다. 그러나 학습자들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성을 가진 수업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동시간 진행하는 화상회의식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선희(2020)은 온라인 교육에서도 플립러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용가능한 저작도구들을 설명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온라인교육에서의 교수설계 특징과 100%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립러닝 방법으로 마이크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2. 이러닝교육설계

1) 교육과정 설계

교수설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ADDIE는 70년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미군을 위한 강좌를 개발하기 위해 제시된 교수설계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교과 설계는 '분석-설계-개발-수행-평가'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최초에 제시되었던 각각의 단계는 선형적이었지만 최근 사용되는 ADDIE 모델은 평가의 내용이 분석과 설계에 재반영되는 순환형태로 진행 된다. Dick, Carey & Carey 의 ISD 모델은 기존 ADDIE의 분석이 그림과 같이 두 단계로 세분화 되었고[1], 총괄평가가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실행의 전 단계의 외부에 있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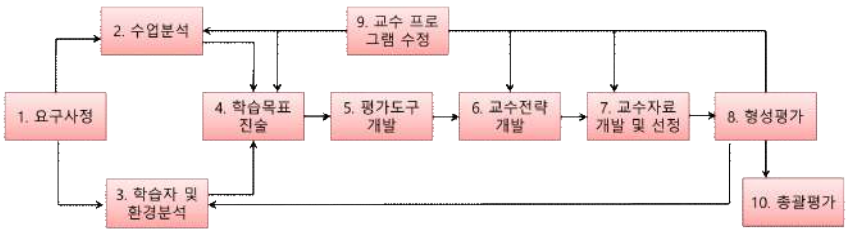


그림 2. 딕과 캐리 모형

이 모델은 대규모 강좌를 설계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모델이다. 대규모의 학습자가 수강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수업은 딕과 캐리의 모형에서 발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대규모 학습자가 수강하는 강좌 개발에 용이하기는 하나 각 단계가 선형적이라는 기존 ADDIE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1) 딕과 캐리의 모형 그림은 위키백과 재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B%94%95%EA%B3%BC_%EC%BA%90%EB%A6%AC_%EB%AA%A8%ED%98%95

2) 온라인교육과정 설계

원격교육이 최초로 시작 된 것부터 생각하면 온라인 교육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교육 설계, 개발 모형 연구는 9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온라인교육에 적합한 교수체체설계 모델을 NBISD(Network Based ISD)라고 한다. 기존의 ISD 모델과 같지만,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된다는 점이 다르며, 크게 '기획-분석-설계-개발-시험실시-평가'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ISD 모형과 진행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보면 학습자의 의견에 민첩하게(AGILE)하게 반응해야 학습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되었던 민첩함(AGILE)이라는 키워드는 현재 온라인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상의 수업을 설계할 때 '민첩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답부터 먼저 제시하자면, '설계의 순환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그 기술을 소비하고 자라온 학습자들의 반응속도도 빨라졌다. 2020년을 살아가는 학생들은 5G의 속도가 실현하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져 요구하거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빠르게 나오길 원한다. 따라서 교수설계모형 역시 순환적인 형태로 구상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가 실시간 반영되도록 진화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언제 의견을 제시하든 어떤 단계에서도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발된 온라인교육콘텐츠의 내용에도 실시간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선희(2019)가 제시한 무크형태의 외국어 수업을 위한 교수설계 모형은 '수행(운영)-평가'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다시 개발단계로 돌아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K-MOOC플랫폼을 위한 판매외국어 외국어 강좌설계 모형

그러나 이 수업모형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학습자로 하고 있어, 학습자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많은 대학의 중국어 교사가 특정대학의 특정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과는 다르다. 일반 대학의 중국어수업은 자신의 대학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분석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림3보다 더 순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의 학습트렌드를 살펴보면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 학습 민첩성(Learning Agility)가 중요한 요소로 지목된다. 'Transfer-Experience-Agility'의 첫글자를 따서 TEA라는 학습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모형에 접목시켜 과정을 설계한다면 순환적인 모형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간단히 그 구상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4와 같다. 이런 순환모형을 활용하여 온라인교육을 설계할 때 교육의 민첩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마이크로러닝콘텐츠 형태의 플립수업과 학습한 내용을 검증하는 매크로식 수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이선희2020). 지난 학기 대부분의 교강사가 진행한 화상수업형식의 온라인교육이 매크로식 수업에 해당한다면, 이에 선행하는 거꾸로학습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형태로 제작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정의와 발전과정 특징을 설명하고 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그림 4. 순환적인 온라인수업설계모형

3.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해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개발

1)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해

마이크로러닝은 학습 콘텐츠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개발한다. 콘텐츠의 길이를 짧게 하고 학습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한하면 이동 중이나 잠깐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학습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크로러닝의 시초는 1993년 북아이오와 대학의 맥그로우(LeRoy A. McGrew)교수가 60초 유기화학 수업이라는 형태로 제공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2006년 칸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칸이 사촌들을 위해 수학을 가르치는 10분 길이의 동영상을 찍어 유투브에 올리고 TED에 출현해 반향을 일으켜 무크의 붐을 생기게 한 이후 비약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 형태의 수업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비교적 능동적인 형태로 전체 커리큘럼 중 자신이 배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적응형학습(Adaptive learning)추세에 잘 맞는다. 또, 학습효과측면에서도 학습자에게 본시 학습 전후로 배워야 할 내용을 퀴즈, 동영상, 텍스트 등의 다양한 마이크로러닝 학습콘텐츠로 제공하면 학습자의 대뇌에 적절한 인지촉진작용(cognitive boost)이 주어져 접수된 정보를 파지(retention)할 수 있게 된다. 즉, 전체적인 학습내용 중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반복 습득하면 기억의 한계인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바로 적용하고 공유하는 학습활동을 추가한다면 학습이 습득으로 전환되는 학습전이(learning transfer)가 실현된다(Emma Weber, ADT 2019).

2)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개발[2)]

마이크로러닝을 실현하는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10분 이내로 제작된 지식전달형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짧은 형태의 동영상은 넘쳐나는 현실에서 더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발표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선희(2020)에서 이미 온라인학습에서 플립러닝을 진행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2) 지면의 한계로 교실 수업의 교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기획서, 스토리보드 등을 넣지 못하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아무리 짧은 콘텐츠여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내용은 무엇을 담는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짧은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하위 활동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명확하게 목적과 내용, 평가가 사전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

모션인포그래픽 등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 주변의 짧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동영상 위주의 일방향 시청 형태의 콘텐츠로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학습자 시청형 동영상 외에 학습자 참여형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익히 접해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수자 본인이 구글드라이브 등을 활용해 서버를 구축한 뒤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거나(lingua.co.kr), 구글·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설문 형태의 퀴즈를 생성하거나, 유투브를 통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QUIZLET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 게임을 실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비해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교안을 짜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가능은 하지만 번잡스럽다.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던가. 조금 더 단순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지속성이 있다. 여기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높인 플랫폼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절차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3) 유료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Gnowbe[3)]

Gnowbe는 싱가폴의 Awaken Group이 하버드 교육공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개발한 마이크로러닝플랫폼이다. Gnowbe 플랫폼은 싱가폴의 Temasek Polytechnic,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gee Ann Polytechnic 등이 사용하고 있다. 그노비는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이론[4)]이 추구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실현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료이다. 유료로 제공되는 MID(MID1과 MIDAS2)과정을 이수하면, 모바일과 마이크로러닝에 최적화된 구조의 설계 방법에 따라 강좌를 개발할 수 있다. 그노비 플랫폼은 웹API 방식으로 수업을 개발하며, 이렇게 개발된 수업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모바일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션으로 나뉘고 하나의 세션은 평가를 포함한 몇 개의 액션으로 구성이 된다. 프로그램-세션-액션의 관계가 분명해서 강좌를 설계하기 용이하다. 예를 들어 '中美关系：世界正在进入新冷战时代吗？'라는 뉴스를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의 뉴스에 대하여 '제목-단어-본문-정리'로 진행을

제목 익히기	단어 익히기

3) 참고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링크: https://be.gnowbe.com/cp8f2ze7qm3vzpod

4) '전환학습 이론 소개(Introducing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크리스틴 자비스(Christine Jarvis)), https://www.youtube.com/watch?v=liU1zsi3X8w

크게 잡은 뒤, 다시 세부적으로 제목에서 제목 소개, 핵심단어를 외부링크로 상세히 소개해주는 액션, 핵심단어와 관련된 영화 제목을 찾는 평가 액션 등으로 구상할 수 있다. 즉, 모든 세션은 그 안에서 세션에서 가르쳐야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학습목표제시-내용전개-평가가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그 과정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를 하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고, '알기.생각하기.적용하기.공유하기(Know.Think.Apply.Share)' 네 가지 활동이 적절한 비율과 순서로 반복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기억을 자극하는 활동적 회상이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참여해서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그룹에 공유하는 과정, 서로 피드백을 다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Eddapp, 'Our vision for a free online training platform'[5)]

EddApp은 기본적인 플랫폼의 사용에는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다.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고 거대한 공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유엔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e for all)'을 실현하고자, 유엔훈련조사기구(UNITAR)에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그노비와 마찬가지로 웹 API에서 개발을 하면, 학습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형태이나 자체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적어 동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가져와야한다. 그노비에는 없는 다양한 게미피케이션 기능이 있어 어학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만들기에 용이하다. 하나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는 '코스'로 명명이 되고, 하나의 '코스'에 몇 개의 레슨이 하위에 들어간다. 레슨은 다시 여러 개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점은 교육과정설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체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쉽게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무료프로그램이다 보니 구성이 단순하여 학습자가 보게 되는 인터페이스 심미성이 다소 떨어진다.

API에서 코스와 레슨을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간단하게 제공된다. 그 중 콘셉트와 게임에 해당하는 내용에 어학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단어를 주고 그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배열해 문장을 만들게 한다거나, 단어와 그림을 메모리 카드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한자와 병음을 각각 다른 카드로 제시하여 보여준 뒤 한꺼번에 뒷면으로 뒤집어 어떤 카드 두 개를 뒤집으면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와 병음이 나오는지 매칭하는 템플릿 등이다.

4. 결론

짧은 졸고에 설계 기획을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여, 플랫폼 소개 위주로 작성이 되었다.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든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러닝은 매크로학습의 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크로 학습한 내용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15%이하의 내용만 기억이 나고, 1년 뒤에는 10%만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때 기억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지효과를 일으킬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전체 매크로 수업에 맞추어 제작하고, 그 제작된 내용을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도록 한다면 적응형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줌 등의 버츄얼클래스룸을 사용하는 100% 온라인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학습 순서는 아래와 같다.

마이크로러닝 사전학습 〉 자가실습 〉 공유 〉 버츄얼클래스룸

5) 구글플레이에서 EdApp을 다운 받고, 'chinese world news', '조선왕조와 한양도성'를 검색하면 필자가 참고를 위해 개발한 코스를 수강할 수 있다.

플랫폼이 그노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실습과 공유를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버츄얼클래스룸에서는 피드백만 간단히 줄 수 있다. 만약 에드앱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셀카 촬영 등의 실습을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공유'부분은 다른 SNS를 활용해 진행하고 동료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록 교육환경은 바뀌었지만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만날 학습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배움'이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언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내용'이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설계자가 먼저 이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날 수 없어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향을 교실에서처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만해협 양안의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 비교 분석

김웅*

<目 次>

1. 들어가며
2. 운영방식 비교 분석
3. 평가문항 비교 분석
4. 나오며

1. 들어가며

십수 년째 지속되어 온 전 지구적 중국어 학습 열풍에 발맞추어 대만해협 양안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는 1990년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사 자격증(對外漢語教師資格證)'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영향력이 비교적 미미하였고, 2004년에 다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학습 능력 증서(漢語作為外語教學能力證書)'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정책 변화로 2년 만에 중단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 중국어 교사 증서(國際漢語教師證書)' 시험은 2014년 도입된 것으로 해외 공자아카데미 파견교사 선발에 활용되는 등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2006년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수학습 능력 인증시험(對外華語教學能力認證考試)'을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중국 대륙과 대만의 국제 중국어 교사 인증시험을 운영방식과 평가문항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두 가지 상이한 시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중등교사임용시험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국어 교사 선발·인증시험의 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운영방식 비교 분석

아래에서는 시험의 목적 및 응시자격, 평가 영역 및 시간, 시험 범위 등의 측면에서 '국제 중국어 교사 증서(國際漢語教師證書)' 시험과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수학습 능력 인증시험(對外華語教學能力認證考試)'의 운영방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하 편의상 전자를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 후자를 '화어교학능력 인증 시험'으로 약칭한다.

2.1 시험의 목적 및 응시자격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공자아카데미 본부(국가한판)에서 주관하며 각종 중국어 교육 기관의 교사 선발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편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대만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국가의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수학습 정책을 집행하고 교수자의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 대구중학교

직업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1])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표면적인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증서의 실제 활용 면에서는 대동소이하여, 둘 다 주로 해외 파견 중국어 교사를 선발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응시 자격은 두 시험 모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외국인의 경우 HSK 6급을 소지해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보통화 수준 시험 2급 갑 이상이고 1개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반면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일정 수준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거나 3년 이상의 교수학습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에서 주관하는 '해외 청년 기술 훈련반'의 중국어 관련 2년제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평가 영역 및 시간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과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모두 필기, 구술 두 영역으로 실시되는데 평가 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1. 국제한어교사증서와 화어교학능력인증의 평가 영역 및 시간

	영역	시간(분)	연간 실시 횟수	2019년 시험 날짜[2])	
국제한어교사증서	필기	155	2	1차	4/20(토)
				2차	9/21(토)
	구술	25	2	1차	7/6(토)-7(일), 7/13(토)-14(일)
				2차	12/14(토)-15(일), 12/21(토)-22(일)
화어교학능력인증	필기	340	1	7/27(토)	
	구술	60	1	7/28(일)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시간이 비교적 짧고 연간 2회 응시 가능한 반면,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시간이 길고 1년에 1회만 실시한다. 그리고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필기와 구술 사이에 약 3개월의 간격이 있지만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필기 다음 날 바로 구술을 실시한다.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 필기는 340분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문(100분), 중국어학(80분), 중국어문 교수학습(80분), 화교 사회와 문화(80분) 등 4개 과목이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고 치러진다. 과목별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3 시험 범위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중국어 교수학습 기초, 중국어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조직 및 교실 관리, 중국 문화 및 문화 간 소통, 직업윤리 및 전문성 신장 등 5개 분야에서 출제되며,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중국어문 교수학습, 중국어학, 화교 사회와 문화, 국문, 중국어 구어와 표현 등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1) "為執行國家對外華語教學政策, 提升對外華語教學人員之教學能力, 確立其專業地位, 特舉辦華語教學能力認證考試。" (≪2020年教育部對外華語教學能力認證考試簡章≫, 2020)

2)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은 2020년 COVID-19로 인하여 시험을 줄곧 연기하다가 10월 18일 온라인 시험의 형태로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나 비교를 위하여 두 시험 모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2019년 날짜를 싣는다.

있다. 둘 다 5개 분야로 나뉘지만 명칭이 다른 만큼 출제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중등교사임용시험의 1차 시험은 크게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뉘고 전공은 다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뉜다.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과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일반교육학을 거의 다루지 않으므로 각 과목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국제한어교사증서와 화어교학능력인증의 시험 과목(분야) 및 성격

	과목(분야)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국제한어교사증서	중국어 교수학습 기초	O	O
	중국어 교수학습 방법	O	X
	교수학습 조직 및 교실 관리	O	X
	중국 문화 및 문화 간 소통	O	O
	직업윤리 및 전문성 신장	O	O
화어교학능력인증	중국어문 교수학습	O	O
	중국어학	X	O
	화교 사회와 문화	O	O
	국문	O	O
	중국어 구어와 표현	X	O

국제한어교사증서는 대체로 교과교육학에 치중하는 반면, 화어교학능력인증은 교과내용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과목명에서 이미 드러나는데, 위 표에서는 '화교 사회와 문화'와 '국문'이 교과교육학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표시하였지만, 이것은 주관식의 극히 일부 문항에 국한된 것이고 사실상 교과내용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밖에 두 시험이 각각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먼저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 신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성적인 면을 평가하는 성격도 강하다. 그리고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과목으로 '화교 사회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구술시험 과목인 '중국어 구어와 표현' 또한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에는 없는 부분이다. 구술에서 교수학습 역량, 교실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출제분야가 필기와 겹치는 면이 있는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과는 달리,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은 오로지 발음의 정확성만을 평가한다.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이 내국인의 보통화 수준 시험 2급 갑 이상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겠다.

3. 평가문항 비교 분석

각 시험이 지닌 특성은 실제 평가문항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문항의 구성 및 배점, 필기와 구술의 문제형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1 문항 구성 및 배점[3)]

국제한어교사증서 필기시험은 1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당 배점은 1점이다. 시험 시간 155분 중 5분은 답안지 작성 시간을 배려한 것이므로 문항 당 풀이 시간은 1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표3은

3) 구술시험의 경우 문항 구성이 문제형식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필기시험의 문항 구성과 배점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문제지 각 부분별 내용 구성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3. 국제한어교사증서 필기시험 문제지의 내용 구성과 비율

부분	평가 내용	비율
기초지식	중국어 교수학습 기초	20%
응용능력	중국어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조직 및 교실 관리	50%
종합소양	중국 문화 및 문화 간 소통, 직업윤리 및 전문성 신장	30%

응용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 방법과 조직 및 교실 관리에 관한 문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표2에서 국제한어교사증서의 시험 범위가 교과교육학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화어교학능력인증 필기시험은 시험 요강에서 문항 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2020년 문제지의 경우 중국어문 교수학습 37문항, 중국어학 38문항, 화교 사회와 문화 33문항, 국문 27문항, 총 135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배점은 선택형은 모두 2점이지만 다른 유형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 아래 표4는 각 과목의 내용 구성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4. 화어교학능력인증 필기시험 문제지의 내용 구성과 비율

부분	평가 내용	비율
중국어문 교수학습	교수학습관, 전문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 교재 편찬 능력 등	25%
중국어학	언어유형, 음성, 문자, 형태, 문법, 의미, 화용 등에 관한 지식	25%
화교 사회와 문화	문화 간 소통, 사회문화와 언어 표현의 관계 등에 관한 지식	25%
국문	국문 지식, 응용능력, 작문능력	25%

문항 수는 각각 다르지만 4개 과목 모두 100점 만점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목별 풀이 시간은 국문이 100분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80분씩이다. 단답형, 작문 등 여러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항 당 풀이 시간이 대략 3분 내외라고 볼 수 있겠다.

3.2 필기시험의 문제 형식

국제한어교사증서 필기시험은 문제 형식이 선택형 중에서도 선다형 100%로 통일되어 있다. 주로 사지선다이며 오지선다, 육지선다를 일부 포함한다. 전형적인 문항 1개[4]를 아래에 예시로 든다.

> 張永强在國內時是一位嚴謹的語文老師。他剛到海外一所高中任教，校方讓他先觀摩一下當地漢語教師Mike的課，熟悉一下。張永强發現，Mike上課時穿得很隨意，而班裡的學生也很隨意，直呼老師的名字，回答問題、發表意見時隨心所欲，課堂上毫無秩序可言。

面對這種情況，如果你是張永强，請你給出最為合適的選擇:

A Mike太縱容學生，課堂秩序太混亂了。

B 當地學生都這麽活躍，自己只能接受這種風格。

C 當地的課堂風格可能就是這樣，自己要做好心理準備。

D 這些學生太調皮了，自己要小心，以後自己的班級可不能這麽亂。

4) ≪國際漢語教師證書考試眞題集≫(2018) 필기시험 문제지2 136번 문항(이하 예시 번역 생략).

이에 반해 화어교학능력인증 필기시험은 비교적 다양한 문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선다형, 진위형 등 선택형과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을 두루 포함하는데, 시험 요강에서는 국문을 선택형 30%~40%, 서답형 60%~70% 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과목은 거꾸로 선택형 60%~70%, 서답형 30%~40% 출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래는 서답형 가운데 서술형 문항[5]의 전형적인 예이다.

(下列問答題請在試卷上標明題號，以藍、黑色原子筆或鋼筆作答)
請以A.「不怕酸」、B.「酸不怕」、C.「怕不酸」為例，說明漢語語序、語法和詞類的特點。

다음은 고대중국어를 현대중국어로 옮기는 문제[6]이다.

(請將下列原文譯成語體文)
某生夜讀，往復數百遍，猶不熟。漏四下，誦聲益喧，意且達旦矣。有賊伏床下，躁甚，突起摑之曰：「爾非生鐵，何頑頓若此！余焉能待！」遽驅出門，鼓掌而去。(獨逸窩退士《笑笑錄・偷兒》)

3.3 구술시험의 문제 형식

앞서 2.3에서 언급하였듯 국제한어교사증서 구술시험은 주로 교수학습 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화어교학능력인증 구술시험은 응시자의 발음이 중국어 교수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표준적인지를 평가한다. 그렇다 보니 두 시험의 문제 형식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국제한어교사증서 구술시험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제시된 본문에 따라 간략한 교수학습 설계를 하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3분)
2. 1번의 교수학습 설계에 근거하여 수업 시연하기 (7분)
3. 두 가지 교수학습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중국어로 말하기 (7분)
4. 두 가지 교수학습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외국어로 말하기 (6분)

4번 문항은 특이하게도 외국어로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에서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처럼 학생의 모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화어교학능력인증 구술시험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단음절 글자 30개 읽기 (1분)
2. 이음절어 15개 읽기 (1분)
3. 문장 10개 읽기 (1분 30초)
4. 단문 읽기 (1분 30초)
5. 제시된 주제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말하기 (3분)

면접관이 응시자와 대면하는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과 달리, 화어교학능력인증 구술시험은 여러 응시자들이 같은 시험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녹음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지만 장비 테스트, 녹음 성공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이 있어 6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모든 응시자의 녹음이 완료되면 60분이 다 지나지 않더라도 시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2020년 중국어학 과목 서답형 1번 문항.
6) 2020년 국문 과목 서답형 3번 문항.

4. 나오며

본고는 중국 대륙의 국제한어교사증서 시험과 대만의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을 운영방식과 평가문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두 시험은 모두 해외 파견 중국어 교사를 선발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필기와 구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차이가 좀 더 두드러졌는데 주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한어교사증서는 연간 2회 응시 가능하지만 화어교학능력인증은 1년에 1회만 실시한다.

둘째, 국제한어교사증서는 교과교육학에 중점을 두고 화어교학능력인증은 교과내용학에 치중한다.

셋째, 화어교학능력인증 시험에는 화교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국제한어교사증서 필기시험은 선다형 100%이지만 화어교학능력인증은 다양한 형식을 포함한다.

다섯째, 국제한어교사증서는 표준 발음 공인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나 화어교학능력인증은 구술시험에서 발음을 직접 평가한다.

여섯째, 국제한어교사증서는 구술시험에서 외국어 능력을 직접 평가하나 화어교학능력인증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한다.

일곱째, 국제한어교사증서 구술시험은 교수학습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지만 화어교학능력인증은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여덟째, 국제한어교사증서 구술시험은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지만 화어교학능력인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1. 김미순, <중국어과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기출문제의 발문 설계에 관한 소고>, ≪외국어교육연구≫ 제31집, 2017.
2. 김웅, <중국, 일본, 태국의 대입 시험 제2외국어 과목 운영 현황과 시사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2집, 2019.
3. 김태은・이지은, <중국어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교직이수교과목의 효율적 연계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 제110집, 2018.
4. 박찬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국어Ⅰ'과 SAT의 'Chinese with Listening' 비교 — 체제와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23집, 2011.
5. 李和舫, <台灣華語教學能力認證的教師形象>, ≪德語區漢語教學協會年刊≫ 第29期, 2014.
6. 劉軍, <國際漢語教師資格考試的回顧與現狀>, ≪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第5期, 2015.
7. 穆亮亮, <新舊漢語教師資格考試比較研究>,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2019.
8. 溫薈如・崔秀蘭, <中美國際漢語教師評價體系比較研究>, ≪長春師範大學學報≫ 第5期, 2017.
9. 張晋軍・王宏蕊, <開發"對外漢語教學能力考試"的幾點建議>, ≪考試研究≫ 第4期, 2015.
10. 孔子學院總部/國家漢辦, ≪國際漢語教師證書考試大綱≫, 人民教育出版社, 2015.
11. 孔子學院總部/國家漢辦, ≪國際漢語教師證書考試眞題集≫, 人民教育出版社, 2018.
12. 教育部, ≪2020年教育部對外華語教學能力認證考試簡章≫, 2020.
https://depart.moe.edu.tw/ED2500/News.aspx?n=D6C383FCEBE5343C&sms=EA01A381F204F203

중국어 교육, ‘세 가지 백 개’ 프로젝트

송지현*

<目 次>

1. 들어가며
2.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문제와 방향
3. 중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4. 나오며

1. 들어가며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1]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공동목표를 말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크게 1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2]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과거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 환경도 급변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온라인을 이용해서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배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며, 공유 경제처럼 인터넷을 통해 ‘배움의 공유’가 실현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비대면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제간의 교감과 밀착지도 그리고 생생한 피드백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취약 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정부와 교육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자는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발전한 교육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문제와 방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박하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여유도 없고,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홈의 사용방법도 익숙하지 않아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도 있지만, 기존의 유투브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EBS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한 동영상 시청이 비대면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초등 기초 학력저하 현상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

* 안양대학교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한 상황이 지속되면 학력의 양극화 현상도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의 동영상 시청보다는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된 좋은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이 비상시국인 만큼 교육당국도 수업 시수 조정 등 유연한 대처와 함께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 전체적인 학력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학력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입시 준비와 사교육으로 독서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독서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학력저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독서 프로그램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블랜디드 수업 등 교육환경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어 교육과 학습도 비대면 교육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중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각 대학교 중국어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기초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어학, 문학, 문화, 사회 등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어학연수나 유학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중국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한 중국어를 느껴볼 기회가 줄어들었다. 중국에 가지 않고도 생생한 중국을 경험하려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중국 영화 한 두 편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중국 영화를 100편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영화를 통해서 듣고 말하는 회화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영화 속에 나오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등장 인물이 처한 언어환경 등 중국의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배울 수 있다. 물론 영화 100편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천 계획과 지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4년 동안 100편의 영화를 본다고 가정하면 1년에 25편의 영화를 봐야 한다. 한 달에 두 편 정도 보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1년이 52주니까 2주에 한 편씩 보면 1년에 26편 볼 수 있다.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올바른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영화 속에 지방 사투리가 등장하더라도 주로 보통화로 제작된 (또는 더빙 된) 영화, 고대 한어가 아닌 현대 한어로 이루어진 대화, 그리고 듣기 훈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막을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숨길 수도 있는 영상 파일 등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영화를 선정한다. 영화의 소재와 내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택해서 대사 활용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중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 오락성이 강한 코미디 영화, 홍콩 느와르, 무술 영화, 러브 스토리를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대만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도 익힐 수 있다. 장르와 주제별로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영화 주인공이나 감독도 영화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초급 학습자가 중국어로 된 영화를 보고 중국어를 배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 영화를 통해서 상식을 넓히고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기초적인 언어 훈련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중국어에 처음 입문하는 초급 학습자는 중국의 어린이들도 쉽게 익히고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兒歌)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학 4년 동안 100곡의 중국어 동요를 암기할 수 있다면 졸업할 때 적어도 400마디 중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동요는 짧고 간단한 내용이며 운율과 리듬감이 있어서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암기하기 수월하다. 중국의 동요는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동요도 역시 2주에 한 곡씩 반복 연습해서 1년에 25곡, 4년동안 100곡을

암기한다.

중국과 관련된 책을 1년에 100권 읽은 일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거창한 계획보다 누구나 부담 없이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주에 중국 영화 한 편 보는 일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2주에 동요 한 곡 암기하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국어로 된 수수께끼를 100개 풀고 암기하는 일을 추가한다.

수수께끼는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다. 대답은 질문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수께끼 속에 담긴 속뜻을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듣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해준다. 또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수수께끼도 있고, 해음이나 동음이의어 등 언어적인 특징을 활용한 수수께끼도 있어서 수수께끼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은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수수께끼 뿐 아니라 넌센스 퀴즈를 활용해도 된다. 처음에는 어린이들도 풀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4년 동안 수수께끼 100개를 풀고 암기한다면 중국어를 이해하고 중국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4. 나오며

대학 4년 동안 중국 영화 100편을 반복해서 보고, 중국 동요 100곡을 끊임없이 부르고 연습하면서, 중국어 수수께끼 100개를 암기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도 중국어 실력과 별개로 영화와 동요, 수수께끼 '세 가지 100개(三个一百)'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콘텐츠 속의 어휘와 문장 그리고 어법적인 지식, 문화적 배경을 익힐 수 있다. '세 가지 100개' 프로젝트가 반드시 영화와 동요, 수수께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 드라마와 유행가 100곡을 연습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부담 없이 해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해야 하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뒷받침 해준다면 프로젝트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화와 동요, 수수께끼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은 비대면 시대에 잘 맞는 교육 콘텐츠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동요는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암기하기 쉽고, 수수께끼는 짧고 간단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논리적인 사고와 언어유희 등 실제로 중국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세 가지를 이용한 중국어 교육과 학습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로 두고 시행한다면 중국어 교육과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송지현 (2004),「兒歌를 이용한 중국어 교육 및 효과」,『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_____ (2010),「兒歌를 활용한 유아기 어린이 중국어 교수-학습 방법 제안」,『중국어문학논집』제65호, 중국어문학연구회.

_____ (2012),「중국어 영상 콘텐츠의 클리셰(Cliche)와 중국어 교육: 영화와 TV드라마를 중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第77號, 중국어문학연구회.

_____ (2016),「燈謎(수수께끼)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중국어문학논집』9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_____ (2017),「중국어 문화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제언」,『中國學』第60輯, 대한중국학회.

_____ (2018),「놀이와 동요를 활용한 어린이 중국어 지도법」,『中國學』第65輯, 대한중국학회.

한국어 동철동음 동사의 한중 신경망기계번역 고찰

홍연옥*

<目 次>

1. 서론
2. 다의어의 개념과 동철동음 동사
3. 실험 설계 및 결과분석
4. 결론

1. 서론

현재 신경망 기계번역은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한중 기계번역은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신경망 기계번역의 번역 원리와 최적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오류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 언어 전문가들이 신경망 번역의 오류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며 번역을 수정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이러한 신경망 기계번역의 원리를 수정하고 최적화 하면서 보다 나은 번역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경망 기계 번역의 오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망 기계번역의 어휘학습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신경망 기계번역의 정확도는 번역시스템이 어휘관계를 잘 이해하였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어휘 관계에는 다의어, 동음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많은 어휘 관계 중에서 '다의어' 학습에 주목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세계 언어의 많은 동사들은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 때 다의적 의미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동사가 몇 가지 의미를 갖는지를 분류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사전 구조와 기술이 달라지게 되어 동사가 서로 다른 의미 범주에 귀속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의 기술의 방식에 따라서 동사 의미 분류 체계가 결정되고 이 분류 체계는 동사의 의미 기술 문제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에서도 다의 표상문제는 결국 의미 표상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각각의 맥락에 따른 신경망 기계번역의 단어 분석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하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맥락에 따른 의미 처리가 필요한 다의 동사의 기계 번역 정확률을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전의 규칙기반 기계번역(RBMT)이나 통계기반 기계번역(SMT)에 비해 맥락에 따른 의미 처리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신경망 기계번역의 중한 다의어 번역 능력은 어떠할지 알아보는 작업을 통해 현 신경망 기계번역의 발전과 한계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다의어의 개념과 동철동음 동사

다의(polysemy)는 오늘날 의미론, 어휘론, 사전학, 컴퓨터 언어학 등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 세종대학교

고 있는 주제이다. 한 단어가 한 가지 개념을 나타내는 단의어 외에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나타내는 다의어(homograph, ambiguous word)는 나타내는 의미의 관련성에 따라 중다의미어(polysemy)와 동철동음어(homonym)로 구분될 수 있다. 중다의미어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둘 이상의 의의를 지닌 것을 일컫는다.[1] 즉, 중다의미어는 두 개의 단어(word)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으며, 어원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집합이다. 이와 달리, 동철동음어는 어원이 전혀 다르면서도 철자와 발음이 동일하여 관련성이 없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즉, 둘 이상의 다른 단어(word)가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집합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동철동음 동사는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들이 개별 항목들로 표상되는 반면에 중다의미 동사는 핵심 의미를 중심으로 표상되어 있다. 또한 동철동음어는 관련성이 없는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 a. 가방이 꽉 차다. (더 들어 갈 수 없이 가득하다.)
包儿装得满满当当的
b. 공을 차다. (발로 세게 밀어내다.)
踢球
c. 명찰을 차다. (끈을 달아 몸의 한 부분에 걸고 늘어뜨리다.)
戴胸牌
d. 물이 차다. (물체의 온도가 낮다.)
水很凉

이상과 같이 동철동음어는 동일한 형태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어휘로 번역될 경우 각각 다른 어휘로 번역이 되어 진다. 또한 동철동음어는 (1)에서와 같이 언어전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언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단어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어원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단어이다. 또한 중다의미어와 달리 핵심적 의미(central meaning)와 주변적 의미(marginal meaning)를 구별할 수 없다.

이러한 동철동음어가 나타내는 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 단어가 포함된 맥락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휘의 다의성 해소를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언어처리 시스템이 상정되어 있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다의어의 처리과정을 통해서 상위수준의 정보가 하위수준의 단어처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다. (Tabossi and Zardon 1993)

신경망 번역 체계 이전의 통계 기반 번역은 단어와 단어가 모여 구성한 구(Phrase) 단위의 번역 방식이었다면, 신경망 번역 시스템은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 구성 요소들을 변환하면서 해석하고 번역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은 맥락에 의한 번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출력 언어로 번역해 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현재의 신경망 번역 시스템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다의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의미 또는 문법적으로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망 기계 번역에서 파파고, 구글, 바이두에서 다의어의 처리 능력을 분석하고,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기계번역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할 다의어는 번역에서 보다 의미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동철동음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문장의 번역에서 중요한

1) Lakoff (1987: 416)는 중다의미어를 “There is one lexical item with a family of related senses”라고 하였다. 또한, Tylor(1989: 99)는 “Association of two or more related senses with a single linguistic form”이라고 하였다. 즉, 중다의미어란 하나의 어휘소에 서로 연관있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sister’는 ‘자매’와 ‘수녀’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매’는 형제간의 우애를 ‘수녀’는 하느님과 신자들과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속성의 유사성 때문에 중다의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할을 하는 동사의 기계번역 결과를 대상으로 현 신경망 기계번역의 문맥에 따른 단어 선택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실험 설계 및 결과 분석

3.1 실험 구성

정확도 분석에 이용할 한국어 동철동음 다의어는 22개이다. 22개의 다의어에서 나타내는 각각의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한 예문을 두 개씩 총 88개의 예문을 검증 예문으로 삼는다. 각 예문은 객관적 검증을 위해『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의미항목에 해당하는 예문에서 발췌하였다. 일반적으로 어휘 판단 과제나 명명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고빈도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저빈도 단어에 비해 빠르게 나타난다.(Seidenberg et al. 1984)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동철동음 동사의 번역 정확도 파악에 사용될 단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단어빈도표의 의미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될 동철동음동사를 선별하였다. 또한 음절수의 통제를 위해 2-3음절 이내의 동철동음 동사 22개를 선별하였다.

3.2 번역 평가 기준

번역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의동사의 의미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이 문맥에 따라 동철동음 동사가 나타내는 각각의 다른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므로 출력언어에 대한 평가는 동철동음 동사의 각기 다른 의미를 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이 잘 식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동철동음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출력언어에서도 정확하게 번역해 내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중국인 모국어 화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标准说明	分数	实例	
		韩语原文	译文
동철동음 동사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였고, 다른 성분에도 오류가 없는 경우	5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다.	用窗帘挡住窗户
동철동음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번역해내었으나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 선택은 아닌 경우	4	라이터를 켜다.	打开打火机
동철동음동사의 의미는 정확하게 번역해내지 못했으나 전체적인 의미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3	고물 차인데도 별 탈 없이 잘 간다.	即使是旧车,也没什么毛病
동철동음동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모국어 화자가 이해가 가능하지만 문장의 다른 어휘에서 문법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비가 개다	雨晴
동철동음동사의 의미를 파악하여 출력하였으나 다른 성분들의 문법오류로 전체적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어려운 경우	1	다리미로 젖은 옷을 말렸다.	用熨斗擦干湿衣服
동철동음동사의 의미를 번역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출력된 경우	0	어머니의 무릎을 베다.	砍了母亲的膝盖

3.2 실험 결과

본고는 동철동음 동사 22개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에 대한 88개의 예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바이두, 구글, 파파고의 동철동음 동사의 번역 정확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수	바이두		papago		구글	
	数量	比例	数量	比例	数量	比例
5分	67	76.14%	59	67.05%	28	31.82%
4分	6	6.82%	11	12.50%	8	9.09%
3分	0	0	1	1.14%	3	3.41%
2分	1	1.14%	4	4.55%	2	2.27%
1分	5	5.68%	2	2.27%	10	11.36%
0分	9	10.23%	11	12.50%	37	42.05%

분석 결과 동철동음 동사의 서로 다른 의미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4점 이상의 출력 예문은 구글의 경우 40.91%, 파파고는 79.55%, 바이두는 82.96%였다. 파파고와 바이두는 번역의 정확률이 약 80%라는 점에서 동철동음의 다른 의미 분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구글은 40% 정도의 번역 성공률을 보여 문맥에 따른 의미 분별이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파파고, 바이두, 구글의 신경망 번역에서 나타난 비슷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파파고, 바이두, 구글 번역에서 모두 5점을 평가받은 완벽한 번역 문장은 26개로 29.55%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대부분 비교적 단순한 동빈관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식들로 수식성분이 없는 빈어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称体重”、“洗衣服”、“戴帽子”、“砍树”、“踢球” 등이다. 이들의 번역은 이전의 통계기반 기계번역에서도 동사와 자주 결합하는 빈어를 선택하는 통계시스템에 기반해서 처리가 가능하였던 번역 처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빈 결합 구조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파파고, 바이두, 구글의 번역에서 모두 0점을 평가받은 예문은 4개였다. 즉, 이들 예문은 현 신경망 기계번역에서 처리가 힘든 문장으로 현 기계번역의 한계로 데이터 보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동철동음 동사가 술어로 사용되지 않고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에 기계번역은 미숙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잘 따르는 후배”, “목을 조르는 넥타이”와 같이 동철동음 동사 ‘따르다’와 “조르다”가 서술어가 아닌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신경망 기계번역을 서술어가 아닌 관형어로 변했을 때의 형태 변화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문장에서 처리해야할 다의어가 또 존재하는 경우 기계 번역은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 강좌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폐강이 되었다’의 경우 동철동음 동사 ‘채우다’의 의미를 식별하는 것 이 외에도 ‘정원’이라는 동철동음 명사의 의미를 식별해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 번역 처리에 영향을 주어 낮은 번역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고의 경우 이 예문에서 폐강의 번역을 “閉講”이라고 하고 있는 데 파파고에서는 중국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 경우 한국식 한자어로 바꾸어 출력하는 결과를 산출할 때가 종종 있었다.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한자어에 대응되어 학습된 데이터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세 번역기에서 나타난 서로 상이한 양상이다. 특히 한 개의 번역시스템에서 유독 미숙함을 보이거나 우수함을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두 개의 번역 시스템에서 5점을 받은 데이터는 21개로 23.86%를 차지한다. 그 중 19개의 예문에서는 파파고와 바이두에서는 4점을 평가 받아 완벽한 번역 성공을 보였지만 구글에서는 1점 또는 0점을 평가 받았다. 이점을 보아서도 구글의 중한 동

철동음 동사의 처리 능력은 바이두와 파파고에 비해 현저히 뒤떨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번역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교적 낮은 빈도률을 보이는 '날씨가 개다', '옷에 단추를 달다', '빨대로 쥬스를 빨다'. '담임을 맡다'와 같은 동빈구조의 결합의 경우 구글 기계 번역시스템의 학습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해내지 못했다. 또한 '고향을 그리워 하다'의 경우 "油漆家"로 번역하거나 '문에 자물쇠를 채우다'의 경우 取悦门锁"와 같이 엉뚱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梦 dream", "水str"과 같이 깨진 글자로 출력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단 하나의 신경망 시스템에서만 4점 이상을 획득한 예문은 12.5%로 12개이다 이중 8개의 예문은 바이두에서만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날이 개다'의 경우 "雨过天晴"으로 정확히 번역되었지만 파파고와 구글에서는 "雨晴", "下雨了"와 같이 부정확한 번역을 산출하였다. '엄마의 무릎을 베다.'의 예문에서도 바이두에서만 "枕着妈妈的膝盖"와 같이 입력언어의 의미를 번역해내었고 파파고나 구글에서는 "砍妈妈的膝盖"와 같이 번역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데이터 학습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두와 파파고의 경우 비교적 많은 동철동음 동사의 의미가 학습되어 있지만 구글의 학습량은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글이 문어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번역 데이터를 학습시킨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 신경망 번역기 중 파파고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식 한자어와 대응시키는 학습 데이터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신경망 기계번역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약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패턴이 더 명확해지고, 모델은 정확한 번역 함수를 찾아낼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명확해진 번역의 패턴으로 신경망 기계번역은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학습하는 신경망 기계번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확한 언어쌍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기계번역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올바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좋은 언어쌍을 입력해야 한다. 본고의 실험결과 구글은 특히 다의어 번역에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구글의 중한 번역의 언어 데이터가 문어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구글의 경우 구어체 위주의 좋은 언어쌍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의어 처리에 필요한 정확한 번역 대응 언어쌍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특히 더 필요하다. 또한 파파고의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한자어에 대응하는 잘못된 번역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번역 모델의 오류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잘 번역하고 어떤 문장은 잘 번역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다의어 번역에서 각각의 기계번역 결과값을 평가하고 번역의 질을 파악하는 일은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지의 작업 역시 이러한 데이터들의 축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다의어 번역의 정확률이 높았던 바이두와 파파고에서도 서술어로서 사용되었을 때가 아닌 관형어로 사용되었을 때의 다의동사의 번역정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또한 현재형이 아닌 과거나 미래형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기계번역의 정확률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본고는 다의 동사의 형태변화에 따른 번역의 정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립어의 특징을 가지는 중국어와 형태 변화가 존재하는 한국어의 차이를 신경망 기계번역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번역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같은 문장의 패턴이라도 각각의 오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중심의미는 잘 번역했지만 세부적인 오류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확한 데이터로 수정해야 한다. 어떤 기계 번역은 문화소의 단어는 취약한 특징을 갖고, 어떤 기계 번역의 경우 문장부호 등에서 자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고는 전체적인 중심의미를 잘 번역했는지를 평가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오류 데이터를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한다.

11月 21日(土) 14:20~15:50

고전문학(2)

❖ 고전서사 연구의 확장과 문화적 접근

안희진(단국대) 영혼의 교체 -『太平廣記』 중의 '借屍還魂'을 논함

김 영(선문대)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필사본에 대한 再考

박현규(순천향대) 조선 우인이 제공한 청 葉志詵의 詩帖과 金石文 고찰

정선경(이화여대)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영혼의 교체 -『太平廣記』중의 '借屍還魂'을 논함

안희진*

<目 次>

1. 서론
2.『태평광기』의 '차시환혼' 기록
3. 그 외의 '차시환혼' 기록 비교
4. 결론

1. 서론

『태평광기』는 중국 고전 문헌 중 '지괴' 기록의 대표적인 총집이다. '지괴'란 기이한 일화나 사건을 기록한 글이다. 수많은 이런 문헌 기록을 중국 문학에서는 소설의 한 갈래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런 기록물들이 중국 역사상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나 경험들을 전하는 실제 생활의 집적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 적지 않은 내용이 사람의 사후세계와 관련된 기록이다. 이 문헌에는 '임사체험'처럼 사람이 죽은 뒤 일정 시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체험하고 소생한 뒤 남긴 이야기 등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더욱 독특한 소재인 '借屍還魂'을 논하고자 한다.

소위 '차시환혼'이란 예전에 이미 죽은 사람의 혼령이, 이제 막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되살아나는 경우다. 티베트불교에서 말하는 '탈사奪舍'와 유사한데, '탈사'는 수행자가 죽을 때 자신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 수행을 이어가는 방법이다.[1] '차시환혼'으로 방금 죽어가던 사람의 몸은 되살아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예전에 죽은 다른 사람이다. 방금 죽은 사람이 몇 시간 뒤 살아나서 잠시 죽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남긴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고 되살아 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런 기록이 중국 고전 문헌 곳곳에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씨'가 죽었는데 잠시 후 살아난 '이씨'는 자신이 방금 죽은 '이씨'인 줄 모른 채,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 '장씨'인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사실일까? 혹시 옛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권선징악 등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닐까? 본 연구자는 이런 기록 대부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차시환혼'의 진정한 의미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2.『태평광기』의 '차시환혼' 기록

'借屍還魂'이라는 4글자의 성어는 처음에 문학작품에서 쓰였다. 예를 들면 원나라 악백천의 희곡 작품에 "너희들 잘 들어라. 이건 이도의 시신이고 여기 악수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이 시신에 악수의 영혼을

* 단국대학교

1) 陳兵 著,『生與死 佛教輪回說』, 內蒙古人民出版社, 1998. p.295.

넣어서 살아나게 할 테다."[2] 라는 구절이 있다. 또 『서유기』에서는 "유전은 저승 갔다가 되살아났고, 취련은 남의 몸으로 혼이 돌아왔다."[3] 등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신으로 되살아나는 이야기다. 고대 중국에서도 '차시환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나 희곡에 사실적인 묘사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좀 더 확대되면서 "패망한 군대나 조직을 되살려서 생기 넘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의 병법이나 전략상의 성어로 쓰인다.

그러나 '借屍還魂' 이야기는 옛날 중국 문헌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太平廣記』'재생'편에 남아 전하는 '이간'의 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당 개원 말에 채주 상채현의 남쪽에 이간이 살았는데 간질병으로 죽었다. 장사 지낸 뒤 10여 일 후 여양현에 사는 장홍의가 이간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거리도 10여 리 떨어져 살다가 별안간 병으로 죽었다. 장홍의는 하루 뒤에 살아났는데 부모와 처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장홍의는 자신이 이간이라면서 상채현의 이씨 집안 이량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가 상채현을 찾아가서 이량의 집에 들어가자 이량이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다. (중략) 이량이 친척들 이름과 살아온 내력을 물어보자 사실과 다른 게 없었다. 이간이 대나무를 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광주리를 만드는데 그 행동이 완전히 이간이었으므로 그를 여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때 단성식의 산종 숙부가 채주사호로 있어서 그 일 사실임을 확인했다. 옛날에 편작이 노공호와 조제영의 심장을 바꿨는데 깨어나자 각자의 집으로 간 뒤 두 집에서 서로의 사정을 확인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로 보면 이런 일이 사실이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酉陽雜俎』)[4]

이 글을 보면 이런 기록이 현실의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저승'이라는 영의 세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혼령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람의 혼령을 잘못 데려가는 착오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착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 위 이야기의 내용대로 혼령을 방금 죽은 다른 사람의 시신에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믿기 어렵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방금 제기한 3가지 의문을 하나씩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이 3개의 의문을 단번에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첫 번째의 의문에서,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2가지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영계의 존재 여부를 여기서 재차 논하기에는 편폭의 한계가 있다. 다만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영계란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인식할 수는 있는 세계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영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실수와 착오가 있는 현실의 세상과 다르지 않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라고 보아야 한다. 『太平廣記』의 기타 기록에도 저승 관리가 실수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간 이야기가 다수 나온다.[5]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가정한 뒤에는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저절로 풀린다. 그 공간은 사람이 인지하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의 세계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일 것이며, 그러므로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 특정 프로그램의 에너지를 교체해서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마치 컴퓨터에 구동 프로그램을 넣는 것과 비슷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외부 요인으로 하드웨어가 멈추려고 한다면 'OS 교체'라는 위의 가정은 가능한 일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이 노환으로 육체의 수명을 다한 것이 아

2) "妳眾人聽著；這的是李屠的屍首；嶽壽的魂靈；我著他借屍還魂來。"(嶽伯川「鐵拐李」)

3) "劉全進瓜回陽世，借屍還魂李翠蓮。"(「唐王秉誠修大會 觀音顯聖化金蟬」)

4) 『太平廣記』, 中華書局, 北京, 2017. p.2994

5) 『太平廣記』 p.2553 唐邦의 사례 등. 『열미초당필기』, 中華書局, 北京, 2016. p.108. 관련된 기록으로, 한국에서는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 두 사람의 金礪와 두 사람의 金生 이야기가 전한다.

닌, 젊은 나이에 질병 등으로 죽는 경우라면 '전기 에너지', 즉 육신의 생명력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도 몸을 바꿔 되살아난 경우인데 이 역시 노환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젊은 몸으로 바뀌어 소생한 내용이다.

> 진채의 죽계정은 죽은 지 10여 년 됐다. 나중에 마을 사람 조자화도 죽었는데 며칠 뒤 살아나서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처와 아들이 놀라서 뛰어가 물으니 조자화가 대답했다. "난 죽계정이야.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내 집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 (방금 죽은) 조자화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와 아들은 그를 따라갔다. 죽계정의 집에 도착하자 (그 집 사람들은) 조자화가 오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며 쫓아냈다. 조자화가 말했다. "내가 죽계정이다. 죽은 지 11년인데 지금에야 돌아왔다. 왜 나를 몰라보느냐?" 집안사람들이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죽계정이었다. (중략) 죽계정이 예전 살았을 때의 일을 다 말하자 처와 자식들도 믿었다. 그 뒤로 죽계정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거친 옷을 입고 진채와 여정 지방을 걸식하며 살았다. 돈이 생기면 불상을 세우고 배고픈 사람에게 베풀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직도 살아 있다.(「宣室志」)[6]

위의 내용을 보면 일단 영계에서 육신을 바꿔줄 때 그가 아직 현생에서의 정해진 수명이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돼야 한다. 영계에서는 모든 영혼의 기록부가 있어서 거기서도 그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영계의 사자에 의해서 잘못 데려왔다면 업무착오인 셈이다. 이런 여러 기록을 보면 혼령을 데려가는 임무를 맡은 사자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징벌을 당한다. 일단 정해진 수명이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곧바로 돌려 보내져 죽은 지 몇 시간 뒤 또는 며칠 뒤에 소생한다. 그러나 죽은 지 오래됐거나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에는 시신이 너무 썩거나 손상됐을 경우 근처 지역의 유사한 연령대인 자 중에서 곧 죽을 사람의 몸으로 돌려 보내져 소생되는 선택을 하게 한다. 만약 그런 선택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싶다고 동의한다면 곧바로 영계 안내자에 이끌려 가다가 강물, 다리, 낭떠러지 등 어딘가에 떨어지며 죽어가는 남의 몸으로 깨어났음을 알게 된다.

위 기록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영계에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과 죄가 되는지 전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계에서 보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죽계정은 생활을 수행하듯 했다.

> 여항사람 육언은 여름에 죽어서 열흘이 지났다. 염라왕을 뵙자 왕이 말했다.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니 돌려보내라." 좌우에서 말했다. "그의 몸이 다 썩었습니다. 마침 창주에서 이담이 오는 중이니 그 사람 몸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담의 몸을 그에게 줘라." 육언은 이담의 관에 들어가 살아났다. 그는 나와서 오지방 사투리로 말하고 처자를 못 알아봤다.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 여항의 집으로 찾아가니 처자식 등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나자 식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朝野僉載』)[7]

육언의 경우도 앞에서의 일화와 다름이 없다. 계절이 여름이었으므로 죽은 육언의 시신은 바로 부패했고, 돌려 보내져도 자신의 육신으로는 재생이 불가능했다. 염라왕의 명에 따라 그는 결국 창주에서 죽어가던 이담의 몸으로 되살아났다. 여항과 창주의 지역적 거리는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도 달랐다. 창주는 지금의 하북성 소재 도시인데, 소생한 사람이 상해 근처의 항주 말투로 말했던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처럼 영계가 존재한다면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그 영계의 존재들이 위의

6) 『太平廣記』 p.2994.

7) 『太平廣記』 p.2995.

이야기처럼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영계는 마치 연극이 벌어지는 극장에서 무대 뒤의 감독들처럼 연기자에게 걸맞은 역할을 부여해서 영혼들을 무대로 내보내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는 곳이다. 위의 글에서 '왕'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계의 총 재판관인 염라왕이다. 염라는 범어 '야마라자Yamarāja'의 한자 음역 '염마라사閻魔羅闍'의 줄임말이다. 사람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재판관을 '왕'으로 인식한 것이다.

> 진나라 원제 시기에 병사 갑모가 병으로 급사했다. 저승에 가서 재판관을 보자 재판관은 그가 죽을 때가 아니라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한다. 돌려보내라는 명이 떨어졌으나 그는 발에 병이 생기는 바람에 걷지를 못해서 돌아갈 수 없었다. 관리는 고민 끝에 말했다. "이 사람이 발이 아파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잘못 불러온 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정을 재판관에게 말했다. 재판관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민족인 강을이 불려오려고 지금 서문 밖에 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인 데다가 다리도 튼튼하니 그와 다리를 바꾸게 하면 된다." 관리가 명령을 받고 다리를 바꿔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민족인 그 사람은 생김이 추하고 두 다리도 흉했으므로 이 병사는 그 다리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관리가 말했다. "그의 다리로 바꾸지 않으면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 병사가 하는 수 없이 바꾸겠다고 하자 사자는 두 사람의 눈을 감게 하고 다리를 바꿔줬다. 병사가 돌려 보내져 되살아나서는 식구들에게 그 전말을 얘기했다. (중략) 그는 평생 자신의 발을 더럽다며 쳐다보지 않았다. 삼복더위에도 발싸개로 싸서 발을 드러내지 않았다.(『幽明錄』) [8]

병사 갑모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하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영혼이 들어가서 소생한 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영혼의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신체 일부를 바꿔준다는 것일까? 바꿔주는 주체는 영계의 어떤 존재들이며 그런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우리가 위의 기록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를 인정하기에는 누구나 상당한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허황된 이야기이며 꾸며진 소설로 보인다. 그러나 임사체험에 관한 수많은 경험 기록을 수집하고 취재 정리한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는 그의 책『임사체험』에서 유사한 기록을 전한다. 50세의 돌가 쟈타브는 20살 때 죽었더니 10명의 사자가 데리고 갔다. 도망가려고 하자 그들이 돌가의 다리를 잘랐다. 그런데 저승에서 죽을 사람의 명단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하자 남의 다리를 붙여서 돌려보냈다. 깨어나 보니 다리에 빙 둘러서 색깔이 다른 피부와 상처가 보였다.[9]

앞서 병사의 경험은 돌가의 이 기록과 상당히 유사하다. 저승에 잘못 불려갔고 남의 다리가 붙여져서 돌아온 것이다. 이를 사실의 기록이라고 본다면 영계에서는 산 사람의 육신에 대한 절단이나 접합 등 부분적인 교체와 변형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리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기록은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시기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연히 비슷하게 지어진 이야기일까?『태평광기』의 다른 기록을 보자.

> 나강현의 도사 초예준은 저승의 태산부군에게 밤마다 불려가서 '장직'이라는 직무를 20년간 맡았다. 그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아침에 깨어나면) 이승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승의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저승에서 그의 혼령을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승에서 병에 걸리거나 액운을 당합니다. 제 친척이나 이웃 중에 그렇게 저승에 혼령이 불려온 사람을 본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로 가서 만나보면 확실히 그런 일(질병이나 액운)이 있었습니다." 초예준은 그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저승에서 도사를 찾아가 물었다. 도사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는 그대로 정성껏 기도하자 태산부군이 사직을 허락했다. 그는 그 뒤 도를 닦고 주역을 공부하며 80살까지 살았다. (『태평광기』)[10]

8)『太平廣記』p.2993.

9) 다치바나 다카시 저, 윤대석 번역,『임사체험』, 청어람미디어, 2003. p.102.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영계는 이승 세계를 직접 관리한다. 이승 세계에서 사악한 짓을 하면 영계는 그 영혼을 불러서 징벌을 가한다. 징벌을 받은 영혼은 그의 현실의 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나타난다. 앞의 기록과 연결해서 본다면 명부의 관리자들은 죽은 자를 환생시킬 뿐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에게 행운과 재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 일부를 변형 교체시키거나 병들게 한다. 초예준은 그 영혼이 영계로 불려가 영혼 세계의 일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살아 있는 사람이 사악한 죄를 지었으나 당장 조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생기가 강하다면 그가 죽은 다음 영계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징벌 처분을 한다.

3. 그 외의 '차시환혼' 기록 비교

여기까지의 몇 가지 기록을 보면 '차시환혼'은 영계의 업무 중 하나로 드물긴 해도 종종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 『太平廣記』의 기록은 모두 북송시기에 수합된 고대의 기록이고 당시 가장 가까운 왕조이자 문자 기록이 왕성했던 당나라 때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차시환혼'에 관한 이야기는 그 뒤에도 부단히 나타난다. 『金史 五行志』에는 大定13년 張孝善의 아들 合得이 병으로 죽었는데 저녁이 되자 살아나서 자신이 1년전에 죽은 근처 王建의 아들 喜兒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는 기록이 있다.[11] 청대의 원매가 수집 정리한 『자불어』는 다음 이야기를 전한다.

> 왕연정이 영벽현의 현령이었을 때다. 마을에는 농촌 부녀자였던 30대 초반의 이씨가 있었는데 외모도 추했고 두 눈도 멀었다. 배는 10년 동안 살이 쪄서 거의 돼지 같았다. 그녀가 어느 날 죽자 남편이 시내로 관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살아나 있었다. 두 눈은 다 정상이 되어 있었고 뚱뚱하던 배도 홀쭉한 상태였다. 남편이 기뻐서 껴안으려고 하자 그의 처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울면서 말했다. "저는 원래 다른 마을의 왕씨네 딸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부모님과 자매들은 어디 있는 거죠?"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 마을에 달려가 이야기를 했다. 그 왕씨 집에서는 온 가족이 울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였다. 그 부친이 미친 듯이 이 집으로 달려오자 딸은 울면서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지난 일을 얘기하는데 모두 그 딸의 실제 일과 부합했다. 왕씨네 사위감도 와서 묵묵히 보고 있자 딸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결국 두 집안에서는 이 여인을 두고 서로 데려가려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완연정은 그 사건을 두고 농민인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판결했다. 건융21년의 일이다.(『자불어』) pp.14~15

여기서는 죽은 두 사람의 나이나 거주 지역이 비슷하다. 며칠 전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집의 죽은 여자의 혼령이 방금 죽은 부녀자의 몸으로 들어가 살아났다. 몸은 농부의 추한 부녀자로 살아났으나 영혼은 양갓집 처녀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양갓집 처녀의 영혼이 추한 농부 아내의 몸에 들어가 살아나자 맹인이었고 뚱뚱했던 부녀자가 눈을 뜨게 됐고 몸매도 날씬해졌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육언의 경우처럼 영혼의 원래 거주지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변화로 보인다. 육체의 이런 변화를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명부의 조치였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차시환혼'에 관한 상세한 다른 하나의 기록은 청대 원매의 『자불어』에서 '借屍延嗣'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다. '차시연사'란 예전에 죽은 혼령이 갓 죽어가는 육신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서 아들을 낳아 그 집의 후사를 이었다는 뜻이다.[12]

이와 같은 '차시환혼'의 사례를 고대 문헌 기록에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됐다.

---

10) 『太平廣記』 pp.2482~2483.

11) 『生與死 佛教輪回說』 p.293.

12) 『子不語』, 上海古籍出版社, 2018. pp.189~190.

(1) 방금 죽은 사람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렀다. 죽은 사람의 혼령은 영계에 가서 주어진 수명대로 살고 왔는지 확인을 받는다.

(2) 정해진 수명이 남아 있고 아직 매장하지 않았다면 바로 되살아나게 하지만, 이미 매장했고 시신도 회복시킬 수 없다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몸에 혼령을 집어넣어 되살아나게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비슷한 나이에 같은 성별로 소생하게 한다.

(3) 되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전생의 집을 찾아간다. 소생한 사람이 함께 살던 생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 집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몸으로) 살아 돌아온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

(4) 되살아난 영혼은 저승 영계의 기억을 못 하기도 하지만, 대개 기억은 물론 다시 살아난 과정을 잘 알고 수행하면서 여생을 산다.

이렇게 정리된 고대 문헌상의 기록이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다음 사건은 현대사회에 크게 알려진 '차시환혼'의 대표적인 사례다. 1959년 대만 운림현 맥료향 중산로 95호 건축자재 상점 여주인인 43세 林罔腰라는 여성은 병으로 죽어가던 중에 소생했다. 그는 금문에 사는 18세 朱秀華의 영혼을 갖고 살아났다. 건축자재 상점의 여주인 임망요로 소생한 그녀는 예전처럼 일자무식이 아니라 글자도 잘 알고 썼다. 대만 말투가 아니라 금문 지방의 복건 사투리도 썼다. 옷차림도 양장에서 바지에 셔츠 차림의 평상복을 즐겨 입었다. 평범한 주부로서 밥만 할 줄 알던 그녀가 각종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식구들에게 금문의 주소 부모 이름과 집안 상황 주변 이야기를 상세하게 했다. 주수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18살의 젊은 자신이 40세의 중년 여인으로 태어난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망요의 육신으로 소생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주수화라고 하면서 여생을 살던 그녀는 2018년 5월 23일, 97세로 죽었다.[13]

4. 결론

이처럼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서는 현상을 'Walk-in' 또는 'Soul Exchange'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Ruth Montgomery와 Guy Needler 등의 견해가 참고할 만하다.[14]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Walk-in 현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것일 뿐 아니라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처럼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실제로 '차시환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계의 주재자가 일부 혼령에게 중도 환생의 기회를 준다면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중도 환생을 하는 것이 단지 그의 지구상의 약속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중도 환생을 해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던 것은 아닐까?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런 추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영계의 주재자들은 한 개의 혼령에게 다시 육신을 부여함으로써 그에게 한 생애의 정해진 시간을 마치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마치 시험을 다 치르기도 전에 병으로 쓰러진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의 의식이 돌아오자 뒤늦긴 해도 나머지 시험시간을 준 것과 같다. 이것이 그와 나눈 시간 약속을 통해 시험을 완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가 한 생에서 육신의 몸으로 겪고자 한 카르마를 탕감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약속된 시간'을 준 셈이다.

---

13) 李瑞烈編,『眞人眞事 借屍還魂記』民國106年10月, 麥寮鄉鎭東宮管理委員會. 임망요의 남편은 吳秋得이고 거주지는 臺灣 雲林縣 麥寮鄉 中山路 95號로 주택은 아직도 그 주소에 남아 있다.

14) Ruth Montgomery, *A World Beyond* (New York, Fawcett Books, 1988) 참고.

영혼의 태아 투입은 영혼 환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이에 반해서 '차시환혼'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 기록이 중국 고대 문헌에 산발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비물질 영혼과 물질 육신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교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원칙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영혼이 한 생에서 치러야 하는 일정한 분량의 카르마가 있다면 그것을 마치도록 물리적인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과정의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명부는 정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혼령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어째서 새로운 태아에 투입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않고, 굳이 죽어가는 비슷한 조건의 몸에 투입시켜서 소생하는 일을 허락해 줄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한 개 영혼이 어떤 행성에서 한 번의 삶을 살기로 계획했다면 그 영혼이 계획한 육체적 삶의 과정을 완수해야 할 임무가 그 행성의 시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영계의 주재자들이 그 영혼에게 굳이 '차시환혼'이라는 방법으로 육체적 삶의 시간을 더 줄 이유가 없다. (끝)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필사본에 대한 再考

김 영*

<目 次>

1. 서론
2.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본 개황
3. 왕실 번역본『긔벽연역』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조선시대에 유입된 중국소설『開闢衍繹通俗志傳』과 그 번역본을 살피는 데 있다.『開闢衍繹通俗志傳』의 번역필사본은 박재연(2002)에 의해 규장각 소장『긔벽연역』이 처음 소개되었다.[1] 이후 유춘동(2014)에 의해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이 추가로 발굴 소개된 바 있다.[2] 그러나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핀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소개, 발굴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開闢衍繹通俗志傳』의 조선시대 유입과 향유를 정리하여 수용 실태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규장각 소장『긔벽연역』은 왕실에서 번역되어 향유되었던 궁중본이다. 규장각 소장본의 서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과 같은 책임을 증명할 것이며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상세히 살필 것이다. 또한, 이 번역본은 왕실 번역본 중『홍루몽』계열의 번역본들,『충렬협의전』,『충렬소오의』,『쾌심편』,『요화전』등보다는 적어도 한 세기는 더 올라가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왕실 번역본들은 17~18세기에 번역된 것과 19세기에 번역된 것들을 비교하면 확연한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 왕실본『긔벽연역』에서도 어떤 특징이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왕실에서 역사소설 번역본이 가지는 의미를 논할 것이다.

2. 중국소설『開闢衍繹』의 번역본 개황

『開闢衍繹通俗志傳』은 명나라 周遊의 중국 역사의 시원인 盤古의 천기개벽부터 商나라 紂王의 멸망까지를 다룬 내용으로 6권 80회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에 유통된 현황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현재 국내에 중국 목판본, 중국 석인본을 비롯하여 한글번역필사본, 활자본까지 전하고 있다. 개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본

ㄱ. 尹德熙(1685~1766)「字學歲月」(1744),「小說經覽者」(1762): 開闢衍譯

---

* 선문대학교

1) 박재연(2002),『긔벽연역·분장누』, 이회, 2002. 규장각 소장 번역필사본 5책을 입력, 주해한 교주서이며, 작품의 간단한 서지와 번역된 한글 고어 어휘의 실태를 밝힌 소고 '「조선시대 번역 고소설 필사본『긔벽연역』,『분장누』의 주석 연구」'도 실려 있다.

2) 유춘동(2014),「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필사본 번역고소설에 대한 연구」,『우리문학연구』43, 229~255쪽.

ㄴ. 李義鳳(1733~1801)『北轅錄』권5(1760.3.3):
"主人之姪爲秀可業, 爲人精明, 以渠所有書籍來示, 以其中性理體注請換行中之開闢演義, 許之."
ㄷ. 完山李氏『中國小說繪模本』(1762): 開闢衍譯
ㄹ. 李德懋(1741~1793)『靑莊館全書』권5「嬰處雜稿一」:
"余嘗見小說書目中, 有開闢演義, 雖不開見, 觀其名目, 怪斯極矣."
ㅁ.『海南尹氏群書目錄』(1927): 開闢演義
ㄱ′. 開闢衍繹通俗志傳, 6권6책, 목판본, 周游 集, 王黌 釋, 24.8x15.5cm, 四周單邊,
半郭 19.2x12.2cm, 無界, 半葉 9行18字, 崇禎8(1635)序, 24葉48幅(圖),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ㄴ′. 新刻按鑑編纂開闢衍繹通俗志傳, 6권6책, 목판본, 17.1x11.2cm, 四周單邊, 半郭 12.1x9.1cm
半葉 9行18字, 道光十年(1830)新鐫,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ㄷ′. 天地開闢傳 6권6책, 목판본, 周游 集, 王黌 釋, 半葉 9行18字, 光緖十三年(1887)新鐫,
鍾伯敬先生原評, 上海掃葉山房藏板. 13葉26幅(圖),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ㄹ′. 繡像繪圖開闢演義全傳, 4권4책, 石印本, 15.8x9.8cm, 上海 普新書局(1909), 이화여대 소장.
ㅁ′. 繡像繪圖開闢演義, 4권4책, 石印本, 15.6x9.8cm, 上海 普新書局(1914), 건국대 소장.

② 한글번역본
ㄱ.『옥원재합기연』권5 표지 안쪽(1786~1790): 긔벽연의
ㄴ.『諺文古詩』「언문칙목녹」(1872): 긔벽연의
ㄷ.「칙녈명녹」(1890): 긔벽연의
ㄹ.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Bibliographie Coréenne』(역서명:한국서지): 긔벽연의
ㄱ′. 긔벽연역, 5권5책, 한글필사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ㄴ′. 긔벽연역, 1책, 한글필사본,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
ㄷ′. 긔벽연의, 4권4책, 한글필사본,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ㄹ′. 긔벽연의, 1책, 한글필사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ㅁ′. 긔벽연의, 2책, 한글필사본, 정병욱 소장
ㅂ′. 긔국연의, 2책, 한글필사본, 임형택 소장.
ㅅ′. 天地開闢, 1책(上下卷), 활자본, 德興書林 發行, 1935

사도세자가 쓴『중국소설회모본』의「小序」를 비롯하여 尹德熙가 읽었던 중국소설 목록, 李義鳳이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書狀官이었던 부친 李徽中(1715~1786)을 따라 1760년 11월부터 1761년 4월까지 중국 사행길에 올랐던 여정을 기록한『北轅錄』등 왕실에서부터 사대부가에 이르기까지 중국 원전이 유입되어 유통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기록에 근거하면『開闢衍繹通俗志傳』의 유입은 늦어도 1700년대 중반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번역본과 관련된 기록은 1700년대 말부터 확인되며 현재 규장각을 비롯하여 연세대, 국립민속박물관, 개인 소장본 등이 전하고 있다. 서명은 '긔벽연역'과 '긔벽연의' 두 가지로 전하며, '긔벽연역'은 왕실본에서만 확인된다. 완질로 전하는 것은 왕실본과, 연세대 소장본 2종이며 나머지는 2책, 1책 등 낙질로 남아 있다.

또한, 20세기 초반에는 서명이 '天地開闢'으로 바뀐 활자본의 존재도 특기할 만하다. 활자본은 1935년 덕흥서림에서 간행한 것이 유일하다. 번역문은 국한문 혼용이며 전체 80회를 모두 번역하였다. 옛한글 고어 표기인 'ㆍ(아래아)'는 없다. 회목도 모두 한글로 풀어 놓았다. 문체가 고어 투에서 벗어나 현대어에 가깝게 윤문되어 가독성이 좋다. 20세기 초는 인쇄술이 발달하여 활자본이라는 매체를 통해 상업적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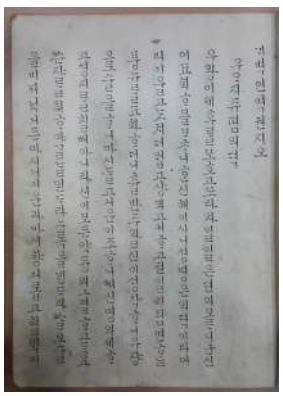
이 대거 쏟아지는 시기이다. 이전의 번역필사본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들을 통해 활자본으로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왕실 번역본『긔벽연역』

규장각 소장『긔벽연역』과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긔벽연역』은 왕실본이다. 이 두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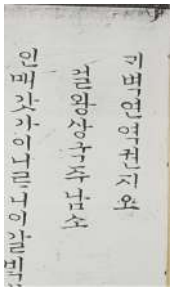
① 규장각 소장『긔벽연역』5책・권1: 序, 附錄天地判說, 제1회~제14회 ・권2: 제15회~제28회
・권3: 제29회~제39회 ・권4: 제40회~제51회 ・권5: 제66회~제80회
②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긔벽연역』1책: 권5: 제52회~제6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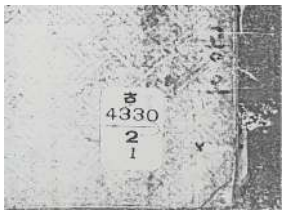
규장각 소장본에 빠져 있는 제52회부터 제65회가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에 있음이 확인된다. 서체 역시 모두 정자의 궁체로 정성들여 썼으며 매 면 10행, 매 행 22자 내외로 글자 수도 같다. 같은 규장각 소장본과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의 서지 형태를 상세히 검토하면 같은 번역필사본이지만 일련의 차이점들도 발견된다.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 <규장각 소장>

표지 제목이 규장각 소장본은 한글로 '긔벽연역 권지일'과 같이 제목과 권차를 적고 있는 반면에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은 한문으로 '開闢演譯, 卷之五'라 적혀 있다. 표지의 문양도 다르다. 규장각 소장본은 격자문양이지만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은 매화와 나비 문양이 들어간 표지이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흘러 표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실번역필사본의 표지가 대부분 한문으로 제목과 권차를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장각본의 표지가 후대에 개장되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규장각본 권지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로 묶여 있는 부분이 풀려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 <규장각 소장>

더 나아가 규장각 소장본은 본래 권5 한 책이 빠져 있는 缺本이었음에 불구하고 완질인 것처럼 수정한 흔적들도 발견된다. 때문에 자료를 접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이 책을 완질로 판단하는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책을 실로 묶는 자리인 書腦 하단에는 전체 책 수를 적어 놓는데 규장각본은 '공오'라 한글로 쓰여 있는 반면에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본은 '共六'이라 한문으로 적혀 있다. '공오'라는 표기는 규장각본 5책 모두 동일하다. 이 책의 원래 책수는 6책인데 규장각의 권6을 '권지오'로 수정하고 書腦 부분의 책수 표기도 모두 바꿔 놓으면서 5책이 완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되는 것이다. 또한,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은 공격지를 활용하여 본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별도로 책에 실린 회목 전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규장각 소장본은 없다. 책을 장정한 실이 풀어져 있는 등 線裝 형태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목을 적어 놓은 부분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서지 형태를 검토한 결과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이 규장각 소장본보다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실 번역필사본 『긔벽연역』은 6권 6책이며 중국 목판본도 6권 6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6책으로 번역하였지만 원전의 권차 나누는 기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원전의 기준과 상관없이 40장~56장 분량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나눈 것으로 판단되며 번역문은 매우 정성들여 하나하나 번역되었다.

이 책은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崇禎 8년(1635)에 쓴 '開闢衍繹敍'와 부록으로 '乱仙天地判說'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의 명명의 이유와 천지가 개벽하는 이치를 풀어 놓아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읽기에 앞서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번역본은 이 부분을 모두 다 빼놓지 않고 꼼꼼히 번역해 놓았다. 세세한 번역은 어휘에 대한 각주에서도 드러난다. 번역필사본은 일부 어휘들에 대해 쌍행으로 협주를 달고 있다. 주로 인명이나 지명,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기존의 중국 판본에서 기록되어 있는 협주 설명을 가져다가 번역해 놓은 것이다. 모든 협주를 다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듯하다.

일부 생략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개장시나 삽입시 등을 뺀 것들이며 본문 내용은 거의 다 충실히 번역되었다. 번역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괄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매 회가 시작될 때나 이야기 전환시 사용하는 '却說', '且說' 등의 용어, 마지막에 사용하는 '且聽下回分解', '且看下回分解' 등과 같은 어구 역시 모두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

장회체 소설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용어들의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예는 주로 19세기 초반 이전의 번역본들에서 나타나는 번역 형태이다. 19세기 중후반, 20세기의 번역필사본들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그대로 한글로 드러내어 번역하고 있다. 역사소설이나 17~19세기 초반에 번역된 필사본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으로 생경한 명청소설 형식이 언문으로 노출될 경우 흐트러질 감상 효과와 문장 연결의 어색함을 고려한 번역자의 적극적 번역 태도라 할 것이다. 반면에 한 세기 이상 시간이 흘러 중국 소설의 용어들이 더 이상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대중화를 이룬 후에는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자의 기본 태도는 원전에 충실하여 번역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독자들의 계층을 고려하여 문화적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은 적극 생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개벽연역', '서주연의', '열국지', '손방연의', '동한연의', '서한연의', '삼국지연의', '수당연의', '잔당오대연의', '남송연의', '북송연의' 등 중국 왕조대별 흥망성쇠와 전쟁사를 서술한 대부분의 역사소설들을 번역하였다. 역사소설은 한 나라의 개국과 멸망의 역사적 사실을 부연한 것도 있고 전쟁 속에서 인물의 활약상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있다.『개벽연역』은 전자에 속한다. 조선시대에 역사소설이 특히나 많이 번역되었던 것은 소설이 가지는 오락성과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서적 효용성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한글번역본을 읽는 계층은 주로 비빈이나 후궁, 상궁 등 여성들이었다. 역사소설이 소설의 특성상 비록 허구적인 면도 있지만 큰 줄기는 역사서나 열전 등 사실적 자료에 근거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서로서의 기능도 배제할 수 없었다. 다른 장르의 소설 작품보다 예술성, 작품성이 뒤떨어지고 재미가 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역사서 같은 서적들보다는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역사소설의 탐독은 왕실 여성의 사회적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계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 등을 통해 유교적 윤리 의식에서 강조하는 忠孝節義,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 등을 발견하고 자신을 수신할 수 있는 교화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개벽연역』의 마지막은 商나라 紂王이 달기를 후비로 맞아들이고 주색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고 횡음무도한 횡포를 저지르다 결국 周나라 武王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이다. '달기'의 등장을 통해 왕실 여성이 권력에 개입하여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계하고 태평성대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왕실의 여성의 역할과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역사소설은 양반가 사대부 계층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효용성이 있는 중요한 독서물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유입된 중국소설『개벽연역』의 유통 현황과 번역 실태를 확인하고 왕실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개벽연역』번역본의 향유가 가지는 효용성과 의미도 함께 논하였다. 향후『개벽연역』번역본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계보를 보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조선시대에 중국 역사소설은 거의 대부분이 번역되었는데 이는 소설이 가지는 오락성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물의 활약상을 통해 배우는 교화성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락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중요한 효용적 가치를 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은 물론이고 사대부 문인, 규방의 여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읽었던 독서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백여 종의 중국소설이 유입되어 읽혔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작품도 많았으며, 번역본을 토대로 하여 개작되거나 번안하여 재창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중국소설은 조선시대 소설의 발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히 번역 작품은 개인의 주관성뿐만 아니라 자국의 사회, 문화적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소설의 연구와 소설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살피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보다 많은 중국소설의 유입과 전파, 그리고 번역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관련 분야의 연구 지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조선 우인이 제공한 청 葉志詵의 詩帖과 金石文 고찰

朴現圭*

<目 次>

1. 서론
2. 조선 우인들이 제영한 ≪子午泉詩帖≫
3. 조선 우인들이 제공한 ≪高麗碑全文≫
4. 조선 우인들이 중계한 <日本殘碑雙鉤本>
5. 결론

1. 서론

청 葉志詵(1779-1863)의 자는 東卿이고, 만호는 遂翁이며, 漢陽(현 호북 武漢) 사람이다. 집안에 장서가 풍부하고, 貢生 출신이다. 1804년(가경 9)에 한림원에 들어가 國子監典簿가 되었고, 內閣典籍, 兵部武選司郎中 등을 역임했다. 翁方綱의 사위이고, 劉墉의 문하이다. 금석학, 한의학 등에서 깊은 학문을 이루었고, 또한 예스러운 멋을 갖춘 예서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섭지선은 한마디로 親朝鮮 문사이다. 당시 연경(북경)에 들어온 申緯, 李肇源, 金魯敬, 金正喜, 金命喜, 洪奭周, 金敬淵, 洪敬謨, 申在植, 姜時永, 朴來謙, 朴綺壽, 李裕元, 趙秀三, 李尙迪, 金秉善 등 많은 조선 명사들과 친교를 맺고 우정을 쌓아가 양국 인적교류의 좋은 통로역할을 해주었다. 조선 명사들이 귀국한 후에도 제삼자들을 통해 서찰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하였으며, 각각 자국에서 구하기 힘든 많은 양의 문헌이나 자료들을 상대국으로 보내주어 양국 학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섭지선이 제공한 금석문은 김정희가 금석학 연구와 추사체를 완성시키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국내에서 섭지선이 보낸 문헌이나 유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창덕궁에 섭지선 글씨로 새긴 「樂善齋」 현판, 반남 박씨 서계종택에 섭지선이 쓴 「樓山」 현판, 국립중앙박물관에 섭지선이 쓴 「皆大歡喜/得恒吉祥」과 「保心如止水/爲行見眞書」 예서 대련, 과천시추사박물관에 섭지선이 홍경모에게 준 「輪雲蓋雲輝騰五色/文露武露澤被九天」 예서 대련, 규장각에 섭지선이 김명희에게 보낸 서찰의 중초본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조선 우인들이 섭지선에게 보내준 문헌이나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을 밝혀주는 물증을 찾는다면, 작게는 청 섭지선과 조선 우인 간의 교류양상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고, 크게는 조선 문화가 서쪽 중국대륙으로 들어간 문화통로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필자는 예전에 이 화두를 품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약간의 결과물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1] 이번에 그동안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모아 종합분석에 나섰다. 본고에서는 청 섭지선이 조선 우인들의 도움을 받아 얻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한 이것들이 양측 진영 간의 우호증진과 학술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 순천향대학교

1) 朴現圭, <淸朝 학자의 日本 多胡碑 입수 과정과 분석>, ≪日本語文學≫ 33집, 日本語文學會, 2006.05, 쪽437~454.; <淸朝學者編撰海東金石集的種類和所藏現況>, ≪東亞文獻研究資源論集≫, 臺灣學生書局, 臺北, 2007.12, 쪽253~275.

2. 조선 우인들이 제영한 ≪子午泉詩帖≫

본 절에서는 조선 우인들이 섭씨 집안의 子午泉을 제영하고 편찬한 첩자인 ≪子午泉詩帖≫에 대해 살펴본다. 첩명에 관해 申在植은 ≪子午泉詩帖≫,[2] 姜時永은 ≪子午泉題帖≫이라고 적었는데,[3] 여기에서는 신재식의 기록을 따랐다.

북경의 전통 문화거리인 琉璃廠에서 남쪽으로 가면 명나라 때 호랑이를 가두어두었던 지역인 虎坊橋가 있고, 호방교 서남쪽 모퉁이에 王府 저택의 품격을 띠고 있는 북경 湖廣會館이 있다. 이곳은 원래 청조 명사들이 살았던 고택이었다. 乾嘉 시대에 王杰, 張惟寅, 劉權之가 거주했고, 1814년(가경 19)에 葉繼雯이 구입하여 아들 섭지선, 손자 葉琛, 葉澧가 거주했다.[4]

자오천은 당시 연경 문단에 널리 알려진 名泉이었다. 1816년(순조 10)에 李肇源이 동지정사가 되어 연경으로 들어갔다. 섭계문이 집구시를 보내주자, 이조원은 답례로 사언시를 지어 보내주었다.[5] 이때 이조원은 호방교에 소재한 섭계문의 집을 방문하고 자오천의 기이한 자연현상과 물맛을 체험하고 조선 문사 가운데 최초로 자오천 제영시인 <雲素宅有井, 子午二時甚淸冽, 餘皆濁澀. 誠異甃也, 賦一律以呈>을 남겼다.

이날 섭지선은 이조원에게 조선 문사들이 자오천 제영시를 두루 지어 보내줄 것을 청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섭지선은 자신의 집에 소재한 자오천에 대해 자긍심이 대단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조원은 귀국한 후 친우를 중심으로 자오천 제영시를 받아 첩자로 만들어 제삼자 편으로 섭지선에게 보내주었다.[6] 이 첩자가 바로 ≪자오천시첩≫이다.

이후 섭지선은 매년 연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들과 만날 때 자오천과 ≪자오천시첩≫을 보여주고 제영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였고, 또한 이들로부터 받은 제영시를 첩자에 계속 덧붙여놓았다.

≪자오천시첩≫에는 조선 문사들이 이조원이나 섭지선의 청에 의해 읊은 자오천 제영시가 가득 들어가 있다. 오늘날 ≪자오천시첩≫의 현존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아 책자에 수록된 시인이나 시편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문헌을 통해 조선 우인들이 자오천의 제영시를 지었다는 기록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즉, 申緯 <子午泉詩, 遙寄葉東卿, 幷序>, 鄭元容의 <中國葉東卿志詵宅子午泉詩, 應李尙書肇源索題, 盖泉以子午兩時流出故名, 尙書赴燕時, 有求東人詩文, 相贈之約云>, 洪義浩의 <燕中子午泉詩>, 洪奭周의 <子午泉歌, 爲燕京葉秀才作, 泉在故尙書紀曉嵐宅, 宅今屬葉, 水甚濁, 唯子午二時, 淸瑩可鑑, 故名云>, 趙秀三의 <子午泉>, 李尙迪의 <題葉東卿志詵武曹子午泉>, 李晩秀의 <吾叔玉壺先生自燕歸, 盛稱葉家子午泉. 昔聞鷄籠山下朝夕有泉, 號爲潮泉, 而若玆泉之必待子午而淸, 陸羽茶經之所未載, 比之潮泉, 尤靈且異矣. 恨無由一酌沆瀣, 滌此塵襟, 聊賦短律寄懷>, 金正喜의 <子午泉>, 李裕元의 <子午泉> 등이다.

3. 조선 우인들이 제공한 ≪高麗碑全文≫

본 절에서는 섭지선이 편찬한 해동금석집인 ≪高麗碑全文≫의 제반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고려비전문≫은 일명 ≪高麗金石錄≫이다.

---

2) 申在植 ≪筆談≫ 정해 정월 9일조:「東卿曰: 此屋傍有子午泉, 東國學士大夫皆有題詠, 仍出示一帖詩篇. 盖多東邦文人所製. --- 仍還坐堂中, 與諸公閱≪子午泉詩帖≫.」

3) 姜時永 ≪輶軒續錄≫ 권2 경인 정월 9일조:「主人葉志詵在門伺候, 迎入中堂. 茶行後, 與之筆談, 出示≪子午泉題帖≫, 皆東人詩.」

4) 陳用光 ≪太乙舟詩集≫ 권10 <和葉雲素移居詩>; 翁方綱 ≪復初齋詩集≫ 권66 <葉雲素員外移居二首>; 陳沆 ≪簡學齋詩刪≫ 권3 <葉雲素師移居虎坊橋長歌志賀> 등.

5) 李肇源 ≪燕薊風煙≫ <葉雲素繼雯以集句詩一篇寄贈, 卽賦四言四句以謝>.

6) 李裕元 ≪林下筆記≫ 권33 <子午泉>:「玉壺李尙書肇源之使還也, 東卿諄託玉壺, 遍求東人題詠.」

≪고려비전문≫은 섭지선 수고본이고, 전 4책본이다. 판심제에 '怡怡草堂抄書' 6자가 적혀있다. 怡怡草堂은 섭지선의 장서루이다. 책자 앞에 <朝鮮世系攷>와 <朝鮮詩人>이 수록되어있다고 했는데, 마치 명 吳明濟가 편찬한 ≪朝鮮詩選≫의 방식을 보는 듯하다. <조선세계고>와 <조선시인>은 섭지선이 아마도 청조 학자들을 위해 한국의 옛 조대와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비전문≫에 수록된 해동금석문의 종수는 총 58종이고, 해동금석문의 범위는 당나라부터 명나라에 해당되는 조대, 즉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이다. ≪고려비전문≫에 수록된 해동금석문의 종수는 유희해의 정고본 ≪해동금석원≫에 비해 23종 적으나, 해동금석문의 범위는 정고본 ≪해동금석원≫에 비해 조선전기의 금석문이 들어가 있어 더 광범위하다.

청말・민국연간 금석학자들은 섭지선의 ≪고려비전문≫을 열람하고 유희해의 ≪해동금석원≫과 비교한 적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전손은 ≪고려비전문≫과 ≪해동금석원≫을 비교해보니 서로 상세함과 소략함이 있다고 했다. 또 潘承弼은 ≪海東金石苑原本攷辨≫에서 유희해 정고본 ≪해동금석원≫을 ≪고려비전문≫과 비교해보고 두 책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유승간은 일전에 ≪고려비전문≫을 가지고 1881년(광서 7)에 張德容이 간행한 유희해 ≪해동금석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려다가 두 책 모두 오류가 심하여 도중에 그만두었다.[7] 이 말은 섭지선의 ≪고려비전문≫에 수록된 석문의 오류가 꽤 많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1922년에 유승간이 유희해의 초고본 ≪해동금석원≫을 증보 편찬한 인본 ≪해동금석원≫이 있다. 유승간 인본 ≪해동금석원≫에는 ≪고려비전문≫에 수록되고 초고본 ≪해동금석원≫에 미수록된 해동금석문 8종을 덧붙여 있다.[8] 즉, <朝鮮國新鑄鐘銘>, <朝鮮興天寺新鑄鐘銘>, <朝鮮知訓練院事曹公墓碑>, <朝鮮知成均館事方公墓碣>, <朝鮮聽松成先生墓碣, 朝鮮朴公神道碑>, <朝鮮花潭徐先生神道碑>, <朝鮮崇仁殿碑> 등 8종 조선조 금석문이다. 이들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1457년(세조 3)에 세워진 <朝鮮國新鑄鐘銘>이고, 가장 늦은 것은 1613년(광해군 5)에 세워진 <朝鮮崇仁殿碑>이다. 유희해의 ≪해동금석원≫은 수록 금석문의 하한선을 고려조까지로 잡고 있었기에 조선시대 금석문을 모두 빠졌다.

그렇다면 ≪고려비전문≫에 수록된 고려 이전의 해동금석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섭지선이 소장하였거나 열람하였던 해동금석문이 ≪고려비전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희해・이장욱 補訂抄本 ≪海東金石存攷≫에는 유희해가 김명희에게 서찰을 보내면서 <普願寺法印大師碑>가 자기 집에 없고 섭지선이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9]

또 필자는 2000년 초경에 절강성도서관에서 섭지선이 우인 유희해가 소장한 해동금석문 탁본을 빌려보고 題記를 적거나 인장을 찍은 것들을 실사한 적이 있다. 즉, <唐新羅雙溪寺眞鑒禪師碑>, <唐新羅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 <新羅寶林寺普照禪師碑銘>, <唐海東神行禪師碑>, <唐高麗廣照寺眞澈禪師碑>, <遼高麗國居頓寺圓空勝妙塔碑>, <金高麗寶鏡寺圓眞國師碑>, <明高麗神勒寺大藏閣記> 등 8종이다.

이들 해동금석문 탁본은 조인영, 김정희 등 조선 인사들이 우인 청 유희해에게 보내준 것이다. 유희해는 ≪해동금석원≫을 편찬하고자 주변 우인들과 함께 각자 소장된 해동금석문 탁본들을 보여주고 석문 고증에 나섰다. 섭지선도 ≪고려비전문≫을 편찬하기 위해 우인 유희해가 소장한 해동금석문 탁본들을 빌려 석문이나 교감 작업에 나섰다. 탁본을 열람한 후 그 말미에 '借錄一過', '校讀', '借讀並錄全文', '釋文', '校讀', '手校' 등 제기를 남겼고, 「東卿/過眼」(주방인), 「臣印/東卿」(주방인), 「東卿」(주장인) 등 인장을 찍었

7) 劉承幹印本 ≪해동금석원≫ 유승간 서문:「葉氏平安館寫本≪高麗金石錄≫, 嘗欲據以補張刻佚卷, 以與張本譌誤相伯仲, 遂廢然中輟.」

8) 유승간인본 ≪해동금석원≫ 유승간 서문:「又從叔言參事所藏葉氏≪錄≫中得八碑, 爲(劉喜海)方伯著錄所未, 及以無墨本可校勘, 亦列之附錄中.」叔言 參事는 羅振玉을 지칭한다.

9) 유희해・이장욱 補訂抄本 ≪해동금석존고≫ <普願寺法印大師碑>:「燕庭書此種東卿處有, 而敝笥尙無.」 東卿은 섭지선의 호이다.

다. 섭지선이 유희해 소장 탁본을 빌려 열독한 시점은 1817년(가경 정축년; 22)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섭지선은 1817년(가경 22) 또는 그 직후에 ≪고려비전문≫을 본격적으로 편찬했을 것이고, 이로부터 멀지않은 시점에 책자 편찬 작업을 마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조선 우인들이 중개한 <日本殘碑雙鉤本>

본 절에서는 섭지선이 조선 우인들 통해 접촉한 일본금석문인 <日本殘碑雙鉤本>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잔비쌍구본>은 쌍구 방식으로 모사한 일본 <多胡碑>를 지칭한다.

중국 국가도서관에 섭지선이 편찬한 ≪平安館金石文字≫가 소장되어있다. 이 책자에 <일본잔비쌍구본>이 포함되어있다.

<다호비>는 711년(和銅 4) 3월에 奈良 조정이 弁官을 통해 上野國의 片岡郡, 綠野郡, 甘良郡에서 3백호를 합쳐 多胡郡을 설치하여 羊大夫에게 위임한다는 사적을 알린 석비이다.[10] 다호군을 위임받은 羊大夫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이라는 설이 있다.[11] 이 비석은 <那須國造碑>, <多賀城碑>와 함께 일본 삼대 古碑로 꼽힌다. 현 행정구획으로 郡馬縣 多野郡 吉井町 大字池字御門에 소재한다.

<다호비>는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몰되었다가 1754년(寶曆 4)에 平鱗景瑞에 의해 발견되어 강호 문단에 알려졌다.[12] 1764년(영조 40)에 平鱗景瑞가 계미통신사 제술관 南玉, 서기 成大中, 元重擧, 金仁謙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호비> 사적을 논하였다. 平鱗景瑞가 <다호비> 사적을 담은 시를 짓자, 조선 학사들도 모두 화답시를 지어주었다.[13] 九州大學圖書館에 平鱗景瑞가 편찬한 ≪傾盖集≫이 소장되어있다. ≪경개집≫에 남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남옥이 平鱗景瑞가 준 <다호비> 탁본첩을 감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조선 학사들은 平鱗景瑞로부터 九峰山人(克明)이 탁본한 <다호비> 탁본을 얻었다.[14]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780년(정조 4)에 성대중은 宋德文과 함께 예전에 받았던 <다호비> 탁본을 꺼내어 감상하고 비석 刻字의 진가를 논평하는 <書多胡碑>를 남겼다.[15] 순조 연간에 이르러 조선 인사들은 성대중이 소장한 탁본을 모사하여 분분히 청조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때 만들어진 <다호비>는 쌍구본으로 보인다.

섭지선이 쌍구본 <다호비>를 입수한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경로는 상기 발문에서 보듯이 1819년(가경 24)에 옹방강으로부터 쌍구본 <다호비>를 얻었다. 옹방강이 쌍구본 <다호비>를 소장하게 된 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조선 성대중에 탁본이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조선 우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

10) <多胡碑>:「弁官符, 上野國片岡郡、綠野郡、甘良郡幷三郡內三百戶, 郡成給羊, 成多胡郡. 和銅四年三月九日甲寅宣.」 甘良은 甘樂의 이칭이다.

11) 管野英機, <多胡郡設立1300年と渡来人>, ≪世界平和研究≫, 37권 2호(통권189), 2011.05, 쪽40~44.

12) ≪上毛多胡郡碑帖≫ 東郊平鱗 발문:「甲戌之秋, 余遊上毛同子啓觀之.」 갑술년은 1754년(보력 6)에 해당됨.

13) ≪傾蓋集≫ 東郊(平鱗景瑞) <余嘗遊于上野国, 至多胡郡, 偶覩古碑, 乃和銅中置県之碑也. 土人呼為羊大夫碑, 有類羊叔子故事, 故扒傍石題詩如左, 今呈覧, 要諸君高和>; 小華秋月子(남옥) <題和平景瑞所藏多胡碑帖>; 小華龍淵成士執(성대중) <和平東郊韻, 題其所蔵多胡碑後>; 小華玄川子(원중거) <題平景瑞帖>; 小華金士安(김인겸) <題平景瑞多胡碑帖> 등.

14) ≪傾蓋集≫: 龍淵(성대중) <疊和平東郊, 謝<多胡碑>刻之贈>; 동서:「秋月(남옥)云: 所惠古碑, 奇崛可賞, 珍蒨萬萬. 東郊云: 上野國九峰山人, 名克明, 頗好好古之士. 此古本, 卽所翻刻其家也. 秋月云: <多胡碑>得之甚奇, 非足下尙奇之癖, 何以得此.」 동서:「玄川(원중거)云: 碑本昨已受賜, 奇事遇好古發之.」

15) 成大中 ≪靑城集≫ 권8 <書多胡碑>:「多胡碑, 余得之日本. ---- 碑之淪於野土, 不知其幾年, 而平鱗者始得之. 鱗雅善金石圖章, 獲此以爲珍. 好事者亦盛爲稱之. 余之日本, 鱗以此見遺, 欲廣其傳. 然余以其字畫之太詭, 藏之巾笥, 未輒示人, 人亦不之好也. 適芝溪宋德文見而奇之, 曰: 此漢隸古法也. 中國之失傳久矣. 今乃得之夷耶, 咨嗟撫玩, 久不能已. 嗟呼, 物不自異, 待人而顯, 宋儋之書, 不見采於閣帖, 孰知其鍾王者類耶? 深山僻野, 如此而淪沒者何限, 此古人所以重知己也. 鱗而聞此, 必躍然而興矣.」 이 문장은 1780년(정조 경자; 4)에 적었음.

다른 한 경로는 1834년(도광 14) 봄에 김정희로부터 입수했다. 섭지선이 1834년(도광 14) 2월 3일자 김정희에게 보낸 서찰에서 “다호비는 일찍이 李游荷가 쌍구본을 燕庭 劉喜海에게 준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 책자를 얻었으니 심히 흐뭇하다고(多胡碑, 曾見李游荷以雙鉤本寄劉燕庭, 今得此冊, 甚愜願也)”고 했다.[16] 여기의 李游荷는 趙游荷의 오기이다. 游荷는 趙秉龜의 호이다. 유희해 정고본 ≪해동금석원≫에 조병귀 발문이 적힌 <日本國多胡郡碑>가 수록되어있다.

섭지선은 조선 측으로 제공된 <다호비>를 가지고 정밀 분석에 나섰다. 섭지선의 <일본잔비쌍구본> 발문에 비석 소재지의 지리와 명칭, 작성자의 관직과 변천, 비문의 결락 여부, 비각 글씨체의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놓았다.[17] 청말 楊守敬은 섭지선의 발문을 자기 책자에 여러 번 옮겨놓을 정도로 중시하였다. 다만 섭지선은 <일본잔비쌍구본> 제목에서 보듯이 <다호비>가 일부 잔결된 것으로 보았는데, 기실 <다호비>의 비문은 결략 없이 온전히 남아있다.[18]

5. 결론

본고에서는 청 섭지선이 조선 우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오천 제영시첩과 해외 금석문 연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 전반기에 조선과 청조 사이에는 외교 사절을 통해 학술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청 섭지선은 연경에 들어온 많은 조선 우인들과 교유한 친조선 인물이다. 양측 사이에 맺어진 돈독한 우정은 곧이어 학술 교류와 연구로 활발하게 이어졌다. 섭지선 고거는 연경(북경) 호방교 평안관이다. 현 호광회관이다. 평안관 곁에는 평소에 흐리다가 자시와 오시에만 맑은 샘물이 나오는 신비한 자오천이 있는데, 당시 청조 문인들이 언급할 정도로 유명했다.

1816년(순조 10)에 섭지선은 이조원에게 자오천의 기이한 현상을 소개하고 조선 인사들에게 제영시를 지어주기를 요청했다. 이조원이 귀국한 후 여러 인사들로부터 받은 제영시를 모아 ≪子午泉詩帖≫으로 만들어 섭지선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섭지선은 연경에 들어온 조선 사절들에게 청하여 제영한 시편들을 계속 첩자 뒤편에 덧붙여놓았다. 아쉽게도 오늘날 ≪자오천시첩≫의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섭지선은 금석학 연구에 일가견이 있었다. 섭지선은 김정희, 김명희 등 조선 우인들로부터 조선에 소재한 해동금석문 탁본들을 얻고, 또한 유희해, 이장욱 등 주변 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동금석문 탁본들을 빌려 ≪고려비전문≫을 편찬했다. ≪고려비전문≫은 전 4권이고, 신라 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해동금석문 58종이 수록되어있다. ≪고려비전문≫의 수록 종수는 유희해 정고본 ≪해동금석문≫에 비해 23종 적으나, 수록 범주는 조선전기의 금석문도 포함되어 있어 정고본 ≪해동금석문≫에 비해 더 광범위하다. 훗날 무전손, 민후 임씨가 소장했으나, 현재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섭지선은 당시 고증학을 중시하는 학풍에다 금석학을 좋아하는 조선 우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 금석문까지 관심 영역을 넓혔다. <다호비>는 일본 삼대 古碑 중의 하나이다. 1764년(영조 40)에 성대중, 남옥 등 조선 학사들은 平鱗景瑞로부터 <다호비> 탁본을 얻었다. 이후 조선 우인들이 성대중 소장 <다호비>

16) 藤塚鄰著, 朴熙永譯: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 하우스, 서울, 1994.04, 쪽323~324.

17) <日本殘碑雙鉤本> 섭지선 발문:「日本域地, 內有五畿, 外有七道, 上野國爲東山道所屬八國之一, 本名上毛野, 在渡瀨河之西, 凡隸郡十四, 片岡、甘良、多胡、綠野皆其所屬. ‘甘良’, ≪志≫作‘甘景’. ‘中弁’之職有左右之分, 當正五位下, 秩爲朝議大夫, 在國爲重職, 擇華族中有才名者居之, 執行宮中之事. ‘太政官’, 始設於天智天皇十年, 至孝德天皇時, 改爲‘太師’, 後仍復原稱, 爲之文官之至極, 助理萬機. ‘左右大臣’, 設於孝德天皇時, 奉行諸政, 在太政之次. ‘親王’以國后子改立者, 初敍三品. 妃子初敍四品, 任國守事者, 惟上野、上總、常隆三國有之, 他國則否. ‘正二位’秩爲特進上柱國. ‘多治比’, 島名. ‘眞人’、‘藤原’, 皆賜姓; ‘石上’, 亦姓也. 此文首尾殘闕, 似係題名. 書勢雄偉, 類上皇山樵≪瘞鶴銘≫字.」

18) ≪日本金石志≫ 권1(≪日本圖經≫ 권63) <建多胡郡辨官符碑> 傅雲龍:「此碑曾流傳中國, 葉氏雙鉤刻本, --- 呼爲日本殘碑, 實未之殘.」

탁본을 쌍구본으로 모사하여 청조 인사들에게 전달되었다. 섭지선은 조선 우인이 옹방강에게 보내준 쌍구본과 김정희가 보내준 쌍구본을 가지고 <다호비>를 중모하고 비문의 전래 과정, 소재지, 작성자, 각자체 등을 고찰하여 <일본잔비쌍구본>을 작성했다. 나중에 ≪평안관금석문자≫의 일종으로 인출되었다.

끝으로 본 논문을 마치면서 학술적 의의를 정리해본다. 예로부터 각 국가 간의 교류 방향은 다방향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주고받는 쌍방향을 뛰어넘어 제삼국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현상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학술 교류도 이 원칙 아래 다양한 경로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섭지선과 조선 학자들 간에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의 학술 교류가 다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庚子光復; 燁爀之樂室]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정선경**

<目 次>

1. 들어가며
2.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3. 나오며

1. 들어가며

"동해 바다의 어떤 조개는 배가 고플 때마다 연안까지 밀려와 조개 껍질을 활짝 벌린다. 그러면 안에서 기생하는 조그만 게가 기어 나오는데, 실처럼 생긴 한 줄기 붉은 금이 게와 조개 사이를 연결시키곤 하였다. 게는 껍질로부터 몇 자나 떨어질 수도 있었다. 먹을 것을 사냥해 충분히 포식한 게가 다시 조개에게 돌아가면 비로소 껍질이 닫히는 형국이었다. 어떤 사람이 몰래 붉은 금을 끊었더니 조개와 게 두 생물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고 한다. 이 또한 상식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1)]

청대 문언 단편소설집 『聊齋志異』에 실려 있는 「蛤」의 짧막한 기록은 21세기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개와 게는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인간이 두 생명체의 일상에 개입하면서 조개와 게의 공생 관계는 깨졌고 자연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과 주위의 생명체는 공동체의 규율과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의 매커니즘 속에서 생활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주변 존재와의 관계망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중국 고유의 생태적 상상력과 생명의식이 담겨진 작품을 살펴보면서 생명의 그물로 연결된 개체들의 共進化 과정을 성찰해 보고, 고전에서 현대로 변통될 수 있는 생태적 세계관과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의식

『요재지이』의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과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낯설고 이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인간은 동물, 식물, 곤충, 조류, 심지어 무생물인 돌과 감응하며 다양한 이물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한다. 호랑이, 사자 등의 맹수뿐 아니라 들개, 쥐, 소, 개구리, 토끼, 악어, 벌, 귀뚜라미, 조개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생명체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인간과 이물

* 본 발표문은 저자의 「『聊齋志異』의 생태적 세계관과 의미 고찰」(『동아시아 고대학』 제55집, 2019, 9)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글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1)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全本新注聊齋志異』 下, 人民文學出版社, 1989, 1332쪽. 김혜경 옮김의 『요재지이』 6, 민음사, 2002, 402쪽. 이 글에서 인용한 『요재지이』의 번역문은 포송령 지음, 김혜경 옮김의 『요재지이』 1~6(민음사, 2002)을 근거로 했다.

이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2)]

1) 호혜적 관계와 공생의식

『요재지이』는 인간과 이물의 호혜적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가 많다. 여기서 호혜적 관계는 인간과 이물이 교감을 통해 선행과 보응, 상호 협동하는 관계를 포괄한다. 그 중에는 인간이 이물에게 도움을 주고, 이물이 인간에게 보답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선행과 보응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西湖主」, 「花姑子」, 「義犬」, 「荷花三娘子」, 「橘樹」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악어, 노루, 개, 여우, 감귤 나무 등 다양한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물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배우자를 구해주거나 생명을 살려주거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인간과 이물은 교감을 통해 선행과 보응이라는 인과적인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蛇人」 등 인간과 이물이 동시적으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생하는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다. 상부상조의 이야기 중에는 국화 남매의 정령과 인간의 공생을 그린 「黃英」이 대표적이다.[3)] 국화를 살뜰히 챙기는 마자재는 도생과 황영 덕분에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다. 마자재는 대대로 국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어느 날 진귀한 국화의 모종 두 가지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 국화 재배법에 대해 견해가 탁월한 도생과 그의 누나 황영을 만나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남매는 마자재가 빌려준 작은 초가에 살면서 국화밭을 가꾸었다. 마자재의 살림살이는 너무 가난했기에 남매의 끼니를 해결해 주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남매의 국화 재배 기술은 뛰어났고 그들의 손을 거치면 시든 국화도 살아나게 되었다. 남매는 국화를 잘 가꿔서 아름답고 오묘한 품종으로 키워 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러 드나들면서 마자재와 그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해졌다. 도생은 남방의 진귀한 화초를 싣고 와서 잘 길러내 판 돈으로 저택을 새로 짓게 되었고 갈수록 부유해지게 된다. 마자재의 아내가 병들어 죽자 황영과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면서 마자재는 더 부유하게 되었다. 이후 지나치게 술을 마신 도생이 땅에 쓰러져 국화로 변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마자재는 황영과 도생 두 남매가 국화의 정령임을 알게 된 후 더욱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이후 도생의 영혼이 깃든 술향기 그윽한 국화를 마당에 심고 가꾸면서 도생을 기리며 살아갔다는 내용이다. 마자재는 풍류를 중시하고 안빈낙도를 꿈꾸는 선비였기에 국화를 팔아 생계를 잇는 남매를 처음엔 비난하기도 했지만 도생과 황영 남매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현실성 없는 마자재의 살림살이를 도우며 서로 의지해서 살아갔다.[4)]

『莊子·馬蹄』에 보면, “지극한 덕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새나 짐승과 같이 살고, 만물과 무리를 이루어 함께 나아간다”[5)]고 했다. 최고의 덕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인간과 만물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며 서로 의존하여 공존한다. 죽을 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구해주고 인간에게 필요한 상아를 얻었다는 「象」, 서로 돌봐주고 의지하며 살았던 「蛇人」, 생계에 필요한 먹잇감을 가져다 주며 인간과 호랑이가 서로를 편히 여겼던 「趙城虎」, 뛰어난 국화 재배 기술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살아갔던 「黃英」은 모두 호혜적인 공생과 상호 의존을 통해서 인간과 이물이 서로의 생명을 북돋울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의존의 그물망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며 살아갈 수 있다.

---

2) 포송령은 어려서 『老子』·『列子』·『莊子』 등을 읽으면서 성장했고 “千古之奇文, 至莊列止矣”라 하여 『列子』와 『莊子』를 천고의 기이한 문장이라고 극찬했다. 평생을 유학자로서 살아갔지만 『莊列選略』을 편찬한 바 있듯이 노장 사상에 주목했기에 본 발표문에서 『莊子』의 사상을 인용하여 포송령의 생태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3)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全本新注聊齋志異』 下, 人民文學出版社, 1989, 1483~1488쪽.

4) 劉衍青은 「黃英」이야 말로 『요재지이』 중에서 중국전통문화 속 인간과 만물의 일체된 생태의식을 가장 생동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劉衍青, 「『聊齋志異』生態表达的價值和現實意義」, 『寧夏社會科學』, 2009年 第3期 127~130쪽)

5) “夫至德之世, 同與禽獸居, 族與萬物並.”(陳鼓應, 『莊子今註今譯』 上, 中華書局, 2012, 274쪽; 안동림 역주, 『장자』, 현암사, 2014, 260쪽) 이하 『장자』의 번역문은 안동림 역주본을 인용 및 참조했다.

2) 대립적 관계와 이상세계의 추구

인간과 이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고 대립적이며 상대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해를 가하는 유형들이 있다. 인간과 이물의 대립 이유는 대부분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금전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기타의 이유로 함부로 타자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빼앗고, 이물은 인간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 복수하거나 응징한다.

「鴿異」에서 비둘기의 신은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 때문에 비둘기들은 죽게 되고 인간과 비둘기의 동조 관계는 파괴된다. 「蝎客」에서 "전갈을 너무 많이 잡아 죽여서 전갈 귀신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할 판이니 구해 달라(傷生旣多, 今見怒於蠆鬼, 將殺我矣, 急垂拯救!)"는 전갈 상인의 말은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결과가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되돌아옴을 경고한다. 「猪婆龍」에서는 저파룡을 팔아온 상인들의 배가 전복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고,[6] 「鹿銜草」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풀을 얻기 위해 사슴의 입에서 녹함초를 빼앗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7]

「九山王」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우 가족들을 몰살시킨 인간에 관해 이야기한다.[8] 호의를 베풀었으나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이생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한 것은 공생 관계를 파괴한 인간의 잔악함에 대한 경고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생명들을 처참히 몰살시킨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그 밖에 「禽俠」에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물고기를 물고 날아가던 황새를 활로 쏘아 맞춘 병졸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9] 특별한 이유 없이 날아가는 황새를 쏘아 맞추어 죽이려 했던 병졸은 수년 후 결국 자신의 화살에 죽게 된다.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돌아온다. 상대의 악행에 대한 보복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조화로움을 갈망하는 이상적인 염원이 우회적으로 투영되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을 의심하여 상호 공생 관계를 파괴하는 유형으로는 「葛巾」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의심이 결국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잃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준다.

양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주체자는 인간이다. 타자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상대방을 믿지 못한 주체들은 인간이며 그들의 행동은 인간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세속적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전갈을 잡아 팔며, 특별한 이유없이 여우를 잔인하게 죽이고, 신뢰를 저버린 의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낸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물의 생명을 빼앗거나 피해주는 행동에 대한 댓가는 결국 인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莊子・列禦寇』에 보면, "그것을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다니 어찌 편견이 아니겠느냐! 불공평한 척도로 사물을 공평하게 하려는 이상 그 공평은 결코 참된 공평이 아니다"[10]는 기록이 있다. 또 『莊子・齊物論』에도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취할 것도 없다"[11]라 했다. 이것을 위해 저것을 빼앗고 내 이익을 위해 타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공멸의 단초이다.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인간중심적인 행동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며 상생의 가능성을 단절시킨다.

대립적 관계 이면에는 인간과 이물의 조화로운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연보호 사상을 강조하고 상호 공생하고픈 이상 세계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내포한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연을 유기체적인 생명의 창조와 완성의 과정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서 생명의 가치와 그들 상호

6)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全本新注聊齋志異』上, 人民文學出版社, 1989, 217쪽.
7)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全本新注聊齋志異』中, 人民文學出版社, 1989, 1181쪽.
8)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全本新注聊齋志異』上, 人民文學出版社, 1989, 246~250쪽.
9)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全本新注聊齋志異』中, 人民文學出版社, 1989, 1102쪽.
10) "奪彼與此, 何其偏也. 以不平平, 其平也不平."(陳鼓應,『莊子今註今譯』下, 中華書局, 2012, 899쪽)
11) "非彼無我, 非我無所取." (陳鼓應,『莊子今註今譯』上, 中華書局, 2012, 63쪽)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질서의 원칙을 발견하려 노력해 왔다.[12] 인간이 타자와 호혜적으로 공존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체의 모든 '관계적' 행위는 정태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호환적 관계와 평등의식

호환적 관계라 함은 인간과 이물의 관계가 상호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의 호환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단절적이고 고착화된 각자의 경계를 와해시켜 생명 가치의 평등함을 지향한다. 앞서 호혜적 관계의 유형에서는 인간과 이물이 상호 의존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서 협동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호환적 관계에서는 자신의 목숨만큼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존재 가치의 평등함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이물로 변신하기도 하며 사후에 이물로 환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이 자연을 도구화하고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물이 인간을 선택하는 주체자로서, 인간은 이물의 선택을 수용하는 피동자로서 전개되기도 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주동적인 위치에서 행동하는 이물과 피동적인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인간의 이야기, 인간과 이물의 상호 변신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香玉」은 모란꽃의 정령과 사랑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모란꽃이 인간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인간이 모란꽃으로 환생하기도 한다.[13] 황생은 하청궁에서 글을 읽으며 지내다가 각각 흰 옷과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을 알게 되고, 흰 옷 입은 향옥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얼마 후 향옥은 처참한 모습으로 황생에게 찾아와 흐느끼며 곧 헤어짐을 예고했다. 이튿날 하청궁의 백모란 한 그루가 파헤쳐져 옮겨간 일이 있었고 이로써 황생은 그녀가 백모란의 정령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황생은 향옥을 추모했고 황생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받은 꽃의 신이 향옥을 환생시켜 준다. 황생은 환생한 향옥과 다시 사랑하며 자신이 나중에 영혼을 둘 수만 있다면 향옥인 백모란 왼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황생이 하청궁을 지키는 도사에게 유언하길, 백모란 옆에 붉은 모란이 자라나면 자신이니 잘 돌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가 죽자 과연 붉은 모란이 자라났다. 도사가 죽고 난 후 붉은 모란을 베어내자 백모란도 결국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황생은 백모란의 정령인 향옥과 담쟁이 덩굴의 정령인 강설이 인간이 아닌 이물이었음을 알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정을 돈독히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후에 기꺼이 모란으로 변해서 향옥 옆에서 살아가고자 했다. 임종 전 슬퍼하는 아들들에게 "지금은 내가 태어나는 때이지 죽는 날이 아니다(此我生期, 非死期也)"고 말한다. 포송령은 「會天意序」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내심세계가 우주 생성의 근본 문제와 만물의 질서를 바라보는 출발점임을 밝히고 있다. 마음으로 천지와 우주를 관찰하게 되는데 자연 질서에 따른 변화는 우주만물의 생성과 존속의 대역정임을 밝히고 있다.[14] 「석청허」처럼 인간이 무생물인 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삭감하고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으며, 「향옥」처럼 사후 꽃으로 환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사씨는 감정이 지극한 사람에게는 귀신이나 신도 감응한다며 꽃은 귀신이 되어서도 사람을 따랐고 사람은 혼백을 꽃에다 두었다면서 한 사람이 죽자 다른 둘도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기록했다.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드러난 문장을 높게 평가했던 포송령은 돌의 정령과 인간의 교감, 인간과 모란의 상호 환생을 통해서 '萬物皆有情'의 세계관을 평등한 생명의식으로 담아냈다.

인간과 이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성적 존재의 이야기에도 주목할 수 있다. 인간과 여우 사이에서 태어

12) 김기주, 「동양 자연관의 비교철학적 연구 - 동서자연관의 거시적 비교와 전망」, 『동양철학』 제16집, 2002, 105쪽.

13)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全本新注聊齋志異』 下, 人民文學出版社, 1989, 1578~1584쪽.

14) "天地之始終, 猶一人一物之始終也. 欲知天地之始終, 不於天地求之, 得之方寸中耳. 何也天地在大化之中, 不營日暮之在天地大化在方寸之中, 亦猶人地之在人化也."(蒲松齡 著, 路大荒 整理, 『蒲松齡集』 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56쪽)

났기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물인 嬰寧은 인간과 이물의 단절된 경계를 해체시킨다. 「嬰寧」에서[15] 왕자복은 정월 대보름에 소풍을 나갔다가 아름다운 영녕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린다.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어 상사병이 났지만 산 속에서 이종사촌벌인 그녀와 재회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혼인했다. 배운 게 없어서 늘 철없이 웃기만 했던 그녀는 알고 보니 인간과 여우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였고, 자신의 여우 어머니 시신을 거두어 아버지와 합장시키기를 소원하는 효심 가득한 소녀였다. 왕생이 그녀를 도와서 여우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 소원을 풀어 주었고 왕자복과 영녕은 아들까지 낳고 잘 살게 된다. 왕자복은 여우의 딸인 영녕과 결혼해서 살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여우이고 그녀를 키워준 존재가 귀신임을 알았으나 두려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영녕은 인간 사회의 교육과 예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천진하게 웃으며 주위를 항상 화해의 분위기로 이끄는 존재였다. 여우 어머니를 둔 영녕은 인간적 질서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함은 자신이 생활했던 아름다운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연상시킨다. 첩첩한 녹음, 인적이 없는 곳 등 그녀가 자라왔던 환경에 대한 묘사는 영녕이 태고적 자연미와 조화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이며,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16] 인간과 이물 사이에서 탄생한 영녕이 원시적인 자연질서가 보존된 이상적인 공간에서 자랐으며, 인간인 왕자복과 결혼해서 사는 것은 인간과 이물의 화해와 조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일찍이 『莊子・秋水』에 河伯이 北海若에게 귀천과 대소의 구분을 묻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 귀천은 없소. 그러나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를 귀하다 하고 상대방을 천하다 하오”[17]라고 대답하는 구절이 있다. 천지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 인간과 이물은 존재적으로 평등하다. 사물은 생겨나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한 개체의 뜻에 구속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도와 상충된다.[18] 장자는 대자연의 무궁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인간의 생명은 氣가 모인 것으로, 인간의 생명 역시 다른 만물들과 구별됨 없이 서로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상관적 사유의 철학을 강조한다.[19] 인간과 이물의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며 서로의 경계를 차등적으로 단절시켜 폄하할 수 없다. 포송령의 物我一體의 세계관은 생명이 연속적이고 호환적이라는 상상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3. 나오며

馬瑞芳이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녹색 환경보호 소설이라고 평가한 바대로, 『요재지이』는 인간과 대자연의 각종 생물이 소통하는 최고의 생태문학 작품이며[20] 중국 전통의 생태의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요재지이』는 인간과 이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과 이물의 이야기들은 호혜적이던 대립적이던 호환적 관계이던 모두 인간중심적인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앞서 세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일정 부분 중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도 우리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고전에 깃든 인문적 상상력과 21세기 현실의 생태학적 논쟁을 같은 층위에서 논의하기에 서로 어긋난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이론적인 문제 의식과 실천적인 해결 방안이 나란히 나아가기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오늘날 생태, 환경 문제의 논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

15)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全本新注聊齋志異』 上, 人民文學出版社, 1989, 159~168쪽.

16) 姚曉怡, 「人與自然圓融共舞— 蒲松齡聊齋誌異的生態觀念」, 『柳州職業技術學院學報』, 2007年 第3期, 127쪽.

17) “以道觀之, 物無貴賤. 以物觀之, 自貴而相賤.”(陳鼓應, 『莊子今註今譯』 上, 中華書局, 2012, 454쪽)

18) 정선경, 「『莊子』의 글쓰기와 생태적 상상력」, 『중국문화연구』 제40집, 2018, 7쪽.

19) 송영배, 「동양의 상관적 사유와 유기체적 생명의 이해」(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편, 『생명의 이해 - 생명의 위기와 길 찾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25쪽.

20) 馬瑞芳 著, 『馬瑞芳趣話聊齋愛情』, 上海文藝出版社, 2010, 4쪽.

기고 호혜적 생명의 가치를 부활시키려는 인문학적 노력은 실천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를 무분별하게 희생시키고 자연을 난개발해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 생태계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인간이 위계적인 폭력으로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시안적 사고관에서 기인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명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호혜적인 공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인간의 시각과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결국 그 시각과 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

21) 김종원, 『지구환경 위기와 생태적 기회』,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0, 20쪽.

11月 21日(土) 14:20~15:50

현대문학(2)

❖ 근·현대문학 연구

闫真真(平顶山学院) "文学通国学之邮"——钱基博的文学观

한지연(중앙대) 錢基博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語體文範』을 중심으로

김순금(청운대) 「阿Q正传」과 「马伯乐」의 풍자성에 대한 비교 연구

맹 유(경북대) 浅析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

“文学通国学之邮”——钱基博的文学观

闫真真*

<目　次>

1. 文字・文章・文学：国文教育中的文学
2. 从兼顾情知到以情为归－－“文学”定义的确立
3. “舍文字无以窥圣人之道”与“文学通国学之邮”

1. 文字・文章・文学：国文教育中的文学

该研究聚焦于中国晚清民国时期的一位国学家、古文学家、教育家钱基博先生在新旧文化争锋之际，以文化守成主义者的立场，对中国传统的“集部”之学向现代“文学”转型问题时的理论思考与实践探索。

钱基博，钱基博（1887-1958），字子泉，又字哑泉、子潜，别号潜庐，江苏无锡人，也是享誉世界的大师钱钟书的父亲。治学“务为浩博无涯涘”，兼及四部，旁涉百家。尤擅集部，“自谓集部之学，海内罕对”[1]，这得益于他淹贯经、史、子、百家学术的渊博学识和会通的治学理念，尤其是以史学观照文学研究，注意辨别历代文学兴废得失、发展变化，以推知现代文学的发展路径。着有≪中国文学史≫、≪现代中国文学史≫、≪骈文通义≫、≪韩愈志≫、≪<文心雕龙>校读记≫、≪<古文辞类纂>解题及其读法≫、≪国学文选类纂≫、≪近百年湖南学风≫等，其中≪现代中国文学史≫、≪中国文学史≫是钱著影响较大者。其他，如文字学、兵学、文献学、文物研究、国民外交、地方志的编纂，甚至武侠小说等皆有著述。

钱基博在≪国学必读≫单独列上半篇为“文学通论”，认为“舍文学无以通国学之邮”[2]。这一表述显然是化用了清代学者曾国藩“舍文字无以窥圣人之道”[3]的说法。以“文学”代替“文字”，“国学”代替“圣人之道”。不仅仅是文字上的替换，在内涵上也有很大的转变。这一变化既有区别于曾国藩的文章论，也有钱基博十年间对文字・文章・文学三者间关系的转变，进而逐渐形成自己文学观。可以说，“文学通国学之邮”是钱基博最根本的文学立场，与传统的“文以载道”和“因文以证道”即有区别也有联系。

同时，谢无量的≪中国大文学史≫中带来的的西方学者对文学的定义对钱基博文学观的形成影响较大。尤其是庞科士（Pancoast）的文学分广义和狭义，德・昆西（Thomas De Quincey）的文学分主知和主情两种，这两种观点直接影响了钱基博对文学的定义。最终，钱基博选择了德・昆西的文学二分法，并与他熟悉的传统文论相结合，在1933年出版的≪现代中国文学史≫中确定对文学的定义。

钱基博的文学观是在国文教学中形成并逐渐成熟，同时又把其文学观念落实到他编写的各类国文教材当中。在教学相长的国文教学过程中，钱基博将将新式的“文学”科与传统的“集部之学”相结合，逐渐建构起自己的文学观。

在钱基博早期的国文教学的论文中，国文即是中国文字。如1915年3月发表在≪教育杂志≫上的≪国文教授私议≫中即认为国文就是研究中国文字的学科，“夫蕴之于心谓之意思，宣之于口谓之语言，抒之于笔谓之文

* 中国平顶山学院

1) 钱基博≪潜庐自传≫，傅宏星编≪钱基博年谱≫附录二，第259页，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07年版。

2) 钱基博≪国学必读・序言≫，≪国学必读≫，第3页，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12年版。

3) (清) 曾国藩≪致刘蓉书≫，≪曾国藩全集・书信≫第1册，第7页，长沙：岳麓书社1990年版。

字。文字者，言语之有伦有序者也。学为文字者，不过整齐其意思，条理其话言而已耳。”[4]心有其意，用口头说出来的是语言，写成书面语的就是文字。这一定义与陈澧对“文”的诠释非常相似，陈澧说：“夫人必其心有意，而后其口有言，有言而其手书之于纸上，则为文。”[5]

又多有“文字”代指“文章”，或“文章”、“文字”通用，比如1915年出版的≪中国文法说例≫中说：“以仆所睹记，论中国文字之分类者盖莫予弟孙卿之序≪文章举隅≫若矣。其辞曰：文章分类之法多矣。”[6] “文字”、“文章”都是指有条理有思想，即有伦有序的书面语。“文法之为义，与文学韦，盖学者即物穷理之谓；而法则设事而知其涂术者也。”[7]文法就是文章的写法，而文学是讨论文章格式与文法的学问。这一文学定义显然受到章太炎的影响，但又有区别。

钱基博始终强调“文章”要有伦有脊，伦即文章的层次，脊即文章的思想，形式上的审美和内容上的言志是文章的二要素，缺一不可。相对而言，在国文教学中，钱基博更为看重内容。他认为文章是“志”的依托，“必理之是非既明，然后可以论文之高下。夫所谓文者贵在敷陈有序，而词句之修次之。”[8]因此在修改学生作文时，他认为其文通理不通者，其病在读书不求甚解，喜用词采，当令其专择条达明畅、朴实说理之文熟读之；理通文不通者，应就其原意删润，不可以其少词采全行抹改。

对文、理两方面的要求，使得钱基博一度认为“文学”与“文章”“非同一物”。所谓“文章”，“盖成事成文曰章，章者，条也，程也。文之综事布意，有条不紊者，谓之文章。六朝人谓之笔，今人之所谓散文。”而“文学，在欧西则为美术之一”，“乃以词藻而想化自然之美术也。其范畴属于情感，不属于事实。其主旨在导人之意志使高尚，非欲以之濬发智虑。凡楚辞之骚，汉人之赋，南朝之诸体文，唐人之诗胥隶焉。”[9]钱基博认为“文章”是六朝人所说的“笔”，不拘泥于形式，以立意为宗，用以阐明历史事实，是非真理，濬发智虑，以补方来，主知；而“文学”是欧西的产物，美术的一种，对应于六朝的“文”，富于辞藻，用于抒发情感，主情。这种对“文学”的理解更近于当时的“纯文学观”。但钱基博却认为“国文”，即中国文字，也就是章太炎所谓有句读之文辞，包含“文章”与“文学”两种，“故叙国文之沿流变迁，当赅文章、文学两者而兼综之，不可用其一缓其二也。”[10]

2. 从兼顾情知到以情为归——“文学”定义的确立

将“国文”与“文学”区别开来以后，钱基博对“文学”的认识更偏于狭义的文学，与现代纯文学观比较接近。但他坚持的却是大文学观，将文和笔两种都纳入国文当中，但又有主次、轻重之分。反映到国文教学中，就是通过指导学生能够掌握中国的语言文字，以达到发表自己的思想，兼以涵养学生的文学兴趣。“掌握中国的语言文字”就是能使用汉字，以绵密有组织的文法写出有文有理的“文章”。“涵养文学兴趣”即是“兼”，说明在国文教学中涵养文学兴趣为辅，以能作“文章”为主。“文学“与“文章”划为两截，以训练写作为主，涵养文学为辅，国文教学偏重实用。

这一认识到1918年发生了变化。钱基博从谢无量的≪中国大文学史≫中吸取了庞科士文学分广、狭两义的做法，综合亚罗德和德・昆西广义的文学观，结合六朝时期出现的“文学”的狭义趋势，在1918年暑期国文讲义之≪国文研究法≫中，第一次提出了“文有二义”，广义的指“述作之总称。凡可写录，着为文字，皆此类也，是谓广义。”狭义的“述作之殊名。非可漫喻，惟当宗主情感，以娱志为归，而其行文尤贵奇偶相生，音韵相和”，“必

4) 钱基博≪国文教授私议≫，傅宏星校订≪国文教学丛编≫，第8页，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13年版。
5) （清）陈澧≪复黄芑香书≫，黄国声主编≪陈澧集≫第1册≪东塾集≫卷四，第179页，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年版。
6) 钱基博≪中国文法说例≫，傅宏星校订≪集部论稿初编≫，第2页，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12年版。
7) 钱基博≪中国文法说例≫，≪集部论稿初编≫，第3、4页。
8) 钱基博≪无锡县立高等小学国文试验成绩报告书≫，≪国文教学丛编≫，第41—42页。
9) 钱基博≪中学校教授中国文学史之商榷≫，≪国文教学丛编≫，第39—40页。
10) 钱基博≪中学校教授中国文学史之商榷≫，≪国文教学丛编≫，第40页。

其综缉辞采，错比文华，事出于沉思，义归于翰藻而后可也。”[11]

但钱基博认为狭义的“文”有三不可通：其一，古人论文必情深，不必拘泥于形式。如诸葛亮之≪出师表≫感动千古，却并不雕琢文藻。其二，文以载道，不仅仅只为“言情”。其三，以≪文选≫非韵文不得入选的的标准，却混入了不少散文，可见狭义的文学标准于中国文学的事实情况行不通。所以，钱基博坚持广义的文学：“述作之总称。用以会通众心，互纳群想，而表诸言语兼发知情。知以治教，情以彰感。譬如舟焉，知如其舵，情为帆棹；知标理悟，情通和乐，得乎人心之同然，斯为合矣！”[12] “述作之总称。用以会通众心，互纳群想，而表诸言语”，这是谢无量译入的亚罗德的广义文学定义，而“兼发知情”，并以舟舵为喻则是采自德・昆西的文学定义。

到1923年2月≪我之中国文学的观察≫，钱基博对狭义的文学注重辞藻，拘泥形式，独尊韵文的特点作了强化，指出“狭义的文学，专指美的文学而言。所谓美的文学者，论内容则情感丰富，而不必合义理；论形式则音韵铿锵，而或出整比；可以被弦诵，可以欣赏”，[13]就是≪文选≫所谓“赞论之综缉辞采，序述之错比文华，事出沉思，义归翰采”者为旨归。所以，狭义的文学限于韵文，也就是说狭义的文学可谓是韵文家的专利。

1932年面世的≪现代中国文学史≫中对“文学”分狭义和广义两种，狭义的文学定义不变，对广义的文学则进一步申发。钱基博认为广义的文学包括所有著述中抒发情智的文章，涵盖四部之学，而不限于传统的集部。体裁上，钱基博将文学分为文、诗、词、曲、小说，但在内容选材上却遍及经、史、子、集四部，从中抉发文心，剖析流源。其所抉发的“文心”以言情言知为界定，即以文学的功能论。这一界定标准承袭了经由谢无量≪中国大文学史≫介绍的德・昆西的文学概念。

钱基博最早征引此论见于1918年11月出版的≪国文研究法≫，也就是谢氏文学史一出，这一文学观点即为钱基博所接受，并随后写入≪现代中国文学史≫中。钱基博之所以迅速接受谢无量的转引，应是与他对≪文心雕龙≫所树立的衡文标准的认同有极大关系。钱基博≪<文心雕龙>校读记≫中认为刘勰≪文心雕龙≫虽“好为偶对，骈四俪六”，不免为风气所囿。但实为“发愤郁结之所为作。其大指归于振经诰以抶雕藻，先理道而后文华”，[14]衡文以“衔华佩实”为准绳：“衔华”谓“秀气成采”，主情；“佩实”谓“精理成文”，主知。“唯衔华而佩实，乃圣人之雅丽”[15]，文章有理通道，辅以文辞，兼顾情知者方为至文，如≪易≫、≪老≫、≪左≫、≪史≫等。后人多有偏废，或主情或主知。

沈天葆≪文学概论≫在定义“文学”时，参考了中、西方的诸多意见，最后认为“文学可分为广狭二义。狭义的文学，是专指美的文学而言的。所谓美的文学，论内容则情感丰富，而不必合义理，论形式则音韵铿锵，而或出于整比，可以阅诵，可以欣赏。广义的文学，是一切述作的总称，用以会通众心，互纳群想，表白于文章，展发‘知’和‘情’。‘知’治教而生理悟。‘情’生感而通快乐。”[16] 很显然，钱基博这种广义、狭义两种文学概念的观点在当时曾得到学者的认同。

但是，钱基博却在1939年出版的≪中国文学史≫中否定了“广义文学”的提法，而是以“六朝以前的文学”代指。他认为“今之所谓文学者，既不同于述作之总称，亦异于韵文为文。”[17]虽然对“文学”的描述与1932年的“广义文学”基本一致，但更为强调“文学者兼发情智而以情为归”[18]。从情、知并重，发展到以情为归，虽然钱基博对文学界定的范围仍然遍及经史子集四部，但在主旨上已认同主流的文学标准，即主情。这说明，随着现代文

11) 钱基博≪国文研究法・正义≫，≪戊午暑期国文讲义汇刊≫，第3页，上海：中华书局1918年版。
12) 钱基博≪国文研究法・正义≫，≪戊午暑期国文讲义汇刊≫，第4页。
13) 钱基博≪我之中国文学的观察≫，≪国文教学丛编≫，第81页。
14) 钱基博≪<文心雕龙>校读记・跋≫，≪集部论稿初编≫，第279-280页。
15) 钱基博≪<文心雕龙>校读记・征圣≫，≪集部论稿初编≫，第246页。
16) 沈天葆≪文学概论≫，第5页，上海：上海梁溪图书馆1926年初版。
17) 钱基博着，曹毓英校订≪中国文学史・绪论≫，第5页，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11年版。
18) 钱基博≪中国文学史・绪论≫，第5页。

学观念的深入人心，现代文学理论的逐步成熟，现代文学作品的层出不穷，钱基博的文学观也在发生改变。他所忧心的中国固有的文学传统并没有被西方文学全盘取代，反而在中西交融、新旧对话中实现了现代化转型。

3. “舍文字无以窥圣人之道”与“文学通国学之邮”

曾国藩“舍文字无以窥圣人之道”论实际上是受到乾嘉时期，汉学与宋学都在不断讨论的“义理、考据、词章“三位一体论的影响。两大学派都认为三者应该相互协调配合，缺一不可，但又各自有偏重。时过境迁，道咸时期的曾国藩则走向汉宋合一，归以古文，由学文的方法以窥道。这与戴震一派提出的“以词通道”的方法有极大的差别。钱基博并非经学家，虽有涉猎，但始终不以经学名世，这就决定了他与戴震考据、词章最终为通经服务的经学立场大相径庭。何况，戴震始终对词章之学至为不屑，认为是“等而末者”，是艺非道。[19] 这与钱基博的治学家数差异甚大。如果说，戴震的“义理、考据、词章”论为钱基博提供了文学研究的方法论，那么桐城派将“义理、考据、词章”融入一体的文学观更为钱基博所接受。

姚鼐等人的三位一体论实际上以词章为中心，对考据又作了迥异于汉学的解释，许多桐城学人对考据一道十分鄙夷，可以说考据并没有真正的融入词章之中。曾国藩则认为无论是考据之文还是义理之文都要符合古文法度，如考据之文要“文辞温润，亦无考证辩驳之风。尽取古人之长，而退然若无一长可恃。意者蕴蓄者厚，遏而蔽之，能焉而不伐，敛焉而欲光。殆天下之神勇，古之所谓大雅者欤！”[20] 不染考据习气，取长补短，博而返约，才是大雅之文；至于义理之文，他反对宋儒作文害道说，而是以血气喻文章，主张文道合一。

时间延续到民国，“圣人之道”已经淡出学者的视线，钱基博更为强调“国学”，认为“国学”才是国之以立的根本所在，而非戴震、曾国藩们一再强调的“圣人之道”。“圣人之道”藏于六经，讲究天人合一的至诚之道；而“国学”则包揽四部及小学，是为解释中国何以立、民族何以存的文化精神，具有民族主义的内涵。而“文学为一国国性之表现”[21]，“国民之精神系焉”[22]，那么“文学”与“文字”的根本区别就在于表述的内容与阐发的思想，而不在作文方法。所以，钱基博作文、教学多采古文文法。但对“文学”的定义已于清代学者有很大的不同。

19) （清）戴震≪与方希原书≫，≪戴震全书≫第6册，第375页，合肥：黄山书社1995年版。

20) （清）曾国藩≪重刻茗柯文编序≫，≪曾国藩全集・诗文≫，第323页，长沙：岳麓书社1985年版。

21) 钱基博≪我之中国文学的观察≫，≪国文教学丛编≫，第80页。

22) 钱基博≪吴江丽则女中学国文教授宣言书≫，≪国文教学丛编≫，第21页。

錢基博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語體文範』을 중심으로

한지연**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과도기 '文範'의 재구성:『語體文範』의 體例와 그 用意
3. '文範'으로서의 語體:『語體文範』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첸지보(錢基博, 1887~1957)는 청말(淸末)과 민국(民國) 시기를 대표하는 정통 국학연구자로서,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비롯하여 방지학(方志學), 목록학, 교육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첸지보 학문의 원천이 가학(家學)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첸지보 其人其文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역 문화의 학풍과 가학적 연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략) 가학(家學)과 사승(師承)을 통해 첸지보는 청말과 민국(民國)이라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학 연구의 외길을 걸어왔던 것이다.[1] 이에 대해 혹자는 첸지보의 국학기초가 공고하여 새로운 학문을 찾지 않았고, 가학에 완전히 의지한 나머지 스스로의 학문을 제한시켰다고 하여 첸지보 학문이 전적으로 배타적・폐쇄적이며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었다고 단정하였다.[2]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어체문범』의 편찬 배경 및 저서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첸지보가 백화문을 비롯하여 신학문과 신사상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혹은 '철저히' 배척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첸지보 학문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라고 단정하는 기존의 시각을 좀 더 넓혀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첸지보의 백화문[3] 독본『어체문범(語體文範)』(1920)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중국 근・현대문학사 및 학술사에서 첸지보 其人其文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문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현재 기준으로[4] 국내에 발표된 첸지보 관련 논문은 그의 문학사 저서인『현대중국문학사(現代中國文學史)』[5]와 필기체(筆記體) 소설『기격여문보(技擊餘聞補)』를 연구한 학술논문

* 본 발표문은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로서, 학회 발표를 위해 요약한 글입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이므로 필자의 동의 없이 인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1) 첸지보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박학(博學)하여 경사(經史)를 논함에 있어 백가(百家)를 섭렵하였으며, 그것의 이점과 폐단을 밝히어 학문의 정밀함과 심오함을 드러냈다(基博論學, 務爲浩博無涯涘, 詁經譚史, 旁涉百家, 抉摘利病, 發其闚奧。)"고 자칭한 바 있다.

2) 왕샤오칭 저, 최은진・유현정 역,『중국 학술의 사승과 가파』, 서울: 학고방, 2015, 297쪽 참고.

3) 현대한어구어를 기초로 가공된 서면어, 어체문을 가리킨다.

4) 2020년 상반기를 가리킨다.

5)『현대중국문학사』의 본래 서명은『현대중국문학사장편(現代中國文學史長編)』이다. 이 책은 첸지보가 상해 성(聖)요한대학에서 교편을 잡던 시절부터 집필이 시작되었으며, 1922년에 완성하였다. 초고 탈고 후 유인본(油印本)으로 광화대

두 편[6]뿐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 연유는 국내 중문학계에 첸지보라는 학자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점차적으로 연구영역을 넓혀나가야지만 비로소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체문범』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선행연구가 남긴 한계를 극복하고 첸지보 其人其文 연구의 외연 확대에 일조하고자 한다.

둘째, 『어체문범』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는 바로 '체제(體例)'이다. 소위 체제라 함은 문체적 특성(文體性)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어체문범』이 교육의 목적으로 편찬된 백화문 독본임에도 불구하고 첸지보는 증국번(曾國藩, 1811-1872)이 편찬한 『경사백가잡초(經史百家雜鈔)』의 문체 분류법을 계승하여 그 체제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소위 문장학(文章學)에서의 체제는 저서의 형식과 문체적 특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저자가 추구하는 문장관(文章觀)을 의미한다. 『어체문범』의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첸지보의 전통적 문장관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어체문범』의 체제 분석의 중요성을 방증하기에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어체문범』의 체제 구성에 있어 첸지보가 고문 문체 분류법을 계승한 연유와 그 의도를 밝혀내고자 한다.

셋째, 첸지보는 학문연구에 있어 '집고(執古)'를 추구하였지만, 시대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어체문범』 편찬에 있어 문언과 백화문의 충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양자의 '합일(合一)'을 통해 백화문을 문장에 편입시켜 새로운 '문범(文範)'을 구축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근대 백화문에 대한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체문범』에 수록된 첸지보의 '평어(批評的意見)'을 통해 근대 백화문에 대한 첸지보의 인식과 비평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2. 과도기 '文範'의 재구성: 『語體文範』의 體例와 그 用意

(중략) 주지하듯이 독본은 집필자가 글의 모범, 즉 '문범'으로 판단한 글을 선별하여 한데 묶은 것으로서, 집필자의 관점과 의식에 따라 독본의 체제가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어체문범』의 체제가 한문 문체 분류체계에 근거하고 있는데, 첸지보가 초등교육용 백화문 독본을 편찬하는 데 있어 중국 전통의 한문 분류체계를 취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어체문범』의 일러두기(例言)에 중요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내가 이 책을 엮기 위해서 상향(湘鄉)의 증국번(曾國藩)이 편찬한 『경사백가잡초(經史百家雜鈔)』가 떠오른바, 고금(古今)의 문장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門)하였다. 첫 번째는 '저술문(著述門)', 두 번째는 '고어문(告語門)', 세 번째는 '기재문(記載門)'이다. 이러한 분류법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엮을 때 증 씨의 분류법에 따라 '저작(著作)', '고어(告語)', '기재(記載)'의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각각의 문체별로 다시 다음처럼 나누었다. 첫 번째 '저술'은 다시 '의론

학(光華大學) 및 무석국학전문학교(無錫國學專門學校)의 강의교재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10년 뒤인 1932년 12월에 무석국학전문학교 학생회의 주도하에 조판과 인쇄 과정을 거쳐 수차례 출간되었다. 1933년 9월에 상해세계서국(上海世界書局)에서 출간, 이어지는 1934년 및 193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재판(再版)되었으며, 1936년 9월에는 증보판(增訂版)이 출간되었다. 이 외에도 1974년에 타이완 『近代中國史料叢刊·續刊』에 수록되었으며, 1986년 5월에 후난(湖南) 악록서사(岳麓書社)에서 1936년에 출간된 증보판을 레이아웃하여 출간하였다. 상기 출판정보는 한지연, 「학문으로서의 문학사 서술 - 錢基博 『現代中國文學史』의 新文學論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8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7, 3-4쪽 참고.

6) 「학문으로서의 문학사 서술 - 錢基博 『現代中國文學史』의 新文學論을 중심으로」(한지연, 『중국현대문학』 제8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7) 및 「以"技擊"治學——試論錢基博筆記體小說『技擊餘聞補』」(한지연, 『중국학보』 제70집, 한국중국학회, 2014)가 이에 해당한다.

(議論)', '서발(序跋)'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두 번째 '고어'의 경우 다시 '고시(告示)', '연설(演說)', '사신(寫信)'의 세 가지로, 세 번째 '기재'는 다시 '기사(記事)', '사경(寫景)'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내가『어체문범』편찬에 참고한 문체 부류(門類)이다.[7]

첸지보는『어체문범』의 체제 구성에 있어 증국번이 편찬한『경사백가잡초』의 문체 분류법을 계승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주지하듯이 중국 고대 산문 문체와 그 분류법은 사적(史的) 변천 과정[8]을 거쳐 점차적으로 그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청대(淸代)에 이르러서는 문체(문장)의 체재(體裁) 및 양식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부류(門)', '유형(類)'과 같은 갈래[9]로 한데 묶어 더욱 체계적인 문체 분류를 진행하였는데[10], 그중에서 증국번의 공헌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증국번의 문체 분류법은 요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11], 전자와 비교 시 그 분류가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하다는 평가[12]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증국번은『경사백가잡초』서례(序例)에서 중국 역대 고문 문체를 크게 3가지 '부류(門)'로 나눈 후 이를 다시 11가지의 '유형(類)'으로 세분화하였다고 밝혔다. (중략) 첸지보 역시『어체문범』체제 구성에 있어 증국번의 문체 분류법을 고스란히 계승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著述門	議論類	告語門	公布類	記載門	記事類
			演說類		
	序跋類		寫信類		寫景類

〔표2〕『어체문범』의 문체 부류

(중략) 상술한 내용을 통해 첸지보가『어체문범』의 체제 구성에 있어 증국번의 문체 분류법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자(兩者)의 문체 분류법을 상호 대조한 결과, '하위 유형(類)'에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증국번이 분류한 하위 문체 갈래는 소위 식자(識者) 계층들이 사용하거나 향유했던 '고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첸지보가 분류한 하위 문체 갈래의 경우 일반 대중들도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글, 즉 '어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첸지보는『어체문범』에서 제시한 3門(著述, 告語, 記載) 이외에도 부록(附編)을 추가하여 당시 민간에서 유행했던 '속담(里諺)'[13]과 '가요(歌謠)'[14]의 두 가지 문체 부류(門)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평민문학'의 연구와 관련 자료 발굴의 중요

7) "我因爲輯這部書, 我就想到湘鄉曾國藩輯≪經史百家雜鈔≫, 拿古今文章來分做三大門：第一門叫做'著作門', 第二門叫做'告語門', 第三門叫做'記載門'。這個分類法, 似乎包括無遺。所以我輯這部書, 只得照曾氏的樣, 分做'著作'、'告語'、'記載'三門。每門再分類：第一門'著作', 分做'議論'、'序跋'兩類。第二門'告語', 分做'告示'、'演說'、'寫信'三類。第三門'記載', 分做'記事'、'寫景'兩類。這是我輯這部書的門類。" 錢基博編著,『語體文範・例言』, 134쪽.

8) 陳必祥著,『古代散文文體概論』,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 5-14쪽 참고.

9) 관련 연구자는 '門', '類' 등의 분류법을 가리켜 현대적 '장르' 개념이라 지칭하였다. 김종철,「한문 문체 분류의 전개 양상」,『대동한문학』제20권, 대동한문학회, 2004 참고.

10) 중국 역대(歷代)의 유명한 문장을 선집(選集)한 요내(姚鼐, 1731-1815)의『고문사류찬(古文辭類纂)』, 증국번의『경사백가잡초』및 오증기(吳曾祺, 1852-1929)의『함분루고금문(涵芬樓古今文)』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 고대 산문 문체 분류는 요내의『고문사류찬』과 증국번의『경사백가잡초』로 집대성되었다.

11) "論次微有異同, 大體不甚相遠。" [淸]李翰章編纂；李鴻章校勘,『足本曾文正公全集』6,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5, 3187쪽.

12) "曾氏之學, 蓋出於桐城, 固知其與姚先生之旨合, 而非廣己於不可畔岸也。循姚氏之說, 屛棄六朝駢儷之習, 以求所謂神、理、氣味、格、律、聲、色者, 法愈嚴而體愈尊；循曾氏之說, 將盡取儒者之多識、格物、博辨、訓詁, 一內諸雄奇萬變之中, 以矯桐城末流虛車之飾, 其道相資, 無可偏廢。" 黎庶昌,「續古文辭類纂序」,『新編中國歷代文論選(晩淸卷)』(黃霖、蔣凡主編,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8), 55쪽.

13) '점후(占候類)'・'농상(農桑類)'・'습관법(習慣法類)'・'격언(格言類)'이 이에 해당한다.

14) 민간에서 널리 불려진 노래, 즉, 민요(民謠), 속요(俗謠), 동요(童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첸지보는 '관풍(觀風類)'・'폄속(砭俗類)'・'표정(表情類)'・'동요(童謠類)'로 세분화하였다.

성을 피력[15]하였다. 상술한 특징은 흥미롭게도 식자(識者)와 비식자(非識者) 계층을 비롯하여, 고금(古今), 아속(雅俗) 및 신구(新舊) 등 이원론적 문화 담론과 직결되고 있다. (중략)

요컨대『어체문범』에는 당시 신구 언문 교체기라는 과도기 하에서 그 어느 한쪽에 온전히 편향되기 힘들었던 구지식인의 딜레마[16]가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지보는 백화문을 '문장'으로 과감히 편입시켜[17] 새로운 '문범'을 확립[18]하고자 했다. 이에 관해 혹자는 첸지보의 보수적 성향을 겨냥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으나[19] 첸지보는 근대 백화문에 대해 줄곧 비평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을 의미함과 동시에『어체문범』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읽어내기 위해서는『어체문범』의 체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가 덧붙인 '평어(批評的意見)'에 주목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 '文範'으로서의 語體:『語體文範』의 白話文學觀과 批評意識

앞 장에서 언급한『어체문범』의 체제가 (저작이나 문장의) 격식을 의미한다면, '평어'는 저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어체문범』의 '평어(批評的意見)'이다. 첸지보는『어체문범』에 수록된 모든 백화문 말미에 직접 '평어'를 가함으로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주지하듯이 '평어'는 문체 분류법과 함께『어체문범』의 주요 체제이자,『어체문범』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그의 비평의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첸지보가 어떠한 글들을 선별, 수록하였는지 파악한 후 평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략)

요컨대 첸지보는 1920년대 개량과 개혁을 부르짖었던 주류 담론과 거리를 유지하며 고문학자(古文家)로서의 안목과 시각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신구 세력을 막론하고) 유신파 지식인을 비롯한 수구파 지식인조차도 그의『어체문범』을 겨냥하여 이견을 제기하였는데, 전자는 당시 문계혁명(文界革命)을 주도했던 치우팅량(裘廷梁, 1857-1943)이며, 후자는 청말민초 시기 저명했던 경사학자(經史學者) 천단란(陳澹然, 1859-1930)이다. 이들의 비판은 당시 1920년대 전반기 문언과 백화문을 둘러싼 민국 지식계 논쟁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치우팅량은 장수(江蘇) 우시(無錫) 출생으로 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

15) "現在一般新文學家, 嘴裏說'平民文學', 其實不過把中國官閥的一種話法——俗稱叫做官話——來做文章。真正的平民文學, 卻沒有徹底去研究。我以爲真要研究平民文學, 先須搜集材料。這個平民文學的材料：（1）里諺。（2）歌謠。……現在就附上這部≪語體文範≫後, 供研究平民文學的材料罷。" 錢基博編著,『語體文範』, 137-138쪽.

16) "先生編輯≪語體文範≫, 雖說抱定'知我罪我, 任人評說'之志, 但仍不免處於兩難之境地；求新者不以爲是, 守舊者亦以爲非。可見, 在當時的歷史情勢下, 先生努力尋求一種照顧新舊言文的學術規範, 的確是一件很困難的事情。姑且增錄一則書信如下, 由此可見當年'文言與白話'爭論之複雜與激烈。" 陳澹然,「與錢子泉書」. 傅宏星編撰,『錢基博年譜』,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7, 56쪽에서 재인용.

17) 첸지보는 "백화문은 문장의 하나(我認語體文也是文章的一種。)"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錢基博編著,『語體文範・例言』, 133쪽.

18) "我以爲社會普遍一般人用的文言也與國粹無干, 不過是人生一種應用技能。然而要教我學您老人家一樣迷信語體文, 我却也辦不到。" 錢基博,「復裘葆良先生」,『無錫縣教育會年刊』, 1921. 傅宏星編撰,『錢基博年譜』,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7, 56쪽에서 재인용.

19) 당시 문계혁명(文界革命)을 주도했던 유신파 지식인 치우팅량(裘廷梁, 1857-1943)을 가리킨다. 치우팅량은 장수 우시 출생으로 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급진파 인사였다. 1898년에『무석백화보(無錫白話報)』를 창간하였으며, 같은 해『소보(蘇報)』에 평론「유신의 근본인 백화를 논하다(論白話爲維新之本)」를 발표, "문언의 폐기와 백화의 숭상(崇白話而廢文言)"을 강력히 주장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어체문범』이 출간된 후 그는 서신을 보내『어체문범』의 선별 기준과 평어에 반영된 첸지보의 구시대적 안목과 수구적 태도에 일침을 가하였다("篇篇都好, 但都是用文章家眼光去選的, 所以你的批評, 都是文章家的批評, 你對於社會上說語體文容易做的人, 很不以爲然。對於教育部改用語體文的部令, 及大學堂內一般學者, 和現在有名的白話文家, 你更加不以爲然, 詞氣間時時露出憤憤不平的態度來。" 裘廷梁,「與錢子泉書」. 傅宏星編撰,『錢基博年譜』,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7, 55쪽에서 재인용).

던 급진파 인사였다. 그는 1898년에 『무석백화보(無錫白話報)』를 창간하였으며, 같은 해 『소보(蘇報)』에 「유신의 근본인 백화를 논하다(論白話爲維新之本)」라는 제목의 평론을 발표, "문언의 폐기와 백화의 숭상(崇白話而廢文言)"을 강력히 주장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어체문범』이 출간된 후 그는 첸지보에게 서신을 보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백화문을 경시하는 첸지보의 수구적 태도에 일침을 가하였다.[20] 이외에도 전형적인 수구파였던 천단란 역시 첸지보에게 서신을 보내어 고문(古文) 본연의 위상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백화문의 '문범'을 정립하려 했던 첸지보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지만,[21]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장절에서는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이 선명히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대표성[22]을 엿볼 수 있는 평어를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첸지보는 『어체문범』의 편찬에 있어 시종일관 문체가의 안목과 문장가의 관점을 견지하여 백화문의 우열을 논하고자 했다. 주목할 점은 비록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문언과 백화 논쟁에 대응하는 그의 태도는 절충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문언과 백화문 논쟁이 신구 대결과 찬반 갈등의 이분법이 아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층차를 가진 절충적론 입장이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첸지보는 문언과 백화문의 일치가 아닌 '합일'을 모색하여 새로운 '문범'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양자의 간극과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문언의 위상과 격을 피력할 수 있었던 절충적 대안이자, 당시 사회가 지향했던 국문 교육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그간 국내 학계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학자 첸지보에 주목, 그중에서도 첸지보가 직접 편찬한 백화문 독본 『어체문범』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첸지보의 여타 저서가 정통성이 강한 학술저서인 반면에 『어체문범』은 당시 국문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독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용 독본임에도 불구하고 『어체문범』에는 첸지보의 백화문 선별기준, 백화문에 대한 그의 독자적 견해와 비평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백화문 논평에 있어 첸지보가 취했던 입장과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은 상당히 유의미한 작업이자, 향후 첸지보 其人其文 연구의 토대 마련에도 일조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첫째, 첸지보는 시대 변화에 따른 문체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문장의 격을 갖추지 못한 백화문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체문범』 집필에 있어 이러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는 백화문을 선별하여 이를 '문장'으로 편입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첸지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전통적 문장관과 한문 문체 분류법에 근거하여 독본의 체제를 구성했으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문언과 백화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문언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범' 만들기에 있었다.

둘째, 첸지보는 『어체문범』에 수록된 모든 백화문에 '평어'를 가함으로서 자신의 학문적 견해와 입장을 드러냈다. 『어체문범』 평어에는 학자 첸지보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데, 백화문 논평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문언과 백화 논쟁에 대응하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절충적이었다. 그가 제시한 문언과 백화의 '합일'은 양자의 간극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서도 문언의 위상과 품격을 손상하지 않는 최선의

20) "篇篇都好，但都是用文章家眼光去選的，所以你的批評，都是文章家的批評，你對於社會上說語體文容易做的人，很不以爲然。對於教育部改用語體文的部令，及大學堂內一般學者，和現在有名的白話文家，你更加不以爲然，詞氣間時時露出憤憤不平的態度來。" 裘廷梁，「與錢子泉書」. 傅宏星編撰，『錢基博年譜』，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7, 55쪽에서 재인용.

21) "近時以白話爲文，於鄙志殊異。足下才能入古，何乃效之？孔子有言：'言之不文，行之不遠。' 過求深古，誠非所宜，故流淺俗，亦乖大雅。質之君子以爲何如？鄙人有言：文非經世，不足言文。言而不文，終難永世。區區老懷，幸鑒之，不一。" 陳澹然，「與錢子泉書」. 傅宏星編撰，『錢基博年譜』，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7, 56쪽에서 재인용.

22) 여기서 언급한 대표성은 작자의 지명도 및 당시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대안이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체문범』의 체제와 평어에는 전통적인 문장 형태와 글쓰기 방식을 중시했던 첸지보의 보수적 신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은 근본적으로 그의 보수적 성향에 기인하고 있지만, 『어체문범』의 집필 과정에는 당시 과도기적 모순과 혼란을 나름대로 유연하게 극복하고자 했던 구지식인 첸지보의 노력과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여타 수구파 지식인들과는 달리 백화문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문언의 사용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신구 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근대 중국의 지식장에서 첸지보는 가능한 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절충적인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여 양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점에서 『어체문범』의 집필이 가지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어체문범』에 반영된 첸지보의 백화문 인식과 비평의식 연구를 통해 초보적이나마 독본으로서의 『어체문범』이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재고할 수 있었다. 추후 본 논문의 한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어체문범』을 비롯한 첸지보 其人其文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阿Q正傳」과 「馬伯樂」의 풍자성에 대한 비교 연구

김순금*

<目 次>

1. 서론
2. 풍자 대상의 비교
3. 정신승리법의 비교
4. 결론

1. 서론

본고는 魯迅(1881~1936)과 蕭紅(1911~1942)의 풍자소설 「阿Q正傳」과 「馬伯樂」의 풍자성에 대한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魯迅은 20세기 초, 중국 현대문학을 이끈 선두자이자 현대 풍자소설을 창시한 작가이다. 그는 예리한 붓으로 중국인의 봉건 중화사상을 깨우치면서 辛亥革命의 패배를 겪은 젊은 지식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었다. 魯迅의 제자이자 그의 풍자를 이어받은 蕭紅은 1940년에 「馬伯樂」을 출간하여 일제 강점기 때의 존재하는 지식인의 추태를 비판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한 阿Q와 馬伯樂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두 작품은 모두 정신승리법에서 출발했지만, 작가에 의해 어떤 풍자 성격을 띠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阿Q正傳」과 「馬伯樂」을 연구의 텍스트로 삼고 두 작품의 풍자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阿Q正傳」의 풍자성은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馬伯樂」와 비교 분석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문학계에서는 郭玉斌[1]와 錢理群[2]을 비롯한 학자들이 魯迅과 蕭紅의 연관성을 논의한 바는 있지만, 풍자성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한 논문은 전무이다. 필자는 이러한 실정에 주목하여 「阿Q正傳」와 「馬伯樂」을 중심으로 풍자성에 대한 비교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2. 풍자 대상의 비교

대체로 풍자소설은 작가는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나름대로 특정한 풍자의 대상을 설정하고 또한 그들의 어조와 행동을 작가 자신이 생각했던 의도에 맞게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1930년대 중국의 풍자소설을 살펴보면 시대적 부조리에 대한 풍자를 특정 인물을 등장시켜 집단적인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성향이 뚜렷하다. 魯迅과 蕭紅에 의해 설정된 阿Q와 馬伯樂도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무지몽매한 정신적 세계관을 고발하고자 했다. 이는 魯迅과 蕭紅이 공통으로 갖는 풍자의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魯迅과 蕭紅은 동시대에 생활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풍

* 청운대학교

1) 郭玉斌(1965~)은 『蕭紅評傳』(中國社會出版社, 2009, 201쪽)에서 "蕭紅은 魯迅의'국민성 개조' 사상을 계승하여 성숙한 창작 사상을 드러냈다."라고 魯迅과 蕭紅의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2) 錢理群(1939~)은 "魯迅과 蕭紅처럼 창작에서 감성의 역할을 중시한 작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늘 자신의 모든 감성을 창작대상의 묘사에 몰두했고, 민족혼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진실하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의 대상이 각자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 이에 필자는 「阿Q正傳」과 「馬伯樂」에서 풍자의 대상에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2장은 阿Q과 馬伯樂의 형상을 통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阿Q의 형상

阿Q의 본명은 아꾸이(아Quei)지만 魯迅은 이 소설에서 阿Q라고 지었다. 아(阿)는 중국에서 타인을 부를 때 성씨 앞에 흔히 붙이는 호칭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Q의 발음을 Quei라고 읽는데 이 자도 역시 중국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 중 하나라고 한다. 魯迅은 소설에서 阿Q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陳獨秀[3]가 잡지 『新青年』[4]을 발간하여 서양 문자의 사용을 제창했기 때문에 영어 문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는 辛亥革命 이후 중국 지식인들이 서양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풍자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魯迅은 阿Q라는 풍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아Q는 성명과 본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의 행장(行狀)도 모호했다. 왜냐하면, 웨이주앙 사람들은 아Q에 대해서 그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를 놀림감으로 삼을 뿐, 그의 '행장'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Q 자신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 간혹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하기는 했다. "우리는 옛날에는 … … 너보다 훨씬 더 잘살았어!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5]

소설에서 阿Q는 우매하고 나약한 농민 모습으로 등장했다. 阿Q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잘 살았고' 견식도 높고 '일도 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魯迅은 阿Q를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魯迅 자신도 辛亥革命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뇌와 방황을 겪으면서 실패의 쓴맛을 맛보았기에 이를 반성하고 국민성 개조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 특히 阿Q은 얼떨결에 혁명군에 연루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다. 魯迅은 당시 辛亥革命에서 봉건 통치를 타파하고 민생의 삶을 개조하고자 제시한 삼민주의[6]가 무색할 만큼 농촌에는 수많은 無知의 阿Q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林賢治는 魯迅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魯迅은 중국의 현실 문제점에 몹시 관심 두는 지식인이다. 그래서 그는 글쓰기를 종사하였으며, 본래의 취지 역시 국민성을 개조하고, 중국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였다."[7] 즉 魯迅은 당시 국민성 개조 없이는 봉건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왕후이는 阿Q를 통해 중국의 국민성을 이렇게 밝혔다. "아Q는 민족의 형상, 민족의 영혼, 국민성의 상징이다."[8] 이는 阿Q가 중국의 근대 시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蕭紅에 의해 설정된 馬伯樂을 보기로 한다.

2) 馬伯樂의 형상

蕭紅은 馬伯樂의 이름부터 풍자적으로 지었다. '伯樂'의 유래는 중국에서 천리마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칭한다. 蕭紅은 중국 속담에 '천리마는 자주 있지만, 백락은 별로 없구나.(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를

---

3) 陳獨秀(1879~1942)는 중국 코민테른 혁명가이자 언론인이다.

4) 『新青年』은 1915년 9월에 陳獨秀에 의하여 월간으로 창간된 잡지다.

5) 노신 지음, 전형준 옮김, 『아큐정전』개정판, 창비, 2015, 71~72쪽.

6) 삼민주의(三民主義)는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이라는 의미에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7) 林賢治, 「魯迅思想錄」, 復旦大學出版社, 2011, 2쪽.
魯迅是一個十分關注中國現實問題的知識分子。他所以從事寫作, 本意就是爲了改造'國民性', 改造中國社會。

8) 왕후이 지음, 김영문 옮김,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48쪽.

인용하여 주인공에게 伯乐라는 제법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馬伯樂은 이름처럼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천리마처럼 재주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에 불과했다. 이는 魯迅이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우매한 농민 阿Q 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풍자의 대상인 馬伯樂의 성격을 보기로 한다.

> 馬伯樂이 고민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전파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다. 인류의 무지가 언제 멈출까. 馬伯樂이 사람들에게 일본군이 곧 침략해온다고 선전할 때마다 아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마치 구세주처럼 자동으로 일종의 연민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연민은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기랄 중국인 같은 놈이라고! 너희들은 아주 태평하게 살아라! …… 이런 멍청한 놈들이라고!"[9]

蕭紅에 의해 설정된 馬伯樂은 사실 진보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그녀가 설정한 馬伯樂은 입으로는 항일투쟁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굴하게 도피를 선택하는 야비한 지식인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馬伯樂은 민족해방 운동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신의 황당한 주장에는 열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열중하는 얄팍한 인물이다. 葛浩文은 蕭紅의 풍자 대상에 대하여 "馬伯樂은 비록 蕭紅의 날카로운 풍자로 주된 대상이 되어 있지만, 책에 나오는 유일한 대상은 아니다. 이는 대도시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부 떠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사는 백수들, 사회의 온갖 비열한 사람들, 모두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드러날 것이다."[10]고 밝혔다. 두 작품의 풍자 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특정적인 개인이 아니라 중국 민중을 상징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두 풍자의 대상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阿Q은 비록 봉건 체제를 무너뜨린 辛亥革命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비참한 훗날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馬伯樂는 비록 지식인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魯迅과 蕭紅은 동시대에 같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는 풍자의 대상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띨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정신승리법의 비교

20세기 초, 중국은 지방 군벌이 난립하고 국공 내전과 중일 전쟁까지 겹쳐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이 시기에 중국 사회는 질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魯迅, 田漢[11] 등 지식인들은 문학을 통해 당시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魯迅은 「阿Q正傳」을 발표하여 당시 농촌 사회의 비참한 현실과 여성에 대한 봉건사상의 속박을 폭로하였고, 패배를 당해도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중국의 저열한 국민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蕭紅에 의해 설정된 馬伯樂도 阿Q와 유사한 정신승리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장한 생활환경이 다르므로 그 정신승리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이준식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馬伯樂 정신승리법의 頂點은 逃避主義이다. 이는 阿Q와 비교되는 최대의 특

9) 蕭紅,『蕭紅全集-馬伯樂』, 哈爾濱出版社, 1991, 455쪽.
馬伯樂所苦的只有他的思想不能够流傳, 只有他的主義没有人相信。這實在是最大的痛苦, 人類的愚昧何時能止, 每每馬伯樂向人宣傳日本人就要打來, 没有人接受的時候, 他就像救世主似的, 自動地激發出一種悲憫的情懷, 他的悲憫里邊带着怒罵："眞他媽的中國人! 你們太太平平的過活吧！…… 你們這些湖涂人!"

10) 葛浩文,『蕭紅評傳』, 北方文藝出版社, 1985, 132~133쪽.
雖然馬伯樂是蕭紅尖刻諷刺下的主要對象, 但他却不是書中唯一的對象。那些大城市中的芸芸衆生、 那些阿諂者、 無所事事的食客, 和社會上各種卑鄙的分子, 都會以他們最醜惡的面目一一呈現在讀者面前。

11) 田漢(1898~1968)은 중국 현대문학의 유명한 극작가이다. 대표작은 「名優之死」, 「新兒女英雄傳」 등이 있다.

징이자, 지식인 阿Q와 농민 阿Q의 최대 차이점이기도 하다. 농민 阿Q는 경제적, 문화적 한계 때문에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12] 즉 魯迅과 蕭紅은 비록 같은 명칭의 정신승리법을 사용했지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각자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 阿Q와 馬伯樂의 정신승리법을 통해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1) 阿Q의 정신승리법

魯迅은 阿Q의 행동에 정신승리법을 사용하여 아편전쟁에 이어 辛亥革命의 실패를 겪은 중국인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阿Q는 괴롭힘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고 매를 두들겨 맞아도 자존감을 잃지 않은 이유는 그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陳漱渝는 魯迅이 주장한 중국의 국민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魯迅은 이런 종류의 혼란스럽고 불량한 사고가 사람들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신 상태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중화민족은 노예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13] 즉 "辛亥革命의 '불철저성' 때문에 魯迅은 사실 아Q의 본능적 순간을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승화하려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魯迅은 혁명을 이용하여 아Q를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아Q를 이용하여 혁명을 심판했다."[14] 이처럼 阿Q은 魯迅이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 사회의 병적인 모습을 폭로하고자 만들어낸 상징적인 인물이다. 魯迅은 阿Q의 정신승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 阿Q는 견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금기'에 저촉될 뻔했다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서 더는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건달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그를 놀려댔고, 그리고 마침내 때리기까지 했다. 阿Q는 형식상으로는 패배했다. 놈들은 노란 변발(청나라 남자의 머리채)을 휘어잡고 벽에 그의 머리를 너덧 번 쿵쿵 찧었다. 건달들은 그제야 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阿Q는 잠시 선 채로, "나는 자식에게 맞은 셈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개판이야 ……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도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阿Q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다 입 밖으로 말했기 때문에 阿Q를 놀리던 사람들은 그에게 일종의 정신상의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의 노란 변발을 잡아챌 때마다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阿Q, 이건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다. 네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린다고!"[15]

魯迅은 阿Q의 행동에 대해 '견식이 있다', '곧 금기에 저촉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기양양 해하다' 등의 비꼬는 말투로 阿Q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건달들은 툭하면 주먹질하며 阿Q를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阿Q는 매번 건달들에게 굴욕적으로 당하고 주먹까지 맞으면서도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가령 그가 대머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쭐대었지만 결국은 건달들에게 더 호되게 당할 때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그는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고 품위를 지켰다. 이는 "봉건전통의 질곡에 얽매여 자신의 결점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기만이나 공상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한 인물"[16]로 보인다. 즉 "阿Q는 언제나 현실의 패배를 정신의 승리로 둔갑시키는

12) 이준석, 「抗戰文藝의 外延 혹은 그에 대한 반항-蕭紅<馬伯樂>論」, 『중국학연구』 제54집, 2010, 291쪽.

13) 陳漱渝, 『魯迅評傳』, 中國社會出版社, 2011, 65쪽.
魯迅認爲, 這種昏亂無賴的思想, 能使人無可救藥, 成爲萬劫不復的奴隸。不治療這種精神狀態, 中華民族就不可能掙脫奴隸的枷鎖。

14) 왕후이 지음, 김영문 옮김, 「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54쪽.

15) 루쉰 지음, 전형준 옮김, 『아큐정전』 개정판, 창비, 2015, 74~80쪽.

16) 周雲楠, 「루쉰과 채만식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37쪽.

과대망상증 환자로 볼 수 있다."[17] 阿Q의 이런 정신승리법은 그에게 강자 앞에서는 항상 굽신거리게 했고 약자 앞에서는 괴롭힘을 주는 노예근성을 낳게 하였다. 왕후이는 阿Q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신승리법은 아Q의 자기 위안 시스템이나 도구에 불과했으며, 언제나 정신승리법을 통해 변화된 질서를 수리하면서 변화 자체를 말살했다."[18]왕후이의 이러한 주장에는 魯迅의 국민성 개조 사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의 국민성을 신해혁명과 함께 논의하면서 "辛亥革命은 황권의 변동과 일련의 서열 변화를 촉진했지만 阿Q의 정신세계 안으로는 깊이 진입하지 못했다."[19]고 지적하였다. 이는 魯迅이 「阿Q正傳」을 창작하게 된 이유이자 문학을 하게 된 계기이다, 다음은 馬伯樂에 존재하는 정신승리법을 보기로 한다.

2) 馬伯樂의 정신승리법

蕭紅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입으로는 항일을 부르짖고 행동은 피난 갈 생각만 하는 馬伯樂을 설정하여 항일투쟁 시기에 존재하는 지식인의 추악한 정신승리법을 풍자하고자 했다. 葛浩文은 "蕭紅의 일반적인 스타일과 주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놓고 말하면, 「馬伯樂」은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다."[20]고 평가했다. 馬伯樂은 칭다오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식인이다. 그는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문맹이 많은 그 당시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점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매사에 끈기가 없고, 무엇이든 실패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갖은 구실과 핑계로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이는 阿Q의 정신승리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蕭紅은 魯迅처럼 '국민성 개조'라는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도피'라는 다소 황당한 주제로 중국 지식인의 추태를 풍자하고자 했다. 다음은 馬伯樂의 정신적 승리법을 보기로 한다.

> 거지는 자주 배를 곯지 않는가? 왜 거지는 참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가? 이는 바로 거지가 배고픈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싶어 하고, 어른은 배고프면 어떡하든 간식으로 보충하려고 한다. 즉 관생원(冠生園은 지금의 시장 같은 곳)에 가서 과자를 사거나, 아니면 간식 따위를 먹는다. 하지만 거지는 배고파도 울지 않고, 더 먹으려고도 애쓰지 않는다. 거지가 관생원에 간식 사러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이로써 훈련된 굶주림과 훈련되지 않은 굶주림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馬伯樂은 계란 볶음밥 5개를 먹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21]

蕭紅에 의해 설정된 馬伯樂은 사실 진보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蕭紅에 의해 설정된 馬伯樂은 항일투쟁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굴하게 도피를 선택하는 야비한 지식인에 불과하다. 그는 무엇이든 일이 그릇되면 자기 생각대로 일괄해버리는 阿Q와 유사한 정신적 승리법이 있다. 일본군이 침략하자 馬伯樂의 머리에는 재빠르게 도피부터 떠올랐고 이를 바로 행동에 옮겼다. 돈이 떨어져 배고픔의 시련이 다가오면, 그는 배고픔을 잘 이겨내는 거지 근성과 비교했다. 그리고 배고픔을 잘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

17) 이지영, 「번역과 문학 정전(正典)의 시대적 수용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 곁 텍스트(para text) 분석을 중심으로(1972~2018)」, 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 논문, 2019, 20쪽.

18) 왕후이 지음, 김영문 옮김, 위의 작품, 149쪽.

19) 왕후이 지음, 김영문 옮김, 위의 작품, 149쪽.

20) 葛浩文,『蕭紅新傳』, 香港三聯书店, 1989, 124쪽.
(對於习慣蕭紅一般文體和題材的讀者而言,「馬伯樂」是一部令人大爲驚異的作品。)

21) 蕭紅,『蕭紅全集-<馬伯樂>』, 哈爾濱出版社, 1991, 473쪽.
(叫化子不是常常吃不飽的吗? 爲什么他受得住而別人受不住呢? 就因爲他是餓慣了。小孩子吃不飽, 他要哭。大人吃不飽他會想法子再補充上點心, 到冠生園去買餅干啦, 吃一點什么點心之類啦。只有叫化子, 他吃不飽, 他也不哭, 他也不想法子再吃。有人看見过叫化子上冠生園去买點心的吗? 可見, 受過訓練的飢餓和没受過訓練的飢餓是不同的。馬伯樂對於他自己没能够吃上五個蛋炒飯的理由有二, 第一爲着省錢, 第二爲着訓練。)

이라고 정신적으로 위로했다. 平石淑子는 阿Q와 馬伯樂의 정신승리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대 많은 연구자들은 馬伯樂를 阿Q의 정신승리법과 연관시켰으며, 이 소설의 주인공이 魯迅의 阿Q 이미지를 물려받았다고 믿었다.”[22] 이는 阿Q의 정신승리법이 蕭紅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辛亥革命의 패배와 일제 강점기를 겪은 이후 蕭紅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화려한 문구로 포장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蕭紅과 魯迅은 비록 같은 정신승리법을 사용하지만, 풍자의 성격은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馬伯樂는 阿Q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배움도 많다는 데 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한계 때문에 돌파구를 찾는 阿Q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준식은 “지식인 馬伯樂의 도덕성은 阿Q의 경우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의 도피는 현실적 의미에서 보자면 보다 타산적이고 교활하다.”[23]라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艾曉明[24]은 馬伯樂의 정신세계를 ‘정신실패법’으로 꼬집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정신실패법’은 馬伯樂가 매사에 비관적인 선택을 취하는 버릇을 지칭한 것이다. 馬伯樂의 도피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는 잔머리를 써서 도피를 그럴싸하게 ‘만사는 퇴보의 여지를 남기는 법’이라고 포장하였다. 반면, 阿Q는 馬伯樂처럼 머리가 영리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남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마다 자기 방식으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주먹을 사용하면 阿Q는 ‘이건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짓이다.’라고 망각하는 것이다. 馬伯樂의 경우, 배움이 있어서 자기방어 방식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강하다. 그는 모든 일에 잔꾀를 부려서 정신적 해탈을 찾고자 했다. 이는 蕭紅이 무기력한 지식인 馬伯樂라는 형상을 통해 물질적 기반을 갖춘 지식인 계층에도 여전히 ‘阿Q’의 ‘정신승리법’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4. 결론

魯迅과 蕭紅은 중국 현대 문단에서 유명한 문학가로서 중국 풍자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들이다. 본 논문은 두 작가의 풍자소설 「阿Q正傳」과 「馬伯樂」을 중심으로 풍자성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 먼저, 魯迅과 蕭紅에 의해 설정된 풍자 대상을 살펴보았다. 魯迅과 蕭紅은 풍자의 대상을 특정적인 개인이 아닌 중국 민중을 상징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했다. 하지만 蕭紅은 魯迅의 풍자를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이를 승화하여 자신만의 풍자를 만들었다. 즉 魯迅의 풍자 대상은 辛亥革命을 기준으로 농촌 사회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민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蕭紅의 풍자 대상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출현 된 지식인의 이중적인 추태에 주력하였다. 그다음, 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난 정신승리법을 살펴보았다. 魯迅과 蕭紅은 비록 같은 정신승리법으로 출발했지만, 전개하는 풍자의 효과는 각각 다르게 전달되었다. 魯迅은 2천 년 동안 내려온 중국의 낙후된 국민성을 개조하고자 날카로운 풍자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모색했다면, 蕭紅은 阿Q와 달리 부잣집에서 자란 馬伯樂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지식인의 추태를 고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비록 두 작품의 풍자성에 국한하여 고찰한 한계가 있지만, 魯迅과 蕭紅의 작품을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둔다.

參考文獻

22) 平石淑子,『蕭紅評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305~306쪽.
(現代許多研究者們将馬伯樂與阿Q的精神胜勝利法聯系在一起, 認爲這部小說的主人公繼承了魯迅的阿Q形像。)

23) 이준석,「抗戰文藝의 外延 혹은 그에 대한 반항 - 蕭紅<馬伯樂>論」,『중국학연구』제54집, 2010, 292쪽.

24) 艾曉明은 중국 中山大學의 中國語言文學학과의 교수이자 문학비평가이다.

1. 단행본
葛浩文,『蕭紅評傳』, 北方文藝出版社, 1985.
蕭紅,『蕭紅全集 - <馬伯樂>』, 哈爾濱出版社, 1991.
季紅眞,『蕭紅傳』, 北京文藝出版社, 2000.
蕭紅・俞芳 등 지음,『我記憶中的魯迅先生 -- 女性筆下的魯迅』, 河北教育出版社, 2002.
郭玉斌,『蕭紅評傳』, 中國社會出版社, 2009.
루쉰,『'외침' 자서』,『루쉰 전집』, 제1권, 창비, 2010.
王觀泉,『懷念蕭紅』, 東方出版社, 2011.
林賢治,「魯迅思想錄」, 復旦大學出版社, 2011.
陳漱渝,『魯迅評傳』, 復旦大學出版社, 2011.
왕후이 지음, 김영문 옮김,『아Q생명의 여섯 순간』, 너머북스, 2015.
루쉰 지음, 전형준 옮김,『아Q정전』 개정판, 창비, 2015.
平石淑子,『蕭紅評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2. 논문
洪慶杓,「小說에 나타난 人物類形과 諷刺的 機能」,『대구효정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28집, 1983.
구문규,「'阿Q正傳' 연구」,『中國語文論譯叢刊』 제15집, 2005.
고점복,「魯迅 雜文의 思惟 樣相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李俊植,「抗日文藝의 外延 혹은 그에 대한 반항 -- 蕭紅'馬伯樂'論」,『중국학연구』 제54집, 2010.
유효진,「'許生傳'과 '阿Q正傳'의 葛藤構造 比較 硏究」,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1.

浅析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

孟 维**

<目 录>

1. 引言
2. 张爱玲的审母情结
3. 张爱玲的控父情结
4. 张爱玲审母、控父情结产生的原因
5. 张爱玲对父母形象的解构
6. 结语

1. 引言

张爱玲是中国现代作家中独树一帜的传奇女作家，是20世纪40年代中国最为走红、最受注目的女性作家。她以独特的话语形式和超人的才华，将新旧交替时期发生在沪港洋场的一个个悲欢离合的故事呈现在读者面前，塑造了形形色色性格怪异、人格扭曲、命运"苍凉"的人物形象。她对人性的彻底控诉，特别是对劣性的父母的控诉，有别于其他女性作家。其他女性作家，比如冰心，她的作品中充满了对母爱的讴歌，使我们感受到了母爱的无私、真谛与伟大。但在阅读张爱玲的作品时，我们不难发现，其笔下的父母都是变异的、脱离常态的。她笔下的父母一反常态，他们或自私、或虚伪、或软弱、或狠毒，从而呈现出阴暗、扭曲甚至病态的人性侧面。通过对其作品中父母形象的分析，我们可以把握她对人性层面的理性思考及对父母之爱的强烈渴望。

2. 张爱玲的审母情结

美国批评家古尔灵（Guerin, W. L.）等人把母亲原型分为慈母与恶母两个形象。前者代表"大地母亲的肯定方面"，"与生命本源、诞生、温暖、滋养、繁衍、成长、充裕相联系"；后者与"大地母亲的否定方面"关联，意味着淫荡、纵欲、恐惧、危险、黑暗、肢解、阉割、死亡等无意识内容。[1]中国传统文学对母亲的定位，一直是肯定方面占上风，人们用"无私奉献、自我牺牲、无限温暖、润泽万物"等世间最美妙的词汇来歌颂母亲与母爱。但20世纪40年代，张爱玲作为一个文学"异数"出现在中国现代文学史上，她打破了以往的中国传统文学对于母亲的定位，在她的笔下出现了否定方面的母亲群像。在张爱玲的作品中，几乎找不到一个真正伦理意义上的母亲，感觉不到一点母爱的温存，有的只是对变异的母亲的审问与批判。在张爱玲的笔下，母亲的形象总是被赋予一种阴冷灰暗的色调，她对母爱进行了违反常规的叛逆性的书写。张爱玲笔下的母亲形象可概括为以下几种：

---

* 이 발표문은 본인의 2016년 3월 <동아인문학> 학술지에 <探析张爱玲作品中的父母形象>이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었던 논문을 요약한 것임.

** 庆北大学

1) 金元浦 主编，≪文艺心理学≫(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3)，p.351.

2.1 迂腐软弱、明哲保身的母亲

韩国有这样一句格言：女人是软弱的，但母亲却是坚强的。这是从实际生活当中总结出来的一句至理名言，但在张爱玲的小说中，母亲却是迂腐软弱、明哲保身的。≪心经≫当中的许太太，她曾经美丽过，她的命运也随着她的青春的远逝而发生了转折。女儿克母的谶语像一道抹不去的阴影，夺去了她的幸福。女儿一天天长大，当她发现丈夫与女儿小寒陷入畸形的父女恋之中时，她不敢接受这个事实却又无能为力，对父女二人的无数的心理暗示与交锋却视而不见，仿佛是家里的"隐形人"[2]，她对丈夫和女儿的异常关系在将信将疑中一直保持沉默，既不为自己的权利而抗争，也不采取措施帮女儿纠正错误的恋爱方式，她的这种消极地对待问题的态度其实就是一种纵容、一种不负责任，最终当她知道丈夫跟随女儿的同学离家出走时，她无奈哀伤、自暴自弃。许太太的容忍是她认为的一种明哲保身的"权宜之计"，但其实就是这种迂腐软弱的态度使她失去了丈夫，也失去了女儿，她的后半生也只好在咀嚼人生的悲凉与凄苦中度过了。

2.2 自私愚昧、虚伪冷漠的母亲

在张爱玲的小说中，母亲是自私愚昧、虚伪无情的。≪半生缘≫中的顾太太，表面上看，她早年丧夫，一个人含辛茹苦地将孩子们养大，似乎是个无私献身的母亲的形象。但我们不难发现，这只是一种表面现象。首先，顾家其实全靠大女儿曼璐支撑着。在小说中我们可以看到，顾太太没有什么职业，她一个人很难撑起这个家。全家的主要收入全靠大女儿曼璐做舞女来赚取。不管生活多么困苦，为了女儿的幸福和前途，做母亲的绝对不应该看着女儿去做舞女而袖手旁观，更有甚者，曼璐将客人带回家时，顾太太也是不闻不问，相安无事。她的自私的态度葬送了大女儿的前途，使曼璐走上了悲剧人生之路。其次，当二女儿曼祯被大女儿夫妇监禁、被大女婿作为生育工具而任意蹂躏时，能够将曼桢从水深火热中解救出来的只有顾太太。然而做母亲的却在维护自己生存的考虑下，眼睁睁地看着女儿的幸福被断送。顾太太明明知道曼桢已与男友沈世钧在谈婚论嫁，但在金钱面前，她完全出卖了自己的灵魂与最基本的母性。"顾太太本来还想要求和曼桢见一面，当着小陶，也没好说什么，只好就这样走了，身上揣着曼璐给的一笔钱。"[3]顾太太回家后遇到找上门来的沈世钧，本来想把曼桢遭到监禁的实情告诉世钧，恰巧手指碰到了口袋里的那叠钞票，在金钱的诱惑下，她"权衡利弊"，便打消了有可能让女儿得救的念头。因为对她来说，曼璐就是自己的摇钱树，是保障家庭成员生存的经济来源。她抛弃了曼桢，做了大女儿夫妇的帮凶。她的自私、愚昧的行为同样断送了二女儿曼桢的幸福。

2.3 视财如命，麻木不仁的母亲

在张爱玲的小说中，金钱是导致母性扭曲变态的重要因素。≪花凋≫里的母亲郑夫人为钱而怨声载道，对家庭心灰意冷。她视财如命，爱财胜过女儿的性命。在女儿患了严重的肺病、处于弥留之际时，她还是满心利害打算，死死地守着自己的私房钱而不肯拿出来给女儿治病，眼睁睁地看着女儿"一寸一寸地死去"。但在女儿死期将至，她有了"良心发现"，因为价钱便宜，她给女儿买了两双鞋以示"爱心"；女儿死后，她在不必自己掏腰包的情形下，将女儿的坟墓修葺一新。"母爱"的虚伪面具被无情地一层层撕去。在金钱面前，母爱的温情荡然无存，这种麻木不仁的状态令人悲哀，令人心痛。

2.4 扼杀儿女幸福、扭曲变态的母亲

"儿行千里母担忧"一句话道出了母爱的真挚深厚，无论自己的子女身在何方，母亲们永远眺望着子女所在的方向，时时刻刻牵挂着自己的孩子们，为他们的安康、幸福而祈祷、祝福，为了儿女不惜牺牲自己的一切，

2) 单丽佳，<走下神坛的圣母——浅谈张爱玲与萧红小说中的母亲形象>，女性文学研究专题，第3期 2008.

3)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1——长篇小说：半生缘≫ (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p.173.

甚至是生命。但张爱玲的小说中却颠倒过来，儿女反而成为母亲性压抑的牺牲品，母亲形象呈现出触目惊心的病态与残忍。

≪金锁记≫中的曹七巧，她自己本身是个受害者。她的丈夫是个骨痨病患者，她享受不到正常女人的性爱生活。弗洛伊德（Sigmund Freud）认为："常态的性的满足的缺乏可以引起神经病。实际上由于这种缺乏的结果，性的需要乃不得不使性的激动寻求变态的发泄。"[4]长期的性压抑使曹七巧变成了一个变态的"狂女"。她的儿女是在她的专制淫威下长大的，成了她变态人格发泄的牺牲羊。儿子长白自幼懦弱，不求上进，除了打小牌之外，只喜欢跑跑票房，不肯读书。他在外面赌钱，捧女戏子，甚至逛窑子时，母亲七巧就慌忙地给他娶了一房媳妇。七巧自己的性欲得不到满足，也不允许她身边的人享受正常的性生活，即使是她的亲生儿子也不行。她百般挖苦、刁难儿媳妇，故意让长白陪自己通宵抽大烟，使他不能和妻子同房，以致于使儿媳妇感到"这是个疯狂的世界，丈夫不像个丈夫，婆婆也不像个婆婆。"[5]在七巧的多番挑拨之下，儿子夫妻的关系也日趋僵持，七巧就替儿子讨了个姨太太，使媳妇的日子更不好过。结果，长白的妻妾两人都在不堪七巧的折磨之余，双双不幸死去。就这样，七巧剥夺了儿子应有的正常人的生活。

七巧的女儿长安，上过学，但是由于母亲经常去学校搞恶作剧，使得她没脸见老师同学而辍学回家。当她患病时，母亲七巧不带她去看医生，反倒劝女儿抽鸦片，结果使长安染上了烟瘾。当长安年近三十的时候，好不容易遇到了意中人童世舫，为了他，她戒了鸦片，想与他结婚。但母亲七巧一再拖延婚期，女儿表示着急的时候，她总骂她不要脸。在百般刁难与冷嘲热讽后，女儿决定与童世舫解除婚约。当他们成了普通朋友后，再次萌发了爱情，但七巧却故弄玄虚、阴险地设下了一个小圈套，拆散了这对有情人。就这样，女儿的"最初也是最后的爱"也被七巧无情地扼杀了。

3. 张爱玲的控父情节

"父爱如山"，如果说母爱像丝丝春雨滋润着我们的心田，那么父爱就像一座巍峨耸立的高山为我们挡风遮雨。自古以来，文人墨客都用最深沉、最素朴的话语来赞颂父亲，感谢父爱。鲁迅说："中国亲权重，父权更重，父亲对下一代，对妻子的权利，从来认为神圣不可侵犯的。"[6]父亲以他们的威严赢得了子女的尊敬和仰视，他们是太阳，具有宽广的胸怀。但在张爱玲的笔下，这些太阳则变成了"残阳"，失去了男人的阳刚之美，他们极其平庸、自私、软弱、低能，慈父形象隐形匿迹、不见踪影。张爱玲在作品中对这些父亲进行了无情的控诉。

张爱玲笔下的父亲形象，大致分为以下几种。

3.1 虚伪无情的父亲

在张爱玲的小说中，有这样一类父亲，他们表面上冠冕堂皇，但背地里却是另一副见不得人的嘴脸。≪心经≫中小寒的父亲许峰仪，因扭曲的性冲动爱上了自己的女儿，为了逃避乱伦的指责，又选择了长相酷似女儿的、女儿的朋友凌卿。他是那么的虚伪、自私、无情，在他准备与凌卿同居收拾行李离开家时，他无情地甩下了伤心哭泣的女儿，扬长而去。

4) （奥）弗洛伊德 著 高觉敷 译，≪精神分析引论≫(北京:商务印书馆，1984)，p.244.

5)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7——中短篇小说：1943年作品<金锁记>≫(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p.32.

6) 鲁迅,≪鲁迅全集(第一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1981)，p.129.

3.2 自私残暴的父亲

≪琉璃瓦≫中的姚先生有大大小小七个漂亮的女儿，当亲友们称他太太为“瓦窑”时，他却不以为然地说：“我们的瓦，是美丽的瓦，不能跟寻常的瓦一概而论。我们的瓦是琉璃瓦。”他在一家印刷公司供职，薪水只够贴补一部分家用，好在还有祖上遗下的一点家产，勉强维持生活。关于女儿们的前途，他有极周到的计划，他把美丽的女儿们作为自己晋升加级的筹码和向上爬的垫脚石，根本不管女儿的真实感受，不为女儿的幸福着想。

≪花凋≫中的郑先生是个封建遗少，由于不承认民国，自从民国纪元起他就没长过岁数，只知道“醇酒妇人和鸦片”，他极端自私，自己可以随意挥霍，在外面养姨太、生孩子，儿女们连残羹冷炙都分不到。当女儿川嫦身患严重的肺病之时，他不但不想拿钱给女儿看病，反而认为自己这样做是合情合理的。

3.3 “寄生虫”似的低能无为的父亲

在张爱玲的作品中，我们常常可以看到这样一类父亲，他们大都是封建遗少，他们像“寄生虫”一样慢慢地、一口一口地咬噬着祖上代代积累下来的家业。他们大都不学无术、不务正业、赌博、玩女人、逛窑子、养姨太太、抽大烟，他们只是挂着“父亲”的头衔而已，对自己的子女不尽半点义务。≪年轻的时候≫中的潘汝良，≪倾城之恋≫中的白三爷、白四爷，≪留情≫中的米先生以及≪金锁记≫中的姜季泽、姜长白，都属于此种类型的父亲形象。

4. 张爱玲审母、控父情结产生的原因

凡是读过张爱玲小说的人都会情不自禁、异口同声地产生一个共同的疑问：为什么张爱玲的小说中的父母都是凶父、恶母呢？为什么她的小说中自始至终充斥着一种审母、控父的情结呢？众所周知，张爱玲≪传奇≫中的小说都是她在二十几岁的时候写出来的，诚然，我们不否认张爱玲有超人的敏捷思维，有早慧的天赋，但若不是有曲折的、丰富的人生体验，不管思维多么敏捷、多有天赋，无论如何是写不出如此深彻、如此悲凉的人生全景的，特别是有关父母形象的刻画与描写。因此，要想找到问题的症结、根源，我们有必要坐上时间隧道的列车，追溯一下张爱玲的成长过程，去感受一下她人生的悲苦。

张爱玲出生在一个名门望族，祖父为清朝大臣张佩纶，祖母系李鸿章的女儿。她的父亲是个典型的封建遗少，有旧式的文化教养，会吟诗作赋。但他有一切遗少的恶习：挥霍家产、坐吃山空、抽鸦片、养姨太太、逛窑子、对子女缺少责任心，母亲因此而抛下一双年幼的儿女两次远涉重洋，去法国等欧洲国家留学。从童年时代开始，张爱玲已经不喜欢父亲了，她把世界分作两半，“光明与黑暗，善与恶，神与魔”，属于父亲“这一边”的，她认为“必定是不好的。”张爱玲和弟弟受到的待遇在更多情况下取决于父亲的兴致，她从父亲那里领略到的封建家长式的专断、粗暴、虐待多于父爱。更糟糕的是，就在张爱玲中学毕业的那一年，她因与后母发生争执，而遭到父亲的毒打，父亲甚至将她监禁起来，在被监禁的过程中，她得了一场大病，父亲竟对身患重病的女儿置之不理，不给她找医生治病。后来，她好不容易在下人的帮助下，逃离了父亲的家，投入了母亲的怀抱。从此以后，她就与这个家永别了，她与父亲的父女亲情也就到此为止了。

张爱玲的母亲黄逸梵虽然出身豪门，但由于是小妾所生，父母又早逝，因此童年并不幸福。她与张爱玲的父亲的婚姻也是被迫的。但她受五四思潮的影响，在无法忍受丈夫张志沂抽大烟、嫖娼、养姨太的放荡生活方式之时，她毅然离开丈夫、儿女，漂洋过海去法国留学。当时张爱玲只有四岁，正是最需要母爱、最离不开母亲的关怀、照顾的时期。因此，在张爱玲童年的记忆里，没有与母亲的美好回忆。在张爱玲8岁那年，母亲游学归来，她父亲那时痛改前非，把姨太太赶走，而且拼了命把鸦片戒掉了。父母言归于好，张爱玲的生活也恢复了正常。但好景不长，不久，父亲故态重萌，母亲忍无可忍，决然地与父亲离婚，再度赴法国留学。那时，张

爱玲已上中学。童年、少年时期是孩子最需要母爱的时期，也是性格成长中最重要的时期，可塑性最大的时期。可这两个重要的时期，母亲都不在张爱玲的身边，她没有感受到母爱的温存，当然也不会用她的笔触去讴歌、赞颂母爱之伟大了。她中学毕业的那一年（1937年），母亲从欧洲返回上海，张爱玲在与父亲闹翻、从父亲家逃脱出来以后，她投奔了母亲，与母亲及姑姑住在一起。母亲一直想把张爱玲培养成一个淑女型的女人，但此时的张爱玲已经不是母亲记忆中的女儿了，她长大了，已经过了可塑期，她所做的一切都不能令母亲满意，母亲对她很失望。不久后，母亲再度出国，而且一去不回，这也成了张爱玲与母亲的诀别。

纵观张爱玲的成长历程，我们不难发现，她从小生活在一个不稳定、不健康的家庭环境之中。她的父母感情不合，不能为他提供一个和睦、温馨的家庭氛围。她的父亲一心沉迷于自己的吃喝玩乐之中，对她和弟弟很少疼爱；她的母亲不满于丈夫的堕落、无为的生活方式，在她最需要母爱的时期两度撇下她远赴异国他乡，她没有感受到母爱的温馨、美好。正是由于这样的成长经历，给张爱玲留下了终生难忘的烙印，对她日后的创作与书写产生了不容忽视的影响。

5. 张爱玲对父母形象的解构

综观张爱玲笔下的父母群像，几乎没有一个是符合常态的。他们自私、虚伪、平庸、愚昧、病态甚至变态，在他们的身上，我们看不到为人父母的仁慈，看不到父母子女之间那种难舍难分的浓浓的骨肉亲情。张爱玲用犀利的笔触，把这些父母的群像一一曝光于世人眼前，为我们勾画出一幅苍凉、凄楚、可悲的人生图景。我们细读张爱玲的作品，会发现她对父母形象的解构，也是她对日常生活原生状态还原的一种表现。张爱玲长于他人之处在于她并没有因为自己对家庭、对父母之爱的幻灭而哭天怨地、消沉下去，她能够超然地站在繁华都市的对立面，用旁观者冷峻的眼光和犀利的笔锋审视和刻画日常生活中掩藏在虚幻浮躁光环之下的真相。张爱玲笔下的父母都是生活在半殖民地、半封建社会的夹缝中的，他们迷失了生活的方向，背负着时代的重压，在这个畸形的社会中生产着畸形的人格，严酷的现实造成了中国人心灵与民族信仰的无所依傍。此时的父母也在残酷的现实中渐渐失去了为人父母应有的仁慈、爱心。在这种写作策略之下，父母形象的刻画成了张爱玲揭示生活原生态的手段。

张爱玲对父母形象的刻画，其实正同其他形象的刻画一样，最终是为了揭露人本质的自私，母亲也好，父亲也好，作为人类社会的一个成员，都有人本质上的自私。她将每个父母首先当做一个人，而不仅仅是母亲或父亲来写。

然而，在张爱玲的作品中，这些平庸冷漠甚至极度自私变态的父母们偶尔也会闪现出一丝丝父母之爱的光辉，只不过这一点点光辉往往很快又被压抑的黑暗现实所扑灭。比如小说≪心经≫中，有着畸形的恋父情结的许小寒一直对自己的母亲持有轻视、敌对之意，母女之间危机重重，“母子连心”的温暖似乎是不可能发生在她们身上的。但是在小说的最后，守候在绝望的小寒身边照顾她的仍然是她的母亲。应该说这可以看做是她们回归正常亲子关系的一个象征。就连病态到极致的曹七巧，偶尔也会有想把女儿长安嫁到好人家去的想法，当然她最后将自身的不幸报复在子女的身上，破坏了儿子的家庭、拆散了女儿的姻缘，其残忍并不能就这么消解，但是至少可以说明，在她偶尔清醒的时候，在她的潜意识当中，其实也意识到了自己对子女的责任。≪花凋≫中，当郑先生去病房看望身患严重的肺病的女儿川嫦之后，看到女儿消瘦、憔悴的样子，不禁泪流满面，当然这只是一瞬间的，但这也说明在他身上还是有着最基本的父情的。弗洛姆（Fromm, Erich）认为：“人并非一定是邪恶的，只有当适合他成长与发展的条件缺乏时，他才会变得邪恶。邪恶本身并不是独立存在的，它是缺乏善良，未能实现生命的结果。”[7]作为人的父母，在强大的外部压力下，处于莫可奈何的状态，使得他们在想表达对子女的关心的时候力不从心，久而久之，最后连这份“心”都没有了，变得彻底的自私冷漠。

7) 埃・弗洛姆，≪为自己的人≫(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8），p.200.

6. 结语

以上，我们对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进行了分析，对她的审母、控父情结及其成因与解构进行了阐述。

我们不难发现，张爱玲笔下的父母形象是跟她的成长历程、生活经历有着密切的联系的。她从小生活在一个缺乏和睦、温馨气氛的家庭环境中，父母的离异及对子女的漠然，给她幼小的心灵留下了一道永远抹杀不掉的伤痕。但张爱玲高人一筹的是她并没有因此而颓丧、放弃对生活的渴求、对生命的探求。她把自己的生活经历作为艺术的源泉，把她的所见、所闻作为创作的第一手资料，以旁观者的身份，用冷峻、犀利的笔锋，把一个个悲怆却又真实的故事展现在读者面前，包括对父母形象的描写。她一反文人赞颂父母之爱的常规，而是在对一个个丑态百出的父母的审判与控诉的过程中，对日常生活原生状态加以还原。她把每个父母首先当做一个人，而不仅仅是母亲或父亲来写，从而实现了对人性自私的揭露及对道德沦丧的批判。

张爱玲对父母形象的解构，并非着意渲染父母之爱的沦丧，而是要表达在那样一种时代，父母作为根本的“人”已经被扭曲，从而更加揭示出时代和环境的险恶，世事弄人的无奈与苍凉。

参考文献

金元浦 主编，≪文艺心理学≫，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3年.
鲁迅，≪鲁迅全集≫第一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1981年.
(奥)弗洛伊德 著 高觉敷 译，≪精神分析论≫，北京：商务印书馆，1984年.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2——长篇小说：怨女≫，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年.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7——中短篇小说：1943年作品≫，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年.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8——中短篇小说：1944年作品≫，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年.
张爱玲，≪张爱玲典藏全集9——中短篇小说：1945年以后作品≫，哈尔滨：哈尔滨出版社，2003年.
单丽佳，<走下神坛的母亲——浅谈张爱玲与萧红小说中的母亲形象>，女性文学研究专题，2008,03.
苏美妮、李芳，<论张爱玲≪传奇≫中的母性批判>，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22卷 第1期，2008年 01月.
埃・弗洛姆，≪为自己的人≫，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88.

11月 21日(土) 14:20~15:50

언어학(2)-문자

❖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허선영(안산대) 包頭市 출토 흉노와당 시론

신세리(한국외대)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 연구

이광혁(호남대) 训诂原理与≪论语≫疑难词句释证

包頭市 출토 흉노와당 시론

허선영*

<目 次>

1. 머리말
2. 흉노 문자와당 당면형식
3. 흉노 문양당 당면형식
4. 맺음말

1. 머리말

1954년 내몽고 包頭市 25호 漢墓 건축군에서 흉노와 연관된 '單于和親', '單于天降', '四夷盡服' 문자와당과 羊角의 문양와당이 출토되었다. 1981년에는 '安樂富貴', '千秋萬歲', '千秋' 문자와당과 문양와당이 출토되었는데 문양의 대부분은 양각문으로 시문되었다.[1] 현재는 內蒙古博物館과 中國秦塼漢瓦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와당 편년분류법 5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當面構造(와당면의 내외적 구조)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내몽고 포두시에서 출토된 당면구조가 중원지역(섬서지역) 와당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본고에서는 한대 중원와당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흉노와당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편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대 중원와당과의 차이점을 통해 흉노와당의 편년을 비정하고 더 나아가 한대시기 북방와당의 특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흉노 문자와당 당면형식

와당은 고대 건축에 있어 중요한 부속품 중 하나로 비와 적설 등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목조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와당은 시대별로 시문되는 와당면의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고대 와당사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는 한대시기로 당시 문화, 예술, 사상, 제도 등 함축적인 내용들이 와당에 시문되어 있어, 한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주시기부터 한대까지는 궁궐건축에서만 사용이 되었으며, 왕실과 연관된 건축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였기에 한대 문자와당을 '궁궐문자'라고 할 수 있겠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1000여 점으로 문자와당이 출토되었는데 내용은 길상류 70%, 관직류(관청포함) 10%, 궁원류(사택포함) 10%, 기사류 5%이다.[2] 그 외 명문해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로 분류되는 명문 와당은 5%정도 된다. 이 가운데 흉노 문자와당은 길상류 '安樂富貴', '千秋萬歲', '千秋'와 기사류 '單于和親', '單于天降', '四夷盡服'이 등장하고 있다.[3]

* 안산대학교

1) 陳永志 主編,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內蒙古出土瓦當』(北京: 文物出版社, 2003), 32~33쪽.

2) 통계치수는 2,000년부터 필자가 수집한 문자 와당 1,000여점을 근거로 분류, 정리한 것이며,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는 문자와당의 총체적인 통계가 아님을 밝혀둔다.

문양와당은 와당의 출현부터 등장하였는데 雲紋을 비롯하여 樹木紋, 羊角紋, 乳丁紋, 鋸齒紋 등의 문양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문양와당 가운데 운문은 가장 흔히 보이는 문양중 하나이다. 문양과 당면의 구조는 시기별로 다르게 표현됨으로 한대 와당 편년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대와당은 중국 와당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오는데, 서한초기 문자와당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문양와당과 문자와당은 한대와당 편년연구에 있어 '와당의 제작방식', '당면의 구성(문자 혹은 문양)', '글자체' 등을 중심으로 초중후기로 나누고 있다. 한대초기는 한고조부터 경제시기로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141년, 중후기는 무제시기부터 소제, 선제에서 왕망시기인 기원전 140년부터 24년, 동한 25년부터 220년 한왕조가 멸망하는 시점을 후기로 나눈다.[4] 편년 분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와당의 제작 방식으로, 와당은 시기별로 당면의 문양과 명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고조는 60여 년간 흉노와 화친정책을 체결한다. 그런데, 흉노 문자와당의 당면 구조는 서안에서 출토된 쌍선의 초중기 형식이 아닌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대 초기에 제작된 것이 아닌 전형적인 한대 후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흉노와 한왕조와의 정치적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선우화친' 명문을 통해 중원을 통일한 막강했던 한왕조의 두려움이 북방민족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문자와당이 한대 초기가 아닌 한대 후기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흉노의 민족 특성상 유목생활을 주로 하였으며, 중원의 정착생활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와당의 사용은 토목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목생활을 하던 흉노족이 토목건축에 와당을 올려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單于天降', '單于和親', '四夷盡服' 명문은 당시 기록 기록하고 있는데, '선우천강'과 '선우화친'은 포두시 소만 한대 묘터에만 출토되었고, 호한야선우가[5] 한왕조 속국일 당시 王昭君을 연지로 보내고 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6] 흉노의 세력이 약해지는 서한 후기 哀帝, 平帝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1】 와당의 '漢幷天下'는 전형적인 섬서지역의 중기와당으로 당면의 구획이 쌍선이며, '單于和親', '四夷盡服', '單于天降'와당은 단선의 후기형식 와당이다.

漢幷天下 (중기) 中國古陶博物館 (허선영 제공)	單于和親 (후기) 『秦漢瓦當』 982	四夷盡服 (후기) 中國秦塼漢瓦博物館 (허선영 제공)	單于天降 (후기) 中國秦塼漢瓦博物館 (허선영 제공)

【그림1】 한대 중후기 문자와당

3) 와당은 건축의 부속품으로 건물지에서 출토된 와당은 그 양이 일정치 않게 출토된다. 흙으로 만들어 구운 것이다 보니 세면에는 위작도 많다. 본고에서 참고한 연구 자료는 채집이 아닌 출토지가 명확한 와당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4) 허선영, 『중국 한대와당의 명문연구』(서울: 민속원, 2007), 84~85쪽.

5) 묵특선우 8대손.

6) (漢)班固 撰, 顔師古注, 『後漢書・南奴列傳第七十九』(北京: 中華書局, 1995), 2941쪽.

2. 흉노 문양와당 당면형식

한대 와당은 섬서성 장안에서 대거 출토되었다. 중국 고대 문양와당은 당시 문화적 관점을 표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특히 한대 문양와당은 시기별로 당면에서 처리되는 문양의 특징이 달라 편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흉노 문양와당은 양각문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당면을 사분 구획 후 양각문으로 시문되어 있다. 섬서지역에서는 한대 중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문양이다. 반면에 흉노 문자와당에는 대부분 양각문으로 시문되어 있어 중원의 와당과 편년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흉노 양각문 와당이 후기에 제작되었던 근거를 왕망시기에 제작된 紋樣兼文字瓦當의 방증을 통해 흉노 문양와당이 한대 후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비정할 수 있었다. 【그림2】

‘壽成’문자와당(왕망시기)
섬서성 출토(한대)

‘千秋’문자와당(후기, 원제시기)
내몽고 포두시 출토(한대)

【그림2】 한대 후기 문자겸문양와당

【그림2】 탁본은 왕망시기에 제작된 ‘壽城’ 문자와당이다. 2자 와당으로 좌우에 명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당면에는 양각문이 배치되어 있다. 한무제시기에 사용된 ‘未央宮’의 명칭은 왕망시기에는 ‘수성’[7]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원제시기에 제작된 ‘천추’ 명문와당도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한대 초기에 사용된 양각문이 후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섬서지역 와당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이다. 반면, 흉노와당에서는 양각문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문과 문양이 함께 배치된 경우도 양각문을 사용하고 있다.

후기, 원제시기
내몽고 포두시 출토(한대)

후기, 원제시기
내몽고 포두시 출토(한대)

【그림3】 한대 ‘千秋萬歲’ 문자겸문양와당

7) 『秦漢瓦當』 773.774.

섬서성에서 출토된 '樂哉破胡' 문자와당은 흉노문자와당과 당면 형식은 단선구획이다. 【그림4】 섬서성에서 출토된 유일한 흉노와 연관된 와당이다. '胡'는 오랑캐를 칭하는 것으로 한왕조가 흉노를 破하고 기뻐하는 문자와당이다. 마찬가지로 후기에 제작된 와당으로 흉노 문자와당은 원제시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樂哉破胡(후기)
『秦漢瓦當』 983

【그림4】 한대 '樂哉破胡' 문자겸문양와당

4. 맺음말

흉노 와당의 출토는 그 수량이 매우 적다. 본고에서는 선우와 연관된 문자와당 7점과 양각문 와당을 중심으로 흉노와당의 특징과 연대를 살펴보았다. 서한초기 화친정책을 체결한 시기가 아닌 흉노가 약해지던 시기에 와당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문양와당과 문자와당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섬서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진 양각문 와당이 북방에서는 후기에 제작하고 있었다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와당은 당시 궁궐의 주인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후장제도가 성행하던 한묘에도 와당을 사용한 예도 있는데 '盜瓦者死' 문자와당이 출토됨에 따라 당시 와당은 한왕조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기물이며, 장수를 바라는 부적이었다. 천자가 머무는 공간건축에 하늘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에 와당을 배치한 이유였다.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 연구

신세리*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석문과 한국어 번역
3. 주요문자고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고는『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에 나타난 죽간의 특징과 문장 석문을 풀이하고 전래문헌에서 출현한「趙簡子」에 대해 재조명한다. 또 출토문헌에 출현한 언어문자의 특징을 고찰해 본다.

먼저 본 편을 소개하면,「趙簡子」편은 11개 죽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간의 길이는 약 41.6cm이고, 넓이는 0.6cm이다. 제4간과 11간에 결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하다. 원 죽간에는 번호가 없다. 다만 현재 문장을 고석한 정리자가 제시한 죽간의 배열순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죽간 뒷면정보에 근거하여 배열한 것이다.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범헌자(范獻子)가 조간자(趙簡子)에게 진언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조간자와 성전(成剸)의 문답으로 연결되어 있다. 범헌자와 조간자는 모두 晉 역사에서 거론되는 큰 인물이며 卿을 지낸 인물들이다. 성전 또한 晉國의 大夫이며,『좌전(左傳)』과『설원(說苑)』에서 보인다. 전편의 앞부분은 범헌자와 조간자의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후편의 일부분은 조간자와 성전의 문답을 통해 청렴, 사치와 예 및 국가 정리사이의 변증적 관계를 서술하였다. 이에 본 죽간문은 정리자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춘추말기의 역사와 사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근거라고 여겨지고 있다.[1)]

본 연구의 주요인물인 趙簡子(기원전？－前476年)는 晉國에 활약한 인물이며, 이 시기는 士鞅 즉 범헌자(？－前476年)가 건재했던 시기로 보고 있다. 본편의 정리자는 鞅이 中軍將이고, 趙鞅이 上軍將인 시기라고 보았다. 𠔃柬子는 즉 조간자(趙簡子)이며, 名은 鞅이고, 시호(謚)는 簡이다. 春秋末 晉國의 正卿, 嬴姓, 趙氏를 역사상 '趙簡主'라고 칭한다. 일찍이 晉國은 下軍佐, 上軍將, 中軍佐, 中軍將이 되어 晉國의 정치무대에서 40여년간 활약하였다. 문맥의 뜻에서 살피면, 이 시기 조간자(趙簡子)가 장군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이며, 士鞅은 여전히 건재했는데, 그의 상급자였다. 죽간문에 나타난 시대는 아마도 士鞅이 中軍將이고, 趙鞅이 上軍將인 시기인 듯하다. 본편에 등장하는 '吾子'는 범헌자(范獻子)가 조간자(趙簡子)에게 칭한 존칭이다. 실제로 조앙(趙鞅)이 하군좌(下軍佐)일 때, 사앙(士鞅)은 상군좌(上軍佐)가 되었다. 조앙이 상군장(上軍將)일 때, 사앙은 중군장(中軍將)이 되었다. 사앙의 지위는 줄곧 조앙보다 높았다. 죽간문에서 이른바 '간언'한 바는 사실 '경계함을 알리는 것'이다. 조앙의 아버지 조경숙(趙景叔)은 일찍 죽었고, 조앙이 일찌감치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정에 올라 장군에 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1)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 上海：中西书局, 2017년4월.

주변국 중에 특히 제나라의 정세를 살피면, 본 편에 반영된 시기는 '전(田)'성이 제(齊)를 지배하던 시기[2]로 제(齊) 환공(桓公)24년(기원전 672년) 진완(陳完)[3]이 제(齊)에 머문 시기부터 기원전38년 '전(田)'과 제후로 나란히 할 때까지 286년이라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사건은『史記・齊太公世家』,『田敬仲完世家』등에 나타난다. 죽간문에서 "제나라의 군주가 실정하여, 진씨가 그것을 얻었다"하였는데,『田敬仲完世家』의 '조공이 즉위하자 전걸은 제상이 되어 제의 정치를 맡았다(悼公旣立, 田乞爲相, 專齊政)'는 구문에 따르며, 田氏代齊의 과정에 처하였을 것이며, 이 문장의 배경은 아마도 전걸(田乞)이 제(齊) 도공(悼公)의 제상이 된 이후 (기원전 489年-485年)일 것이다.

2. 석문과 한국어 번역

[석문]

盆(趙)柬(簡)子旣受寧牆(將)軍[1], 才(在)朝[2], 軓(范)獻子進諫曰[3]: "昔虗(吾)子之牆(將)方少[4], 女(如)又(有)訛(過), 則非子之咎, 帀(師)保【1호간】之辠(罪)也[5]. 豪(就)虗(吾)子之牆(將)倀(長)[6], 女(如)又(有)訛(過), 則非子之咎, 嫥(傅)母之辠(罪)也[7]. 今虗(吾)子旣爲寧遅(將)軍巳(已), 女(如)又(有)訛(過),【2호간】 則非人之辠(罪), 牆(將)子之咎[8]. 子𠂤(始)造於善[9], 則善人至, 不善人退. 子𠂤(始)造於不善, 則不善人至, 善【3호간】人退. 用繇(由)今以㞷(往)[10], 虗(吾)子牆(將)不可以不戒巳(已)!"【4호간】

盆(趙)柬(簡)子䎽(問)於成𠜱(剸)曰[11]: "齊君逵(失)政, 陳是(氏)㝵(得)之[12], 敢䎽(問)齊君逵(失)之系(奚)繇(由)? 陳是(氏)㝵(得)之系(奚)繇(由)[13]?"成𠜱(剸)會㑹?(答)曰: "齊【5호간】君逵(失)正(政), 臣不㝵(得)𩰫(聞)亓(其)所繇(由), 陳是(氏)㝵(得)之, 臣亦不㝵(得)𩰫(聞)亓(其)所繇(由). 归(抑)昔之㝵(得)之與逵(失)之[14], 皆又(有)繇(由)也."盆(趙)柬(簡)【6호간】子曰: "亓(其)所繇(由)豊(禮)可𩰫(聞)也[15]?"成𠜱(剸)㑹(答)曰:"昔虗(吾)先君獻公是尻(居)[16], 掌又(有)二尾(宅)之室[17], 以好士庶子[18], 車虘(甲)外[19],【7호간】 六寶(府)湓(盈)[20], 宮中六窖(竈)并六祀[21], 肰(然)則㝵(得)補(輔)相周室, 亦智(知)者(諸)侯之㤅(謀). 豪(就)虗(吾)先君襄公, 親冒虘(甲)𡍮(胄), 以【8호간】絅(治)河淒(濟)之閼(間)之𤔔(亂)[22]. 各(冬)不裘, 頣(夏)不張(帳)籟(箑)[23], 不飤(食)濡肉[24], 宮中六窖(竈)并六祀, 肰(然)則㝵(得)補(輔)相周室, 兼【9호간】攸(霸)者(諸)侯. 豪(就)虗(吾)先君坪(平)公, 宮中卅=(三十)里, 駝(馳)馬四百駟[25], 𢆶亓(其)衣尚(裳)[26], 孚(飽)亓(其)酓(飲)飤(食)[27], 宮中三𡍮(臺)[28], 是乃欬(侈)巳(已), 肰(然)【10호간】則逵(失)攸(霸)者(諸)侯, 不智(知)周室之……會(儉)之欬(侈)……□欬(侈)之會(儉)虘(乎)?"【11호간】

[한국어 번역]

조간자가 상장군을 계승했는데 조정에서 범헌자가 진언하였다. "지난날 어렸을 때 장군께 허물이 있었다면 그대의 잘못이 아니고 사보의 죄입니다. 장군이 자라서 허물이 있다면 그대의 허물이 아니고 보고의 죄입니다. 지금 이미 그대가 상장군이 되었는데 만약 허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고 장군의 죄입니다. 그대가 선으로 처음을 만들어내면 선한 사람이 오게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대가 선이 아닌 것으로 처음을 만들어내면 선하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고 선한 사람은 물러나게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가 생겨나니 그대 장군께서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조간자가 성단에게 물었다. "제나라의 군왕이 실정하여 진씨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감히 여쭙건데 제나라 군주가 어떤 이유로 실정한 것입니까? 진씨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얻었습니까?"성단이 답하기를 "제나라의 군주가 실정했으나 소신은 이유를 모릅니다. 진씨가 그 권력을 얻었으나, 또 소신은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삼가 말씀드리면 옛부터 정권을 얻고 잃는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2) 齊國歷史可以追溯到西周初年. 當時周武王為了酬謝為周朝的功臣和宗室, 大行封建制度, 首封身為師父的功臣姜尚於營丘(後改稱臨淄), 國名為齊.

3) 田氏는 田敬仲, 陳完이며, 제나라에 망명 이후 田完으로 성씨를 바꾸어 불렀다.

조간자가 "예(禮)에 따라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성단이 답하였다. "옛날 저의 선대 군주헌공께서 당에 머물렀으며, 두 개의 방이 있는 집에 머무셨고, 낮은 신분의 선비 士와 庶子를 좋아하셨고, 군대가 한가하고, 육부가 가득 차고, 궁중의 육조와 육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나라 왕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제후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저의 선대 군주 양공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하제 간의 난'을 다스렸습니다. 겨울에 가죽옷을 구하지 않고, 여름에 부채를 펴지 않으며, 젖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궁중에 육조와 육사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나라 왕실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 제후까지 함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선왕 평공은 궁중이 삼십 리이고, 사백의 사두마차가 있으며, 옷이 아름답고, 배부르게 먹고 마십니다. 궁중에 있는 세 누대가 이미 사치스럽습니다. 이에 제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주나라 왕실 □□ 청렴함이 사치이며, □□□를 사치하는데 청렴한지 모르겠습니다."

3. 주요문자고석

(1) 세 인명 : 𥁕(趙)柬(簡)子, 軓(范)獻子, 成𠜱(剸)

정리자는 𥁕簡子의 趙(𥁕)자에 대해 '皿의 뜻을 따르고 勺의 소리(從皿, 勺聲)'인 누증자라고 보았다. 정리자는 馬王堆漢墓帛書의 『戰國縱橫家書』에서 조(趙), 위(魏), 한(韓)의 '趙'는 대부분 '勺'라고 했는데 이는 趙(𥁕)자의 소리부만을 반영한 글자로 '勺'라고 가차했을 것이다.

정리자는 『史記』를 근거로 본 편에 출현한 시대에서 '簡'의 자형이 '柬'자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했는데, 『史記・楚世家』'惠王'의 아들 '簡王'은 江陵望山一號墓에서 출토된 楚簡에서 '柬大王'이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柬은 죽간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다. 束과 八의 의미를 따른다. 八은 나누어 구별하는 것이다. (分別簡之也. 从束, 从八. 八, 分別也.)"이라고 하였으며 '簡'과 '柬'의 상고음은 매우 유사하게 재구된다.[4] 따라서 소리가 유사한 두 글자는 본 죽간본뿐 아니라 일정 시기 통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 편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인물인 軓(范)獻子의 '軓(范)'은 『古璽彙編』[5] 3517, 包山楚簡 87, 123, 본집 『子犯子餘』 등에서 '范'으로 읽는다. 范獻子는 晉國의 正卿으로 名은 鞅이며, 士鞅이라 불리었으며, 시호를 헌자(獻子)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인물 成𠜱(剸)의 '𠜱'은 '단(剸)'의 이체자로 성단(成剸)의 인명이다. 인문에 대해 살피면 『左傳』 소공(昭公)28에 '성단(成鱄)'편의 杜預 주에 따르면 "鱄은 晉의 대부이다."고 하였다. 『說苑』에서 '성단(成搏)'이라고 하였다. 『說苑・善說』에서 "조간자가 성단(成搏)에게 이르기를 '나는 그대가 양식(羊殖)이라는 자가 현명하여 대부라고 한 것을 들었는데 그 행함이 어떠하길래 그러한가?'라고 하자 대답하여 이르길 '소신 단(搏)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조간자가 '나는 그것을 그대의 벗과 가족에게서 들은 것인데, 그대가 모른다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묻자 搏이 '그 사람됨이 여러 번 변하였습니다. 15세에는 청렴하여 그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세에는 인하고 의를 좋아하였습니다. 30세에는 晉의 중군위(中軍尉)가 되어 용하고 인을 좋아하였습니다. 50세에는 변경성의 장군이 되었으며 먼 곳에 있는 자가 가까이서 복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신이 그를 5년을 만나지 못하여 그가 변하였을지 모르니 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간자가 이르기를 '과연 현명한 대부로다. 변할 때마다 위로 올라갔으니!'"라고 하였다. 향종로(向宗魯)는 『說苑校證』에서 "『통감외기(通鑑外紀)』에서 '成傳'이다"라고 하였다.

4) '簡'과 '柬'상고음: 東方語言學, http://www.eastling.org/sgycx_go.php.

5) 故宮博物院編, 羅福頤主編, 『古璽彙編』, 北京:文物出版社, 1981年.

(2) 黽편방을 포함하는 자형

조간자 편에 출현하는 유사한 '黽'편방을 지닌 두 자형에 대해 학계는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시가 되는 구문은 아래 두 예문이다.

趙簡子既受 將軍, 在朝.[簡1] 今吾子既為 將軍已. [簡2]

본 편의 정리자는 이 자형을 '翼'이라고 고석하고 글자는 '㚔'이라고 예정하고 있다. 그는 본 자형이 '翼'계통의 자형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계통성 있는 자형이라고 하며 '宀', '龜', '廾'의 편방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黽' 또는 '龜'는 성부이고, '㚔'이 '蠅'의 의미생략된 성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承'으로 읽고 '繼'로 훈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許文獻은 2017年05月08日 「清華七「趙簡子」從黽二例釋讀小議」를 발표했는데 글에서 이 자형에 대한 이전 연구자들의 견해를 잘 정리하였다. 이 글을 참고하면 각 학자들은 각각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楊蒙은 '命'으로 읽었다. 程浩는 죽간문의 '黽'소리에 근거하여 '孟'으로 읽고 '長'으로 訓한다고 하였다. 武汶은 '元'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黃縣은 '偏'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ee는 '貴'자의 의미생략된 성부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제시했고, 明珍은 이 부류 글자들의 예가 '竈'에서 소리를 얻어 '簉'로 읽고 '副'로 訓한 것이라고 여겼다. 陳偉는 이 자형부류의 예가 분명 '黽'에서 소리를 얻었으므로 이라고 볼 수 있으며, '命將軍'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뜻을 '천자의 명을 받은 장군'(得到天子任命的將軍)'이라고 하였다. 陳治軍은 '黽'의 뜻을 따르고 소리를 얻어 '上'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汗天山은 '弄'으로 풀이하고 '冢'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水之甘은 '冥'의 뜻을 따르고 '黽'의 뜻을 따르는 글자이므로 회의자로 보면서 楚簡 '黽'字의 자형적 근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曾浩嘯는 죽간본의 본 예의 정리자가 '黽'의 뜻을 따르고 '竈'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王寧은 죽간문의 예를 근거로 '上將軍'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林少平은 춘추시기 '上將軍'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자는 龜卜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부 학자들이 이 글자를 '貴', '弄', '冥' 등의 글자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許文獻은 이들 글자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자형에 대해서는 '宀', '黽', '廾'의 구성과 의미를 따르고 黽에서 소리를 얻은 글자라고 풀이했는데 구조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나 '黽'를 성부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6]

본 연구자의 견해로 정리하면, 학계의 전반적인 글자의 구형분석은 타당하나 黽의 소리만을 따른 것인지, 黽의 의미와 소리를 따른 것인지, 가차한 것인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어 蠅龜 등의 글자와도 관련되는지 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黽의 발음은 3개의 소리이며 元, 真, 耕부로 분석된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命', '簉', '冢', '上', '貴', '弄', '冥' 등 중에서 어떤 글자와 음운특징이 관련되는지 살폈을 때, '命'은 耕부이고 '簉'는 幽부 또는 覺부로 분석된다. '冢'은 東부, '上'은 陽부, '貴'는 物부, '弄'은 東부, '冥'은 耕부이다. 소리 관련성만 본다면 耕부인 '命', '冥'과 관련되고, '上'은 晉軍의 三軍제도에 존재했기 때문에 '上' 또는 '命'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리에 더욱 부합하는 것은 '命'에 해당한다. 또 의미에 있어서는 '長', '元', '偏', '副' 로 분석한 견해 가운데 부합하는 것은 본 편에서 출현한 中장군, 上장군, 下장군의 등급에서 중간등급의 의미에 해당하는 '副'로 훈할 수 있을 것이다.

---

6) 張光裕 主編, 袁國華 合編,『郭店楚簡研究』文字編, 台北: 藝文印書館, 1999, p.414. 釋(釋)板柊而為 (朝)卿『곽점』5.7

(3) 가차관계에 의한 자형

제2호간 (就) (吾)子之 (將) (長)

‘張’은 ‘군영(帳)’이다. 『史記・黥布列傳』에서 “숙소로 가보니 의복과 음식과 시종 등이 한 나라 왕이 있는 곳과 의복과 음식과 시종 등이 한나라 왕이 있는 곳과 같았다.(帳御飮食從官如漢王居)”라고 하였으며, 『漢書・英布傳』에서는 ‘帳’은 ‘張’으로 출현하다. 『史記・袁盎晁錯列傳』에는 “이내 칼로 막사를 찢고(乃以刀決張)[7]”고 하였다. 그러나 『漢書・爰盎傳』의 ‘張’은 ‘帳’이다.

본 글에서는 비록 여러 문헌에서 ‘張’을 ‘막사(帳)’라고 하였을 지라도 의미적으로 통하지 않은 면이 있어 단지 소리에 근거하여 통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張’은 知母陽部(李方桂系統 *trjang)이며, ‘帳’은 知母陽部(李方桂系統 *trjangh) 이다. 동성동운의 소리특징을 지녔으며 동일한 攝으로 宕섭이다. 단지 소리에서 차이점은 ‘張’은 平성이고, 韻目이 陽이며, ‘帳’은 去성이고, 韻目이 漾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상 平去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문법구조에 의한 분석

제1호간 (趙) (簡)子既受 將(將)

정리자에 따르면 ‘ ’또는 ‘龜’는 성부이며, 이러한 단서를 따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죽간문에서 이는 장군의 관형어가 되는데 ‘물려받다’는 ‘계승하다’는 의미로 ‘將軍’은 동목구조가 된다.

4. 나오는 말

본 죽간편은 조간자와 범헌자의 대화, 그리고 조간자와 성단의 대화를 통해 정권이 득실하는 연유를 진정한 예(禮)를 통해 설명하였다. 본 편은 조간자가 역사적으로 겪은 사건을 종합한 듯한 인상의 글로『史記』, 『說苑』, 『春秋左傳』 등 기록에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화내용에 따르면, 본편의 성서시기는 490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史記・秦本紀』에서 “혜공원년 공자가 노국에서 재상으로 정사를 행했다. 5년 진의 경사인 중행, 범씨가 진을 반역하여 진은 지씨와 조간자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범, 중행씨는 멸망하여 제나라로 달아났다. 秦의 혜공이 10년에 붕어하여 그 아들 도공이 왕으로 옹립되었다.”[8]고 하였는데 秦의 역사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趙의 상황이 급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秦 혜공의 사망이전 시기인 기원전 前500年—前492年의 이전의 기록으로 중행, 범씨의 반역 이전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편의 원문에는 세 명의 공 先君獻公, 先君襄公, 坪(平)公이 등장하는데 조씨왕조 이전 晉왕조의 선대왕을 가리킨다.

이제 종합하면, 본편의 내용은 坪(平)公이 다스렸던 기원전 557年-541年 이후이며, 490년 이전의 약 40년간 사이 구성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죽간본의 문자와 어휘 소리가차, 의미활용 등에서 晉언어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

7) 원앙이 오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원앙의 옛 종사가 오나라의 사마 신분이 되어 원앙을 구한 일의 일부분으로 막사에 갇힌 원앙을 구하는 장면이다.

8) 『史記・秦本紀』: 惠公元年, 孔子行魯相事. 五年, 晉卿中行、范氏反晉, 晉使智氏、趙簡子攻之, 范、中行氏亡奔齊. 惠公立十年卒, 子悼公立.

참고문헌

[1]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 上海：中西书局, 2017년4월.
[2]故宫博物院編, 羅福頤主編,『古璽彙編』, 北京：文物出版社, 1981年.
[3]李存智,『上博楚簡通假字音韻研究』, 臺北：萬卷樓圖書
[4]羅濤,「『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釋讀拾遺」『漢字漢語研究』, 2019年, 第4期(总第8期).
[5]何樂士等,『古代漢語虛詞通釋』, 北京：京出版社, 1985년.
[6]沈培,『從清華簡和上博簡看'就'字的早期用法』, '源遠流長——漢字國際學術研討會暨AEARU第三届漢字文化研討會'論文, 北京：北京大學, 2015년4월11~12일.
[7]高亨,『古字通假會典』, 濟南：齊魯書社, 1989年.
[8]徐在國,『傳抄古文字編』, 北京：綫裝書局, 2006年.
[9]簡帛論壇『清華簡「趙簡子」初讀』3樓：http://www.bsm.org.cn/bbs/read.php?tid=3459, 2017年.
[10]簡帛論壇：http://www.bsm.org.cn/bbs/read.php?tid=3459, 2017년4월23일.
[11]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http://www.tsinghua.edu.cn/publish/cetrp/6842/20170423070443275145903/1492902310461.docx, 2017년4월23일.
[12] 東方語言學: http://www.eastling.org/sgycx_go.php.

训诂原理与≪论语≫疑难词句释证

李光燏*

<目　录>

1. 训诂学上的字与词的意义
2. “节用而爱人，使民以时”中的‘人’与‘民’
3.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
4. “贤贤易色”

1. 训诂学上的字与词的意义

解读古书，探求古代词义，是训诂的一项最主要的任务。字和词在深入探讨训诂原理时，是两个不同概念，它们在总体上和本质上不是同一个所属，我们不应该混淆。词是语言中最小的可以独立运用的表意单位，也就是语义训释的最基本单位。词所包含的内容为词义，形式是词形，我们用口头形式上出现的是音，书面上出现的是字形。在口语中，词是音与义融合在一起，是音与义的结合体，在书面上词语义结合后再以字的形体来记录，概括来说，也就是形音义的结合。

字指的是文字每一个的个体，字记录词，承受了在此中已经结合了的音与义，同时又以形体为自己的独有形式。训诂材料都是用文字记录的书面材料，而且古代汉语又以单音节词为主，绝大多数符合一字即一词的原则。在古代的训诂材料中所说的“字”，就是今天的词。词是语言本身的构建材料，而字是记录语言的符号。文字一方面受语言制约的，另一方面它又有它自己不受语言制约而独特的发展变化规律和使用规律。例如，词派生出新词后，可以推动字的孳乳，这是文字受语言制约的一面。但也有不因词的产生而造异体字，还有产生了新词而不造新字的“本无其字，依声讬字”的假借现象，这是文字摆脱语言制约，依照自身规律的发展变化。此外，文字和语言不是同一时期产生的，在讨论它们的历史发展时，不能混为一谈。就字的构形来讲，独体字先于由它所构成的合体字；但是，在语言中，独体字所记录的词，不一定先于合体字所记录的词。我们使用语言文字的过程中，由于通假和文字兼职现象的存在，导致字与词的对当关系的不平衡，不整齐，加上异体字不可避免的出现，使同词异字和异词同字现象较多地存在。分析训诂材料是要注意不可任意地以字代词。即使是古代汉语，也并非所有的词都是单音节的，再多音节的单纯词或合成词中，字与词就相互不能联系，成为不同的内容了。在这种情况下，字仅标识语音而不标识语义。

从理论上分清字和词，在实践中注意字与词的差异和它们之间不整齐的对当关系，对准确地认识训诂现象，辨识训诂材料，有很重要的意义。词义的解释除了考察形音义的训诂方法以外还要联系上下文，要作多方面的探索。比如≪论语・学而≫“子曰：‘学而时习之，不亦说乎’”这里的“时”有不同的解释。何晏≪集解≫：“王曰：‘时者，以时诵习之’”，把“时”解作“以时”。邢昺疏以时有三时，一是身中时，如十岁出外就学，十三岁学乐诵诗。二是年中时，如春秋学礼乐，冬夏学诗书。三是日中时，日日所习。这样解释，“以时”有三个意义，按年龄，按季节，按日日。在这里的“时习”到底属哪项意义呢？朱熹≪集注≫里作“时时习之”，取了“日日”一义，“时时”即“日日”，我们在看下文，“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有远方的朋友来看他，即使不被认知，也不愠怒，可见这里讲的不是孩子的学习，已经是成人君子了。如按年龄或季节解，只能

* 湖南大学

指学童讲。按朱熹的“时时习之”按日日说方得讲通。

2. “节用而爱人，使民以时”中的‘人’与‘民’

≪论语・学而≫：“子曰：‘道千乘之国，敬事而信，借用而爱人，使民以时’”这里的“人”和“民”有不同的解释。≪注疏≫：“包曰：‘节用不奢侈，国以民为本，故爱养之’”训释“爱人”为爱民，以“人”为“民”≪集注≫：“故爱民必先于节用”。释“爱人”为“爱民”。刘宝楠≪论语正义≫：“刘逢禄≪论语述何篇≫：‘人谓大臣群臣，≪易・讼≫九二爻：邑人三百户，举大数，谓天子上大夫爱地视侯也。’此以下文言民，则人非民，故解为大臣群臣，于义亦通。”这里引的≪易经・讼卦≫“邑人三百户”，说这个邑里有人家三百户，是个小邑。这里的“人”不是官。有一种解释，认为“人”与“民”是对称关系，“人”指统治阶级中人，民指奴隶。这里对“人”和“民”就有三种解释：一，都是民；二，人指官，民指民；三，人指统治者，民指奴隶。人是不是指官，民是不是指的是奴隶，我们从≪论语≫的全书中能找到这三种解释中哪个是正确的。

≪论语・雍也≫称颜回“在陋巷，人不堪其忧，回也不改其乐”这个大人大概不是官，官不会住在陋巷里。也看不到住在陋巷里的颜回，不会替他不堪其忧。再如：“伯牛有疾，子问之”“斯人也有斯疾也？”这个人指伯牛，伯牛在≪史记・仲尼弟子列传≫中没有做过官。≪论语・述而≫：“诲人不倦”的人，孔子教的学生大都没有做官。≪论语・微子≫“子路从而后，遇丈人，以丈荷蓧，”“植其杖而芸”这个丈人是种田的农民，更不是官。从以上几个例子看来，这几个人都不是官，不是统治者，把人解作官或统治者，显然不合。从治千乘之国来说，官少民多，这个爱人自以民为主，所以汉儒宋儒解爱人为爱民，是符合愿意的。“人”不是指“官”已明了，“民”该怎么解释，≪论语・学而≫“曾子曰：‘慎终追远，民德归厚矣。’”注：“丧尽其礼”，“祭尽其诚，民德归厚”，假如民指奴隶，那么贵族尽礼跟奴隶有何关系？≪论语・为政≫：“子曰：‘道之以政，齐之以刑，民免而无耻。道之以德，齐之以礼，有耻且格。’” “道之以政”明显不是对奴隶的，后一句“道之以德，齐之以礼”也不是对奴隶的。奴隶跟政、德、礼都没有关系，这里的“民”显然不是指奴隶。再有“哀公问曰：‘何为则民服？’孔子对曰：举直错诸枉则民服，举枉错诸直则民不服。”这里的“民”显然不是奴隶，奴隶对国君的举直举枉不会有什么关心，也没有力量去关心它。这说明解释一个词的意义光看上下文还不够，还要看全书中用这个词的句子来定。

3.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

≪泰伯≫：“子曰‘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近人杨伯峻≪译注≫说：“这两句与‘民可以乐成，不可与虑始’[1]意思大致相同，不必深求。后人对此抱着怀疑的态度，认为不恨妥当，于是别生解释，意在为圣人‘孔子’回护，虽煞费苦心，反失孔子本意。如刘宝楠≪正义≫以为‘上章是夫子教弟子之法，词‘民’字亦指弟子’。不知上章‘兴于诗’三句与此章旨意各别，自古以来亦曾未有以‘民’代‘弟子’者。宦懋庸≪论语稽≫则云：‘对于民，其可者使其自由之，而所不可者亦使知之。或曰，舆论所可者则使共由之，其不可者亦使共知之’则原文当读为‘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恐怕古人无此语法。”[2] 杨逢彬≪译注≫所说是正确的。古代的语法罕见主语后直接接一“可”字作谓语者[3]；≪左传≫襄公三年：“对曰：‘午也可’于是羊舌职死矣，晋侯曰：“孰可以代之？”对曰：‘赤也可。’”如上2例午、赤都是专有名词。主语直接接‘可’的否定形式表示某某不同意，某某不认可，以下文献材料中并不罕见，如：

1) ≪史记・滑稽列传≫补所载西门豹之言，≪商君列传≫作“民不可与虑始，而可与乐成”

2) 杨伯峻：≪论语译注≫，北京：中华书局，1980年版，第81页。

3) 杨逢彬：<≪论语≫词语考释5则>长江学术，2015年 第3期（总第47期）109页

“子良不可”（≪左传≫宣公四年）
“公赂之，请绥师，文子不可”（成公八年）
“公若欲使余，余不可而抶余”（昭公二十五年）
“赵孟不可”（定公十三年）
“白公欲以子闾为王，子闾不可”（哀公十六年）

以上5例“不可”都是“不同意”的意思。由此观之，“民可”点断，理解为“民以为可”，是不可靠的。同样，断作“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也是不可行的。≪论语≫时代语言中固然有“可使”“不可使”用法，但是，这里的“使”是“出使”之意。≪左传≫襄公二十二年：“不可使也而傲使人，国之蠹也”沈玉成译：“他不配出使反而对使者骄傲，这是国家的蛀虫。”襄公二十六年：“公曰：‘若。孰可使也？’”沈译：“晋侯说：‘好。谁可以做使呢？’”类似的有≪国语·晋语≫“知礼可使”，谓公子挚懂得礼教，可以出使也。

郭店楚简≫≪尊德义≫：“民可使导之，而不可使知之。民可导也，而不可强也”前两句一般断作“民可使，导之；而不可使，知之”，是不对的。且这里的“而”字用法应换做“若”“如”方可。断作“民可使导之，而不可使知之”则文从字顺。“民可使由之”的读法，其实在孔子时代的语言中常见的。如：“由也，千乘之国，可使治其赋也”（≪公冶长≫），“雍也，可使南面”（≪雍也≫）“求也为之，比及三年，可使足民”（≪先进≫），也不难找到以“民”为主语的例子，如：“易其田畴，薄其税敛，民可使富也”（≪孟子·尽心上≫）“明王之务，在于强本事，去无用，然后民可使富；论贤人，用有能，而民可使治；薄税敛，毋苟于民，待以忠爱，而民可使亲”（≪管子·五辅≫），再如：“明君审居处之教，而民可使居治、战胜、守固者也”（≪管子·君臣下≫）等比比皆是。

4. “贤贤易色”

≪论语·学而≫子夏曰：“贤贤易色；事父母，能竭其力；事君，能治其身；与朋友交，言而有信。虽曰未学，吾必谓之学矣。”对这一章的解读，从“事父母……吾必谓之学矣”一段各家解读大同小异。对于“贤贤易色”一语，历代解读分歧就大了。何晏≪论语注疏≫：“贤贤易色”者，上“贤”，谓好尚之也。下“贤”，谓有德之人。易，改也。色，女人也。……人多好色不好贤者，能改易好色之心以好贤，则善矣，故曰“贤贤易色”。汉孔安国解曰：“言以好色之心好贤则善也。4)”宋邢昺≪论语注疏≫疏曰：“‘贤贤易色’者，上‘贤’字，谓好尚也。下‘贤’字，谓有德之人。易，改也。色，女人也。女有姿色，男子悦之，故经传之文通谓女人为色。人多好色不好贤者，能改易好色之心以好贤，则善矣，故曰‘贤贤易色’也。” 朱熹≪四书集注≫：“贤人之贤，而易其好色之心，好善有诚也。” 清刘宝楠≪论语正义≫解曰：“宋氏翔凤≪朴学斋札记≫：‘三代之学，皆明人伦。贤贤易色，明夫妇之伦也。’……今按：夫妇为人伦之始，故此文叙于事父母、事君之前。≪汉书·李寻传≫引此文，颜师古注‘易色，轻略于色，不贵之也。’”

近人杨伯峻≪论语译注≫译曰：“对妻子，重品德，不重容貌。”杨逢彬≪论语新注新译≫：“贤贤易色”是指：尊敬贤者，轻视美色。南怀瑾≪论语别裁≫：“色”字解释为态度、形色，“贤贤易色”意思是：我们看到一个人，学问好，修养好，本事很大，的确很行，看到他就肃然起敬，态度也自然随之而转。

诸家所释，各执己见，黄侃≪论语集解义疏≫所引“一通云：上贤字，犹尊重也。下贤字，谓贤人也。言若欲尊重此贤人，则当改易其平常之色，更起庄敬之容也”似符合子夏语意。该句是谈对待贤者的态度。前“贤”字是意动用法，有“尊重”义；后“贤”字，是名词，指的是贤人。“贤”字的动词用法，古籍上并不难找，如≪礼记·礼运≫：“以贤勇知，以功为己。”孔颖达疏：“贤，犹崇重也”≪新唐书·姚崇传≫：“崇奏决若流，武侯贤之，

4) 何晏。≪论语集解≫. 儒藏精华编。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7.

即拜侍郎”。前两个“贤贤”的解释诸家解读略同，可后两个字“易色”则大为不同。

“贤贤易色”仅仅共四个字，我们不妨从训诂的角度分析每个字的意义。首“贤”字当“尊敬”讲，这个问题不大，学者都共识的，第二个“贤”字当“贤德”或“贤者”讲，“贤者”与“贤德”，在主旨上差异不大，亦可讲得通。第三个字“易”字则学者各执己见，解释差异就大了。“易”有很多意思，概括为大致有以下两个：一是解做“交换”、“改变，更改”，何晏、朱熹等持此见，二是解做“轻视”，含有“不以为意”的意思。杨逢彬持此见。第四个字“色”字，除南怀瑾解释为“态度”外，其他各家均解释为“美色、容貌”。对于“色”字的解释，我们也同意各家解作为“美色、容貌”。孔子教人，主要是“人伦”。子夏说的这几件事，“事父母”，“事君”，“与朋友交”都与“五伦”有关系，“贤贤易色”一语与后面几句的关系明显的统属关系。第一句该是“人伦”，才符合上下文意，那么“易”字在到底是该解释为“改变”，还是解释为“轻视”呢？清王引之提出通过“审句例”可以推定句意，他说：“揆之本文而协，验之他卷而通”。意思是根据古代的语言习惯来推定句子的意思。对此，杨逢彬在≪论语新注新译≫里说：

> ““易”有两解，一为“交换”，一为“轻视”，我们取后者。因为，那一时代，表达“用……交换……”，大多用“以……易……”句式，例如：“以乱易整，不武。”（≪左传≫）“以羊易之！……以小易大，彼恶知之？”（≪孟子≫）偶尔也用“易之以……”或“与……易……”句式。例如：“我非爱其财而易之以羊也。”（≪孟子≫）“逢丑父与公易位。”（≪左传≫）。可见，如果释“易”为“交换”，则当为“以贤贤易色”。而“易”表“轻视”的句子，都是“易”直接接宾语。例如：“贵货易土，土可贾焉。”“晋师败绩，易秦故也。”（均见≪左传≫）“贤贤易色”句式正同“贵货易土”，是两个谓宾结构组成的联合结构。”

按照王引之的“审句例”和杨逢彬的说法，这里的“易”字在应解释为“轻视”。这样就可以翻译为：“尊重贤德，轻视美色；侍奉父母，能尽全力；侍奉君上，有能够献身；和朋友相交，要言而有信。这种人，即使没有系统地学习过，我也一定说他很有学问了。”子夏这章的意思，仍然是说学问重在实践人伦道德，并不是寻章摘句。他所说的这四个道德规范，拿到今天也有现实意义。对妻子，要论德不论色，这一点今天也应该这样。“事父母，能竭其力”，其实就是一个“孝道”，这个在今天也是应该提倡的。至于“事君，能致其身”，拿到今天说，或对独裁统治的愚忠我们不提了，但对工作、对公事，全力以赴、尽心尽力是应该的。“与朋友交，言而有信”正是我们社会最需要的，不管是商场还是政坛，“言而有信”都应该是我们起码的做人准则。

11月 21日(土) 14:20~15:50

언어학(3)–고대근대한어

❖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윤순일(경상대)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최재영·장 빈(한국외대)
再谈元明清时期表完结的"过"

서지은(한국외대)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문법화

焦毓梅(덕성여대) 现代汉语中"很+VP"结构的再认识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윤순일*

<目 次>

1. 도입
2.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과 발전
3. 범언어적 연구와의 비교
4. 결론

1. 도입

시제(tense), 상(aspect), 양상(modality) 이른바 TAM 범주는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에 관한 범주로 문장에서 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범언어적 연구에 의하면 TAM 범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둘 이상의 범주적 기능을 갖는 경우도 많으며, 개별 범주의 의미체계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양상이란 [가능], [필연], [의도], [의무] 등과 같은 '命題에 대한 話者의 態度'(Lyons, 1977:452)를 말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조동사, 부사 어기사 등이 대표적인 실현 방식이다.

현대중국어의 양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줄곧 큰 편이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동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공시적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론, 대조언어학, 언어유형론 등의 방면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들이 다수 있었다. 특히 언어유형론의 성과들은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에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고대중국어 양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방향이 특정 시대나 방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큰 편이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도의류 양상표현(deontic modal expression)들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유형론의 관점에서 관련한 언어보편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범언어적으로 도의류 양상표현이 인식류 양상표현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영어의 'must'나 현대중국어의 '應該' 모두 유사한 발전 경로를 거쳤다(Traugott & Dasher 2002: 123, Bybee et al. 1994).[1] Bybee et al.(1994)는 범언어적 연구를 통해 행위자 중심 양상에서 화자 중심 양상으로 더 나아가 인식양상과 종속서법의 방향으로 발전함을 밝히고 구체적인 경로를 다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van der Auwera and Plungian(1998)에 수용되어 의미지도모형으로 발전한다. 이에 따르면 양상은 내부의 분화 이외에도 갈망, 의미, 요구 등의 전양상(past-modal)과 미래, 조건, 양보와 같은 후양상(post-modal)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의미 분화의 방향성에 착안하여,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도의류 양상표현의 의미기능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고대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생성에 보이는 범언어적 보편성과 개별 표현에 보이는 특수성을 함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상대학교

1) Traugott & Dasher(2002: 123), Bybee et al.(1994) 참조.

2.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과 발전

도의류 양상표현의 사용현황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상범주의 계통에 따라 구성원을 정해야 한다. 도의류 양상표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에는 조동사와 부사를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기초에서 수정을 가하여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도의류 양상표현의 구성원 <표1>과 같이 잠정 확정하였다.

〈표1〉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

[의무]류	應, 當, 宜, 合, 必, 要, 欲, 欲得, 須, 事須
[허가]류	可, 可以, 得

2.1 應, 當, 宜, 合

상고중국어 시기 '應'은 주로 '상응하다(相應)', '상당하다(相當)'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 汪維輝(2000: 315-320), 楊伯峻・何樂士(1992: 222), 李明(2001: 25) 등에 따르면 대략 東漢代에 이르면 '상응하다' 의미의 동사 '應'은 조동사로 발전하여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낸다. 인식양상 [필연]은 도의양상 [의무]에서 발전된 것으로 [의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인 위진남북조 시기 처음 출현한다.

상고중국어 시기 '當'은 '막다(遮擋)', '상당하다(相當)', '대등하다(對等)'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적당하다(適當)', '적합하다(適合)'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도 쓰였다. 太田辰夫(1987/2003: 187), 楊伯峻・何樂士(1992: 222), 劉利(2000: 21), 汪維輝(2000：317), 拙稿(2016) 등을 종합하면 조동사 '當'은 상고중국어 시기 '상응하다' 의미의 동사로부터 발전하여 도의양상 [의무]와 인식양상 [필연]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면 미래시제표지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상고중국어 시기 '宜'는 '적당하다(適當)', '적합하다(適合)'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다. 楊伯峻・何樂士(1992: 221), 太田辰夫(1987/2003: 187), 劉利(2000: 21) 등의 견해에 따르면 '宜'는 상고중국어 시기에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조동사로 발전하였다. 조동사 '宜'는 '應', '當'과 같이 도의양상 [의무]와 인식양상 [필연]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상고중국어 시기 '合'는 '닫다(閉合)', '붙이다(合攏)' 의미의 동사였다. 여기에서 '집합하다(聚合)', '부합하다(符合)' 등의 의미가 인신된다.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合'는 바로 '부합하다' 의미의 동사에서 발전한 것이다. 李明(2001: 34, 48), 汪維輝(2000: 323) 등에 따르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合'은 비교적 늦은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용례가 보이며, 인식양상 [필연]의 용례는 당오대 시기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출현한다.

2.2 必

상고중국어 시기 '必'은 이미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일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다기능 양상부사로 사용되었다. 谷峰(2010: 65-76), 姚振武(2015), 巫雪茹(2016: 262-277) 등의 견해에 따르면, '必'은 본래 'NP, 必'의 구조에서 술어로 쓰여 주어가 가리키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확고함(決然)'이나 '단연함(斷然)'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태동사(혹은 형용사)였다. 이후 NP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상태동사 '必'은 '필연성'과 '필요성'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동사 '必'은 종종 VP 앞에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때 '必'은 NP+VP가 대표하는 명제에 대하여 화자가 보이는 '확고함' 또는 '단연함', '필연성'과 '필요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들은 일종의 관점이나

태도 즉 양상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NP必VP'의 통사적 환경에서 쉽게 조동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태도나 관점의 유형에 따라 '必'의 의미는 각각 도의양상 [의무], 인식양상 [필연], 동력양상 [의지] 등으로 파생된다.

2.3 要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要'은 매우 다양한 양상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다기능성 조동사로 사용되었다. '要'는 본래 '허리', '요점'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서 '허리에 묶다', '중간을 막다', '개괄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인신되어 쓰였다. 盧卓君(1997), 馬貝加(2002), 李明(2016: 75-76), 염죽균(2018: 74-75)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要'의 양상기능은 위진남북조 시기 크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해 획득되는데, 한편으로는 '요구하다' 의미의 동사로부터 동력양상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괄하다(概括)' 의미의 동사에서 '결국(終歸)' 의미의 부사로 인신되었다가 다시 도의양상 [의무]로 발전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要'의 인식양상, 미래시제 등의 용법들은 송대 이후 [의지], [의무] 등 여러 기능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산된다.

2.4 欲, 欲得

상고중국어 시기 '欲'는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였다. 여기에서 '바라다(想要)' 의미의 동사로 쓰여 주어가 획득하기를 바라는 대상을 나타내는 체언성 성분을 목적어로 취하였다. '바라다' 의미의 '欲'이 체언성 목적어가 아닌 용언성 목적어를 취하면서 조동사로 분화될 의미상・통사상의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 VP가 [+통제]인 상황에서 '欲'은 동력양상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재분석된다. [의지]를 나타내는 '欲'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함께 나타냈다. 漢代에 이르러 이러한 의지류 조동사 '欲'은 VP가 [-통제]인 조건에서 동작주의 의지가 배제되어 예측류 혹은 확정류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시제표지로 변모한다. 또한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면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T, $_{(Subj)}$欲VP'의 화용적 환경에 자주 쓰여 도의양상 [의무]로 인신된다. 이 시기 '欲'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欲得'의 사용도 매우 빈번하였다. 해당 용법은 중고중국어 시기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지만 당오대 이후 근대중국어 시기에 이르면 점차 사용이 쇠퇴한다(拙稿 2020).

2.5 須, 事須

상고중국어 시기 '須'는 '기다리다(等待)'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 '기다리다' 의미의 동사는 漢代 이후 다시 '필요하다(需要)', '기대하다(有待於)'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재인신된다. 段業輝(2002 : 59), 李明(2016:52-53, 71-72) 등에 따르면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須'는 중고중국어 시기 '필요하다' 의미의 동사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唐代를 전후로 도의양상 [의무]에서 인식양상 [필연]으로 발전한다. 한편 위진남북조 시기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내는 '事須'가 종종 사용되는데, 蔣禮鴻(1997: 464)에 따르면 이는 '於事, 必須……(일에 있어서, 반드시 ……한다)'가 응축된 형태에서 기원한 것이다.

2.6 可, 可以

상고중국어 '可'는 본래 '적합하다(合宜, 適宜)' 의미의 상태동사(또는 형용사)로 쓰였다. 여기에서 다시 '허가하다(許可)', '동의하다(同意)' 등의 동사 용법들이 인신된다. '可'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동사로 쓰였다. 黃天樹(2008), 李明(2016:15) 등에 따르면, 모두 '可'가 갑골문에서 이미 조동사로 쓰여 '…를 할 수

있다(可以做到)'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다만 출현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管燮初(1981), 張玉金(2004) 등에 의하면, 조동사 '可'는 서주 금문 시기에 이르면 매우 보편적인 상용 조동사로 발전한다.

일반적으로 '허가'나 '동의' 등은 도의양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白曉紅(1997), 李明(2016: 34), 巫雪茹(2018: 187) 등은 모두 '적합하다' 의미의 형용사에서 직접 조동사로 발전되었다고 판단했다. 문헌조사의 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데, '허가하다', '동의하다' 의미의 '可'는 대개 뒤에 목적어를 두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로 쓰이는 반면, '적합하다' 의미의 '可'는 종종 뒤에 동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可'는 목적어가 대표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적합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이러한 의미는 우리말 '……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동력양상 [조건]과 매우 일맥상통하다. 즉 동력양상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전될 통사상, 의미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화자는 종종 그에 대한 실행을 허가할 수 있는 권위를 함께 갖기도 한다. 따라서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 '可'는 동일한 통사·의미 환경에서 매우 쉽게 도의양상 [허가]로 발전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화자는 동작이나 행위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종종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도의양상 [평가]의 의미도 쉽게 인신될 수 있었다. 이상의 변화는 모두 선진 시기에 완성된다.

李明(2016: 35-37), 巫雪茹(2018: 215) 등에 의하면 상고중국어 시기 조동사 '可'와 개사 '以'가 종종 연용되어 사용되었는데 '以'의 목적어가 종종 생략되는 환경에서 하나의 단어로 재분석되어 생성된 것이다. '可以'가 나타내는 의미는 '可'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可'와 결합하는 주어는 대부분 피동작주인 반면, 연용형식 '可'+'以'의 주어는 도구, 재료, 방식, 근거이며, 합성어 '可以'의 주어는 대부분 동작주나 경험주이다.

2.7 得

상고중국어 시기 '得'은 본래 '획득하다(獲得)'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 王力(1080: 302), 太田辰夫(2003: 186), 朱冠明(2008: 45-47), 李明(2016: 23), 巫雪茹(2018: 324-328) 등을 종합하면, 춘추전국시대 '획득하다' 의미의 동사는 VP 앞에서 쓰여 '달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동사로 인신되었다가 여기에서 다시 동력양상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전한다. '획득하다' 의미의 '得'은 NP 뿐만 아니라 VP를 목적어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때 VP가 이미 완료된 동작인 경우 '得'은 VP의 '달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며, 반대로 VP가 미완료의 동작인 경우 '得'은 VP를 실현할 조건상의 가능성 즉 동력양상 [조건]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달성' 혹은 '실현'이 되는 경우는 대개 해당 동작이나 행위의 '달성'과 '실현'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사·의미상의 조건은 '달성', '실현'의 '得'은 동력양상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발전하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시기 조동사 '得'는 도의양상 [허가]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다. 하지만 '得'의 [허가] 용법은 '可'에서와는 다르게 대부분 반어문에서만 사용된다. 일부가 부정문에서 사용되며 평서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선진시대부터 명청대까지 줄곧 이어진다. 이에 대해 巫雪茹(2018: 332-333)은 이른바 [허가]의 '得'은 여전히 [조건]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보아야 하며, 문장에서 보이는 '허가' 의미는 '得'이 아니라 반어문이라는 문형이 부여한 의미라고 지적하였다. 즉 '得'은 '焉得……?'과 같은 반어문에 쓰여서도 여전히 '어찌 ……할 수 있겠는가?'로 해석되는 동력양상 [조건]을 나타내는데, 상하문의 문맥과 반어문에 의한 일종의 감정적 색채에 의해 '어찌 ……해도 되겠는가?'로 해석되는 '허가'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근거하여 '得'의 [허가] 의미를 인정하되 특수한 문형에서만 보이는 비전형적 의미 기능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용법은 [조건]의 '得'이 특정 문맥과 반어문에 쓰여 발전된 것으로 판단한다. '得'의 도의양상 [의무], 인식양상 [필연] 용

법은 근대중국어 이후에 생성된 것으로 [조건], [허가]와의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2.8. 소결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양상표현의 도의양상 의미의 기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2〉 상고・중고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應, 當	‘상응하다’ → [의무] → [필연]	
宜, 合	‘적합하다’ → [의무] → [필연]	
必	‘확고하다’ → [의무], [필연], [의지]	
要	‘개괄하다’ → ‘결국’ → [의무]	‘요구하다’ → [의지]
欲, 欲得	‘바라다’ → [의무]	‘바라다’ → [의지] → [미래]
須, 事須	‘필요하다’ → [의무] → [필연]	
可, 可以	‘적합하다’ → [조건] → [허가]	
得	‘획득하다’ → [실현] → [조건] → [허가]	

3. 범언어적 연구와의 비교

양상표현을 포함한 특정 언어형식의 공시적 다기능성은 통상 통시적 발전의 선후관계를 반영한다. Sweetser (1990)는 양상을 뿌리, 인식, 언어-화행으로 삼분하였는데,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양상은 대부분 은유적 투사에 의해 뿌리양상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Bybee et al.(1994: 176-242)은 범언어적 연구를 통해 양상들은 대체로 제한된 몇몇 특정 어원에서 기원하며 이들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도 몇 가지 정형화된 경로만이 공유됨을 밝힌 바 있다. Bybee et al.(1994: 182-183)에서 제시한 ‘의무(obligation)’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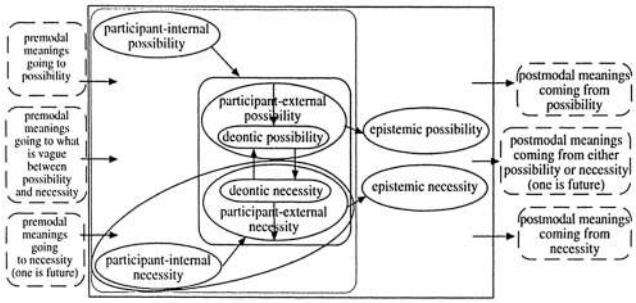
> 필요하다(need), 바라다(want), 여격(dative), 좋다(good), 이다(be), 되다(become), 보다(see), 이해하다(understand), 떨어지다(fall), 빚지다(owe), 계측하다(mete, measure), 적합하다(be fitting, be proper), 하다(do), 가지다(have), 얻다・획득하다・잡다(get, obtain, catch)

Bybee et al.(1994: 199)는 ‘허가(permission)’의 생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본원적 가능성’은 대체로 본고의 동력양상 [조건]에 해당된다. 동력양상 [허가]는 직접적인 연원은 비교적 단순하여 모두 [조건]에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능력(ability) → 본원적 가능성(root possibility) → 인식적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
↘ 허가(permission)

2) 여기에서 ‘의무’는 본고의 [의무]에 해당된다. Heine & Kuteva(2012: 445)는 ‘의무’의 어원으로 계사(copula), 하다(do), 얻다(get), 필요하다(need), 빚지다(owe), 소유하다(h-possessive), 적합하다(suitable) 등 7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Bybee et al.(1994: 176-242)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은 Bybee et al.(1994: 182-183)의 양상 범주의 발전 경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상 범주의 동태화 개념공간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양상의미 간의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중앙 실선 부분은 핵심양상으로 좌측 점선 부분의 전(前)양상에서 기원한다. 핵심양상 내부는 '참여자 내재 → 참여자 외재 → 인식양상'의 단방향적 발전 방식을 공유하며 다시 우측 점선 부분의 후(後)양상으로 분화・발전한다.[3)]



〈그림1〉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의 양상 관련 개념공간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에서 '필요'의 생성과 관련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참여자 내재 필요'는 대체로 본고의 동력양상 [의지]에 해당된다.

a. 빚지다(owe), 의무(duty), 속하다(belong), 좋다/적합하다(be good/proper) → [도의 필요] → [참여자 외재(객관) 필요]
b. 필요하다(need) → [참여자 내재 필요] → [참여자 외재(객관) 필요]
c. 가지다(have), 하기로 되어 있다(be supposed) → [참여자 외재(객관) 필요]

아래는 '허가'의 생성과 관련된 경로다. 아래에서 '참여자 내재 가능'은 대체로 본고의 동력양상 [능력]에 해당되며, '참여자 외재 가능'은 동력양상 [조건]에 해당된다.

d. 강하다(be strong), 알다(know), 도달하다(arrive at), 마치다(finish), 충분하다(suffice) → [참여자 내재 가능] → [참여자 외재 가능] → [도의 가능(허가)]
e. 허가되다(be permitted), 감히…하다(dare) → [도의 가능(허가)]

2장에서 고찰한 에서 고찰한 상고・중고중국어 양상표현의 생성 과정과 상술한 범언어적 연구의 성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상고・중고중국어에서 도의류 양상표현 중 '應, 當, 合, 宜, 須, 事須'와 '可, 可以, 得'은 각각 서로 비슷한 유형의 발전 경로를 공유한다. 반면 '必, 要, 欲, 欲得'의 발전 경로는 비교적 개별적 특수성을 보인다.

둘째,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내는 양상표현들의 어원은 '必'을 제외하고 대부분 Bybee et al.(1994:

3) 도의양상은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주관적 도의양상은 특정된 권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객관적 도의양상은 사회 규범이나 법률, 이치나 사리와 같은 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무의 부과를 말한다. van der Auwera et al.(1998)에서 도의양상은 대체로 '참여자 외재 가능성/필연성'에 해당되는데 그 하위는 '도의 가능성/필연성'과 '비도의(non-deontic) 가능성/필연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 주관적 도의양상 [허가]와 [의무], 동력양상 [조건]과 객관적 도의양상[의무]에 해당된다. 본고는 편의를 위해 전자를 '도의 가능/필요'로, 후자를 '참여자 외재 가능/필요'로 지칭한다.

182-183),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 등 범언어적 연구 성과와 대체로 일맥상통한 양상을 보인다.[4)]

셋째, 도의양상 [의무]를 나타내는 양상표현들은 '要'와 '欲', '欲得'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식양상 [필연]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이때 [필연]은 '必'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로부터 직접 발전한 것이다.

넷째, 상고・중고중국어에서 도의양상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可', '可以', '得' 등이 있는데 이들의 어원도 범언어적 연구 성과와 부합한다.[5)]

다섯째, 도의양상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모두 동력양상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허가]는 모두 [조건]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지면의 제한으로 예문과 참고문헌은 생략하였습니다.)

4) '要'의 도의양상 기원인 '개괄하다'는 Bybee et al.(1994: 182-183)의 '계측하다'와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의 '속하다'와 관련된 의미로 볼 수 있다. '必'의 어원에 대해 ≪說文≫은 본의를 '두 끝으로 나누다(分極也.)'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의 발전과정은 불분명하다. 다만 상태동사 '확고하다' 용법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획득된 것으로 보인다.

5) 이들의 어원인 '적합하다', '획득하다'는 van der Auwera et al.(1998 Fig.19)에 의하면, '필연성'에 해당되지만, van der Auwera et al.(1998)가 밝힌 '필연성'과 '가능성' 사이의 모호성에 해당되는 전(前)양상 의미로 볼 수 있다.

再谈元明清时期表完结的“过”

崔宰荣* · 张 斌**

<目 录>

1. 前言
2. 功能认识
3. 使用情况
4. 结语

1. 前言

“过”是一个多功能词，表示“动作结束、完成”的“过$_1$”和表示“过去曾经有过这样的事情、已有的经验”的“过$_2$”是学者们关注的重点。目前学界就“过$_1$”的词类归属问题尚存在分歧，除孔令达(1995)对它的归属问题作出过讨论之外，对此考察的学者比较少见。但是孔文的考察尚有需要商榷的地方。本文将首先对分歧进行分类，然后再给出本稿观点，最后通过对近代汉语后半期文献(≪元典章·刑部≫、≪元刊杂剧三十种≫、≪金瓶梅词话≫、≪红楼梦≫)分析来讨论“过$_1$”在近代汉语后半期的使用情况。[1)]

2. 功能认识

目前“过$_1$”的词类归属分歧主要集中在“它是助词，还是补语”的问题上。学界的主张有两种，一部分学者主张“助词论”，认为“过$_1$”和“过$_2$”一样，都是动态助词；另一部分学者主张“非助词论”，认为“过$_1$”与“过$_2$”不同，“过$_1$”是补语，“过$_2$”才是动态助词。两种主张以及本稿的观点如下：

2.1 助词论

主张“过$_1$”是助词的研究有：高明凯(1948/1986:193)、吕叔湘(1980/2012:246~248)、≪现代汉语虚词例释≫(1982/2010:217~218)、孔令达(1985，1986，1995)、孙德宣(1985:37)、张晓玲(1986a，1986b)、张晓玲·孔令达(1989)、刘月华(1988)、木霁弘(1989)、王森(1991、1994)、刘坚等(1992:103、107)、石毓智(1992)、孔令达·周国光·李向农(1993)、曹广顺(1995:37~38)、邢福义(1996/2016:209~210)、朱成器(2002:114~115)、张恬恬(2008)、彭睿(2009)、王世群(2011)、殷国光·龙国富·赵彤(2011:211)、白钟怡(2012:57)、冯春田等(2012:762)、戴佳佳(2014)、陈路遥(2014)、杨立君(2016)等。

以上考察都认为表示“完结”的“过”是助词，他们的主张又可以分为两种情况：

第一，将助词“过”分为“过$_1$”、“过$_2$”，前者表示“完结”，后者表示“已有的经验”。

* 韩国外国语大学
** 韩国外国语大学

1) 为行文方便，本文将用于动结式中表示“完结”的“过”记作“过$_1$”，表示“已有的经验”的“过”记作“过$_2$”，但有时因解释以及对比的需要，也表述为“表示完结的‘过’”，“表示已有经验的‘过’”。考察文献分别简写为≪元典章≫、≪元杂剧≫、≪词话≫、≪红≫。

吕叔湘(1980/2012:245~248)较早地按照词类将“过”分为两种情况进行了说明，但他所说的第一种“过”是用作动词和趋向补语的“过”，第二种是用作助词的“过”。[2]最早使用“过$_1$”“过$_2$”这种论述方式的是孔令达(1986)，[3]杨荣祥(2019)说孔文将动态助词“过”分为“过$_1$”、“过$_2$”，分别大致相当于≪现代汉语八百词≫中的助词“过”的第一项和第二项。主张“过$_1$”是助词的大多数研究基本都是依附于吕叔湘(1980/2012:245~248)、孔令达(1986)而展开的。如：刘月华(1988)说“我们沿袭成说把两个‘过’都看作动态助词，也按通常的习惯把表示完毕的‘过’称作‘过$_1$’，把表示经验意义的‘过’称作‘过$_2$’”。杨立君(2016)说“一般认为体助词‘过’应分为两种，‘过$_1$’表动作完成，‘过$_2$’表曾经发生某事。”

这些前人研究虽然都主张“过$_1$”是助词，但除孔令达(1995)外几乎未见有学者对“‘过$_1$’是助词”这个结论进行过论证。孔令达(1995)说从结构上看“V+过$_1$”与“V+过$_2$”中间均不能加“得、不”，从意义上看趋向动词表示空间位移，意义比较实在，动态助词表示动作进行的情况，意义比较虚，“过$_1$”表示动作完毕是典型的“体”范畴，所以“过$_1$”、“过$_2$”都是动态助词。

第二，未将助词“过”分为“过$_1$”、“过$_2$”来考察，主张助词“过”只有一个，但它有不同的功能，可表示“完结、过去、实现、已有经验、阅历”等。

高明凯(1948/1986:193)应该算是较早地将“过”纳入“体(aspect)”的行列进行描述的，他说用于“完成体(accomplished)或完全体(perfect)的“了”在口语中也可用“过”，“了”字有时还可以加在“过”之后。他未将表示“完结”和“已有的经验”的“过”分开来看，甚至认为“了”[le]和“过”在口语中的功能是一致的。

石毓智(1992)、朱成器(2002:114~115)、冯春田等(2012:762)等均把两个“过”作为一个整体进行了讨论，即他们认为只存在一个助词“过”，但有两种功能。他们也都把表示“完结”的“过”描述为助词。如：石文说“‘过$_1$’、‘过$_2$’语法意义相通，使用条件也一样，所以把它们看作同一个助词。”朱文、冯文也说助词“过”表示动作完结、从前曾经有过某种动作行为或经验，由此可见，他们的主张与叙述形式基本和吕叔湘(1980/2012:246~248)等类似。

通过以上学者的见解可见，主张助词论的学者把表示“完结”的“过$_1$”界定为助词，他们有的认为“过”可分为“过$_1$”、“过$_2$”；有的认为只有一个“过”，但它有两种不同的功能。主张助词论的学者不少，但对于为什么将“过$_1$”界定为助词的考察却比较少见。

2.2 非助词论

主张“过$_1$”不是助词的研究有：黎锦熙(1924/2007:122~127、144)、何荣(1937/1985:138~142)、吕叔湘(1942/2002:227~233)、王力(1944/2014:167~175，1958/2012:362，1989/2010:99)、俞敏(1954)、A.A.龙果夫(1958:117~118)、赵元任(1979/2012:130、210)、朱德熙(1982/2011:72)、黄伯荣・廖旭东(1991/2014:30)、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教研室(1993/2012:288)、胡裕树(1995:297)、裘千炎(1995/2012:80)、马真(1997/2017:27)、李小凡(1998:152、179)、刘坚(1999)、余光中・植田均(1999:180)、刘月华等(1983/2013:404)、杨永龙(2001:182、188)、邵敬敏(2007/2015:181)、杨玉玲・应晨锦(2011:209~210)、黄月华(2012)、张斌(2012:333)、郑仁贞(2015:1、6)、魏培泉(2016)、王华(2016:98)等。

以上考察都认为表示“完结”的“过”不是助词，他们的主张也可以分为两种情况：

第一，关于动态助词的叙述时，既不提表示“完结”的“过”，也不提表示“经历”的“过”；或者不提及表示“完结”的“过”，只提及表示“经历”的“过”。

既不提表示“完结”的“过”，也不提表示“经历”的“过”的考察都是建国前的早期研究。如：黎锦熙(1924/2007:122~127、144)、何荣(1937/1985:138~142)、吕叔湘(1942/2002:227~233)、王力(1944/2014:167~175)等

2) 吕叔湘(1980/2012:246~247)将用作助词的“过”又分为三种情况，分别是用于动词后表示动作完毕，表示曾经有这样的事情(经验)，用于形容词后表示与现在作比较。

3) 孔令达(1985)把表示“已有的经验”的“过”记作“过$_1$”，将表示“完结”的“过”记作“过$_2$”，但孔令达(1986)将其改为表示“完结”的“过”记作“过$_1$”，将表示“已有的经验”的“过”记作“过$_2$”，目前学界大多数采用后一种记述方法。

研究都是学界较早的一些著名的论著，他们在叙述动态助词[4]时均没有提及到“过”，黎锦熙(1924/2007:144)虽然提及到了“过”，但是他说“过”是表示时间的副词，用于过去时，还将“过”与“从前、当初、早就、本来、已经、曾经、完、刚才”等归入同一类别进行了讨论。由此可见他们都不主张“过$_1$”、“过$_2$”是动态助词。

不提及表示“完结”的“过”，只提及表示“经历”的“过”的考察有：朱德熙(1982/2011:72)、黄伯荣・廖旭东(1991/2014:30)、北大中文系现代汉语教研室(1993/2012:288)、胡裕树(1995:297)、马真(1997/2017:27)、邵敬敏(2007/2015:181)、杨玉玲・应晨锦(2011:209~210)、张斌(2012:333)等研究都是现代汉语方面比较有代表性的论著，文中在讨论助词“过”时，只说它表示“曾经发生、经历过某事”，并未提及表示“完结”的“过”的功能与用例。由此可见，他们并不主张“过$_1$”是动态助词，所以没有将其列入说明之中。

第二，表示“完结”的“过”是补语。

王力(1958/2012:362，1989/2010:99)认为“过”可以表示趋向，虚化后表示过去、经历，但因为它后面可以加助词“了”，所以“过”不是助词。这与李小凡(1998:152、179)所说的苏州方言中“过”后仍可附加完成体助词“仔”，表示完毕义的结果补语的观点基本上是一致的。赵元任(1979/2012:130、210)、杨永龙(2001/182、188)也认为“过$_1$”尚未完全虚化，后面可以出现“了”，读音上轻声的“过”才是纯粹的助词，所以“过$_1$”仍是补语。

黄月华(2012)引用Hopper&Traugott(1993:71)的“多义界定原则”从认知语言学的角度作了分析，他说“过”的动词、补语、助词的的用法应该看成是多义词“过”的不同义项，作补语时表示某种行为的结果，作助词时表示某一行为曾经发生过。裘千炎(1995/2012:80)、郑仁贞(2015:1)，王华(2016:98)认为“过$_1$”语义上表示动作的完结，它还存有表示完毕的实在意义，如“吃过饭再说”、“看过了戏”中的“过”应该分析为动词“吃、看”的补语，意思相当于“完”，它并不是体标记。刘月华等(1983/2013:404)、魏培泉(2016)也认为虽然表示“完结”意义的结果补语“过$_1$”在形式上、意义上都与动态助词“过$_2$”十分相近，而且“过”与时间意义相关联，但还是需要对“过$_1$”、“过$_2$”加以区分，“过$_1$”是补语，真正的助词只有“过$_2$”。[5]由此可见，以上学者都将“过$_1$”的功能界定为补语。

通过以上学者的见解可见，主张非助词论的学者中有的把表示“完结”的“过”的功能界定为结果补语；有的在论述助词“过”的时候对表示“完结”的“过”避而不提。

2.3 本稿的观点

我们赞成非助词论，即表示“完结”的“过”不是助词，而是补语。支持非体标记论的理据如下：

首先，虽然“过$_1$”表示与时间相关的“完结”义，但这只能说明它比表示空间位移的“过”又虚化了一步，它还不能完全算是助词。

俞敏(1954)、张谊生(2000:218，2018:18)、刘月华等(/1983/2013:354)说动词是否完成虚化需要看三个方面：功能上完成了由自由向黏着的转变，都只能用于后附，不能单独使用；语义上原有的词汇意义已经基本丧失，只表示语法意义；由于处于附着地位，读音上都已弱化，失去了原声调而读成了轻声。所以如果“过$_1$”都满足这三个方面，那么才能认为它是助词。据此讨论如下：

① 表示“完结”的“过”在使用时必须出现在动词后，它不能单独使用，现代汉语“V+过$_1$”中间也不能加入其它成分，所以它已经失去了“自由”，只“黏着”在动词之后。

② “过”的本意是“走过、经过”，在表示“完结”的“过”中，它的本义并没有完全丧失。例如：

以“书我看过了。”、“地我扫过了。”为例，句中的“看、扫”从开始到结束是一个过程，在这个过程中存在着“看、扫”这两个动作，同时两个动作也一定作用于一个路径、处所、空间之中，所以也可以把“看、扫”这两个动作看成是在某一空间领域抽象的平行位移，用一个简单的分解式子可以表示为:

4) 在这些学者的研究中“动态助词”的名称均不一致，黎锦熙(1924/2007:122~127)称之为“后附的助动词”；何荣(1937/1985:138~142)称之为“助词”；吕叔湘(1942/2002:227~233)称之为“动相”；王力(1944/2014:167~175)称之为“情貌”。

5) 魏培泉(2016)叙述上前后存在矛盾，前面说“‘过$_1$’是补语，真正的助词只有‘过$_2$’”，而后面又说“‘过$_1$’、‘过$_2$’都称为经验体”。

开始看$_{第1页}$ → 看$_{第2页}$ → 看$_{第3页}$ → …… → 看$_{第n页}$ → 看$_{1+……+n}$完了(看过了)
开始扫$_{场所1}$ → 扫$_{场所2}$ → 扫$_{场所3}$ → …… → 扫$_{场所n}$ → 扫$_{场所1+……+n}$完了(扫过了)

我们可以把视线或视点当作位移的客体及方式，“看、扫”的对象“书、地”则是它所通过的路径或处所，“书”的第一页是起点，一直读下去，最后一页就是位移的终点，这样就形成了一个抽象的路段，“看过”就可以看作是视线沿着这个路段通过；相比而言，“地”的空间感更强，“地”的这边儿是起点，另一边儿可以看成是位移的终点，“扫地”从开始到结束就是在从“这边儿”的“场所1”到“另一边儿”的“场所n”的空间位移过程。[6]由此可见，这里的“过”也是可以理解成“过”的本意“走过、经过”的，即表示从甲处所到乙处所的过程。

③ “过$_1$”的读音并没有完全弱化，也没有完全失去原声调，它有时读[guò]，有时读[guo]。

孔令达(1995)、刘月华等(1983/2013:404)认为“过$_1$”可以重读，也可以轻读，孔文还列举了“强调完结义”、“‘完结义’与‘经验义’处在同形格式”中时“过$_1$”需要重读为[guò]的例子。林新年(2004:153)也说“过”在能念出焦点重音时就不能算是体标记。对此赵元任(1979/2012:130)也很早之前就说“轻声的‘过’才是纯粹的助词”。

与此观点相反的是吕叔湘(1980/2012:246~248)、≪现代汉语虚词例释≫(1982/2010:217~218)、≪现代汉语规范词典≫(2010:506)、≪现代汉语词典(第7版)≫(2016:501)等均认为表示“完结”的“过”读作轻声[guo]。另外，左思明(1997:59)通过实际语音问询调察后说普通话中的“过$_1$”、“过$_2$”很难通过念不念轻声来辨别。

本稿认为在语言的实际使用中，特别是“强调完结义”时，句中出现的结果补语“过”是需要重读的，而在有些情况下，因为不是特别“强调完结义”，所以会轻读。再者，因为表示“已有的经验”的动态助词“过”在现代汉语中是“过”的主要功能，它读轻声[guo]，所以人们就会不自觉地将结果补语“过”也读作[guo]，这应该是一种语音上的干扰而造成的。持相反观点的学者之所以认为“过$_1$”应该读作轻声[guo]，也许是因为他们将“过$_1$”界定为助词的原因吧。

综上所述，如果表示“完结”的“过”是助词，那么必须得满足上文所说的助词的三个条件，这三个条件中，并不能说哪个重要哪个不重要，只要有其中一项不符合，我们都不能十分肯定地说表示“完结”的“过”是助词。

其次：“过$_1$”虽然表示动作“完结”，但表示动作“完结”的成分不一定是“体”范畴。

孔令达(1995)说“动态助词表示动作行为进行的情况，意义比较虚，‘过’表示动作‘完毕’，是典型的‘体’范畴意义。”这一观点有待商榷，另外，主张趋向补语是助词的还有房玉清(1980、1981)、徐静茜(1983)，先看一下儿下面几个例句：[7]

(1) 从桥上走过。 (2) 你可千万别睡过了。 (3) 吃过饭再去。

例(1)、(2)中的“过”出现于动趋式结构中，表示通过某一场所、时刻，确实意义比较实在，但这里的“过”并不表示“完结”，表示“完结”的“过”是出现在像例(3)这样动结式里的“过”。汉语中的结果补语表示动作或状态的结果，譬如：“见、着$_{[zháo]}$、好、到”等。[8]如果如孔文所述，因为表示“动作完毕”就说它具有“典型的‘体’意义”，那么诸如“看见、买着、写好、找到”中的表示动作“完结”的补语“见、着、好、到”也要看成动态助词吗？答案显然是否定的。王华(2016:98)也说“过$_1$”语义上表示动作完结，是结果补语。所以因为表示动作完结，就将“过$_1$”看作“体”标记的主张有些牵强。通过“V+见/着$_{[zháo]}$/好/到”与“V+过”的结构以及动词后面成分所表示的功能来看，将“过$_1$”看作是补语似乎更加妥当。

再次，动态助词不能连用，但“V+过$_1$”后面可以出现助词“了”，所以不宜将“过$_1$”归入助词。

刘坚(1999)说汉语中无论古今动词不可能同时带上两个表示时态的助词，“过”与“了”共现时，“了”才是真正

6) 具体内容可参看魏培泉(2016)。

7) 以下三个例句转引自吕叔湘(1980/2012:245~246)。

8) 刘月华等(1983/2013:534、542、543)

的时态助词。王力(1958/2012:362、1989/2010:99)认为“过”后面加了助词“了”，所以不能将“过”认为是助词。刘月华等(1983/2013:406)、杨永龙(2001:188)也说动态助词“过”后面一般不能再用“了”，如果“了”前有“过”，这个“过”一般是补语，不是动态助词，因为“过$_1$”的虚化程度没有“了”高，所以它一定出现在“了”的前面。而孔令达(1995)说，因为汉语中语气助词有连用的现象，所以承认动态助词可以连用也没有什么不可以的。孔文还引用了黄伯荣・廖旭东(1991/2014:32)的四个例句来作了说明。现转引两例如下：

(4) 唉！这一家人真够痛苦的了。　　(5) 你听见我刚才说的话了吗？

孔文的这一观点有待商榷。首先，黄伯荣・廖旭东(1991/2014:32~34)并不承认这是两个语气助词连用，他们认为这里连用的语气助词并非直接组合，而是处在句子结构的不同层次上，例(4)“真够痛苦的了”不应分析为“真够痛苦丨的了”，而应该分析为“真够痛苦的丨了”，“的”加强肯定，“了”表示痛苦已经实现。同样，例(5)中的“听见我刚才说的话了吗”不应分析为“听见我刚才说的话丨了吗”，而应分析为“听见我刚才说的话了丨吗”，“了”表示出现了新情况，“吗”表示疑问。孔文观点的漏洞出在不应该以语气助词可以连用为基础来推导出动态助词也可以连用，更何况这些语气助词的连用也并非是语气助词与语气助词之间的直接组合，而是构成句子的语素在句子结构的不同层次上的组合。

本稿从以上三个方面讨论了表示“完结”的“过$_1$”是否是助词的问题，通过对“过$_1$”是否符合助词的三要素；表示动作“完结”的成分是否一定是“体”范畴；“V+过$_1$”后面可以出现助词“了”这三个方面进行了考察，本稿认为表示“完结”的“过$_1$”不是动态助词，而是结果补语。

3. 使用情况

“过$_1$”用于动词后表示动作、状态的“完结”，相当于现代汉语中的“完”或“了[liǎo]”，它所表示的“完结”与说话的时间无关，可以是已然，也可以是未然。共有450例，它的出现情况为≪元典章≫中54例、≪元杂剧≫中5例、≪词话≫中194例、≪红≫中197例。例如：

(6) 卑司今欲拟改；如初复检**过**尸骸，责付尸亲埋瘗。(≪元典章≫)
(7) 应伯爵与西门庆声喏：“前日空**过**众位嫂子，又多谢重礼。”(≪词话≫76回)
(8) 这里贾珍同一家子的弟兄子侄吃**过**了晚饭，方大家散了。(≪红≫11回)
(9) 经济道：“已克**过**了。”(≪词话≫96回)
(10) 您那狠爹爹才趟**过**，呵，俺这善婆婆却来这里。(≪元杂剧≫)【(趟(shàn):走开)】
(11) 衙内：“既然好，已是见**过**，不必再相。(≪词话≫91回)
(12) 宝玉放了心，于是将所应读之书，又温理**过**几遍。(≪红≫69回)

例(6)~(12)是已然的情况，例子中的“过”均表示动作、状态的“完结”，可以理解成“完”或“了[liǎo]”。上例中“过”前面的动词不仅有表示具体动作的“检、吃、见、温理”，也有动作性不是很明显的“烧、空、克”[9]。通过例子可见，“过$_1$”有时可以与“了$_1$”同现，如例(8)、(9)中的“吃过了”、“克过了”。余光中・植田均(1999:178)说“了$_1$”是表示“实现”的，与表示“完毕”的“过$_1$”不相矛盾，所以“了$_1$”可以置于“过$_1$”之后。杨永龙(2001:189~190)说“过$_1$”出现在“了$_1$”前，与“了$_1$”同现说明它的虚化程度没有“了$_1$”高，表示完结的“过$_1$”仍然是补语，它不能换成助词“了”，但是可以与表示完毕义的动词“了[liǎo]”互换。

例(6)~(8)是“S+V+过+O”的例子，例(9)~(12)是“S+V+过”的例子，刘坚等(1992:104、108)、曹广顺

9) 这里的“空”和“克”都是动词。例(3)中的“空”是“亏欠”的意思。例(5)中的“克”是“克夫”的意思。

(1995:38~39、42~43)说当“过”由表示空间运动到动词的运动状态后，原本与“过”搭配的处所宾语出现的机会减少了，所以“V+过”后宾语极少，这是“过”发展尚不成熟的一种表现。他们考察了唐宋的文献后发现这两个时期各只有1例带宾语的例子。杨永龙(2001:184)说宋代的“V+过”带宾语尚受到一定的限制。他举了$_1$例与前贤不同的带宾语的例子。石毓智・李讷(1997)对宋代文献作了统计发现“S+V+过”与“S+V+过+O”的比例是29:0，并指出这种限制宾语出现的情况到了元明时期开始出现变化。据本文的分析，文献中“过$_1$”后不带宾语与带宾语的比例如下:

	元		明	清	合计
	≪元典章≫	≪元杂剧≫	≪词话≫	≪红≫	
S+V+过	23	4	108	85	220
S+V+过+O	31	1	86	112	230
合计	54	5	194	197	450

上表显示的是四种文献中“过$_1$”后宾语出现与否的情况，元明清时期较唐宋时期比较来看，出现宾语的情况有了大幅度的增加，这一时期的四种文献中“过$_1$”后宾语出现与否的比例达到了22:23，总体来看，带宾语的情况与不带宾语的情况基本处于一个持平的状态，可见这一时期宾语已经可以自由地出现在“S+V+过”结构之后了。[10)]

“过$_1$”不仅可以用于已然，还可以用于未然的事件，例如：

(13) 因说道：“你每且外边侯侯儿，待俺每吃**过**酒，踢三跑。（≪词话≫15回）
(14) 你若不说**过**，一百年也不对你爹说，替你这狗秃儿娶老婆！”（≪词话≫55回）
(15) 温秀才道：“学生已写稿在此，与老先生看**过**，方可誊真。（≪词话≫67回）
(16) 王善保家的道：“这也是脏，不许动，等明儿回**过**太太再动。”(≪红≫74回)
(17) 明儿一早，我先回**过**老太太、太太，然后过去给大娘陪礼，该怎么，我就领。”(≪红≫74回)

例(13)~(17)均为未然的情况，例子中的“过”也表示动作、状态的“完结”，只不过这种完结是将来的完结，有时也可以将它看作是一种假设，和已然一样它同样也可以理解成“完”或“了$_{[liǎo]}$”。刘坚等(1992:106)、曹广顺(1995:42)、杨永龙(2001:187)、冯春田等(2012:762)说表示动作“完结”用法的“过”强调的是动作的的结束或完成，而不是时间的过去，所以“过$_1$”与事件的时制无关，它在句子中不受时制的限制，有时甚至可以是一种假设的完结，动作并没有在任何时间中真正进行、完结过，所以表示完结的“过”也可以用来表达未然或假设的事件。例(13)~(17)表示未然的事件可以通过句中的“**待、若、方可、等明儿、明儿一早**”体现出来，由此可见，上例中的“用过、说过、看过、回过”这些动作都是某种假设后的完结，以说话的时间为参照点的话，它们都表示的是未然。

4. 结语

本文首先对“过$_1$”是补语，还是助词的分歧进行了分类。然后通过对“过$_1$”是否符合助词的三要素；表示动作“完结”的成分是否一定是“体”范畴；“V+过$_1$”后面可以出现助词“了”这三个方面进行讨论后认为表示“完结”的“过$_1$”不是动态助词，而是结果补语。最后通过对元明清中四种文献中出现的“过$_1$”作了统计考察发现这一时期的“过$_1$”既可以用于已然，也可以用于未然，另外，这一时期宾语已经可以自由地出现在“S+V+过”结构之后，带宾语的情况与不带宾语的情况基本处于一个持平的状态。

10) 这里只是将四种文献中“过$_1$”后宾语出现与否的情况作了统计，未统计“过$_2$”的情况。

参考文献

吕叔湘(1980/2012),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商务印书馆.
刘坚等(1992), ≪近代汉语虚词研究≫, 北京：语文出版社.
刘月华等(1983/2013), ≪实用现代汉语语法≫(修订本), 北京：商务印书馆.
杨永龙(2001), ≪<朱子语类>完成体研究≫, 开封：河南大学出版社.
孔令达(1986), <关于动态助词“过$_1$”与“过$_2$”>, ≪中国语文≫, 1986年第4期.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문법화

서지은*

<目 次>

1. 들어가며
2. '得'의 의미와 긍·부정형식 및 과거·미래 진술 문장 간의 관계
3. 양상조동사 '得'의 변천 동인
4. 나가며

1. 들어가며

양상(modality)은 Palmer(1979/1990)의 견해에 입각한 분류법에 따라 보편적으로 동적양상(dynamic modality)과 의무양상(deontic modality),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으로 분류된다. 이 중 동적양상은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행위의 실현 가능성과 필연성을 나타낸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적양상의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는 '能, 可, 得'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先秦시기부터 가능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중 조동사 '得'는 先秦시기 한 가지 의미를 더 나타내는데, 바로 '이루다, 달성하다(达成, 实现)'의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이 의미를 '달성 의미'로 통일해 부르고자 한다.

기존 연구(李明 2001: 12-13, 杨平 2001, 杜轶 2006, 朱冠明 2008: 46-47)에 따르면, 先秦시기 조동사 '得'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달성 의미를 나타내는데, 바로 '得'가 긍정형식인 동시에 과거의 상황을 진술하는 문장에 사용될 때이다(예 1). 즉, '得'가 부정형식일 때, 혹은 미래의 상황을 진술하는 문장에 사용될 때는 달성 의미가 아닌 가능 의미를 나타낸다(예 2-3).[1)]

(1) 咸丘蒙曰: "舜之不臣尧, 则吾既**得**闻命矣。……"『孟子·万章上』(咸丘蒙은 말하였다. "舜이 尧를 신하로 삼지 아니한 까닭에 대해 저는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2) 齐桓公见小臣稷, 一日三至弗**得**见。『吕氏春秋·下贤』(齐桓公은 稷라 불리는 신하를 만나기 위해 하루에 세 번이나 갔으나 모두 만날 수 없었다.)
(3) **得**免其死, 为惠大矣, 又敢求位?『左传·昭公七年』(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이미 베풀어준 은혜가 큰 것인데 감히 또 관직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得'는 왜 긍정형식인 동시에 과거를 진술하는 문장에서만 달성 의미를 나타낼까? 기존 연구에서는 단지 의미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을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통시적 측면을 보면, 조동사 '得'의 연원은 '획득하다' 의미의 동사 '得'이다. 기존 연구(李明 2001: 12, 朱冠明 2008: 46)에 따르면, 'V得(O)'의 조사 '得'가 '획득하다→달성→가능(获得—达成—可能)'의 경로를 거쳐 변천된 것처럼, 조동사 '得' 역시 '획득하다→달성→가능(获得—达成—可能)'의 경로로 변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得'의 의미변천 경로만 제시하였을 뿐, '得'의 달성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 의미로 변천되었는지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세 예문 모두 李明(2001: 13)에서 재인용하였음.

이에 본고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형식 '得'는 왜 과거 진술 문장에서 달성을 나타내고(예 1), 부정형식 '得'는 왜 과거 진술 문장에서 가능을 나타내는가(예 2)? 둘째, 양상조동사 '得'의 변천 조건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得'의 예문을 재분석한 것 외에 先秦 문헌(『左传』, 『论语』, 『韩非子』 등)에 출현하는 '得'의 예문도 함께 통계 분석하였다.

2. '得'의 의미와 긍·부정형식 및 과거·미래 진술 문장 간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긍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달성을 나타낸다고 보고(예 1), 부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가능을 나타낸다고 본다(예 2). 실제 예문의 통계분석 결과, 긍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 쓰인 예문은 『左传』, 『论语』, 『韩非子』 세 문헌에서 총 15회 출현하는데, 이 중 달성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한 '得'가 12회(80%) 출현한다. 즉, 긍정형식 '得'는 과거 진술 문장에서 가능보다 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쓰인 예문은 『左传』, 『论语』, 『韩非子』 세 문헌에서 총 37회 출현하는데, 이 중 달성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한 '得'의 출현 횟수는 13회(35.1%)에 불과하다(아래 예 7-8). 즉, 부정형식 '得'는 과거 진술 문장에서 달성보다 가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과거 진술 문장이라는 동일 환경에서 긍정형식은 대체로 달성 의미를 나타내고, 부정형식은 반대로 가능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양상의 '비실재성(irrealis)'과 관련된다. 비실재성은 '실재성(realis)'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실재성은 사건이 언어 밖의 실세계(real world)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비실재성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단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郭锐 1997, 王晓凌 2007: 2 참조). '得'의 가능 의미는 양상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는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해야 조화가 된다. 긍정형식 '得'가 미래 진술 문장에 쓰이면, '得VP'의 'VP'는 비실재성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得'의 가능 의미가 미래 진술 문장에 자주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예 3).

반면, '得'의 달성 의미는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得VP'의 'VP'가 바로 이 결과에 해당한다. 긍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 쓰이면, '得VP'의 'VP'는 실재성 사건을 나타낸다. 'VP'가 실재성 사건이라는 것은 'VP'라는 결과가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달성 의미 '得'는 실재성 사건과 결합해야 조화가 된다. 따라서 '得'의 달성 의미가 과거 진술 문장에 자주 쓰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부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 쓰이면 상황이 다르다. '不得VP'가 과거 사건인 경우여도, 'VP'는 결국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이는 비실재성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달성보다 가능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 양상조동사 '得'의 변천 동인

李明(2001: 12), 朱冠明(2008: 46)의 연구에 따르면, 조동사 '得'는 '획득하다' 의미에서 달성 의미를 거쳐 가능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영어의 'get to'가 있다. 'get to'의 'get'은 '획득하다' 의미를 나타내며, 'get to'는 달성과 가능 두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4) We never thought we'd **get to** our goal. (우리는 목표를 이루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5) Did you **get to** buy the tickets? (표 구매 성공했나요?)
(6) We didn't **get to** see him—he was too busy. (우리는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그가 너무 바빴거

듣요.)

예(4)는 ‘get to’ 뒤에 명사 성분이, 예(5-6)은 그 뒤에 동사 성분이 출현하고 있다. 예(4)의 ‘get to’는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5)의 ‘get to’ 역시 ‘(표 구매하는 것을) 이루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6)의 ‘get to’는 ‘~하지 못하다’, 즉 불가능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달성 의미 ‘得’는 실재성 사건과 결합해야 조화가 된다. ‘得VP’가 과거 진술 문장에 놓이면 ‘VP’가 실재성 사건이 된다. 이에 근거하여 보면, 달성 의미 ‘得’는 초기에 과거 진술 문장에서 사용됐을 것이다. 이때의 ‘得’는 긍정형식뿐만 아니라 부정형식도 포함한다. ‘得’가 부정형식이 되면, ‘得VP’의 ‘VP’가 비실재성 사건이 되어 달성 의미와 부조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예문을 보면, 달성 의미의 ‘得’가 부정형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비록 소수여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子墨子曰 : “……子亦闻乎匿徒之刑之有刑乎?”对曰 : “未之**得**闻也。” 『墨子・公孟』 (子墨子는 말하였다. “……또 범인을 감추는 죄는 죄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그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 薛公以人臣之势，假人主之术也，而害不**得**生，况错之人主乎!『韩非子・外储说右上』(薛公은 신하의 권세를 등에 업고 군주의 통치술을 빌린 것인데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거늘, 하물며 군주가 이런 계책을 사용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따라서, 달성 의미의 ‘得’가 적어도 사용 초기에는 부정형식으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가능 의미 ‘得’는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해야 조화가 된다. ‘得VP’가 미래 진술 문장에 놓이면 ‘VP’가 비실재성 사건이 된다. 이에 근거하면, 가능 의미의 ‘得’는 일반적으로 미래 진술 문장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得’의 변천 경로는 달성 의미에서 가능 의미이므로, 이들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양상조동사 ‘得’의 변천 과정

문장 / 형식	과거 진술 문장		미래 진술 문장
긍정형식	달성	→	가능
부정형식	달성	→	가능

【표 1】에서 보듯이, 달성 의미의 ‘得’는 긍정형식이든 부정형식이든 모두 초기에 과거 진술 문장에 사용되었다가 이후 미래 진술 문장에서 가능 의미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미래 진술 문장에 쓰이게 되고 또 가능 의미로 변천하게 된 것일까? 즉, 이들의 변천 동인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3.1 긍정형식 ‘得’의 변천 동인

先秦시기 긍정형식 ‘得’의 사용상 특징 중 하나는 가정문의 종속절에 비교적 자주 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若**得**从君而归，则固臣之愿也，敢有异心?『左传・昭公31年』(만일 전하와 함께 돌아간다면/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본래부터 소신이 소망하던 바인데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10) 圣人，吾不得而见之矣。**得**见君子者，斯可矣。『论语・述而』(성인을 난 여태 본 적이 없다. 만

일 군자라도 본다면/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괜찮다.)

(11) 若**得**鼓而进于义，则吾义岂不益进哉?『墨子・鲁问』(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의(仁義)에 다가서도록 고무한다면/고무할 수 있다면, 내 인의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긍정형식 '得'가 가정문의 종속절에 쓰이는 예는 현대중국어의 일부 관용어에서도 발견된다. '得忍且忍(참는 데까지 참다)', '得过且过(되는대로 살다)', '得饶人处且饶人(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다)' 등은 모두 '得X且X'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得X'는 '만약 X 할 수 있다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밖에 汪国胜・王自万(2013)에 따르면, 开封, 河南 등 일부 방언에서는 가능 의미의 '得'가 '得能VP且VP(만약 VP 할 수 있으면 VP 하다)'의 형식에서만 사용한다.

가정문은 사건이 이미 발생했음을 가정한 문장이다. 가정된 사건은 가능 세계(possible world)에서는 이미 실현된 실재성 사건에 속하지만, 실세계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실재성 사건에 속한다. 가정문은 이처럼 실재성(realis)뿐만 아니라 비실재성(irrealis) 특성도 지닌다.[2)]

달성 의미의 '得'가 가정문(종속절)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가정문이 지닌 이러한 실재성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문은 비실재성 특징도 갖고 있다. 따라서 달성 의미의 '得'가 가정문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합 관계는 부조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조화 현상은 문법화의 동인이 된다. 刘丹青(2008)은 이러한 언어의 부조화 현상을 '유표지(有标记)' 상태라고 부르고, 江蓝生(2016)은 '비일반적 결합(超常组合)'이라고 불렀다. 刘丹青(2008), 江蓝生(2016)에 따르면, 언어의 부조화 현상은 문법화(재분석)의 동인이다. 즉, 만일 언어에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기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언어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문법화가 발생한다. 이처럼 부조화와 반대되는 균형을 이룬 상태는 '무표지(无标记)'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예컨대, 동사와 명사목적어와의 결합은 무표지 상태이며, 동사와 동사목적어와의 결합은 유표지 상태이다. 만일 동사가 동사목적어와 결합했다면, 동사는 조동사로 문법화함으로써 무표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得, 会, 解' 등의 조동사는 모두 동사에서 문법화한 것으로, 이들의 문법화 동인은 바로 이러한 유표지 상태이다(刘丹青 2008 참조).

달성 의미 '得'와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은 유표지 상태이며, 가능 의미 '得'와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한 것은 무표지 상태이다. 따라서 가정문(종속절)에 사용된 달성 의미 '得'는 무표지 상태가 되기 위해 가능 의미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긍정형식 '得'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긍정형식 '得'의 변천 과정

'得'의 의미	'得'의 사용환경	'得'의 결합성분(VP)	
달성	과거 진술 문맥	실재성	: 무표지 상태
↓			
?달성	가정문	비실재성	: 유표지 상태
↓			
가능	가정문	비실재성	: 무표지 상태

2) 이러한 이유로 가정문의 특징에 대해 학자마다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石毓智(2001: 47)는 문장을 실재성 여부에 따라 '실현문(现实句)'와 '비실현문(虚拟句)'으로 나누었는데, '가정문(假设句)'은 '비실현문'에 속한다고 보았다. 반면 郭锐(1997)는 '가정문(假设句)'이 '실현문(现实句)'과 '비실현문(非现实句)'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였다. 汪国胜・王自万(2013)은 심지어 "가정, 조건과 같은 (허구) 상황에서는 '이미 정말로 실현됨'과 '실현할 수 있음' 두 의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영어에서 가정문은 동사가 과거형을 취하는데, 이는 가정문이 비실재성뿐만 아니라 실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If I won a million dollars, I'd travel around the world. (만일 내가 100만 불을 딴다면 세계여행을 할 것이다.)
If it were not for the children, we could go abroad. (만일 우리가 아이들이 없었다면 해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긍정형식 '得'의 유표지 상태는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며, 기존의 달성 의미가 가능 의미로 변천함으로써 다시 무표지 상태가 된다. '得'가 가능 의미로 변화한 후, 이의 사용범위는 과거 진술 문맥, 가정문에서 벗어나 미래 진술 문맥으로까지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3.2 부정형식 '得'의 변천 동인

달성 의미의 '得'가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했다는 것과 같다. 이는 유표지 상태이다. 반면, 가능 의미 '得'와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은 무표지 상태이다. 따라서 부정형식으로 쓰인 '得'는 무표지 상태가 되기 위해 가능 의미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得'의 부정형식과 유사한 변천 경로를 겪은 다른 예로는 'V不C'가 있다. 'V不C'는 본래 가능의 부정 외에 달성의 부정 의미로도 쓰였다. 즉, 가능보어 외에 결과보어의 부정형식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능보어의 부정형식으로만 쓰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蒋绍愚(2005/2017: 239)는 "결과보어의 부정형식(동작이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음)과 가능보어의 부정형식(동작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 간의 의미 차이가 비교적 작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12) 碑楼功绩大, 卒拽不倒。(『李相国论事集』卷1)[3] (비각에 새겨진 공적이 많아서, 병사가 잡아당겨 넘어뜨리지 못했다.)[4]

상기 예문의 '卒拽不倒'는 의미가 '잡아당겨 넘어뜨리지 못했음(没有拽倒)'일 수도 있고 '잡아당겨 넘어뜨릴 수 없음(不能拽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이든 모두 비각이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蒋绍愚 2005/2017: 238). 즉, 어떤 의미든 비각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비실재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V不C'의 달성 의미가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이의 부정형식 자체가 지닌 비실재성과 관련된다.

부정형식 '得'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부정형식 '得'의 변천 과정

'得'의 의미	'得'의 사용환경	'得'의 결합성분(VP)	
?달성	과거 진술 문맥	비실재성	: 유표지 상태
↓			
가능	과거 진술 문맥	비실재성	: 무표지 상태

【표 3】에서 보듯이, 부정형식 '得'의 유표지 상태는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며, 기존의 달성 의미가 가능 의미로 변천함으로써 다시 무표지 상태가 된다. '得'가 가능 의미로 변화한 후, 이의 사용범위는 과거 진술 문맥에서 미래 진술 문맥으로까지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4. 나가며

본고는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달성·가능 의미를 비실재성(irrealis) 측면에서 분석하고, '得'의 변천 동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주요 고찰 결과이다.

첫째, 先秦시기 긍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주로 달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달성 의미 '得'는 실

3) 蒋绍愚(2005/2017: 239)에서 재인용하였음.

4) 예문의 번역은 蒋绍愚 저, 최재영·임미나 역(2019: 289)을 참고하였음.

재성 사건과 결합하는 것이 무표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달성 의미 '得'가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거나 미래 진술 문장에 쓰이면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하게 되어 유표지 상태가 된다. 부정형식 '得'가 과거 진술 문장에서 주로 가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가능 의미 '得'는 비실재성 사건과 결합하는 것이 무표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정형식 '得'가 나타내는 사건은 언제나 비실재성 사건이다.

둘째, 양상조동사 '得'의 변천 동인은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이다. 달성 의미 '得'와 비실재성 사건과의 결합은 유표지 상태이므로, '得'는 가능 의미로 변천함으로써 다시 무표지 상태가 된다.

이상으로 先秦시기 양상조동사 '得'의 공시적, 통시적 방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간과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先秦시기 이후의 변천상황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했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Palmer, F. R. (1979/1990),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2nd edition, London: Longman.

蒋绍愚 저, 최재영・임미나 역(2019),『근대중국어 연구방법론(1)』, 대구: 피비 프레스.

杜轶(2006),「"得+VP"结构在魏晋南北朝的发展——兼谈"V得C结构的来源问题"」,『语法化与语法研究(三)』, 北京: 商务印书馆.

郭锐(1997),「过程与非过程——汉语谓词性成分的两种外在时间类型」,『中国语文』第3期.

江蓝生(2016),「超常组合与语义羡余——汉语语法化诱因新探」,『中国语文』第5期.

蒋绍愚(2005/2017),『近代汉语研究概要』(增订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李明(2001),『汉语助动词的历史演变研究』, 北京: 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刘丹青(2008),「重新分析的无标化解释」,『世界汉语教学』第1期.

刘利(1998),「先秦助动词"得"字用法的考察」,『古汉语语法论集』(第二届国际古汉语语法研讨会论文集), 北京: 语文出版社.

石毓智(2001),『肯定和否定的对称与不对称』,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王晓凌(2007),『论非现实语义范畴』,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汪国胜・王自万(2013),「开封方言表示可能的"得"和"得能"」,『语言研究』第4期.

杨平(2001),「助动词"得"的产生和发展」,『语言学论丛』第23辑.

朱冠明(2008),『「摩诃僧祇律」情态动词研究』,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现代汉语中“很+VP”结构的再认识

（6页缩减稿）

焦毓梅*

<目　次>

1. 问题的提出
2. “很+VP”结构中“VP”及“很”的性质
3. 状语位置的“很”与“狠”和“大”的比较
4. 结论

1. 问题的提出

一般认为，典型的程度副词用于对形容词、心理动词所表达的性质、行为等的程度进行定量，是程度量的标记词，一般不能用于修饰动词性成分[1]。“很”是程度副词中最具代表性的的典型成员，甚至在诸多语法书中，都将能否被“很”修饰看作区别动词与形容词的主要特征之一。然而，在现代汉语中“很+VP”结构仍然存在着大量用例，这一结构通常被认为是程度副词“很”的一种特殊用法[2]。

“很+VP”结构一直受到研究者的关注，对其中“VP”的情况进行了较为全面细致地考察和描写，较具代表性的是≪现代汉语八百词≫[3]中的分类：

1）很+助动词。如：很应该、很可能；很敢说、很肯干；2）很+动，限于一部分表示情绪、态度、理解、评价、状态的动词。如：很喜欢、很感激、很成功、很支持、很了解；3）很+动宾短语，某些动词不能单独受“很”修饰，但带宾语后，整个动宾短语可受“很”修饰。如：很有礼貌、很说明问题、很让人生气、很受尊重；4）很+带“得、不”的动结式、动趋式。如：很看得起、很看不起、很经不起检查；5）很+动+数量，动词后多带“了、过”，数词限“一、两、几”。如：很花了点儿钱、很费了一番心血、很有两下子、很去过几回。

对于“很+VP”结构的出现一般倾向于认为其中的“VP”具有类似于形容词或心理动词具有“程度性”特征，并从这个方向来寻求解释。如储泽祥（1999）指出“很”字结构的语义特征是【+通比性】，所谓通比，是某个个体与它所在类的其他所有个体进行对比。在通比状态下，无论事物的性状、事件或活动，都可以有程度的差别，“很+VM”结构中“很”后的成分所表示的意义并不是性状，而是事件，结构式所表现的意义是：在V或VO活动中，VM的分量较重。又如，“周丽萍（2003）指出能进入“很VP”结构的动词性成分的最基本的语义特征是【+性状义】和【+模糊量】，动词性成分本身具有明显的【+性状义】和【+模糊量】，能够直接被“很”修饰，比如状态心理动词、能愿动词、性状义行为动词、习语化动宾短语、凝固化动补结构等，而有些动词性成分本身动作性较强，不具有明显的【+性状义】和【+模糊量】，必须借助VP前后的性状义或数量义短语来激发其【+性状义】和【+模糊量]才能够被“很”修饰。

* 德成女子大学

1) 张亚军. 程度副词与比较结构. 扬州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3(02):59-63.

2) ≪现代汉语词典≫“很”词条仅列一个义项：表示程度相当高，举“很快、很不赖　、很喜欢、很会办事　、好得很、很接近、很知道”为例；≪现代汉语八百词≫“很”词条更为详尽，但也认为其是表程度的副词，“用于助动词或动词短语前，表示程度高”。

3) 吕叔湘（2010）≪现代汉语八百词≫商务印书馆，267-268.

从寻找“VP”的“程度性”特征入手，确实可以解释“很+VP”第一大类中涉及的很多现象，但仍有很多问题需要得到进一步解释，如能进入“很+VP”结构的“V+数量”如果具有程度性特征的话，那其程度性特征是否来源于其中的数量结构？这一类结构为什么无法与“很”类（绝对程度副词）其他程度副词搭配？因而，本文尝试以“很+VP”结构为研究对象，从“VP”涉及的“量”与相应的表达方式入手，以及现代汉语的语言系统两个方面讨论相关问题。

2. “很+VP”结构中“VP”的性质

2.1 “很+VP”结构中“VP”的分类

首先综合各家研究成果，尝试按照“VP”能否与其他“很”类（绝对程度副词）搭配以及“VP”中是否强制性出现某些成分两条标准，将“很+VP”结构中的“VP”重新整理分类，大概涉及以下几种情况[4]：

A. 结构中无须出现其他限定性成分，可与其他“很”类副词搭配，VP表示态度、情绪、理解、评价、状态，根据VP的组成又可细分为6小类：

⑴ 含有能愿动词，表示客观的可能性、必要性或人的主观意愿，如：很应该、很可能、很会唱；

⑵ V多为双音节动词，含有形容词或心理动词相关语素，用于表示对人或事物的的态度或评价，如：很欢迎、很重视、很善于~、很擅长~；

⑶ VP为语义比较固定的短语，用于对人或事物的评价，如：很有意思、很没礼貌、很讲道理、很守规矩、很见功力、很对不起；

⑷ VP为使令意义或被动承受意义的动词性结构，其中含有形容词或心理动词相关语素，用于对人或事物状态的描述，常用于主观评价，如：很让人难过、很受尊重；

⑸ VP为知觉类动词中，含有高程度特征的动词，如：很理解、很明白；

⑹ VP为一般动词性结构，用于对人或事物的评价，如：很成功、很失败、很负责、很花钱。

B. 结构中必须出现数量结构，多带“了”、“过”，不可与其他“很”类副词搭配，VP表示一般性的事件或动作，如：很花了一些钱、很吃过一点儿苦、很下了几场雨、很费了一番心血。

2.2 “很+VP”结构中“VP”及“很”的性质

2.2.1 A类“VP”及“很”的性质

A类“VP”形式各异，大都可用于对事物性质、状态的描写或评述，但其语义、语用功能是否与典型性质形容词或心理动词相同，仍需进一步考察。张国宪（2006）指出性质形容词表述事物的属性，程度性是形容词的重要语义特征，在程度量的阀域上表现出无界性，通常占据一个有较大伸展空间的量幅，具有与微量、中量、高量和极量等四种不同量级的程度词组配的潜能。因而可以用“最、很、比较、稍”等四个程度词分别代表相关的四个量级，将I作为判定性质形容词的基本句法槽:{最、很、比较、稍}+~；同时指出这一句法槽是理想化的甄别模型，但不适用于甄别和处理大量的边缘现象，可以选择更富弹性的句法槽作为鉴别标准:.NP1+比NP2+~。另外，性质形容词属性的语用功能主要是分类，而类属的典型句法表现是由定语来实现的，因而可用“~+NP”句法

4) 本文在讨论“很+VP”结构时，着重讨论“V”为一般性动词的情况，不再涉及一般心理动词及其否定形式。另外，“很+是+X”，结构也比较常见，但因“是”的性质比较特殊，留待另文讨论。以下分类主要参考了吕叔湘（2010）≪现代汉语八百词≫以及陈群（1998）≪“很+VP”考察≫、周丽萍（2003）≪程度副词对VP的选择性研究≫、庞丽丽（2009）≪“程度副词+VP”研究≫、夏军（2012）≪“很+含数量补语VP”成立条件研究≫等相关研究论文涉及到的用例情况。

槽来做补充判断。[5]对于心理动词，周有斌、邵敬敏(1993)也提出不能仅靠语义特征来界定心理动词，提出用“主(人)十很+动词十宾语”这一形式标准来作为心理动词的鉴别式，凡是能进入这一格式的，都认为是心理动词[6]。

我们在这里无意讨论性质形容词与心理动词之间的界限，只是想借此考察这些“VP”与典型性质形容词和心理动词之间的关联和区别。因而只是尝试考察VP与这几个句式的搭配情况，不过考虑到本文的具体情况，将“很”替换为其他表高量的副词“非常”或“特别”，又考虑到语体色彩问题，将表微量的副词增加为“稍”、“有点儿”两个。考察其具体情况如下（见表一）[7]。从表中可以较为清晰地看到，A类VP大多可与微量、中量、高量和极量四个量级的程度词搭配，只有少数例子不能与表微量的程度词搭配，且均可以进入“NP1+比NP2+～ ”。这说明A类VP与典型的性质形容词和心理动词一样在程度量的阀域上表现出无界性，占据着一个有较大伸展空间的量幅。

通过对A类“很+VP”与“主（人）+很~+宾语”的适应情况，将其分为两类。

一类不能进入这一句式，其中VP与性质形容词语义类似，表示事物的属性，具有分类的功能，“S（NP）+很+VP”结构中的VP和NP一般可转化为“VP的NP”,指具有VP属性的NP[8]。其否定形式则与VP中的核心动词密切相关，这些VP的特征与性质形容词基本上也是一致的。

另一类能进入这一句式，其中VP与心理动词语义类似，表示主观的态度或心理活动。其否定形式一般可用“不”，且大多可以与“很”类副词搭配，VP为中性色彩或带有负面情感色彩时，其否定形式很难与“很”搭配，这一特性与心理动词也是一致的。

总之，A类VP虽形式不同，但其与典型的性质形容词或心理动词相似，具有较为明显的【+程度性】特征。因而，这一类“很+VP”结构中的“很”为程度副词，表示程度高。

2.2.2 B类“VP”及“很”的性质

B类“VP”结构中必须出现数量结构，多数情况下需要带“了”、“过”。如果用同样的句法槽来考察B类VP，很容易看到这一类VP不可与微量、中量、高量和极量中任何量级的程度词搭配，而且不可以进入“NP1+比NP2+～ ”结构（见表二），这说明B类VP中虽然含有表示【+模糊量】的数量短语，但其并没有表现出与性质形容词和心理动词类似的程度量特征，也不具有【+性状义】的特征，这也是其不能与其他“很”类程度副词搭配的原因。

2.2.2.1 B类结构中的VP

我们进一步考察B类结构，发现只要与“数量”相关（包括名量、动量、时量等）动词和性质形容词均可进入此结构。一般的性质形容词、心理动词以及一些可视为固定短语的VP结构的情况，“很”为程度副词，可替换为其他程度副词，指向性质形容词或心理动词；加入动态助词“了”、“过”以后就很难再与“很”组合，加入了“数量”成分后就可以和“很”组合。动词本身没有【+程度性】特征，词义内部没有程度上的层级性，单独使用时都不可以与“很”搭配，包括一般行为动词、知觉动词、行为心理动词、存现动词等，加入数量成分后，就可以和“很”组合了。这说明“很”与“数量”成分关联密切，且不同于一般程度副词的用法，其结构可分为“很+【V+数量】”和“【很+V】+数量”两种。

2.2.2.2 B类结构中的“很”与数量成分

很多研究者关注这一结构中的数量成分，并观察归纳出其中的数量成分应为表示少量或不定量的概数或约

5) 张国宪. 性质形容词重论[J]. 世界汉语教学, 2006(01):5-17.

6) 周有斌, 邵敬敏. 汉语心理动词及其句型[J]. 语文研究, 1993(03):34-38+50.

7) 表中可以搭配用“+”表示，不可以搭配用“—”表示。

8) 如果去除“NP”的定指与非定指标记，“VP的NP”指NP范围内具有VP属性的一部分，如“这本书很有意思”与“有意思的书”。

数，同时大部分研究者认为“很”仍旧应该判定为程度副词，也有部分学者认为“很”表示主观大量[9]。

尝试比较词汇系统中的数量结构，发现其存在着明显的客观性与主观性的差异，从主观性程度来看大概可以形成这样的序列：一点儿/一下儿＞ 几+量词（如几个、几次）＞一些 ＞一~ （一阵子、一会儿） ＞半定量（如几十个、百来个）＞ 定量（如三个）[10]。

首先，尝试将“很+【V+数量】”通常表达主观大量的方式进行比较。汉语中常见的表示主观大量的方式主要有下列几种：

1）直接使用语义含有“多”的词或短语，带有一定主观色彩，但这种主观性仍是基于“常态”、大众认知作出的判断，如许多、很多、特别多、成千上万的等。相应的也有语义含有“少”的词或短语，表示“小量”，带有一定主观色彩，如：一点儿、一下儿、很少。

2）“好+数量结构”，带有较强的夸饰色彩，体现说话人的主观认知，如：好一会儿、好几个、好几百个、好一阵子、好些、好多、好久、好长时间等。“好”不能与“定量的”以及带有较强主观性只能表示“小量的”数量结构搭配，如：好三百个（×）、好一点儿（×）。

3）副词或副词与双数量结构配合，用于定量、半定量结构，以及表示约数、概数的“一~”类时量结构，可以体现说话人对数量的主观认知，如：

(11) 他吃了三个/十几个包子。（客观量） 他只吃了三个/十几个包子。（主观小量）
他都吃三个/十几个包子了。（主观大量） 他一顿饭就吃了三个/十几个包子。（主观大量/小量）

(12) 他坐了一阵子/一会儿，就走了。（客观量）
他只坐了一阵子/一会儿。（主观小量）他已经坐了一阵子/一会儿了。（主观大量）

但如果表示约数、概数的数量结构本身带有明显主观性特征的，则只能强化其主观性特征，却无法表示相反的主观性特征，如：

(13) 他吃了一点儿。（客观/主观 小量） 他吃了很多。（客观/主观 大量）
他只吃了一点儿。（主观/客观 小量） 他只吃了很多。（？）
他都吃了一点儿了。（？） 他都吃了很多了。（主观/客观大量）

综上所述，我们可以运用语法手段，对主观性较弱的“客观量”进行评述，表示说话人对“客观量”的主观认知，当数量结构本身带有较强主观性特征的时候，只能强化其主观性特征，无法表示相反的主观性特征，因而，表述“主观大量”的结构无法与表述“主观小量”的数量结构同现，反之亦然。

“很+【V+数量】”结构，与这些表示“主观大量”的方式恰恰相反，表示“主观大量”的数量结构无法进入，表示“主观小量”的数量结构却最容易进入该结构。试考察部分表示主观小量的数量结构进入该结构的例子，如：

(14) 到那年，她添了个孩子，生产的时候很吃了一点儿苦，自己觉得有权利发一回脾气，而婆婆又因为她生的不过是个女儿，也不甘心让着她，两人便怄起气来。
生产的时候 吃了一点儿苦，自己觉得有权利发一回脾气。（客观/主观 小量）
生产的时候 吃了很多苦，自己觉得有权利发一回脾气。（客观/主观 大量）
(15) 她很等了一下儿，才离开的，所以并不觉得抱歉。

9) 如，庞丽丽（2009）≪“程度副词+VP”研究≫：在这种结构中数量短语是无界的，受数量短语影响的整个短语结构无界化，所以能受到程度副词“很”的修饰。

10) 对这些数量结构，我们用副词“只”、“都~了/已经~了”，“就”和“才”配合双数量结构，对其主观性进行考察。

她等了一下儿，才离开的/就离开了。（客观/主观 小量）
她等了好一会儿，才离开的。（主观 大量）

(16) 事实上那个向往太阳的、体态丰满的女人很有点儿像她自己。
有点儿像她自己。（客观/主观 小量） 很像她自己。（客观/主观 小量）

(17) 这一天他们总共才挣了一块四毛二分钱，一瓶牛奶花了一毛一，爸很有点儿舍不得。
爸有点儿舍不得。（客观/主观 小量） 爸很舍不得。（客观/主观 小量）

通过四组例子的比较我们能很清晰地感受到其中的差异，单独使用表“大量”或“小量”的结构，其语义单纯，主观与客观保持一致，而“很+【V+主观性小量】”结构则表现出一种“矛盾”，如例（14）、“一点儿”表示普通认知中的小量、客观小量，而“很”表示当事人的主观感受，觉得自己受了很多苦或很大的苦；例（15）“一下儿”表示一般情况下的小量、客观小量，而“很”表示当事人的主观判断，在当时情景下本来无须等，“一下儿”已经是超出应有范围的“大量”了；例（16）、（17）中“有点儿”表“小量”，通常可表示委婉语气，也就是把程度量往“小”里说，“很”则表示当事人或说话人有较为强烈的感受，是把程度量往“大”里说。例（16）“很+有点儿”表现了客观小量与把程度量往“大”里说的语气之间的矛盾，例（17）则表现了主观感受强烈与委婉语气之间的矛盾。

其他表示概数、约数的数量结构情况大体相仿，用于表现主观感受与客观量矛盾，如：

(18) 他很收藏了几个善本，颇有几分得意。
(19) 珍爷攻书很下了一番功夫，经史子集“多少”懂得些，一笔魏碑也写得有“三分”像样儿。

综上所述，“很+【V+数量短语】”的结构体现了主观与客观认知或是不同个体认知之间的矛盾，“很”强调当事人或说话人对某个通常的“小量”有强烈的感受。这也就能解释为什么“大量”和固定数量不能进入该结构。同时我们也注意到“很+【V+数量短语】”弥补了“好+数量结构”、“副词（‘只’等）+V+数量结构”主观表达形式的不足。

第二，“【很+V】+数量”结构，“很”语义上与数量结构关联不大，而是指向后续的动词性成分，表示主观意愿、态度或情状，如：

(20) 这一对男女就在后园里连喊带舞，很忙了一阵子 。（很用力、很大幅度地忙）
(21) 秋云首先挽了桂英的手，很看了几眼。（很认真、很用力地看）

这一类结构中的动量或时量，与“很+【V+数量短语】”中情况相似，“大量”和固定数量不能进入该结构，只有表示概数、约数的中量、小量能进入该结构。

3. 状语位置的“很”与“狠”和“大”的比较

“很”出现在动词前边的状语位置与“量”密切相关，动词性成分一般用来表示事件或动作，可能涉及到事件的规模、动作的幅度、动作的力度、动作的频次以及持续的时间量、相关的物量等，那么状语位置出现的副词或形容词与这些“量”之间的关系，本身就是值得关注的问题，同时考察语义相近的结构也可以更清楚地认识“很”的性质。

3.1 状语位置的“很”与“狠”

研究者一般认为程度副词“很”由形容词“很/狠”用法演化而来，且“很”与“狠”自魏晋直至清代一直混用，在现代汉语中语义、用法接近的部分，是其分界的中间地带。利用BCC语料库检索“狠+V”的结构，发现“狠”可重叠，数量结构不是必须出现，即使出现数量结构也是“【很+V】+数量”结构，其中数量结构大多为定量“一~”，也可以出现不定量。从“狠”的语义看大概可以分为以下几种情况：

(22) 对着黑孩的屁股他狠踢了一脚，黑孩半天才爬起来。（凶狠+<动作>用力）
(23) 譬如说他们缺衣少鞋，衣服单薄，如果有幸吃顿好饭就狠吃猛塞。（<动作>用力）
(24) 回去狠狠想了一下，想出了一大堆：情人、傍肩儿、……（<心理动作>用力）
(25) 当初他要是想来段新鼓词，就得狠花上一笔钱。（<心理感受>强烈）

“狠”主要表示伴随主动性动作行为的主观情态，可以偏重“态度”指凶狠，也可以偏重行为“力度”指“用力”，当这一动作行为带有被迫、不情愿的意义时，“狠”就只能表示对这一行为有“强烈”地“心理感受”，这一用法与B类“很+VP”非常接近，也必须出现数量结构。试比较这类“狠+VP”和B类的“很+VP”：

1）“狠+VP”中如果出现定量、主观大量或主观小量时，只能分析为“【狠+V】+数量”，表示态度凶狠或用力，也就是说，“狠+VP+主观小量”不能表示“心理感受”；“很+VP”则经常与主观小量同现，多分析为“很+【V+数量】”，表示对其的认知或主观感受。

2）“狠+VP”如果出现一般不定量时，可分析为“狠+【V+数量】”主要用于一般情况或未然状态，表示主观心理感受；“很+VP”分析为“很+【V+数量】”，则只能用于“已然”状态。

3）从语义上来说，相同结构如果用“狠”则倾向于施事者的主观意图，如果用“很”则倾向于当事人或叙述者的主观评述。

3.2 状语位置的“很”与“大”

“大”有大量用例用在动词或形容前，≪现代汉语词典≫甚至收录了“大”的副词义项“程度深”，我们也尝试比较“很”与“大”的用法。利用BCC语料库检索“大+V”的结构，发现主要涉及以下情况：

(26) 又好像家里散落的一些东西，不到大搬家、大清理的时候，是找不到的。（事件的规模）
(27) 使出最大的劲冲他大吼 ——喊破了喉咙。（动作的幅度、力度）

“大”主要表示事件的规模大或是动作的幅度、力度大，带有一定的主观色彩，当事件的规模或动作幅度只与某一数量相关时，用法与“很+V+数量”结构比较接近，但其只能分析为“【大+V】+数量”，“大”看似可以指数量很多，其实仍倾向于对事件或动作的描述，重在视觉或外在感观上的强烈感觉。当其与涉及数量比较单一的动词或形容词搭配时，更能看出这一差别，如“大吼了一声/狠吼了一声/很吼了几声”、“天大亮了/天很亮了”、“大红/很红”。

4. 结语

首先综合各家研究成果，尝试按照“VP”能否与其他“很”类（绝对程度副词）搭配以及“VP”中是否强制性出现某些成分两条标准，将“很+VP”结构中的“VP”重新整理分为A、B两类。

A类结构中无须出现其他限定性成分，VP与典型的性质形容词和心理动词一样在程度量的阀域上表现出无

界性，占据着一个有较大伸展空间的量幅。因而，这一类“很+VP”结构中的“很”为程度副词，表示程度高。

B类VP中虽然含有表示【+模糊量】的数量短语，但其并没有表现出与性质形容词和心理动词类似的程度量特征。B类结构中“很+【V+数量】”与通常表示“主观大量”的方式恰恰相反，表示“主观大量”的数量结构无法进入，表示“主观小量”的数量结构却最容易进入该结构。这一结构体现了主观与客观认知或是不同个体认知之间的矛盾，“很”强调当事人或说话人对某个通常的“小量”有强烈的感受。同时我们也注意到“很+【V+数量短语】”弥补了“好+数量结构”、“副词（‘只’等）+V+数量结构”主观表达形式的不足。将“很”与出现状语位置的“狠”与“大”相比较，可以看到他们在语言系统中形成了一定程度的互补分布。

11月 21日(土) 14:20~15:50

중국어교육(2)

❖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오현주(동국대) 현대중국어 客套语 교육 방안 연구

李繼征 · 隋雨竹(수원대)
VR技術與基礎漢語教學

김기범(광주여대) 중국어 新HSK 난이도에 관한 비교 연구
– 4 · 5급 비교를 중심으로

한 일 · 김현태(부경대)
西南官话与汉语普通话的相关研究
— 后缀词"门 (们) "与"么"的对比

현대중국어 客套语 교육 방안 연구

오현주*

<目 次>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3. 교재 분석
4. 논의 및 제언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客套语의 내용과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제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客套语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客套语의 내용은 무엇이며, 나아가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客套语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화용적 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용 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화용 교육의 저변에는 공손성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어에서 공손성을 표현하는 기제로는 호칭어, 경어, 겸양어, 客套语(사교성 인사말) 등의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가 있다. 중국어 공손표현에 관한 연구는 확대되고 있다. 이론적 연구, 어휘 및 문장 차원의 연구, 교육적 관점의 연구, 통시적 연구, 신체언어 연구 등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도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호칭어, 경어, 겸양어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공손 언어는 교양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 운용의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교성 인사말인 客套语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1)]

来！欢迎你们的到来！有安排不周的地方，请多包涵！ 자!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접이 소홀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姐夫，这些天辛苦你了。매형, 요 며칠 수고 많았어요.
我就陪着你。제가 모시겠습니다.
哎呀太麻烦你了。아이고, 폐를 끼치는군요.

위 예문의 包涵, 辛苦, 麻烦 모두 겸손하고 예의 있는 표현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어와 겸양어의 사용이 약화되고, 이러한 客套语[2)]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현시대에 맞는 현대인의 공손표현이 되었다.

* 동국대학교

1) 졸고, 「현대중국어 공손표현의 변천 양상 연구」, 『중국학』 66, 2019, 170-171쪽.

2) 이처럼 일상적으로 상대방을 접대하거나 응대할 때 자주 쓰이는 사교성 인사말을 客套语라고 한다. 내포된 의미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대역어가 없어 편의상 중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客套语와 관련된 '客气', '客套', '客套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客气: 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예의바르다; ② 예의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다.
客套: ① 예의를 차리는 상투적인 말; ② 예의바르게 말하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客套话, 客气话 등의 사교성 인사말에 관한 연구는 王世友·莫修云(2000)과 赵光(2007), 서미령(2010)이 있다. 王世友·莫修云(2000)은 客套话, 客气话, 客气词语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客套话는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나타내고 사양하는 의미가 있는 정형화된 어구이고, 客气话, 客气词语는 상대적으로 정형화의 정도가 약하며 문장성분으로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现代汉语词典』에 수록된 客套话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0개가 客套话에 속한다고 하였다.[3] 赵光(2007)은 『现代汉语词典』에 客气类 인사말로 표기한 단어는 79개인데, 多谢, 回见, 晚安, 再见 등은 '客气词语'가 아니며, 百忙, 打扰, 劳烦, 失禮' 등은 '客气词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95개의 客气词语를 부탁할 때, 사과 및 감사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할 때, 상대방이 초대에 응하거나 직위, 혹은 선물을 받기를 원할 때, 축하 혹은 칭찬을 할 때와 기타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서미령(2010)은 81개의 客氣類 인사말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교재 내에서의 제시상황을 살피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여러 학자가 제기한 客氣類 인사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4]

기존 연구는 주로 客气话, 客气词语, 客套话의 차이를 규명하고, 정의 및 기준에 따라 그 범주를 정하여 용도별로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客套语, 客气话, 客气词语가 무엇인지 규명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에 중점을 두고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범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손표현 교육이 중국어 교육 내에서 특히 비즈니스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에는 직급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다양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맞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 중국어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사회·문화의 배경지식, 비즈니스매너·관례에 대한 지식, 중국인의 사유방식과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문화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5]

『商务汉语考试大纲』에서 제시하는 교제 기능 항목을 살펴보면, 생활과 업무로 분류하였고, 생활 유형은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교류 활동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활 유형의 항목에는 비자, 음식, 숙소, 출장, 쇼핑, 사교, 문화로 분류하여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중 사교에는 约见, 拜访, 庆典, 聚会, 邀请及致谢, 道贺及祝愿, 道歉及拒绝가 있고, 문화에는 礼节, 习俗가 있다. 업무 유형에는 会见 항목에 欢迎, 介绍, 寒暄, 赞美, 了解情况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사교적인 인사말과 관련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상에서 客套语 사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의 중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수록하고 있는 客套语의 내용과 그것이 사용되는 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어 교육, 특히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客套话: 겸손하고 예의 있는 말, 예를 들어 '劳驾, 借光, 慢走, 留步' 등.

3) 이중 일상적인 인사말인 再见, 回见, 晚安, 谢谢, 多谢, 不客气는 본 논의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4) 첫째, '客氣詞語'는 단어이고, '客氣話'와 '客套話'는 구이다. 그러므로 '客氣詞語'는 문장성분으로 쓰이나, '客氣話'와 '客套話'는 문장성분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둘째, '客氣詞語'에서 '客氣話', '客氣話'에서 '客套話'로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客氣話'는 임의성이 강하나 '客套話'는 고정된 표현이다.
넷째, '客套話'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예의바르게 형식적으로 쓰는 말이다.

5) 이금희,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 『언어학 연구』 34, 2015, 178쪽.

3. 교재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정한 비즈니스 교재 목록과 교재에 수록된 客套语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교재명[6]		교재명	
맛있는 중국어1	恭喜 久仰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麻烦 指教 关照 包涵 劳驾
맛있는 중국어2	打扰 恭喜 不敢当	나의 겁 없는 출장 중국어	久仰 恭喜 百忙
맛있는 중국어3	麻烦 不敢当 久仰 受累	비즈니스 중국어 무작정 따라하기	百忙
맛있는 중국어4	笑纳 小意思 包涵 彼此 好说 失陪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托福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1[7]	久仰 指教 麻烦 费心 包涵	리얼 비즈 중국어2[8]	包涵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비즈니스 중국어	指教 久仰 辛苦 麻烦 失陪	ok 비즈니스 중국어	幸会 指教 费心 麻烦 不敢当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인사하기, 명함 교환, 소개하기, 부탁 및 요청, 사과, 감사, 축하 및 칭찬, 선물하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9]

인사하기, 명함 주고받기, 소개하기 상황에 久仰, 幸会, 指教 등이 주로 쓰인다. 중국 업체 직원과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는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이다.

张小五：金代理，我给你介绍一下，这位是我们公司销售部经理，刘先生。
金成功：您就是刘经理，久仰久仰。

这位是公共关系部主任张红小姐。
幸会，幸会！
你们好！（握手）这是我的名片，请多指教。
不敢当。这是我的名片，以后也请您多多指教。

出货的事情要劳驾您了。
太感谢了，以后说不定得常麻烦你。
那今天先失陪，明天再来一趟吧。

부탁이나 요청에는 劳驾, 麻烦이 사용된다. 사과하기 화행에서 失陪가 사용되었다.

张总，这几天您也受累了，我再次感谢您。
你这什么话呀。

6) 구체적인 교재 정보는 지면의 제한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생략하였다.
7) 단계별 학습을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중고급』도 분석하였으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주제이고, 업무에 관해 주고받는 메일 위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 客套语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8) 전 단계의『리얼비즈중국어1』도 검토하였으나, 谢谢, 再见, 对不起 정도의 인사말만 사용되었다.
9) 지면이 부족하여 한두 개의 예만 제시하였다. 또 축하 및 칭찬하기 화행의 내용은 생략하였다.

周总，这是我们给你们准备的礼物，请笑纳！
哟！你这是干吗呢？
这都是小意思。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受累가 사용되었고, 선물하기 상황에 笑纳, 小意思가 사용되었다.

대부분 교재에서 단어 의미만 간략히 제시하고, 客套语로서의 공손 의미나 기능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如果照顾不周到，请多包涵！
那就好，这次出货量很大，请您多费心。有时间我去贵公司拜访您。

包涵의 뜻 '용서하다'만 제시되어 있다. 경어 拜访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费心에 대한 설명은 없다.

祝你生意红火腾腾起，财运亨通步步高。그러시죠. 사장님 사업 번창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彼此彼此。이하동문입니다.

'피차일반이다'라는 단어의 뜻만 제시하고, 客套语로서의 의미나 기능에 관한 설명은 없다. 교재에서 '피차일반이다', '이하동문입니다'로 번역되었는데, 사교적이거나 예의 바른 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축원의 말이나 칭찬을 할 때 겸손하게 대답하는 말로 쓰인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화 예절에서 사용된 托福와 선물하기 화행에서 사용되는 笑纳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사교성 인사말로 사용되는 화용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您过得好吗? 잘 지내시죠?
托你的福，我过得很好。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표현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중국의 안부 묻기 방식에서 사교적인 안부 인사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请笑纳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물을 받아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겸손한 표현으로, '不成敬意，请笑纳(부족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형태로 많이 쓰인다.

4. 논의 및 제언

첫째, 『现代汉语词典』에는 客套语 관련 표지가 없지만, 대화 상황, 목적, 대화자 상호 간의 관계 등의 화용적 요소를 고려하면 客套语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听说，您的酒量很不错。
您过奖了。
多亏你的热心帮助，我才得到了提升。

칭찬에 대한 겸양의 표현 过奖과 '~덕분에 ~하다'는 의미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거두었을 때 사용하는 감사의 표현 多亏는 客套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접대하기 상황에서 접대를 받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상황별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谢谢你们的热情款待和丰盛的晚餐。
谢谢您的热情款待。
今天的酒菜真丰盛，谢谢主人的热情招待。

완전하게 고정화된 형식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패턴화되어 있다. 일부 상용 '客氣話'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형식이 고정되면 '客套話'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표현을 정리하여 매뉴얼화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수준별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의를 나타내는 사교적인 인사말은 신체언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명함을 주고받을 때 손동작이나 시선,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10] 교육 방안 중 客套语와 함께 쓰이는 신체언어를 교육하는 방법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교재 분석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따라 공손 의미가 변하고 그에 따라 표현도 달라진다. 현재 어떻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纳福'와 '发财'는『现代汉语词典』(2005)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纳福: 享福(多指安闲地在家居住，旧时也用作问安的客套话）。
发财: ②旧时客套话，问人在哪里工作说在哪里发财。

두 단어 모두 이전에 사용되던 客套话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부 논의에서 久仰, 失陪, 幸会는 고대에 많이 사용되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교재에 사용되었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현대중국어의 客套语의 변천 양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상대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문금현,「韓國語 恭遜 話用教育의 內容 構成에 대한 提言」,『語文研究』46(1), 2018.
서미령,「중국어 客氣類 인사말 소고」,『중국어문학논집』65, 2010.
오현주,「현대중국어 공손표현의 변천 양상 연구」,『중국학』66, 2019.
_____,「중국어 공손 표현에 수반되는 신체언어 연구」,『중국인문과학』74, 2020.
이금희,「비즈니스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언어학 연구』34, 2015.
胡明扬,『汉语礼仪用语及其文化内涵』, 上海辞书出版社, 2004.
王世友·莫修云,「≪现代汉语词典≫以"客套话"为释语的条目浅析」,『辞书研究』, 2000.

10) 졸고,「중국어 공손 표현에 수반되는 신체언어 연구」『중국인문과학』74, 2020. 이 논문에서 공손 화행과 관련된 동작 유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언어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드라마를 텍스트로 하여 인사 및 안부, 요청 및 부탁, 감사 표현 동작, 거절 및 사과 표현 동작, 축하 및 찬사 표현 동작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체언어를 분석하였다.

赵　光,「现代汉语敬辞, 谦辞, 客气词语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論文, 2007.
郑立南,「浅谈客气词语的对外汉语教学」,『旅游管理研究』, 2014.
周筱娟,「汉语客套语的语表语里和语值」,『江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26(3), 2007.

VR技術與基礎漢語教學

李繼征・隋雨竹*

<目　次>

1. VR技術概述
2. VR技術與教育領域
3. VR技術教學模式
4. 基礎漢語中的VR技術教學
5. VR技術教學的問題

1. VR技術概述

1989年，美國科技公司VPL Research[1]創始人Jaron作為最早的虛擬技術開發者提出VR(Virtual Reality)的概念[2]。他認為V是虛擬的環境，R則表示現實的世界，現實的環境。所以VR也被稱作“Virtual Environment(虛擬環境)”[3]。Jaron認為V虛擬表示其中所構築的世界或環境是由人工構造，並非真實的，只存在於計算機內部。用戶可以通過特定方式“進入”這個虛擬的環境中。通常用戶以自然的方式(可穿戴設備)與構築的環境進行交互感知，包括可干預構築環境，從而讓人產生置身真實世界環境的感覺，即身臨其境。

就VR技術與教育結合而言，歐美國家發展較早成績突出。1992年美國東卡羅萊納大學設立虛擬現實技術與教育實驗室被視作將虛擬現實技術與教育領域結合的標誌。其主要研究集中在相關軟硬件測試及VR技術與教育教學之間產生的影響。此外VR在教育領域的代表為Z-space[4]。同時谷歌2017年與加州大學合作開展Expeditions pioneerVR項目，主要提供VR設備、實驗室幫助提升學生的學習體驗。歐洲以英國為代表，VR硬件巨頭HTC-VIVE的研發中心也設在英國。其中學研代表的諾丁漢大學很早便研發出高水準桌面級VR設備[5]。亞洲來說，日本的VR技術研發較早，其研究主要集中於大規模VR知識庫建設。韓國的VR技術教育研發也較早，目前與教育領域的結合主要集中在安全教育、科學及農業知識培訓、職業知識培訓，醫療及康復訓練培訓，博物館美術館體驗等領域。大陸地區最早將VR技術應用於教育領域的是天津大學1996年開發的虛擬校園[6]為代表，其後浙江大學、上海交通大學、北京大學等大批高校也採用虛擬現實技術構築了虛擬校園。[7]可看出隨著技術和硬

* 水原大學

1) 計算機科學家Jaron Lanier於1984年成立的科技公司，VPL指“虛擬的編程語言”。1990年申請破产，1999年Sun Microsystems收購其所有專利。

2) 參考Rheingold,(1991),Steinicke(2016)。另外，VR相關闡述最早可追溯至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信息處理技術辦公室(IPTO)主任IvanSutheland1965年在IFIP名為“TheUltimateDisplay”的報告。報告中指出人類可將顯示屏作為“一個觀察虛擬世界(VirtualWorld)的窗口”，但需保證窗口圖像在視覺和聽覺上的真實性。該思想通常被視為奠定了後來VR研究發展的基礎。

3) 相似名詞還有人工現實(artificial reality)，沉浸感虛擬環境(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4) 位於聖何塞的美國科創公司，提供VR軟硬件及相關學習體驗。例如其3D工作室項目提供適合中小學課堂使用的虛擬現實教學工具，包含2000+個模型，300+個課件。模型涵蓋多個學科，包括動物、植物、人體解剖、建築、藝術、歷史、生物等，且提供多種交互工具，如導入模型、旋轉、拆分結構、測量、尺寸對比、標籤等。Z-space認為通過該項目可有效提升學生動手能力。

5) Virtual Reality Application Research Team為其代表項目。

6) 模擬校園場景，幫助學生及家長通過網絡來體驗學校。雖較為初級，但作為最初的虛擬技術實踐，具有積極的意義。

件的發展及普及化，VR虛擬現實技術不斷成熟，其與教育領域的結合也越來越緊密。

就學界VR技術與教育結合的研究來看，部分學者已對VR在教學中的應用及理論進行了探討，如孫連榮(2003)，胡衛紅(2007)，馬衝宇(2012)，余衛紅(2012)，馬衝宇(2018)，李花子(2019)，韓越(2019)等。其中就語言教學來看，馬衝宇(2012，2018)，李花子(2019)，張利紅(2019)，韓越(2019)等討論了虛擬現實在語言教學中的應用及產生的相關問題。馬衝宇(2018)從理論角度討論了虛擬詞語空間理論與漢語知識表達之間的關係，李花子(2019)主要以韓國語教學為對象，張利紅(2019)以漢語口語與虛擬現實技術結合為研究對象的研究。總體來看，對漢語國際教育相關的虛擬技術結合的研究，無論從理論還是教學設計實踐角度仍需挖掘。本文擬從對基礎漢語教學與VR虛擬顯示技術結合的方面進行嘗試性討論，還望專家多多指教。

2. VR技術與教育領域

2.1 VR定義與特征

1）定義

雖然有關VR的概念大致有相同的理解，但目前對於VR暫無統一的定義。本文據Zhan,Su(1998:31)[8]，認為VR（中文名稱譯為“虛擬現實[9]”）是指人可以進入一個相對於現實世界的，由計算機產生的，具有真實感的三維虛擬世界中，並可以通過視、聽、說、觸等自然感官與之進行交互作用，從而獲得自然感官的真實體驗。

2）特徵

VR虛擬現實技術具有較為明顯的特徵。G Burdea，P Coiffet(1992)指出VR的三個特徵，稱為I3(或3I)特徵。即Imagination(想像性)，Interaction(交互性)，Immersion(沉浸性)。

①想像性：也指創造性，指用戶能在虛擬環境[10]中根據自己與物體的交互行為，通過聯想、邏輯推斷等思維過程，對未來進行想像的能力。虛擬環境的創建也是由設計者想像出來的，既可能是真實現象的重現，也可以是自身想像的結果。

②交互性：指用戶感知與操作環境。傳統的人機交互通過鼠標鍵盤與計算機交互，虛擬現實的交互通過傳感器與虛擬環境的任何物體以最自然的方式進行交互。用戶對虛擬環境內的物體進行操作體驗，如在真實環境一樣。如，用戶可以真實感受到物體的下落；手握虛擬槓鈴，用戶會感受到重力和握力。[11]

③沉浸性：指逼真、身臨其境的感覺。用戶借助特殊的輸入／輸出設備，與虛擬世界進行自然的交互，虛

7) 其他較具代表性的例子有中國科技大學使用的大學物理虛擬實驗軟件；華中科技大學開發的針對遠程教育中實驗教學的虛擬實驗室；北京科技大學虛擬現實實驗室的汽車模擬駕駛系統；清華大學的汽車發動機檢測系統等。就目前高校虛擬技術應用於教學來看，主要以實驗教學領域為主。

8) Zhan Shouyi, Su Hongyi. About the Meaning and Denomination of VR[J]. CHINA TERMINOLOGY,1998.

9) Zhan,Su(1998:31)對中文譯名解釋為:virtual譯作“虛擬”是能夠為人們所接受的；至於reality，本身具有“真實”“現實”“實在”等含義。但VR作為一種技術，從其所表達的含義出發，VR與其他技術相比最顯著的特征是臨場感和真實感，參與者宛如沈浸在一種三維立體空間中(場景中)，並能在該空間漫遊。對參與者來說，他所進入的環境也是一種“客觀現實(object reality)”，只不過是由計算機產生的，並非客觀實際，故在前面冠以“虛擬”是恰當的，所以我們贊成VR譯作“虛擬現實”，它能恰如其分地反映VR的實質，這樣采用VR技術生成虛擬車間、虛擬產品的虛擬裝配，甚至虛擬戰場，虛擬武器都容易理解了。至於把VR譯作“靈境”，其關鍵是如何理解“靈”字，總感到有點抽象，不容易理解。若把VR譯作“虛擬實境”，我們認為其含義與“虛擬環境”相當。

10) 虛擬環境通常基於計算機仿真和多媒體技術通過三維立體顯示，輔以3D聲音合成，人體感覺模擬構成。實際上是感覺模型數據庫。由於人類獲得信息的主要方式是視覺和聽覺，所以虛擬環境的數據空間暫時也以視覺和聽覺為主。隨著技術發展，其他感覺數據庫逐漸完善，虛擬環境的模擬會更加真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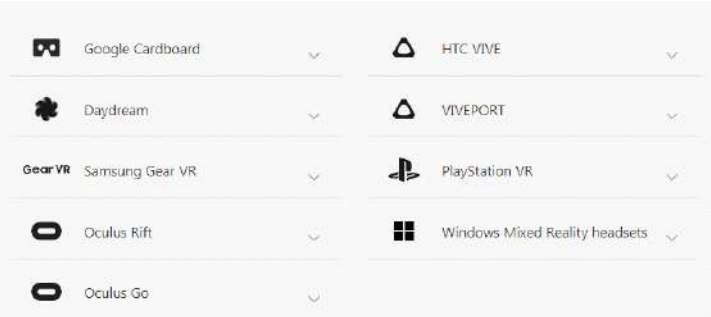
11) 實際上是計算機軟件根據人的反應，決定虛擬環境中事件的進程，實時變換圖形、聲音，實現人與虛擬空間的相互作用。

擬現實技術為用戶提供視覺、聽覺、觸覺等感官模擬，用戶如同身臨其境。12)

結合VR虛擬現實的定義與特征可知VR主要通過模擬一個現實世界或者某創造性的場景，令進入環境的用戶與該環境進行交互體驗。通常用戶通過操作虛擬場景中的對象，同時特定環境及對象也通過各種感知方式向用戶提供信息反饋完成交互。在該環境中用戶因為體驗到沉浸感而感受到自己已融入虛擬世界。

2.2 VR環境要求

完整的VR系統有四部分:頭戴式顯示設備(HMD)、主機系統、追踪系統、控制器。HMD即虛擬現實眼鏡，它是一種硬件設備，將人的對外界的視覺、聽覺封閉，引導用戶產生一種身在虛擬環境中的感覺。主機系統是指為HMD提供各種功能保證的設備，比如智能手機、PC等。主機系統決定了HMD設備的智能化和自動化程度。追踪系統一般作為HMD的外設，當然也可以被整合到設備中去。一般包括內置傳感器、陀螺儀和磁力計。追踪系統是通過捕捉用戶運動來創造一種沉浸式的體驗，比如帶著HMD設備抬頭，屏幕畫面可通過接受追踪系統發送的信號把畫面轉化為天空。控制器一般作為手持設備出現，通過它可讓用戶追踪自己的動作。HMD硬件一般由顯示屏、處理器、傳感器、攝像機、無線、存儲、電池、鏡片組成。下為主流HMD產品。



2.3 VR技術與教育領域

90年代開始VR技術開始進入教育領域，目前VR技術與教育應用相結合大致可體現在如下幾個領域：

1）實驗環境模擬教育。主要以虛擬實驗室環境以及虛擬實驗操作為主。其中以Labster公司較有代表性13)。Reede(2016)將該類涉及領域稱之為“硬科學(Hard Science)”14)。涉及學科如生物、化學、地理、地質、天文等。其優勢在於學習者能夠同虛擬的三維物體、動物、環境等進行互動，特別是日常難以了解的微宏觀世界的模擬學習。此外還有愛爾蘭的初創公司VRE15)也在該領域涉及較廣。

2）專業技能模擬教育。主要以某種特定技能的學習過程為主，模擬環境以及操作步驟，讓學習者獲取相關技能虛擬實踐的機會；其中還包括醫學臨床教學、建築和工程教學等領域。16)

3）體驗環境模擬教育。主要以博物館、藝術館等虛擬環境體驗為主。目前有些大學還創建虛擬校園17)供人參觀，以吸引生源。

---

12) G. Burdea, P. Coiffet(1992). Virtual reality technology[J]. Presence Teleoperators&Virtual Environments, 12(6):663-664. 中譯轉引自刘德建等(2016)。

13) Labster主要以虛擬實驗室形式提供70多種模擬實驗。涉及細胞培養、基因組合、化學品處理、蛋白結構合成等方面。

14) Reede, E.,& Bailiff, L.(2016). When virtual reality meets education. https://techcrunch.com/2016/01/23/when-virtual-reality-meets-education

15) 可參考http://immersivevreducation.com

16) Walsh(2017)Drury大學採用VR進行建築設計教學，葉為兵(2017)聖母大學採用VR進行污水處理教學。

17) 可參考http://YouVisit.com以及http://georama.com.au。

4）特殊治療模擬教育。主要以功能不健全人士的知識學習包括康復訓練虛擬為主。Reede(2016)還指出波蘭Silesian科技大學和以色列海法大學針對自閉症兒童治療利用VR技術設計不同的日常生活場景，使他們可在虛擬場景中學習諸如過馬路、超市購物等生活技能，同時達到治療的效果。

3. VR技術教學模式

語言教學層面來看，VR技術大致有構建“VR課堂”及通過全景相機拍攝或利用軟件3D建模製作的語言學習軟件產品兩種模式。

1）VR課堂

葉為兵(2017)以VR課堂構建為目標，進行了學生參與VR課堂的嘗試。其主要方法為通過全景相機拍攝漢語課程實際教學現場，錄製後將影片發送給學生。學生在家使用虛擬硬件(以VR眼鏡為主)進行學習。該實驗還嘗試了直播，此時增加語音及圖像交流設備（兩端分別配置IPAD和筆記本電腦）。由於全景相機的作用，無論錄播還是直播，不在現場的學生可通過VR眼鏡體會到身在教室聽課的直觀感受。

2）VR學習軟件

目前就語言學習來說，該方式較為普遍。具體方式主要以學習者進入虛擬場景進行語言學習的軟件為主。軟件中較為有代表性的有2015年推出的法語學習軟件“Learn Immersive”，學習者可按照主題進行詞彙學習，教授者可進行簡單課程編輯[18]。同年，Fox3D公司也推出VR語言學習軟件“House of Languages”，相比“LI”該軟件提供英法德西俄五種語言學習。目前較為成熟的軟件是來自羅馬尼亞的MondlyVR。目前提供包括中文在內的三十種以上的語言課程。模塊包括酒店、出租車、餐廳等大量場景，學習者可在這些虛擬環境中通過與虛擬人物交談獲得目的語交流的能力。除交互性外，谷歌的GoogleExpeditions項目也常被視為VR教學模式之一。Google Expeditions不提供對話，主要以實際場景感受為主。學習者可以穿戴設備進入谷歌提供的三維實景，比如城市(北京等)、名勝古跡(長城等)、傳統節日(春節等)等，達到文化體驗的目的。

4. 基礎漢語中的VR技術教學

篮玉如(2015)[19]以小學生英語課堂與VR技術融合為研究對象進行測試，結果表明被試對話及語句得到顯著提升。Lee Soojeong(2013)[20]也通過測試得到相似結果。可見基礎漢語教學中如合理結合VR技術教學在提高學習者學習興趣，激發積極性，提高效率等方面有著積極的作用。

前文所述兩種模式中，第一種模式中的錄製模式缺乏一定互動性，直播模式有時受限於硬件及網絡，效果到底如何還有待考察。理想狀態下的VR技術教學，學習者應沉浸於虛擬現實場景中，通過交互對基礎漢語中的高頻表達進行對話練習，從而達到掌握的目的。本文主要以該技術模式下的基礎漢語進行討論。

基礎漢語教學中通常以語音、漢字、基本漢語表達為主，學習者需了解基本漢語知識，具備最基礎的聽說

18) Learn Immersive通過眾籌開發，內容設定以及場景較為簡單。雖然LI的交互性、沉浸感等還處於較為初級的階段，加上資金以及開發資源等原因該項目已停止，但仍被視為VR技術與語言教學結合的首次有意義的嘗試。

19) Lan, Y. J.(2015). Contextual EFL learning in a 3D virtual environment.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9(2), 16–31. Retrieved from http://llt.msu.edu/issues/june2015/action.pdf

20) Lee, Soojeong(2013), Can Speaking Activities of Residents in a Virtual World Make Difference to Their Self-Expression?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16 n.1, pp.254-262.

讀寫能力，為更高階的學習做好準備。而VR技術教學融合大致可從以下幾個方面融入課堂設計。

1）引發興趣

通過模擬文化體驗場景，讓學習者可身處目的語國家的環境。文化介紹課程中可以用VR技術讓學習者進行虛擬文化體驗。文化體驗並不需要語言要求，加上沉浸感的作用，學習者往往會由新鮮感對漢語產生較大興趣，促進漢語學習動力。

2）糾音作用

學習者在學習發音時，傳統教學模式通常以聽後跟讀進行，有些發音難點較難解決。VR虛擬技術的融入可模擬口腔發音過程，學習者通過直觀地觀察虛擬口腔的動作，發音整體過程，理解後達到糾音的目的。

3）詞彙聯想

傳統的詞彙學習，通過教師講解，學生背誦來達到學習目的。VR虛擬技術可通過情景將詞彙融入，學習者更容易將詞彙與其概念進行聯繫，增強記憶。如固有地名、動作等場景的模擬。

4）漢字書寫

對入門學習者來說，漢字的理解與記憶是一個難點。VR虛擬技術可模擬遊戲，使漢字構件通過手柄進行操作組合，讓學習者更好地理解漢字的構造以及規律，達到記憶的目的。

5）基本會話

前文所述Mondly VR軟件可用於基本會話練習。Mondly VR學習模式設計了各種生活場景，包含實用性生活用語。學習者可在這些場景中進行基礎漢語對話。同時Mondly VR還具備語音辨識功能，可分析學習者練習中漢語。雖然該功能還需提高，但對於基礎漢語學習者來說不存在太大問題。

5. VR技術教學的問題

隨著科技的發展，VR虛擬技術越加成熟，其優勢使其在語言教學中的應用也越來越廣，不過在漢語教學中VR技術的應用也存在不少問題和挑戰。

VR技術最明顯的優勢體現在很多現實教學中受到限制的設計得到了解決。如"實境教學"可讓學生隨時身處異國領略文化魅力。同時VR技術還提供了多種情景模擬，平時難以得到語言練習的機會，通過VR技術可以輕鬆達到這一目的[21]。另外，場景與遊戲的結合增加了趣味性，讓學習者更容易產生學習興趣，提高參與度，還可以通過合作完成人物，達到共同提高語言能力的目的。相對於傳統課堂教學，VR技術提供的模擬真實的環境能夠讓學習者更好地熟悉語言使用的場景。

但VR技術融入基礎漢語教學也存在著一些問題。首先是VR設備的普及有限。具備較好沉浸性的可穿戴設備價格還仍較昂貴，便宜的替代設備效果較差，用戶體驗不佳，且由於眩暈等問題無法長時間使用。軟件上目前開發虛擬場景並不豐富，交互性上仍有提升空間。比如語音識別上仍有極大的問題等。同時，由於VR技術提供的學習模式與傳統課堂包括遠程學習有著極大不同，對教學人員而言，便出現了如何合理利用VR技術，並將其融入漢語教學課堂中的新問題。娛教性質的教學通常會出現偏離主題的現象，學習者往往會被虛擬環境中一些與學習無關的因素干擾，這對教學組織者來說也是需要面對的新問題。

總體來看，在漢語教學中融入的VR技術具備明顯優勢，但其目前無法解決的技術問題對學習者的沉浸感體驗帶來極大影響。從學習者角度，一旦使用VR技術學習漢語的新鮮感褪去，是否還能保持對漢語學習的積極性，以及使用傳統方法進行學習都存在著值得思考的問題。長期來看，隨著硬件成本的下降，技術問題的解

21) Lloyd(2017)也指出VR技術對於那些害羞的學生而言提供了更多的在人面前演講機會。Lloyd, A., Rogerson, S. & Stead, G. (2017). Imagining the potential for 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in language learning. In M. Carrier, R. M. Damerow, & K. M. Bailey (Eds.). Digital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pp. 222–234). New York, NW: Routledge.

決，目前VR技術逼真度、互動性等短板都會逐一得到解決。屆時，如何將新的技術融入到漢語教學中恐怕仍然是一個需要討論的課題。

중국어 新HSK 난이도에 관한 비교 연구
- 4·5급 비교를 중심으로

김기범*

<目 次>

1. 서론
2. 4급 시험의 난이도 분석
3. 5급 시험의 난이도 분석
4. 결론

1. 기서론

국내 모대학 항공서비스학과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매주 3시간씩 2학기(약 90시간) 동안 전공 선택으로 중국어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이 학습자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의 실력을 보완해야 新HSK 4·5급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新HSK 4·5급의 난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은 중국어가 전공은 아니지만 취업 등을 위해 新HSK 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여러 항공서비스학과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참고자료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HSK수업을 하는 교수자에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교수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 4급 시험의 난이도 분석

新HSK 시험 주관기관인 中国国家汉办은 4급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HSK 4급에 합격한 응시자는 여러 영역에 관련된 화제에 대해 중국어로 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유창하게 원어민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 HSK 4급은 매주 2~4시간씩 4학기(190~400시간)정도의 중국어를 학습하고, 1,200개의 상용어휘와 관련 어법지식을 마스터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孔子学院总部 /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 2014).

난이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HSK에서는 1,200개의 상용어휘, 그리고 관련 어법지식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HSK에서는 각 시험등급마다 필요한 필수 상용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4급에서는 1·2·3급 상용어휘 600개를 포함한 1,200개의 필수 상용어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어휘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다. 반영률을 알기 위해서 김기범(2020)은 맨체스터 공자학원 사이트에서 찾은 2014학년도 4급 시험 5회 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시험(H41329)의 텍스트와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통계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4급 시험에 출현하는 전체 단어 1,121개 중에서, 4급 필수어휘는 약 909개 단어로서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4급 시험에서 HSK 4급 단어만 다 습득하고 응시할 경우, 단어만 놓고 보았을 때 투사율이 약 81%에 해당되므로 4급 획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경우 한 회차의

* 광주여자대학교

시험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다른 시험 회차에도 비슷한 비율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작업으로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4급의 제3회 기출문제와 제4회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4급 필수 상용어휘를 투사율을 찾아보고자 한다[이후 추가 보충].

둘째, HSK에서는 등급별로 관련 어법지식을 마스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등급별로 어떤 문법포인트가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시험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수광・이길연(2018:130)은『新HSK大纲(语法:2015)』에서 제시한 문법포인트를 언급했는데, 문장성분 중에 보어의 경우 2급에서는 결과·가능·정도·수량·시량·동량·방향보어와 단순방향보어를 제시하고, 3급에서는 방향보어 중에 복합방향보어, 복합방향보어파생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미 3급에서 모든 보어 종류를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박용진(2018:288)은 Prator가 제시한 난이도등급을 중국어에 적용시켰는데, 중국어의 보어는 한국학습자에게 있어서 '재해석'에 해당된다. 즉, L1(한국어)의 요소가 L(중국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분포로 나타나는 것으로 총 5등급 중에서 3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중국어의 보어는 한국학습자들에게 일대다대응을 보이는 어려운 문법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급에서 이미 모든 종류의 보어에 대해서 마스터하도록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떤 보어가 자주 출현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대비하거나 교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범(2019)은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4급의 제1회와 제2회의 보어 출현문장을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합계
결과보어	38개	38개	76개
방향보어	11개	11개	22개
가능보어	3개	6개	9개
정도보어	8개	6개	14개
시량보어	0개	5개	5개
동량보어	9개	10개	19개
명량보어	9개	6개	15개

보어 부분에서는 결과보어(76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시량보어(5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낮다. 그런데, 어떤 보어들이 출현빈도가 높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맨체스터 공자학원 사이트에서 찾은 2014학년도 4급 시험 5회 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시험(H41329)의 텍스트와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통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에서는 4급 기출문제(H41329)에서 보어가 나오는 문장을 찾아 단어의 빈도수를 알아보고, 4급 단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문법항목	H41329	비고
결과보어	66회	开(2), 到(28), 好(11), 丢, 见(2), 对(2), 上(3), 脏(2), 给(2), 走, 多, 完(2), 清楚(2), 在(2), 干净, 晚, 住, 清, 会
방향보어	19회	去(3), 下来(2), 出来, 下来, 回来, 来(3), 起来(2), 出(2), 下(2), 下去, 进
가능보어	6회	到, 及(2), 开, 起来, 了,
정도보어	11회	怎么样(2)/真高/真像/像哥哥/再久/高兴/还是不太标准/很开心/很愉快/越来越厉害
시량보어	5회	分钟, 小时, 天(2), 会儿
동량보어	16회	趟(3), 下(7), 声[1], 次(3), 遍, 把[2]
수량보어	15회	很长时间, 点儿(7), 些(2), 稍, 不少, 公斤, 年, 倍

위 표에서 보어로 출현한 단어 중 HSK단어가 아닌 것은 '晚, 清, 起, 及, 了, 钟, 天, 声, 稍' 등이다.

결과보어가 나오는 문장은 총 66회 출현한다. 결과보어 '到'가 28번 출현하여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방향보어는 '去'가 3회 출현하며 '下来'같이 파생된 복합방향보어 용법도 출현하고 있다. 가능보어는 6회, 정도보어는 11회, 시량보어는 5회가 출현하고 있다. 동량보어는 16회 출현하며, '下'가 7회로 많이 출현하고 있다. 수량보어는 15회 나오는데 '点儿'이 7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다.

또 김기범(2019)은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4급의 제1회와 제2회에서 주요 문법포인트 문장유형을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합계
是~的문	8개	4개	12개
비교문	3개	2개	5개
把자문	7개	4개	11개
피동문	1개	0개	1개
연동문	4개	5개	9개
존현문	0개	0개	0개
겸어문	11개	11개	22개
임박태	3개	2개	5개
진행태	8개	5개	13개
지속태	8개	5개	13개
완료태	8개	19개	27개
변화태	40개	45개	85개
경험태	3개	4개	7개

위 결과를 보면 문형에서는 겸어문(22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피동문(1개), 존현문(0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낮다. 동태부분에서는 변화태(85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임박태(5개)의 출현빈도가 가장 낮다.

그런데 위의 경우가 다른 회차와도 비슷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작업으로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4급의 제3회 기출문제와 제4회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문장유형을 조사하였다.

문법포인트	3회	4회
是~的문	3	2
비교문	4	2
把자문	11	7
피동문	2	2
존현문	1	0
겸어문	12	13

문법포인트	3회	4회
결과보어	57	45
방향보어	15	24
가능보어	9	7
정도보어	13	10
시량보어	7	13
동량보어	11	9
명량보어	7	7

위의 결과를 제1회, 제2회와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준 동량사로 쓰임 예) 说一声

2) 준 동량사로 쓰임. 예) 帮一把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3회	4회
是~的문	8개	4개	3	2
비교문	3개	2개	4	2
把자문	7개	4개	11	7
피동문	1개	0개	2	2
존현문	0개	0개	1	0
겸어문	11개	11개	12	13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3회	4회
결과보어	38개	38개	57	45
방향보어	11개	11개	15	24
가능보어	3개	6개	9	7
정도보어	8개	6개	13	10
시량보어	0개	5개	7	13
동량보어	9개	10개	11	9
명량보어	9개	6개	7	7

교수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선별적으로 지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3. 5급 시험의 난이도 분석

新HSK 시험 주관기관인 中国国家汉办은 5급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HSK 5급에 합격한 응시자는 중국어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중국어 영화 또는 TV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로 비교적 완전한 연설을 진행할 수 있다. HSK 5급은 매주 2~4시간씩 2년 이상(40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고, 2,500개의 상용어휘와 관련 어법지식을 마스터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 2014).

첫째, 5급에서는 1·2·3·4급 상용어휘 1,200개를 포함한 2,500개의 필수 상용어휘를 제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어휘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다.

이 반영률을 알아보기 위해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5급의 제3회 기출문제와 5급 필수 상용어휘를 투사율을 찾아보았다. 우선 5급 상용어휘 2,500개 단어 중에 5급에만 나오는 단어를 순수5급단어라고 지칭하고 이 1,250여개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는지 빈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387개(약31%)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급에서 81%가 출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아주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5급부터는 상용어휘를 전부 마스터한다 하더라도 단어면에서는 많은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HSK에서는 등급별로 관련 어법지식을 마스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의 기출문제 5급의 제3회 기출문제와 제4회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보어와 문장유형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3회	4회	5급 3회	5급 4회
是~的문	8개	4개	3	2	10	5
비교문	3개	2개	4	2	3	2
把자문	7개	4개	11	7	10	26
피동문	1개	0개	2	2	11	12
존현문	0개	0개	1	0	1	1
겸어문	11개	11개	12	13	22	9

문법포인트	4급 1회	4급 2회	3회	4회	5급 3회	5급 4회
결과보어	38개	38개	57	45	75	85
방향보어	11개	11개	15	24	47	59
가능보어	3개	6개	9	7	7	11
정도보어	8개	6개	13	10	11	8
시량보어	0개	5개	7	13	7	6
동량보어	9개	10개	11	9	11	9
명량보어	9개	6개	7	7	4	4

위의 표를 참고해보면 4급과 5급의 문장유형의 출현 빈도와 보어의 출현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법포인트의 난이도가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5급에서 난이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어체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否则'같은 문어의 경우는 심지어 일반적인 회화표현에서도 나오고 있다. 둘째, 예를 들어 '万人空巷' 등과 같은 사자성어, 또는 관용구 등이 출현한다. 셋째 독해부분의 경우 전치사 뒤에 단순히 명사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 문장 등이 출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해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4. 결론

위에서 HSK 4급과 5급의 상용어휘 반영률, 문법포인트의 증감 비교를 통해서 난이도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급 필수 어휘의 4급 시험에 대한 반영률은 81%로서 대단히 높다. 이에 반해 5급 필수 어휘의 5급 시험에 대한 반영률은 31%로서 아주 낮다. 이는 5급 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자는 5급 필수어휘를 마스터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5급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학습을 통해 단어장악력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4급에서 나오는 보어, 주요 문장유형의 출현빈도와 5급에서 나오는 보어, 주요 문장유형의 출현빈도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4급과 5급 시험이 문법포인트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5급이 4급에 비해 난이도의 증감이 3급에서 4급으로의 난이도 증감보다 큰 폭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문어체의 사용, 사자성어, 관용구의 등장, 그리고 전치사와 결합되는 성분들이 구나 문장 등이 되면서 한 문장이 길이가 길어져서 독해에 어려움을 주는 것 등이다. 또한 듣기의 경우 문어체뿐만 아니라 속도, 생소한 주제, 본문 글자수의 증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이후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HSK한국사무국 해설 HSK 4급 공식기출문제집』, (주)한국HSK사무국.

위수광・이길연(2018), "중국어교육문법체계 마련을 위한 考察 —『国际大纲(2014)』과『新HSK大纲(2015)』의 비교를 중심으로",『중국학』64: 121-145.

박용진(2018), "Prator의 난이도등급 가설의 검증",『중국어교육과연구』28: 285-308.

김기범(2019), "중국어 기초회화교재와 新HSK 3・4급 시험과의 연계성 및 교재 편성 방안 연구",『중국어교육과 연구』29: 271-292.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HSK한국사무국(2014),『HSK한국사무국 해설 HSK 5급 공식기출문제집』, (주)한국HSK사무국.

Past papers - HSK 4 - H41329, <https://www.confuciusinstitute.manchester.ac.uk/study/testing/hsk/hsk-learning-resources/ (2020.5.5.검색)>

西南官话与汉语普通话的相关研究

——后缀词“门（们）”与“么”的对比

韩 一[*]・金炫兑[**]

<目 录>

1. 序言
2. 西南官话中后缀词“们（门）{men}”和汉语标准普通话中后缀词“么”
3. 语义和语法上的比较分析
4. 结论

1. 序言

1.1 研究内容

西南官话分布在四川、重庆、贵州、云南、广西、湖北、湖南、陕西、江西等9个省区，使用人口约27,000万人，是官话方言里分布范围最广，使用人口最多的方言区，语音上具有惊人的一致性（古入声字今读阳平）。一般认为汉语方言之间语音的差异最大，词汇的差异其次，语法的差异最小，所以普遍认为普通话的语法规则一般也适用于方言。方言研究者们的研究主要集中在语音上，对语法方面的关注较少。西南官话的研究亦是如此。西南官话语法相关的著作较少，本稿将选取1986年东京外国语亚洲非洲语言文化研究所出版的≪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作为基本资料，结合BCC语料库的语言资料，对西南官话中后缀词：门（们）{men}和汉语普通话中后缀词”么”进行比较分析。在词典中，对”们（men）”有这样的解释，“么”的变音字。但是作为西南官话的母语者，在实际的使用中，“们”的用法远超于“么”。本文先提出“门(们)”不仅是“么”的变音字，在语法上也有特殊的意义的假设，再通过≪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和BCC语料库的例句对假设进行分析论证，最后得出结论。

1.2 研究资料

❖ ≪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

这本书中文可译作≪西南官话基本句型的记述≫，由马真、桥本万太郎、今井敬子、喜多山幸子、太田斋合著。选取的是位于四川省南充市的方言语料。本书开头对西南官话的发音进行了概括，并列出了详细的音节表，对南充地区语音的研究也有很重要的意义。全书共有11个例文，每个例文，都有对应的发音表记，并附有日文翻译。随后对例文中词汇和语法进行分析，并附有练习的题目。

❖ BCC语料库

北京语言大学语料库中心（BLCU Corpus Center，简称BCC）是以汉语为主、兼有英语和法语的在线语料库，是服务语言本体研究和语言应用研究的在线大数据系统。BCC语料库总字数约150亿字，包括报刊（20

* 釜庆大学
** 釜庆大学

亿）、文学（30亿）、微博（30亿）、科技（30亿）、综合（10亿）和古汉语（20亿）等多领域语料。

2. 西南官话中后缀词“们（门）{men}”和汉语标准普通话中后缀词“么”

2.1 西南官话中后缀词“们（门）{men}”的分析

本文中主要是对们作为后缀词的分析，不涉及其作为助词用在名词后表示复数的意义。

在≪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中，“们（门）{men}”出现四处，如下：

① P28 你那门早啊！ Gni na-men dzao a？
② P150 哪这门巧嘛！ na nen-men qiao ma！
③ P206 啷门卖的？ Nang-men mai di？
④ P240 你啷门的？ Gni nang-men di？

这本书中使用“门”字，音是men。现在的日常生活中，我们常常用“们”字来标记。这本书提到的men的后缀词，几乎涉及了西南官话（南充方言）中的全部总类。这、那、啷（哪）。另外，日常生活中还有”很+们“的用法。

由于≪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中，没有关于“很们“的记述，本文利用语料库进行例句的查找。在BCC语料库中检索”很+门“之后，得到三个例句，都是“很”“门”分别意思的例句，不涉及本文的内容。于是再用”很+们“检索，在微博项得到符合本文研究个例句。

⑤ 我那天买的时候纠结了很们很们久买那种。
⑥ 刚才在滨江路看一个很们帅的警察哥哥临检。
⑦ 其结果是很们过高，超过了刘乃应付的投资额，产品还未生产出来，就使自己变成了债务人。

2.2 汉语标准普通话中后缀词“么”

“么”在第12版新华字典中的解释如下：

ma 繁体 麼，旧同“吗”。
me 繁体 麼，后缀： 怎～、那～、多～、这～、什～
yao 同“幺”。

3. 语义和语法上的比较分析

◆ **你那门早啊！**

代名词+那门+形容词+感叹词

≪西南官話文型の記述≫中的语法解释：被修饰语表示某种动作或性质。修饰语时而说明行为的时间、方法，事儿说明性质的程度。这样的修饰结构中的修饰语，一般称作连用修饰语，例如:那么早（连用修饰语说明性质的程度），这里的“早“是形容词，表示在通常、预期、规定或实际的时间以前，是迟或晚的反义词。“那门”也就是这里所说的连用修饰语，修饰后接的形容词，强调早的程度。“那门”中的“门”可以替换成“么”，不改变句意。

◆ **哪这门巧嘛！**

疑问词+这门+副词+感叹词

“巧”，是副词，表示恰好，正遇在某种机会上。“这门”修饰后接的副词，强调巧的程度，表达刚好正好的意思。这里的“这门”也是连用修饰语修饰“巧“。此时，“这门”中的“门”可以替换成“么”，不改变句意。

◆ **啷门卖的？**

啷门+动词+的

“啷门”，这里是疑问词“啷”+“门”，有如何，怎么的意思。这里笔者认为也是连用修饰的用法，“啷门”是对卖的的方式进行说明。此时，“门”不能替换成“么”。“啷么”无论在西南官话还是标准普通话中都不使用。整句话是在西南官话中是询问物品售价和售卖方式的意思。这里“啷门”可以替换成“怎么”。

◆ **你啷门的？**

代名词+啷门+的

这里整句话，结合上下文，可知是询问对方身体情况的意思。门不能单独替换成“么”，如果用普通话表达相同含义，应是“你怎么了？”。可见，“啷门”可以整体替换成“怎么”。这里的“啷门”不是连用修饰的用法。

◆ **很们很们久**

很们帅

很们过高

三个例句都是“很+们+形容词”，表示程度的加深，比“很”程度更深更高。这里的“很们”也是连用修饰语，对后面的形容词进行程度说明。但是，这里的“们”不能替换成“么”。“很们”作为一个整体根据意思可以替换成汉语普通话中的“十分“、“非常”，等比“很”程度更进一步的程度副词。

利用语义分析和替换的方法，我们就以上的7个例句中“门（们）”是否是“么”的音变问题总结如下表。

〔表-1〕

	那门	这门	啷门	很们
门（们）替换成么	○	○	×	×
对应普通话	那么	这么	怎么	非常

以上的西南官话中，后缀词“门（们）”与“么”进行对比后发现，“那门”“这门”中的“门”可以替换成“么”,而是词义句意不发生改变，而“啷门”“很门”中的“门”不能替换成“么”,对应普通话 那么 这么 对应的普通话是“怎么“和“非常”。

4. 结论

通过以上的西南官话的例句分析，并将后缀词“门（们）”与“么”进行对比后发现，“门（们）”的用法超越“么”，并且汉语普通话中“们”是“么”的变音字这一结论在西南官话中难以成立。这与本稿中假设的结论一致。西南官话的后缀词“门（们）更多的是表示一种程度加深，构成连用修饰的用法，主要是对修饰词的程度进行说

明。“啷门”这一用法，在汉语普通话中表达的是“怎么”的意思。本稿利用大的语料库对“很们”进行检索，得到相关例句只有3句，很难通过3个例句对“很们”的用法进行准确地推断。

在方言研究中，方言的语言资料主要集中在音声资料上，记录成文字的方言语料较少，这给语法研究者检索分析带来了极大的困难。方言语法研究的一手资料匮乏，也是方言与法研究较语音研究滞后的重要原因。方言语法调查还需要更多的文字语料。这就需要做大量的实地考察进行资料收集。另外，陆俭明教授在<关于汉语方言语法调查之管见>中提到了方言对比研究的必要性，这种对比研究与方言语法调查研究起着互动的作用，将大大有助于推荐汉语方言语法的调查研究。作为接下来研究的展望，实地考察，对西南官话的语料进行调查收集，为语法研究提供更丰富更具有说服力的依据。

参考文献

黄雪贞(1986), <西南官话的分区（稿）>, ≪方言≫1986年第4期, pp.262-272.

李蓝(2009), <西南官话的分区（稿）>, ≪方言≫2009年第1期, pp.72-87.

林天送(2015), <基于语法特征的西南官话的分类>, ≪语言研究≫2015年1月第35卷第1期.

陆俭明(2004), <关于汉语方言语法调查之管见>, ≪语言科学≫2004年3月第3卷第2期, pp.92-98.

陆俭明、沈阳(2016),≪汉语和汉语研究十五讲≫, 北京大学出版社, 第2版.

马真(2015), <比较：语言研究的基本方法>, ≪民俗典籍文字研究≫2015年第2期, pp.57-71, p.259.

馬真、橋本萬太郎、今井敬子、喜多山幸子、太田斎(1986), ≪西南官話基本文型の記述≫,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所.

谢留文(2019), <汉语方言研究七十年>, ≪方言≫2009年第3期, pp.257-272.

邢福义(1996), ≪汉语语法学≫, 长春：东北师范大学出版社.

朱德熙(1983), <自指和转指——汉语名词化表记的“的、者、所、之”的语法功能和语义功能>, ≪方言≫第1期, pp.16-31.

11月 21日(土) 16:00~17:30

고전문학(3)

❖ 고전문헌과 문화의 교류와 연구의 지평

신원철(안양대)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이경훈(전북대) 燕行使臣의 異國 문화 인식
– 木山 李基敬≪飮氷行程曆≫의 유구국 기록을 중심으로

蘇 航(영남대) 明清日用类书变迁考——以陈继儒系统为中心

胡君暉(경북대) ≪六祖壇經≫「三十六對法」的語言特色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신원철*

<目 次>

1. 들어가며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5. 나가며

1. 들어가며

본 발표문은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을 대표적인 인물을 위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 교류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금을 통틀어 계속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 유가 경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 자산에 대해 서양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에 어떻게 소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권에서 십삼경(十三經) 혹은 사서오경(四書五經)으로 대표되는 유가 경전은 한대(漢代) 이후로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용되는 등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현상을 서양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경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경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 1905)를 통해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의 서양 전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의 상황을 통해 중국 경전이 서쪽에 전해진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의 사서오경(四書五經) 번역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가 사상의 최초의 번역은 후안 코보(Juan Cobo, 高母羨, 1546-1592)가 1592년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1593년에 출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명심보감≫이 다양한 성현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십삼경이나 사서오경 등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책은 필리핀에서 출판된 것으로 유럽에서의 소개는 1595년 미겔 드 베나비데스(Miguel de Benavides)에 의해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Felipe II de Habsburgo)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게 될 미켈레 루지에리의

* 안양대학교

≪대학≫과 비교하면 번역 자체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서구권에 소개되는 것 자체는 루지에리의 것보다 늦다.[1)]

본격적인 유가 경전의 번역은 미켈레 루지에리(Michel Ruggier, 羅明堅, 1543-1607)에 의해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大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미켈레 루지에리는 예수회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함께 ≪포르투갈어-중국어 사전(Dicionário Português-Chinês(葡漢辭典))≫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최초의 유럽어-중국어 어휘 대조 사전으로, 포르투갈어를 표제어로 한 후 중국어 발음, 한자의 순으로 기록하였다.[2)] 그가 번역한 ≪대학≫은 안토니오 포세비노(Antonio Possevino, 1533-1611)에 의해 1593년 ≪역사, 과학, 종교 연구 총서 선집(Bibliotheca selecta de ratione studiorum in Historia, In Disciplinis, in salute omnium procuranda, 약칭 Bibliotheca selecta)≫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폴란드인 예수회 선교사인 미하우 보임(Michał Boym, 卜彌格, 1612-1659)은 1667년 중국어-라틴어 사전을, 1670년에 중국어-프랑스어 사전을 출판했다.[3)] 이후 1687년 ≪맹자(孟子)≫를 제외한 사서의 세 책을 번역한 ≪중국의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가 파리에서 총 412쪽에 삽화를 더한 2절판으로 출판되었다.[4)] 1711년에는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맹자≫를 포함하고 주희(朱熹)의 서문을 더한 ≪사서(四書)≫를 완역하였다.[5)] 이후에도 산발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39년 앙투안 고빌(Antoine Gaubil, 宋君榮, 1689-1759)의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에 의해 집대성된다. 그는 1861년 ≪Confucian Analect(論語)≫, ≪The Great Learning(大學)≫,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이 포함된 1권을 시작으로, 같은 해 ≪The Work of Mencius(孟子)≫, 1865년 ≪Shoo king(書經)≫, 1871년 ≪She king(詩經)≫, 1872년 ≪Ch'un ts'ew with Tso's Appendix(春秋左氏傳)≫, 1882년 ≪The Yi king(易經)≫, 1885년 ≪The Li ki(禮記)≫까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전부 번역하였다.[6)] 이로써 유럽에서 중요한 경전은 거의 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레그의 번역은 그 생경한 문체가 특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자로 적힌 경전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였다.[7)]

다음 장에서는 이 중 제임스 레그 이전의 몇 명의 인물을 통해 초기 번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임스 레그는 연구가 매우 곡진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발표자는 판단해서이다.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여기서 뽑은 세 명은 제임스 레그만큼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람도

1) 이상은 張西平(2016:163-165) 참조.

2) 이상은 張西平(2009:39) 참조. 그 면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icci-Ruggieri-Portuguese-Chinese-dictionary-page-1.png

3) 최정섭 등(2018:41) 참조.

4) 최정섭 등(2018:43), 안재원(2020:15) 참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그 내용을 다룰 것이다.

5)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6) Henri Cordier(1905:1367-1385) 참조.

7) 허버트 자일스에 따르면 레그의 번역은 중국학 연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시도다. “지금 레그 박사의 위대한 작업을 경시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 관행은 그 번역들이 ‘건조하다wooden’라고 말한 토머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경의 시절부터 유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그의 작업은 중국어 연구에서 행해진 것 중 최대의 기여이며, 토머스 웨이드 경 자신의 하찮은 기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기억되고 연구될 것이다.”(Herbert Allen Giles, Adversria Sinica, p. 346, 최정섭 등(2018:262)에서 재인용.)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 어떠한 경전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기준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임스 레그에게도 왕도(王韜, 1828-1897)라는 협력자가 있어 그에게 도움을 받아 번역할 수 있었다.[8] 여기서의 기술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어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각 경전의 영향 등을 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첫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Introcetta Prospero, 殷鐸澤, 1625-1696)이다.[9] 앞에서 그가 ≪사서≫ 중 ≪맹자≫를 제외한 세 책을 ≪중국의 철학자 공자≫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고 하였다. 이 때 최종적으로 완결한 사람은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柏應理, 1623-1693)이다. 포르투갈인으로 예수회 신부인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Inácio Da Costa, 1603-1666)는 이 책에서 ≪대학≫과 ≪논어≫의 앞 부분 5장에 대해 초벌 번역을 마치고 인토르체타를 포함한 다른 신부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 때 함께 참여한 학생으로는 안드레아 페라오(Andrea Ferrão, 1625-1661)가 있어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의 지도하에 ≪논어≫의 초반부를 번역했다.[10] 따라서 이러한 면에 근거하면 인토르체타의 온전한 노력을 거친 부분은 ≪중용≫이라 할 수 있다.[1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예수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중국어 경전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번역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라틴어로의 번역은 라틴어가 가진 위상인 당시 유럽의 공용어이자 식자층의 언어로, 유럽의 지식층에게 중국의 경전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2] 당시 예수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식인 중 가장 밀접하게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룹 중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중국어 습득의 목적으로 경전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13] 중국 경전 강독을 통해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교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14]

앞에서 ≪사서≫를 번역함에 ≪맹자≫를 제외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맹자≫는 ≪사서≫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전국시대의 맹가(孟軻, BC 327-BC 289)와 관련된 것으로, 아마도 앞에서 제시한 ≪중국의 철학자 공자≫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아서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맹자≫의 내용이 아무리 공자의 도통(道統)을 직접 이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자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맹자≫를 포함한 ≪사서≫의 완역은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가 1711년 프라하에서 출판한 라틴어 ≪중화제국육경(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에는 ≪대학(Adultorum Schola)≫, ≪중용(Immutabile Medium)≫, ≪논어(Liber Sententiarum)≫, ≪맹자(Memcius)≫, ≪효경(孝經, Filialis Observantia)≫, ≪소학(小學, Parvulorum Schola)≫을 포함한다.[15] 실상 육경(六經)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사용될 때 대개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역(易)≫, ≪춘추(春秋)≫를 가리킨다. 노엘이 육경(Libri Classici Sex)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서에 두 권을 더하여 여섯 개의 경전이라는 의미로 붙였을 것이다. 노엘의 번역은 앞서 나왔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고 원문에

8) 노재식(2012:150) 참조.

9) 인토르체타의 생평(生平)과 관련하여서는 안재원 역(2020:13-14) 참조.

10) 티에리 메이나드(Thierry Meynard, SJ, 2015:9) 참조.

11) 안재원 역(2020:20) 참조.

12) 비록 인토르체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글 속의 뉘앙스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좋은 것이 있다고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출판한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의 지혜를 제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공자와 맹자의 책을 유럽에 제시하는 것은 마치 몇 잔의 물을 바다에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를 결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재원 역(2020:23)에서 인용.

13) Thierry Meynard, SJ(2015:9) “Da Costa went back to Fuzhou福州, in Fujian province, to teach young Jesuits the Four Books.”(이그나치오 다 코스타가 푸젠의 푸저우로 돌아와서 젊은 예수회 선교사에게 ≪사서≫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중구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14)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안재원(2020) 중 해제 부분 참조.

15) 黃正謙(2013:133) 참조.

의거하여 번역하였다고 본다.[16]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그럼에도 장 밥티스트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에 의해 그의 ≪중국과 타타르 제국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와 과학(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에서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서≫의 라틴어로의 완역이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8] 그렇다면 ≪삼경(三經)≫을 포함한 경(經)은 언제 번역이 시작된 것일까? Shunqing Cao(2013:39)에 의하면 니콜라 트리고(Nicolas Trigault, 金尼閣, 1577-1628)에 의해 ≪오경(五經)≫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고 하였다.[19] 그러나 그 실제를 볼 수 없다.[20] 또한 항저우에서 출판을 하면서 유럽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경의 번역자로서는 앙투안 고빌(Antoine Gaubil, 宋君榮, 1689-1759)을 들 수 있다. 그의 1739년에 출간한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서경≫의 번역이다. 그 외에도 ≪역경(易經)≫, ≪예기(禮記)≫ 등을 번역하고 주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고 있다.[21]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중국 경전의 번역은 예수회 선교사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마테오 리치나, 니콜라 트리고, 미켈레 루지에리 등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번역에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이 있었음 또한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토르체타나, 노엘, 고빌 등이 완전히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현재 번역된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간략하게 이러한 번역물이 끼친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동양의 학문이나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한 서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태연(2011)을 들 수 있다. 그는 "공자의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서구 계몽주의가 동아시아문명에 영향을 받았음을 들고 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합리주의, 자유경제론, 자유시장론 등에 모두 공자를 위시로 하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였다. 이 방대한 서술 속에서 시선을 끄는 곳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폴리 예수회(Societate Jesu) 소속의 알렉산드로 발리냐로(Alessandro Valignaro, 1539-1606) 신부와 그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철학의 원전들을 공부하고, 중국인들을 '무식한 이교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의도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한 것은 새롭고 독특한 정신사적 실험의 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동서문명의 수

16) 장 피에르 아벨 레뮈자(Jean Pierre Abel-Rémusat)의 주장으로 다음과 같다. ". . . mais le P. Noël n'a pas reproduit leur version: il a travaillé immédiatement sur les originaux." 黃正謙(2013:136)에서 재인용.

17) 중국에 대해 흥미가 많았던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노엘의 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토르체타의 번역에 기반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黃正謙(2013:134-5) 참조.

18) 다양한 책과 문서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가 1594년에 ≪사서≫를 번역했다고 기술하였다. 필자가 참조한 곳은 Chen Hong(2015:89)이다. 그렇지만 마테오 리치가 지었다고 하는 책의 제목과 그 면모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과 같이 기술하였다.

19) "At the sixth year of Emperor Tianqi of the late Ming Dynasty of China (1626), The Five Classics , translated by Nicolas Trigault, a French missionary, was published in Hangzhou. It was the earliest translated version of the Chinese classical books."

20)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오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 일본어 위키피디아 니콜라 트리고(ニコラ・トリゴー) 항목에서는 "『Pentabiblion Sinense』(1626年)は五経のラテン語訳というが、現存しない[4]。"라고 하여 현재 볼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3%83%8B%E3%82%B3%E3%83%A9%E3%83%BB%E3%83%88%E3%83%AA%E3%82%B4%E3%83%BC, 접속일: 2020.10.08. 14:42 확인

21) https://www.itsfun.com.tw/%E5%AE%8B%E5%90%9B%E6%A6%AE/wiki-0990494-9716274, 접속일: 2020.10.08. 15:40 확인

준 차이로 인해 중국을 기독교화하기보다 오히려 유럽을 중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술을 통해 중국 사상이 17·18세기 서구의 정신들에 미친 영향을 오늘날 빠짐없이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중략) 그리하여 30년 전쟁 이래 유럽에서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합리론자에게 일약 도덕·시민 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된 합리적 '자연종교'로 받아들여졌고, 경험론자에게는 든든한 철학적 지원군으로 준중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자철학을 정통 가톨릭 사상과 유사한 것처럼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도에 의해 촉진되었다."

발표자 개인에게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초기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헌신한 예수교 선교사에 의해 경전이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의 강화, 중국 문명에 대한 소개 등을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 현지에 정착한 예수교 선교사가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였을 것이다. 교류를 진행하면서 중국인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해주는, 즉 강한 신념을 알려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에서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대로 ≪사서≫의 경우는 철학적 이론서와 문자 학습서를 겸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교 선교사들이 후자의 용도로 접근했던 경전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전자로서 느끼게 되는 말 그대로 함양(涵養)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심신을 무장한 선교사에게는 사서오경과 같은 도덕적인 문장들이 울림을 더 주지 않았을까 한다. 종교적 신심(信心)은 전혀 없는 일반인들도 ≪논어≫나 ≪중용≫같은 글 속에서 지혜로움과 더 나아가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는데[22] 하물며 신성(神性)을 추구하는 지식인인 선교사에게는 그 울림이 심상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초기부터 ≪명심보감≫ 등으로 접근하여, ≪사서≫를 번역하고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소개될 때에는 그 속의 신성함까지 함께 보이면서 유럽에서 다양한 사상적 변화의 단초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교류에 의해 유럽에서는 중국학(Sinology)라고 하는 학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더 나아가 현재 서구의 인류 문화적 헤게모니(Hegemonie)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동서교류에 있어 중국 경전의 번역과 그의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사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연구 결과도 많다. 이 발표문은 앞으로 이전까지 이와는 다른 연구를 해왔던 학자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고유 명사를 대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하였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 사실 관계가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예를 들어 앞 부분에 제시한 니콜라 트리고의 ≪오경≫ 번역에 대해서 중국 책에서는 모두 사실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양의 문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앙투안 고빌의 책 경우에도 ≪서경≫의 번역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된 경우도 있고 몇몇 경우는 아예 경전의 번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모두에게 공인되었거나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연구의 틈이 보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직접 번역된 원문을 찾아보고 각 구절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번역 양상 등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拙稿'를 마쳐볼까 한다.

22) 발표자 개인의 경험이다.

참고문헌

張西平(2009), <來華耶穌會羅明堅的漢語學習>, ≪或問≫ 第17號.
張西平(2016), <儒家思想早期在歐洲的傳播>, ≪中國文化研究≫, 2016年秋之卷.
인토르체타 역주, 안재원 편역주(2020),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논형.
데이비드 B. 허니 지음, 최정섭・안재원 옮김(2018), ≪위대한 중국학자≫, 글항아리.
황태연 지음(2011), ≪공자와 세계1, 2, 3≫(3권), 청계.
노재식(2012), <제임스 레게와 東學西漸>, ≪중국사연구≫ 80집.
Henri Cordier(1905), ≪BIBLIOTHECA SINICA-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IRE CHINOIS≫, Librairie Orientale & Américaine.
Thierry Meynard, SJ(2015), ≪The Jesuit Reading of Confucius≫, Brill.
Chen Hong(2015), <On Matteo Ricci's Interpretations of Chinese Culture>, Coolabah, No.16.
Shunqing Cao(2013), ≪The Variation The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Springer.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華人百科(https://www.itsfun.com.tw/)

燕行使臣의 異國 문화 인식

- 木山 李基敬≪飮氷行程曆≫의 유구국 기록을 중심으로

이경훈*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음빙행정력≫의 異國문화 기록-유구국 관련 자료 중심
3. 연행 사신의 이국문화 인식의 방법-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연행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연행록이 지니는 연구 가치와 의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행록 연구는 개별 연행록에 대한 분석을 필두로, 사상사적 연구, 교류사적 연구, 문화사적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고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목산 이기경[1]의 연행기록인 ≪음빙행정력≫[2]에 기록된 중국 이외의 나라에 대한 기록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대외인식의 일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산의 대청인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3]에서 진행한 바가 있었으나, 기타 국가에 대한 대외인식에 관한 고찰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목산의 연행에서 주요 공적 관심사는 신년 하례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 이외에, 영조의 하명을 받아 여만촌문집을 구하여야 했었다. 그리고 목산의 사적 관심사는 중국 도서를 통해 중국의 경학 특히 주자학적 자료의 섭렵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심사를 가진 목산에게 유구에서 온 사신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 대한 동경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였다. 다만 신년하례에서 만난 유구국 사신에 대한 탐문 기록과 천주당을 방문하여 만난 서양인에 관한 기록이 제법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 것이다.[4]

목산의 ≪음빙행정력≫은 사행 출발 준비부터 연경(북경)에 이르러 다시 귀국하는 여정을 일록의 형태로 거의 매일 기록해 놓고 있다. 사행 여정 지역의 연혁이나 지명에 관한 유래, 풍속, 명승지, 지역 관련

* 전북대학교

1) 李基敬(1713~1787)은 본관은 全義이며, 자는 伯心이고, 전주 오목대 아래에 산다 하여 雅號를 木山이라 하였다. 이후 본문에서는 木山 李基敬을 목산으로만 명명하기로 한다.

2) ≪飮氷行程曆≫은 목산 이기경이 동지사 서장관으로 1755년 11월에 출발하여 1756년 2월까지의 연행 사행을 기록한 연행록으로, 이기경의 문집≪木山稾≫에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3) 목산 연행록인 ≪음빙행정력≫의 번역본인 ≪1756년의 북경이야기≫(2016)가 이영춘외 6인에 의해 번역 출판된 뒤부터목산의 연행록 연구를 다양한 각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동일 사행의 다른 연행록인 정광충의 ≪연행일록≫과의 비교 논문인 <≪飮氷行程曆≫과 ≪燕行日錄≫ 내용비교>, <목산의 중국도서 견해를 연구한 ≪飮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 조선후기 담론의 관심사였던 여유량에 관한 연구인 <呂留良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선 一面考>가 있으며, ≪음빙행정력≫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중 현존하는 목산印本 ≪三才圖會≫, ≪三魏全集≫, ≪牧齋集≫ 등을 소개한 논문인 <≪飮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 <≪飮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의 現傳本 고찰> 등의 연구를 통해 목산의 대청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4) 본 연구는 목산의 연행록에서 보이는 이국문화 인식에 관해 유구국과 서양에 관한 두 방향의 인식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학회에 발표하는 부분은 지면상의 제한으로 인해 유구국에 관한 부분만 발표하게 됨을 양해바라며, 향후 연구를 보완하여 완성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사 등을 비롯해 여정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는 등 다양한 각도의 기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직접 경험한 견문을 기록하는 방식 이외에도 여러 문헌을 참고하는 고증적 글쓰기도 많이 보인다.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며 교류하고 각종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함과 동시에, 관련 기록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연행 관련 기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연행록의 기록자인 목산의 학문적 수준을 시사하는 자료이기도 한 것이다.

2. ≪음빙행정력≫의 이국문화 기록-유구국 관련

목산 연행록이 지닌 대외 인식의 대표적 대상 국가는 유구국이었다. 1756년 1월1일 신년하례에서 만난 유구국 사신에 대한 관심은 직・간접적으로 문장에서 드러난다. 먼저 본문의 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 1756년 1월 1일[5]: 琉球國의 사신들 역시 와서 회랑에 앉아 있다고 하기에, 역관 李湛을 시켜 문답을 하고 와서 보고케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갑술년(1754년) 12월에 본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을해년 7월에 비로소 육지에 내렸고, 육로로 4개월을 와서 11월 16일 북경에 도착하였는데 육로 길은 7천여 리이다. 바닷길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
> 정사 부사 각 1명, 從官 1명, 수행원 20여 명이며, 종관은 함께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왕가의 성씨를 물어보니 尙氏라고 하였다. 두 사신의 성을 물어보니, 한 사람은 毛氏였고, 한 사람은 蔡氏였다. 그들의 관직을 물어보니 한 사람은 耳目官이고 한 사람은 都統인데 모두 3품관이었다.
>
> 그들이 조공하는 연차를 물어보니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인데, 금년에는 조공 연한이 되기도 하였지만, 겸하여 새로 즉위한 국왕의 책봉을 청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국가 습속에서 통용되는 예법을 물어보니, ≪朱文公家禮≫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
> 두 사신은 모두 황색 巾을 썼는데, 그 형태가 매우 괴상하였다. 옷은 團領에 소매가 넓었으나, 道袍도 아니고 深衣도 아니었다. 허리띠는 누런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너비가 5~6촌 쯤 되고 허리에 두 겹으로 감으며 매듭의 나머지는 조금 아래로 드리웠다. 수행원들이 입은 것은 색과 형태가 조금씩 달랐는데, 건은 우리나라의 守僕과 掖隷들이 쓰는 것과 같았다.
>
> 대개 유구와 중국 강남 사람들은 서로 통하며 왕래하기 때문에 수행원들 중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역관들과 문답한 것이 위와 같았다. 또 들으니, 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천지・일월・숫자 등의 이름 같은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
>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구에 표류한 자들과 서로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물로 바치는 물종은 강철・구리・주석・유황・등속에 지나지 않았고, 풍마동도 그 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접적 방식으로 얻어진 내용으로는 연행 여정에 관한 사안, 연행 사신의 규모, 유구국 왕조의 성씨, 사신의 성씨, 사신의 관직명, 조공연차와 조공의 사안, 그리고 유구국의 예법에 관한 문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관을 시켜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게 하였는데, 지극히 외교적 시각으로서의 문답이었다. 그리고 직접 관찰한 내용으로는 의복과 두건에 관한 관찰 기록이다. 연행사신이 의복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외관적으로 가장 먼저 관찰되는 것이 의복이기 때문에 타국의 인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의복을 관찰하고 그 의복을 자신의 의복과 비교하며,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봤을 것이다. 다만 목산의 이러한 관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유구의 복제가 폄하된 시선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 및 조선의 의복과의 비교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비교에서 약간의 우월주의 또는

5) 본문의 한글 인용문은 이영춘 외 6명,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음빙행정력≫역주≫를 인용했으며, 한자 원문은 지면상의 문제로 생략하기로 한다. 페이지 구분은 생략하고, 날짜만 명기하여 본문에 인용하였다. 이후 번역문의 서지정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유구국에 대한 폄하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복은 조선 시대에 묘(廟)·사(社)·능(陵)·원(園)·서원(書院)에서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직무이며, 액례는 조선시대의 액정서에 딸린 이원 또는 하례을 일컫는 직무이다.[6] 수복이든 액례든 모두 하급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외교사신의 복장을 조선의 하급관리의 것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도포도 아니고 심의도 아닌 모양으로' '형태가 괴상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유구 의복 문화에 대해 생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역관을 통해 문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일찍이 중국과 유구는 조공관계에 있어서 중국어를 교육받은 수행원 즉 통역관이 있었으며, 조선과의 교류 및 조선과 유구의 표류민을 통해서 조선말을 아는 수행원도 있었던 내력을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사실 중국 연경에 조공국 사신의 신분으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는 조선과 유구의 사신 간에 얼마나 대단한 차별이 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앞서 기록한 내용에서 유구의 의복에 관한 시선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목산 자신은 인식하고 있었을까 싶다. 조선과 유구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7]를 보면, 조선은 종래로 유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했으며, 고려 때부터 17세기 초까지 조선과 유구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나, 1609년 薩摩의 유구 침공과 함께 국교가 단절되었다. 그 후 조선과 유구의 공식적인 만남은 북경에서 양국 사신들의 간헐적인 만남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 날의 기록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국가 습속에서 통용되는 예법을 물어본 사항이다. 이는 목산이 經學과 禮學 및 理學 등에 두루 조예가 깊은 인물로, 목산의 학문 관심사적 면모를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문공가례≫는 ≪가례≫, ≪주자가례≫ 등으로도 불린다. 남송의 성리학자인 주희가 일상생활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하여 편찬한 관혼상제의 의례서로서, 고려 말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유입되면서 중요시하였는데, 조선 시대에는 국초부터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주문공가례≫의 보급을 장려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예학의 흥기와 함께 사대부들의 의례로 정착되었으며,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주석서가 저술되기도 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많은 예학서들이 발간되는 근간이 되었다. 이국 사신을 만나 국가의 주된 습속의 근본을 묻는 것은 공적 관심의 질문 내용으로도 보이지만, 동시에 목산 개인의 관심사와 조선의 학문적 경향을 고르게 내포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상기의 기록을 통해 사신들이 청나라 문화 이외에 접하게 되는 외국 문화의 1차적 접촉 과정과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표면적인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1월 1일 신년하례에서 경험한 유구국 사신에 대해 목산은 1월 8일 기록에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지면을 할애한다.

> 1756년 1월 8일
>
> 들으니, 유구 사신이 이날 돌아간다고 하였다. 청나라는 으레 섣달 보름 후에는 관인을 봉인해 두고 사무를 보지 않다가 정월 20일 후에야 관인을 개방하는데, 관인을 개방한 후에라야 각종 공문을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구 사신들의 귀국 관련 자문은 봉인하기 전에 이미 황제에게 상주하여 결재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귀국이 관인 개방 여부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한다.
>
> ≪中山世鑑≫에 의하면 "유구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통 황량한 곳에서 태어나 스스로 부부가 되었는데, 후손 중 天孫氏 때 비로소 국왕이 되었으나 연대는 고증할 수 없다. 송나라 純熙 연간(1174~1189)에 전국을 통일하였다. 3대 후에 英祖란 임금이 있었고 5대 후에 察度가 있었다. 그 후 4대째 尙巴志가 임금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원나라 延祐 연간에 유구는 나라가 셋으로 분열되어 그 후 100여 년간에 걸쳐 70여회의 전쟁을 치렀다. 명나라 永樂 14년에 山北國이 망하고 宣德 4년에 상파지가 왕위를 계승하여 山南國을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여 지금까지 尙氏들이 계승하

6) 네이버 한자사전 참조. https://hanja.dict.naver.com/

7) 최영화, <조선후기 유구 지식의 형성과 표해록>, 열상고저연구 제54집, 2016, 155쪽.

고 있다.”고 한다. 명나라 嘉靖 연간에 給事中 陳侃이 유구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기록을 남겼다.

청나라 사람 徐葆光이 康熙 신축년1721에 책봉 副使로 다녀와서 ≪中山傳信錄≫ 4책을 지었다. 국왕의 계승과 고위 관료들의 씨족, 별자리와 밀물 썰물, 지방풍속, 가옥, 그릇과 도구, 토산물 글자의 字母와 언어 등속을 채록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그 관제를 보면 품계와 관직이 있고 관직의 위계는 정1품에서부터 종9품까지 있다. 관제에는 大夫와 郎官이 있는데, 6품 이하를 낭관이라고 하였다. 관직을 보면 王相, 統宗, 正□總虞衡은 1품관이고, 그 밖에 天曺法司, 地曺法司, 人曺法司와 耳目官 등속은 중국 제도와 비슷하다. 정2품을 正卿이라고 하고, 종2품을 亞卿이라고 하는 등속은 또 모두 우리나라와 같다.

관복을 보면 국왕의 烏紗帽에는 쌍날개가 달렸고, 옆 비녀는 위로 향하였으며, 盤金으로 장식한 붉은 끈을 달아 턱 아래 3~4치만큼 드리웠다. 관료와 백성들의 모자는 두꺼운 종이로 골격을 만들고 휘장을 입혔는데, 그 형태가 승려들의 감투와 같아 가운데는 비었고 뚜껑이 없었다. 사방 한 폭의 비단으로 덮고 상투처럼 만들었는데, 반쯤 교차되어 있었다. 앞 부분 이마가 닿은 곳은 생성 비늘처럼 7층으로 만들었고 뒷 부분은 12층으로 만들었다.

彩織帽 아래로는 자색이 가장 높았고, 황색이 그 다음이고, 홍색이 또 그 다음이었다. 중간에는 또 꽃무늬 바탕으로 등급을 표시하였는데, 청록모자가 최하 등급이었다. 또 납작한 모자인 片貌가 있었는데 한가할 때 가정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천인들과 승려들 역시 모두 이것을 착용하였다. 갓은 보리짚으로 만든 것이 많았으나 가죽으로 만든 갓도 있었고 외부는 검정 칠을 하였고 내부는 붉은 칠을 하였다.

상의는 모두 널찍하고 풍성하였는데, 뒤에서 교차하는 옷깃은 없고, 소매는 크기가 2~3척 되고 길이는 손을 지나지 않는다. 남녀는 옷이 모두 그러하였는데, 여자 옷에는 띠가 없다. 띠의 길이는 한 기 하고도 4~5척이 되면 폭은 6~7촌이 되며, 허리쯤에 3~4겹으로 감아 매는데, 잡화를 수놓은 비단 원단이 고귀한 것이고, 큰 꽃을 수놓은 비단 띠가 그 다음이었다. 용을 새긴 황색 혹색 비단이 또 그 다음이었다. 하등급은 모두 잡색 비단 띠라고 하였다. 접때 본 사신들의 복식이 대략 이와 같았다.

상기의 기록에는 상고할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록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인용 문헌이다. ≪음빙행정력≫에서 유구에 관한 사료적 내용을 인용한 문헌의 제목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중산세감≫이며, 다른 하나는 ≪중산전신록≫이다. ≪중산세감≫은 하네지 죠수(쇼쇼켄)에 의해 1650년에 편집된 류큐(유구) 최초의 사서[8]이다. ≪중산전신록≫[9]은 淸代의 徐葆光이 1719년 6월에 유구국 尙敬王의 책봉을 위해서 류큐(유구)에 갔다가 다음해 2월에 돌아와 1721년에 간행한 문헌이다.

그러나 목산이 이 두 종류의 문헌을 어디에서 접하여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는 연행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중산세감≫의 인용문은 ≪중산세감≫을 직접 접한 뒤 인용문을 발췌한 것인지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문장에서 보이듯이 명대의 진간이 유구에 다녀온 내용을 기록한 다른 어떤 문헌에서 발췌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없다. 그나마 추측이 가능한 것은 ≪중산세감≫은 일본 문헌이기 때문에 설령 목산이 ≪중산세감≫을 직접 접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길은 없었을 것이므로, 뒷

8) 메구로 마사시, <일본에서 본 류큐, 류큐에서 본 일본 -다메토모 도류담을 예시로->, ≪淵民學志≫ 제26집, 2016, 111쪽. 田楊, <琉球國史中山世譜研究>, 福建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2016, 9쪽: 1650年(顺治七年), 向象贤以日文编撰了琉球第一部官修国史≪中山世鉴≫, 蔡铎版本的≪中山世谱≫主要是对≪中山世鉴≫进行汉译和改订, 并将琉球与日本萨摩藩交往的史事别汇为一卷, 附于≪中山世谱≫正卷之后, 称为“附卷”。

9) 喜納祥子, <清徐葆光≪中山傳信錄≫整理與研究>, 华东师范大学 석사학위 논문, 2015, 摘要의 일부분 인용.
≪中山传信録≫是清朝徐葆光(1671-1740)的著作。康熙五十八年(1719)六月,他作为琉球国王尚敬(1713-1751)的册封副使渡海至琉球,翌年二月返回。他在琉球逗留了大约八个月,著成≪中山傳信録≫。逗留期间,他搜集关於琉球的文献资料,與琉球国的高官和学者交流,并到实地考察,增加见闻。康熙五十九年(1720),徐葆光从琉球归来,他又根撼自己的见固和调查结果,在康熙六十年(1721)刊刻。此书是关於琉球历史、地理、官制、宗教、风俗、语言的著作,附有插图,记述甚详。迄今在海内外广为流传的就是康熙六十年刊刻的六卷本。除了清刊本以外,此书还有日本明和三年(1766)、天保十一年(1840)的重刻本。雍正、乾隆时期来华法国耶稣会员宋君荣(Antoine Gaubil.1689-1759)的翻译本。≪中山传信録≫在当时流傳极广,影响亦极大,故至今仍是琉球研究中不容忽视的重要文献之一。

문장에 근거하여 진간의 문장을 재인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목산은 왜 진간의 문헌 제목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은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 즉, 목산이 목도한 자료가 명나라 진간이 저술한 ≪사유구록≫인지 아니면 진간의 ≪사유구록≫이 조선에 전해진 후 조선본 ≪사유구록≫으로 편집된 조선본 ≪사유구록≫을 활용했는지 의문이 남았다. 사실 이러한 의문의 출발점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조영심(2016)의 선행연구[10]를 통해 살펴본 바, 진간이 유구를 사행한 후 기록을 남긴 문헌으로는 ≪사유구록≫이 있으며, 진간의 ≪사유구록≫이 조선에 전해져 조선본 ≪사유구록≫으로 편집되었다. 조선본 ≪사유구록≫의 간기가 따로 전하지 않아 정확한 간행 시기는 상고할 수 없지만, 중종 말기부터 명종 연간 유구에 대한 조선 조정의 태도 아래 조선본 ≪사유구록≫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본 ≪사유구록≫에는 아쉽게도 조선에서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며, 이는 16세기 중반 즈음 간행되어 임진왜란 시기 일본에 건너가 다시 조선으로 반환되지 못한 채 일본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조영심(2016)의 연구대로라면 목산이 인용한 ≪중산세감≫은 중국본 ≪사유구록≫에서 인용된 자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산이 ≪중산세감≫을 인용한 내용은 유구국 초기의 역사적 기록으로 중국본≪사유구록≫과 조선본≪사유구록≫ 모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필자가 가진 의문은 유구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중산세감≫이든 중국본≪사유구록≫이든 조선본≪사유구록≫이든 상관은 없어 보인다. 다만 ≪중산세감≫을 직접 언급하여 유구의 역사를 기록한 연행 기록에 관해서는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산이 두 번째로 언급한 ≪중산전신록≫에 대해서는 ≪중산전신록≫의 해제를 보는 것과 같이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최수경(2018)[11]의 설명을 재인용하자면, “康熙58년(1719) 尙敬을 유구 중산왕으로 책봉한 사절단의 副使였던 서보광이 기록한 사행록이다. 사절단 346명은 강희 58년(1719) 5월 20일에 福州를 출발하여 6월1일에 유구에 도착하였다. 강희 59년(1720) 2월 16일에 유구를 출발하여 같은 달 30일에 복주에 귀환한다. 그해 7월 서보광은 강희제에게『冊封琉球圖本 을 바쳤고 강희60년(1721)에는 이 책을 증보하여 6권짜리≪중산전신록≫을 간행하였다. 卷一은 封舟, 항로, 海神에 대한 제문 등 항해와 관련된정보가, 卷二에는 책봉의례를 비롯해 그가 유구에서 행한 공적 행사에 대해, 卷三은 중산국의 기원과 역사, 卷四는 유구의 지리와 자연, 卷五는 冠制를 비롯한 전장제도 및 학교, 종교관련 내용, 卷六에는 유구의 풍속과 物産, 언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근래의 ≪중산전신록≫에 대한 평가는 많은 유구사행록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중산전신록≫이전의 유구에 관한 문헌이 유구를 얼마나 왜곡하였는지를 지적하면서 보다 정확한 고증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며, ‘傳信’이라는 제명에 걸맞게 가장 최신의 정확한 유구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관제와 의복에 관한 내용의 기록은 1월 1일 문장의 의복관련 견해와 비슷한 사유를 보인다. 특히 관제에 관한 내용 기록의 말미에는 중국과의 비교와 조선과의 비교로 끝은 맺었다. 이도 어찌 보면 이국 관제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비교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유라 보여 진다. 다만 목산은 또다시 유구의 제도를 비교하는 기준에 자국인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을 추가시켜 넣음으로써 조선을 중국과 같은 선상에 두고 유구를 바라보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았다. 이것은 최수경(2018)이 말한 ‘재현체계’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다. 즉, “편찬자 자신이 체화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규범 등이 모두 착종되어 異域의 재현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편찬찬의 의도와 기억, 기존의 지식들은 이 과정에서 종종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재현 속에서는 늘 타협 혹은 분열이 내재되어 있다. 과

10) 邹春燕, <陈侃≪使琉球录≫史料价值研究>, ≪文化學刊/中國≫, 2020년 8월, 225쪽.

11) 최수경, <야만의 섬에서 ‘중화적’ 타자까지-전근대 중국이 구성한 ‘琉球’ 공간에 대한 분석>, ≪중어중문학≫ 제74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37~38쪽.

거 중국인 인식했던 외국 혹은 이역 공간들은 바로 이러한 재현체계의 산물이었다."고 중국의 태도를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러한 중국의 재현체계는 비단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도 소중화 의식을 키워감과 동시에 이 같은 유사한 재현체계를 형성하며 연행기록에 그 재현체계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었다.

3. 연행 사신의 이국문화인식의 방법 -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목산이 유구국이라는 이국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연행에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다. 특히 목산은 유구국 사신의 의복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며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였다. 이것은 누구나가 행하는 방법이나 차이가 있다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자신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를 1차적 관찰대상에 투영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의복은 조선사신이 중국 사행에서 가장 치중했던 관심사였다. 의복은 예의 기본이며, 의복의 갖추어짐 여부를 통해 문명의 발달을 평가했다. 둘째, 역원을 통한 간접 문답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목산이 알고 싶었던 사실은 언제나 일관되었다. 청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국인을 만나도 성명을 묻는 것이 그 첫 번째 화두였다. 왕가의 성씨를 물어보았으며, 사신의 성씨를 물었다. 성씨는 역사를 담고 있다. 신분이 높은 왕가의 성씨는 물론이거니와 사신의 성씨를 확인하며 유구국의 주류가 어떤 성씨임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중산세감≫을 통해 습득한 유구국의 왕위 계승의 성씨 기록과도 상호연계성이 드러나는 내용이었다. 셋째, 기타 상관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이는 문헌을 통한 고증적 글쓰기를 꾀하여 학문적 우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목산의 유구국 인식의 중점적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것은 향후 더욱 세밀한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목산의 연행자료 이외에 조선 사료에서 유구국 관련하여 ≪중산세감≫이나 ≪중산전신록≫을 활용한 기록을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근래의 연구에서도 ≪중산전신록≫은 釣魚島 문제에 관한 中日 문제에서 언급되긴 하나 유구국 관련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조선의 사신들은 사신으로써 연행을 떠나기 이전에 조선 지식인으로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대외인식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사행에서 기존에 성립되었던 인식의 형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행 이후에 기존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면 문헌의 재확인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인식의 순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대외인식의 틀을 먼저 확립하였을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있어서는 사행 이후에 새롭게 형성시키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고가 지면상의 문제로 발표하지 못한 목산의 서양인의 인식부분과 미처 상고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이후 자료를 더욱 보강하여 문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필자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이영춘 외 6명,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飮氷行程曆≫ 역주)≫, 파주: 교육과학사, 2016.
최영화, <조선후기 유구 지식의 형성과 표해록>,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메구로 마사시, <일본에서 본 류큐, 류큐에서 본 일본 -다메토모 도류담을 예시로->, ≪淵民學志≫ 제26집, 연민학회, 2016.
田楊, <琉球國史中山世譜研究>, 福建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2016.

喜納祥子, <清徐葆光≪中山傳信錄≫整理與研究>, 华东师范大学, 석사학위 논문, 2015.
邹春燕, <陈侃≪使琉球录≫史料价值研究>, ≪文化學刊/中國≫, 2020.
최수경, <야만의 섬에서 '중화적' 타자까지 - 전근대 중국이 구성한 '琉球' 공간에 대한 분석>, ≪중어중문학≫ 제74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明清日用类书变迁考

—— 以陈继儒系统为中心

蘇航*

<目　次>

1. 绪言
2. 研究对象概说
3. 明清日用类书的版本发展
4. 明清日用类书的内容变迁
5. 结语

1. 绪言

类书是东亚地区特有的一类书籍，是一种抄集群書詞、句、段、篇，分類編排，以供查詢和檢索的工具書。早期的类书一般为官修或文人学士私撰，旨在"资人君乙夜之览"及供文人学士作文或科举应试。现在常被学者提及引用的类书，诸如≪皇览≫、≪北堂书钞≫、≪太平御览≫及≪玉海≫等，都属此类，这些类书的阅读群体一般限于人君及官僚、文士阶层，于普通大众而言，并无使用价值。迨至南宋，随着商品经济及出版市场的发展，一类全新的，由民间书坊主编刻出版的，旨在供士、农、工、商四民日常使用的综合性日用类书[1]开始出现。这一类书籍网罗当时民众日常生活所需之知识、技能，乃至娱乐需求，裒为一集，成为当时民间生活的重要参考，性质类似于家庭生活手册或家居百科全书。虽然日用类书最迟在南宋末年就已出现，但由于各种原因，一直未见大盛，直至明万历年间，一种在早期日用类书基础上加以增删修改、重新编订的新型日用类书开始出现。这些类书更加贴近民间，将许多专供上层社会参阅的内容，诸如宫室、辞章、仪礼等尽数删去，又加入一些民间常用的知识，并开始全面采用上下分层式的编排方式，此一方面可以节省空间，减少成本，从而吸引更多读者购买，另一方面，也使纷杂的内容得以以更加清晰、美观的方式展现。此种日用类书一经出现，即大为盛行，其刊刻热潮一直延续到民国时期，据不完全统计，自明万历至清末，共有89种不同版本日用类书刊行[2]，足见其盛，本为所称日用类书，即指此种明万历后出现的新型日用类书。

日用类书由于其贴近民间、贴近生活之特性，为我们保存了当时社会生活的第一手资料，是不可多得的珍贵研究素材。但长期以来，这一类民间小书一直不被学界重视，直到上世纪50年代，日本学者才率先将其纳入学术研究范畴，从此拉开了日用类书研究的大幕，中国大陆从上世纪90年代也开始逐渐出现相关研究成果。但需要指出的是，目前的研究成果大多只是利用日用类书作为其研究的参考或佐证资料，且大多局限于明代，对于清代日用类书鲜有论及。很少有研究成果直接将日用类书本身作为研究对象，进行文献考证方面的研究。这一方面是因为学界对其重视程度仍然不够，另一方面也是由于此种书籍版本众多，纷繁复杂，又大多流失海外，现实上考察难度较大。但实际上，由于日用类书自晚明至民国一直不断被刊刻，时间跨度长达三百余年，

* 嶺南大學

1) 以下简称日用类书。

2) 参见拙文≪日用类书<万宝全书>的版本源流和系统研究≫（동아인문학 47, 2019.6, 289-315）及吴惠芳，≪万宝全书：明清时期的民间生活实录≫，新北：花木兰文化工作坊，2005。

其刊刻内容也一直随着现实需要在做调整，比较不同版本间的内容及形态差异，我们不仅可以了解日用类书的发展出版规律，更可从日用类书内容变化的背后，考察中国民间日常生活的变迁，为社会生活史研究提供一个日用类书的观察视角，具有重要的研究价值。因此，本文拟对明清日用类书的版本进行系统梳理，考察其在各个时间段不同的发展特点及内容变化，以期进一步加深学界对日用类书的了解，并为研究人员提供利用上的便利。

2. 研究对象概说

考虑到明清日用类书版本繁杂及相互抄袭的实际情况，对明清所有版本都进行考察是不可能也是不必要的，因此选择一个典型的版本系统作为研究对象就十分重要了。本文主要选取署名陈继儒编辑的日用类书系统作为主要考察对象，其理由如下。首先，该版本系统自明末至民国一直不断被书商重新刊刻出版，能够较为系统地反映出明清以至民国期间日用类书的变迁状况；其次，该系统刊行版本数量高达40种（不含民国版），是整个明清时期版本数量最多、流传最广的日用类书，在目前已知的51种清刊本日用类书中，陈继儒系统更是独占39种，其代表性由此可见一斑。

但由于陈继儒系统在明代只有一个版本，且出版时间较晚（崇祯元年），难以反映晚明日用类书的发展全貌，因此本文另选取两种晚明早期的日用类书作为比较对象，以期尽可能完整地梳理出一条明清日用类书发展脉络。

日用类书一直到民国时期仍有大量出版，但内容和出版方式已经较前期有了许多变化，展现了那个新旧交替时代独特的历史背景，且内容上与前期类书有继承关系，故本文亦有选取一种民国刊陈继儒系统日用类书，作为明清日用类书发展的余声，纳入比较范畴。现将上述日用类书按出版先后顺序介绍如下。

≪类聚三台万用正宗≫，目录页又题≪新刻天下四民便览三台万用正宗≫，万历二十七（1599年）年由书商余象斗编辑，并由余氏双峰堂梓印，共43卷8册。余象斗字仰止，号三台山人，福建建阳人，是晚明著名的书坊主，闽刻建本的代表人物。该本是明清日用类书中卷数最多、内容最详尽的一版，且出版年限较早（目前所见最早的日用类书为万历二十四年刊本[3]），属于早期日用类书的代表之作。然此本之后未见再版，现藏于日本东京大学东洋文化研究所内。（以下该本简称"余文台本"）

≪全补文林妙锦万宝全书≫，目录页另题书名为≪新板增补天下便用文林妙锦万宝全书≫，为明万历四十年（1612）书林安正堂刊本，共38卷10册。安正堂，亦作安正书堂。明代弘治间福建建阳人刘宗器所建书坊名，是建阳地区刻书历史最长、数量最多的书肆，历时长达183年之久，其间于书林影响极大。本书编印者刘双松（生卒年不详），名朝珀，字双松，是当时安正堂之主，生平资料现已不可考。该本亦只存一版，未见他刻，属于晚明中期日用类书的代表作，哈佛图书馆有藏。（以下该本简称"刘双松本"）

陈继儒系统日用类书，该系统明版只有一种，题名为≪新刻眉公陈先生编辑诸书备采万卷搜奇全书≫（封面题"万宝全书"），署名陈继儒编、存仁堂陈怀轩梓，明崇祯戊辰元年（1628年）刊刻出版，共37卷。自清乾隆四年（1739）后，该书被不断修改再版，终有清一代，共有39种不同版本[4]，一直到民国，该系统一直都是日用类书的出版主流。

3) 吴惠芳，≪万宝全书：明清时期的民间生活实录≫，新北：花木兰文化工作坊，2005：p355。

4) 参见拙文≪日用类书<万宝全书>的版本源流和系统研究≫（동아인문학 47，2019.6，289-315）。

3. 明清日用类书的版本发展

(1) 日用类书的出版历程

台湾学者吴蕙芳曾编有明清各版日用类书目录[5]，但限于时代所限，脱落较多，本文在该目录基础上，综合比对各大古籍联合目录数据库及私人收藏信息，新补增13种清版日用类书，共计89种，其中明版38种，清版47种，现根据其出版时间列表如下[6]：

年代	万历24-42	崇祯	康熙	乾隆	嘉庆	道光	咸丰	同治	光绪
出版数量	22	10	1	21	6	7	2	2	6

从上表可看出，自明万历年间新式综合性日用类书出现之后，此种书籍一直刊行不绥，成为民间日用的重要参考资料，其风行程度，可从下段广告性质的文字中窥见一二：

“三刻新版。兹书本堂原有编刻，已经大行。近因二刻板朦，不便命工绣梓，乃恳双松刘君删旧补新，摘粹拔尤，海内识者，靡不称羡。迩来嗜利棍徒，假票混育，翻刻不备，不惟观者无益，且令用者有误，于是三刻真本，中刻名‘真万宝全书’，票用双松印记，买者查有姓号，方不误认。谨白。书林安正堂刘双松重梓。”——≪全补文林妙锦万宝全书≫扉页题识

该书在万历四十年时已经是第三次印刷了，“二刻板朦”很可能就是因为第二版多次重印所致，不仅如此，该书的盗版还很多，因此安正堂在第三次刊刻时增刻了版权标识。由此可见日用类书销量之大，受众之广。

但令人疑惑的是，日用类书在经历晚明的刊刻热潮后，清初却突然消沉，自崇祯至康熙长达半世纪的历史进程中，竟只有一种日用类书出版。此或与当时明清易代的历史背景有关。首先是兵祸的影响，1644年明朝灭亡。同年清军入关，顺治帝迁都北京，从此清朝取代明朝成为全国统治者。清军刚入关时，采取了野蛮的烧杀抢掠政策，全国各地兵灾不断，特别是南方出版业发达的地区，兵灾尤其严重，扬州十日，“堆尸贮积，手足相枕，血入水碧赭，化为五色，塘为之平”、“前后左右，处处焚灼”，“城中积尸如乱麻”[7]，清朝政府发布“剃发令”，进一步激起了南方汉族人民的反抗，清廷对南方民众的抵抗运动，采取了残酷的军事镇压，对江阴、嘉定、昆山、苏州等地都按照扬州的方式屠城,往往“老稚无孑遗”，“杀戮一空”，许多城市也毁于战火[8]。清兵不仅烧杀，还大肆掳掠财货子女，“成栋拘集民船，装载金帛、子女及牛马羊豕等物三百余艘，往娄东；财物木棉，悉委弃不取”，肆行破坏当地社会生产，以致“室家零落，里井萧然”。[9]明末清初之印刷出版业及出版市场，也不可避免地在此兵灾中饱受打击，渐趋萎靡。其次，清廷采取的文化、出版高压政策也对日用类书的刊刻产生了不利影响，康雍乾三朝，清廷共发动了大大小小120多次文字狱，在一些案件中，如“庄廷鑨明史稿案”，不特作者惨遭戮尸，满门凌迟，连与该书有关的刻工、刷匠、书商和藏书者，皆一一问斩。魏晋锡≪学政全书・书坊禁例≫中也有这样的记载：“题准：坊间书贾，止许刊行理学政治有益文业诸书，其他琐语淫词，及一切滥刻窗艺社稿，通行严禁，违者从重究治。”这是记载朝廷下令禁止印卖“淫词小说”。在这样的风气之下，日用类书的刊刻受阻也是必然之事了，更何况，明代一些日用类书甚至被直接纳入到了禁书目录中，据≪纂修四库全书

5) 同注4.

6) 未有刊行的年号则省略，如泰昌、天启、顺治、雍正、宣统等；本表不包含刊年不详的版本。各年号公元纪年起止年限: 万历48年(1573~1620)、崇祯17 年(1628~1644)、康熙61年(1662~1722)、乾隆60年(1736~1795)、嘉庆25年 (1796~1820)、道光30年(1821~1850)、咸丰11年(1851~1861)、同治13年 (1862~1874)光绪34年(1875~1908)。

7) 归庄≪先兄监纪君行状≫，见≪归庄集≫卷八。

8) 清佚名・≪研堂见闻杂录≫。

9) ≪嘉定屠城纪略≫

档案≫[10]中收录的乾隆四十四年九月初六日大学士管闽浙总督汇署福建巡抚三宝所奏的“为查缴应毁各书，恭折具奏事”中，附有“福建省续查出应毁各书开列清单”，其中就包括“≪万宝全书≫一部，刊本。是书明刘双松辑，内分天文等门，计三十九卷。语涉触碍，并有符咒邪妄处”，乾隆四十四年已是日用类书重新开始刊刻之时，尚且如此，可以想见清前期日用类书重新刊刻之难度。

迨至乾隆，随着前期清廷采取的一系列战后修复措施，农业逐渐恢复，社会经济开始复苏，出版业也进开始繁荣起来。日用类书也由此焕发了第二春，开始进入另一个刊刻高潮，仅乾隆一朝，就有20余种日用类书出刊，当然，此时期的日用类书内容上为了迎合清廷统治，较前时期已做过许多改变，具体修改情况将在本文第四章中详细论述。而后日用类书的刊刻一直绵延不绥，但内容、形态已基本定型，基本是乾隆时期出版的日用类书的再版而已。但在1840年鸦片战争后，西方的科学技术及思想文化开始大规模进入中国，中国的社会性质也一变为半殖民地半封建社会，社会生活发生了亘古未有的巨变，以民间日用宝书为标榜的日用类书也不得不增加相关内容以适应时代的变迁，因此在清末，日用类书也迎来了一次内容与形态上的双重巨变。到了民国，日用类书的出版仍然十分流行，但内容上必然会迎合新建立的民国，增删变化中是那个时代的新旧交替的缩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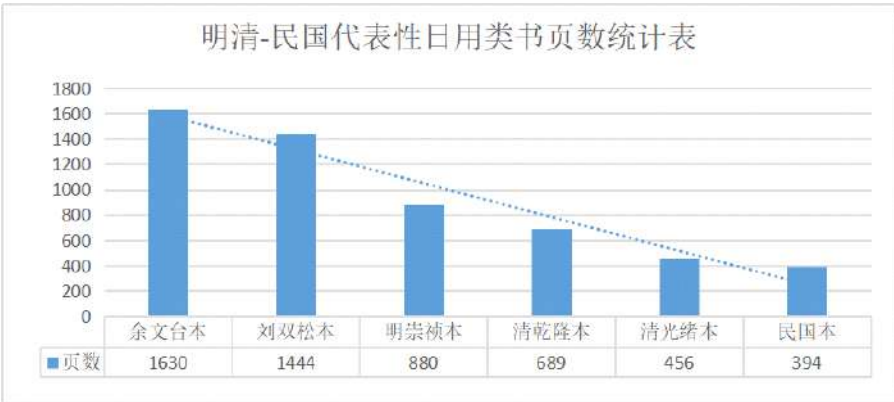
（2）书名变化

晚明时期，日用类书的书名比较多样，未成定式，且普遍较长，如“新刻天下四民便览三台万用正宗”、“新刻眉公陈先生编辑诸书备采万卷搜奇全书”、“新板增补天下便用文林妙锦万宝全书”、“新刻剑溪堂订补全书备考”、“新刻四民便览万书萃锦”、“龙头一览学海不求人”、“新锲天下备览文林类记万书萃宝”、“新锲全补天下四民利用便观五车拔锦”、“新锲燕台校正天下通行文林聚宝万卷星罗”、“新锲万轴楼选删补天下捷用诸书博览”等。细一考察，便可发现一些共通之处，首先，这些书名大多含有“万”、“全”等字眼，旨在标榜该类书籍无所不包的特性。其次，或许书商又大多希望从书名中展示书籍的使用性质，于是便加上一些“四民”、“便观”、“备览”、“不求人”等字眼；又，几乎所有书名都被冠以“新锲”“新刻”字样，以标明书籍内容之与时俱进，贴合当下。可以很明显地看出来，这些书名都含有广告成分，系书商为招徕顾客之宣传手段。但也从另一方面说明，此时期由于日用类书刚刚出现，民众对此类书籍还不太熟悉，书商需要通过这种简单明了的方式向读者展示书籍性质，并最终达到销售的目的。

进入清代，日用类书的名称开始定型，皆以“万宝全书”为名，在目前可见的所有清刊本日用类书中，再未发现其他书名，“万宝全书”也成为了日用类书的代称。此外，清刊本日用类书的书名都较明代为短，普遍只在书名前加上“增补”、“绘图增补”的前缀，不再有各式各样的提示文字，十分简洁。这表明进入清代后，日用类书及“万宝全书”这一书名在读者中的辨识度已经很高，不需要书商再做过多宣传了。

10) 中国第一历史档案馆编，≪纂修四库全书档案≫，上海古籍出版社，1997.

(3) 内容量变化



内容量变化首先体现在卷数上，本文选取明清两代能够准确确定出版年度（精确到年）及出版卷数的39种日用类书作为样本，制成明清日用类书卷数变化趋势图，从图中可以明显看到，虽然卷数在特定时期有反复，但总体是在呈下降趋势。晚明时期由于日用类书系统较多，卷数变化也较大，从最多的43卷到20卷不等，但绝大多数类书都在30卷以上，明显高于清版。而由于绝大多数清版日用类书都属于陈继儒系统，因此卷数差别不大，清早期日用类书一般属于30卷本，清后期一般属于20卷本，也是呈下降趋势。到了清末，为了适应新时代的需求，出现了一种在20卷本基础上的续编之作，有续编5卷本和续编6卷本两种。

页数的下降更加明显，本文对晚明至民国的6个代表性日用类书页数进行了统计，其结果如图所示，其中的清乾隆本为上述30卷本的代表，光绪本为上述20卷本的代表。可以看到，日用类书页数从最高峰的1630页下降到了20卷本的456页[11]，下降幅度高达72%，大大超过卷数的下降幅度，可见卷内删减内容之多。另需说明的是，由于民国本已经采用石印方式印刷，不能以页数做简单的对比，其内容量实质上比20卷本要多得多。

综上，明清日用类书的内容量整体呈下降趋势，且下降幅度较大，究其原因，一方面是因为随着日用类书的大量使用，书商对于民众的使用偏好有了更深的理解，得以删除一些使用度不高的门类，更重要的是，减少内容量后可以降低成本，使书商得以以更低廉的价格招徕顾客，毕竟日用类书的使用者大多都是一般民众，过

11) 只统计了正文页数，不包含辅助、装饰页面的页数。

高的价格会使读者难以承受。

(3) 编辑排印的变化

在版面设计方面，明版日用类书普遍较清版为佳，标题与正文间的间隔较大，整饬大方，一目了然，提示性文字还会通过添加边框的方式予以醒目展示，装饰性图片及内容辅助图片较多，美观清晰。而清版日用类书的版面则更加紧凑，大多也不会对提示性文字添加边框，致使标题与正文之间，前文与后文之间的界限不清晰，阅读体验变差。图片的使用上，清版也是能少则少。在明版中，常常在部分门类前加入一些与本门类相关的装饰性图片，但在清版中，这些装饰性图片几乎全部消失；内容辅助图片也被大量删除，如在明余文台本的“相法门”中，大小图片总计高达140余张，而在清乾隆十一年（1746）金阊书业堂刊刻的陈继儒系统≪万宝全书≫的“相法门”中，只剩下了两张图片，可见删减数量之大。

明版的编辑也更加规范，卷首的书籍题名及门类标题，卷尾的终章标识都比较完整，而清版的绝大部分刊本中，都存在门类的标题及终章标识缺失现象。

凡此种种，都表明清代书商为了进一步降低成本，提高销量，不惜采用降低编辑质量的方式。虽然这使得读者阅读体验变差，但从另一方面来看，这也使得更多的家庭有能力购入，从知识的普及这一点来看，未尝不是一件好事。

印刷方面，清末之前日用类书的出版基本以木板雕刻为主，各本差别不大，但随着西方石印技术的传入，日用类书也开始进入石印时代。目前所能见到的最早的石印版日用类书为1894年（光绪二十年）由上海书局出版的陈继儒系统的≪增补万宝全书≫，此后虽木板雕刻仍时有出现，但石印逐渐占据了日用类书印刷出版的绝对主流。

印刷方式的改变，也带动了清末日用类书编辑排版方面的变动。传统印刷中的乌丝栏消失，技术的进步也使得图片开始增加，且较前代更加精美，字迹更加清晰。石印本日用类书的排版方式更加灵活多样，虽仍然以上下分层为主，但根据内容的需要，有时也会以单层的形式进行排版。版面也较传统印刷的类书为小，一般半郭的大小只有12.7 x 7.5 cm，不过一只手掌的大小，携带十分方便。

4. 明清日用类书的内容变迁

明清-民国代表性日用类书门类统计表

余文台本	刘双松本	明崇祯本	清乾隆本	清光绪本	民国本
卷一 天文门	卷一 天文门	一卷 天文门	一卷 天文门	一卷 天文门	一卷 天文门
卷二 地舆门	卷二 地舆门	二卷 地纪门	二卷 地理门	二卷 地理门	二卷 地理门
卷三 时令门	卷三 人纪门	三卷 人纪门	三卷 人纪门	三卷 人纪门	三卷 人纪门
卷四 人纪门	卷四 诸夷门	四卷 文翰门	四卷 诸夷门	四卷 诸夷门	四卷 诸夷门
卷五 诸夷门	卷五 官品门	五卷 体式门	五卷 文翰门	五卷 文翰门	五卷 文翰门
卷六 师儒门	卷六 律法门	六卷 爵禄门	六卷 农桑门	六卷 清字门	六卷 篆书门
卷七 官品门	卷七 武备门	七卷 诸夷门	七卷 清字门	七卷 字体门	七卷 字学门
卷八 律法门	卷八 八谱门	八卷 律法门	八卷 字体门	八卷 算法门	八卷 算法门
卷九 音乐门	卷九 琴学门	九卷 农桑门	九卷 算法门	九卷 爵禄门	九卷 爵禄门
卷十 五谱门	卷十 棋谱门	十卷 时令门	十卷 爵禄门	十卷 时令门	十卷 时令门
卷十一 书法门	卷十一 书法门	十一卷 四谱门	十一卷 时令门	十一卷 画谱门	十一卷 画谱门
卷十二 画谱门	卷十二 画谱门	十二卷 酒令门	十二卷 画谱门	十二卷 博弈门	十二卷 博弈门
卷十三 蹴踘门	卷十三 文翰门	十三卷 射学门	十三卷 博弈门	十三卷 梦解门	十三卷 梦解门
卷十四 武备门	卷十四 启札门	附十三卷 武学门	十四卷 茶经门	十四卷 马牛门	十四卷 马牛门

卷十五 文翰门	卷十五 伉俪门	附十三卷 笑话门	十五卷 酒令门	十五卷 劝谕门	十五卷 劝谕门
卷十六 四礼门	卷十六 丧纪门	附十三卷 琴学门	十六卷 梦解门	十六卷 风鉴门	十六卷 风鉴门
卷十七 民用门	卷十七 体式门	十四卷 草法门	十七卷 劝谕门	十七卷 数命门	十七卷 数命门
卷十八 子弟门	卷十八 诗对门	十五卷 种子门	十八卷 马牛门	十八卷	十八卷 笑话门
卷十九 侑觞门	卷十九 涓吉门	十六卷 算法门	十九卷 通书门	笑话门・附引拳射	十九卷 种子门
卷二十 博戏门	卷二十 卜筮门	十七卷 画学门	廿卷 铁箸门	学琴法	二十卷 祛病门
卷二十一 商旅门	卷二十一 星命门	十八卷 劝谕门	廿一卷 风鉴门	十九卷 种子门	续编
卷二十二 筭法门	卷二十二 相法门	十九卷 风月门	廿二卷 数命门	二十卷 祛病门	卷一
卷二十三 真修门	卷二十三 茔宅门	附十九卷 闺妆门	廿三卷		卷二
卷二十四 金丹门	卷二十四 修真门	二十卷 相法门	笑话门・附引拳射		卷三
卷二十五 养生门	卷二十五 养生门	二十一卷 状式门	学琴法		卷四
卷二十六 医学门	卷二十六 医学门	二十二卷 梦解门	廿四卷 种子门		卷五
卷二十七 护幼门	卷二十七 全婴门	二十三卷 玄教门	廿五卷 宅经门		卷六
卷二十八 胎产门	卷二十八 训童门	附二十三卷 戏术门	廿六卷 堪舆门		
卷二十九 星命门	卷二十九 算法门	二十四卷 宅经门	廿七卷 筮卜门		
卷三十 相法门	卷三十 农桑门	二十五卷 医学门	廿八卷 对联门		
卷三十一 卜筮门	卷三十一 劝谕门	二十六卷 养生门	廿九卷 医学门		
卷三十二 数课门	卷三十二 侑觞门	二十七卷 算命门	三十卷 祛病门		
卷三十三 梦珍门	卷三十三 笑谈门	二十八卷 数命门			
卷三十四 茔宅门	卷三十四 风月门	二十九卷 地理门			
卷三十五 地理门	卷三十五 玄教门	三十卷 通书门			
卷三十六 尅择门	卷三十六 卜员门	三十一卷 卜筮门			
卷三十七 牧养门	卷三十七 法病门	三十二卷 法病门			
卷三十八 农桑门	卷三十八 杂览门	三十三卷 训童门			
卷三十九 僧道门		三十四卷 卜筮门			
卷四十 玄教门		三十五卷 对联门			
卷四十一 法病门		三十六卷 歌曲门			
卷四十二 闲中记		三十七卷 杂览门			
卷四十三 笑谑门					

≪六祖壇經≫「三十六對法」的語言特色

胡君暉*

<目　次>

1. 前言
2. ≪壇經≫三十六對法析義
3. 三十六對法的「不二法門」
4. 本於中國典籍中「對法」的概念
5. 結語

1. 前言

在≪六祖壇經≫(以下簡稱≪壇經≫)中記載，惠能（638-713年）召集重要弟子法海等十人，[1] 付囑彼等曰：「**吾教汝等說法，不失本宗，舉三科法門，動用三十六對，出沒即離兩邊，說一切法，莫離於性相。若有人問法，出語盡雙，皆取對法，來去相因，究竟二法盡除，更無去處**。」[2] 此三十六對法可說是≪壇經≫禪思想的精粹，後世門人自我修行或說法度眾之依據。關於≪壇經≫三十六「對法」的專門研究，[3] 目前臺灣相關文獻僅得成中英一篇，[4] 其餘多附在≪壇經≫的整體研究中，少有專文探討；至於大陸方面則有孫亦平＜惠能的三科三十六對思想研究＞、[5] 崔正森＜關於對法之管見＞、[6] 魏鴻雁＜≪壇經≫三十六對法與唐代禪意詩的形成＞等三篇專文，[7] 其中，關於相對相因的概念，也就是所謂「對法」的「中道」觀念，是≪壇經≫中極度重要的一種語言特色。何謂「中道」？在≪壇經≫三十六對法之中，皆由一組在光譜兩端極度相異的概念詞彙為對，在傳經說法的因緣之下，藉由以不偏倚一方的對法詞彙藝術，作為尋找佛法中絕對真理的「不二法門」，三十六對法是表達≪壇經≫「不二法門」的獨特創發，其意義為何？與「不二法門」的關係為何？在中國文化中是否有所本？這是本文所要剖析的。

* 國立慶北大學

1) 印順法師≪中國禪宗史≫云：「惠能於『先天二年八月三日滅度』，『春秋七十有六』，這是≪壇經≫以來的一致傳說。先天二年，為西元七一三年。依此推算，春秋七十六歲，惠能應生於唐貞觀十二年（六三八）。」(台北：正聞出版社，1983年)，頁175。

2) ≪六祖壇經≫版本甚多，大約有≪壇經≫祖本、敦煌原本、惠昕本、契嵩本、德異本、宗寶本等多種，本文不作考証。近人楊曾文校寫≪敦煌新本六祖壇經≫(敦博本)，原名≪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以其考訂詳實，尤其關於「三十六對法」部份，其內容較其他諸本更具邏輯性，學術參考價值更高，故本文所據即楊曾文校寫本(敦博本) (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3年10月)，頁56。

3) 本文所探討之「對法」，非指「論藏」（阿毘達磨）之意，乃指兩個相對應的概念之謂。

4) 成中英，＜六祖壇經之三十六對及其哲學意義＞，≪佛光山國際禪學會議實錄≫(高雄：佛光出版社，1990年)。頁365~372。

5) 孫亦平，＜惠能的三科三十六對思想研究＞，≪佛學研究≫(北京：中國佛教文化研究所，1999年00期)，頁155~160。

6) 崔正森，＜關於對法之管見＞，≪世界宗教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院，2002年第1期)，頁79~84。

7) 魏鴻雁，＜≪壇經≫三十六對法與唐代禪意詩的形成＞，≪殷都學刊≫(河南：安陽師範學院，2005年 01期)，頁72~74。

2. ≪壇經≫三十六對法析義

≪壇經≫在列出三十六對法之前，首先標示了「三科法門」，所謂「三科法門」，即「五陰」、「十二入」、「十八界」等，合稱為「陰入界」。五陰（或名五蘊），即「色、受、想、行、識」，也就是吾人此一身心之總體，包括物質肉體之部份，此即為「色陰」；此外還有精神心靈之部份，即「受、想、行、識」四陰。十二入者，即眼、耳、鼻、舌、身、意等「內六門（六根）」，以及色、聲、香、味、觸、法等「外六塵」。[8] 十八界者，即六塵、六門(根)及六識之合稱。這些正是「三十六對法」所要分類的對象與範圍，故先標示在前。以下便將「三十六對法」之內容，[9] 略作分析：

(1) 無情語言五對

所謂「無情語言五對」，指的是：

> 天與地對，日與月對，明與暗對，陰與陽對，水與火對。[10]

「無情」即唯識宗所稱之「外六塵」，包括色、聲、香、味、觸、法等，此六塵係歸屬於「色法」，非是「心法」，以其無有情感認識之心理作用，故稱「無情」。≪壇經≫將所有外境無情之性質，歸納成為五對，即「天地、日月、明暗、陰陽、水火」五者，就一般認識而言，這五對是屬於自然現象部份。而進一步觀察，其排列似亦按照一定順序，首先「天地」是整個大空間，次則將眾多的天象概括為「日月」，再則由天上的「日月」而產生了地下的「明暗」，然後再由「明暗」產生了「陰陽」的概念。至於在這些天地宇宙、日月星辰等礦物之中，所孕育出來的各種動植物，他們的生與滅都必須有所仰賴，於是「水火」便應運而出，可見「無情外境五對」，彼此之間也是有一定的關連性。

(2) 法相語言十二對

其次為「法相語言十二對」，≪壇經≫云：

> 有為無為對、有色無色對、有相無相對、有漏無漏對、色與空對、動與靜對、清與濁對、凡與聖對、僧與俗對、老與少對、長與短對、高與下對[11]

所謂「法相」者，乃諸法所具本質之相狀（體相），或其意義內容（義相）之謂也。而「語言」者，或稱「名言」，指名字、名稱與言句、言說。此處所舉諸對，就其性質析之，大多不離唯識宗的「五位百法」之內容，[12]「五位百法」即將萬法析為：心王8種、心所有法51種、色法11種、心不相應行法24種（以上四類屬於「有為法」）、無為法6種。合計為100個法。

---

8) 法塵，或稱法處所攝色，即前五塵落謝之種子，為意根所攀緣，理當歸為內塵，此依≪壇經≫原文作「外六塵」。

9) 「三十六對法」之內容，隨各版本差異而略有出入，詳見後附「≪壇經≫三十六對法各版本內容異同對照表」。本文所據為楊曾文校寫之≪敦煌新本六祖壇經≫，即「敦博本」，其所列之「三十六對法」內容，考定詳實，較諸其他各本更具邏輯性，如「長與短對」，「宗寶本」和「大乘寺本」皆歸於「自性起用」，而「敦博本」則歸入「法相語言」，較為合理，故以下所引≪壇經≫三十六對法內容文字皆以此本為準。

10) ≪敦煌新本六祖壇經≫，頁57。

11) ≪敦煌新本六祖壇經≫，頁57。

12) 見≪百法明門論直解≫，世親造，明溥益智旭解，≪卍續藏≫第48冊 (CBETA)X48n0805_p0341c20~c21。

(3) 自性語言十九對

第三類為「自性語言十九對」，這十九對之中，有些是屬於「心所有法」以及「心不相應行法」的部份，有些則是佛教其他的「法數」。≪壇經≫云：

> 邪與正對、癡與慧對、愚與智對、亂與定對、戒與非對、直與曲對、實與虛對、嶮與平對、煩惱與菩提對、慈與害對、喜與嗔對、捨與慳對、進與退對、生與滅對、常與無常對、法身與色身對、化身與報身對、體與用對、性與相對。[13]

其內容性質則包含≪百法≫五十一心所中的「別境」、「善」、「根本煩惱」、「隨煩惱」，以及「心不相應行法」等，再加上其他的法數名相，如「三身（法、化、報）」、「三大（體相用）」等所組成。

3. 三十六對法的「不二法門」

佛教經論中有關「對法相因」的概念，在許多經論中是常常出現的，尤其它和「中道」思想總是維持著很密切的關係。因而在≪壇經≫之前，佛典中早就已經有了這樣的概念，以下各舉出≪阿含經≫、[14] ≪中論≫、[15] ≪大智度論≫、[16] ≪維摩詰經≫等文獻中，[17] 有關於「中道」或「對法」之論述略作分析探討。

(1) ≪阿含經≫的「離於二邊說中道」

≪阿含經≫係小乘原始佛典，佛陀在該經中屢有「中道」要義之開示，如≪中阿含≫云：

> 莫求欲樂，極下賤業，為凡夫行，是說一邊。亦莫求自身苦行，至苦非聖行，無義相應者，是說二邊。莫求欲樂，極下賤業，為凡夫行。亦莫求自身苦行，至苦非聖行，無義相應者，因此故說，離此二邊，則有中道。[18]

佛陀開示弟子，不追求欲樂享受等這些下賤的凡夫行業，這種說法只是其中的一邊；也不去刻意追求自身的苦行，因為極苦的無益苦行，實際上也不是聖者之修行，因為這種苦行是無相應之意義者。以下則是最重要的關鍵語句：「**離此二邊，則有中道**」。意即刻意的窒欲或者極度的苦行，二者都是各偏一邊，必須離此二邊，乃能有中道之體悟。

---

13) ≪敦煌新本六祖壇經≫，頁57。另≪大正藏≫第四十八冊≪壇經≫「宗寶本」將「長與短對」列於「自性起用十九對」中，顯然與其他各組對法性質不同，故不採之。此外，「敦博本」及「敦煌本」之「自性起用十九對」中增列了「有情無親對」，其他諸本則無，合計即為二十對，與前文標題不符，疑為衍文，此處暫不列入討論。詳見後附「≪壇經≫三十六對法各版本內容異同對照表」。

14) ≪阿含經≫包括≪長阿含≫、≪中阿含≫、≪雜阿含≫、≪增壹阿含≫等各部。

15) ≪中論≫，龍樹菩薩造，青目釋，姚秦鳩摩羅什(334~413，一說350~409)譯，收於大正藏第三十冊。(CBETA)T30，No.1564。

16) ≪大智度論≫印度龍樹菩薩著，係詮釋大品般若經之論著，「大智度」為「摩訶般若波羅蜜」之意譯，姚秦鳩摩羅什譯於弘始四年（402）至七年，收於≪大正藏≫第二十五冊； (CBETA)T25，No. 1509。

17) ≪維摩詰經≫，姚秦鳩摩羅什譯，收於≪大正藏≫第十四冊；(CBETA)T14，No.0475。

18) ≪中阿含經≫，東晉罽賓三藏瞿曇僧伽提婆譯，收於大正藏第三十冊。引文見於卷第四十三，＜根本分別品＞，(CBETA)T01，No.0026。頁701b。

(2) ≪維摩詰經≫的「不二法門」

透過維摩居士與文殊師利等諸菩薩，共同討論「入不二法門」之議題，藉以闡發般若空之思想。其主要論述見於＜入不二法門品第九＞，經云：

> 爾時維摩詰謂眾菩薩言：諸仁者，云何菩薩入不二法門？各隨所樂說之。會中有菩薩名法自在，說言：諸仁者，生滅為二，法本不生今則無滅。得此無生法忍。是為入不二法門。[19]

此處維摩詰居士詢問在場諸菩薩有關「入不二法門」的問題，首先回答的是法自在菩薩，其指出「生」與「滅」是相對相因二法，若能悟得「法本不生今則無滅」(即不生不滅)之理，得證「無生法忍」，即為「入不二法門」。

(3) ≪中論≫的「八不中道」

≪中論≫為龍樹早期所作，以「否定的否定」，或云「雙遣雙非」之論證法來宣揚中道；在≪中論．觀四諦品≫裡有偈云：

> 眾因緣生法，我說即是無；亦為是假名，亦是中道義。未曾有一法，不從因緣生，是故一切法，無不是空者。[20]

其卷首另有偈云：

> 不生亦不滅，不常亦不斷。不一亦不異，不來亦不出。能說是因緣，善滅諸戲論。我稽首禮佛，諸說中第一。[21]

開頭的「**不生亦不滅，不常亦不斷。不一亦不異，不來亦不出。**」此即龍樹≪中論≫有名的「八不中道」，意即遮止「生滅、常斷、一異、來出」等四組命題，合計八支對立相因的概念，以發顯「無所得」的「中道」之理。

(4) ≪大智度論≫的「離是二邊行中道」

≪大智度論≫則是立足於「諸法實相」之肯定立場，極力闡明大乘菩薩中道思想及六波羅蜜等具體實踐之法。其中透過「對法相因」之邏輯辯證以彰顯中道實相之理者，見於卷四十三云：

> 今明般若波羅蜜體，何等是般若波羅蜜？般若波羅蜜者，是一切諸法實相，不可破，不可壞；若有佛，若無佛，常住諸法相、法位，非佛、非辟支佛、非菩薩、非聲聞、非天人所作，何況其餘小眾生！

此處≪論≫文所闡述的重點在於「何者是般若波羅蜜」？簡言之，般若波羅蜜者，是「一切諸法實相」，而其堅固有如金剛「不可破，不可壞」，無論有佛、無佛之時處，般若波羅蜜皆長住於諸法相、法位(真如)中。

以上所列舉的佛教經論，打從原始小乘經典≪阿含經≫開始，到≪維摩經≫、≪中論≫、≪大智度論≫大乘經論時期都已明顯的出現了相對相因的「中道」概念。

---

19) ≪大正藏≫第十四冊；(CBETA)T14，No.0475，頁550b。

20) ≪大正藏≫第三十冊；(CBETA)T30，No.1564，頁33b。

21) ≪大正藏≫第三十冊；(CBETA)T30，No.1564，頁1b。

4. 本於中國典籍中「對法」的概念

(1) ≪道德經≫中的「相反相生」概念

≪道德經≫原稱≪老子≫，在此書中出現了許多對立又統一的概念，諸如「牝牡、雌雄、陰陽、剛柔、善惡、善醜、禍福、利害、曲直、盈窪、虛實、強弱、興廢、與奪、厚薄、進退、得亡、貴賤、智愚、生死、大小」等，[22] 這些概念都既是對立(相反)又可以互相轉化（相生）。如＜第2章＞云：

> 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形，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是以聖人從無為之事，行不言之教，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為而不恃，成功不居。[23]

此處明白指出「有無」二者相反卻又相生，難與易相反卻又相成；以下之「長短、高下、音聲、前後」等概念，雖是相對卻是相互為用，相待而顯，相需而生。

(2) 儒經中的「對法」概念

在儒家的典籍中具有與「相對相因(生)」類似概念的文獻，亦屢見不鮮，如≪周易≫有「兩儀」(陰陽)之稱，≪論語≫及≪中庸≫有「執兩用中」之說即是。

1. ≪周易≫的陰陽兩儀之道

≪周易≫的陰陽兩儀之說見於＜繫辭上＞云：

> 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24]

易有「變易、不易、簡易」三義，自太極而生兩儀，是其變易義，兩儀者陰陽也。

2. ≪論語≫和≪中庸≫的「執兩用中」之道

孔子一向所崇尚者即是「中庸」之道，≪論語．雍也≫云：

> 子曰：「中庸之為德也，其至矣乎！民鮮久矣。」[25]

「中庸」之道者何？程子云：「不偏之為中，不易之謂庸」，[26] 簡言之，無「過」與「不及」是也。故＜先進＞篇云：

> 子貢問：「師與商也孰賢？」子曰：「師也過，商也不及。」曰：「然則師愈與？」子曰：「過猶不及。」[27]

---

22) 參見祁志祥≪佛學與中國文化≫（上海：學林出版社，2001年5月），頁255。
23) 朱謙之≪老子校釋≫ (台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2004年3月)，頁9~11。
24) 魏王弼、韓康伯注，唐孔穎達等正義，≪周易正義≫，≪十三經注疏≫本 (台北：新文豐出版公司，2001年6月)，頁591~592。
25) 魏何晏等注，宋邢昺等疏≪論語注疏≫，≪十三經注疏≫本 (台北：新文豐出版公司，2001年6月)，頁146。
26) 朱熹≪四書章句集注．中庸章句≫ (台北：大安出版社，2007年10月)，頁22。
27) ≪論語注疏≫，頁250~251。

≪中庸≫亦云：

> 子曰：道之不行也，我知之矣：知者過之，愚者不及也。道之不明也，我知之矣：賢者過之，不肖者不及也。[28)]

總之，「過」與「不及」者，皆是違反「中庸」之道。

綜觀此三十六對之內容與前述儒、道經籍中所見的「執兩用中」、「相反相生」等概念，或為完全相同的語言，或為近似的概念，其邏輯思維與方法的運用，可說殊途而同歸，由此亦可看出≪壇經≫受中國傳統文化影響之一斑。

5. 結語

「不二法門」與「中道」思想是佛教般若思想的核心，是語言傳達不了的境界。如何不要落入「言語道斷」，表述出這種語言、思惟傳達不出的境界？佛經傳譯進入中土的過程，經典已經揣摩出這種「對法相因」的表述方式，而中國傳統典籍中也有近似的表述法，直到≪六祖壇經≫才形成此「道」的語言特色。

28) 漢鄭玄注，唐孔穎達等正義，≪禮記注疏≫下，≪十三經注疏≫本 (台北：新文豐出版公司，2001年6月)，頁2192。

11月 21日(土) 16:00~17:30

현 대 문 학 (3)

❖ 번역과 문화콘텐츠

金英姬(한국조지메이슨대)
≪道德经≫英韩译文比较

左維剛(平顶山学院) 翻译、传教与本土化 : 晚清小说≪五更钟≫研究

鄭殿煇(성결대) 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女真记忆"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形象研究

이지윤(한림대) 한류4시기, 중국진출을 위한 콘텐츠 분석 연구

≪道德经≫英韩译文比较

金英姬*

<目　录>

1. 序论
2. 英文译文比较
3. 韩文译文比较
4. 小结

1. 序论

众所周知，≪道德经≫是除了≪圣经≫以外翻译得最多的中国古代典籍。除了英译本以外，韩文的译本及阐释老子的书籍在韩国也是汗牛充栋。有趣的是英译本确实是以中文版为母本的“翻译本”，但是“韩译本”却不能完全看作是翻译本。因为韩国的汉学者的汉文造诣也很深，对汉文经典的理解也是非常值得称道的。大多数韩文版≪道德经≫不是并不是现代汉语版的≪道德经≫的“翻译本”，而是韩国学者以自身的汉文学识为基础，把原文译成现代韩文的，当然其中也有参考现代汉语版的。比较英文和韩文的译文，更有助于理解≪道德经≫的精髓，同时也能增添≪道德经≫学习的乐趣，同时更了解英文背景的人与韩文背景的人都是怎么理解并表述中国古代典籍的。由于英文译文的文本实在太多，王芳的论文中认为最多有206种（王芳，任翠翠），韩文的译文只要检索一下韩国最大书店教保文库和韩国的图书馆，期数量也不下几百种。本文试取几个通常被认为是比较经典的几个文本来加以分析。而且由于篇幅所限，本文只就≪道德经≫第一章进行比较。

为有助于理解原文，我们有必要首先就≪道德经≫的现代白话译文进行比较。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无名天地之始；有名万物之母。故常无欲以观其妙；常有欲以观其微。(≪道德经≫第1章)

白话释义：可以被看待为道的道，就不是永恒的道；可以被命名的名，就不是永恒的名。无，是天地的起始；有，是万物的根本。因而，如果想了解宇宙的精微奥妙，就要坚持无的观念；如果只想了解万物的表层现象，就可常持有的观念。

道可知而可行，但非恒久不变之道；名可以据实而定，但非恒久不变之名。无名，是万物的原始；有名，是万物的开端。所以，经常保持清净无欲，可以体察其中的奥妙；经常保持有欲追求，可以知晓道的功用。这两者，同一出处而名称不同，都十分深远玄妙，玄妙而又玄妙啊，这是解开所有奥妙的门径。（汤漳平，王朝华）[1)]

可以用语言说出来的“道”，它就不是永恒的“道”；可以用言词说出来的“名”，它就不是永恒的“名”。“无”是天地的本始，“有”是万物的根源。所以，经常从“无”中去观察“道”的奥妙；经常从“有”中去认识“道”的端倪。“无”和“有”这两者，来源相同而具有不同的名称。它们都可以说是很幽深的，极远极深，是一切变化的宗门。[2)]

“道”，是老子哲学体系的核心。五千字的≪道德经≫，“道”字出现了74次！对于老子“道”的理解，仁者见

* 韩国乔治・梅森大学

1) 汤漳平、王朝华，≪老子≫（全本全注全译丛书），北京，中华书局，2014年7月。

2) 张忆译注，≪<老子>白话今译≫，北京，中国图书出版，1992年9月。

仁，智者见智。它的基本含义，一是指“宇宙本源”，二是支配世界的客观规律。老子自己都不能够找出恰当的词来概括自己的想法，所以选了“道”字来表述。这么一个非凡复杂的“道”，让外国人翻出来，也确实不容易。其实，翻看每一本≪道德经≫的白话翻译，每个作者对它的理解和阐释都有一定的出入。更何况英文翻译者和韩文的翻译者呢。前两句“道可道，非常道”和“名可名，非常名”，无论英文还是韩文，句式基本还能做到基本保留原来的句式风格。但是在词汇的选用是，还是有很大的差异。比如把“道”直接音译成“Tao”或“Dao”，也有用“way”,“words”的。显然，老子哲学里的“道”，意义丰富，我们只可意会，不可言传。所以只能用“Tao”或者“Dao”,然后进行注解比较好。　但是从第二句“无名天地之始；有名万物之母。”开始，距离就拉开了。不但句式发生了很大的变化，理解和翻译及解释都开始出现很大的不同。这种现象和白话文翻译现象一样，开始有很大的出入。相比几个英文翻译，笔者在网上看到的中国学者徐英才[3]的翻译即接近原文的句式，又较好地传达了原文的内容。当然，徐英才的译文，句式结构上与辜正坤的译文很相似，但是他的译文更朗朗上口。试举几个英文译本例文如下：

Arthur Waley（1934） The way that can be told of is not an Unvarying Way； The names that can be named are not unvarying names. It was from the Nameless that Heaven and Earth sprang； The named is but the mother that rears the ten thousand creatures, each after its kind. Truly, “Only he that rids himself forever of desire can see the Secret Essences”； He that has never rid himself of desire can only see the outcomes.	Gia-Fu Feng （1972）[4] The Tao that can be told is not the eternal Tao. The name that can be named is not the eternal name. The nameless is the beginning of heaven and Earth. The named is the mother of the ten thousand things. Ever desireless, one can see the mystery. Ever desiring, one sees the manifestations. These two spring from the same source but differ in name; this appears as darkness. Darkness within darkness. The gate to all mystery.
Stephen Mitchell (1988) The tao that can be told is not the eternal Tao The name that can be named is not the eternal Name. The unnamable is the eternally real. Naming is the origin of all particular things. Free from desire, you realize the mystery. Caught in desire, you see only the manifestations. Yet mystery and manifestations arise from the same source. This source is called darkness. Darkness within darkness. The gateway to all understanding.	J. H. McDonald (1996) The tao that can be described is not the eternal Tao. The name that can be spoken is not the eternal Name. The nameless is the boundary of Heaven and Earth. The named is the mother of creation. Freed from desire, you can see the hidden mystery. By having desire, you can only see what is visibly real. Yet mystery and reality emerge from the same source. This source is called darkness. Darkness born from darkness. The beginning of all understanding.
Jim Clatfelter (2000) Words and names are not the way They can’t define the absolute It’s better that you look within Hold your tongue and just be mute	徐英才（2014） A dao that is definable is not the eternal Dao. A name that is assignable is not the eternal name. “Nonexistence” is named for the genesis of heaven-and-earth；

3) http://blog.sina.com.cn/s/blog_bf355baf0102v7pe.html

Look within and look out too You will not find a separation Out there you see appearance Within you see origination Look within with wonder At emptiness and bliss For wonder names totality Where nothing is amiss The space within is always there If you can moderate desire A place of utter emptiness And possibility entire	“Existence,” the mother of all beings. Hence, through constant meditation on nonexistence, we can see its secrets. Through constant observation of existence, its manifestations. These two, although given different names, are of the same origin. They are both mysterious-- So mysterious that they can serve as the gate to the secrets of all.
许渊冲（2003） The divine law may be spoken of, but it is not the common law. (Truth can be known, but it may not be the well—known truth.) Things may be named, but names are not the things. In the beginning heaven and earth are nameless； When named, all things become known. So we should be free from desir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nal mystery of the divine law； And we should have desires in order to observe its external manifestations. Internal mystery and external manifestations Come from the same origin, but have different names. They may be called essence. The essential of the essence I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all mysteries.	辜正坤（1995） The Tao that is utterable Is not the eternal Tao; The name that is namable Is not the eternal Name. The Nothingness is the name of the beginning of heaven and earth; The Being (substance) is the name of the mother of all things. Hence one should gain an insight into the beginning of the Tao by constantly observing the Nothingness, And should perceive the end of the Tao by constantly observing the Being. These two things, the Nothingness and the Being, are of the same origin but different in name. They are both so profound as to be a key to the door of myriad secrets.

再来看韩文的翻译

例1 동양고전연구회[5]	例2 남만성 옮김[6]	例3 김원중 옮김[7]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따라서 항상 욕심이 없는 것으로 묘를 보고, 항상 욕심이 있는 것으로 그 교를 본다. 이 둘은 같이 나왔으나 이름을 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런 까닭에 상무(常無)에서 그 지극히 미묘한 것을 보고자하고, 상유(常有)에서 그 귀착을 보고자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이름 지어질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없음(無)은 천지의 시작을 이름 짓는 것이고, 있음(有)은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없음으로 그 미묘함을 보고자 하고, 영원한 있음으로 그 귀결점을 보려고 한다.

4) https://ttc.tasuki.org/display:Code:gff,sm,jhmd,jc,rh/section:meta

리하며, 한가지로 일러서 현 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한 것이 중묘의 문이다.	한다. 이 유(有)와 무(無) 두 가지는 "같은 것"에서 나와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 '같은 것'을 유현(幽玄)이라고 한다. 유현하고 또 유현하여 모든 미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하므로 그것을 함께 현묘함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미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例4 탁양현 옮김[8)]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텅 비우면 그 현묘함을 보고, 욕심을 꽉 채우면 그 드러남을 보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은 동일한 곳에서 나왔지만 그 이름이 다른데, 모두 동일하게 '현'이라고 일컫는다. 현묘하고 또한 현묘해서 온갖 것들이 들고나는 문이다.	例5 이태영 옮김[9)]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 이름하며 유는 만물의 어머니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항상 무에서 도의 오묘한 본체를 보아야 하며, 항상 유에서 도의 드러난 작용을 보아야 한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무와 유로 이름이 다르다. 그렇지만 둘 다 현묘하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오묘한 삼라만상이 나오는 문이다.	例6 신철하[10)] 도를 개념화하게 되면 그 순간 도는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어떤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이름의 본래 의미는 퇴색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도(無名)에서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덕(유명)이 만물의 모태가 됨을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욕으로 내밀한 속(세계)의 묘함을 응시하고, 유욕으로 그 현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양자는 한 몸으로, 각각 다르게 호명되었을 뿐이다. 원래의 그 같음을 사람들은 현묘(여성성)하다고 말하는데, 온갖 신비한 것들이 태어나는 생명의 자궁 역할을 한다.

韩文译文，最明显的特点是至少可以借助汉字来把自己翻译解释阐释的内容再用括号加注。这样可以从韩文和汉文两方面进行理解。同时韩文的翻译也和中国的白话文翻译一样，各有千秋。韩国人对于'道'的翻译，并不像英文那样要斟酌。只要用"도"一个字来表达就可以了，大家都明白。但是韩语翻译时如果完全照翻汉字，就会出现意思不明确的现象。比如例1东洋古典研究会翻译的，욕심이 없는 것으로 묘를 보고, 항상 욕심이 있는 것으로 그 교를 본다. 就没有把"妙"和"徼"表现出来。例2中，尽管用韩语也不难理解"常无"、"常有"，但是译者直接借用了原文，并没有把它们翻出来。看来韩国译者语对于"玄"和"妙"的处理还是不够深入，基本都有"玄"和"妙"的直译方式来处理的，例2用的是"幽玄"。英文译者认为"玄妙"是"darkness"。比较这六个例文，笔者觉得例4翻译的比较好。与原文的句式一致，韩语表达朴实自然，让读者一读就能懂。

例6是一个非常大胆的翻译和阐释。他是从女性主义的视角来解释第一章的内容的。笔者试翻大意如下：把道概念化的瞬间，道就丧失了原来的意义。把名字呼出来的瞬间，那个名字所具有的原来的意义就会褪色。这即是说从道（无名），世界已经开始存在，从德（有名）开始，德已经成了万物的母胎。所以以无欲可以凝视到里（世界）的奥妙，以有欲来理解现象的道理。最终这两者同出于一身，只是各自有不同的名称罢了。原来

5) http://preview.kyobobook.co.kr/epubPreviewPopup.jsp?type=web&barcode=4808991168398&search=Y

6) 남만성 옮김, ≪노자 도덕경≫, 서울, 을유문화사, 2015년 7월 25일。

7) 김원중 옮김, ≪노자 도덕경≫ (버려서 얻고 비워서 채우는 무위의 고전).

8) 탁양현 옮김, ≪트와이스 라오쯔 여행자≫。https://books.google.co.kr/books?id=DONjDwAAQBAJ&printsec=frontcover&source=gbs_atb&redir_esc=y#v=onepage&q&f=false

9) 이태영 옮김, ≪노자≫, 2008。https://books.google.co.kr/books?id=HUFXBQAAQBAJ&printsec=frontcover&hl=zh-CN#v=onepage&q&f=false

10) 신철하 지음, ≪노자와 에로스≫, 서울, 도서출판 삶창, 2016년 11월 29일。

的那个“同”，人们叫玄妙（女性性），可以说是所有神秘的事物出现的生命的子宫。

尽管收集资料很辛苦，读不同的文本也很累，但是读到像例6这样的文本时，还是不觉一震，原来≪道德经≫还可以这么阐释。国内也有学者用“概念”这个词儿来翻译第一句话。例6的好处是在翻译的基础上大胆加上了自己的理解。这也很好地说明的外国人对于中国古典的翻译理解态度。就是不局限于字面，而是充分自由展开想像的翅膀，在理解原文的基础上大胆地加以理解表述，这或许就是通过读外文译者的翻译重新回味经典的益处吧。读韩文的译文时，我们可以发现有不少的译者都主张不要过于受字面的影响，而是要找到字里行间所蕴含的真正意义。

成玄英和王弼注的译本也都有韩文的翻译。这两个版本确实是以汉语为母本的。但即便是这样，韩文的译文还是有很多发挥的地方。因为不做解释，不进行发挥，是无法对原文进行翻译的。同时也课看出，翻译也完全是以译者的理解为基础，以他的表达为结果的。韩译本对于成玄英的≪老子义疏≫中“玄之又玄”的翻译，比较特别。“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11]可以说与上面所举的几个例子完全不同。对于王弼注的≪道德经≫，韩文版对“故常无欲以观其妙；常有欲以观其微”的翻译很仔细，但是比较拗口。“그러므로 항상‘어떤 것도 하고자 하는 것이 없음’[無欲]에서는 그것으로 ‘사물이 시작되는 미묘함’[妙]을 살펴서 헤아리고, 항상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有欲]에서는 그것으로 ‘사물이 되돌아가서 끝나게 되는 종결점’[徼]을 살펴서 해아린다.”[12]这个翻译版确实把“妙”和“徼”翻出来了，但是不太好理解。忠实于原文了，反而不好懂。还有一个韩文版本对于“众妙之门”是这么翻的。“‘도’는 온갖 오묘한 조화들을 다 만들어 내는 문인 걸까요?”[13]用问句的形式，“‘道’难道是创造出所有奥妙的调和（协调）之门吗？

看来，从某种程度上看，翻译也和“道”和“名”一样，你可以翻，但是翻译出来后，肯定与原文不同。可是你又不能不翻。总不能希望老外都去学古文吧。同时也不能对古典的外文翻译要求太苛刻。我们做翻译对比研究，特别是对于经典的翻译研究，最终目的并非要指出谁对谁错，而是通过对比研究，借鉴人之长，补己之短。

参考文献

동양고전연구회 엮음, ≪한눈에 익히는 노자도덕경≫, 서울, 나무외 꿈, 2012년 3월 20일。
辜正坤，≪老子道德经(译)≫，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8。
许仲渊，≪英汉对照老子道德经≫，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3。
Arthur Waley, *Tao Te Ching*, Wordsworth Editions Ltd, 1997。

11) 최진석・정지욱 함께 풀고 옮김, 성현영成玄英 지음, ≪노자의소老子義疏≫, 서울, 소나무, 2014년 1월 24일。
12) 김학목 옮김,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년 05월 30일。
13) 문성재 옮김, ≪처음부터 새로 읽는 노자 도덕경≫, 서울, 책미래, 2014년 9월 3일。

翻译、传教与本土化：晚清小说≪五更钟≫研究

左维刚*

<目　录>

1. 文本源流
2. 上帝：从“大爱”到“仁爱
3. 地上乐园：从“基督徒聚集区”到“平安村”
4. 艺术：从“完成上帝旨意”到“改良社会”
5. 爱情：从“上帝旨意之爱”到“男女平等之爱”
6. 死亡：“欢乐之死”到“大义之死”

1. 文本源流：从Marchez pendant que vous avez la lumière 到≪五更钟≫

≪五更钟≫是一部重要的汉语基督教小说，[1] 共二十四回，约十万字，在二十世纪初期影响较大，“曾行一时”[2]。该小说首次连载于≪通问报≫，1906年底已经连载完毕。1907年由美华书馆首次单行本出版发行，之后近三十年间，再版次数多达15次之多。[3] 小说当时享誉海内外，实为华人基督教界畅销书，有“天路阶梯”“中国之新≪天路历程≫”“传道于华人唯一之利器”之称。[4]

≪五更钟≫也是一部翻译小说，由亮乐月(Laura White，1867—1937年)命意，陈春生（1867－1940）编辑，前者为在华美国著名女传教士，[5] 后者为晚清民国著名基督教著作编译人、基督教报人、基督教领袖、电影人翻译。[6] 经考证，≪五更钟≫底本为俄罗斯列夫・托尔斯泰中篇小说 Marchez pendant que vous avez la lumière（法语，意为“有光的时候继续行走”），[7] ≪五更钟・序≫提到原文“乃俄罗斯人之手”,且北长老会著名传教士甘路得（J.C.Garritt）在≪五更钟≫的Preface中提到“毫无疑问，这是因为，亮乐月女士读了托尔斯泰的

* 中国平顶山学院

1) 亮乐月、陈春生：≪五更钟≫（上，下），上海美华书馆，1909。

2) 朱维之：≪基督教与文学≫，吉林出版集团有限责任公司，2010，第304页。

3) ≪五更钟≫版本考，参吴淳邦：＜晚清小说陈春生的＜五更钟＞考究＞，≪中国语文论译丛刊≫2014第35辑，第198-200页。

4) ≪＜五更钟＞之新介绍≫(未标注作者），≪通问报≫1910年第323期，第1页。

5) 朱静：≪清末民初外国文学翻译中的女译者研究≫，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2007，第158-164页。

6) 左维刚，＜清末民初基督教作家陈春生生平及著述考＞，≪中语中文学≫，2019年第78辑，第51-73页。

7)Толстой Л. Н. *Ходите въ свѣтѣ пока есть свѣт: Беседы язычника их ристианина: Повѣсть изъ временъ древнихъ христіанъ графа*(Geneve：M. Elpidine，1892). 该书有多语种的不同版本，其中目前可靠的几个英语版皆为对原著的直译。参考，左维刚，≪陈春生基督教译述小说≪五更钟≫研究≫，崇实大学博士学位论文，2016，第25-31页；其中，2005年由太白文艺出版社出版的≪萧乾译作全集——托尔斯泰中短篇小说选≫收录了≪有光的时候继续行走≫，该篇则是根据托尔斯泰原著的英文译本全文直译，底本为托马斯・Y・克劳韦尔公司于1899年出版的≪＜漫长的流放＞及其他故事≫（The Long Exile and Other Stories，Copyright1899,by Thomas Y.Crowell and Co.)。笔者不熟悉俄语，故已≪有光的时候继续行走≫作为作为探讨原著的依据。另，韩国译本为≪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该译本为조병준由英译本转译，以Orbis Books 公司2003年重 印的Walk In The Light and Twenty-Three Tales作为底本翻译.参见 톨스토이著，조병준譯，≪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샘솟는 기쁨，2013. 而该英文译本由 Louise and Aymer Maud于1928年由俄语翻译，参见：Lyof Tolstoi，translated by Louise and Aymer Maude，Walk In The Light and Twenty-Three Tales，Oxford University Press，1928，p.1.

Marchez que vors avez la lumiere 意为'Walk While the Day Lasts '时候，此书对于中国教堂的许多方面的巨大价值给她留下了印象深刻。"[8] 这里明确说明亮乐月所接触的读本为*Marchez que vors avez la lumiere*。"Marchez que vors avez la lumiere"为法文，大意为"有光的时候继续行走"。据查证，1891年法语译本已经出版[9]，另根据托尔斯泰的经历，"托尔斯泰大约于1886年写有小说 *Walk in the light While There is Light*（英语，意为"有光的时候继续行走"），并首次于1890年用英语出版，后于1892年用俄语由Elpidin出版"[10]，可见，托尔斯泰虽于1886年写成此书，然首次于1890年以英文版出版，之后1891年法语版出版，俄语版则为1892年出版。

西方传教士及其华人合作者，要想把西方基督教作品移植到中国的文化土壤里，必定跟中国的历史与文学传统接轨和对话，而从原著*Marchez pendant que vous avez la lumière*到≪五更钟≫，正是这一传教、翻译与本土化的过程。原著为中篇小说，分为十章，讲的是主人公尤里叶斯起起伏伏、经历众多，五次警醒，最终踏上"天路"，信奉耶稣的故事。亮乐月阅读法语版之后，为陈春生提供故事梗概，陈春生则以此为蓝本进行了改写，[11] 根据自己编写计划，发挥了很大自主性完成作品，采用了彻底的中国化书写方式，使小说很难找出翻译小说的影子。[12]

≪五更钟≫与托尔斯泰原著关联性的确定，也使得≪五更钟≫作为新发现的托尔斯泰在华早期汉语译作的重要文本意义变得更为清晰。1900年上海广学会的≪俄国政俗通考≫介绍了托尔斯泰，称其"生平得意之书，为≪战和纪略≫一编，备载1812间拿破仑伐俄之事。俄人传诵之，纸为之贵"[13]，这是托尔斯泰的名字于中国首次被提及。而对于托尔斯泰早期作品在华译介，一般认为，1907年德国传教士叶胜道（Immanuel Gottieb Genahr)和中国麦梅生（润色）根据贝恩（Nisbet Bain）的英译本 *Tales from Tolstoi*翻译出版的≪托氏宗教小说≫为托尔斯泰的最早中译，该小说集共收小说12篇。不过该小说集单行版出版之前，当中已有数篇于1906年以前就零散地在国内的一些刊物上发表了[14]。2015年杨俊杰则撰文对托尔斯泰文学作品最早中译作了系统论述，指出托尔斯泰最早中译是由英国传教士狄益华（Ernest Francis edye）翻译，出版不晚于1900年的≪诚实敬神论≫与≪解仇良法≫[15]。另≪列·托尔斯泰小说系年总目≫中，第285条写"乘有光，向着光明走（古代基督徒的故事）（1886-1890）"[16]，对于托尔斯泰这一小说，草婴译本并未收集，1991年文艺出版社出版的≪列·托尔斯泰小说故事总集≫收录了≪乘着光，向着光明走≫，不过收录部分是由许海燕缩写而成，与原著比较，篇幅大大减小，只保持故事基本框架。2005年由太白文艺出版社出版的≪萧乾译作全集——托尔斯泰中短篇小说选≫收录了≪有光的时候继续行走≫，该篇则是根据托尔斯泰原著的英文译本全文直译。[17] 而相比以上译本而言，1907年以单行本首次出版发行的小说≪五更钟≫，则是西方传教士与华人以托尔斯泰的小说原著为底本联袂译述而

8) 亮乐月、陈春生，≪五更钟≫（上），第1页。

9) Leon Tolstoy. *Marchez pendant que vous avez la lumière—— Récit du temps des premiers chrétiens*[M], Paris：Alphonse Lemerre, 1891.

10) Donna Tussing Orwi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olstoy*[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26.

11) ≪五更钟≫成书过程，参左维刚、吴淳邦，＜晚清小说陈春生的≪五更钟≫考究＞，≪中国语文论译丛刊≫，2014年第35辑，第198-200页。

12) 笔者已从书名、主题、环境与人物塑造、故事情节及叙事模式等 面，详细探讨了陈春生对托尔斯泰经典的重构改编。见左维刚、吴淳邦，＜托尔斯泰经典的重构改编：陈春生陳春生≪五更钟≫的本土化译述策略研究＞，≪中国小说论丛≫第44辑，2014年12月，第213-242页。

13) 陈建华，≪二十世纪中俄文学关系≫，上海学林出版社，1998，第39页。

14) 戈宝权，＜托尔斯泰和中国＞，≪上海师范大学学报（哲学科学版）≫，1981年第1期，第43页。

15) 杨俊杰，＜托尔斯泰和狄益华——也谈托尔斯泰文学作品的最早中译＞，≪俄罗斯文艺≫，2014年第4期，第147-154页。

16) 托尔斯泰，≪列·托尔斯泰小说故事总集≫，上海文艺出版社，1991，第735页。

17) 托尔斯泰著，萧乾译，＜有光的时候继续行走＞，≪萧乾译作全集，托尔斯泰中短篇小说选≫，太白文艺出版社，2005年，第431页。

成。该译本的发现，将托尔斯泰该小说的中国译介时间提早了近百年，这也为托尔斯泰在华早期译作研究提供了很好的文本。

2. 上帝：从“大爱”到“仁爱”

托尔斯泰的基督教思想中蕴含着人类的大爱，他认为基督教徒可以用爱来作为追寻上帝的意旨的方法，基督教徒都遵循上帝爱世人的教义，认为自己作为上帝的儿女也应该学习上帝去爱世人。≪有光的时候继续行走≫指出，基督教徒相信爱可以让人类变得幸福，帮助别人找到幸福就是帮助自己幸福。小说中，基督徒潘菲路斯在与尤利叶斯的第一次对话中谈到：“人生的幸福不在于追求快乐，而在于完成上帝的旨意，丝毫也不享受或渴望快乐”、“幸福存在于爱”、“去实践爱人类那条法则”、“只有为别人谋得幸福，我们自己才会幸福，而且我们致力于谋求这种幸福；全人类只有和睦相处，才能获得幸福”。基督徒为寻找幸福而跟随上帝，他们认为幸福是从对人的爱中产生的，这就与上帝爱人类是相同的道理，基督教徒也应该践行爱人类这一准则。托尔斯泰倡导人类之间的大爱，不承认暴力，因为基督教徒所奉行的“爱人类”本质上便是不承认暴力：“敬爱上帝 、崇拜上帝绝不是形式主义化的基督教仪式的表演，而是获得基 教精神道 的神髓，它的核心就是 “勿以暴力抗恶 ”，其暗含的思想是用仁慈和爱来改造罪恶。因为奠基于上帝之爱的基础的真正的德性是仁慈而非正义。”[18] ≪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尤利叶斯与潘菲路斯的第二次对话中讲到，基督教徒否认暴行，如果有人用暴力来对待基督教徒，他们是不会反抗的，并借潘菲路斯之口讲出基督教徒的信仰：“我们的信仰告诉我们，给我们带来利益的不是暴力，而是逆来顺受；不是狂怒，而是放弃一切。”[19] 托尔斯泰“勿以暴力抗恶 ”的思想主要是针对当时沙皇暴力而已，抗议沙皇专制制度执行死刑和对人民的镇压而言，有其合理性，这种否认暴行的人类大爱在清末内忧外患的社会环境中自然是不切中国实际。

托尔斯泰所倡导的人类大爱与儒家“仁爱”思想有着相似的内涵：“他们都关怀民众，主张‘博爱’。主张实施仁政，反对暴力革命，反对以武力解决社会问题。”[20] 同时，陈春生在改编≪五更钟≫时结合中国重“儒”的传统，在信仰上帝的基础上与儒家思想结合起来，使得上帝之大爱尽显仁爱之心。

3. 地上乐园：从“基督徒聚集区”到“平安村”

≪圣经・创世纪≫的伊甸园被视为人类最初的理想，≪有光的时候继续行走≫将这一地上天国叙述为“基督徒聚集区”，≪五更钟≫则将其描述为“平安村”。前者的世界里，人类皆为上帝之子，百姓也可以与凯撒平起平坐，且反对私有制。而后者，相比君臣军民的平等，则更侧重男女的平等，且弱化“轻君”，强化“爱国”。

≪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主人公尤利叶斯与父亲产生矛盾后，寻找好朋友基督徒潘菲路斯所言的基督教徒聚集区，途中遇一中年陌生人。小说借此人之口讲出基督教徒蔑视权贵，不屑于俗世所牵扯，生活在他们构建出的理想国中。另，潘菲路斯与尤利叶斯与对文学艺术进行辩论时指出：“你们为了纪念最有权势、最残忍的暴君而竖立雕像，但是谁也不崇敬他，人人对他心怀恐惧。”[21] 可见，在基督徒潘菲路斯眼里，君主是被批判的对象，在小说里面的时代，罗马军队的保护是不需要的，上帝给予他们的幸福是依靠自己的力量来维护而不是统治者的暴力行为。

托尔斯泰倡导平等，这种平等是人类的平等，他认为每个人都是上帝的儿子，“所有遵守圣训的人都是‘上

18) 高玉秋、付天舒，＜宗教伦理观的文学述说＞，≪世界文学与比较文学（社会科学战线）≫，2011年第11期，第130页。

19) 托尔斯泰著，＜有光的时候继续行走＞，第320页。

20) 郭和英，＜中国传统文化思想对托尔斯泰道德观的影响＞，≪文化学刊≫，2016年8月第8期，第234页。

21) 托尔斯泰著，＜有光的时候继续行走＞，第318页。

帝之子”"[22], 在上帝面前人类是没有区别的。≪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尤利叶斯与好友潘菲路斯会面谈论婚姻问题时, 潘菲路斯讲到在天父面前人人平等, 人们的地位、肉体、素质等是平等的：“根据我们的教理, 在天父面前人人平等。因此, 在我们眼里, 人们的地位也好, 精神上, 肉体上的素质也好, 都是平等的。”[23] 当潘菲路斯为被捕的基督教徒请愿时讲到, 基督教徒认为人人平等并妄图与凯撒平起平坐。

小说里体现的这种“轻君”思想, 是与当时较为宽松的民主政治氛围有关系。而就中国而言, 虽孟子一度提出“民贵君轻”之说, 但纵观中国历史, “重君忠君”思想根深蒂固。[24] 陈春生1902年开始根据亮乐月提供的托尔斯泰底本开始改编≪五更钟≫, 此时正值清末, 封建王朝随逐渐衰退, 但君王思想仍很强大, 占据绝对统治地位, 在这种背景下, 直译原著的“轻君”思想, 显然行不通, 陈春生则在托尔斯泰“轻君”的基督教思想中加入中国古代君臣文化中的“爱国忠君”思想。

4. 艺术：从“完成上帝旨意”到“改良社会”

≪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 尤利叶斯与潘菲路斯的第二次对话, 论证了艺术科学与宗教的关系。基督徒潘菲路斯指出, 基督教徒非常看重艺术和科学, 即使基督教徒忙于劳动, 身体变得疲累不堪, 艺术和科学在基督教徒的生活中仍旧占有很大比重。还指出, 艺术与科学是人天赋的一部分, 掌握这部分天赋是基督徒完成上帝旨意的方式。相比之下, ≪有光的时候继续行走≫注重的“艺术和科学”, 在≪五更钟≫中已变更为“文学”。≪五更钟≫注重反对八股、讲求文学, 提倡实学, 使小说内容突破了纯粹基督教小说的范围, 体现了编译人陈春生的社会改良的追求。“19世纪的基督教中文小说, 就是在对≪圣经≫片段的重复和改写基础上, 重构了一个具有现实处境意义的文本系统。”[25] 二十世纪初广受欢迎基督教中文小说≪五更钟≫也同样既展现≪圣经≫底蕴又极富晚清中国的现实处境意义。晚清社会中国社会急剧转型, 这一时期小说家们积极关注各种社会问题, 从不同程度上揭露了清朝败落的种种社会问题。小说≪五更钟≫标注为“改良社会小说”, 翻译人陈春生受到了西方思想, 同时深受传统思想的影响, 怀着知识分子的良心, 将原著强调的科学艺术换为“文学”, 视为社会改良的重要手段。

5. 爱情：从“上帝旨意之爱”到“男女平等之爱”

≪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基督教徒的婚恋习俗不排斥肉欲的发生, 他们认为肉欲是一种本能, 只不过这种肉欲是要建立在互相尊重、互相爱慕的基础之上, “肉欲也是一样, 只有建立在人与人互相尊重、互相爱慕上, 才是合法、明智而持久的”[26], 就结婚而言, “基督教徒只有当他和一个女人的结合不会给任何人带来痛苦的时候, 才会结婚。”[27]。从婚恋观中表现出的是一个理想化的社会, 他们倡导肉欲发展为手足之情时, 才能够成立基督教的婚姻, 这与晚清中国现实社会的婚恋观有很大的距离。古代中国的婚恋习俗中女子多未成年便要成为人妇, 且在婚姻中多无选择权, 成为人妇之后还要遵守“三从四德”, 一夫多妻多较常见。陈春生结合中国的婚恋观对≪有光的时候继续行走≫进行了改编。≪五更钟≫中基督徒对于爱人的要求在一定程度上隐含着孔子的“智仁勇, 三达德”：热心奉道, 仁之端也；天然大足, 勇之端也；知书识字, 智之端也”。基督徒如果以外貌、

22) 吴琼, ＜俄罗斯罗扎诺夫与列夫・托尔斯泰的“新宗教”思想研究＞, 第41页。
23) 托尔斯泰著, ＜有光的时候继续行走＞, 第311页。
24) 江荣海, ＜孟子“民贵君轻”思想述评＞, ≪齐鲁学刊≫, 1984年第5期, 第35页。
25) 黎子鹏：＜晚清基督教小说<引家当道>的圣经底蕴与中国处境意义＞, ≪圣经文学研究≫, 2011年第5期, 第94页。
26) 托尔斯泰著, ＜有光的时候继续行走＞, 第312页。
27) 托尔斯泰著, ＜有光的时候继续行走＞, 第314页。

金钱，或者以迷信的算命来判定婚姻是否幸福，就不是追随上帝完成上帝的意旨。陈春生在≪五更钟≫中也为读者设定了理想的基督徒“爱人”形象——掌珠。掌珠这一人物，在≪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这是一个“信基督教的寡妇的女儿”，陈春生创造性改编，将其化名为掌珠。[28] 第一，“德”，信耶稣。掌珠，与庞凤兮同住平安村，且她家人也皆为基督徒，对基督教有忠实的信仰；第二，“体”，不能裹脚，身体健康。掌珠有一双天然大脚，可以帮助家人劳动，能卖葡萄，在女学堂积极参与体育运动，身体强健，事可以成为很好的以成为“贤内助”“爱人”；第三，“智”，有文化。掌珠已经取得了中学文凭，并且继续在学堂里读书，可见其有足够的“智力”养育子女。这里，掌珠这一理想的爱人形象既符合基督教徒对于爱人的要求，也符合儒家理想的“爱人”形象，“德育、智育、体育三者具备，可算是基督教女性的楷模”。[29]

6. 死亡：“欢乐之死”到“大义之死”

≪有光的时候继续行走≫中当基督教被当局政府迫害时，潘菲路斯对其好友尤利叶斯说道：“我替被捕的基督教徒请愿的目的，不是为了使他们能够免除审判和死刑，而是希望当局容许他们公开表明自己的信仰。”[30] “肉体的死亡终归是不可避免的，马上到来也罢。死亡正可以摆脱恐怖，是充满欢乐的。”[31] 小说中，在罗马帝国派了一名特使到西里西亚来消灭基督教信仰，潘菲路斯所在的基督教聚居区面临被迫害的危险，然后，在基督教徒潘菲路斯心中，对基督的信仰比生死更加重要，他们愿意得到死亡的结局，只要死亡之前能够表达自己的信仰。他们认为，死亡可以摆脱恐怖，是充满欢乐的。另，肉体与精神在基督教徒的思想中是分开的，肉体的死亡是人生中终究要迎来的一个步骤，精神与信仰却在一代又一代的基督教徒中延续，这使得死亡也变得欢乐起来。

≪五更钟≫中，当局反对基督教迫害基督徒时，林九如与庞凤兮的对话中表现出陈春生改编后的基督教徒的生死观：“人生在世，百岁是死，十岁也是死，三岁、两岁也是死。刀锯是死，疾病也是死。多活几年，少活几年，算得甚么？惟不可离弃主道，便是了。”[32] 作为基督徒的庞凤兮面对死亡时，信仰重于生死的态度，也是在托尔斯泰对死亡认识基础之上，加入中国的“义”的元素，用中国传统的思想文化将基督教文化潜移默化，不仅表达出仁义至上的生死观，也将基督教徒放在了比生命更重要的一个标准之上。

小结

晚清小说有创作，有翻译，也有一种小说非创作，也不同于翻译，这些小说有原著参考，但书写者是根据自己主观意识改写，并使其符合中国文学习惯，这种介于创作与翻译间的小说改写方法就是译述。由前文分析可知，≪五更钟≫正为此类翻译小说。且目前可查证的≪五更钟≫多个版本，或标为“美国亮乐月命意，润州陈春生编辑”，或“亮乐月著，陈春生述”，或“亮乐月著，陈春生编译”，或“陈春生编辑”，显示了两译者的合作，同时“译”“编译”“编辑”用词的选择，可见出≪五更钟≫成书并非对原著的直译，而是改写演绎居多。≪五更钟≫的译述过程，体现了亮乐月及其合作人陈春生本色化的传教策略，及面对中西两种异质文化冲突时的取舍态度。在争取信徒追求天路过程中，把托尔斯泰原著较符合当时中国国情的部分拿来改写并移植到中国，在通俗

28) ≪五更钟≫登场人物与原著人物对照，参考左维刚，吴淳邦，＜托尔斯泰经典的重构：陈春生≪五更钟≫的本土化译述策略研究＞，第229页。

29) 左维刚、吴淳邦，＜陈春生五更钟的基督教视角解读＞，第152页。

30) 托尔斯泰著，＜有光的时候继续行走＞，第333页。

31) 托尔斯泰著，＜有光的时候继续行走＞，第334页。

32) 亮乐月、陈春生：≪五更钟≫（下），第43页。

生动的小说与枯燥的教义宣讲之间找到了平衡点。托尔斯泰原著的宗教性及翻译者的意识形态操作使得≪五更钟≫带有浓厚的宗教色彩，但译述过程中又突破原著主题藩篱，试图唤起中国读者对国家民族的关照，以图“改良”来疗救病入膏肓的晚清中国，在翻译的过程中完成了对托尔斯泰原著宗教诉求的超越。

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女真记忆”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形象研究

鄭殿輝*

<目　次>

1. 引言
2. 影片中的满族人形象特征
　2.1 恃强凌弱的王族形象
　2.2 丑陋少文、善战残忍的兵将形象
3. 韩国叙述传统中的“女真记忆”
　3.1 韩国神话传说中的满族人形象
　3.2 ≪高丽史≫中的满族人形象
　3.3 使行文学中的满族人形象
4.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人形象
5. 结语

1. 引言

历史题材电影是韩国电影中非常重要的类型之一，这与韩国电影注重描述历史和表达民族情感无不关系。进入21世纪以来，韩国历史题材电影的产量有明显的增加，题材也更为多样化，不过从整体来看，古装片鲜有上佳表现。然而，一部分描述外族干政、入侵的古装片却是例外，如2011年上映的≪最终兵器：弓≫便是典例，不仅饱受赞誉，而且位居年度票房排行榜次席，成为当年口碑和票房双赢的国产影片。无独有偶，2017年上映的≪南汉山城≫同样获得了观众的高度认可，并取得了不俗的票房表现。这类历史题材电影讲述民族历史，再现民族记忆，承载着特有的韩民族精神，因此在注重表现民族情感的韩国电影格局中，也占有重要的一席之地。作为民族抗争的对象，外族形象自然是影片不可或缺的一部分，而这个作为他者的外族形象，几乎都是由中国来充当的。

中国与韩国地缘相近、一衣带水，拥有悠久的民族交流史，中国自然成为韩国政治、经济和文化中的一个重要主题。在神话传说和朝鲜使臣所撰写的使行文学中，满族人形象不断被再现，逐渐形成了韩国语境下满族人的定型化书写。这种定型化的书写，对韩国后世文学作品及影视创作中满族人形象的塑造产生了最直接的影响。纵观21以来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满族人形象，其外貌和性格特征还是比较典型的，外貌丑陋可憎，性格悍勇残忍，这类满族人形象几乎成了所有相关历史题材电影的常规操作。本文将以≪天军≫、≪神机箭≫、≪最终兵器：弓≫、≪南汉山城≫为例，分析影片中的满族人特征，并尝试溯源韩国语境下的满族人形象书写的源头，运用原型理论，试探寻韩国叙述传统中满族人形象的“夷狄”原型，并尝试论证口传文学、历史文献以及影视创作中的满族人形象都是“夷狄”原型的置换变形。

* 聖潔大學

2. 影片中的满族人形象特征

韩国历史题材电影中的满族人形象，主要可以从两方面来分析，即丑陋少文、残忍善战。

2.1 丑陋少文

影片中满族人形象的第一个典型特征是丑陋少文。影片中的满族人大都身着奇装异服，薙发垂辫，完全是一副尚未开化的野蛮人装束。女真族是典型的狩猎民族，常常穿着动物毛皮做成的皮甲大氅，这一点在影片中也有具现，个别影片还故意丑化了侵略者的形象，如≪神机箭≫中的女真族长头的一侧有环状的刺青，≪最终兵器：弓≫中的兵长是个独眼龙，有的士兵飘着奸佞的八字须，有的脸上带着刀疤，有的是哑巴，相貌有缺陷者居多，大多丑陋可憎。“少文”是指不懂礼教、没有文化教养。几部影片描写满族人“少文”、“少礼”，是与朝鲜民族的“重文崇礼”对比描述的。如≪最终兵器：弓≫中，八旗士兵上下级间、将领见到皇太子时，也只是略微低头行礼而已；而西君（金武烈 饰）作为弟弟，是跪求南伊把妹妹嫁给他的，因为南伊是妹妹慈仁的家长，父亲不在，“长兄为父”，也正因如此，西君的母亲也必须正式向南伊请婚。此外，西君在父亲面前毕恭毕敬，犯错后和南伊一起跪地接受父亲责罚，南伊拼死闯敌营救妹妹，都是对父亲临终前嘱托的践行，这都是儒家伦理纲常的具体体现。

2.2 残忍善战

≪天军≫和≪神机箭≫在描述满族军队的作战能力时，有意抑敌扬己，没有正面描述满族军队的作战能力。女真族以“战马”和“骑射”闻名于世，“女真人统一东北并进而逐鹿中原，主要是以‘弧矢定天下’作为女真人的‘武功’，‘弧矢定天下’为历代满族帝王所倚重。”女真人的铁骑和箭术在≪最终兵器：弓≫中被正面呈现。几部影片除了表现战场上满族士兵的残忍以外，还用杀戮无辜平民、弒杀临阵脱逃士兵的情节，表现了满族士兵的残暴本性。≪天军≫中女真部族侵扰边境，大肆杀害手无寸铁的平民百姓，残忍的女真武士投掷长枪，刺死了逃跑的小女孩。这种灭绝人性的情节在≪最终兵器：弓≫中亦有表现，押解朝鲜民众的清军独眼龙将领，鼓动被压送的民众逃跑，然后像狩猎一样追杀逃亡的民众，老人、妇女、孩童，多数惨死在清军挥舞的大刀和投掷的长枪之下。影片开头清军攻入城中，百姓们有的在舂米、有的在院子里抽烟，结果都被飞来的套马索掳走，妇女怀抱的婴儿被扔入井中，反抗的百姓悉数被杀。满族人的残忍还表现在对待自己的士兵身上，军队具有严格的作战纪律，作战时，临阵脱逃的士兵常常会被处以极刑。

韩国历史题材影片中满族人相貌丑陋、野蛮少文、残忍善战的形象，体现的是韩国电影基于历史文化背景对满族人的“社会集体想象”，这种社会集体想象可以追溯到早期的口传文学，从朝鲜使行文学开始，逐渐形成牢固的、定型的他者认知，这个他者形象实际上是朝鲜人同满族人漫长的交往历史中无数次典型经验的积淀与浓缩。

3. 韩国叙述传统中的“女真记忆”

3.1 韩国神话传说

韩国神话传说中有很多关于女真始祖和努尔哈赤等满族人形象出现，这与历史上朝鲜民族与满族活动地域相连、历史纠葛复杂有很大关系。在北韩咸镜北道图们江沿岸地区，流传着许多关于女真人始祖的传说，其中≪奥琅开传说≫（오랑캐설화）的内容就是女真人的始祖是长着五睾丸的奥琅犬和江边洗衣服的姑娘所生，所

以其子孙后代被称为奥琅开（오랑캐）。此外，还有许多关于女真始祖是狗和人所生的传说，在狗成为皇帝驸马的女真人始祖传说中，妻子发现男人白天为狗，晚上变成人的事情后，男子永远不能摆脱狗形。这类传说很容易使韩民族联想到满族人“薙发垂辫”的习俗，脑门头发剃光，脑后留有长发，认为是为了珍藏女真先祖行迹的做法。无独有偶，≪清太祖传说≫也将清太祖描绘成妖物和女人所生。由此可见，在图们江沿岸朝鲜民族传说中出现的女真始祖和努尔哈赤形象，都是被赋予了意识形态色彩的负面形象。

3.2 ≪高丽史≫中的满族人形象

有学者认为≪高丽史≫是朝鲜朝语境中的满族人形象描写的源头，≪高丽史≫中的文本在描述满族人形象方面就存在这种构造后来者塑造满族人形象时所因循的最初的方向性，并且这种方向性始终制约着他们对满族人的阐释意向。在≪高丽史≫中，有很多描写女真人形象的文句,这些关于女真形象的描述都是负面的，“异类”说明了高丽王朝眼中，女真族是跟自己完全不同的，“人面兽心”、“夷獠”、“狼”、“犬”都将女真族描述成为尚未开化的野蛮族群。

3.3 使行文学中的满族人形象

使行文学是世界文学史上的特殊体裁，主要是朝鲜使臣访问邻国以后写下的旅游笔记，现在有关中国的使行文学主要指≪燕行录≫。首先，≪燕行录≫将满族人看做是腥膻的夷狄之辈。其次，≪燕行录≫中有很多对满族人野蛮丑陋的描述。以礼仪之邦自居的朝鲜朝，一直鄙视女真族为夷狄之族，不懂礼数，穿着打扮自然也丑陋无比、不符礼节。在他们眼里，女真族身着奇装异服，薙发垂辫，完全是一副尚未开化的野蛮人装束。“薙发垂辫”是满族的固有习俗和特有发式，男子把前额头发剃光，后脑头发编成一条长辫垂下。这与汉民族和朝鲜民族的传统发式“束发戴冠”是截然不同的。再次，≪燕行录≫中还有对满族人悍勇善战的描述。最具代表性的是李民窦的≪栅中日录≫和≪建州闻见录≫。

4. 原型理论视域下的满族人形象

在运用原型理论进行分析之前，有必要先了解一下“集体无意识”这个概念。“集体无意识”概念的发展过程，可以追溯到法国人类学家迪尔凯姆提出的“集体精神”。这种“集体精神”的思想后来被法国人类学家列维·布留尔吸收并发展，也就是“集体表象”的概念，布留尔的思想在瑞士心理学家荣格那里得到了进一步的发展。荣格提出了“集体无意识”的概念，他认为“集体无意识是无意识的深层结构，它是先天的，普遍一致的。”提到“个人无意识主要是由各种情结构成的，集体无意识的内容主要是‘原型’。”

通过前文对韩国神话传说以及后世文献中关于满族人形象的记述，我们不难看出今天屏幕上的满族人形象，在韩国的叙述系统中不仅是有迹可循的，甚至是一脉相承的。在分析韩民族对于满族人的原始描述及想象时，刘广铭提出了“女真记忆”这一概念，他认为“女真记忆”中的“记忆”相当于“原始意象”中的“意象”，指出“女真记忆”同“原始意象”一样具有反复再现的性质，是一种后天的形成过程，特指朝鲜人在同满族人的各种社会实践活动中出现的文化心理现象。刘广铭将“女真记忆”视作“原始意象”的理解有一定意义的，但他并没有就“原始意象”与“原型”的关系展开进一步论分析，也就是说，他并没有指出“女真记忆”的原型是什么。从“原型”与“原始意象”的“体用关系”来看，如果不分析作为“体”的原型，只分析作为“用”的“原始意象”是不够的。那么，“女真记忆”的原型是什么呢？笔者尝试提出“夷狄”这一原型。在韩国叙述系统中有关满族人诸多叙述的背后，隐藏着韩民族对满族人的集体无意识，即夷狄原型，而包括神话传说在内后世关于满族人的叙述，都可以看做是这一原型的置换变形。

5. 结语

“夷狄”作为集体无意识在朝鲜人与满族人的历史接触中，一次次被激活，“丑陋少文”、“恃强凌弱”、“悍勇善战”的满族人，一次次呈现在神话传说和历史文献当中，一次次呈现在有关满族的历史题材电影当中。这些形象重复着相同的特征，反映着韩民族共同的“女真记忆”，“女真记忆”反映出韩民族对满族人复杂的情感指涉，是表现出农耕文明面对狩猎文明和游牧文明时的优越感与恐惧感，“女真记忆”根源于“华夷之辩”中的夷狄观念，而传说、文献和历史题材影片当中的满族人形象，则是夷狄原型在文学创造中的置换变形。

参考文献

1. <任晳宰全集④ 韩国口传说话之 咸镜北道篇，咸镜南道篇，江原道篇>, 서울: 평민사，1989.
2. 金宽雄. 图们江沿岸朝鲜民族传说中的满族形象[J]，东疆学刊，2003年1月 第20卷 第1期.
3. 刘广铭. 朝鲜朝语境中的满洲族形象研究——以十七、十八世纪的行使文学为中心[D]，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2006.
4. 吴晗. 朝鲜李朝实录中的中国史料[Z]. 北京: 中华书局，1980.
5. 金昌業，≪老稼齋燕行日記≫，民族文化促進會，1989.
6. 李宜显. 庚子燕行杂识[M]，首尔：韩国民族文化促进会，1989.
7. 辽宁大学历史系.建州见闻录校释[M]，沈阳：辽宁大学历史系，1978.
8. 赵展. 满族文化与宗教研究[M]，沈阳：辽宁民族出版社，19979.
9. 辽宁大学历史系. <清初史料丛刊第八、九种：栅中日录校释 建州闻见录校释>. 1978.
10. 列维・布留尔. 原始思维[M]，北京：商务印书馆，1997.
11. 荣格 著 冯川、苏克 译. 心理学与文学[M]，北京：三联书店，1987.

한류4시기, 중국진출을 위한 콘텐츠 분석 연구

이지윤*

<目 次>

1. 서론
2. 중국 문화산업 정책과 시장 동향
3. 콘텐츠 소비자의 문화코드 분석
4. 결론

1. 서론

지난 20여 년간 한류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한류라는 용어의 탄생 배경을 살피면,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 1997년 12월 17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서 당시 한국의 가성비 좋은 전자제품과 문화콘텐츠가 대만에 수입되자 상대적으로 대만의 제품과 콘텐츠가 평가 절하되면서 한국에서 온 찬 기운을 뜻하는 한류(寒流)로 보도하였다. 그 다음해 중국 청년일보사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현상을 일컫어 한류(韓流)로 표기한다. 당시 한국의 문화부도 문화상품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자 이에 정책적으로 권장과 지원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류는 인구 5천만인 아시아의 비교적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문화를 선도해 나아갔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한국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과거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문화자본으로서, 그리고 하위 문화제국주의 논리를 설파하는 문화민족주의로서 작용했으며, 콘텐츠 전반에 걸쳐 인기를 얻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다매체 다채널이 되었다. 작은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미디어의 단방향 전파에서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하며 제작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한국 문화산업은 이미 2010년부터 CT산업의 준비가 4차 산업혁명에도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류4시기(신한류라고도 함)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는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문화산업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맥락으로 중국의 독특한 정치적·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초장기 중국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 콘텐츠로 각광받은 현상이 홉스테드의 이론에 근거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였고, 유교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누렸던 한시적인 현상으로만 봐야 할까? 그럼 한류 4시기에 이 연구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류가 한류4시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산업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중화권 소비자와 문화적 마찰은 빚지 않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림대학교

2. 중국 문화산업 정책과 시장 동향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 으로, 2015년 10월 26일부터 4일간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정책 내용으로 현대적인 문화시장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보호와 활용을 강화, 문화와 과학기술 등 융・복합 지향,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 중화문화의 세계화,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 및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 문화산업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공공분야에 속하며, 이 모든 활동에 있어 중국 정부의 허가, 관리 체제를 받아야 한다.[2] 중국 문화부에서는 문화예술, 애니메이션게임, 문화과학기술, 문화유산(문물국)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신문출판광전총국(新闻出版广播电视总局)에서는 신문(News), 출판, 저작권 관리를 하다 2018년 3월 중국은 문화산업 주관부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기존 중앙선전부의 기능은 확대시키고, 국가광전총국・중앙TV방송국・문화관광부가 출범을 한다. 뉴스, 출판, 영화관리업무를 중앙선전부에 귀속시키지만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의 기능은 유지시킨다.[3] 공업과정보화부는 인터넷, 통신, 전신 분야를 각각 관장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과 더불어 금융, 보험, 물류, 정보, 법률, 복지 등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에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와 산업 연구 비용 외에 최근에는 미디어산업시장에서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 게임 등 업종에 대한 장려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정부가 2010년 한국TV드라마에 대한 자국 인터넷사이트동영상 채널에 방영을 허가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한국 드라마 시청자가 늘어났다. 판권에 대한 비용을 살펴보면, MBC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는 1100만 위안(한화 약 20억 원), 2014년 방송된 <별에서 온 그대>는 1편당 18만 5000위안(한화 약 333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한류 예능 포맷이 중국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수입 비용이 막대해지자 국가광전총국에서는 1년 1방송사당 해외 예능 1개만 수입・송출 제한을 한다. 덧붙어, OTT, 스마트셋탑박스, 스마트 TV의 혼잡한 발전양상에 대해 인터넷 TV에 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강화하였다. 일련의 엄격한 '시정명령'을 통해 OTT 셋탑박스를 통해 제공하는 TV프로그램의 타임시프트와 다시보기 기능을 정지하고 각종 동영상 앱과 동영상 통합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루트를 중단시켰다. 인터넷 TV프로그램은 반드시 7개 허가증을 받은 업체의 심사를 거친 후 통합방송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한을 두었다.[4] 2020년 2월 21일에 중국온라인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중국온라인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China Netcastiong Sevices Association)은 <온라인예능프로그램심의표준세칙>을 발표한다. 이처럼 중국은 한류가 지나치게 자국 내에서 흥행하고 발전하면 이에 대한 견제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중국의 1인 미디어인 뉴미디어가 부상한 해이다. 2013년 최초로 1인 <미디어연맹 자율 협약>이 발표된 후 윗챗에서 1인 미디어 분야 개정이 가장 빠르게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15초짜리 나만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틱톡(Tiktok), 비리비리(Bilibli) 등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틱톡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킨 참신하고 재미난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한류 아이돌 스타뿐 아니라 서방국가에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였다. 중국 정부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및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산업에 비용을 지원하여 발전한 편이다. 1선, 2선도시의 큰 대형 쇼핑몰 상점에 들어가면 오락유흥시설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VR&AR 콘텐츠 종류도 다양함이 이를 입증한다.

---

1) 이지윤, 「현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따른 한국뮤지컬의 중국 진출 전략」, 한국문화산업학회.

2) 장규수, 「연예매니지먼트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04쪽 참조.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KOCCA18-18, 7쪽 참조.

4) 조재구, 『중국 미디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중미디어연구소, 2015.11.10., 161쪽.

3. 콘텐츠 소비자의 문화코드 분석

지금까지 중국 내 한류 현상에 대한 연구는 산업적・경제적 측면의 연구들 위주였다. 한류1시기부터 2시기는 콘텐츠산업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까지 만들었다. 국가이미지도 제고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늘었다. 비엘비와 해링턴(Bielby & Harrington)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genre)와 미학적 요소가 수입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였다.[5]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콘텐츠를 접하고 영상 속 한국의 이미지를 실제로 방문할 목적으로나 음식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뿐 아니라 배우들의 아이템으로 착용했던 옷(패션)과 사용한 화장품 제품 등 구입을 위해 중국 관광객은 한국을 방문하였고, 주변 지인들 수량까지 사재기하는 대량 구매 패턴을 보였다. 이런 현상으로 중국에서의 한류, 특히 드라마나 케이팝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한류현상을 총체적으로 콘텐츠 측면에만 그쳤다. 반면, 코택(Kottak)은 미국 문화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자신들의 기술 및 문화로 변형시키고, 스스로 자립하는 주변 남미 국가들을 분석하였다.[6] 예를 들어 브라질 사람들의 텔레비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초기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텔레비전 시청 횟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문화에 대한 포맷 프로그램과 거리를 두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 태도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동일 문화권이지만 중국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주위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역사, 정치,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주요 방송3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명을 정하기 위해 출연진들이 이야기하다 글로벌적으로 가면 어떻까? 하면 언급한 네이밍이 중국의 정치 인물 이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스타 소셜미디어에 중국 네티즌들이 악성댓글을 다는 사건이 있었다. 유명 아이돌 여성그룹 멤버가 국가 주요 행사에 말을 잘 못 했거나 잘못된 역사 왜곡 사실이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반응에 매우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다. 중국은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나 문화 트렌드가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2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중국은 콘텐츠 제작 수준이 월등해졌고, 내용적인 측면도 한국콘텐츠와 비슷하다. 이처럼 중국 내 한류의 새로운 미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는 중국 소비자들을 꾸준히 분석하여야 한다. 계층별 세대들을 나눠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 1선 도시와 2&3선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소비도 따로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방송국이나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요구하는 사항이나 비용적인 부분도 천차만별이다. 방송국이나 공연의 제한이 심하다 보니, 중국 젊은이들은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웹소설이나 드라마 소비가 늘게 되었다. 또한, 1인 미디어도 발달하여 중국의 인플루언서라 칭하는 왕홍이란 직업군이 탄생을 하였고, 이들의 광고나 출연 갤런티도 상당하다.

콘텐츠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국제 유통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미디어와 채널의 다각화로 그 유통 경로와 전파는 더 빠르고 다양해졌다. 콘텐츠산업은 결국 이런 공공재적 특성을 바탕으로 초판 비용과 규모의 경제 논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문화상품을 가지고 여러 창구로 판매된다면 창구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국에 맞춘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잘 만든 콘텐츠와 좋은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중문학과나 관련 학과에서는 학계간 교류와 학생 교류를 통해 서로 문화적 이해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4시기 중국 진출을 위한 콘텐츠 분석 연구로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장르별 콘텐츠 텍스트(text) 분석, 영상 씬(scence)

5) Bielby, D. D. & C. L. *Harrington, Managing culture matters: genre, aesthetic elements and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exported televison*, Poetics, 32, 73-98p.

6) 홍용락,『한국 TV 드라마의 중국 내 유통현실과 전망』, 한국학술정보, 2008., 56-57쪽 참조.

분석을 통해 맥락(contenxt)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또한, 수용자들의 현상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방법 둘 다 언급하고 싶지만, 원고 제한과 발표 제한으로 다 다루지 못하고 현재의 중국 예능 포맷을 바라보는 중화권 소비자들의 현상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다. 우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소비 성향과 패턴 분석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 결론

중국 정부는 비록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유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유독 미디어에 대한 제재와 견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디어도 점차 글로벌화 되어 제국주의 논리로 한때 문화적 단일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불긴 하였지만, 염려와는 달리 문화는 쉽게 전파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경쟁하기 위하여 자국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 제작진과 산업계 유입을 권장하면서도 규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정치적 보복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그룹의 중국 내 활동 전면 금지와 한국 스타의 광고 출연까지 금지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한국 방송국과 엔터테인먼트그룹에서 시작한 비대면 프로그램 방식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중화권과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엔 송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정책적 강압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노선은 달라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자체적으로 제작한 방송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예능 포맷에 대한 반응을 살피면 종종 한국 프로그램 포맷임을 중국 시청자들이 알아주는 댓글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도 중국 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국 출연진을 섭외하여 심사위원이나 보컬&댄스 안무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한국한테 멀었다는 평가를 하는 네티즌들. 어쩌면 그들은 한국적인 콘텐츠는 한류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소비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만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떨까? 양국이 문화 마찰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상호 존중하기 위해선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중국의 소비자들 성향과 문화적 트렌드 코드를 살펴야겠다. 한류 4시기, 한국과 중국간 정치적·문화적 우호관계를 형성하며,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산업적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걸어가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11月 21日(土) 16:00~17:30

언어학(4)–성운 · 훈고

❖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왕옥지(동명대) 明, 淸代 운서의 성격과 가치

박규정(부산외대) 방언 내부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난창 방언(南昌话)을 대상으로

明, 淸代 운서의 성격과 가치

왕옥지*

<目 次>

1. 서론
2. 중국 역대 운서의 흐름을 통해 본 명, 청대 운서의 성격
3. 명, 청대 운서의 가치와 정확한 인식

1. 서론

중국에서는 '雅言'이 공자 시대에 이미 있었다. 그리고 隋代에 이르러 "南北是非, 古今通塞"를 원칙으로 한 陸法言『切韻』(601년)이 편찬되었다. 물론『切韻』은 당시 문인들이 詩賦를 짓는 용도로 편찬되었으며, 詩賦를 위한 漢字表音規範의 제창이며, 文學的 標準語音의 獨創性을 갖지만,『切韻』의 탄생은 중국 고대 어음의 標準化, 즉 중국 최초의 標準語音體系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切韻』은 宋代 陳彭年 등의『廣韻』(1008年)까지 약 407년 동안 중국 중고시대 표준어의 脈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자음 자체의 변화 그리고 운서의 어음체계와 실제어음, 讀音 간의 큰 차이, 국가 정책, 사회현상 등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인하여, 書面言語의 전통적 脈을 이어온 宋『廣韻』系 운서는 編纂과 分韻上의 변화를 이어오다가 元代에 이르러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다양한 운서가 세상에 거듭 출현한다.[1] 宋·元代는 중국 韻書史上 劃期的인 變化를 일으키며, 漢字表音에 다양한 시도를 가져온 시기로, 宋·元代는 중국 韻書史上『切韻』에 이어 의미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의 운서는 근대까지 중국의 문학적 표준어음에 이어 중국인의 言語文字生活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열쇠이자 값진 자료이다. 그러나 운서에서 나타내는 어음체계는 당시 실제어음과는 부합되지 않음을 韻書의 변천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운서인 隋『切韻』과 宋『廣韻』등『切韻』系 운서는 문인들이 詩賦를 짓는 목적으로 편찬되어진 文學的 標準語音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므로 당시의 실제어음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운서는 元代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元代의 운서는 '書面의 死語'가 아닌 당시 實際語音과 實際讀書音, 중국 북방 특정지역의 어음을 나타내는 문학 장르인 北曲, 즉 당시 實際北方語音을 반영하고 있다. 元代의 운서는 중국 운서사상 큰 의미를 갖는다. 元代의 운서는 중국 中古語音의 變遷現象은 물론 현대 표준어로 삼고 있는 북경어, 즉 元代의 北京方言을 이해하고, 최소한 중국인의 中古時代 言語文字生活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열쇠이다. 또한 元代의 운서는 우리나라 운서[2]에 큰 영향을 미쳤다. 明代 운서에 와서도 이러한 元代의 운서 흐름과 특성이 이어지는 것이 實用韻書[3] 차원에서의 일반적 견해라고 보고, 또한 明·淸代의 白話小說, 즉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언어를 사용해서 지은 소설이 한 문학 장르로 자리 잡고, 明·淸 文學의 중심이 되어 明·淸 文學을 이끌었다. 白話小說은 明·淸

* 동명대학교

1) 內外的 二重語音體系를 반영하는 黃公紹의『古今韻會』(1292년), 黃公紹의『古今韻會』를 간략화한 熊忠의『古今韻會擧要』(1297), 소리문자 파스파문자로 한자음을 譯音한 朱本『蒙古字韻』(1308), 北曲과 北音 등 중국 北方 특정지역의 어음체계를 반영한 周德淸의『中原音韻』(1324년).

2) 東國正韻, 四書通考, 四聲通解 등.

3) 實用韻書란 말은 당시 실제어음을 반영하는 운서라는 차원에서 사용된 표현.

의 白話小說은 중국소설에 꽃을 피웠다.[4] 그러나 明政府는 元의 蒙古風을 一掃하고 漢 문화화, 중화전통 문화를 복원시킨 결과 초기 明 文化는 강력한 民族主義的 성격과 復古的인 경향이 뚜렷했다. 한편 明政府의 言語文字政策에 따라 明의 官韻書는 역시 明 사회현상과는 달리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言語現象과 韻書史에 있어 역행하는 양상을 띠었고, 실제 音讀上에서 거듭되는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주요 明·淸 운서의 성격 그리고 이 시대의 주요 운서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두루 살펴본 후, 明·淸 운서의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내리고자 한다.

2. 중국 역대 운서의 흐름을 통해 본 명, 청대 운서의 성격

宋代 후기에 이르러 중국의 語音은 큰 변화를 일으켜 왔고, 異民族인 蒙古族이 세운 元政府의 獨特한 국가성격과 사회현상, 즉 사회변화가 큰 사회현상에 의하여, 元代 운서는 기존에 통일적이고 고정된 형식을 유지하며 編纂上의 변화만을 이어온『切韻』系의 운서편찬에서 벗어나 實際語音을 반영하려는 노력과 시도 속에서 독특하고 劃期的이며 다양한 體裁와 革新的인 語音體系를 다룬 운서가 출현하게 되고, 중국 운서상의 발전된 양상을 거듭하여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므로 宋·元代에는 中古 詩韻, "南北是非, 古今通塞" 성격의 운서를 비롯하여, 應試作文·等韻圖·近代 詩韻·內外的 二重語音體系·소리문자인 파스파문자로 譯音한 어음체계·하나의 文學장르이자 特定地域 등 성격을 띠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운서가 출현하였다.[5] 宋·元代 韻書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운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6]

①中古 詩韻, '南北是非, 古今通塞' 성격의 운서:『廣韻』·『集韻』
②應試作文 성격의 운서:『韻略』·『禮部韻略』·『平水韻』·『平水新刊韻略』·『壬子新刊禮部韻略』·『古今韻會』·『古今韻會擧要』·『蒙古字韻』
③等韻圖:『七音略』·『韻鏡』
④等韻 音韻原理를 사용한 운서:『五音集韻』
⑤近代 詩韻(106韻, 107韻): 『平水韻』·『平水新刊韻略』·『壬子新刊禮部韻略』·『古今韻會』·『古今韻會擧要』·『蒙古字韻』
⑥創意的 體裁 및 革新的 語音體系를 반영한 운서:『古今韻會』·『古今韻會擧要』·『蒙古字韻』
⑦北曲, 北音 등 北方 特定地域의 語音體系를 반영한 운서:『中原音韻』
⑧拼音文字로 漢字의 音을 表記한 운서:『蒙古字韻』
⑨中國의 '人造國語', '書面言語의 標準과 傳統'을 이룬 운서:『廣韻』·『集韻』·『五音集韻』·『平水韻』·『平水新刊韻略』·『壬子新刊禮部韻略』·『古今韻會』·『古今韻會擧要』·『蒙古字韻』

王力은『漢語史稿』에서

> 송나라 사람의 화본에 이르러서는 곧 語體가 변하였다. 이러한 어체는 바로 북방 말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元·明·淸의 소설·수호전· 서유기·유림외사·홍루몽 등과 같은 소설이 모두 북방 말로 쓴 것이다. 그 중 홍루몽은 또 북경 말을 사용하여 쓴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북방언어지역에서 유행했을 뿐 아니라, 비 북방언어지역에서도 왕왕 간인되었다. 그러므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到了宋人的話本就變了語體, 這種語體自始就是以北方話爲基礎的. 元明淸小說如水滸傳,

4) 2明代 白話小說 三國志演義, 水滸傳, 西遊記, 金瓶梅, 淸代 白話小說 儒林外史, 紅樓夢 등이 있다. 이 중에서 三國志演義, 水滸傳, 西遊記, 紅樓夢은 4대 명작으로 손꼽힌다. 이 밖에 怪異小說인 聊齋志异가 있는데 이 소설은 文言小說이다.

5) 왕옥지, <韻書史上 宋元代의 時代的 價值와 정확한 認識>, 중국학보 제 75집, 한국중국학회(2016년 2월). 19쪽 참조.

6) 왕옥지 上揭論文. 19쪽 인용.

西遊記, 儒林外史, 紅樓夢等, 都是用北方話寫的; 其中紅樓夢還是用北京話寫的. 這些作品不但流行於北方話地區, 而且往往在非北方話地區刊印, 可見影響很大.)[7]

라고 하였다. 중국의 실제어음은 淸代까지 千餘 年 동안 그 변화를 거듭 하였고, 이민족이 중국 북방지역을 정복한 후, 북경 등 북방지역의 어음은 13세기(宋代)부터 변화가 크게 일어나 점차적으로 중국 남방 어음과 크게 차이가 났다. 明·淸代에 이르러 북방의 실제어음의 변화가 크고 컸지만, 문인들은 詩文을 짓고, 정부의 考試功令에 따라 守舊的인 운서체재를 준수하였다. 明·淸代의 주요 운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元·明의 왕조교체는 천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중국의 왕조교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明代는 이민족이 세운 元왕조를 멸망시키고, 漢民族王朝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었고,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다. 明太祖 朱元璋은 즉위한 이듬해에 唐·宋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고 中華傳統文化를 복원시키고, 儒學을 세우고 科擧制度를 부흥시켰다. 『洪武正韻序』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오늘날 성인들이 계셔서 수레와 궤도가 같은 것과 같이 같은 문자를 쓰게 되어 무릇 예도와 음악 그리고 문물이 모두 성현을 준수하고, 위로는 '당우지치', 唐堯와 虞舜의 태평성대인 요순시대의 정치(다스림)를 눈부시게 계승하였다. 운서에 이르러서도 황제께서 운을 고려하시어 문신에게 명을 내려, 음에 따라 바로잡게 하여 오래된 미천한 습관과 풍습을 씻게 하였다. 이 얼마나 감탄스럽고 성대한가?.....그러므로 본 왕조의 문치가 대흥하여 음운의 학문이 모두 다시 옛날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다. (當今聖人在上, 車同軌而書同文. 凡禮樂文物, 咸遵往聖. 赫然上繼唐虞之治. 至於韻書, 亦入宸慮. 下詔詞臣, 隨音刊正. 以洗千古之陋.. 猗歟盛哉.....于以見聖朝文治大興而音韻之學悉復於古云.)

그러므로 明『洪武正韻』의 正音에 대한 태도는 入聲을 갖추고 있는 등 편찬방식과 어음체계가 모두 守舊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洪武正韻·序』에 실려 있는

삼가 생각하건데 황제께서는 옛 일에 머무르며 옛 학문을 숭상하시었고, 정무의 시간에도 친히 운서를 검열하셨다. 비교해서 잘못되거나 성음이 어그러진 것을 보시고는.....그러므로 한림 시강학사를 맡은 신하 낙소봉, 신하 송렴, 대제를 맡은 신하 왕선, 수찬을 맡은 신하 이숙윤, 편수를 맡은 신하 주우, 신하 조훈, 신하 주렴, 전부를 맡은 신하 구장, 신하 추맹달, 전적을 맡은 신하 손분, 신하 답록여권 등은 황제의 명철한 조서를 받들어 면밀히 연구하고 생각하여 오로지 '중원아음'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방언에 얽매여 옛날과 오늘날의 자음이 통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좌어사대부를 맡은 신하 왕광양, 우어사대부를 맡은 신하 진령, 어사중승을 맡은 신하 유기, 호광행성 참지정사를 맡은 신하 도개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였다. 무릇 여섯 번 베껴 옮겨 써서 비로소 편찬을 완성하였다.....엣날 宋諱(송대에서 기피사항)를 피하기 위해 수록하지 않는 글자를 보충하였다.....글을 써서 황제에게 아뢰었고, 이름을 하사하여 홍무정운으로 명명하였으며, 신하 송렴에게 서문을 쓰게 명하였다.....오늘날 성인은 황제 수레와 같은 궤도에 있고, 문의 통일을 이루고, 무릇 예악문물이 모두 옛 성현을 준수하였다.....운서까지도 황제가 근심하게 되어 신하에게 소리에 따라 올바르게 바로잡아 천고의 고질적인 습속을 씻게 하셨다.....그러므로 본 왕조의 문치가 대흥하여 음운의 학문이 모두 다시 옛날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다. 홍무 8년 3월 18일 한림 시강학사, 중순대부, 지제고, 동수국사 겸 태자찬선대부를 맡은 신하 송렴이 삼가 서문을 쓰다.(恭惟皇上稽古右文, 萬幾之暇. 親閱韻書, 見其比類失倫, 聲音乖舛.....於是翰林侍講學士臣樂韶鳳, 臣宋濂, 待制臣王僎, 修撰臣李叔允, 編修臣朱右, 臣趙壎, 臣朱廉, 典簿臣瞿莊, 臣鄒孟達, 典籍臣孫蕡, 臣荅祿與權, 欽遵明詔, 研精覃思. 壹以中原雅音爲定. 復恐拘於方言, 無以達於上下, 質正於左御史大夫臣汪廣洋, 右御史大夫臣陳寧, 御史中丞臣劉基, 湖廣行省參知政事臣陶凱, 凡六謄稾, 始克成編.....舊避宋諱而不收者補之.....書奏, 賜名曰洪

7) 37쪽 인용.

武正韻.. 勅臣濂爲之序.....當今聖人在上車同軌, 而書同文. 凡禮樂文物咸遵往聖.....至於韻書亦入宸慮, 下詔詞臣隨音刊正, 以洗千古之陋習.....于以見聖朝文治大興而音韻之學悉復於古云. 洪武八年三月十八日翰林侍講學士, 中順大夫, 知制誥, 同修國史兼太子贊善大夫臣宋濂謹序.)

란 말에 따르면, 明『洪武正韻』(1375년)은 태조 朱元章의 명을 받아 樂韶鳳・宋濂 등이 편찬한 운서로, 政府 차원에서의 正音作業을 한 국가적 성격을 띠는 官韻書임을 짐작할 수 있다.『洪武正韻』은 明 초기 15명의 문신이 황명을 받아 편찬된 명대 초기 표준화 雅音體系라 할 수 있다.『洪武正韻序』에서 말하고 있는 '中原雅音'은『中原音韻』이 반영하는 北音 체계가 아닌 標準雅音 체계를 의미한 것이다. "隨音刊正. 以洗千古之陋"란 말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민족이 세운 元代의 미천한 습관과 풍습을 없애고, 音을 바로잡게 하여 標準雅音 체계를 이루고자 하였음이므로,『洪武正韻』의 운서 창제목적은『中原音韻』등 北音系 韻書에 대한 타도라 할 수 있다.[8)]

明『洪武正韻』(1375년)이 편찬된 후 68년이 지나자, 入聲韻이 있고, 平聲을 陰平과 陽平으로 구분한 운서,『中原音韻』과『洪武正韻』의 영향을 모두 받은 蘭茂의『韻略易通』(1442年)이 세상에 출현한다. 中古 36字母는 10세기~12세기의 실제어음에 부합하였으나, 14세기 元 周德淸의『中原音韻』(1324년)에 이르러 북방어음의 聲母는 24개[9)]로 簡化하였다. 한편 明 蘭茂의『韻略易通』에 실려 있는 '早梅詩'란 한 편의 詩가『韻略易通』의 聲母體系를 나타내는데, 즉 "東風破早梅, 向暖一枝開, 冰雪無人見, 春從天上來" 등 20자'이다.『韻略易通』의 20개 성모는 당시 明代(15세기) 북방어음의 성모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 중국의 표준어(북경어) 21개 성모와 흡사하다. 明 畢拱辰의『韻略匯通』은『韻略易通』을 개정한 것인데, 대체적으로『韻略易通』과 유사하다. 淸代 초기 樊騰鳳의『五方元音』(1654년-1673년)은『韻略匯通』『韻略易通』系 운서라고 할 수 있다.『五方元音』의 성모는『韻略易通』'早梅詩'의 '無(v)'母를 없애고, '一(○)' 零聲母를 '雲(y)'과 '蛙(u)'로 나누었는데,『韻略易通』'早梅詩'의 '20字母'는 준수했다. 현대표준어 (북경어)의 성모체계는 14세기 元代에 이미 그 기초를 세웠으며(『中原音韻』), 15세기 明代『韻略易通』에서 비슷하게 이어가다가, 淸代에이르러 표준어에 있는 舌面音(j, q, x)이 舌根音(g, k, h)에서 분화된다. 그러나『五方元音』의 성모체계에는 舌面音(j, q, x)이 없다.

淸代 초기, 옛 反切法이 번잡하여 1715년 황명을 받아 李光地, 王蘭生 등이『音韵闡微』(1728년) 란 새로운 운서를 편찬하였다. 凡例에 실려 있는

汉魏之际, 我国产生了音韵学, 始有反切. 从南北朝至唐宋, 给汉字注音的反切方法及研究字音的韵书兴盛起来. 汉语语音和汉字读音不断变化, 反切方法和韵书也随之发展.

란 말에서 이 운서는 反切法을 달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音韵闡微』는 等韵学의 이론을 운용하여 어음을 분류하였으며, 读音에 따라 수록한 한자 16000여 자를 ≪平水韵≫ 106韵部에 나누어 수록하고 韵部字마다 이 韵部와 ≪广韵≫, ≪集韵≫ 등 운서의 운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音韵闡微』은 새로운 反切法을 사용하였는데 즉, 合声反切法이다. 合声反切法에 사용된 2개의 글자를 늘리게 읽으면 두 개의 글자가 되고, 급하게 읽으면 하나의 音이 된다. 즉 满文의 12字頭의영향을 받았다. 각 韵部에는 见・溪・群・疑・端・透・定・泥・帮・旁・并・明 등 中古 36字母 순으로 글자를 배열하였다.

이상의 明・淸 운서의 편찬방법을 완전 달리하고, 소리문자 로마자모를 사용해서 한자의 음을 나타낸 운서가 1626년(明)에 출현을 한다. 즉 서양 전도사 金尼閣(Nicolas Trigault)의『西儒耳目者』이다.『西儒耳目

8) 왕옥지, <洪武正韻과 蒙古字韻의 관계연구 - 창제목적과 성격상의 異와 同, 그리고 韻書의 운명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86집, 한국중국언어학회(2020. 2). 37쪽 -38쪽 참조.

9) 王力에 의하면 支思韻의 照系 글자와 日母 글자가 捲舌音으로 변화하였고, 全濁音이 소실되었다.(王力,『漢語史稿』, 中華書局, 109쪽-110쪽 참조.)

者』에는 입성이 있으나, 성모는 역시 20개로 이루어진다.

주요 明·淸代 운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中古 詩韻, '南北是非, 古今通塞', 應試作文 성격의 운서:『洪武正韻』
② 明·淸代 實際 讀書音, 早期官話의 성격의 운서:『韻略易通』·『韻略匯通』·『五方元音』
③ 拼音文字로 漢字의 音을 表記한 운서:『西儒耳目者』
④ 近代读音의 변천을 나타낸 운서:『音韵闡微』

3. 명, 청대 운서의 가치와 정확한 인식

明·淸代의 운서는 韻書史上 꽃을 피운 宋·元代의 운서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운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독특하고 劃期的이며 多樣한 체재와 革新的인 어음체계를 다룬 운서도 출현하지 않았다. 明『洪武正韻』은 비록 官韻書의 성격을 지니나, 당시의 實際讀音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운서로서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洪武正韻』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洪武正韻』에 대비되며, 같은 성격을 갖는『東國正韻』은『洪武正韻』이 아닌 元代의『蒙古字韻』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四聲通考 凡例』,『四聲解考 凡例』,『洪武正韻譯訓 序文』에서도『蒙古韻』에 대한 언급이 많다. 만일 淸末 國語運動에서 고려가 된 '人造國語'처럼 南北의 어음을 두루 고려해서 만들어진 '人造國語'가 중국의 표준어로 제정되었다면, '南北是非'의 성격을 띠는『洪武正韻』, 明·淸代 實際 讀書音, 早期官話를 반영한『韻略易通』·『韻略匯通』·『五方元音』 등 운서는『中原音韻』과 그 運命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王力,『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
樂韶鳳 宋濂 등, 原本『洪武正韻』, 大提閣. 1987.
樂韶鳳, 宋濂 등,『洪武正韻』, 國學資料院, 1997.
李光地, 王兰生 등, ≪音韵闡微校理, ≫, 中华书局, 2018. 3.
陳新雄,『中原音韻概要』, 臺北, 學海出版社, 1985.
董同龢,『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7.
張世祿,『中國音韻學史』 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謝雲飛,『中國聲韻學大綱』, 臺北, 蘭臺書局印行, 1983.
왕옥지, <韻書史上 宋元代의 時代的 價值와 정확한 認識>, ≪중국학보≫ 제75집, 한국중국학회. 2016. 2.
왕옥지, <洪武正韻과 蒙古字韻의 관계연구 - 창제목적과 성격상의 異와 同, 그리고 韻書의 운명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8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2.

방언 내부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난창 방언(南昌话)을 대상으로

박규정*

<目 次>

1. 서론
2.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에 관한 고찰
   1)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2)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변화에 대한 분석
3. 결론

【초록】

현대 중국어에서 '입성(入聲)'이란 중세 중국어의 사성(四聲) 중 하나인 입성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성조 범주(調類)'를 말하며, 난창 방언(南昌话)은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및 주변의 현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다. 난창 방언은 입성이 소실되기 시작하는 방언이며 현재에도 입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제약의 등급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난창 방언에서 모든 p운미 및 모음 ɛ(e) 뒤의 k운미가 t운미로 변화한 것은, 입성 운미의 위치 자질을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Ident(PlaceF))보다 p운미와 k운미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ant][-cor]]σ 및 *[+mid][-back]&[+oral][-ant][-cor])이 더 높은 등급을 가지게 되어 p운미와 k운미의 실현을 제한했기 때문이며. 또한 ʔ를 제한하는 *[-oral]]σ 역시 Ident(PlaceF)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p운미와 k운미는 ʔ운미로 변하지 않는다.

둘째, 난창 방언에서 모음 u, o, ɔ, a, ɑ 뒤의 k운미가 ʔ운미로 변화한 것은 *[-oral]]σ의 등급이 t운미를 제한하는 *[+ant][+cor]]σ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키워드】 입성, 난창 방언, 운미, 언어 변화

1. 서론

현대 중국어의 '입성(入聲)'은 중세 중국어(中古汉语)의 입성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성조 범주(調類)'를 가리키며, 다른 성조범주와는 달리 '짧은 음장' 및 '파열음 운미(韻尾)'[1]를 가진다.

楊信川(1997)[2]은 '웨 방언(粵語)', '커자 방언(客家話)' 등과 같은 남방 방언에 중세 중국어 '입성'의 특징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舒聲化[3]'가 진행되어 북방 방언에서는 입성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다른 성조범주로 귀속되었다고 밝혔으며, 朱曉農 等(2008)[4]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 부산외국어대학교

1) '-p', '-t', '-k'를 가리킨다.

2) 楊信川,「試論入聲的性質及其變化」,『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 廣西大學, 1997, p.77.

3) 음장(音長)가 길어지고 자음 운미가 소실되면서 '入聲韵'이 '舒聲韵'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통하여, 입성이 변화하는 경로가 '開化路(입성 운미의 소실)', '長化路(입성의 음장(音長)이 길어짐)', '變聲路(입성의 '발성 상태(發聲態)[5]'가 변화)' 3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난창 방언(南昌方言)은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및 주변의 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중국 방언학계에서는 贛语昌都片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 난창 방언은 '남방방언 중에서 입성운미의 소실이 시작'된다는 점과 '공시적으로 입성운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성'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방언이라 할 수 있다.

난창 방언의 입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何琳珊(2006), 盧繼芳(2016) 등에서는 전통적인 방언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儲倩文(2018)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宫齐 및 王茂林(2011)에서는 최적성이론을 이용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난창 방언에서의 입성이 어떠한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를 최적성이론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변화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난창 방언에서 입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한다.

1) 난창 방언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본 절에서는 난창 방언 입성의 실현 양상을 간략히 소개한다. 난창 방언의 입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가에 대해서는 儲倩文(2018)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표1) 난창 방언에서의 입성[7]

韻尾		袁家驊(1960)	楊時逢(1969)	熊正輝(1995)	侯精一(1998)	張燕娣(2007)	劉俐李等(2007)
塞韻母	-t 尾	it ɛt iɛt uɛt uat ot uot yot at ut yt	it ɛt ət iɛt uɛt uat œt uət yɛt at yt	ɨt it ɛt iɛt uɛt at uat ot uot yot ut yt		ɨt it ɛt iɛt uɛt at uat ot uot yot ut yt	ɨt it ɛt iɛt uɛt at uat ot uot yot ut yt
	-l 尾		uəl				
	-ʔ 尾		uʔ yuʔ ɛʔ aʔ iaʔ oʔ ioʔ uoʔ	uʔ iuʔ aʔ iaʔ ɔʔ iɔʔ uɔʔ	ɨʔ iʔ uiʔ ɛʔ iɛʔ uɛʔ aʔ uaʔ	uʔ iuʔ aʔ iaʔ ɔʔ iɔʔ uaʔ	uʔ iuʔ aʔ iaʔ ɔʔ iɔʔ uɔʔ uaʔ

4) 朱曉農 等,「入聲演化三途」,『中國語文』第4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8, p.325.

5) 이는 발화 시에 성문(聲門)의 각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朱曉農(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朱曉農(2008)에서는 '余干話'의 '陰入' 발화 시에 '嘎裂聲'을 수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朱曉農 等, 위의 논문, p.336; 朱曉農,「發聲態的語言學功能」,『語言研究』第29卷 第76期, 華中科期大學中國語言文字研究所, 2009.07, p.1/12.

6) 다만 난창 방언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何琳珊(2006)에서는 난창 방언의 사용지역을 난창시(南昌市) 및 주변의 12개 현(縣)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盧繼芳(2016)에서는 난창시, 난창현(南昌縣), 더안현(德安縣)을 포함한다고 보았고, 徐倩文(2018)에서는 난창시와 난창현 만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何琳珊,「南昌方言陽聲韻尾與入聲韻尾演變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pp.1-2; 盧繼芳,「贛語昌都片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p.254; 儲倩文,「南昌方言音系實驗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p.1.

7) 본 표는 儲倩文(2018)에서 인용을 하였다. 이는 원래 韵母 전체를 나타내는 표이나, 본고에서는 입성 운미만을 고찰하므로 '塞韵母' 부분 만을 발췌하였다. 儲倩文(2018)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概要', '音系' 등으로 논저의 제목을 줄여서 표기해 놓았는데, 본고에서는 '저자(년도)'로 표기한다.
儲倩文, 위의 논문, pp.4-6.

				uaʔ	əʔ uəʔ yəʔ yʔ uʔ iuʔ ɑʔ lɑʔ ɔʔ iɔʔ uɑʔ		
	-k 尾	uk iuk ak iak uak ok iok uok					

표1을 보면, 난창 방언에서 -p[8]는 이미 소실되었고 일부 -k는 -ʔ로 변화하였으며 -t만 남아 있다.

袁家驊(1960/2001), 楊時逢(1969), 熊正輝(1995), 陈昌仪(2005) 등에 따르면, -p 운미는 모두 -t 운미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曾摄 开口 一/三等, 曾摄 合口 一等, 梗摄 开口 二/四等에 해당하는 일부 글자(韻腹가 ɛ 또는 e)에서는 -k가 -t로 변화하였다[9].

그리고 다소 예외적인 현상도 존재하는데, 楊時逢(1969)에 의하면 臻摄 合口 一等의 일부 글자에서 -t가 -l로 변화하였으며, 侯精一(1998)에 의하면 난창 방언에서는 파열음 운미가 소실되었다. 다만, 후속 연구에서 같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탓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입성 운미의 실현 양상 변화에 대한 분석

입성 운미가 변화하지 않은 방언을 기준으로 할 때[10], 袁家驊(1960)에서 기술된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p는 모두 -t로 변화하였다.
② 운복 ɛ 혹은 e 뒤에 오는 -k는 -t로 변화하였다.
③ 운미는 '구강 파열음'을 유지한다. 즉, '성문 파열음(ʔ)', '비음' 혹은 '유음'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음 운미가 소실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입성 운미가 변화하지 않은 방언을 기준으로 할 때, 楊時逢(1969) 등에 기술된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p는 모두 -t로 변화하였다.
② 운복 ɛ 뒤에 오는 -k는 -t로 변화하였다.
③ -t는 '구강 파열음'을 유지하나, 남아 있던 -k는 -ʔ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비음' 혹은 '유음'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음 운미가 소실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입성의 운미와 관련한 다음의 제약을 세울 수 있다.

① Ident(PlaceF): 조음 위치와 관련한 자질이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② *[+ant][-cor]]σ: 음절 말에서 자음이 [+ant] 및 [-cor] 자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8) '-p'는 'p 운미'를 의미하며, 나머지 운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9) 袁家驊,『漢語方言概要』, 語文出版社, 1960(第一版)/2001(第二版), pp.135-136; 楊時逢,「南昌音系」,『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 第39本上冊,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 1969, p.129/149/170; 熊正輝, 『南昌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5, pp.11-14(引論); 陈昌仪,『江西省方言志』, 方志出版社, 2005, p.75.

10) 대표적인 예로 커자 방언(客家话)에 속하는 메이센 방언(梅縣話)을 들 수 있다.
박규정,「방언간 '입성운미(入声韵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pp.282-283.

③ *[+ant][+cor]]σ: 음절 말에서 자음이 [+ant] 및 [+cor] 자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④ *[+oral][-ant][-cor]]σ: 음절 말에서 자음이 [+oral], [-ant], [-cor] 자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11].

⑤ *[-oral]]σ: 음절 말에서 자음이 [-oral] 자질을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⑥ Ident(MannerF): 조음 방법과 관련한 자질이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같아야 한다.

⑦ *[+obs]]σ: 음절 말에서 자음이 [+obs] 자질을 가지는 것을 제한한다.

⑧ MAX(segment): 입력형의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해야 한다.[12]

⑨ No-Coda: 음절 말에 자음이 오는 것을 제한한다.

袁家驊(1960)가 기술한 난창 방언에서는 -p가 모두 -t로 변화하였고 나머지 -t 및 -k는 그대로 실현되므로[13], -p 운미의 실현을 제약하는 유표성 제약이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며 -t의 실현을 제한하는 제약보다 -k를 제한하는 제약의 등급이 더 높다. 그리고 조음 방법 및 분절음 유지와 관련해서는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보다 상위에 놓인다.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⑩ *[+ant][-cor]]σ, *[-oral]]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oral][-ant][-cor]]σ ≫ *[+ant][+cor]]σ, *[+obs]]σ, No-Coda

표2)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1)

-p	*[+ant] [-cor]]σ	*[-oral]]σ	Ident (MannerF)	MAX (Seg)	Ident (PlaceF)	*[+oral][-ant][-cor]]σ	*[+ant] [+cor]]σ	*[+obs]]σ	No-Coda
-p	*!							*	*
☞ -t					*		*	*	*
-k					*	*!		*	*
-ʔ		*!			**			*	*
-m			*!						*
-Ø				*!					

그렇지만 모음 e 및 ɛ 뒤에서는 -k가 실현되지 않고 -t로 변화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⑪ *[+mid][-back]&[+oral][-ant][-cor]: [+mid][-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oral][-ant][-cor] 자질을 가진 자음의 실현을 제한한다.

이 제약은 -p와 -ʔ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과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는 상위에 있게 된다.

11) *[+ant][-cor]]σ에 의하여 -p 운미의 실현이, *[+ant][+cor]]σ에 의하여 -t 운미의 실현이, *[-ant][-cor]]σ에 의하여 -k 운미의 실현이 제한된다. (변별 자질은 趙忠德(2006) 및 Lass(1984)를 참조하였다.)
趙忠德(編著), 『音系學』, 上海外語出版社, 2006, pp.143-144; Roger Lass,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84-95.

12) 이하에서는 'MAX(Seg)'로 표시하며, MAX 제약은 어떤 요소의 삭제(Deletion)를 제한하게 된다.

13) 참고로 모든 구강 파열음 운미가 유지되는 메이센 방언에서는 모든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을 지배한다.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声韵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pp.284-288.

⑫ *[+ant][-cor]]σ, *[-oral]]σ, *[+mid][-back]&[+oral][-ant][-cor],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ant][+cor]]σ, *[+obs]]σ, No-Coda

표3)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2)

-ɛk	*[+ant][-cor]]σ	*[-oral]]σ	*[+mid][-back]&[+oral][-ant][-cor]	Ident (MannerF)	MAX (Seg)	Ident (PlaceF)	*[+ant][+cor]]σ	*[+obs]]σ	No-Coda
-ɛp	*!					*		*	*
☞ -ɛt						**	*	*	*
-ɛk			*!					*	*
-ɛʔ		!*				*		*	*
-ɛŋ				*!					*
-ɛ					*!				

그런데, 楊時逢(1969) 등이 기술한 난창 방언에서는 -t로 변화한 -k를 제외한 나머지 -k가 -ʔ로 변화하였다. 즉, 모음 u, o, ɔ, a, ɑ 뒤의 -k가 -ʔ로 변한 것이다[1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⑬ *[-mid][-back]&[+oral][-ant][-cor]: [+mid][-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oral][-ant][-cor] 자질을 가진 자음의 실현을 제한한다.

⑭ *[+back]&[+oral][-ant][-cor]: [+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oral][-ant][-cor] 자질을 가진 자음의 실현을 제한한다.

이 제약은 -p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과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는 상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ɛk(ek)와는 달리 -k가 -ʔ로 변화하므로, -ʔ를 제한하는 제약의 등급이 -t를 제한하는 제약보다 낮아야 한다.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⑮ *[+ant][-cor]]σ, *[-mid][-back]&[+oral][-ant][-cor], *[+back]&[+oral][-ant][-cor],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ant][+cor]]σ ≫ *[-oral]]σ, *[+obs]]σ, No-Coda

표4)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3)

-uk	*[+ant][-cor]]σ	*[+back]&[+oral][-ant][-cor]	Ident (MannerF)	MAX (Seg)	Ident (PlaceF)	*[+ant][+cor]]σ	*[-oral]]σ	*[+obs]]σ	No-Coda
-up	*!				*			*	*
-ut					**!	*		*	*
-uk		*!						*	*
☞ -uʔ					*		*	*	*
-uŋ			*!						*
-u				*!					

14) 楊時逢(1969)에는 이후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는 현상들이 다수 기술되어 있는데, '-ɛ?'도 이에 속한다. 이는 난창 방언의 '文白异读' 현상과 관계된 것으로 사료되나, 본 논문에서는 분량 관계상 일단 다루지 않는다.
楊時逢,「南昌音系」,『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第39本上冊,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 1969, p.129/150/172; 熊正輝,「南昌方眼的文白读」,『方言』第3期,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1985, p.210.

3. 결론

난창 방언은 중국어에서 입성 운미가 소실되기 시작하는 방언이며, 현재에도 입성 운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제약의 '등급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난창 방언의 입성 운미가 변화하는 것 역시 방언 내부에서 '제약의 등급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첫째, 난창 방언에서 모든 p운미 및 모음 ɛ(e) 뒤의 k운미가 t운미로 변화한 것은, 입성 운미의 위치 자질을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Ident(PlaceF))보다 p운미와 k운미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ant][-cor]]σ 및 *[+mid][-back]&[+oral][-ant][-cor])이 더 높은 등급을 가지게 되어 p운미와 k운미의 실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ʔ를 제한하는 *[-oral]]σ 역시 Ident(PlaceF)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p운미와 k운미는 ʔ운미로 변하지 않는다.

둘째, 난창 방언에서 모음 u, o, ɔ, a, ɑ 뒤의 k운미가 ʔ운미로 변화한 것은 *[-oral]]σ의 등급이 t운미를 제한하는 *[+ant][+cor]]σ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절음에 관한 제약이 아닌 자질과 관련한 제약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각 분절음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자질을 사용함으로 제약 위반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제약이 길어져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소 난삽해진 면이 있어 차후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楊時逢(1969)에 서술된 일부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声韵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陈昌仪, 『江西省方言志』, 方志出版社, 2005

儲倩文, 「南昌方言音系實驗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何琳珊, 「南昌方言陽聲韻尾與入聲韻尾演變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盧繼芳, 「贛語昌都片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6

馬義順, 「最新派上海市区方言的声调实验研究」, 上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熊正輝, 「南昌方眼的文白读」, 『方言』 第3期,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1985.

熊正輝, 『南昌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5

楊時逢, 「南昌音系」,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 第39本上冊,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 1969

楊信川, 「試論入聲的性質及其變化」,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廣西大學, 1997.

袁家驊, 『漢語方言概要』, 語文出版社, 1960(第一版)/2001(第二版)

趙忠德(編著), 『音系學』, 上海外語出版社, 2006

朱曉農 等, 「入聲演化三途」, 『中國語文』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8.

朱曉農, 「發聲態的語言學功能」, 『語言研究』 第29卷 第76期, 華中科期大學中國語言文字研究所, 2009.

Roger Lass,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1月 21日(土) 16:00~17:30

언어학(5)–의미화용

❖ 언어학 연구의 확장과 도전

신근영(상해외대) 중·한 공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대조 연구

기유미(부산외대) 중국 정부 공문서를 통해 본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형식과 의미

중·한 공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대조 연구

신근영*

<目 次>

1. 들어가며
2. 응집성과 응결성 정의 및 응결성 수단 분류
3. 중·한 공문 텍스트 응집성 주제부 전개방식 대조 분석
4. 중·한 공문 텍스트 응결성 대조 분석
5. 결론

1. 들어가며

텍스트는 문장의 통사적 단위를 넘어 의미적 단위로, 음성, 문자,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기본 단위로 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짧게는 "불이야!"하는 짧은 한 마디의 외침 또는 장편의 소설 등 모두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기본 단위로 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보그랑데·드레슬러(이재원 역, 2008:6)는 텍스트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에 대해서 일곱 가지 텍스트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응결성이다. 보그랑데·드레슬러에 따르면 응결성은 "텍스트 표층의 구성요소들, 즉 우리가 보고 듣는 실제 낱말들이 그 연쇄 속에서 서로 연관되는 방식에 관여한다. 표층 구성요소들은 문법 형식과 규칙에 따라 서로 의존하므로, 응결성은 문법적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제기하였다. 또한 응결성은 의사소통에서 통사구조가 가지게 되는 발화체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 이러한 발화체의 연속성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소위 '응결성 장치'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응집성이란 보그랑데·드레슬러(2008:128)에 따르면 텍스트의 의의(意義)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이라고 말한다. 이런 텍스트의 의미 연결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 기저의 의미 논리 구조로 나타난다. 이성만(2004)은 텍스트 응집성은 글의 주요개념인 주제부의 전개방식과 연관이 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응집구조, 특히 텍스트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의미구조는 해당 텍스트가 속한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그랑데와 드레슬러(2008:278-279)는 텍스트 안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의미구조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각각 기술(descriptive) 텍스트, 화술(narrative) 텍스트, 논쟁(argumentative) 텍스트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공문 텍스트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생산자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텍스트 수신자가 수용하도록 추진되는 텍스트로서 기술 텍스트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 텍스트는 기술(記述)구조를 그 핵심 의미구조를 가지게 된다. 비록 의미구조는 구체적인 맥락 가운데 대동소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통된 구조를 지니지만, 중·한 공문텍스트라는 동일한 유형에서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가운데 그 응집성과 응결성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텍스트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일련의 문장 연속체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의미한 공문 텍스트로 만들어 주는 텍스트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응집성과 응결성이 구체적인 텍스트 유형 안에서 중·한 양국이 어떠한 관계양상을

* 상해외국어대학교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중·한 공문 텍스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미구조인 기술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에, 중·한 공문 텍스트에서 그 의미구조를 결속시키는 결속장치(응결성/ 언어표현의 차원)에 대해 텍스트 표면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양상에 대해 대조 분석하도록 하겠다. 공문텍스트 기술구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성인 응집성과 응결성 간의 사상 양상을 밝힌다는 목적 아래, 중·한 공문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대조 분석하도록 하겠다.

공문 텍스트는 공문 텍스트를 매개로 공문서를 생산하는 상급 기관과 공문서를 수용하는 기관 간의 사회적 역할 행위를 수행하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공문의 명칭은 '공무 문서'의 약칭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정기관, 사업 부서 관계자, 사회단체가 공문 활동과 행정 처리 업무 가운데 정보를 전달하는 규범화된 법적 효력이 있는 도구이다. 중국의 행정기관 공문 텍스트의 유형은 크게 규정·명령성, 회답성, 기술성, 요청성, 통지성 공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정·명령성 공문에는 명령, 결의, 결정, 의견이 있고 회답성 공문에는 회답, 보고가 있다. 기술성 공문에는 회의 요지가 있으며, 요청성 공문에는 서한, 의안, 청훈이 있고 통지성 공문은 지시성 통지(指示性), 전달 및 비전성 통지(转发、批转), 발포성 통지(发布性), 회의 통지(会议), 임면 통지(任免)가 이에 포함된다. 한국의 공문은 크게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로 나눌 수 있다. 법규 문서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있으며, 공고 문서에는 고시, 공고가 포함되고, 비치 문서는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문서가 포함된다. 민원 문서에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포함한다. 일반 문서는 위의 다섯 가지의 문서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지시 문서는 중국의 지시 공문과 같은 성격, 목적, 기능을 지녔으며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이 포함된다. 중국과 한국 지시성 통지 공문서 분류표는 아래와 같다.

〈표1〉 중국과 한국 통지 공문 분류표

	중국	한국
통지 공문	지시	지시
	전달 및 비전	훈령
	발포	예규
	회의	일일명령
	임면	

논문의 분석 대상은 지시성 통지 공문이며, 중국에서 공문 명칭으로는 통지(通知), 한국에서는 안내와 알림으로 명기되어 있다. 자료 수집의 범위는 2017년-2020년까지의 중국 공문 텍스트 11편과 한국 공문 텍스트 1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공문 텍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통지 공문 10편이며, 한국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에 대국민 공개된 알림 및 안내 공문 11편이다. 별도의 붙임 등 첨부 파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응집성과 응결성 정의 및 응결성 수단 분류

텍스트의 응집성과 응결성에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지만, 응집성과 응결성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응집성과 응결성에 대한 개념마저 혼재하고 있다. 각 학자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연구하여,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리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응결성에 대한 정의로 문장들을 연결해주는 표면적인 언어자질이라 제시하였으며(김성경, 2009:11), 언어적 표층으로 나타내는 문법・어휘적 요소로 보기도 하였다(민주희, 2010:1). 또한 텍스트 표층의 결속 등으로 규정해 문법・어휘의 표층적인 언어자질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며(이보라미・수파펀분륭, 2012:184), 텍스트 표층의 미시적인 문법적 연관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보았다(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43).

응집성에 대한 정의로는 텍스트 전체의 거시적인 내용적,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았으며(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43), 텍스트 응집성은 글의 주요개념인 주제부의 전개방식과 연관이 깊다고 여겼고, 텍스트의 의미 연결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 기저의 의미 논리 구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성만, 2004:213).

응결성의 수단으로 텍스트 결속 이론을 체계화한 할리데이&하산(Halliday&Hasan, 1976)은 지시/조응(reference), 대체/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 결속(lexical cohesion)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보그랑데&드레슬러(Beaugrande&Dressler, 1981)는 결속구조는 문법적인 면과 어휘적인 면에서 드러나는데 문법적인 결속구조는 대용형, 생략, 병행구문, 접속을 통해 나타나고 어휘적 결속구조는 동일어휘 반복이나 상위개념을 나타내는 어휘의 반복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고영근(1999)은 자소론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응결장치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의미상 등가성에 기댄 응결장치로 명시적 재수용과 함축적 재수용을 제기하였다.

이삼형(1999) 텍스트 응집성이란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의미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백수진(2003)은 논문에서 이와 같이 어떤 형식이든 또는 어떤 길이의 텍스트이든지 간에 그 기저에는 의미의 일관성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구체적인 언어 형식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결속성이라고 하였다. 백수진은 논문에서 결속 수단으로 회기, 부분 회기, 병행 구문, 환언,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등을 제기하였다.

이성연(2005)은 신문광고 언어 텍스트를 통해 응결성의 장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수용자가 텍스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저장하여 텍스트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응결성의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러한 응결성의 장치에서 회기, 병행구문, 환언, 대용형, 생략 등을 살펴보았다.

홍경아(2006)는 논문에서 광고텍스트를 대상으로 결속 구저적 장치를 분석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결속구조적 장치로 반복(어휘 반복, 부분 반복, 병행구문), 생략, 재수용(대용형(전조응, 후조응), 어휘의 유사성에 의한 재수용, 함축적 재수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속구조적 장치는 텍스트 결속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광고전략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학수(2007)는 cohesion을 응결성 또는 결속성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coherence는 응집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cohesion이 통사적 개념이라면 coherence는 의미론적 개념으로 여긴 것이다. 따라서 cohesion은 coherence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는 결속력 장치로 전이(transition), 문장의 배열(sentence order), 대명사(pronoun), 태(voice), 동의어(synonym)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박나리(2009:161)는 텍스트성(textuality)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질로 인정받는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이 구체적인 텍스트 장르 안에서 상호 어떠한 관계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 학술논문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논증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근거, 추론, 결론이 각각 어떤 응결장치(cohesive devices)에 사상(mapping)되어 나타나는지 기술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박은숙(2019) 텍스트에는 문장을 뛰어넘는 결속구조(cohesion), 즉 지시(reference)나 생략(ellipsis) 등의 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王菊泉(2011: 97-99)는 대체(substitution)와 생략(ellipsis)은 언어 중 일반적인 어법 수단이며, 그 기능으로는 중복을 피하고 텍스트의 결속을 돕는다고 보았다.

潘文国(1997/2002:340-350)는 다른 두 언어의 생략과 대체(替代) 연구를 언어의 유형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형합(形合)과 의합(意合)의 측면으로 분석 진행하였다. 그는 중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영어는 형합 중심의 언어로 생략이 많고 형태 또는 형식의 표기를 동반한다고 분석하였다. 바로 이러한 형식의 존재는 생략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는 의합 중심의 언어로 생략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표의)만을 추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기만 하면 생략은 어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칙성과 그 논리성조차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Hansan, 1976)이 제기한 영어의 결속 수단을 중국어의 맞추어 다시 분류하였다. 어휘 결속 수단에서 똑같은 어휘(相同词)를 사용하는 유형을 '중복'이라 하였고, 대용(照应)과 대체, 동의어 또는 유의어, 상위어(hypernym) 그리고 통칭어(统称词)를 함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대체(替代)'라 명하였다. 이로써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어는 '중복'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어는 '대체'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는 차이가 명백히 드러났다.

许余龙(1992:238-254)은 응집성과 응결성이라는 용어로 분류하지 않고, 의미적 결속과 구조적 결속이라는 결속 이론의 틀을 확립하여 중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대조 분석하였다. 의미적 결속은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Hasan)의 다섯 가지 결속과 일치하고, 구조적 결속에는 정보구조, 주제-술제구조, 대구, 동일 구조 형식의 배열 등을 포함시켰다.

백수진(2003)은 许余龙의 결속 체계 분류에 따라 구조적 결속 분석에 '주제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분석 관점은 이와 다르다. '주제 전개 방식'은 주제부와 술어부 간의 의미 전개 방법을 분석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적 결속(응집성)의 분석 도구라고 본다. 또한 통사적(어법적) 결속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조응, 대체, 생략, 접속사, 어휘결속을 의미적 결속으로 분석하였지만,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언어적 표층에서 드러나는 통사적(어법) 수단으로 구조적 결속(응결성)으로 본고는 여긴다.

응집성과 응결성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지만 각 학자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심지어 응집성과 응결성에 대한 개념마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의미적 일관성 곧, 응집성을 '주제부 전개 분석(이론)'을 통해 같은 유형의 중·한 공문 텍스트에 대해 의미의 유기적 일관성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대조 분석하겠으며, 이러한 응집성이 구체적으로 언어 형식에 의해 실현된 응결성에 대해서는 '결속 구조'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결속 구조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결속 구조적 장치 가운데 중복되는 항목을 피하고 공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한 공문 텍스트에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결속 구조를 반복(recurrence), 재수용, 생략(ellipsis)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 중·한 공문 텍스트 응집성 주제부 전개 방식 대조 분석

3.1 주제부 전개방식 이론틀

체코 학자 다네쉬(Danes, 1970)는 프라하학파의 이론을 발전시켜 텍스트 측면에서 각 문장이 서로 연결된 규칙을 주제부와 서술부의 응집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제부 전개방식(patterns of thematic progression)을 제기했다. 여기서 주제는 맥락적으로 이미 알려지고 주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제부는 텍스트 문맥을 토대로 유추해 낼 수 있거나 텍스트 수용자의 세상 지식과 선지식 등에 의거해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기도 한다. 설명부는 맥락적으로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텍스

트 문맥에서 유추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1] 그는 주제부 전개방식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단순 선형식(linear progression) 전개방식, 주제부 반복(constant pogression) 전개방식, 상위 주제부 파생식(extended parallel progression) 전개방식, 설명부 분열식(split progression) 전개방식, 주제부 비약식(elliptic progression) 전개방식이다.[2] 다네쉬의 기본 주제부 전개방식 유형을 기초로 몇몇 학자들은 전개방식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 보안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 학자 가운데 세 가지 기본 주제부 전개방식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후좡린(胡壯麟, 1994)으로 주제부 동일형, 연속형, 주제부와 서술부 중복형을 제기하였다. 네 가지를 제시한 학자는 주융성(朱永生, 1995)으로 주제부 동일형, 서술부 동일형, 연속형, 교차식을 제기하였다. 다섯 가지를 제시한 학자로는 양페이페이(楊斐翡, 2004)으로 연속 발전식, 선형 발전식, 파생 발전식, 연속 평행 발전식, 연속 중단식을 제시하였다. 여섯 가지를 제시한 학자로는 황궈원(黃國文, 1988)으로 평행식, 연속식, 집중식, 교차식, 병렬식, 파생식 주제전개방식이 있다. 일곱 가지 전개 방식을 제기한 학자로는 쟝단(江丹, 2002)으로 평행식, 연속식, 집중식, 파생식, 교차식, 비약식, 분열식을 제기하였다. 치위춘(戚雨村, 1993)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와 연결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제부 전개방식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주제부 전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한 학자로는 쉬성환(徐盛桓, 1985), 황옌(黃衍, 1985) 등이 있다.

한국에서 박은숙(2019)은 「텍스트언어학의 주제전개방식과 중한번역」에서 복사식, 집중식, 사슬식, 파생식, 교차식, 다섯 가지 주제부 전개 방식으로 중한번역에 응용해 대조 분석하였다. 김학수(2007)는 「주제 전개방식 관점에서 본 영어단락의 일관성 지도」에서 순차 진행, 병렬 진행, 확대 병렬 진행인 세 가지 전개 방식으로 영어 교육자들에게 영작에 있어서의 언어 교육을 주제로 응용 분석하였다. 동일한 세 가지 전개 방식을 사용한 정효진(2006)은 「주제 진행에 따른 영어 우향 전위구문의 담화 기능」에서 병렬 진행, 연쇄적 진행, 확장된 병렬 진행 세 가지 전개 방식을 응용하여, 영어 우향 전위 구문의 후치 명사구에 대한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희자(2004)는 「주제부 전개로 본 텍스트 구성연구」에서 단순 선형식, 주제부 순환식, 상위 주제부 파생식, 설명부 분열식, 주제부 비약식, 주제부 분할식, 통합식, 비유식으로 여덟 가지 전개 방식으로 한국어 텍스트에 응용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학자 모두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따라 주제부 전개방식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 보안하여 텍스트 활용하였다.

텍스트의 내부적 완성 조건에서 미시적 의미 전개 구조 측면에서, 텍스트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보고 텍스트 의미 구조 형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 일기예보 텍스트의 의미 구조의 전개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주제부 전개 방식에 가장 보편적으로 응용되는 다네쉬가 분류한 다섯 가지 주제부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중・한 일기예보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네쉬의 다섯 가지 주제부 전개 방식 유형은 ‘단순 선형식’, ‘주제부 반복’, ‘상위 주제부 파생식’, ‘설명부 분열식’, ‘주제부 비약식’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순 선형식 전개 방식은 선행 문장의 설명 부분이 후행 문장의 주제부가 되는 형식으로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간단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단순 선형식 전개 방식이라 부른다. 전개 유형 도식은 아래와 같다.

(지면 한계로 생략)

주제부 반복 전개 방식은 병렬식 전개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주제부 반복 전개 방식은 선행 문장의 주제부가 후행 문장의 주제부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다. 설명부는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설명이 이어진다.

---

1) Klaus Brinker, 이성만 역,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68쪽 참조..

2) 다네쉬(Danes, 1970)의 주제부 전개 방식 분류의 선행 연구 소개에서 이희자(2001), 이성만(2004) 또한 동일하게 다섯 가지로 소개하였다.

(지면 한계로 생략)

상위 주제 파생식 전개 방식은 확대 전개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상위 주제 아래 의미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하위 주제들이 파생되어 전개되는 방식이다.

(지면 한계로 생략)

설명부 분열식 전개 방식은 주제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고 설명부에서는 선행 문장에서의 설명부가 다시 후행 설명부에서 나타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주제전개 방식으로 한 문장에서 구정보를 주제부에서 제시한 후, 신정보를 설명부에서 제공한다. 하지만 설명부 분열식 전개 방식은 이런 보편적인 주제전개 방식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지면 한계로 생략)

주제부 비약식 전개 방식은 후행의 주제부와 설명부가 충분히 추론 가능할 경우 생략하는 전개 방식이다.

(지면 한계로 생략)

다네쉬의 주제부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중·한 공문을 대상으로 주제부 전개 방식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3.2 중·한 공문 응집성 주제부 전개방식 대조 분석

〈표2〉 중·한 공문 응집성 주제부 전개 유형 통계

전개 유형 / 출현 수	단순 선형	주제부 반복	상위 주제 파생식	설명부 분열식	주제부 비약식	11편 문장 총수
중국 공문	2	3	123	0	0	128
	1.56%	2.34%	96.09%	0	0	
한국 공문	1	0	57	2	0	60
	1.66%	0	95%	3.33%	0	

(지면 한계로 이하 생략)

참고문헌

고영근(1995),『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박은숙(2019),「텍스트언어학의 주제전개방식」,『중국인문과학』(73), 125-147.

박나리(2009),「학술논문에 나타난 응집성(coherence) 응결성(cohesion)의 사상(mapping) 양상」,『국어학』(56), 161-190.

백수진(2003),「텍스트 결속성과 중국어 문법 교육」,『중국어문학논집』(23), 265-291.

(…지면 한계로 이하 생략)

중국 정부 공문서를 통해 본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형식과 의미

기유미*

<目 次>

1. 서론
2. 관련연구
3.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내부 형식 및 의미
4. 맺는말

1. 서론

숫자는 객관적 수치를 나타내는 수량 전달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는 종종 숫자와 조합된 줄임말을 활용하여 어떤 대상을 대신하여 지칭하거나, 주요 내용을 포괄하여 명시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익숙한 예시로 '两会'는 '全国人民代表大会'(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政治协商会议'(정치 협상 회의)를 통칭하는 말이며, '一国两制는 "하나의 국가 내에 두 체제를 허용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단어 구성을 숫자 줄임말이라 부른다. 숫자 줄임말은 특히 사회 정책이나 주요 사안을 제시하는 정부 공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각각 상이한 숫자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나타난다. 본고는 '中国政府网'을 통해 중국 정부 공문서에서 나타나는 숫자 줄임말의 내부 형식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함축된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줄임말(缩略语)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영문에서의 쓰임을 논하거나 번역문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어에 관한 기본 연구 및 응용 연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과학, 의학, 군사, 컴퓨터 등[1] 특정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줄임말에 관한 연구 형태가 다수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인터넷상에 유행하는 인터넷 줄임말(网络缩略语)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인 중국어 숫자 줄임말 또한 80년대부터 일부 언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줄임말 연구의 전체 내용 중 작은 일부분에 그쳤으며, 전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어 숫자 줄임말에 대한 단독 연구를 진행하여 그 내부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최근 연구에서 유행하는 인터넷상에 일부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생명력이 비교적 짧은 신조어보다는 사회 정책과 이슈를 제시하는 정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범사회적인 용도로 활용된 숫자 줄임말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1) 刘树三,「国外医药卫生科学期刊缩略语」,『黑龙江医药』, 1981.12 ; 李晓,蔡云,「英汉计算机常用缩略语词汇推荐」,『电讯技术』, 1985.01 ; 罗林桂,「正确使用军事缩略语」,『国防』, 1988.12 ; 周世光,「科技文献中的缩略语」,『大学化学』, 1989.03.

3. 중국어 숫자 줄임말의 내부 형식 및 의미

1) 숫자 줄임말의 내부 형식

숫자 줄임말은 우선 양사의 유무에 따라 'N+X'와 'N+Q+X'로 나눌 수 있으며, 'X'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가 나타날 수 있다.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 통상적으로 명사는 수사의 수식을 직접 받지 않고, 양사를 동반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숫자 줄임말에서는 오히려 양사가 없는 형태가 주를 차지한다. 명사외의 다른 품사형식도 숫자 줄임말에서는 문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조합을 보인다. 아래는 이음절 숫자 줄임말 'N+X'의 예시이다.

'N+X'	X=명	一招、一网、一府、一委、二法、两基、两院、两病、两区、三网、三关、三权、三河、三湖、三医、三废、三农、三公、四权
	X=동	双创、三促、三互、三要、三定、三变、六保
	X=형	三清、三新、四新、六稳
	X=부	三不
	X=수	双百(工程)、双万(计划)、二四(制)、四零(目标)、一五(计划)[2]

〈표 1〉 이음절 숫자 줄임말 'N+X'의 예시

'N+X'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X'부분이 중심어가 되고, 'N'은 중심어 'X'가 나열된 개수를 표시한다. 'X'는 간단한 단어에서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긴 문장까지 내포하고 있다. 아래는 'N+X'의 내부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N+[ ]x[3]	N+x[ ]
X=명	'两院' : [人民法]**院**、[人民检察]**院** '两区' : [粮食生产功能]**区**、[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	'两基' : **基**[本]实施九年义务教育、**基**[本]扫除青壮年文盲 '三医' : 医[保]、医[药]、医[疗]

〈표 2〉 이음절 숫자 줄임말 'N+X(명)'의 내부 형식 분석

위의 'N+X(명)'를 대표적으로 그 내부 구성을 보면, 'X'내에 나열된 구성원들의 공통된 부분이 중심어로 남고, 나머지 앞(N+[ ]x) 또는 뒤(N+x[ ])부분의 내용은 축약되었다. 축약된 부분은 '三医'(医保、医药、医疗)와 같이 단순한 단어에서부터 '两区'(粮食生产功能区、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와 같이 비교적 긴 내용, 혹은 아래와 같이 보다 더 긴 문장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1) '三**要**' : **要**[有中长期规划，加大财税、用地等政策支持，健全投资和管理长效机制]；
要[在精准上下功夫，实现贫困地区率先突破]；(还)**要**[注重生态环保、注重提高管理和服务水平]
중장기적으로 재정, 용지 등의 정책 지원을 늘리고, 투자와 관리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정밀화에 힘을 기울여서 빈곤 지역 율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또한 생태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X=수', 즉 'N+X'의 'N'과 'X'가 모두 수로 구성된 경우는 'X'가 명사, 동사, 형용

2) 중국 경제 5개년 계획으로 一五(计划)(1953—1957)에서 十四五(计划)(2021-2025)까지 제시됨.

3) N의 뒷부분 전체를 대문자 X로 보고, 그 내부 구성에서 축약된 부분은 [ ]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통된 부분으로 남은 중심어는 실제 글자 수에 관계없이 간소화하여 소문자x로 표시함.

사, 부사인 경우보다 줄임말 구성에 있어서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인다.

예2) a. '二四(制)' : [初中]**两**[年]、[高中]**四**[年] 중학교 2년, 고등학교 4년
b. '**一五**(计划)' : [第]一[个]**五**[年](计划) (중국 경제) 첫 번째 5개년 계획
c. '**双万**(计划)' : 认定**万**[门左右国家级一流本科课程]、**万**[门左右省级一流本科课程]
만 개 정도의 국가 급 일류 학부 과정과 만 개 정도의 성급 일류 학부 과정을 확정한다.

위의 예시 중 '二四(制)'는 '二四'로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二四'는 '初中两年'과 '高中四年'에서 각각 숫자 부분만 발췌하여 줄임말을 형성하였다. 또 '一五(计划)'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가운데 숫자만 추출하여 조합하였다. 그런데 '双万(计划)'의 경우에는 '国家级(국가급)' 그리고 '省级(성급)'의 '두 가지(双)'로 구성된 '万门...(课程)'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축약되어서 형성된 줄임말이다. 여기에서 '双'은 내부에 나열된 대상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숫자로만 구성된 줄임말의 경우 일률적인 축약 방식을 가지지 않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숫자만으로 구성된 줄임말은 내용 추측에 있어 가장 난해하다.

위와 같은 이음절 형식 외에도 이음절이 연속된 사음절 줄임말의 형식도 다수 나타난다.

'N+X+(N)+Y'	X,Y=명	N+x+N+y	一户一页、一户一人、一户一宅、一事一表 一组一册、八纵八横、一带一路
		N+x+N+[ ]y	一市两场
		N+x+N+y[ ]	一县一品、一事一议、一村一档、一村一警
		N+[ ]x+N+[ ]y	一业一证、一盔一带、一照一码、一标三评 一行一策、一校两制、三险一金、五险一金
		N+[ ]x+N+y[ ]	三品一标、三线一单
		N+x[ ]+N+[ ]y	一企一策、一国一策
		N+x[ ]+N+y[ ]	一街一景、一企一档、一老一小
	X,Y=동	N+x[ ]+N+y[ ]	一减一加、一减一增、一超三罚、两学一做、三支一扶、三治三提、三减三提、两免一补、三融五跨、四督四保
	X,Y=형		三严三实
	X,Y=부		四不两直
	X,Y=수		3545(改革)、三十双百(工程)、 双百千万(工程)、十百千万(工程)
	기타복합	X≠Y	四换(동)三名(명)、三供(동)一业(명)、 五水(명)共治(동)、 三不(부)二要(동)、三不(부)三问(동)
		'N+大+.....'	四大举措、五大看点、六大专项、七大提醒 八大政策

〈표 3〉 사음절 숫자 줄임말 'N+X+(N)+Y'의 예시

앞서 제시한 이음절 형식의 'N+X'에서 'X'는 어떤 단어나 구, 문장 등의 내용이 줄여지고, 그 가운데 공통되는 일부가 남겨진 형태를 보였다. 이음절의 확장격인 사음절 숫자 줄임말의 경우에도 'X', 'Y'가 명사인 경우의 일부 형식과 '기타복합'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 재미있는 현상은 아래와 같이 줄여진 단어의 출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다.

N x N y	내용
‘一户一页’	对识别出来的贫困人口实行实名登记，以户为单位建立“家庭档案” 식별된 빈곤 인구는 실명 등록하고, 가구 단위로 ‘가족 부’를 만든다.

위의 예시에서 사음절(‘N+x+N+y’) 내부에 각각의 숫자 ‘一’ 뒤에는 단음절 단어(x,y)가 사용되었다. 그중 앞부분의 ‘x(户)’는 글자 본래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一户一页’에 대한 내용 설명에도 ‘x’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y’는 설명 가운데에서 그 관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y(页)’는 전달하려는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별개의 단어이다. 즉 “(家庭)档案”의 내용을 대신하는 별도로 채택된 단어이다. 다시 말해, 档案(서류)을 (一)页(한 페이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또 아래의 경우,

N x N y	내용
‘八纵八横’	‘八纵’：沿海通道、京沪通道、京港（台）通道、京哈～京港澳通道、 呼南通道、京昆通道、包（银）海通道、兰（西）广通道 ‘八横’：绥满通道、京兰通道、青银通道、陆桥通道、沿江通道、 沪昆通道、厦渝通道、广昆通道

‘八纵八横’은 중국 고속 철도 노선의 발전 계획을 일컫는 말로 ‘N+x+N+y’ 구성에서 ‘x, y’와 연관된 단어가 내용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纵’, ‘横’은 중국 주요도시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 철도의 노선을 형상화하였다. ‘八纵八横’는 일차적으로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纵’, ‘横’을 통해 전체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숫자 줄임말은 문자가 이미지화되는 효과를 주어 대중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다.

그 외 사음절 숫자 줄임말에서도 전체가 숫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앞서 이음절 형식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 구성이 일률적이지 못하여 추측하기 어렵다. 다음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예시이다.

예3) a. ‘**十百千万**(工程)’：
3年共投入各类资金约126亿元，实施了10个示范县、100个示范乡镇、1078个示范村和 1万户民族团结进步示范户建设。
对示范点的基础设施、特色产业、社会事业等进行扶持。
3년 동안 총126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시범 현 10개, 시범 향진 100개, 1078개 시범마을과 1만 민족 통합 진보 시범 가구를 건설하고, 시범지에 인프라, 특화 산업, 사회사업 등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b. ‘3545(改革)’：
新开办企业实现3个工作日内完成营业执照办理、涉税办理等事项；
查封、抵押、注销登记等企业和群众关注度高的不动产登记压缩至5个工作日内，
其他不动产登记逐步实现5个工作日内完成；一般性工业项目从立项到竣工验收的审批时限压缩至45个工作日内。
신설 기업은 영업 허가증 발급, 세무 처리 등의 사항을 영업일 3일 내에 완수해야 한다.
차압, 저당, 등기말소 등 기업과 대중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영업일 5일 이내로 처리해야 하고, 기타 부동산 등기는 영업일 5일 이내에
단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업 프로젝트는 입안부터 준공검수까지 영업일 45일 이내로 시한이 제한된다.

이상 이음절 및 사음절 예시의 분석을 통해 숫자 줄임말의 두 가지 형성 방식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본래 원형의 단어나 구, 문장 등에서 공통된 부분을 중심어로 남기고 줄임말 형성. 두 번째는 본래 원형의 단어나 구, 문장 등에는 관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달하려는 전체 내용을 형상화하는 별도의 단어를 채택하여 줄임말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부 공문서에 나타나는 숫자 줄임말은 양사를 동반하지 않는 'N+X'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다음과 같이 양사를 그대로 동반하는 'N+Q+X'의 형식도 일부 존재한다.

'N+Q+X'	Q=个	X=명	四个实施、四个规划、四个意识、四个自信、五个经济
		X=동	两个维护、九个坚持、三个着力、四个走遍、五个严禁、九个要求
		X=부	两个一定、八个一定、三个一律、三个更加
		X=수	八个百分百、五个一(政策)、五个五(活动)、两个一百年、四个一批
		기타복합	两个不变、四个基于、三个紧急撤离、'十个搞清楚、十个弄明白'
	Q=个외 기타		一项新规、两项补贴、八项规定、五条军规、八条措施、四道严令

〈표 4〉 숫자 줄임말 'N+Q+X'의 예시

정부 공문서는 대부분 정책 사안, 어떤 규정이나 조치,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항목, 조항, 규칙, 의견 등에 쓰이는 전용 양사 '项', '条', '道'가 주로 사용되고, 그 외에는 모두 '个'를 사용한다.

2) 숫자 줄임말에서 숫자의 활용과 의미

정부 공문서에 나타나는 숫자 줄임말에 사용된 숫자는 본래 그대로의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실제로 지칭하는 항목들의 개수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몇몇 숫자들은 본래 그대로의 수치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이다.

(1) '零'의 의미

숫자 '零'은 수학적 의미에서 아무런 수치적 값이 없음을 나타낸다. 중국 공문서에서는 종종 '零'을 사용하여 주요 사안을 전달하는데, '零'의 수치적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예4) a. '零报告(制度)' : 从初次上报报表到本次上报报表之间的时段内，即使没有出现新情况，也要将报表填上"0"上报的制度。
上报报表的时间和时间间隔是上级规定的，目的是为了掌握某时段内的最新情况。
최초 상부 보고에서 현재 본 보고 사이의 시간 동안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0을 기입해 보고하는 제도이다.
보고 시간과 간격은 상부에서 규정하여, 어떤 시간대의 최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b. '四零(目标)' : 在青藏直流联网工程一年多建设期，实现建设者零死亡、零伤残、零高原后遗症、零鼠疫传播的"四零"目标。
청장 직류 연결망 공사 1여년의 기간 동안 건설자 제로 사망, 제로 부상, 제로 고원 후유증, 제로 페스트 전파의 "四零" 목표

c. '零容忍'(政策)[4] : 通过对各种轻微的违法犯罪行为坚决依法处置，清楚地阐释了防微杜渐,打击轻微犯罪在预防严重犯罪中的重要性。它将警务工作的重点从单纯"提高对犯罪的反应速度"转移

4) '零容忍(政策)'은 무관용 정책(또는 초강경정책)으로 역시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到“降低犯罪率”上来,促使社区警务战略的落实,实现维护社会治安和提高社会福利的现实需要。
각종 경미한 위법 범죄에 대하여 법에 따라 단호히 처치함으로써, 경범죄를 단속하는 것이 중범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함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경찰 업무의 초점을 단순한 ‘범죄에 대한 반응 속도 향상'에서 ‘범죄율 감소'로 옮김으로써 지역사회 경무 전략의 정착을 촉진하여 사회 치안 유지와 사회 복지의 향상을 위한 현실적 수요를 실현한다.

‘零’은 기본적으로 수치적인 ‘0’의 의미도 있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없다(없애다)’, ‘근절 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一’의 의미

중국어의 ‘一’은 보통 수치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每一’, ‘满’, ‘整’[5]과 같이 여러 파생 의미를 가지며, 다양하게 활용된다. 정부 공문서에 사용된 ‘一’은 조합형식이 자유롭고,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본고에서 조사된 ‘一’은 양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여 기본적인 수치의 의미를 포함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예5) a. ‘一村一警’ : 从市县级治安、刑侦、交警等部门挑选适合和熟悉当地情况的民警进驻**每一个**行政村，实现“**村村有警**、月月见警”。
시・현급 치안, 수사, 교통경찰 등의 부서에서는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적합한 경찰관을 골라 각 행정 촌마다 진주하게 하여 “村村有警月月見警”을 실현한다.
b. ‘一超三罚’ : 一经查到违法超[载]行为，将对驾驶人、车俩所有人、车属单位进行罚款。
(일단) 불법 과적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차량 소속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의 “一村一警”에서 ‘一’은 ‘每一’의 의미로 결국 “(每)一村(每)一警”의 의미를 전달한다. 또 ‘一超三罚’에서 ‘一’은 단순히 수치적 의미의 ‘한 차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세부 설명을 보면 “一经(查到违法超载行为)...将...” 즉 ‘일단...(하면)’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一 A 就 B’의 형식과 닮아있다. 이를 대입해보면 ‘一超(就)三罚’, 즉 ‘(차량이) 적재량을 초과하면 세 부분에 있어서 벌금을 부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이 외에도 ‘一守六保三促’와 ‘双随机、一公开’에서와 같이 ‘一’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도 내포하지 않고, 형식상의 통일 및 어투 전달의 기능적 의미만을 전달하기도 한다.

4. 맺는말

본고는 사회 정책을 제시하고, 현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정부 공문서에서 자주 활용되는 숫자 줄임말을 조사하고 그 내부 형식과 주요 숫자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내용이다.

1. 숫자 줄임말의 형식은 양사의 유무에 따라 ‘N+X’(사음절 포함)와 ‘N+Q+X’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2. ‘X’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가 나타날 수 있다.
3. 숫자 줄임말의 형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본래 원형의 단어나 구, 문장 등에서 공통된 부분을 남기고, 줄임말 형성.

5) 예: 我就死了，魂也要一日来一百遭。(‘每一’의 의미) 宝玉发了一晚上的呆。(‘满’, ‘整’의 의미)
王力,『中国现代语法』, 商务印书馆, 1985, pp.250-251.

2) 본래 원형의 단어나 구, 문장 등에는 관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달하려는 전체 내용을 형상화하는 별도의 단어를 채택하여 줄임말 형성.

4. 축약된 부분은 단순한 단어에서부터 비교적 긴 여러 개의 문장까지 내포한다.
5. 숫자 줄임말 전체가 숫자 구성일 경우 다른 품사와의 조합보다 더 불규칙적이고, 의미도 난해하다.
6. ‘N+Q+X’에서 사용되는 전용 양사는 보통 항목, 조항, 규칙, 의견 등의 단어 앞에 쓰는 양사 ‘项’, ‘条’, ‘道’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个’를 사용한다.
7. 숫자 줄임말에 사용되는 숫자는 ‘零’에서 ‘十’까지 그리고 ‘双’을 비롯해 ‘百’, ‘千’, ‘万’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들은 본래 그대로의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1) ‘零’은 수치적인 ‘0’의 의미 외에 ‘없다(없애다)’, ‘근절 하다’의 의미를 가짐.
   2) ‘一’은 숫자 가운데 가장 허화(虛化)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짐.
      ① 숫자 그대로의 수치적 의미 ② ‘每一’의 의미
      ③ ‘一 A 就 B’의미 ④ 형식상의 통일 및 어투 전달의 기능적 의미
8. 숫자 줄임말은 용이성과 모호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의성이 나타나는 한계점도 있다.
9. 숫자 줄임말은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통해 숫자 지각 효과를 극대화하여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10. 숫자 줄임말의 형성과 활용은 중국어 한자의 표의문자적인 특성과 중국 숫자의 언어적인 묘미가 종합적으로 이룬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본고에서 살펴본 정부 공문서에서 나타나는 숫자 줄임말은 단어 축약의 문자적 조합방식과 숫자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의 양 측면을 종합하여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잘 나타낸다. 또한 동시에 사회의 주요 정책적 이슈를 집약하여 볼 수 있어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月 21日(土)16:00~17:30

중국어교육(3)

❖ 중국어 교육의 실천과 변화

독해봉(동명대) 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设计

이소현(부산외대)·**한희창**(한양대) 특수 목적 중국어(CSP)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읽기 학습 모형 제안

孫 貞(성결대) 对韩汉语教材中的语气词"呢"

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设计

独海峰*

<目　录>

1. 教养课实际与类型
2. 学生需求分析
3. 以学生为中心的课堂设计
4. 结语

该研究以中文教养课能否培养学生核心技能，借以提高学习满意度，活跃课堂气氛为研究目的。

1. 教养课实际与类型

本文研究的教养课，具体指的是教养类型的中文选修课程。学生通过一两个学期掌握汉语拼音规则，熟悉简单日常用语，初步了解中国文化。学习者以学分，兴趣为基础申请课程，这点与中文必修课或专业课在教学目的，教学任务，教学原则制定上略有差异。从二语习得的难度上看，教养课受课程性质影响，不能对音、字、词汇和语法进行面面俱到的讲解，教学广度和深度方面都带有“浅尝辄止”的意味。传统课堂形式在传授课堂知识方面很适用，但转换思路，以学生为中心进行课程设计，原本呆板的课程将会换发活力，整体课堂效果会有很大改善。学习者将会在综合技能方面得到良好训练，且对亲近师生关系多有助益。

吕必松(2007)提及教学类型时根据教学内容可划分为专业班、专修班、普通班。中文专业或职业性质明显的课程属于前两者，而教养课属于普通班。普通班不针对特殊目的学习者，与学习者受教育目的有关，重点在于打下语言基础。教养课正属于这一教学类型。另外，教养课从课程类型上又可纳入语言知识课、背景知识课的范畴。

1.1 以学生为中心教学与翻转教学

部分教师认为中文学习要“以教师为主导、以学生为中心”，笔者也赞同。教材选用、划分知识点、重点与难点，学习都要教师主导才能确保课程进度。而所有环节都要以学生为中心。了解学生学习动机、年龄特点，倾听学生需求，才能做到有的放矢，事半功倍，不至于教师很努力，教学评价却很平平。

以学生为中心的教学形式多样，理论间相互影响，有一种方兴未艾的教学形式名为翻转课堂(Flipped classroom)、翻转教室或反转课堂。这种教学形式注重学生的主观能动性，学生课前通过视频提前学习，有效提高了课堂时间利用率。起初只是“教学流程”上的创新，之后的讨论逐渐对教育理念产生影响。许多教育工作者对翻转教学进行了广泛深入的尝试。

以学生为中心的教学与翻转教学有相通之处。柯慧俐(2019)认为翻转教学有利于提高学生学习兴趣、学习能力、提高教学评价合理性。实践证明以学生为中心的教学同样具有翻转教学的优点，同时，内容和形式更加

* 东明大学

多样化。

1.2 以学生为中心的教学形式

笔者借鉴翻转教学形式，在课堂流程上进行了一次探索。例如，将课前视频录制环节取消。课程开始，导入阶段过后，利用10分钟左右的时间讲授完当日内容，之后进行小组讨论练习。此法对较难语法教学效果显著。过程将在下面详述。

2. 学生需求分析

本节将结合学生需求与范例进行说明。

每个学习者都是特殊的个体，以学生为中心就要先弄清学习者个体属性，课程开始前问卷调查必不可少。通过问卷可对学习者情况整体把控，做到在教学方法、教学路子、教学技巧上及时调整。无论是刚从事教育事业的工作者，还是经验颇丰的教师都无法做到初次面对学习者时先知先觉。

笔者针对本科110名教养课的学生做了问卷调查，有效问卷为101份，为计算方便选100份进行分析。内容大致分为课前、课上、课后，及中文影响力等。

	1年级	2年级	3年级	4年级	全体
单位：名	2	83	13	12	110

下面我们逐个分析每个选项。首先是学生选择教养课的目的。随着中国在国际舞台上的影响力日益增强，学生开始重视中文学习。对于为什么选择中文52%学生表示因为喜欢所以选择，另有36%表现为喜欢程度一般。如果喜欢中文，选课的目的就会相对明确，结果有22%的人目的非常明确，38%的人很明确，32%表现一般。总体上，学生对中文的认知度不断提高，且大部分学生意识到学习中文的必要性。据悉首尔地区中文比较受欢迎，釜山庆南地区则是日语。但近年来中文的热度在稳步提升。问及平常是否很关注中文，表示非常关注和很关注的学生分别占21%和53%，这一数据便是力证。

徐子亮、吴仁甫(2005)强调舍弃文化内容而光学语言形式是绝难学好外语的。文化导入可对理解课文、理解思维，理解民俗起到作用。作为基础课程是否应该在起始阶段学习中国文化，仁者见仁智者见智。问卷结果显示25%的学生认为非常有必要学习，有44%认为很有必要，总体68%的学生对文化教学表示支持，某种程度上说明了文化课的重要性。值得一提的是，文化导入并不是简单活跃课堂气氛生搬硬套。笔者曾在某年国庆直播时，给学生们播放了国庆阅兵画面。在没有任何背景铺垫下，只是略微介绍了一下就看了直播，结果教师激情满满，学生反应平平。徐子亮、吴仁甫(2005)提到文化导入原则(1)文化导入必须与课文内容密切相关。(2)摆正主次位置。(3)文化导入应该是有机的，而不是外加的。(4)文化导入的内容比较丰富，不宜过于集中，可以分散进行。

教养课的目的是培养学生对中文的兴趣，教学中一定要以学生为中心进行课堂设计，调节难易度。学生们在问卷中对汉字、拼音、语法的难度认知如下。认为汉字学习难度大的68%，拼音61%，语法53%。为了不打击学习积极性，循序渐进培养学习兴趣，笔者尝试在教养课上采取(1)优先学习拼音。即使拼音学完，在进入新课时也要先讲生词的拼音，以拼音带动内容。韩国学生有英语基础对拼音没有距离感。(2)语法学习不讲太深，太广。例如："你几岁了？"，"你多大了？"，"您多大年纪了？"三个问题，我们只选"你多大了？"，其它问句提及就行。练习时围绕"你多大了？"进行。(3)汉字学习以培养兴趣为主。教养课[1]汉字学习绝非首要任务。教汉字时

可以按照造字法规则讲解，也可以让学生利用发散性思维，天马行空想象。例如：教“吃”这个字，可以给学生展示张图片(如图1)。

图1

教师先讲解“嘴”可表示为“口”，右边的“面”可表示为“乙”，而上面的两根筷子可表为“撇横”。学生很容易记住。接下来让学生看图想一个记住“吃”字的方法。有学生提出“吃”字和韩国语草书“먹”字很像，记忆效果也不错。此法借鉴了别红樱等(2015)中提及的发散识记法。发散识记法是所有汉字识记方法的汇总。在众多方法中此法有利于调动学习积极性，改善课堂环境。

又比如“宿舍”这个词。教师可先将“宀”的意义告之学生。然后讲单人旁和“百”，即“一百个人在一个屋子里”，暗示学生这里是集体宿舍。“舍”字可这样讲：“一百个人在集体宿舍干什么呢？他们‘二’‘人’一组，在用叉子吃年糕。”顺便给学生看图2，代表“竖”和“口”字。

图2

“口”字为什么用“年糕”表示，因为“年糕”是韩国人日常熟悉的文化元素，便于记忆。以上几种方法均便于学习者接近汉字，趣味性会打消畏惧心理。讲解过程不一定非要使用造字法原理，原理到了中高级阶段再详细讲授亦无不可。李先银等(2015)在词语的展示与讲解部分提到了“讲”字四字诀，为别为精准易度。

精：就是精讲、少讲。

准：词语意译和用法可以精讲，但要说得对。

易：考虑学生水平，化繁为简。

度：考虑学生水平，注意讲解广度和深度。

学生们既然很想学习中文，那课前、课上、课后会有怎样的表现呢？接下来看一下预习情况。因为是教养课大部分学生并没有预习的习惯。63%表示完全不预习，32%表示一般。可以看出如果采用翻转教学，提前看视频的方法会遇到许多阻力。课后复习方面37%表示不复习，41%态度一般。如果将上课内容放到网上，让缺勤的学生学习时，50%表示欢迎，29%态度平平。21%表示拒绝。由此可见，教养课上翻转教学的理念可以借鉴，但设计一个以学生为中心的课堂时，细节上还需调整。

综上所述，教养课原则归纳如下。

1) 本文的教养课是选修性质、学习兩个学期。学期之间虽具连续性，但时间紧任务重。故将拼音作为首选，教学上口语先于书面语。“教养课汉字学习绝非首要任务”是基于所处环境而言，限于笔者判断，而非共识。

(1)趣味引导为主。旨在拉近距离，让学生没有畏惧感。为今后持续学习打下良好基础。

(2)了解学生需求。设计满足需求，提升学生综合能力的课堂。另外，问卷调查每学期开始前进行一次，或期中考试阶段进行。

(3)课堂上，教师是“谏言者”。引导学生，提高学生学习能动性，培养分析问题，解决问题的能力尤为重要。有句谚语说“老年人什么都相信，中年人什么都怀疑，年轻人什么都知道”。在传授知识点后，学生需要更多的是启发。

下面通过具体举例，讲解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流程。笔者愚见，还望各位老师予以斧正。

3. 以学生为中心的课堂设计

本节以助动词“能”、“要”为例，设计了一堂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课程时长50分钟。教师在导入和讲解部分主导课堂之后，接下来的环节将学习主动权交给学生。此时，教师并非局外人，而是走动协调，随时回答学生提问。同时，将事先准备好的学习资料和练习题发下去。

环节	教学目标	所需时间	教具
	助动词“能”、“要”	50分钟	
导入	1. 复习 2. 词汇发音练习 3. 短语练习 4. 课文(引出助动词)	6分钟	PPT 图片 视频
讲解	1. 解释助动词 2. 助动词“能”(例句、语法讲解) 3. 助动词“要”(例句、语法讲解)	9分钟	打印 资料
确认	1. 学生分组 2. 每组学生互相为组内其他成员讲解助动词“能”和“要”。发放打印资料。(意义、否定形、造句2个) 3. 直到小组所有队员都掌握。选出组长。	10分钟(±5分钟)	打印 资料
深化	1. 每组组长到其它组讲解。 (意义、用法、活用例句2个) 2. 其它组成员对来的组长进行评价。(记录下其它组例句、看看用法是否和自己小组学习内容一样) 3. 给其他组组长打分，并写明评分原因。组长拿到分数是其他组员的成绩。	10分钟(±5分钟)	视频 资料
活用	以小组为单位 1. 听，找出视频中顾客能买什么、要什么。 2. 说，说出听到所有带助动词的句子。 3. 读，造句念给老师听，跟老师读。 4. 写，根据场景，利用语法写出自己的述求。(可使用电子词典)	10分钟	PPT 视频 资料
总结	1. 指出学生病句。 2. 让学生写出这节印象深的部分，学到的东西。 3. 给自己组，每个成员打态度分，10分为满分。	5分钟	PPT

表一

以学生为中心的课堂上，教师和学生都是学习者。在教授完大纲要求的知识点后，教师和学生通过沟通讨

论，巩固知识点。采用表一所示的教学活动有以下目的：

(1)调动学习积极性，活跃课堂气氛。让紧张的学习变得愉悦，和身边的人沟通是不错的方法。

(2)培养沟通协作能力。许多学生叫不出同学名字，更有甚者连教师的名字都搞错。这会间接影响学习效果。此外，语言课沟通很重要，即使不学中文，沟通也是基本技能。

(3)培养学生责任感。组长或组员都有一定的责任在肩，学习会比以往认真。

以上是本课的设计初衷，在教学现场效果究竟如何，将学生写的总结整理如下(学生写的韩文翻译后归纳为表二)。

优点	不足
1. 不拘谨，能在放松的状态下学习。 2. 上课氛围明显改善。 3. 和同学沟通少，有点慌，后来渐入佳境，感觉很有趣。 4. 虽然小组活动很少参加，但感觉也不错。 5. 能以有趣的方式接触中文，虽然有难度，但熟悉后更好的了解了中国文化。 6. 中文很难，用这种方法能够让人集中精神，时间过得很快，很有意思。内容稍加努力也能背下来，无压力。评分公正。 7. 增进友谊，可以和别的组进行沟通，很有趣。难易度适中。 8. 贴近生活，难易度适中。 9. 印象深刻，希望去中国也能用到学习的句子。 10. 感受到了团队的力量。 11. 活动很好，和不熟悉的人一起学习当天的内容，学习速度变快了。希望经常有这样的活动。 12. 和组员一起学习新知识感到没有压力，氛围很好，学习过程愉快。	1. 相互评价分数不能相同，有高低之分，要选最高分，使人看脸色。 2. 不太容易给别人打分，评价。 3. 小组活动有点难，沟通之后还能接受。 4. 小组活动中的评分占比过大时会有心理压力。 5. 任务评分标准不清晰，学习好的学生没有得到应有高分。

表二

通过表二可以看出以学生为中心，课堂主动权让位于学生的课堂会提升学生满意度。存在的问题是打分环节没有向学生们交代清楚。分数不加到期末总成绩中，只是考察学生课堂参与度，算作学习态度分比较合适。此外课堂参考资料可以丰富，但练习资料不能过多。别红樱等(2015)提及先语后文，非常适合教养课的现状。另外，我们认为字词教学紧密集合效果会更好，教学路子灵活多样才能满足不同需求的学生。怎样才算以学生为中心，我们可以通过PJ・开普希等(2016)的对比表格(教师中心VS学生中心，表三)部分了解到。教师或学生为中心的教学模式并列，并没有哪种方法具有100%的优势，教学过程中根据学生情况，教学环境定夺。笔者之所以选择以学生为中心，是考虑到培养综合技能的同时使之正确理解中国文化，进而喜欢上中文。教师在其中较之帮忙打基础，更倾向于“向导、启蒙”的角色。

以教师为中心	以学生为中心
由教师向学生传输知识	学生通过收集和整合信息习得知识，并将这种方法用于钻研、交流、批判思维和解决问题等。
学生被动学习知识	学生主动参与
不强调在具体情境中运用知识	强调在真实生活场景中有效运用所学知识解决实际问题
教师的职责是信息的传播者和评判者	教师的职责是引导和激励，与学生共同评价学习效果
教学与评估体系分开	教学与评估体系是一体的
测试是为了监督学习	测试是为了促进学习，诊断问题出现在哪
强调得出正确的答案	强调提出更好的问题以及在错误中学习
通过打分测验间接评估是否达到学习目标	通过论文、学习项目、学习表现等直接评估是否达到学习目标
只关注某一学科	教学方法适合跨学科学习
学习氛围以竞争和个人发展为主	学习氛围是互助合作
只有学生被当做学习者	教师和学生一起学习

表三

结语

本文针对以学生为中心的教养课进行了课堂设计方面的尝试。篇幅受限很多部分未能展开。以学生为中心的课堂上，教师需要付出更多时间和精力去设计，去完善。但结果会是教学相长，从某种角度上来看也是素质教育，对今后就业也多有助益。以学生为中心的教学设计内容很庞杂，笔者愚见有许多不足之处需要今后不断学习提高。

参考文献

吕必松(2007)，≪汉语和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北京大学出版社.
柯慧俐(2009)，≪翻转课堂模式的中文教学研究≫，期刊：河北农机.
别红樱，黄柏林，王蕾(2015)，≪汉字教学方法与技巧≫，北京语言大学出版社.
李先银，吕艳辉，魏耕耘(2015)≪词汇教学方法与技巧≫，北京语言大学出版社.
PJ・开普希、托德・威特克尔(2016)，≪以学生为中心的翻转教学11法≫，中国青年出版社.
李泽宝(2018)，＜翻转课堂模式的中文教学研究＞，≪湖北开放职业学院学报≫，第31卷第23期.

특수 목적 중국어(CSP)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읽기 학습 모형 제안

이소현* · 한희창**

<目 次>

1. 서론
2. 특수 목적 중국어 교육
3. 학습자 요구조사

1. 서론

최근 한중관계는 훨씬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고 있으며, 중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중국어 교육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학에서의 중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2학년의 경우는 중국어 입문, 독해, 회화, HSK 등 일반 목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3~4학년에서는 무역, 호텔, 의료, 관광 등 전문화된 특수 목적의 교과목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은희, 박혜원 2014; 이소현 2019). 하지만 중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진로와 연관된 직업 목적의 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오늘날 외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이 대두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란,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 중 문서화된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외국어 교육의 '읽기'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무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중국어 교육에서 향후 읽기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 관련 특수 목적 중국어 교육을 정리하고 분류한 후, '중국어 읽기' 기능에 집중하여 분야별 교수-학습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고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방면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보다 미디어를 읽고 쓰는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영역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현장의 요구와 업무방식 변화도 학습자에게 전문화된 용어와 특수 어휘 활용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 사회, 직무 등의 변화에서 정보의 양과 접근성 등이 증가하면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읽기 능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 교수와 학습에서 읽기 기능은 말하기와 듣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 보다 학습의 기초에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윤현실 2007). 지금까지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에서 기존의 연구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최근 출판되는 교재도 회화와 말하기 능력 향상 위주로만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업시간에 상대적으로 읽기나 쓰기 교육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읽기 학습은 중국의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접목하여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의미뿐 아니라, 어휘와 문장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정보를 입력한 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여야 한다. David Nunan(1999)은 말하기와 달리, 읽기 기능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언어기능보다 읽기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하였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교육에 필요한 읽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말한다.

2. 특수 목적 중국어 교육

대학 3~4학년의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진로의 선택일 것이다. 사회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학습하는 일은 중국어 전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어교육에서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영어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수 목적 중국어도 특수 목적 영어에 기초를 두고 있다. Waters(1987)는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과학, 기술, 경제적인 활동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통용어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 ESP의 출현 배경으로 설명하였다(박현숙, 2015). 국내에서 ESP의 시작은 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영어를 모델로 시작되었고, 비즈니스 영어가 ESP의 첫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수 목적 중국어(Chinese for Specific Purposes: CSP)는 王若江(2003)이 CSP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단기 학습 교수를 위하여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그 특수성을 ESP 개념을 기초로 하여 특수 목적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张黎(2007)는 비즈니스 중국어 교과과정 연구하였고, 翟乃刚(2009)은 비즈니스 중국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중의학, 법률 등 전문적인 중국어의 범주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李泉(2011)도 CSP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CSP 분류를 재정립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특수 목적 중국어 교육의 발전과 필요성을 의미하며 또한 효과적인 특수 목적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학습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소현 2020).

특수 목적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장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직업별 교수-학습 하위능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으로 구성된다. 그 중, 문서이해능력은 읽기에 해당하며, 문서작성능력은 쓰기, 경청능력은 듣기, 의사표현능력은 말하기 기능에 해당한다.

문서이해능력이란 직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를 읽고, 문서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각종 문서와 자료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여 직무에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서에 나타난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추론해야 하고 도표와 기호 등을 이해하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분야에 직업과 관련된 문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러한 문서를 빨리 이해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느냐는 업무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 있기에 직무와 관련된 중국어 교육에도 문서이해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서이해능력의 학습내용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문서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 목적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분야별 문서이해능력, 즉 중국어 읽기 교수-학습 모

델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특수 목적 중국어, 중국어 읽기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국내 선행연구 목록(RISS)

구분	연구자	연구주제
특수 목적 중국어 (CSP)	강지혜(2018)	마케팅 중국어 어휘 용어집 개발연구
	김기숙(2015)	업무목적 학습자를 위한 중급 비즈니스 중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방안 연구
	김승연(2020)	항공서비스관련학과 재학생을 위한 승무원 면접 중국어 교재 개발 연구
	박은영(2018)	치과 종사자를 위한 초급 중국어 회화 교재 개발 연구
	신재현(2020)	군사중국어 교육 강화방안 연구
	안서현(2017)	호텔종사자를 위한 특수목적 중국어 교재 개발 방안연구
	안지현(2019)	해양경찰 실무 중국어 교재 설계
	이소현(2020)	특수 목적 중국어 교수요목 설계연구
	이은화(2019)	의료관광 중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 항목 연구
	조은상(2018)	항공중국어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및 교재 분석
	천보미(2015)	초급의료관광 중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최연우(2018)	NCS 학습모듈을 적용한 항공중국어 교재 개발 연구
	최현미(2016a)	특수목적 중국어 교육현황 및 효과적인 수업설계에 대한 고찰
	최현미(2016b)	NCS에 근거한 특수목적중국어 교재의 직무 적합도 분석 연구
	황지유(2018)	NCS기반 관광중국어 회화 교육과정 개발 모색
중국어 읽기	김선아(2010)	인터넷 중국어 신문을 활용한 중국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김지연(2003)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중국어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김호(2010)	중국어 교과과정에서의 읽기 교육에 관한 일고
	류지영(2015)	중국어 읽기 과제별 문항 분석 및 설계
	박덕준(2003)	웹기반 중국어 읽기 전략
	박봉순(2012)	영화를 활용한 중국어 읽기 교육
	박찬욱(2012)	중국어읽기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불렌디드 러닝을 중심으로
	백승아(2007)	중급 중국어 읽기 교재분석과 읽기 단계별 모형 설계
	신경선(2011)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과 중국어 읽기 수업을 위한 설계
	윤현실(2007)	중국어읽기 능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연구
	이미현(2009)	문학텍스트를 활요한 중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이소라(2019)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대학생 중국어읽기 부교재 개발연구
	임연정(2015)	한국대학생의 중국어 읽기 불안 분석 연구
	임연정(2019)	국내 중국어 읽기 교재의 읽기 전 활동 분석 연구
	왕정(2011)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음소 및 형태소 인식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은영(2017)	중국어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 설계와 결과분석
	최윤경(2014)	스마트폰을 활용한 중국어 읽기 녹음과제 학습모형의 적용과 평가
	최윤경(2015)	중국어 읽기과제가 기억전략 및 인지전략에 미치는 영향
	최현미(2014)	신문기사를 활용한 읽기, 쓰기 통합 수업안 설계 고찰
	한주연(2008)	협동학습을 활용한 중국어 읽기, 쓰기 통합교육 연구

특수 목적 중국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교재개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수업설계와 관련된 연구는 최현미(2016a)가 있지만, 전문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 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교재 개발 관련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NCS 학습모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비즈니스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특수 목적 외국어 연구가 시작되기 전 단계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 중국어 관련 선행연구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어 읽기 학습에 관련된 연구로는 박찬욱(2012)의 블랜디드 러닝을 토대로 한 읽기 수업 개선방안 등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 목적 중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웹과 스마트 폰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안 연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특수 목적 중국어를 위한 수업 모형이 필요하며, 직무와 진로를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중국어 읽기'관련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3. 학습자 요구조사

수업 모형은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체계화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수-학습 모델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업 목표 도달을 위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분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전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외국어의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네 가지의 기능 중에서 읽기 학습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연구 시행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년, 2017년, 2018년 총 6학기 동안 부산의 B대학 중국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목적 중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독해(18명), 중국어 작문(22명), 중국어 회화(18명)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 총 58명이다. 특수 목적 중국어 학습자는 비즈니스 중국어(24명), 관광 중국어(12명), 호텔 중국어(11명)으로 총 47명이다. 총 105명의 설문지를 확인한 결과, 8명의 부적합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97명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을 통해 특수 목적 중국어와 일반 목적 중국어 학습 실태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2〉 목적별 중국어 기능 중요도(N=97)

구분	과목 분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전체
일반 목적 중국어	독해	1	3	8	4	16
	작문	3	5	4	8	20
	회화	4	11	3	0	18
	소계(%)	8 (14.8)	19 (35.2)	15 (27.8)	12 (22.2)	54 (100)
특수 목적 중국어	비즈니스	4	5	8	4	21
	관광	1	8	2	1	12
	호텔	2	7	1	0	10
	소계(%)	7 (16.3)	20 (46.5)	11 (25.6)	5 (11.6)	43 (100)
합계(%)		15 (15.5)	39 (40.2)	26 (26.8)	17 (17.5)	97 (100)

<표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말하기의 기능은 일반 목적(35.2%)과 특수 목적(46.5%)로 두 분야에서 모

두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듣기 기능은 일반 목적 27.8%, 특수 목적 25.6%로 97명의 학습자들 모두 말하기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읽기 기능과 쓰기의 기능의 백분율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읽기 기능은 의사소통 네 가지의 기능 중에서 학습자들에게 큰 기능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 목적 중국어로 분류된 과목에서 쓰기는 22.2%로 나타났고, 읽기는 제일 마지막인 14.8%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수 목적 중국어로 분류된 과목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다음으로 읽기가 16.3%로 나타났고, 쓰기 기능이 11.6%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인원수를 살펴보면, 관광과 호텔 서비스 관련 과목의 학습자들은 말하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관련 과목의 학습자들은 듣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중국어 읽기 학습에 대한 필요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사전 조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중국어 읽기 학습에 대한 인식 및 실태(N=97)

구분	과목 분류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일반 목적 중국어	독해	6	9	1	0	0
	작문	6	11	3	0	0
	회화	10	8	0	0	0
특수 목적 중국어	비즈니스	8	11	2	0	0
	관광	5	7	0	0	0
	호텔	2	5	3	0	0
합계(%)		37 (38.14)	51 (52.58)	9 (9.28)	0	0

<표3>을 보면, 과목 분류와 무관하게 중국어 학습자 모두 중국어 읽기 학습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기능에서 가장 필요한 학습 내용과 이유로는 어휘력, 발음과 성조 등의 유창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필요성을 밝히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습자들이 중국어 읽기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사소통능력에서 말하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읽기 관련 학습 모형의 선행 연구과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특수 목적 중국어에 적합한 중국어 읽기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수업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효율적인 방안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对韩汉语教材中的语气词“呢”

孙 贞*

<目 次>

1. 前言
2. 关于“呢”的语义、用法、功能
3. 对外汉语教材中的“呢”
4. 存在的问题及对策

1. 前言

“呢”从词性上来讲，隶属于助词，一般认为既有动态助词的功能，也有语气助词的功能。无论做动态助词还是语气助词，都在表达说话人的某种主观情态，即语气，也有将这类词统称为“语气词”的。“呢”是现代汉语中使用频率较高的语气词，其意义比较复杂，且较为空灵，不仅可以用来表达说话者的肯定、夸耀、疑问、询问、不满、反诘等多种语气，而且可以帮助听话者在不同的语境中来推敲或把握说话人语气和态度。它的多样性和复杂性，“意会易而言传难，感知易而界定难，使用易而辨析难，体悟易而验证难(赵春利2020)”使得语气词成为一个“不容易说清楚的问题”。另一方面现在汉语教材以及语气词教学也不十分完善，存在很多的问题，使得学习者在使用语气词时难度较大偏误较多。因此，在以教授学生学会用汉语表达为目的的对外汉语教学中，如何学好语气词就成了相当重要的一个问题。而在非母语习得环境下，韩国学习者的二语输入主要来源于教科书及课程教学，因此教材对语气词的习得至关重要。

本文将在总结“呢”的语义、用法和功能的基础上，挑选几部韩国出版的汉语教材，包括两部国内编写的中文教材和两部韩国本土汉语教材进行调查研究，对比分析目前韩国的几部汉语教材中，出现的“呢”的语法点，和相关用法的解释说明，并据此提出教材编写及教学的对策，希望能对韩国的汉语教学起到促进作用 。

2. “呢”的语义、用法和功能

≪现代汉语词典(第六版)≫对“呢”作如下定义：助词，① 用在句中表示停顿；② 用在陈述句的末尾，表示动作或情况正在继续；③ 用在陈述句的末尾，表示确认事实，使对方信服(多含夸张的语气)；④ 用在疑问句(特指问、选择问、正反问)的末尾，表示提醒和深究的语气。

≪现代汉语八百词≫对“呢”的用法归纳如下：① 表示疑问，用于是非问句以外的问句；② 指明事实而略带夸张；③ 用在叙述句的末尾，表示持续的状态，常和“正、正在、在(那里)”或“着”等相搭配；④ 用在句中停顿处。

从这两本常用的工具书来看，“呢“既可以出现在句中，也可以出现在句尾；既可以用在陈述句中，也可以用于疑问句里，“呢”可以表达多种语气。只是对于“呢”在疑问句中是否表示疑问的看法不同，这也反映了语法界对“呢”的两种截然不同的观点。一种观点是：“呢”在疑问句句末有表示疑问的功能，是疑问语气词。另一种观点

* 圣洁大学

是："呢"在疑问句句末未负载疑问信息，表示提醒和深究的语气，不是疑问语气词。认为语气词"呢"不是疑问语气词观点的学者主要有：胡明杨、金立鑫、张伯江、邵敬敏等；而认为语气词"呢"是疑问语气词的观点的学者主要有陆俭明、齐沪扬，康亮芳、申莉等。

在特指疑问句、选择疑问句、正反疑问句、反问句中，如下面这几句中，去掉"呢"，句子表示疑问的语气并没有变，也就是说"呢"实际上是一种羡余信息。两方都认为"呢"并不负载疑问功能，只是起到了加强疑问语气的功能。

(1) 你到哪儿去了呢？
(2) 明天是你去呢？还是我去呢？
(3) 这样说对不对呢？
(4) 没有平地，哪里会有高山呢？

两种观点交锋的焦点集中于在省略问句(truncated question)中，"呢"是否表示疑问信息。如例(5)：

(5) 女客：她呢？
男客：她？她去叫巡警了。(丁西林≪压迫≫再引自陆俭明1984)

陆俭明在≪现代汉语里的疑问语气词≫中认为"W+呢+升调"这种句式中，"呢"负载了疑问信息；而邵敬敏在≪现代汉语里的疑问句研究≫中针对这种句式提出反驳，认为当"呢"出现在"W+呢+升调"句式中时，其功能时将这种疑问句同不带"吗"的是非问句从形式上予以区别，它对句子的疑问性质不起决定作用，也不负载疑问信息，语境才是负载疑问的主要因素，认为在陆文中提到的例句，在去掉句末语气词"呢"后仍然具备疑问的功能，至于是是非问句还是特指问句，则要看上下文的语境。金立鑫≪关于疑问句中的"呢"≫一文中对邵文补充道：

(6) 你的这本词典呢?

如果没有语境的话，既可以表示"在哪儿买的？"，也可以表示"多少钱"等多种疑问，结论是不用"呢"是自由的，无条件的，无论有没有前提，有没有条件，问句都可以不用"呢"，所以"呢"不是一个疑问语气词。

本文也赞同胡名杨、邵敬敏、金立鑫的观点，严格来说，"呢"并不负载疑问功能。但是在对外汉语教学中，是否要写明"呢"不具有疑问功能，还是有商榷的余地的。

第二个问题是，如果不负载疑问信息，那么"呢"在句中的语法功能是什么呢？ Li 和 Thompson(1981)、胡明扬(1981)、邵敬敏(1989)、Wu(2005)等都认为"呢"的功能在于提请听话人注意。邵的看法是"呢"在陈述句中表示"提醒"，在非是非问句中表示进一步的提醒兼深究，在非是非问句的简略式中还兼"话题"标志作用。我们认为除了提醒和深究外，"呢"也带有"和缓语气"的作用。如：

(7a) 谁在教室里呢？　　(7b) 谁在教室？

无论要求对方回答还是自问自答的句子，a句听起来比都要比b句更和缓些。

综合上述观点，我们可以得出"呢"用于非疑问句的情况和非是非问句中句法功能和情态功能。如表1：

分类 / 句型		位置	语义、句法功能	情态功能
陈述句		用于句中	表停顿，也可作话语标记 为了引起注意、提醒、例举或假设某种情况等，说话人常借助语气词稍作语气停顿。	肯定、提醒，对比
		用于句尾	确认事实，略带夸张	表示肯定、确认事实，表夸张、赞叹、嫌恶等
		正(在)……呢	表持续，时体标记，有完句功能	提请注意当时当地(here andnow)的行为或状态的语境中浮现出来的意义
非是非问句	省略疑问句	句尾	根据语境决定疑问，如前面同样的问题，怎么样，在哪里等	提醒，要求互动
	特指疑问句	句尾	去掉“呢“不影响语义	或加强语气，或缓和语气，提起注意，要求互动
	正反疑问句	句尾	去掉“呢“不影响语义	表示追究、求解，要求听话人做出肯定或否定的回答，并提醒听话人注意
	选择疑问句	第一个选择项后或其它选择项后	去掉“呢“不影响语义	提起注意，语气缓和，要求互动
	反问句	句尾 难道+	去掉“呢“不影响语义	表示追究，加强反问
感叹句		句尾 可(才/还)……呢	去掉“呢”不自然	表示感叹、夸张

表1

母语使用者最常用哪一种用法“呢”呢？我们对北京语言文化大学语料库的“呢”做了一个穷尽性调查[1)]，发现“呢”用在疑问句中的频率具有绝对的优势，其次是用于陈述句尾，再次是感叹句和陈述句中，后三种语气中结果类似。疑问句中与各种疑问词共现的比例也非常高，占到一半以上。“名词/代词+呢？“这种省略疑问句出现在疑问句中接近30%。

3. 韩国汉语教材中的“呢”

前一节是关于汉语本体研究的状况，这一节考察对外汉语教学中的要求和用法。根据[2)]≪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呢”的语法点分布在甲级、丙级和丁级，其中大部分要求在初级阶段掌握，如在特指问句、省略问句、陈述句中表进行的用法，反问句或“还 NP 呢”是中高级。

此外，最新的≪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常用语法项目表中，“呢”的语法点分别出现在一级、三级、四级中：一级 -- 用吗、呢、吧的一般疑问句；三级 -- 主语+正+动词短语+ 呢；四级 --“还没 VP 呢”(他们还没下班呢)

综合两个大纲的要求，我们将“呢”的用法细化简化如下[3)]：

1) 对北京语言文化的语料库调查采用“呢～+，。？！”的搜索方式。“呢～+？”的结果为451856次，“呢～+！”出现96901次，“呢～+，”出现98389次，“呢～+。”出现96014次。“还是～+呢”出现19446次。“正在/正/在～着+呢”共22956次。

2) 甲级(1)助词：①动态助词“呢”；②语气助词“呢”。(2)用“疑问代词的问句+呢”提问。(3)用语气助词“呢”提问。(4)进行态：动/形+呢 正(在)+动/形+(着)呢：乙级／五 丙级(1)助词：……着呢。(2)反问句：丁级(1)反问句：(2)口语格式：还 NP 呢。

3) 用在句中表示停顿(兼作话题标记)和用于感叹句中(表示惊讶感叹等的用法)没有列入大纲中

1 用于省略疑问句，w＋呢，根据语境表示不同的疑问；
2 特指疑问句中，加强追究的语气，或使语气变得舒缓；
3 用于正反疑问句，表示追究、求解；
4 用于选择疑问句，加强追究的语气，或使语气变得舒缓，希望得到互动；
5 用于反问句，加强追究的语气，或使语气变得舒缓；
6 用于陈述句中尾，表示动作或情况正在继续；
7 用在陈述句的末尾，表示确认事实，或略带夸张；
8 “还 NP 呢”；
9 “还没 VP 呢”。

那么大纲所要求的“呢”的语法点，是否在汉语教材中贯彻了呢？由于“呢”出现的口语的频率较高，我们主要选取口语教材进行调查。分别选取韩国使用较多的国内编写的≪汉语口语速成≫(신공략 중국어)(以下简称“汉语速成”)系列教材，≪汉语口语教程≫(한어구어，以下简称“汉语教程”)系列教材、以及本校一、二年级初中级汉语阶段使用的两套韩国本土系列教材≪쉽게 배우는 차이나로 중국어회화≫(以下简称‘汉语会话’)≪스마트중국어≫(简称‘智慧汉语’)中“呢”的语法点出现的情况作了调查，调查结果如下表２.

类型 / 四套教材	省略疑问	陈述句尾表持续进行	陈述句尾表提醒夸张互动	反问	特指疑问句	其它(正反问句、选择问句、陈述句中列举等)	合计
汉语会话	5	3	2	1	无	无	11
智慧汉语	3	3	7	1	4	还不～+呢 1 才～+呢 1	20
汉语教程	9	9	２０	１０	7	还没～+呢 1 才～+呢 1	57
汉语速成	１６	4	7	5	１９	还没～+呢 1 正反４，选择２，句中表列举１	59

表2

在这四本教材中，整体看，≪汉语口语速成≫和≪汉语口语教程≫中出现的“呢”次数较多，其语法点覆盖也较为全面，而韩国本土编写的两套系列教材的 “呢”的语法点比较单一。综合这四套教材，关于“呢”的语法点的分布的共同点如下：

(1) 四套教材一致性地先展示了省略疑问句，其次是陈述句中表持续进行的用法；
(2) 对这两种语法点，四本教材都做了一定的语法说明与解释；
(3) 四本教材中都出现了陈述句句尾和反问句中的”呢”的形式

四套教材的差别之处在于：

(1) 韩国本土编写的两套教材，“呢”出现的类型、次数、频率都明显低于中国国内编写的两套教材；
(2) 汉语会话、智慧汉语、汉语教程这三套教材，都写明“呢”是疑问助词，只有汉语速成解释了出现的条件和语义，没有提及“呢”是否为疑问语气词。

(3) 关于“呢”出现的类型数为：汉语会话 < 智慧汉语 < 汉语教程 < 汉语速成。其中汉语速成几乎涵盖了所有“呢”的语法功能。

四套教材共同存在的问题：

(1) 不够系统，基本属于随机的编排语气词的使用方法；
(2) 除了省略问句出现的次数多以外，其它语法功能都存在着复现率不足的问题；
(3) 说明与解释都存在不足，只有省略问句和表持续进行的“呢”有解释说明；
(4) 相应的练习题严重不足，尤其是关于语气词辨别的练习几乎没有；
(5) 对于用“呢“与不用”呢“的差别，对语气词“呢”的韩语释文都缺乏说明；
(6) 对于“呢、吗、吧、啊”语义和语法功能有交叉的部分，缺乏对比说明；
(7) 有关“呢”的语法研究成果未能有效地转为教学内容。

4. 教材编写及教学建议

综前所述，目前教材及教学中存在的问题是导致韩国学习者习得语气词“呢”的重要因素之一，为了更好的提高习得效率，我们提出以下几点建议：

1 注意语气词的系统性，这几套教材对包括“呢”在内的处理都是比较简单随意的，没有系统性和连贯性，如果能根据语气词的难易度做一个循序渐进的规划的话，效果会比较好。

2 加强对比，这几套教材都在韩国广泛使用，但对于汉语语气词在翻译时与之对应的韩语句型没有说明；对几组容易混肴的语气词，也缺乏对比说明。

3 增加练习，除了说明解释不足之外，练习更是少之又少，这和语气词高频率的出现是不符的。

4 “呢”的意义与用法抽象复杂，一些语法点较难解释。可以通过某些固定的结构和句型的标记来帮助理解“呢”，比如“呢”出现在“正/在/正在……呢”、“着呢/着……呢”等结构里表持续进行、“还……呢”表嫌恶，“怎么……呢”表反问这样的固定结构对于习得“呢”是有很大帮助的。

课堂是学生学习的主要场所，而教材是留学生学习的主要工具，教材编写的好坏直接影响习得的效果。希望能促进教材的改进和完善，达到最佳教学效果。

参考文献

胡炳忠(1989), <有关“ 呢”的两个问题>, ≪语言教学与研究≫, 1989：2, 76-86。
胡明亮(2014), <从句法、语义和语用分析语气词“呢”>, ≪忻州师范学院学报≫, 2014：8, 45-49。
李蓉若(2011), <“吗”、“呢”、“吧”在疑问句中的分布与回答方式>, ≪科教导刊(中旬刊)≫, 2011, 152-158。
高亮(2019), <普通话儿童句末语气助词的习得研究>, ≪中国语文≫, 2019：6, 675-692。
卢福波(1996), ≪对外汉语教学使用语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39。
陆俭明(1984), <关于现代汉语里的疑问语气词>, ≪中国语文≫, 1984：5, 170-175。
吕叔湘(2012),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齐沪杨(2002), <“呢”的意义分析和历史演变>, ≪上海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2: 1, 34-44。
孙占锋(2008), <谈“吧”与“呢”的主观量差异>, ≪廊坊师范学院学报≫, 2008: 1, 32-35。
屈承熹(1986), <语用学与汉语教学 — 句尾虚词“呢”跟“呸”的研究>, ≪中南民族学院学报≫, 1986: 3, 28-37。
王新(2020), <“还NP呢”构式的评价功能>, ≪北京化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0: 2, 88-93。

周小兵等(2017), ≪外国人学汉语语法偏误研究≫,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邵敬敏(1989), <语气词“呢”在疑问句中的作用>, ≪中国语文≫, 1989: 3, 76-85。
赵春利(2020), <汉语句末助词研究的方法论思考>, ≪汉语学报≫, 2020: 2, 44-56。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2012), ≪现代汉语词典(第六版)≫, 北京: 商务印书馆。